學術調査報告 第100册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地區 試·發掘調査 報告書-

〈본문 1〉

2009

京 畿 文 化 財 團
京畿文化財研究院
京 畿 都 市 公 社

여 백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地區 試·發掘調査 報告書-

〈 본문 1 〉

2009

京 畿 文 化 財 團
京畿文化財研究院
京 畿 都 市 公 社

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안성 공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의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2.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는 경기도시공사 제공 1:1,200지형도를 판형에 맞게 축소한 것이며,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 유적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1:25,000 지형도를 판형에 맞게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3.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의 크기에 따라 1/30, 1/40, 1/50을 기준으로 하였고, 주공군 등 규모가 큰 유구는 1/100로 하였으며, 각 도면 하단부에 축소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5. 유물도면의 축소비율은 토기류와 자기류는 1/3, 석제품이나 금속류는 1/2, 기와는 1/4, 구슬이나 동전 등 소형유물은 실제 크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형 토기나 대형 석기류, 구석기유물은 축소비율을 달리하였다. 각 도면에 축소비율을 표시하였다.
6. 유구도면에서 적색( )으로 망처리 한 부분은 아궁이를 나타내며 황색( )으로 망처리한 부분은 노지를, 회색( )으로 망처리한 부분은 소토를 나타낸다.
7. 주거지의 단면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주공이나 저장공은 단면기준선을 지나지 않지만 유구의 이해를 돕기위해 표시하였다.
8. 유구의 토층도와 단면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9. 유구 평면도상의 원문자는 본문의 유물설명번호와 일치한다.
10. 器高는 중심축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11. 유물기술은 한점씩 개별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석제품과 관정은 표로 처리하였다.
12. 유물의 색조는 토기의 경우 新版土色帖(일본색채연구소, 1997)을 참고로 하였으며, 기타 유물의 경우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차 례

〈 본 문 1 〉

Ⅰ. 머 리 말 ····· 23

Ⅱ. 自然 및 考古歷史 環境 ····· 29
1. 自然環境 ····· 29
2. 考古歷史環境 ····· 35

Ⅲ. 遺蹟의 地形 및 層位 ····· 41
1. 유적의 지형 및 구분 ····· 41
2. 각 지점 지형 및 층위 ····· 42

Ⅳ. 調査內容 ····· 47
가. 1지점 ····· 47
나. 2지점 가구역 ····· 48
A. 구석기시대 갱신세층 ····· 48
B. 청동기시대 ····· 52
1. 주거지 ····· 52
1) 1호 주거지 ····· 52
2) 2호 주거지 ····· 58
2. 지석묘 ····· 62
1) 1호 지석묘 ····· 62
3. 석관묘 ····· 65
1) 1호 석관묘 ····· 65
2) 2호 석관묘 ····· 66
3) 3호 석관묘 ····· 66
4) 4호 석관묘 ····· 68
5) 5호 석관묘 ····· 69
C. 조선시대 이후 ····· 70
1. 주거지 ····· 70

1) 1호 주거지 ····· 70
2) 2호 주거지 ····· 72
3) 3호 주거지 ····· 74
4) 4호 주거지 ····· 78
5) 5호 주거지 ····· 81
6) 6호 주거지 ····· 86
7) 7호 주거지 ····· 88
2. 수혈 ····· 92
1) 1호 수혈 ····· 92
3. 토광묘 ····· 93
1) 1호 토광묘 ····· 93
2) 2호 토광묘 ····· 95
3) 3호 토광묘 ····· 95
4) 4호 토광묘 ····· 95
5) 5호 토광묘 ····· 96
6) 6호 토광묘 ····· 96
7) 7호 토광묘 ····· 96
8) 8호 토광묘 ····· 98
9) 9호 토광묘 ····· 98
10) 10호 토광묘 ····· 98
11) 11호 토광묘 ····· 100
12) 12호 토광묘 ····· 100
13) 13호 토광묘 ····· 100
14) 14호 토광묘 ····· 102
15) 15호 토광묘 ····· 102
16) 16호 토광묘 ····· 103
17) 17호 토광묘 ····· 103
18) 18호 토광묘 ····· 103
19) 19호 토광묘 ····· 105
20) 20호 토광묘 ····· 105
21) 21호 토광묘 ····· 105
22) 22호 토광묘 ····· 197
23) 23호 토광묘 ····· 107

24) 24호 토광묘 ····· 107
25) 25호 토광묘 ····· 109
26) 26호 토광묘 ····· 109
27) 27호 토광묘 ····· 109
28) 28호 토광묘 ····· 109
29) 29호 토광묘 ····· 111
30) 30호 토광묘 ····· 111
31) 31호 토광묘 ····· 111
32) 32호 토광묘 ····· 112
33) 33호 토광묘 ····· 112
34) 34호 토광묘 ····· 112
35) 35호 토광묘 ····· 114
36) 36호 토광묘 ····· 114
37) 37호 토광묘 ····· 114
38) 38호 토광묘 ····· 116
39) 39호 토광묘 ····· 116
40) 40호 토광묘 ····· 116
41) 41호 토광묘 ····· 116
42) 42호 토광묘 ····· 117
43) 43호 토광묘 ····· 117
44) 44호 토광묘 ····· 117
45) 45호 토광묘 ····· 119
46) 46호 토광묘 ····· 120
47) 47호 토광묘 ····· 120
48) 48호 토광묘 ····· 120
49) 49호 토광묘 ····· 122
50) 50호 토광묘 ····· 122
51) 51호 토광묘 ····· 122
52) 52호 토광묘 ····· 124
53) 53호 토광묘 ····· 124
54) 54호 토광묘 ····· 124
55) 55호 토광묘 ····· 125
56) 56호 토광묘 ····· 125

57) 57호 토광묘 ····· 125
58) 58호 토광묘 ····· 127
59) 59호 토광묘 ····· 127
60) 60호 토광묘 ····· 127
61) 61호 토광묘 ····· 127
62) 62호 토광묘 ····· 129
63) 63호 토광묘 ····· 129
64) 64호 토광묘 ····· 129
65) 65호 토광묘 ····· 130
66) 66호 토광묘 ····· 131
67) 67호 토광묘 ····· 131
68) 68호 토광묘 ····· 131
69) 69호 토광묘 ····· 133
70) 70호 토광묘 ····· 133
71) 71호 토광묘 ····· 133
72) 72호 토광묘 ····· 135
73) 73호 토광묘 ····· 135
74) 74호 토광묘 ····· 135
75) 75호 토광묘 ····· 137
76) 76호 토광묘 ····· 137
77) 77호 토광묘 ····· 138
78) 78호 토광묘 ····· 138
79) 79호 토광묘 ····· 138
80) 80호 토광묘 ····· 140
81) 81호 토광묘 ····· 141
82) 82호 토광묘 ····· 141
83) 83호 토광묘 ····· 142
84) 84호 토광묘 ····· 142
85) 85호 토광묘 ····· 142
86) 86호 토광묘 ····· 144
4. 회곽묘 ····· 144
1) 1호 회곽묘 ····· 144
2) 2호 회곽묘 ····· 144

3) 3호 회곽묘 ····· 146
4) 4호 회곽묘 ····· 146
5) 5호 회곽묘 ····· 148
6) 6호 회곽묘 ····· 148
D. 지표수습유물 ····· 150
다. 2지점 나구역 ····· 158
A. 청동기시대 ····· 158
1. 수혈 ····· 158
1) 1호 수혈 ····· 158
B. 초기철기시대 ····· 159
1. 토광묘 ····· 159
1) 1호 토광묘 ····· 159
C. 통일신라시대 ····· 162
1. 주거지 ····· 162
1) 1호 주거지 ····· 162
2) 2호 주거지 ····· 165
2. 수혈 ····· 168
1) 1호 수혈 ····· 168
2) 2호 수혈 ····· 169
3) 3호 수혈 ····· 171
3. 굴립주 건물지 ····· 172
1) 1호 굴립주 건물지 ····· 172
2) 2호 굴립주 건물지 ····· 177
3) 3호 굴립주 건물지 ····· 179
4) 4호 굴립주 건물지 ····· 179
5) 5호 굴립주 건물지 ····· 183
6) 6호 굴립주 건물지 ····· 183
4. 우물 ····· 189
1) 1호 우물 ····· 189
D. 고려시대 ····· 192
1. 주거지 ····· 192
1) 1호 주거지 ····· 192
2) 2호 주거지 ····· 194

3) 3호 주거지 ····· 200
4) 4호 주거지 ····· 202
5) 5호 주거지 ····· 207
2. 수혈 ····· 211
1) 1호 수혈 ····· 211
2) 2호 수혈 ····· 215
3. 토광묘 ····· 215
1) 1호 토광묘 ····· 215
2) 2호 토광묘 ····· 217
3) 3호 토광묘 ····· 217
E. 조선시대 이후····· 20
1. 주거지 ····· 220
1) 1호 주거지 ····· 220
2) 2호 주거지 ····· 223
3) 3호 주거지 ····· 223
4) 4호 주거지 ····· 226
5) 5호 주거지 ····· 227
6) 6호 주거지 ····· 229
7) 7호 주거지 ····· 230
8) 8호 주거지 ····· 231
9) 9호 주거지 ····· 234
10) 10호 주거지 ····· 238
11) 11호 주거지 ····· 239
12) 12호 주거지 ····· 241
13) 13호 주거지 ····· 244
14) 14호 주거지 ····· 247
15) 15호 주거지 ····· 250
2. 야외노지 ····· 253
1) 1호 야외노지 ····· 253
2) 2호 야외노지 ····· 255
3. 토광묘 ····· 257
1) 1호 토광묘 ····· 257
2) 2호 토광묘 ····· 259

3) 3호 토광묘 ····· 259
4) 4호 토광묘 ····· 259
5) 5호 토광묘 ····· 261
6) 6호 토광묘 ····· 261
7) 7호 토광묘 ····· 261
8) 8호 토광묘 ····· 262
9) 9호 토광묘 ····· 262
10) 10호 토광묘 ····· 262
11) 11호 토광묘 ····· 264
12) 12호 토광묘 ····· 264
13) 13호 토광묘 ····· 266
14) 14호 토광묘 ····· 266
15) 15호 토광묘 ····· 266
16) 16호 토광묘 ····· 268
17) 17호 토광묘 ····· 269
18) 18호 토광묘 ····· 271
19) 19호 토광묘 ····· 273
20) 20호 토광묘 ····· 273
21) 21호 토광묘 ····· 274
22) 22호 토광묘 ····· 276
23) 23호 토광묘 ····· 276
24) 24호 토광묘 ····· 276
25) 25호 토광묘 ····· 276
26) 26호 토광묘 ····· 278
27) 27호 토광묘 ····· 278
28) 28호 토광묘 ····· 279
29) 29호 토광묘 ····· 279
30) 30호 토광묘 ····· 279
31) 31호 토광묘 ····· 281
32) 32호 토광묘 ····· 281
33) 33호 토광묘 ····· 283
34) 34호 토광묘 ····· 283
35) 35호 토광묘 ····· 285

36) 36호 토광묘 ····· 285
37) 37호 토광묘 ····· 286
38) 38호 토광묘 ····· 288
39) 39호 토광묘 ····· 288
40) 40호 토광묘 ····· 290
41) 41호 토광묘 ····· 292
42) 42호 토광묘 ····· 292
43) 43호 토광묘 ····· 292
44) 44호 토광묘 ····· 294
45) 45호 토광묘 ····· 294
46) 46호 토광묘 ····· 294
47) 47호 토광묘 ····· 295
48) 48호 토광묘 ····· 295
49) 49호 토광묘 ····· 295
50) 50호 토광묘 ····· 298
51) 51호 토광묘 ····· 299
52) 52호 토광묘 ····· 299
53) 53호 토광묘 ····· 299
54) 54호 토광묘 ····· 302
55) 55호 토광묘 ····· 302
56) 56호 토광묘 ····· 302
57) 57호 토광묘 ····· 304
58) 58호 토광묘 ····· 304
4. 회곽묘 ····· 305
1) 1호 회곽묘 ····· 305
F. 시대미상 ····· 306
1. 수혈 ····· 306
1) 1호 수혈 ····· 306
2) 2호 수혈 ····· 309
G. 지표수습유물 ····· 309
라. 3지점 ····· 316
A. 청동기시대 ····· 316
1. 주거지 ····· 316

1) 1호 주거지 ····· 316
2) 2호 주거지 ····· 320
3) 3호 주거지 ····· 323
4) 4호 주거지 ····· 329
B. 고려시대 ····· 331
1. 주거지 ····· 331
1) 1호 주거지 ····· 331
2) 2호 주거지 ····· 350
2. 주공군 ····· 353
1) 1호 주공군 ····· 353
3. 석곽묘 ····· 361
1) 1호 석곽묘 ····· 361
4. 토광묘 ····· 362
1) 1호 토광묘 ····· 362
2) 2호 토광묘 ····· 364
C. 조선시대 이후 ····· 365
1. 야외노지 ····· 365
1) 1호 야외노지 ····· 365
2) 2호 야외노지 ····· 366
3) 3호 야외노지 ····· 366
2. 토광묘 ····· 367
1) 1호 토광묘 ····· 368
2) 2호 토광묘 ····· 368
3) 3호 토광묘 ····· 369
4) 4호 토광묘 ····· 370
5) 5호 토광묘 ····· 370
6) 6호 토광묘 ····· 371
7) 7호 토광묘 ····· 372
8) 8호 토광묘 ····· 373
9) 9호 토광묘 ····· 373
10) 10호 토광묘 ····· 375
11) 11호 토광묘 ····· 375
12) 12호 토광묘 ····· 375

13) 13호 토광묘 ····· 377
14) 14호 토광묘 ····· 377
15) 15호 토광묘 ····· 378
16) 16호 토광묘 ····· 378
17) 17호 토광묘 ····· 380
18) 18호 토광묘 ····· 381
19) 19호 토광묘 ····· 382
20) 20호 토광묘 ····· 385
21) 21호 토광묘 ····· 387
22) 22호 토광묘 ····· 389
23) 23호 토광묘 ····· 389
24) 24호 토광묘 ····· 390
25) 25호 토광묘 ····· 391
26) 26호 토광묘 ····· 391
27) 27호 토광묘 ····· 392
28) 28호 토광묘 ····· 394
29) 29호 토광묘 ····· 394
30) 30호 토광묘 ····· 395
31) 31호 토광묘 ····· 396
32) 32호 토광묘 ····· 399
33) 33호 토광묘 ····· 401
34) 34호 토광묘 ····· 401
35) 35호 토광묘 ····· 402
36) 36호 토광묘 ····· 403
37) 37호 토광묘 ····· 403
38) 38호 토광묘 ····· 405
39) 39호 토광묘 ····· 405
40) 40호 토광묘 ····· 407
41) 41호 토광묘 ····· 407
42) 42호 토광묘 ····· 409
43) 43호 토광묘 ····· 409
44) 44호 토광묘 ····· 411
45) 45호 토광묘 ····· 413
46) 46호 토광묘 ····· 415

47) 47호 토광묘 ····· 417
48) 48호 토광묘 ····· 418
49) 49호 토광묘 ····· 419
50) 50호 토광묘 ····· 421
51) 51호 토광묘 ····· 421
52) 52호 토광묘 ····· 423
53) 53호 토광묘 ····· 424
54) 54호 토광묘 ····· 426
55) 55호 토광묘 ····· 428
56) 56호 토광묘 ····· 430
57) 57호 토광묘 ····· 430
58) 58호 토광묘 ····· 432
59) 59호 토광묘 ····· 432
60) 60호 토광묘 ····· 434
61) 61호 토광묘 ····· 434
62) 62호 토광묘 ····· 436
63) 63호 토광묘 ····· 436
64) 64호 토광묘 ····· 438
65) 65호 토광묘 ····· 440
66) 66호 토광묘 ····· 441
67) 67호 토광묘 ····· 442
68) 68호 토광묘 ····· 444
69) 69호 토광묘 ····· 446
70) 70호 토광묘 ····· 446
71) 71호 토광묘 ····· 447
72) 72호 토광묘 ····· 449
73) 73호 토광묘 ····· 449
74) 74호 토광묘 ····· 449
75) 75호 토광묘 ····· 451
76) 76호 토광묘 ····· 451
77) 77호 토광묘 ····· 453
78) 78호 토광묘 ····· 455
79) 79호 토광묘 ····· 455
80) 80호 토광묘 ····· 457

81) 81호 토광묘 ····· 457
82) 82호 토광묘 ····· 457
83) 83호 토광묘 ····· 459
84) 84호 토광묘 ····· 459
85) 85호 토광묘 ····· 461
86) 86호 토광묘 ····· 461
87) 87호 토광묘 ····· 461
88) 88호 토광묘 ····· 463
89) 89호 토광묘 ····· 463
90) 90호 토광묘 ····· 463
91) 91호 토광묘 ····· 465
92) 92호 토광묘 ····· 465
93) 93호 토광묘 ····· 465
94) 94호 토광묘 ····· 466
95) 95호 토광묘 ····· 466
96) 96호 토광묘 ····· 466
97) 97호 토광묘 ····· 468
98) 98호 토광묘 ····· 468
99) 99호 토광묘 ····· 468
3. 회곽묘 ····· 469
1) 1호 회곽묘 ····· 469
D. 지표수습유물 ····· 470
마. 4지점 ····· 본문2
바. 5지점 ····· 본문2
사. 6지점 ····· 본문2

Ⅴ. 考察 ····· 본문2

Ⅵ. 맺음말 ····· 본문2

부 록 ····· 본문2

도 면 차 례

〈 본 문 1 〉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 27
도면 2.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1:50,000) ····· 28
도면 3. 古地圖(海東地圖의 安城郡, 1750년대) ····· 31
도면 4. 古地圖(廣輿圖의 安城郡, 18세기) ····· 32
도면 5. 古地圖(大東輿地圖, 1851년) ····· 33
도면 6. 조사지역 古地圖(『京畿邑誌』, 1871년) ····· 34
도면 7. 조사지역 현황도(1:5,000) ····· 40
도면 8. 1지점 유구배치도(1:800) ····· 46
도면 9. 2지점 유구배치도(1:800) ····· 49
도면 10. 2지점 가구역 구석기 갱신세층 ····· 51
도면 11.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유구 ····· 53
도면 12.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55
도면 13.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57
도면 14. 2지점 가구역 청동기 2호 주거지 유구 ····· 59
도면 15. 2지점 가구역 청동기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61
도면 16.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유구(1차) ····· 63
도면 17.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유구(2차) 및 출토유물 ····· 64
도면 18.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주변 출토유물 ····· 67
도면 19.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2·3호 석관묘 유구 ····· 68
도면 20. 2지점 가구역 청동기 4·5호 석관묘 유구 ····· 69
도면 21. 2지점 가구역 조선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71
도면 22. 2지점 가구역 조선 2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73
도면 23. 2지점 가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75
도면 24. 2지점 가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77
도면 25. 2지점 가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유구 ····· 79
도면 26. 2지점 가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80
도면 27. 2지점 가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유구 ····· 82

도면 28. 2지점 가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85
도면 29. 2지점 가구역 조선 6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87
도면 30. 2지점 가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유구 ····· 89
도면 31. 2지점 가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출토유물 ····· 91
도면 32. 2지점 가구역 조선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 93
도면 33. 2지점 가구역 조선 1·2·3·4호 토광묘 유구 ····· 94
도면 34. 2지점 가구역 조선 5·6·7호 토광묘 유구 ····· 97
도면 35. 2지점 가구역 조선 8·9·10·11호 토광묘 유구 ····· 99
도면 36. 2지점 가구역 조선 12·13·14호 토광묘 유구 ····· 100
도면 37. 2지점 가구역 조선 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02
도면 38. 2지점 가구역 조선 16·17·18·19호 토광묘 유구 ····· 104
도면 39. 2지점 가구역 조선 20·21·22·23호 토광묘 유구 ····· 106
도면 40. 2지점 가구역 조선 24·25·26·27호 토광묘 유구 ····· 108
도면 41. 2지점 가구역 조선 28·29·30·31·32호 토광묘 유구 ····· 110
도면 42. 2지점 가구역 조선 33·34·35·36호 토광묘 유구 ····· 113
도면 43. 2지점 가구역 조선 37·38·39·40호 토광묘 유구 ····· 115
도면 44. 2지점 가구역 조선 41·42·43·44호 토광묘 유구 ····· 118
도면 45. 2지점 가구역 조선 4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19
도면 46. 2지점 가구역 조선 46·47·48·49호 토광묘 유구 ····· 120
도면 47. 2지점 가구역 조선 50·51·52·53·54호 토광묘 유구 ····· 123
도면 48. 2지점 가구역 조선 55·56·57·58·59호 토광묘 유구 ····· 126
도면 49. 2지점 가구역 조선 60·61·62·63호 토광묘 유구 ····· 128
도면 50. 2지점 가구역 조선 64·6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30
도면 51. 2지점 가구역 조선 66·67·68·69호 토광묘 유구 ····· 132
도면 52. 2지점 가구역 조선 70·71·72호 토광묘 유구 ····· 134
도면 53. 2지점 가구역 조선 73·74·7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36
도면 54. 2지점 가구역 조선 76·77·78·7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39
도면 55. 2지점 가구역 조선 80·81호 토광묘 유구 ····· 140
도면 56. 2지점 가구역 조선 82·83·84·85·8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43
도면 57. 2지점 가구역 조선 1·2호 회곽묘 유구 ····· 145
도면 58. 2지점 가구역 조선 3·4호 회곽묘 유구 ····· 147
도면 59. 2지점 가구역 조선 5·6호 회곽묘 유구 ····· 149
도면 60.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 151

도면 61.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 151
도면 62.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 154
도면 63.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 155
도면 64. 2지점 나구역 청동기 1호 수혈 유구 ····· 159
도면 65. 2지점 나구역 초기철기 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161
도면 66.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주거지 유구 ····· 163
도면 67.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4
도면 68.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주거지 유구 ····· 166
도면 69.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67
도면 70.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 169
도면 71.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 170
도면 72.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수혈 유구 ····· 171
도면 73.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 173
도면 74.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및 출토유물 ····· 174
도면 75.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 175
도면 76.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 176
도면 77.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출토유물 ····· 178
도면 78.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및 출토유물 ····· 180
도면 79.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 181
도면 80.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4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 182
도면 81.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5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 184
도면 82.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 185
도면 83.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6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 186
도면 84.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우물 유구 ····· 187
도면 85.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우물 출토유물 ····· 190
도면 86.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주거지 유구 ····· 193
도면 87.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94
도면 88.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유구 ····· 195
도면 89.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97
도면 90.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199
도면 91.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주거지 유구 ····· 201
도면 92.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203
도면 93. 2지점 나구역 고려 4호 주거지 유구 ····· 204

도면 94. 2지점 나구역 고려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206
도면 95. 2지점 나구역 고려 5호 주거지 유구 ····· 208
도면 96. 2지점 나구역 고려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210
도면 97.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수혈 유구 ····· 212
도면 98.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수혈 출토유물 ····· 213
도면 99.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수혈 유구 ····· 214
도면 100. 2지점 나구역 고려 1·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16
도면 101.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19
도면 102.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21
도면 103. 2지점 나구역 조선 2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24
도면 104. 2지점 나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25
도면 105. 2지점 나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유구 ····· 227
도면 106. 2지점 나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28
도면 107. 2지점 나구역 조선 6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29
도면 108. 2지점 나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유구 ····· 230
도면 109. 2지점 나구역 조선 8호 주거지 유구 ····· 231
도면 110. 2지점 나구역 조선 8호 주거지 출토유물 ····· 233
도면 111. 2지점 나구역 조선 9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35
도면 112. 2지점 나구역 조선 10호 주거지 유구 ····· 237
도면 113. 2지점 나구역 조선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 238
도면 114. 2지점 나구역 조선 11호 주거지 유구 ····· 240
도면 115. 2지점 나구역 조선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 241
도면 116. 2지점 나구역 조선 12호 주거지 유구 ····· 242
도면 117. 2지점 나구역 조선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 243
도면 118. 2지점 나구역 조선 13호 주거지 유구 ····· 245
도면 119. 2지점 나구역 조선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 246
도면 120. 2지점 나구역 조선 14호 주거지 유구 ····· 248
도면 121. 2지점 나구역 조선 14호 주거지 출토유물 ····· 249
도면 122. 2지점 나구역 조선 15호 주거지 유구 ····· 251
도면 123. 2지점 나구역 조선 15호 주거지 출토유물 ····· 252
도면 124.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54
도면 125. 2지점 나구역 조선 2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 256
도면 126. 2지점 나구역 조선 1·2·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58

도면 127. 2지점 나구역 조선 4·5·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60
도면 128. 2지점 나구역 조선 7·8·9·10호 토광묘 유구 ····· 263
도면 129. 2지점 나구역 조선 11·12·1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65
도면 130. 2지점 나구역 조선 14·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67
도면 131. 2지점 나구역 조선1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69
도면 132. 2지점 나구역 조선 1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70
도면 133. 2지점 나구역 조선 18·1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72
도면 134. 2지점 나구역 조선 2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74
도면 135. 2지점 나구역 조선 21호 토광묘 유구 ····· 275
도면 136. 2지점 나구역 조선 22·2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77
도면 137. 2지점 나구역 조선 24·25호 토광묘 유구 ····· 278
도면 138. 2지점 나구역 조선 26·27·28·29호 토광묘 유구 ····· 280
도면 139. 2지점 나구역 조선 30·3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82
도면 140. 2지점 나구역 조선 32·3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84
도면 141. 2지점 나구역 조선 34·35·36호 토광묘 유구 ····· 286
도면 142. 2지점 나구역 조선 37·38호 토광묘 유구 ····· 287
도면 143. 2지점 나구역 조선 3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289
도면 144. 2지점 나구역 조선 40·41·42호 토광묘 유구 ····· 291
도면 145. 2지점 나구역 조선 43·44·45·46호 토광묘 유구 ····· 293
도면 146. 2지점 나구역 조선 47·48호 토광묘 유구 ····· 296
도면 147. 2지점 나구역 조선 49호 토광묘 유구 ····· 297
도면 148. 2지점 나구역 조선 50·51호 토광묘 유구 ····· 298
도면 149. 2지점 나구역 조선 52호 토광묘 유구 ····· 300
도면 150. 2지점 나구역 조선 53·54·5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01
도면 151. 2지점 나구역 조선 56·57호 토광묘 유구 ····· 303
도면 152. 2지점 나구역 조선 58호 토광묘 유구 ····· 304
도면 153.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회곽묘 유구 ····· 305
도면 154. 2지점 나구역 시대미상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 307
도면 155. 2지점 나구역 시대미상 2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 308
도면 156.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 312
도면 157.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 314
도면 158.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 315
도면 159. 3지점 유구배치도(1:800) ····· 317

도면 160. 3지점 청동기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319
도면 161. 3지점 청동기 2호 주거지 유구 ····· 321
도면 162. 3지점 청동기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324
도면 163. 3지점 청동기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 326
도면 164. 3지점 청동기 4호 주거지 유구 ····· 327
도면 165. 3지점 청동기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330
도면 166.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유구(1차) ····· 332
도면 167.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유구(2차) ····· 333
도면 168.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34
도면 169.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37
도면 170.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38
도면 171.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40
도면 172.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42
도면 173.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44
도면 174.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46
도면 175.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 347
도면 176.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 348
도면 177.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 349
도면 178. 3지점 고려 2호 주거지 유구 ····· 351
도면 179. 3지점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352
도면 180.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평면도 ····· 354
도면 181.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토층 단면도 ····· 355
도면 182.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출토유물 ····· 357
도면 183.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출토유물 ····· 359
도면 184. 3지점 고려 1호 석곽묘 유구 ····· 361
도면 185. 3지점 고려 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63
도면 186. 3지점 고려 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64
도면 187. 3지점 조선 1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 365
도면 188. 3지점 조선 2·3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 367
도면 189. 3지점 조선 1·2호 토광묘 유구 ····· 369
도면 190. 3지점 조선 3·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71
도면 191. 3지점 조선 5·6호 토광묘 유구 ····· 372
도면 192. 3지점 조선 7·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74

도면 193. 3지점 조선 9·10·11·12호 토광묘 유구 ····· 376
도면 194. 3지점 조선 13·14·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79
도면 195. 3지점 조선 16·1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80
도면 196. 3지점 조선 1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82
도면 197. 3지점 조선 1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83
도면 198. 3지점 조선 2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86
도면 199. 3지점 조선 21·2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88
도면 200. 3지점 조선 23·24호 토광묘 유구 ····· 390
도면 201. 3지점 조선 25·2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92
도면 202. 3지점 조선 27·2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93
도면 203. 3지점 조선 2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95
도면 204. 3지점 조선 3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97
도면 205. 3지점 조선 3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399
도면 206. 3지점 조선 32·3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00
도면 207. 3지점 조선 34·3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02
도면 208. 3지점 조선 36·37·3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04
도면 209. 3지점 조선 39·4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06
도면 210. 3지점 조선 41·4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08
도면 211. 3지점 조선 4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10
도면 212. 3지점 조선 4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12
도면 213. 3지점 3지점 조선 4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14
도면 214. 3지점 조선 4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16
도면 215. 3지점 조선 4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18
도면 216. 3지점 조선 48·4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0
도면 217. 3지점 조선 50·5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2
도면 218. 3지점 조선 5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4
도면 219. 3지점 조선 5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5
도면 220. 3지점 조선 5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7
도면 221. 3지점 조선 55·5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29
도면 222. 3지점 조선 5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31
도면 223. 3지점 조선 58·59·6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33
도면 224. 3지점 조선 6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35
도면 225. 3지점 조선 62·6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37

도면 226. 3지점 조선 6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39
도면 227. 3지점 조선 6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41
도면 228. 3지점 조선 66·6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43
도면 229. 3지점 조선 68·6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45
도면 230. 3지점 조선 70호 토광묘 유구 ····· 446
도면 231. 3지점 조선 7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48
도면 232. 3지점 조선 72·73·74·75호 토광묘 유구 ····· 450
도면 233. 3지점 조선 7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52
도면 234. 3지점 조선 7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54
도면 235. 3지점 조선 78·79·8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56
도면 236. 3지점 조선 81·82·8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 458
도면 237. 3지점 조선 84·85·86호 토광묘 유구 ····· 460
도면 238. 3지점 조선 87·88·89·90호 토광묘 유구 ····· 462
도면 239. 3지점 조선 91·92·93·94호 토광묘 유구 ····· 464
도면 240. 3지점 조선 95·96·97·98호 토광묘 유구 ····· 467
도면 241. 3지점 조선 99호 토광묘 유구 ····· 468
도면 242. 3지점 조선 1호 회곽묘 유구 ····· 469
도면 243. 3지점 지표수습유물 ····· 471

Ⅰ. 머리말

경기도 안성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남부의 개발과 牙山灣圈 廣域開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뉴타운을 비롯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서쪽으로 연접한 평택시와 북쪽의 오산시를 포함한 주변지역 등 안성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구제 발굴조사로 인하여 많은 대규모 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다.

본 발굴조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京畿地方公社(現 경기도시공사)가 교통 및 기반시설이 우수한 안성 공도지역에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병행하여 이루어진 문화재 구제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용두리 385-3번지 일대 약 480,000㎡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포함한 고려시대 이후 유물이 수습된 유물산포지 6개소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상정하였다. 또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사지역 주변에는 구석기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 특히 최근 조사된 주변 5㎞내의 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고인돌·주거유적·분묘유적, 초기철기시대 주거유적·분묘유적·의례유적, 삼국시대 이후 관방유적, 고려시대 이후 유물산포지·주거유적·분묘유적 등 다양한 복합유적의 성격을 가진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

시굴조사는 2003년 8월 4일~2004년 1월 31일까지 고인돌 1기에 대한 발굴조사와 유물산포지 6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갱신세층, 주거지 및 분묘유적이 확인되어 6개 지점의 발굴조사와 1개 지점의 시·발굴조사 지역을 상정하였다.

발굴조사는 2004년 4월 1일 착수하여 2006년 2월까지 6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발굴면적은 122,804㎡로 1지점 8,995㎡, 2지점 34,623㎡, 3지점 31,992㎡, 4지점 22,310㎡, 5지점 19,799㎡, 6지점 5,085㎡이다.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격지),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및 분묘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통일신라시대 굴립주건물지·우물·주거지, 고려시대 주공군·주거지·분묘군, 조선시대 주거지 및 분묘군 등 다양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된 복합유적임이 밝혀져 향후 경기 남부지역의 고고학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사된 유구 중 중요유구는 문화재청의 이전복원 지시에 따라 5지점 조선시대 주거지 1기(17호), 4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2호)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 2지점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고인돌 1기, 석관묘 1기, 소형 화장묘 2기, 통일신라시대 굴립주건물지 1동, 고려시대 주거지 1기, 조선시대 주거지 2기, 3지점 청동기시대 원형주거지(송국리형)에 대하여 이후 해당 중요유구를 동 사업부지 내에 유적공원을 조성하였고,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1) 畿甸文化財硏究院·京畿地方公社, 2002, 『安城 孔道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기호문화재연구원·(주)경화엔지니어링, 2007, 『안성시 하수도시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성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安城市』.

조사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2월 23일 : 지표조사 착수
□ 2002년 5월 3일 : 지표조사 완료, 보고서 제출(고인돌 1기 발굴조사 및 유물 산포지 6개 시굴조사 상정)
□ 2003년 6월 23일 : 문화재청 시·발굴조사 허가
□ 2003년 8월 4일 : 시·발굴조사 착수(고인돌 1기, 유물산포지 6개 지점)
□ 2003년 12월 21일 :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개최(추가지점 포함 6개 지점 발굴조사 상정)
□ 2004년 1월 31일 : 시굴조사 완료
□ 2004년 4월 1일 : 발굴조사 착수
□ 2004년 9월 9일 :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개최
(5지점 도로개설구간 선조사 후 조사범위에 대한 부분해제·6지점)
□ 2004년 10월21일 : 6지점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및 5지점 도로확장구간 발굴조사 중간검토회 개최
(기록보존 후 공사 시행)
□ 2004년 12월 21일 :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개최(1지점·3지점 시굴조사·5지점)
5지점 조선시대 구들 주거지(17호) 이전 복원 결정, 3지점 발굴조사 범위 상정
□ 2005년 1월 7일 : 5지점 갱신세층 발굴조사에 대한 중간검토회 개최
□ 2005년 1월 21일 : 6지점 2차 지도위원회 결과보고
(1지점 기록보존 후 공사 시행, 3지점 전면 발굴조사, 5지점 갱신세층 두 번째 토양쐐기층 발굴조사 완료 후 공사 시행, 조선시대 점토 구들 주거지 이전 복원)
□ 2005년 3월 24일 : 1·3·5지점 조사완료, 2차 중간보고서 제출
□ 2005년 4월 27일 :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개최(3지점 선공사지역·4지점)
4지점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2호)·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이전 복원 결정
□ 2005년 8월 3일 : 발굴조사 4차 지도위원회 개최(2지점)
청동기시대 고인돌 묘역(고인돌, 석관묘 2기, 소형 석관묘(화장) 2기),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 1기 외 4기 이전 복원 결정
□ 2005년 12월 8일 : 발굴조사 5차 지도위원회 개최(3지점)
청동기시대 송국리유형 4주식 원형집자리 3D스캔 및 이전 복원 결정
□ 2006년 2월 16일 :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제출 및 행정처리 완료)
□ 2007년 12월 : 유적공원(청동기시대 전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분묘 중심) 준공

시굴조사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3)]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前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김 병 모 (고려문화재연구원장)
조 유 전 (前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現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3) 조사단의 소속과 직위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직을 명기하였다. 한편, 우리연구원도 시·발굴조사 당시에는 기전문화재연구원이었으나, 2008년 7월 24일자로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

이 남 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조 사 위 원 : 하 문 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 태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아 관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3팀장, 現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이 동 성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승 원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 정 철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진 영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기호문화재연구원 3팀장)
이 수 정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위촉연구원)

발굴조사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4)]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前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김 병 모 (고려문화재연구원장)
조 유 전 (前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現 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지 건 길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최 병 현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강 경 숙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배 기 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 창 균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 남 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하 문 식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 태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아 관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3팀장, 現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고 재 용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1팀장)
이 동 성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승 원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부 성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충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故 이 학 권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진 영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기호문화재연구원 3팀장)
이 강 호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위촉연구원, 現 기호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 수 정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위촉연구원)
황 원 남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촉연구원)
김 정 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現 충청대학 박물관 연구원)

---

4) 조사단의 소속과 직위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직을 명기하였다.

김 용 준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재학)
문 지 영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現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 은 경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재학, 現 충북대학교 대학원)
김 성 이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재학, 現 기호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장조사는 장경호의 책임하에 김성태가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였으며, 이동성이 현장책임을 담당하였다. 유구의 조사는 이동성·이부성·故이학권·이강호·김진영을 중심으로 황원남·김정연·김용준·문지영·김은경·김성이가 보조하여 실시하였다. 유구의 실측은 이수정·황원남을 중심으로 김정연·김용준·문지영·김은경·김성이가 이를 도왔으며, 사진촬영은 이부성·김진영이 전담하였다. 이외에도 박소연·김윤미·이지원(이상 동국대학교 사학과 재학생), 이경아·이동규·김용갑(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재학생), 전용호·류선미·김선혜·정다운·박햇님(경기대학교 재학생), 조은진(경원대학교 재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 발간은 김영화(유물관리팀장)의 총괄 아래 이동성과 강미숙이 실무를 담당하였고 조사1팀(팀장 고재용)이 지원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자료의 정리와 출토유물의 정리작업은 김영화가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였으며 황원남·문지영·권미경·오희순이 보조하였다. 유물의 실측과 제도, 탁본 등 전반적인 작업은 김유진(유물관리팀 위촉연구원),박혜정·문영옥·정정애·노영순·이필자·김영신·이혜림·백승실·이현경 등 유물관리팀 보조원들이 담당하였고 강미숙이 검토하였다. 사진과 유물도면의 편집은 김영화·강미숙·윤소영이 담당하였고 박혜정·문영옥·이암이가 보조하였다. 유구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지원·김국환(경기문화재연구원 위촉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금속유물의 보존처리는 김웅신·남성훈·양석우·정인경 등 보존과학팀에서 담당하였고, 유물의 사진촬영은 오세윤(사진작가)이 수고해 주셨다.

본문의 내용은 Ⅰ·Ⅱ·Ⅲ장은 이동성, Ⅳ장의 유구기술은 이동성·이부성(5지점)·이강호(4지점)·김진영(2·3지점 통일신라시대 유구 및 주공군)·황원남(6지점), 유물의 기술은 토·자기류 및 석제품·금속유물은 강미숙, 기와는 고재용, 구석기유물은 김남호(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대학원 구석기전공)가 담당하였고, Ⅴ장은 이동성·김진영·강미숙이 분야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Ⅵ장은 김성태(조사연구실장)가 기술하였고, 전체적인 교열은 고재용·김영화·김성태가 담당하였다.

자연과학적 분석은 회곽묘에서 출토된 인골분석을 박선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목재와 숯·관재·유기물의 수종분석 및 나이테분석을 박원규(충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고지자기분석을 성형미(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소형 석관묘 출토 화장뼈분석을 김재현(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AMS분석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가속기센터에서 맡아주셨다.

또한 발굴조사 기간 동안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기도시공사의 유병린(문화재팀장), 김대일(문화재팀 대리), 홍원의(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사), 임근애(안성시청 학예연구사), 현장조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경기도시공사의 남궁윤(단장), 박상욱(처장), 유용재(팀장), 안영대(소장), 한태영(대리), 현장을 방문하여 유적·유물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지건길(문화재위원),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팀장), 백종오(충주대학교 교수), 한준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진일(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자기유물 검토에 도움을 주신 강명호(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번 호	유 적 명
1	반제리 무문토기산포지
2	무한성
3	방신리 유물산포지
4	반제리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5	용두리 구석기 유물산포지
6	만정리 유물산포지
7	만정리 무문토기 산포지
8	만정리토성 및 만정리1 유적
9	진사리토성
10	승두리 고인돌
11	승두리 구석기유물산포지
12	승두리 유물산포지
13	양기리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14	마정리 유적(경기대박물관)

도면 2.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1:50,000)

Ⅱ. 自然 및 考古歷史 環境

1. 自然環境[5)]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는 經緯상 동경 127°07′~31′과 북위 36°09′에 해당하며, 면적은 약 552.79㎢에 이른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경기 남서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북으로 용인, 북동으로 이천, 서로 평택, 남으로 충청남도 천안, 남동으로 충청북도 진천·음성과의 왕래가 빈번하여 예로부터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상권이 발달한 고장이다.

지형은 중생대 쥐라기 이후 오랜 기간의 침식작용으로 100m 미만의 저구릉성 산지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m 내외의 산지가 주위로 형성되어 있다. 안성의 남쪽 및 남동쪽으로는 차령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어 충청남·북도와 경계를 이룬다. 전체적인 산맥의 형상은 시의 동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뻗어 있어 동북쪽은 높고 서남쪽이 낮은 지형이다. 차령산맥이 남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충청남·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차령산맥은 노년기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충북 진천과 접해 있는 덕성산에서 세 지맥으로 나뉘어진다. 서쪽으로는 서운산(547m), 동쪽으로는 백운산(345m), 마이산(471m)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용인시 외삼면과 고삼면을 우회한 후 용인시 이동면, 안성시 양성면과 접경에는 시궁산(514m)이 솟아 있다. 그리고 원삼면 남쪽으로 구봉산(465m), 쌍령산(512m)이 있으며, 삼죽면 중앙에 국사봉(447m), 금광면·삼죽면·이죽면 경계에 관해봉(453m)이 있다. 원곡면에 천덕산(355m), 원곡면·양성면 경계에 고성산(298m)이 있으며, 시 중앙에는 비봉산(244m)이 솟아 있다. 이처럼 산지가 안성시 전면적의 60% 정도 되며, 산맥이 시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횡단함으로써 시를 동서로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

지질은 대부분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 남쪽에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과 북쪽은 단산층군에 속하는 편암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죽면·금광면·서운면의 경우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셰일과 사암의 交互層이 광역변성작용에 의한 편마암화 작용을 받아 거의 현재와 같은 암상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대의 흑운모 편마암의 암상은 중립질로 엽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청룡리 일대에 분포한 화강암질 편마암의 암상은 대체로 괴상이며, 자유석과 장석의 變晶을 함유하고 있고, 흑운모편마암에서 나타나는 규질암을 제노리스(Xenolith)로 갖고 있다. 또한 이 암체 내에는 페그마티틱베인(Pegmatiticvein)이 도처에 발달되어 그 부근에서는 백운모가 보인다. 엽리는 흑운모의 배열에 의하여 잘 보이며 부분적으로 흑운모편마암상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약간의 剝離性을 보일 정도로 엽리가 발달되어 있다. 엽리의 주향은 대체로 N50°~E75°이나 부분적으로 변화된다. 경사는 일반적으로

---

5) 安城郡誌編纂委員會, 1990,『安城郡誌』.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앞 책.
畿甸文化財硏究院·京畿地方公社, 2002, 앞 책.
京畿道博物館·安城市, 2002,『奉業寺』.
경기도박물관, 2003,『안성천 Ⅰ』을 참고하였다.

북서에서 북동 방향이나 청룡리 부근에서는 남동향도 나타난다.

하천은 안성천, 한천, 청용천 등이 주요 하천으로, 한천과 청룡천이 안성천에 합류한다. 안성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조사지역인 공도를 남류하며 평택시를 거쳐 아산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천 주변의 지형은 고지대가 적고 비교적 평탄한 충적대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역경사가 완만하여 농경지가 발달하였으며 본류와 중·하류에 유입되는 11개 지류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안성천 일대는 중상류에 해당하며 북·동·남쪽이 막히고 서쪽이 열려진 'ㄷ' 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철도와 근대적인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이 안성평야와 차령산맥의 점이지대여서 충청남북도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또한 남한강 중·상류지역과 서해안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요충지로 동서와 남북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주변지역과 문화 및 경제 교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다시 공도와 양성면 일대, 안성 시가지 및 고삼면 일대로 나누어진다. 모두 해발 50m 이내의 낮은 구릉과 안성천 주변의 범람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경에 유리한 지역이다.[6)]

기후는 안성시가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와 남부 사이의 점이적 기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1.2℃로 한서의 차가 큰 대륙성기후이며, 연교차는 27.1℃로 큰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210㎜로 벼농사 및 기타 작물재배에 적당하며, 강수량은 6·7·8월에 집중되어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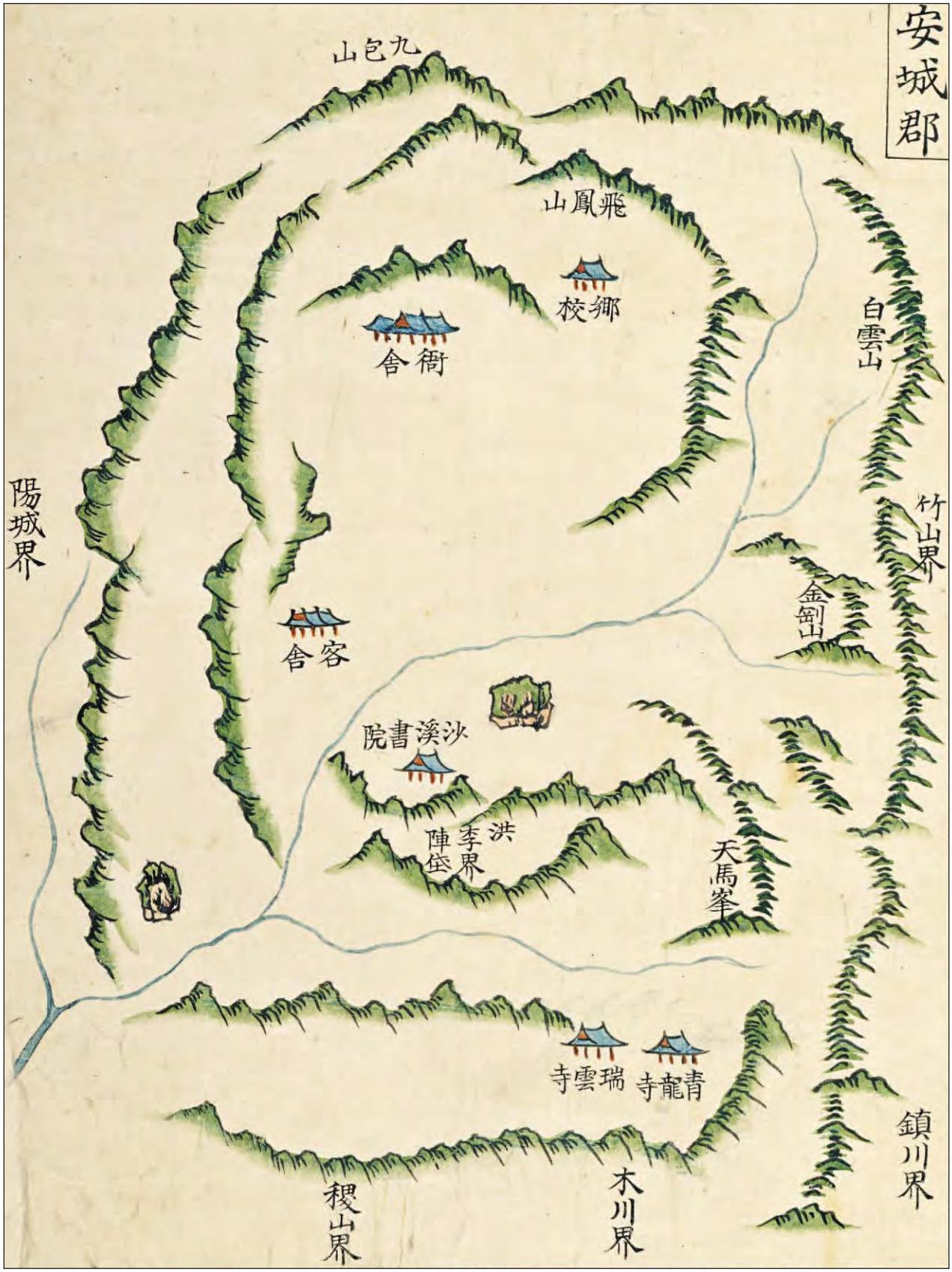
조사지역이 위치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역시 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쥐라기 대보화강암대에 속해 있으며, 노년기성 지형이기 때문에 降水 및 凍解 등에 의한 지형의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유적은 반제리유적[8)]이 위치한 매봉산 자락을 따라 남쪽 안성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중반부에 해당하며 해발고도 40~60m의 저구릉성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은 38번 국도를 경계로 공도읍내가 자리하며, 서쪽은 양성면 방향으로 난 364번 지방국도를 경계로 양성면 쪽 반제리 방향으로 용두리를 사이에 두고 계곡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용두천을 중앙에 두고 경지 정리된 논들이 있다. 북쪽은 364번 지방국도에서 동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에 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가는 소로길을 경계로 하여 능선이 끝나는 지점에는 평계골이 자리하고 있다. 동북쪽엔 안성여자기능대학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은 38번 국도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경계로 남쪽 부분은 일부 진입로 동쪽 주변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에서 북으로 주유소, (주)퍼시스가구, 송암농장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 대부분은 해발 20~50m 내외의 낮은 구릉으로 배과수원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한우농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계곡 쪽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고, 계곡부와 구릉 사이에는 동북쪽으로 소로가 나 있으며, 도로를 따라 신기부락이 형성되어 있다. 신동부락은 남쪽 38번 국도와 연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저구릉성 산지는 남쪽으로 3.5㎞ 떨어진 안성천까지 큰 고저차 없이 길게 남향하며 말단부까지 연결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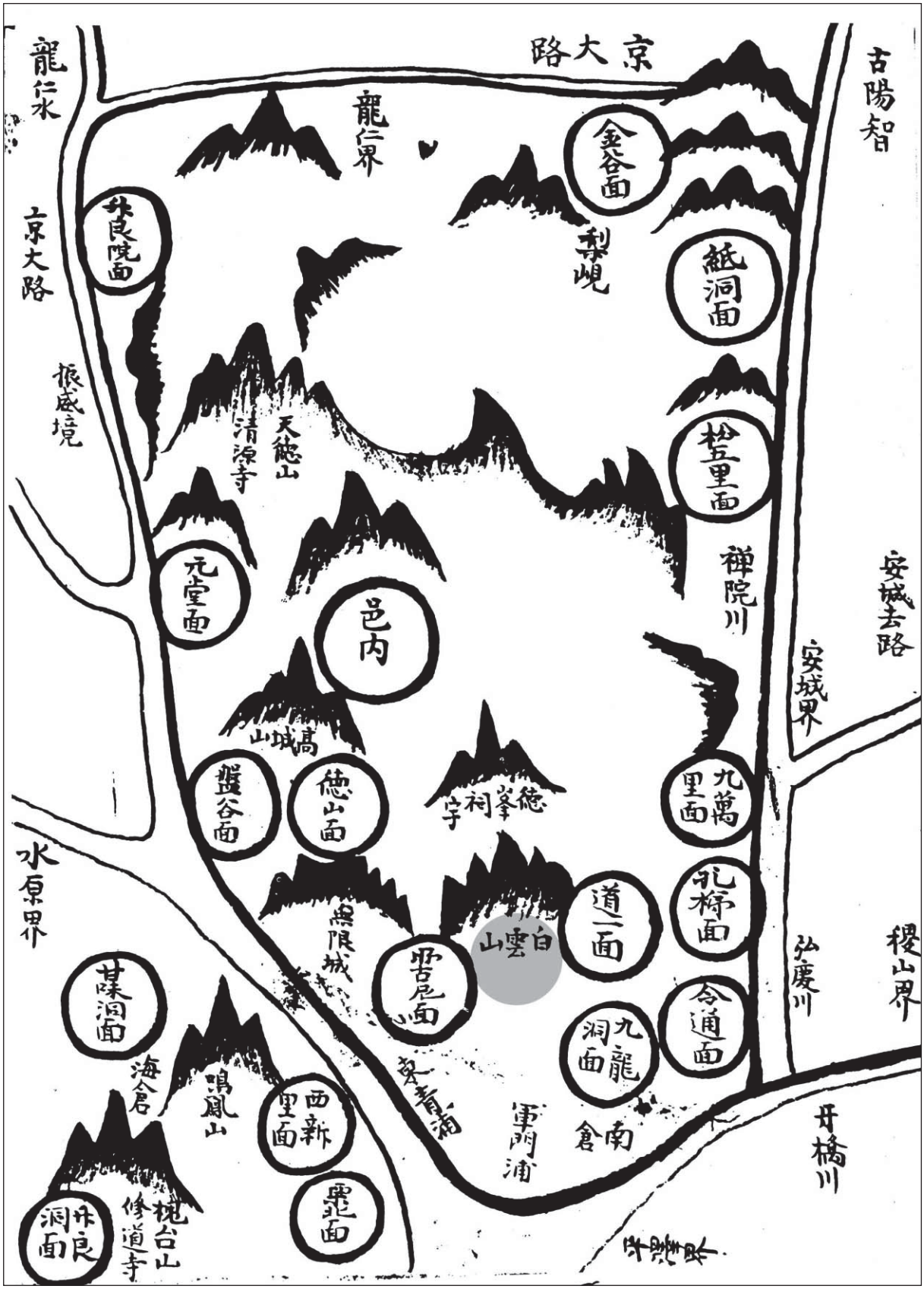
6) 서영일, 2007,「안성천 유역의 고고학 조사 현황과 성과」『안성천 유역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정기발표회 2007-4호), p3.
7) 畿甸文化財硏究院·京畿地方公社, 2002, 앞 책, p13.
8) 中原文化財硏究院, 2007,『안성 반제리유적』.

도면 3. 古地圖(海東地圖의 安城郡, 1750년대)



도면 4. 古地圖(廣輿圖의 安城郡, 18세기)

도면 5. 古地圖(大東輿地圖, 1851년)



도면 6. 조사지역 古地圖(『京幾邑誌』, 1871년)

2. 考古歷史 環境

안성지역은 경기도의 타 지역에 비해 1990년대까지 거의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인 남부권 개발에 따른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활발한 것을 볼 때, 비교적 건설사업이 적었던 관계로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성지역은 선사 및 역사시대 사람들이 거주지로 선호했던 낮은 구릉과 넓은 평야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입지로 볼 때,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전 시대에 걸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복합유적들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안성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안성천 유역의 유적에 대한 분포조사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현황이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경기문화유적지도[9]가 편찬되어 경기 남서부지역에 대한 조사가 행하여졌는데, 이는 안성 일대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유적분포도가 작성된 것이다. 이어 1999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해 안성시 광역지표조사[10]가 이루어져 기존에 알려진 유적과 새로이 찾아진 유적의 현황이 파악되었다.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는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기 남부의 개발에 앞서 매장문화재연구원들에 의한 개발지역의 지표조사[11]와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안성천 일대의 유적조사[12]가 이루어져 추가적으로 새로운 유적들이 대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13]에 의하여 완성되면서 당시까지의 발굴조사 유적의 대개를 정리하였고, 새로이 찾아진 유적들과 유물산포지들이 포함되어 종합적인 유적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안성 뉴타운지구 지표조사[14], 안성시 하수도시설 문화재 지표조사[15]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구석기시대 이래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적들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안성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구석기시대 유적은 1969년 자르개 1점이 보고되면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16]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선사시대 유적의 보고를 통하여[17], 그리고 1999년에 실시한 선사~역사시대 지표조사에 대한 각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18] 유적은 고삼면 고삼저수지[19], 공도읍 용두리·승두리[20]·웅교리[21] 등지에서 몸돌(다각면원구)과 격지를 비롯하여 찍개, 긁개 등이 수습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된 유적은 양기리[22]·반제리유적[23] 등으로 석영제의 찍개, 긁개, 격지 등이 출토

---

9) 경기도박물관, 1998,『경기문화유적지도 Ⅰ』.
10)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앞 책.
11) 畿甸文化財硏究院·京畿地方公社, 2002, 앞 책.
12) 경기도박물관, 2003, 앞 책.
13) 안성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앞 책.
14) 기호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경기지역본부, 2006,『안성 뉴타운지구 택지개발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5) 기호문화재연구원·(주)경화엔지니어링, 2007,『안성시 하수도시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6) 손보기, 1969,「석장리 이외의 구석기문화의 분포 가능성」『백산학보』7.
17) 오환일·박정근, 1992,「안성지역의 유적과 유물-선사시대를 중심으로-」『柳韓工專論文集』14, pp.19~40.
1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안성시, 1999, 앞 책.
19) 손보기, 1969, 앞 글.
20) 안성시·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앞 책.
21) 기호문화재연구원·(주)경화엔지니어링, 2007, 앞 책, p.72.
2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고속국도 40호선 안성-음성간(제5공구) 건설공사사업부지내 양기리유적 지도위원회 자료」.
23) 중원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2007, 앞 책.

되었다. 향후 안성천 또는 그 지류를 따라 형성된 저구릉성 산지에서 논 쪽으로 이어지는 곡간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갱신세층에서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안성 죽산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24]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갈돌이 출토되었고, 공도읍 마정리[25]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내부토에서 빗살무늬토기편 1점이 확인되었다. 빗살무늬토기편은 橫走魚骨文系 시문방식으로 서울 암사동 및 인천 시도패총 등 서해안문화권의 유적과 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로 평가된다. 단지 유물만이 수습되었지만 경기도 일대의 발굴조사 예[26]에서 분포적 특성을 살펴보면, 내륙지역에서는 강안단구에 해당하는 사질토양과 저구릉성 능선 등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안성천 주변을 비롯한 지류 주변을 따라 형성된 충적대지와 저구릉성 능선 주변에 立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27]

청동기시대 유적은 최근 안성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저구릉성 산지를 비롯하여 안성천 강안 뿐만 아니라 고지성 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세장방형·장방형 주거지가 조사된 안성 반제리[28], 장방형·방형·원형 주거지와 고인돌·석관묘·화장묘가 조사된 본 유적[29], 장방형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된 마정리[30], 평택 소사동[31]유적과 성혈이 있는 만정리 고인돌2와 장방형·원형 주거지가 조사된 만정리유적[32]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외에 고인돌은 쌍지리, 명목리, 반제리, 승두리, 현수동, 미장리, 장계리 등에서 확인되었다.[33] 그리고 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34]에서 민무늬토기편과 붉은간토기·반달돌칼편, 죽주산성 발굴조사[35]에서 민무늬토기편, 망이산성[36]에서 무문토기·검은간토기·쇠뿔모양손잡이토기·간돌창·반달돌칼편·홈자귀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물산포지로는 무문토기가 수습된 금광면 한운리[37], 원곡면 반제리 상반제, 양성면 방신리, 공도읍 승두리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38] 선돌은 금광면 내우리에서 1기가 보고되었다.[39]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대덕면 대농리와 양성면 동향리고분에서 마제석촉과 동경이 보고된 바 있으며 발굴

---

24) 경기도박물관, 2004,「봉업사지 제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5) 경기대학교박물관, 2005,『安城 馬井里遺蹟』.
26)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연천삼거리(경기도박물관), 시흥 능곡(경기문화재연구원), 안산 신길(고려문화재연구원), 기흥 농서리(기호문화재연구원) 등의 유적들이 조사되어 서해안에 연접한 저구릉성 산지와 내륙에서도 조사되고 있다.
27) 신숙정, 2002,「미사동의 선사문화」『동아시아에서 미사동유적의 위치』, pp.39~59.
2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앞 책.
29) 안성 만정리유적은 본 연구원과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되었는데, 안성 만정리 Ⅰ·Ⅱ 유적은 본 연구원의 조사지역인 6지점과 능선상 연결되나 유적 성격상 유적명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 조사한 유적은 만정리 신기유적으로 명명하고, 향후 조사될 주변유적은 조사순서에 따라 숫자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앙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유적과 유적명을 달리하고자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으로 명명하였다.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안성 공도택지개발지구내 발굴조사 5차 지도위원회 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안성 공도 만정리 공동주택부지내 안성 만정리Ⅱ유적』.
30) 경기대박물관, 2005, 앞 책.
31) 高麗文化財硏究院, 2008,『平澤 素沙洞遺蹟』.
3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앞 책.
33) 경기도박물관, 2009,『경기도의 고인돌』.
34) 경기도박물관, 2004, 앞 글.
3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3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안성군, 1996,『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37) 최정필·하문식·황보경, 2000,「고고분야 조사보고」『평택-음성간 고속도로(안성-음성간) 건설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pp74~75.
38) 경기문화재연구원, 2002, 앞 책.
39) 안성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5, 앞 책.

조사된 유적은 반제리유적이 대표적이다. 반제리유적[40]은 환호와 주거지 72기가 급경사면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粘土帶土器鉢과 黑陶長頸壺가 출토된 圍石式土壙墓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본 유적의 토광묘는 6지점[41]에서 옥제목걸이·점토대토기발·흑도장경호가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안성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이후 관방 유적은 12개소가 있다. 이중 조사지역 주변에는 공도읍 만정리토성, 공도읍 진사리토성, 양성면 방신리 무양성 등이 있다.

안성지역의 역사적 기록은 B.C 2세기경의 원삼국시대부터 시작된다. 고대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철기문화의 한반도 전 지역 확산으로 삼한이 형성되고, 그 부족국가 중 안성지역은 국읍세력인 마한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13년의 기록에 왕이 漢山(廣州) 아래에 城柵을 세우고 慰禮城의 民戶를 옮겼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 백제의 지배영역 중 熊川의 현재 지명이 安城川이다. 온조왕 24년에는 마한의 접경지역인 이 곳에 熊川柵을 세웠으며 이후 비류왕대에 안성천을 마한의 주요 거점으로 이루고, 근초고왕 24년에 마한 전역을 포괄하기에 이른다.

안성이 고구려 영역이 된 것은 광개토대왕의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장수왕대이다. 장수왕대의 고구려 영역은《삼국사기》地理志·《고려사》地理志·《東國與地勝覽》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당시 백제와 대치한 경계지가 安城 등이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백제 영역 이후 고구려의 남방한계가 안성 이남이었던 점과 안성의 옛 지명에서 나타나는 '忽'이라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세력약화로 다시 백제의 땅이 되었다.《삼국사기》 武寧王條에 古木城(漣川) 남쪽에 立柵하고 長領城을 쌓은 기록은 6세기 중엽까지 고구려와 백제 간에 안성지역을 포함한 한강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영토 전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백제 聖王 16년 신라와 연합하여 南平壤(현 서울 부근)을 점령하였으나 곧 신라에게 빼앗겨 나·제동맹이 깨지게 되었다. 6세기 진흥왕 이후 신라 말기까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것이다. 당시 신라는 경덕왕 16년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안성에 白城郡, 죽산에는 介山郡, 양성면에는 赤城懸을 설치하였다.

7세기 후반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을 9주로 나누었을 때 안성은 한산주에 속하였으며 경덕왕 때의 지명을 그대로 두었다. 이 때, 백성군과 개산군은 주군으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었으며, 적성현은 백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신라 下代 이후 국토는 피폐해지고 이에 따른 호족세력이 확대되었으며 도적과 반란이 연달았다. 이런 이유로 진성여왕 이후 사실상 지방통제력을 상실하고 호족 중심으로 이합집산하여 廣州의 梁吉, 전주의 甄萱, 梁吉 휘하의 弓裔가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안성지역은 竹山을 중심으로 견훤이 세력을 떨쳤다. 안성이 사서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신라 말기 죽주산성에 견훤이 자리잡고 있으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태조 23년(940년)에 안성지역은 안성현, 개산군은 죽산군, 적성현은 양성현으로 개명되었다.《고려사》 地理志에 따르면 5도 양계체제로 정비된 고려의 지방행정구역 중 안성지역에는 성종 초 團練使가 파견되었다가 穆宗 8년(1005년)에 폐지되었으며 顯宗 9년(1018년) 水州(현재 수원)에 속하였다가 22년

40)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앞 책.
4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安城 孔道 宅地開發地區內 約報告書』.

(1031년)에는 天安付의 속현으로 옮겨졌다. 명종 2년(1172년)에는 監務를 두기도 하였다.

죽산군의 경우에는 성종 14년(955년)에 단련사가 파견되고 목종 8년(1005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종 9년(1018년)에는 廣州의 속군이 되었다가 명종 2년(1172년)에 감무가 다시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성현의 경우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는데, 현종 5년(1014년)에 수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명종 5년 비로소 감무가 설치되었다.

《高麗史》 高宗 23년 9월 壬寅條와 《高麗史》 권103 朴犀 宋文·傳 및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23년 9월조에는 몽고 제 3차 침입 때, 죽주산성에서 防護別監 송문주가 죽주산성에 동거하면서 15일 동안 선전분투하여 적을 격퇴시켜 남진을 저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송문주는 이 전과로 左右衛將軍이 되었다 한다.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1년 4월조에 안성지역에서는 홍건적 2차 침입을 섬멸하고 그 공로로 1362년 郡格이 知郡事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주 관할이었던 陽良, 甘彌, 薪谷 등의 部曲이 안성군에 소속되기도 하였다가 1366년 다시 수주로 환원되었다.

고려 말에는 또 한차례의 邊亂이었던 倭寇이 침입했을 때에 죽산의 七長寺에 역대의 사적이 보관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사적은 伽倻山 海印寺→甫州(醴泉) 普門寺(고종 10년)→宜州(宜山) 得益寺(우왕 5년)→忠州 開天寺(우왕 7년)로 변란을 피해 옮겨 다녔는데, 이후 공양왕 2년(1390년) 다시 충주로 옮기기까지 이곳에 보관하였다.

조선시대 안성지역은 정종 1년 안성군 소속인 양양부곡을 분리 독립시켜 陽智縣으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천안부에 속해 있던 안성군과 양성현은 경기도에 편입되고, 죽산은 죽산현으로 개칭되어 현감이 배치되었다가, 세종 16년(1543년)에 경기도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태종 13년(1413년)에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었고 중종 38년(1584년) 죽산은 군사·지리적 요충상, 죽산부로 승격되어 부사를 두었다가 선조 17년(1548년)에 한때 縣으로 강등되었으나, 곧이어 다시 29년(1596년)에 付로 승격되었다.

세조 3년(1457년) 군사조직이 진관체제로 지방군제가 완성되었을 때, 안성과 양성은 水原鎭管에, 竹山은 廣州鎭管에 소속되었다. 또 조선 전기 공문서 전달(행정·군사상) 등을 위한 驛院制의 정비 때, 안성군·양성현·죽산현은 良才道에 소속되어 4驛 9院이 설치되었다. 한편 또 다른 통신수단인 봉수는 안성지역의 경우 直烽인 제2거선과 제5거선이 설치되었다. 제2거선에는 죽산의 巾之山·望夷山봉수, 제5거선으로는 양성의 槐台吉串 봉수가 시설되었다. 특히 현재 一竹面 金山里에 위치한 망이산봉수는 동남지방에서 올라오는 봉수를 모두 연결하는 곳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는데, 이는 안성지방이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로써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명종 14년(1559년)에 일어난 임꺽정(林巨正)의 亂과 관련하여 이죽면 칠장사는 그 스승인 갖바치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62세에 칠장사에 정착하여 병혜대사라는 生佛로 추앙되면서 85세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안성에서도 여러 명의 뛰어난 인물과 의병이 활약하였는데, 이 때 활약한 인물로는 吳定邦, 邊以中, 黃進, 金忠守, 李德南, 洪季南, 洪彦秀 등이 활동하였다.

16세기 후반 선조년간에 士林세력에 의한 朋黨政治가 성립되면서 지방에서도 이에 호응한 서원이 다수 건립되었으며 안성지역에는 현재 道基書院, 德峰書院, 南坡書院, 東安講堂 등이 현존한다.

영조 4년(1728)에는 이인좌의 난 때 都巡撫使로 있던 박문수, 趙顯命 등이 이인좌의 무리들과 백병전을 벌여 반군을 진압하였는데, 안성읍 낙원리에 이 때에 활동한 오명항의 공적을 기리는 吳命恒先生討賊頌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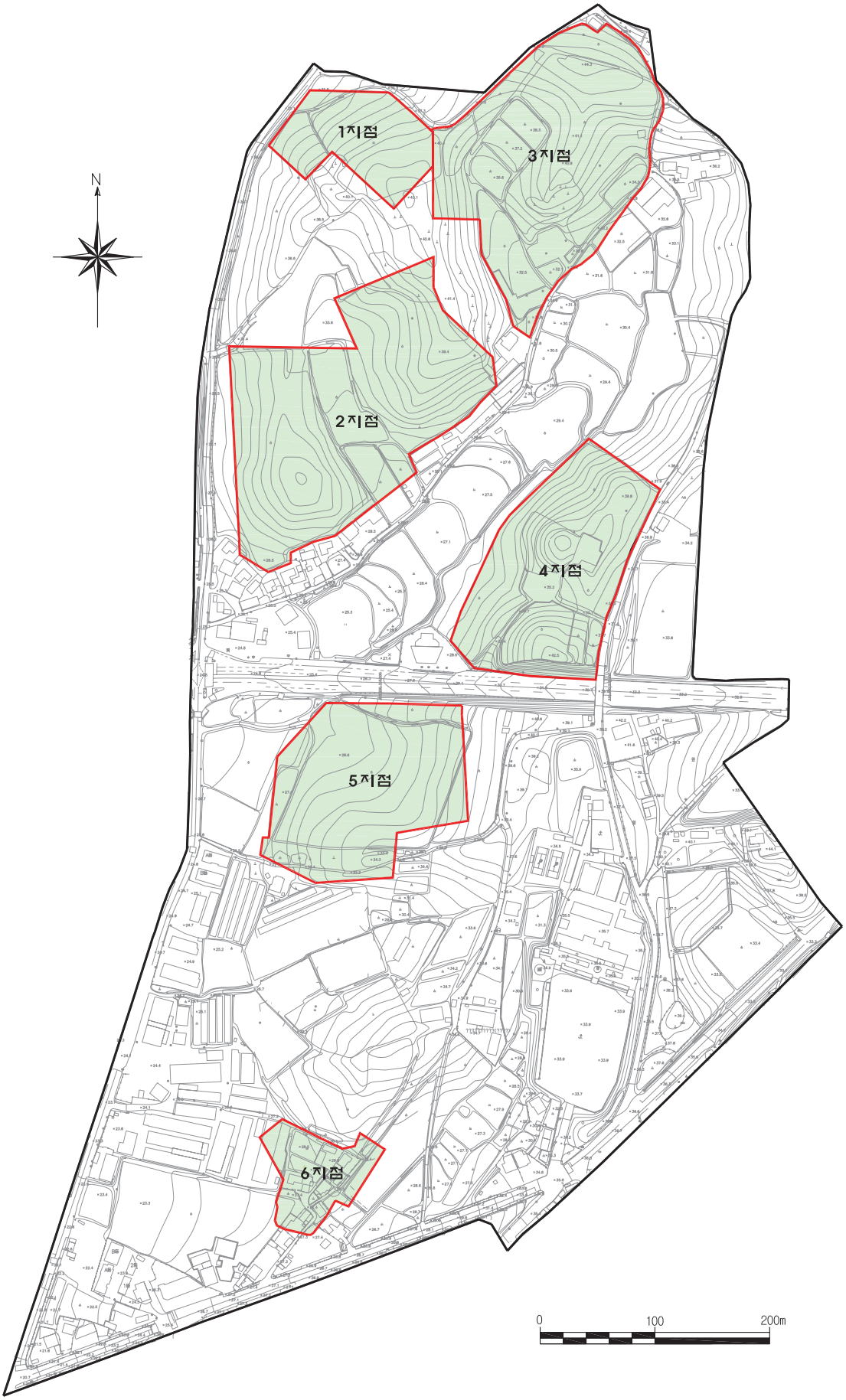
가 남아있다. 또 당시 양지현 토현촌에 거주하고 있던 金萬重은 반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告變하여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안성은 상업도 번성하였으며 그 때의 지방특산물로는 안성군의 경우, 실·麻·鍮器·安息香·地黃 등이, 죽산부는 鍮器와 陶器, 양성현은 웅어와 지황 등이 산출되었다. 특히 유기는 견고하고 정교함이 뛰어나 '안성맞춤'이라는 新造語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李重煥의《擇里志》에는 한양 남쪽의 한 都會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는 東來-大邱-忠州-龍仁-栢橋-漢陽으로 이어지는 嶺南路와 嶺岩-羅州-井邑-公州-水原-漢陽으로 이어지는 湖南路가 합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안성지역의《邑誌》·《林園十六誌》등에 따르면, 죽산부에 읍내장, 안성군에 邑內場·注川場·排甘場(排觀場)·二實場, 양성현에 읍내장·素沙場 등의 장시가 개설되었고, 특히 안성장은 전국 3대시장 중 하나로 서울의 장안보다 물목이 많았다고 할 정도였다.

근세 이후 안성지역은 천주교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이는 김대건 신부의 묘가 있는 미리내 성지와 배티성지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안성·죽산·양성 3개 군을 통합, 안성군이 되었으며 안성읍은 1937년 7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시 일대는 차령산맥이 동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동북쪽의 높은 산들을 배경으로 서남쪽은 야트막한 구릉과 비옥한 평야가 분포하며 그 앞을 안성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석기시대 이래 현재까지 인류가 거주하였던 다양한 흔적들이 유적으로 남겨졌다.



도면 7. 조사지역 현황도(1:5,000)

Ⅲ. 遺蹟의 地形 및 層位

1. 유적의 지형 및 구분

조사 대상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91-1 일대로 만정리 6개 행정리 중 신기마을과 신동 2리에 해당한다. 주변지형은 동쪽으로 안성여자기능대학과 (주)퍼시스 공장이 위치하며 남쪽은 신동부락이 연접해 있고 그 아래 신촌과 난촌이 자리하고 있다. 서쪽은 남-북으로 용두리와 승두리가 연접해 있으며 그 사이를 반제리에서 기원한 승두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북쪽은 능선상 신기리와 연결되며 소나무 목장과 목초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완만한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발고도는 20~50m내외의 낮은 저구릉성 산지로 대부분 과수원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2지점 고인돌이 위치한 가구역과 북쪽 1지점 사이에 한우농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계곡 쪽은 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곡부와 구릉 사이에는 마을을 잇는 소로들과 일부 민가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유적은 크게 북쪽에서 남향 혹은 남서향하는 3개의 구릉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38번 신설국도를 중심으로 조사지역 북쪽에 2개, 남쪽에 1개의 능선이 위치한다. 북쪽에 위치한 2개의 능선은 안성여자기능대학이 위치한 능선과 연결되어 북쪽 반제리 방향으로 1㎞정도 연결되면서 반제리 저수지 방향인 안성 반제리유적까지 연결된다.

유적의 구분은 지형 및 유구의 빈도에 따라 6개 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서쪽으로 뻗은 능선에 해당하며 한우농장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지형이 훼손되어 2구분 하였다. 1지점은 북쪽 능선 중 서쪽에 위치한 능선의 북쪽에 해당하며 고인돌 북서쪽에 위치한다. 2지점은 북쪽 능선 중 서쪽에 위치한 능선의 남쪽으로 연결된 끝자락까지를 가구역, 계곡부를 끼고 동쪽 능선까지를 나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안성여자기능대학교를 따라 형성된 동쪽능선은 3·4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3지점은 조사지역 중 가장 북쪽에 해당하며 과수원과 민묘군이 밀집되어 있었다. 소로를 중심으로 신기부락과 연하여 있으며, 동쪽은 안성여자기능대학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반제리유적과 연결된다. 4지점은 북쪽 능선 중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안성여자기능대학 진입로와 (주)퍼시스가구와 연하여 있다.

또한 남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은 38번 신설국도 개설시 절개되어 노폭 40m정도가 절토되었으며 5지점과 능선상으로 연결된다. 5지점은 38번 신설국도 남쪽에 연하여 있으며 북쪽 부분이 절개되었지만 4지점과 능선상으로 연결된다. 동쪽은 공도중학교가 연하여 위치하며 남쪽은 경기축산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6지점은 조사대상 지역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며 조사지역은 북쪽 능선 정상부에 민묘군, 동쪽과 남쪽은 신동부락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마을과 연한 북측 부분은 얕은 구릉의 말단부를 이용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서쪽은 364번 지방국도가 위치하며 그 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신동부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남쪽은 38번 구국도가 위치하며 그 북쪽에 연하여 신동부락이 동쪽 끝부분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북쪽은 5지점과 같은 능선상에 위치하며 동쪽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공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2. 각 지점 지형 및 층위

1지점(8,995㎡, 약 2,721평)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산 157-16 일대로 조사지역 서북쪽 끝부분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한우농장 동쪽 경계부터 신기부락 서쪽 능선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인돌로부터 서북쪽으로 50m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북쪽으로 소나무가 부분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 봉화정씨묘역 10여 기가 열을 지어 조성되어 있다. 동쪽은 신기부락이 소로와 조사지역 북쪽 끝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대부분 봉화정씨 묘역의 서쪽에 위치한다.

층위는 대상지역 대부분이 목초지로 경작되던 곳으로 적갈색 사질토가 편마암 풍화토 위에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 또한 최근까지 경작으로 인하여 침식을 받은 곳으로 판단되며, 서북쪽 끝부분에 일부 갱신세층이 잔존하며, 서쪽 계곡으로 가면서 깊어진다. 이는 계속된 경작지 확대와 토양침식으로 인해 지표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및 기와류, 자기류가 다량 수습된 점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주거지 혹은 건물지가 분포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표 1. 1지점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로 다량의 유기물과 비닐 포함
Ⅱ층-암갈색 점질토	사면 중하단부에서부터 잔존하며 토양쐐기층
Ⅲ층-화강암풍화토	수혈유구가 조성되어 있음, 매우 무른 화강암층으로 침식이 심함

2지점(34,623㎡, 약 10,473평)은 38번 신설국도 북쪽에 접하여 위치하며, 조사지역 북쪽 북에서 남향하는 서쪽 능선의 끝단에 해당한다. 해발고도는 45m미만의 2개의 구릉성 산지가 포함된다. 서쪽에는 용두리 물얼리들이 펼쳐져 있고, 그 동쪽에 솟아있는 해발 43m의 완만한 저 구릉성산지에서 남쪽으로 뻗은 2개의 가지능선과 사이 계곡이 해당된다. 서쪽은 물얼리들과 연접하고 양성행 364번 지방도가 지나가는 가지능선(가구역)과, 3지점과 좁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가지능선(나구역), 두 가지능선의 사이 남동쪽의 완만한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2지점 가구역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로 각종 유기물과 비닐이 다수 포함,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소편, 조선시대 백자·토기편 수습
Ⅱ층-적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층으로 흑갈색 사질토 포함, 구릉 중앙 일부와 동서사면의 중상단부에 부분적으로 잔존,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인돌·석관묘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주거지와 토광묘
Ⅲ층-암갈색 점토	나구역보다 토양쐐기층이 두껍고 분포범위가 넓음, 현 지표에서 구석기시대 석기유물이 간헐적으로 수습, 청동기시대 고인돌·석관묘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Ⅳ층-화강암풍화토	비교적 무른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 풍화토층으로 암맥의 관입이 빈번,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주거지, 토광묘를 비롯하여 시대미상 수혈유구

층위는 가구역은 고인돌과 석관묘 묘역 주변으로 서쪽 일부와 동쪽 계곡 쪽으로 넓게 갱신세층이 분포하며 나머지는 화강편마암 풍화토가 남쪽으로 가면서 남아있다. 나구역은 화강편마암 풍화토가 기반암이며 여기에 유구들이 밀집되어 있다.

표 3. 2지점 나구역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로 소량의 유기물과 비닐 등이 포함,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통일신라시대 연질토기편, 고려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 조선시대 분청사기 및 백자,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등 수습
Ⅱ층-암적갈색 사질점토	점성이 강하며 동사면과 남서사면의 중하단부에서부터 존재, 청동기시대 수혈유구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토광묘
Ⅲ층-암갈색 점토	토양쐐기 뚜렷, 유적의 하단부터 확인됨, 지표상에서 소량의 舊石器時代 石器 수습, 일부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Ⅳ층-암반풍화토	비교적 무른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 풍화토층으로 암맥의 관입이 빈번,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와 조선시대 주거지

3지점(31,992㎡, 약 9,667평)은 조사지역 중 가장 북쪽에 해당하며 1지점과 4지점을 연결하는 능선이다. 해발고도 44.3m이하로 연결된 가지능선과 사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 정상부는 북쪽에 자리하며 넓고 평평하다. 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로 계곡과 연결되며, 계곡은 좁지만 완만하다. 구릉부는 오랫동안 과수원으로 이용되면서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으며, 강우로 인한 사면 침식이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층위는 구릉 정상부는 대체로 층위 두께가 얇고 단순한 편이다. 계곡부와 북쪽 능선 정상부에는 부분적으로 갱신세층이 남아있으나 층위는 얇으며, 그 위에 사면에서 삭평되어 형성된 사면붕적층이 재퇴적되었다. 유구는 대부분 암반풍화토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능선 정상부가 위치하는 북쪽을 중심으로 서쪽 능선까지 일부 근대 이후 토광묘들이 분포되어 있다.

표 4. 3지점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로 인한 유기물과 비닐 등이 소량 포함, 유물은 고려시대 청자편과 조선시대 백자·토기편 등 수습
Ⅱ층-적갈색 사질점토	두께가 얇고 사면 상단부에 잔존, 고려시대 청자편과 조선시대 백자·토기편 등 수습
Ⅲ층-암갈색 점토	토양쐐기가 뚜렷하고 망간이 일부 포함, 유적의 중단부 사면부터 시작되어 동측 구릉과 연결되는 계곡부까지 잔존, 조선시대 토광묘 윤곽선 확인
Ⅳ층-암반풍화토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이 풍화된 층으로 암맥의 관입이 빈번, 조선시대 토광묘 윤곽선 확인

4지점(22,310㎡, 약 7,375평)은 38번 신설국도 북쪽에 연하여 5지점과 지형상 연결되는 구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남쪽 구릉은 공도중학교 뒤편에 위치한 해발 40m의 낮고 평평한 구릉성 산지의 일부로 구릉지역의 1/2이상은 38번 국도와 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가는 도로로 인해 잘려나가 부채꼴 형태로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구릉 정상부는 협소하며 계곡까지 비교적 급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시굴조사 당시에는 과수원으로 경작되면서 생긴 묘목 구덩이가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으며,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북쪽 구릉은 해발 41.5m 내외의 낮고 평평한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남쪽 구릉과 마주하고 있다. 중앙에 좁고 평평한 해발 42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능선을 포함한다. 날등부는 길고 평평하며, 서쪽이 급하고 동쪽이 완만한 양상을 보인다. 동쪽 사면의 일부는 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가는 포장도로로 이미 지형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졌다.

층위는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대부분 화강편마암 및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사면 하단부에 일부 갱신세층이 잔존하고 있다.

표 5. 4지점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로 소량의 유기물과 비닐이 포함,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조선시대 백자·토기편 수습
Ⅱ층-적갈색 점토	점성이 강한 명적갈색 점토층으로 약간의 흑갈색 사질토가 포함, 층위의 두께가 얇고 동서사면의 상단부에 부분적으로 잔존,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토광묘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토광묘의 윤곽선 확인
Ⅲ층-암갈색 점토	토양쐐기가 뚜렷하고 망간이 일부 포함, 유적의 하단부 사면부터 확인, 조선시대 주거지와 토광묘 윤곽선 확인
Ⅳ층-암반풍화토	비교적 무른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 풍화토층으로 암맥의 관입이 빈번, 주로 조선시대 토광묘와 윤곽선 확인

5지점(19,799㎡, 약 5,889평)은 38번 신설국도 남쪽에 연하여 있으며 4지점과 지형상 연결된다. 서쪽은 364번 지방국도, 북쪽은 38번 신설국도와 연접해 있다. 동쪽은 38번 신설국도 절개면을 따라 해발 30m 내외의 구릉이 위치하며, 남쪽은 신동부락의 북쪽으로 민가가 일부 자리하고 있고, 서쪽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동쪽은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가 위치하며 서쪽으로 완만하게 2개의 능선이 뻗어 있고, 그 사이가 계곡부인데 경작으로 인하여 밭을 확대하면서 메운 상태여서 지표조사 당시에는 평평하고 완만한 대지였다.

층위는 능선 정상부는 화강편마암 풍화토이며 계곡부로 오면서 갱신세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동쪽 364번 국도에 접해서는 깊이 5m이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갱신세층 자체는 논쪽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5지점 층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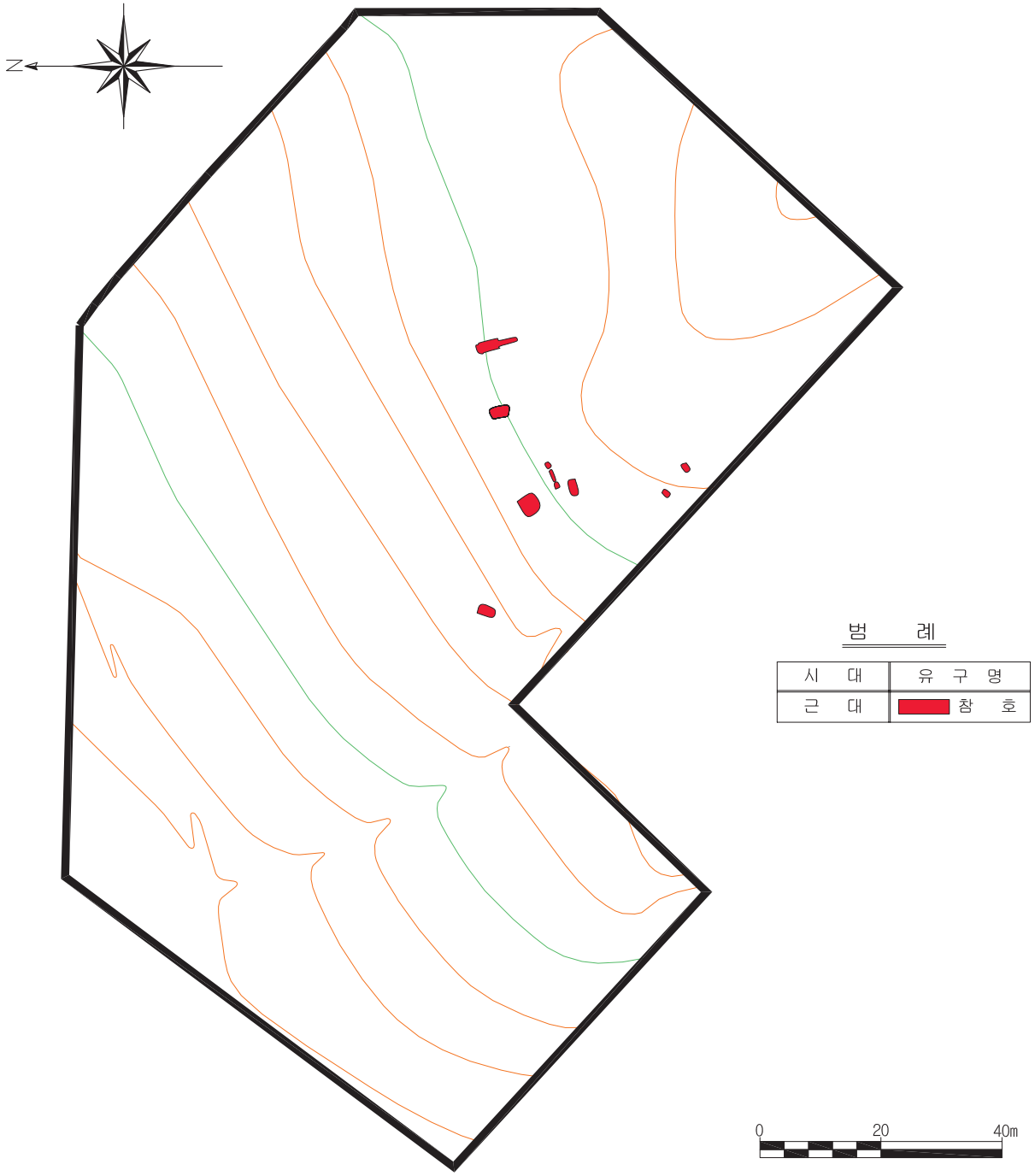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 행위(과수원)로 다량의 유기물과 비닐이 포함, 소량의 무문토기 小片과 다량의 백자편, 분청사기편, 흑색 또는 회색 연질토기편이 다수 수습
Ⅱ층-적갈색 사질점토	사면 중단부에 얇게 잔존하며 점성이 강한 사질토가 우세,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주거지, 중세 이후의 토광묘가 조성
Ⅲ층-암갈색 점질토	서사면 중하단부 아래부터 서사면 계곡부분, 북사면 하단부, 북사면 계곡부분에서 확인, 토양쐐기가 두껍고 김, 층위 두께는 최대 200㎝정도, 청동기주거지, 토광묘와 구, 수혈유구가 조성
Ⅳ층-화강암풍화토	매우 무르고 토색이 백색과 적색이 강함, 대다수 토광묘와 주거지가 조성

6지점(5,085㎡, 약 1,681평)은 서쪽에 364번 지방국도가 위치하며 그 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신동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은 38번 구국도가 동-서로 놓여 있다. 그 북쪽에 연하여 신동부락이 동쪽 끝부분까지 형성되어 있다. 북쪽은 5지점과 38번 신설국도가 연하여 있으며, 동쪽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공도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층위는 전체적으로 화강편마암 풍화토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조사지역 남쪽에 국부적으로 갱신세층이 확인된다. 이 갱신세층은 공도읍내로 연결되고 있으며 공도터미널 뒤쪽으로 가면서 두꺼워진다.

표 7. 6지점 층위 현황

층 위	내 용
Ⅰ층-흑갈색 부식토	경작과 최근에 생긴 건물에 의해 교란이 심하며 유기물과 비닐 등이 다량 포함,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토기 등이 출토
Ⅱ층-암갈색 사질토	부식토가 소량 섞여있고 유적의 중단부 사면부터 존재, 주로 무문토기 소편이 출토되고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포함, 조선시대 주거지의 윤곽선 확인
Ⅲ층-명적갈색 점토	점성이 강한 밝은 적갈색 점토층으로 약간 흑갈색 사질토가 포함, 층위의 두께가 두껍고 유적의 중단부 사면부터 존재, 청동기시대 수혈유구의 윤곽선이 확인
Ⅳ층-암갈색 점토	토양쐐기가 뚜렷하고 망간이 다수 포함, 유적의 하단부 사면부터 확인, 조선시대 주거지와 토광묘의 윤곽선 확인
Ⅴ층-화강암풍화토	비교적 무른 화강암 풍화암반층으로 암맥의 관입이 빈번, 주로 토광묘의 윤곽선이 확인



도면 8. 1지점 유구배치도(1:800)

Ⅳ. 調査內容

가. 1지점(도면 8, 사진 2~4)

1지점(8,995㎡)은 북서향하는 완만한 사면에, 수혈유구 4기가 조사되었다. 지형은 해발고도 32~42m에 속하는 완만한 북서사면으로 밭의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계곡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하단부로는 양성으로 연결되는 364번 지방국도가 지나고 있다.

수혈유구 4기[42]는 해발고도 40m의 동일한 등고선상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내지 세장방형으로 깊이 10~60㎝로 다양하다. 각 유구는 7~9m 간격을 두고 화강암 풍화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출토유물은 1~3호에서 탄약세트(탄창장착 추정 M1탄환 8점, 낱개탄환, 발포탄피, 발포탄환), 각종 철제품(인두, 고리, 탄창편, 못, 통조림통), 조개탄, 플라스틱 마개, 미국주화(1센트) 1점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 출토 상황은 발견된 탄환과 각종 철제유물, 미국주화 등이 관련성이 있는 거리의 유구 내에서 다량 수습된 것으로 보아 韓國戰爭 당시 사용된 塹壕 및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 수습 유물은 시굴조사에서 무문토기 저부편과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 등이 다량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건물지가 부존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더 이상의 유구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정상부에 수습 유물과 관련된 유구들이 위치해 있었으나, 이를 목초지와 과수원을 확장하면서 또는 강우로 인한 토양침식에 의해 훼손되어 구릉의 중·하단부에 유물이 이동하여 재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수혈유구 속성표

유구번호	평면형태	규모(㎝) (장축×단축×깊이)	내부시설	출 토 유 물
1	세장방형	490×130×45	3단 출입구	완형 탄창 3조(추정 M1탄환) 낱개 탄환 5점(발포탄4점), 철제 통조림, 미국주화 1점
2	장방형	240×155×25	북벽 수혈노지	난방용 조개탄, 탄알5점(발포탄3점)
3	방형	245×241×60	·	낱개 탄환(발포탄, 완형탄환, 탄피) 20점, 탄창, 철제못, 철제인두, 철제고리, 통조림통
4	제형,세장방형	75×55×5 160×60×25 69×60×10	수혈 3기	-

42) 유구의 조성시기는 출토상황 및 유물로 보아 한국전쟁 당시로 판단되므로 유구의 기록 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유구 사진과 유물 사진을 수록하는 것으로 가름하였다.

나. 2지점 가구역(도면 9, 사진 5~6)

2지점(34,623㎡)은 해발 43m 미만의 2개의 가지능선(가·나구역)과 사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의 정상부는 넓고 평평하며, 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로 계곡과 연결된다. 계곡은 좁지만 완만하고 형태상 'S' 형을 띠고 있다. 구릉 부분은 오랫동안 과수원 및 묘목단지로 이용되면서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으며, 사면 침식이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구릉의 정상부는 대체로 층위 두께가 얇고 단순한 편이며, 계곡부는 사면붕적층이 비교적 두꺼운 편으로, 최고 4m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확인된 유구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가구역에서는 사면과 계곡부가 만나는 지점에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탐색구덩을 설치하여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발 43m의 정상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뻗은 가지능선의 허리부분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지석묘 1기, 석관묘 5기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게 나란히 조성되어 있고 서로 5.5m의 간격을 두고 있다. 고인돌과 석관묘는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약 25m 떨어져 있는데, 고인돌을 중앙에 두고 그 외곽에 석관묘가 배치되어 있어 하나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는 대부분 가지능선 말단부의 남사면에 집중 분포하며 그 사이에 조선시대 회곽묘가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 주거지 역시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사이 해발 33~34m 상에 대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수혈유구는 평탄한 남서사면에 국한하여 밀집 분포하고 있다.

A. 구석기시대 갱신세층(도면 10,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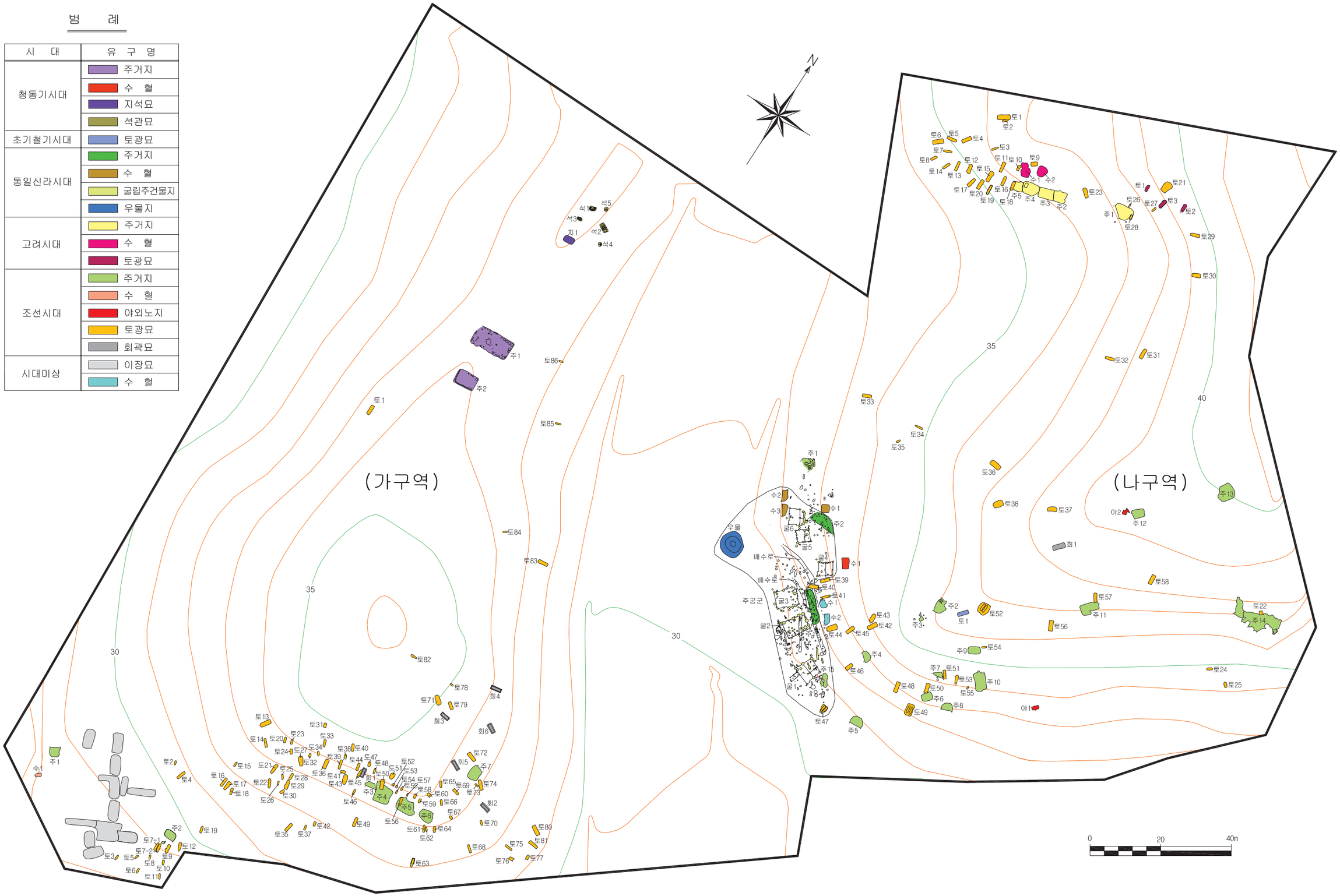
구석기시대 갱신세층 발굴조사는 동사면과 계곡부가 만나는, 토양쐐기층이 두껍게 남아있는 해발 31m 상의 평탄한 지점을 선택하여 등고선과 나란하게 2×2m 크기의 구덩이를 3m간격으로 모두 20개를 설치하였다. 각 피트들은 구석기 유무를 탐색하는 동시에 하부 토양쐐기층 아래 풍화암반층까지 확인하였다. 13개 피트를 확인한 후 토양쐐기층이 깊어 4×10m의 대표단면을 추가로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기울기가 완만한 풍화암반층 위에 토양쐐기층이 최대 4m의 깊이까지 퇴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下部 토양쐐기는 적갈색 점토층, 上部 토양쐐기는 암갈색 점토층으로 구분된다.

구석기 유물은 층위 상에서 출토되지 않았으나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이는 최상부 토양쐐기층의 상부에서 유물이 분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토층 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면 토양쐐기 상부가 대부분 삭토되면서 유물들이 지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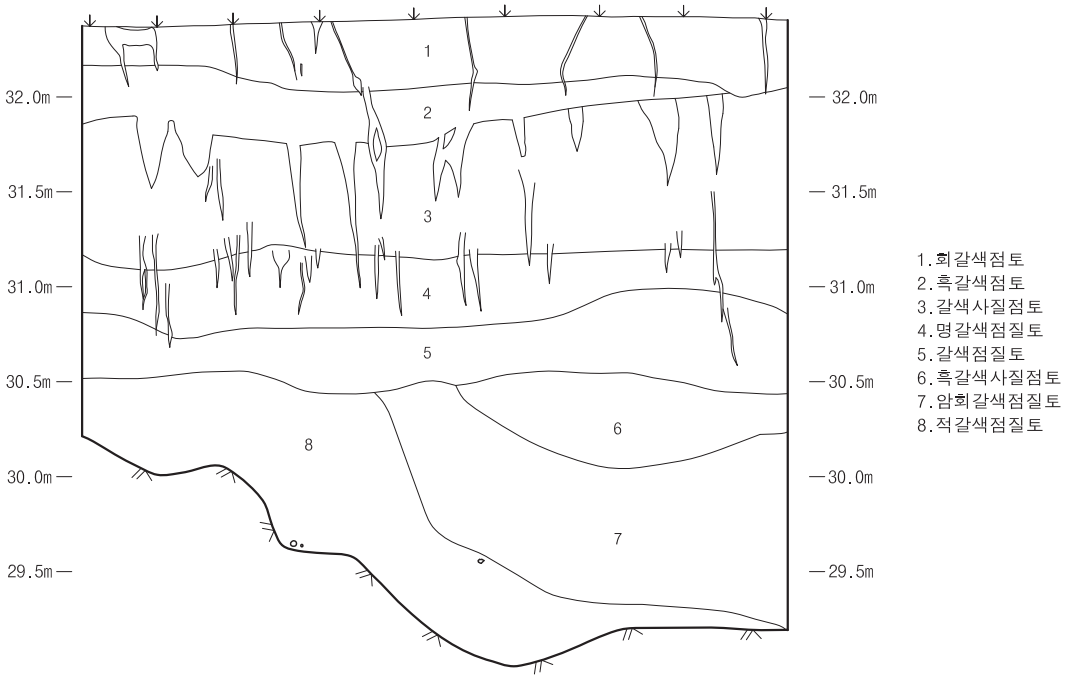
범 례

시 대	유 구 명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 혈
	지석묘
	석관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수 혈
	굴립주건물지
	우물지
고려시대	주거지
	수 혈
	토광묘
조선시대	주거지
	수 혈
	야외노지
	토광묘
	회곽묘
시대미상	이장묘
	수 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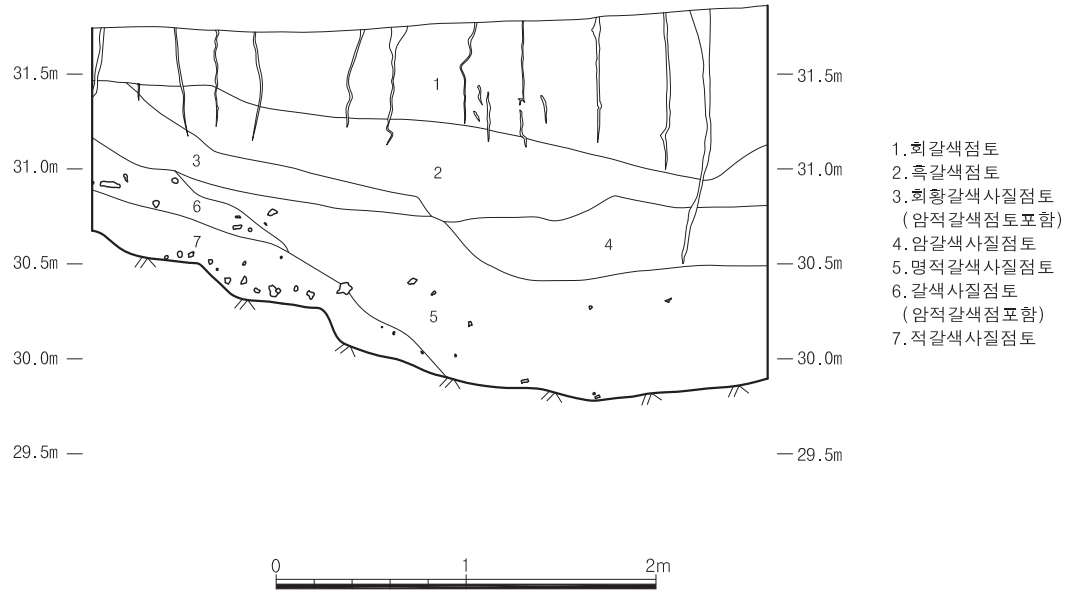


도면 9. 2지점 유구배치도(1:800)

<대표단면1>



<대표단면2>



도면 10. 2지점 가구역 구석기 갱신세층

B. 청동기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 사진 8~10)

1호 주거지는 능선의 말안장 형태로 평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쪽 10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북쪽 30m지점에 지석묘, 동쪽 10m지점에 8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5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동단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층위상으로 볼 때 1·7·9층에서 재·목탄·소토가 퇴적층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천정과 벽체가 쓰러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퇴적토는 유수에 의해 급격히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43]이며, 장축방향은 N-88°-E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839×436×36㎝로 장단비는 1.96: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26개, 저장공 6개, 노지 2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만 있는 것과 주주공+보조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며, 크기는 30㎝ 내외로 주공간 간격은 50~100㎝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저장공은 모두 6개가 확인되었는데, 동단벽과 북장벽이 만나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고 크기는 50~60㎝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북장벽에 4개, 동단벽에 1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며 동단벽과 남장벽 모서리에 1개가 떨어져 위치한다. 노지는 수혈식 노지로 바닥을 5㎝정도 판 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장축선상에 1개와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다. 생활공간은 저장공과 노지의 위치와 주주공의 배치로 보아 저장공이 위치한 부분과 노지가 위치한 부분이 약 1:2의 비율로 분할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장공이 있는 저장공간과 노지가 위치한 생활 및 생산공간으로 구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물은 주로 생활공간인 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토기류는 단도마연토기호, 무문토기 구연부 및 저부, 석기류는 이단병식 석검편, 지석, 망치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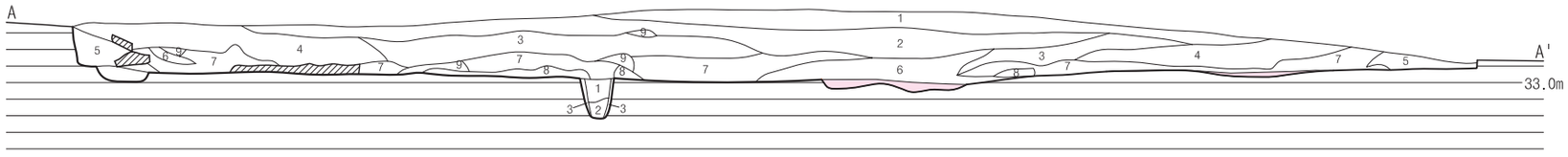
① 단도마연토기호(도면 12-3, 사진 11-①)

전체기형의 1/4 가량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면의 색조는 적갈색(5YR 4/6)을 띤다. 기외면과 구연내면에 단이 입혀져 있다. 바닥은 평저이며, 내면 경부아래에 지두흔이, 동체내면과 바닥안쪽에는 목리흔이 남아있다. 저부외면에는 바닥부착 후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고 13.7㎝, 구경 6.6㎝, 저경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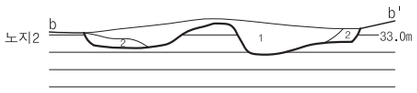
43) 高麗文化財硏究院, 2008, 앞 책, p85.
평면형태는 장단비를 기준으로 세장방형 : 3.0:1 초과, 장방형 : 1.5~3.0, 방형 : 1.5:1미만으로 구분하였으며, 면적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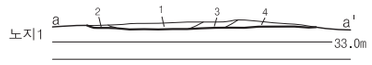
1.적갈색점토(재,목탄,세석립포함)
2.명갈색점토(세석립포함)
3.흑갈색사질점토+갈색점토
4.흑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
5.암적갈색니질토(세석립소량포함)
6.흑갈색사질토+암적갈색사질토
7.적갈색사질토+흑갈색사질점토(재,목탄포함)
8.흑갈색사질토
9.암적색점토(소토,재,목탄다량포함)

노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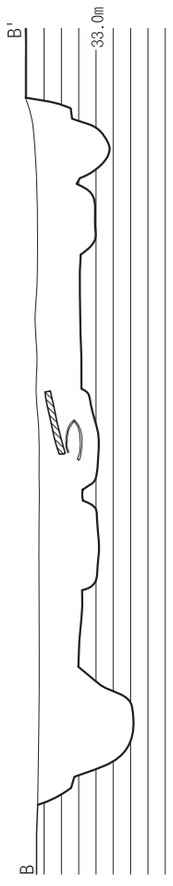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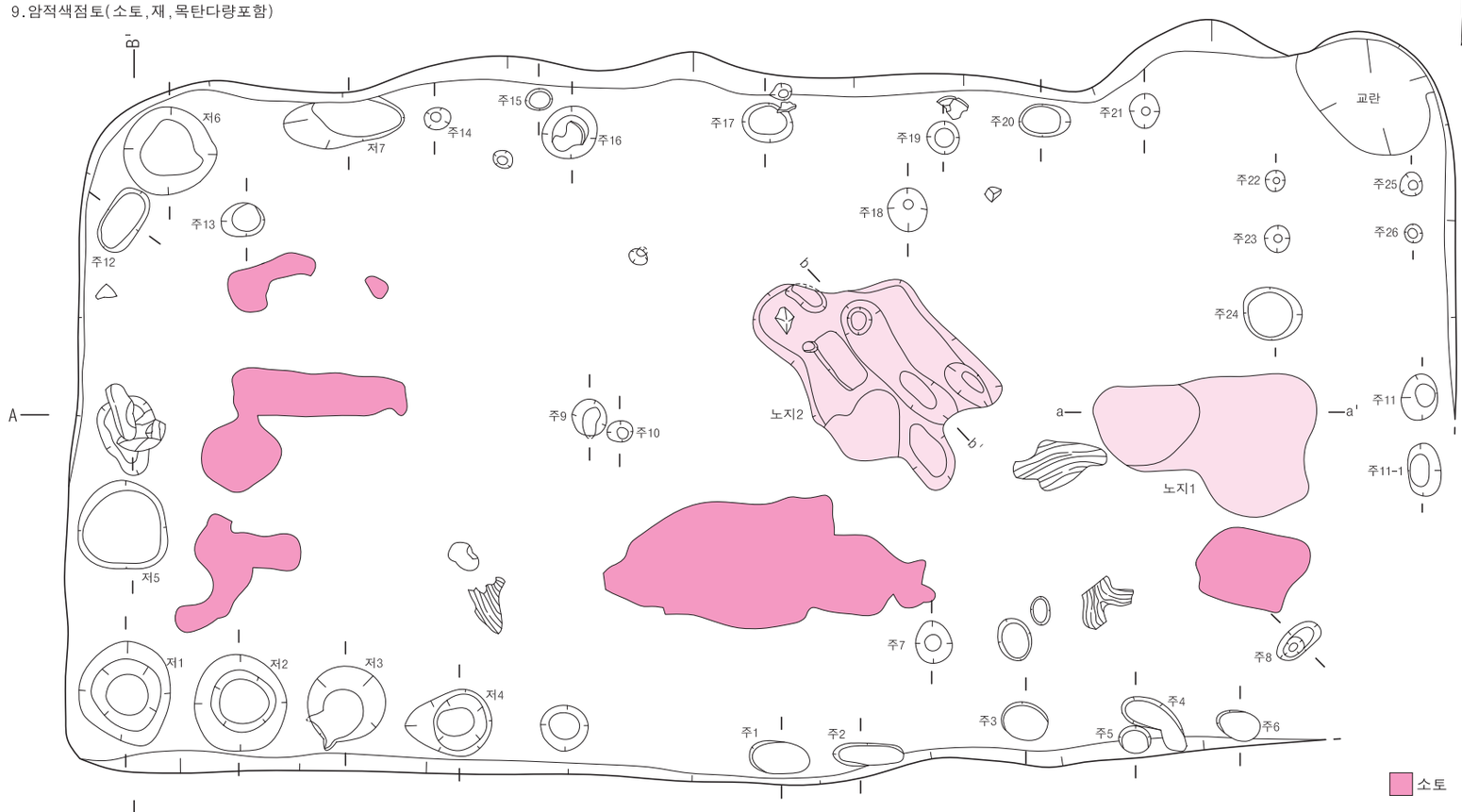
1.암흑갈색사질토(목탄포함)
2.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소량포함

노지1



1.탄재층
2.진갈색점질토
3.암갈색(목탄미량포함)
4.암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다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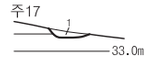
주8

1.암갈색사질토
+회갈색점질토
2.암갈색사질토
+진갈색사질점토
3.회황갈색사질점토
4.적갈색사질토
+회갈색점질토

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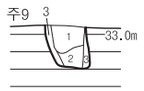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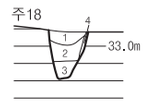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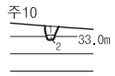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목탄포함층)
2.암갈색점질토
3.갈색사질토

주18



1.암회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3.진갈색사질점토
4.갈색사질토

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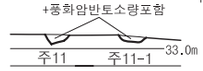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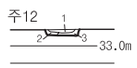
주19

1.갈색사질토

1.갈색사질토
+풍화암반토소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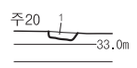


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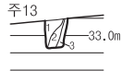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암황갈색사질점토

주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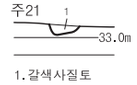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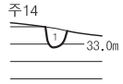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점질토
+회갈색점질토소량포함
3.암갈색점질토

주21



1.갈색사질토

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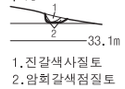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진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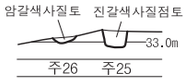
1.암흑갈색사질토
(목탄,소토포함)
2.황갈색사질토

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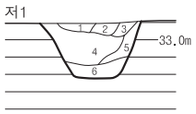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회갈색점질토

암갈색사질토
진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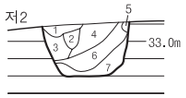
저장공

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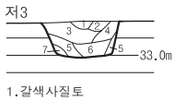
1.암갈색미질토
(목탄,소토포함)
2.암갈색미질토
3.갈색점질토
4.적갈색점질토
5.갈색사질점질토
6.암갈색점질토

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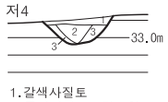
1.흑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2.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토소량포함
3.진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점질토
5.흑갈색사질토
6.암회갈색점질토
+갈색점질토소량포함
7.적갈색사질점토

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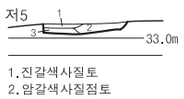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적갈색점질토
4.암적갈사질토
5.진갈색사질점토
6.암갈색사질토
+갈색점질토소포함
7.황갈색사질점토

저4



1.갈색사질토
+풍화암반토소량포함
2.진갈색사질토
3.적갈색점질토

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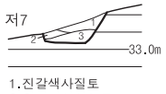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암황갈색사질점토

저6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회흑갈색사질점토
4.회갈색점질토

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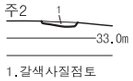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암황갈색사질점토

주공

주1

1.갈색사질점토
2.회황갈색사질점토

주2



1.갈색사질점토

주3

1.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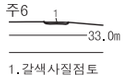
주4

1.갈색사질점토

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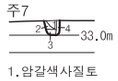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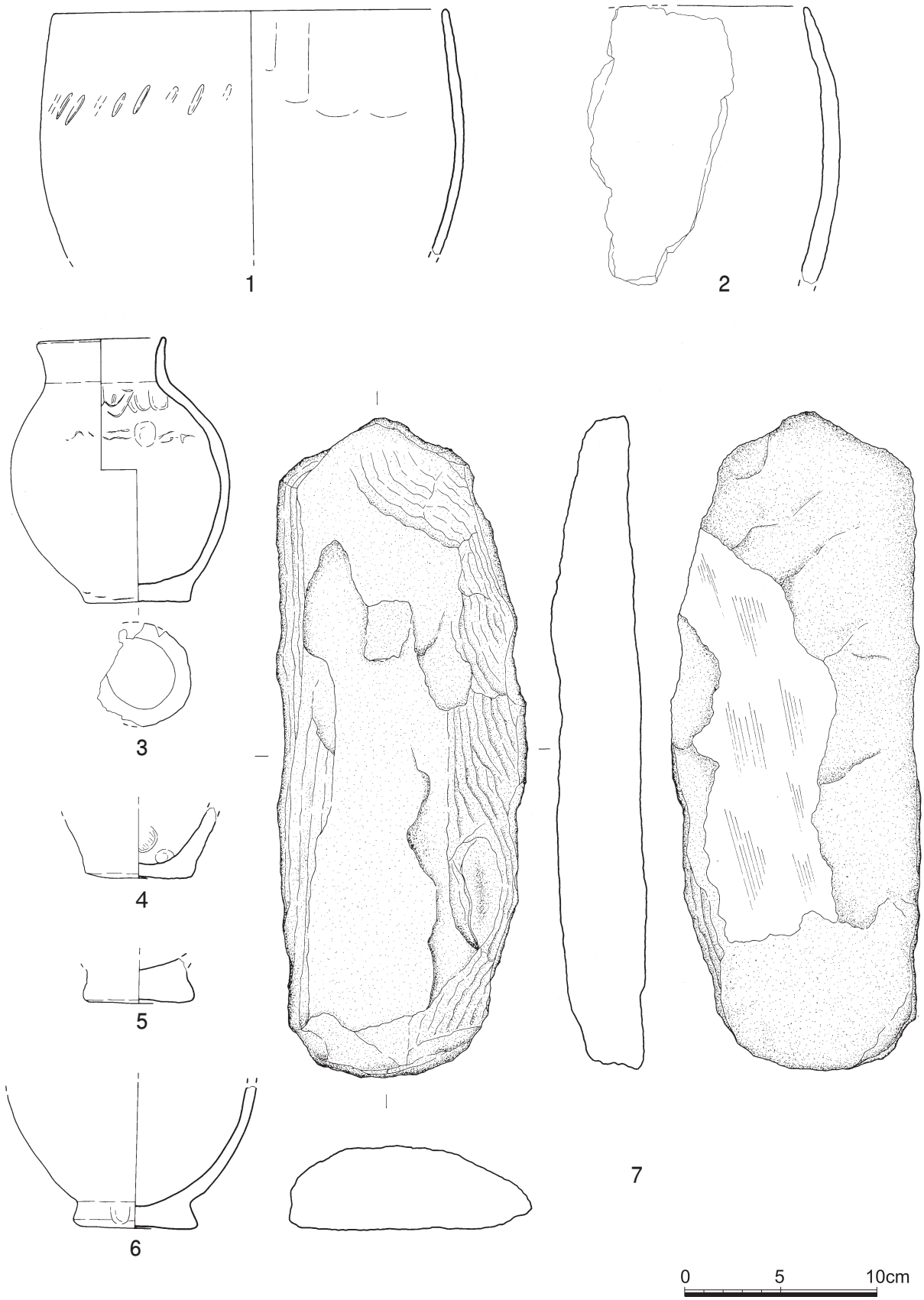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주7



1.암갈색사질토
2.암황갈색사질토
3.회황갈색점질토
+회갈색사질점토포함
4.진갈색사질토

도면 11.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유구



도면 12.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②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1, 사진 11-②)

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부분의 1/3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동체부분의 외면은 명적갈색(5YR 5/6)을 띠나 구연내외면과 동체내면은 회흑색을 띤다. 구연단에서 약 4㎝ 아래에 右上左下로 단사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목판조정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현고 12.9㎝, 복원구경 20.0㎝

③ 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2-2, 사진 11-⑥)

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과 동체부의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여있으며 기내외면 모두 등색(7.5YR 6/6)을 띤다. 현길이 14.7㎝

④ 무문토기 저부(도면 12-6, 사진 11-③)

저부만 온전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였으며 비교적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내외면 모두 탁한 적갈색(5YR 5/4)을 띠는데 바닥부분은 암적갈색을 띤다. 동체와 저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7.1㎝, 저경 6.8㎝

⑤ 무문토기 저부(도면12-4, 사진 11-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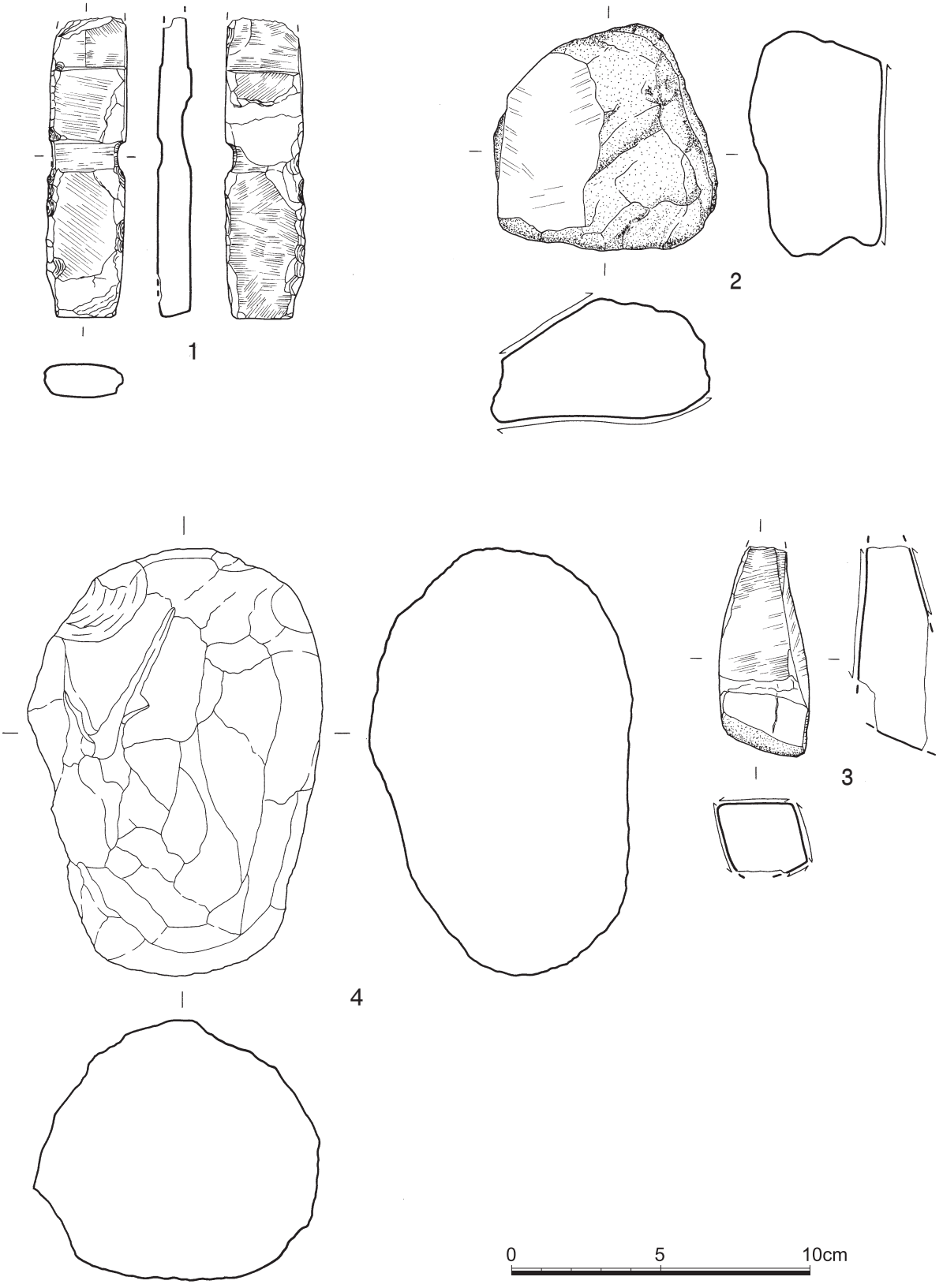
저부만 온전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 사립과 소량의 운모립이 포함되어 있다. 기내외면 모두 탁한 적갈색(5YR 5/4)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저부내면에 목리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고 3.8㎝, 저경 5.7㎝

⑥ 무문토기 저부(도면 12-5, 사진 11-⑤)

바닥부분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 등 사립이 섞였으나 비교적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명적갈색(2.5YR 5/8)을 띤다. 현고 2.4㎝, 저경 5.7㎝

⑦~⑪ 석기류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⑦	13-1	11-⑦	석검편	(10.2)	2.7	1.2	55	납석 재질의 二段柄式 石劍片으로 검신은 대부분 결실되었고 병부가 남아있음, 병부는 검신보다 약간 두텁게 만들어졌으며 병부와 검신의 단면은 모두 장방형, 검의 양측면은 재사용하기 위해 타격함
⑧	13-2	11-⑧	지석	7.7	7.4	4.2	333	편암 재질로 평면과 단면의 형태는 부정형함, 2면이 마연됨
⑨	13-3	11-⑩	지석	(7.1)	3.0	2.3	60	유문암 재질로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됨, 4면이 마연됨
⑩	13-4	11-⑪	망치돌	14.4	10.0	8.8	1,634	망치돌의 용도로 추정되는 석기로 암질은 안산암, 가공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며 측면은 손에 잡기 용이하도록 부분적으로 타결함
⑪	12-7	11-⑨	갈판	34.7	12.7	4.5	3,260	흑운모편암 재질의 갈판으로 평면형태는 세장타원형, 일부에 세로방향의 마연흔적이 확인됨



도면 13.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 사진 12·13)

2호 주거지는 능선의 말안장 형태로 평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북쪽 10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동쪽 23m지점에 85호 토광묘가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3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은 적어 평면형태가 뚜렷이 남아있다. 층위상으로 볼 때 8·12층에서 목탄이 퇴적층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천정부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6°-E로 정남향에 가까우며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462×310×43㎝로 장단비는 1.5: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9개, 노지 2개, 배수로와 집수구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만 있는 것으로 양장벽 중앙을 중심으로 3개가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주공1을 제외하고는 20㎝ 내외이며 주공간 간격은 100~120㎝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노지는 수혈식 노지로 바닥을 약간 판 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장축선상에 2개가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서단벽과 남장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안쪽으로 주공이 배치되어 있다. 배수로가 끝나는 남장벽 동측 모서리에는 80×30×15㎝ 크기의 집수구가 연결되어 있다. 생활공간은 주공의 위치로 보아 중앙을 중심으로 양분한 형태이며 노지가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된 것으로 보아 생활공간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주1 서쪽에 잇대어 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토기가 뒤집어진 채로 출토되었고, 그 외의 유물은 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무문토기 완·발, 저부투공토기, 무문토기 저부·구연부편, 석기류는 갈판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무문토기 완(도면 15-6, 사진 1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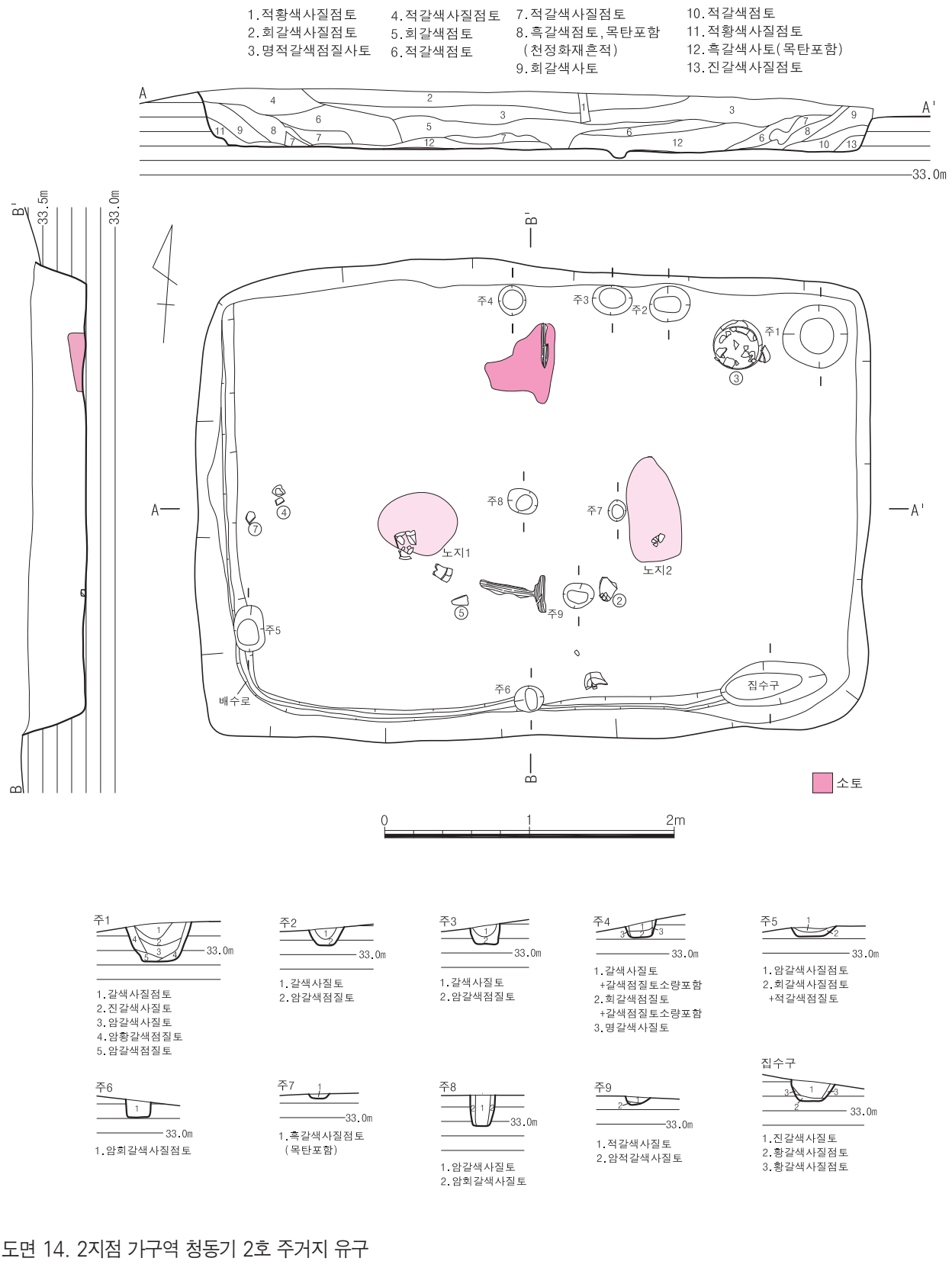
무문토기 완으로 전체기형의 1/2가량이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석영립과 장석립, 운모립이 포함되었다. 구연내외면과 동체내면은 황갈색을 띠고, 외면의 구연아래와 바닥내외면은 흑회색을 띤다. 저부의 굽은 동체에 비해 작은 편인데 높이가 다소 높은 편으로 비교적 반듯하게 다듬었다. 동체내외면에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보이며 내면의 구연 바로아래에는 지두흔이 사방향으로 길게 나 있다. 고 10.2㎝, 복원구경 16.3㎝, 복원저경 8.4㎝

② 무문토기 발(도면 15-5, 사진 14-⑤)

발형토기로 구연과 동체가 1/2가량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적갈색이나 구연내외면은 갈색을 띠고 내면의 중하위는 흑갈색에 가깝다. 기외면은 상단부를 제외하고는 약하게 박리되었다. 동체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사방향으로 나있으며, 동체내면과 동체와 저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고 18.5㎝, 구경 15.5㎝, 저경 7.8㎝

③ 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토기(도면 15-1, 사진 14-①)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는 발형의 공열토기로 구연단 대부분과 저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이며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띤다. 동체내면에 帶狀으로 유기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기면은 약하게 박리된 부분이 많다. 각목문이 시문되었던 것으로 보이



도면 14. 2지점 가구역 청동기 2호 주거지 유구

나 구연단부가 극히 일부만 남아있어 각목문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공열은 일부가 남아있다. 공열문은 구연단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열의 간격은 약 2~2.5㎝내외로 비교적 일정하다. 구연단에서 5.5㎝가량 떨어진 곳에 점토를 덧대었으며 그 위에 右上左下로 단사선문을 시문하였다. 동체외면은 기면이 약하게 박리되어 정면수법을 확인하기 어렵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무질서하게 나 있다. 현고 27.2㎝, 복원구경 33.0㎝

④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 사진 14-②)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발형토기로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기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이며 내면일부와 속심은 회흑색 띤다. 구연단에서 약 5㎝아래에 점토를 덧대고 그 위에 사선문을 시문하였는데 크기나 간격이 일정치 않다. 기외면은 박리로 인해 정면수법을 확인하기 어렵고 동체내면에는 목리흔과 지두흔, 도구흔이 관찰된다. 현고 10.7㎝, 복원구경 31.0㎝

⑤ 저부투공토기(도면 15-3, 사진 14-⑦)

바닥과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여있으며, 내외면의 색조는 적갈색이다. 바닥에 직경 약 2.0㎝정도로 추정되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3.7㎝, 복원저경 8.0㎝

⑥ 무문토기 저부(도면 15-4, 사진 14-⑥)

무문토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립과 장석립, 운모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동체와 저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3.4㎝, 저경 9.6㎝

⑦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5-7, 사진 14-⑨)

동체와 저부의 1/4가량이 남아있다. 태토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5.3㎝, 복원저경 8.4㎝

⑧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5-8, 사진 14-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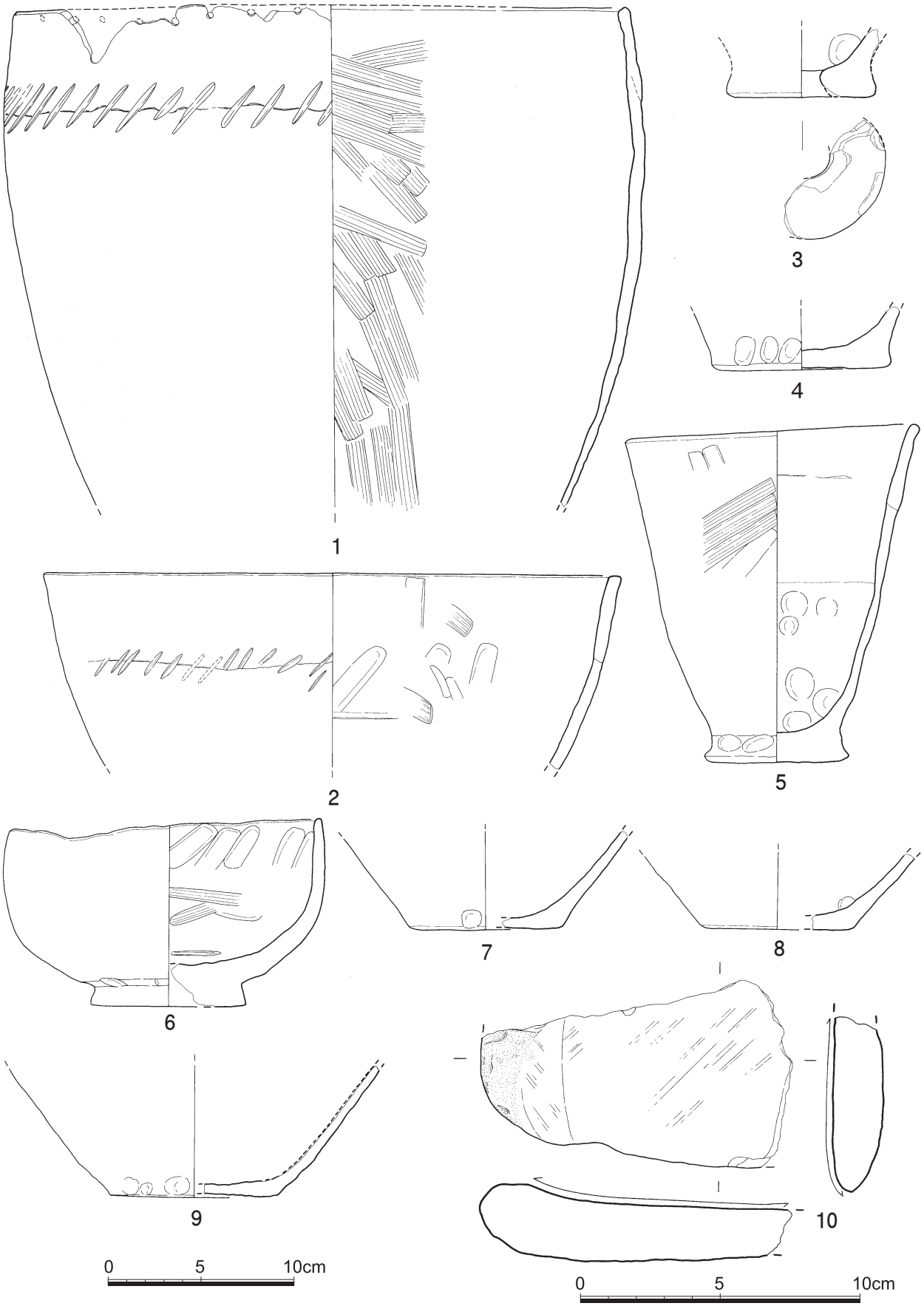
바닥과 저부의 1/4 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다량의 석영립과 장석, 소량의 운모립 등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이나 저부외면은 녹회색을 띤다. 저부내면에 지두흔이 있다. 현고 4.2㎝, 복원저경 8.4㎝

⑨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5-9, 사진 14-④)

동체와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영립이 다량 섞여 기면에 돌출되어 있으며 소량의 운모립과 장석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갈색을 띠고 내면은 외면보다 밝은 황적갈색을 띤다. 동체내면은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있으며 동체와 저부의 경계에 지두흔이 나 있다. 현고 7.2㎝, 복원저경 8.4㎝

⑩ 갈판(도면 15-10, 사진 14-⑩)

암질은 흑운모화강암이며, 일부만 남아있다. 前面이 치밀하게 마연되었다. 현길이 11.3㎝, 현폭 6.4㎝, 두께 1.8㎝, 무게 219g



도면 15. 2지점 가구역 청동기 2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지석묘

1) 1호 지석묘

(1) 유구(도면 16·17, 사진 15~17)

지석묘는 가구역의 가장 북쪽 구릉 날등부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한우농장 남쪽 담장에서 10m정도 떨어진 과수원의 북쪽 능선 정상부에 해당하며, 북쪽으로 석관묘 5기가 10m지점 내외에 둘러져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이 입지한 곳은 능선상 제일 높은 지점으로 해발고도 33.7m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서쪽으로 승두천이 500m정도 떨어져 南流하고 있다.

무덤방은 토광을 판 후 판석을 세워 굄돌로 사용하고, 그 위를 덮개돌이 덮고 있는 개석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크기는 304×166×131㎝로 평면 장방형, 단면 괴석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향이다. 재질은 석립이 굵은 역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화강편마암이며, 상면에 원석에서 떼어낼 때 생긴 채석흔이 지름 10㎝, 깊이 8㎝정도 관찰된다. 덮개돌은 놓여진 상태로 보면 남쪽으로 30~40㎝정도 밀리면서 기울어져 굴광된 토광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굄돌은 지름 50㎝내외의 괴석 3매가 덮개돌을 받치고 있다. 원래 4매를 세운 것인데 북장벽을 훼손하면서 도굴하여 북장벽 1매는 없어진 상태이다. 4매의 괴석은 하단부를 고정하기 위하여 잡석들을 이용해 내외면을 받쳐서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를 구성한 석곽의 규모는 180×60㎝이며 바닥면은 잡석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굄돌이 무너지면서 또는 도굴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것이며, 토광면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굴광방식은 갱신세층 위의 황갈색 점토층을 굴광하였으며, 굄돌을 받치는 부분에서 단이 지며 그 아래 중앙부분에 토광을 시설하였다. 묘광은 120×60㎝, 깊이 30㎝정도이다.

특이한 점은 첫째, 시굴구덩 조사 시, 하부구조로 보이는 40×25×10~15㎝ 크기의 판석 2매와 석열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미 지표조사 시 확인된 120×50×40㎝ 크기의 덮개돌과 현재 남아있는 170×105×62㎝ 크기의 덮개돌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돌 주변에 이와 유관한 유구들이 소형 석관묘의 덮개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황갈색 점토층 상면에서 무문토기 구연부편들이 수습되어 고인돌 축조 시 의도적으로 질그릇을 깨고 이를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덮개돌 북쪽 아래에 연하여 단경호와 분청사기접시, 분청사기대접과 도기 저부를 포개어 매납한 유물이 출토되어 역사시대에도 계속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고인돌을 섬겨온 것을 알 수 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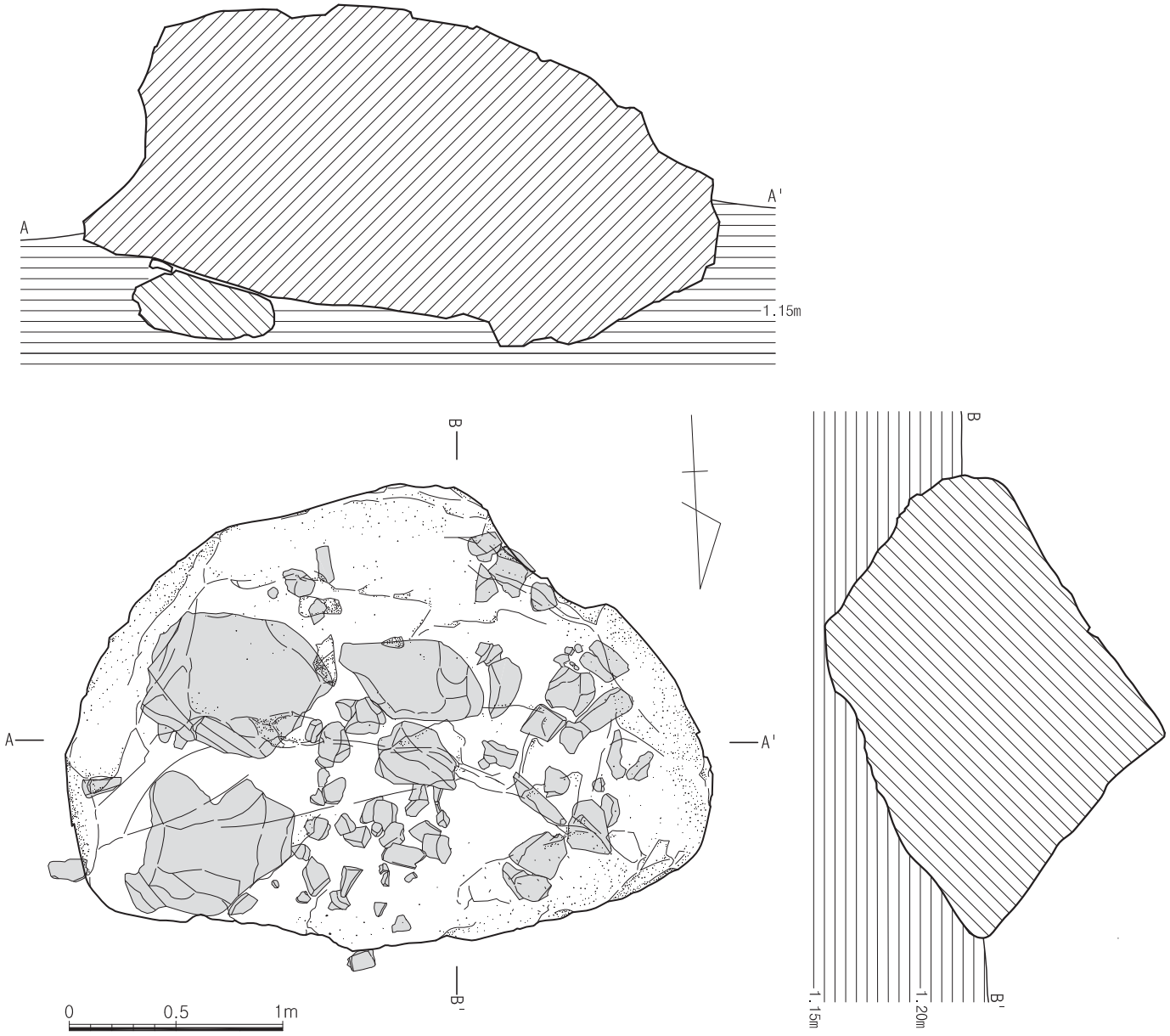
① 무문토기 발(도면 17-1, 사진 18-①)

구연일부와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면의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 흑갈색이다. 구연부쪽 기면이 약하게 박리되었다. 구연부(현고 3.5㎝, 복원구경 13.2㎝), 저부(현고 1.4㎝, 복원저경 6.3㎝)

② 저부투공토기(도면 17-2, 사진 18-③)

바닥이 투공된 무문토기로 저부만 1/3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외면에 손누름흔이 보인다. 현고 3.6㎝, 복원저경 7.9㎝

③ 석검편(도면 17-3, 사진 1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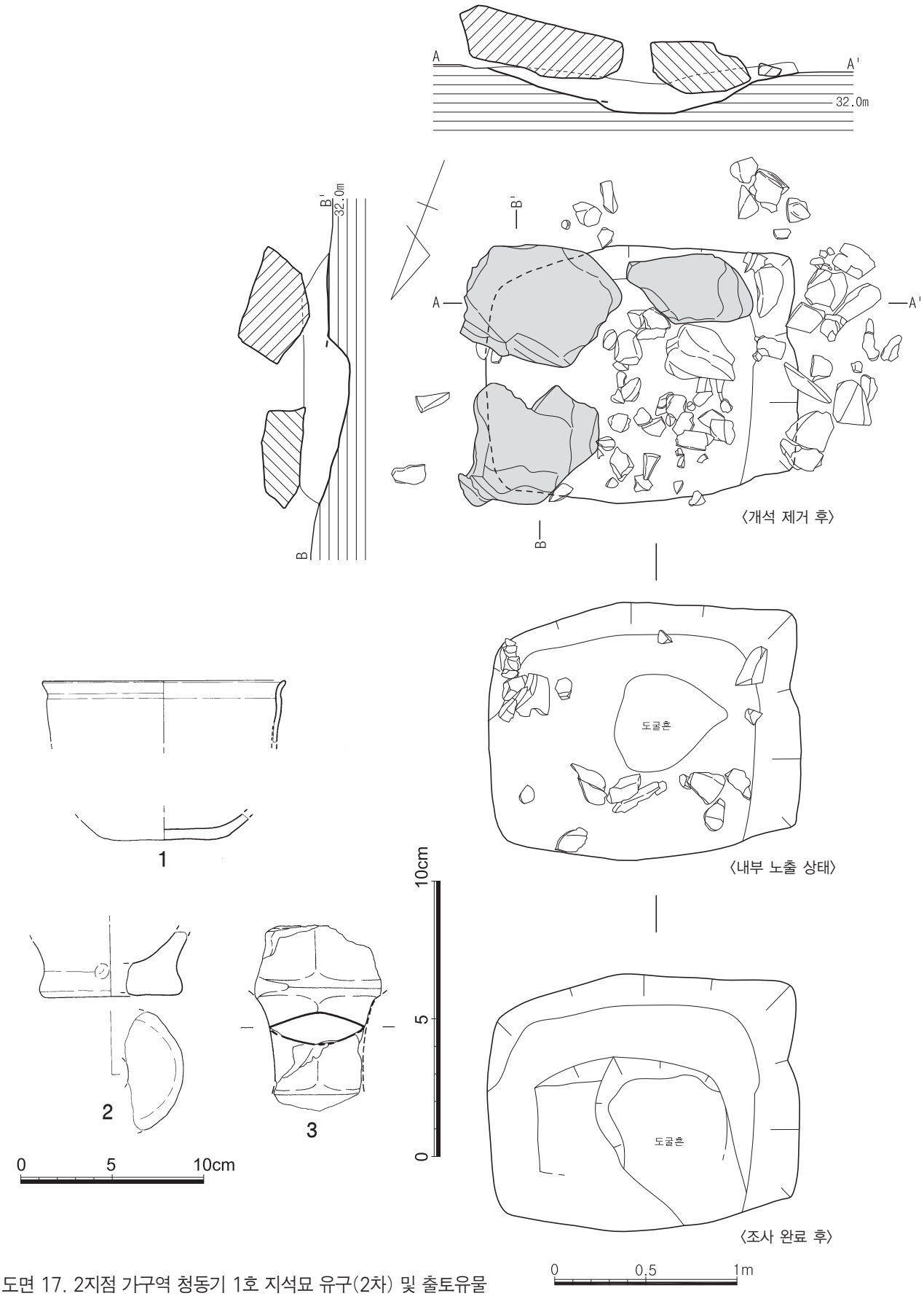


도면 16.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유구(1차)

검신의 대부분과 병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황갈색을 띠는 이암혼펠스 재질로 병부의 단면은 菱形이다. 현길이 6.8㎝, 현폭 4.6㎝, 두께 1.2㎝, 무게 43g

④ 분청사기접시(도면 18-1, 사진 18-⑥)

단경호의 뚜껑으로 덮힌 채 출토된 분청사기 인화문 접시로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내저면은 넓고 평평하며 측선은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그대로 구연으로 이어진다. 굽은 죽절형식으로 굽안쪽은 단정하게 돌려깎았다. 안바닥에는 중앙에 큰 화문을 두고 그 주위에 점열문을 인화하였으며 내벽과의 경계면과 구연아래에 2~3조의 원권문을 두른 후 그 사이에 연주문을 넣었다. 외벽에는 구연아래에 3조의 원권문을



도면 17.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유구(2차) 및 출토유물

둘렀다. 유색은 연녹색으로 접지면과 굽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기면에는 기포와 철반이 많이 보이나 광택은 좋은 편이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2.6㎝, 구경 12.1㎝, 저경 4.5㎝

⑤ 단경호(도면 18-2, 사진 18-⑦)

완형의 단경호로 경질이나 소성도가 다소 낮은 편이며, 태토는 석영립, 장석 등 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5Y 5/1)을 띤다. 구순부는 군데군데 결실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타격하여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나 많이 지워져 동중하위 일부에만 타날흔이 남아있으며, 동중위에는 2조의 침선을 두르고 그 사이에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외면을 정면하였는데 이 부분의 기벽 일부가 터져있다. 동체내면에는 점토띠흔과 박자흔이 잘 남아있다. 고 19.7㎝, 구경 12.1㎝, 저경 14.9㎝

⑥ 도기 저부(도면 18-3, 사진 18-⑨)

분청사기대접 위에 덮개로 사용된 도기저부로 동중위 아래 부분만 남아있는데 인위적으로 타격하여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흑색에 가까운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며 바닥의 타날흔은 정면으로 인해 지워졌다. 내면에는 바닥전면에 점토를 두껍게 덧대어 박자로 누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고 9.3㎝, 저경 8.0㎝

⑦ 분청사기대접(도면 18-4, 사진 18-⑧)

도기저부와 함께 출토된 분청사기대접이다. 완형으로, 기벽은 저부에서 둥글게 벌어져 올라와 구연에서 외반되는 형태이다. 죽절굽이며, 굽안쪽도 평평하게 깎아냈는데 터짐을 방지하기위해 도구로 꾹꾹 눌러 다진 자국이 남아있다. 내벽에 5~6조의 원권을 두른 후 백상감하였다. 회녹색의 유조를 보이나 시유와 발색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내면 일부는 산화로 인해 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저면에만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쳤다. 고 9.1㎝, 구경 20.4㎝, 저경 6.7㎝

3. 석관묘

1) 1호 석관묘

(1) 유구(도면 19, 사진 19~20)

1호 석관묘는 능선의 평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쪽 2m지점에 3호 석관묘, 남동쪽 2.4m지점에 2호 석관묘, 북동쪽 1m지점에 5호 석관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m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크기는 205×83×40㎝(2.47:1), 석관의 크기는 127×56×30㎝이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65°-E이다. 묘광은 20㎝정도 올라오면 단이 지는 형태로 고인돌 축조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단이 진 면을 이용하여 할석을 쌓았다. 석관은 크기가 20~30㎝정도의 편마암제 할석으로 굴광면에 단이 지는 부분을 이용하여 장축은 가로쌓기를 하고 단축은 세로쌓기로 하였다. 특히 남장벽은 석곽묘에서 보이는 돌은 바닥면에서 높이를 맞추어 배치하기 위하여 굴광한 후 크기가 각각인 돌의 모서리를 짜맞추어 쌓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북벽 장축에 도굴흔적이 확인되는데, 할석들이 일부 불규칙하게 내측으로 배치되어진 것, 북동쪽 장축 일부가 훼손된 것, 내부 토층이 교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돌, 2호 석관묘와 함께 장벽 일부를 굴광한 후 판석을 빼서 도굴한 수법으로 판단된다.

2) 2호 석관묘

(1) 유구(도면 19, 사진 21)

2호 석관묘는 능선의 평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쪽 2m지점에 4호 석관묘, 남서쪽 7.6m지점에 고인돌, 서쪽 4.8m지점에 3호 석관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3m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크기는 209×106×70㎝(1.97:1), 석관의 크기는 178×67㎝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60°-W이다. 묘광은 15㎝정도 올라오면 사선으로 가파르게 단이 지는 형태로 단이 진 면을 이용하여 비스듬히 장판석을 1매씩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관은 두께가 10㎝정도로 일정한 점판암제 판석 5매가 잔존하고, 바닥에는 판석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을 판 것으로 보아 장벽은 30~70㎝크기의 장판석을 3~4매, 단벽은 1매를 이용하여 세워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발굴 당시 근래에 사용된 면장갑과 벽면에 삽자국이 난 것으로 보아 도굴로 인하여 유구가 해체된 후 판석의 일부는 다시 되메워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형태면으로 보면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판석 3~4매 정도를 이용하여 장축을 만들고 단벽은 판석 1매를 세운 전형적인 송국리형 석관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3) 3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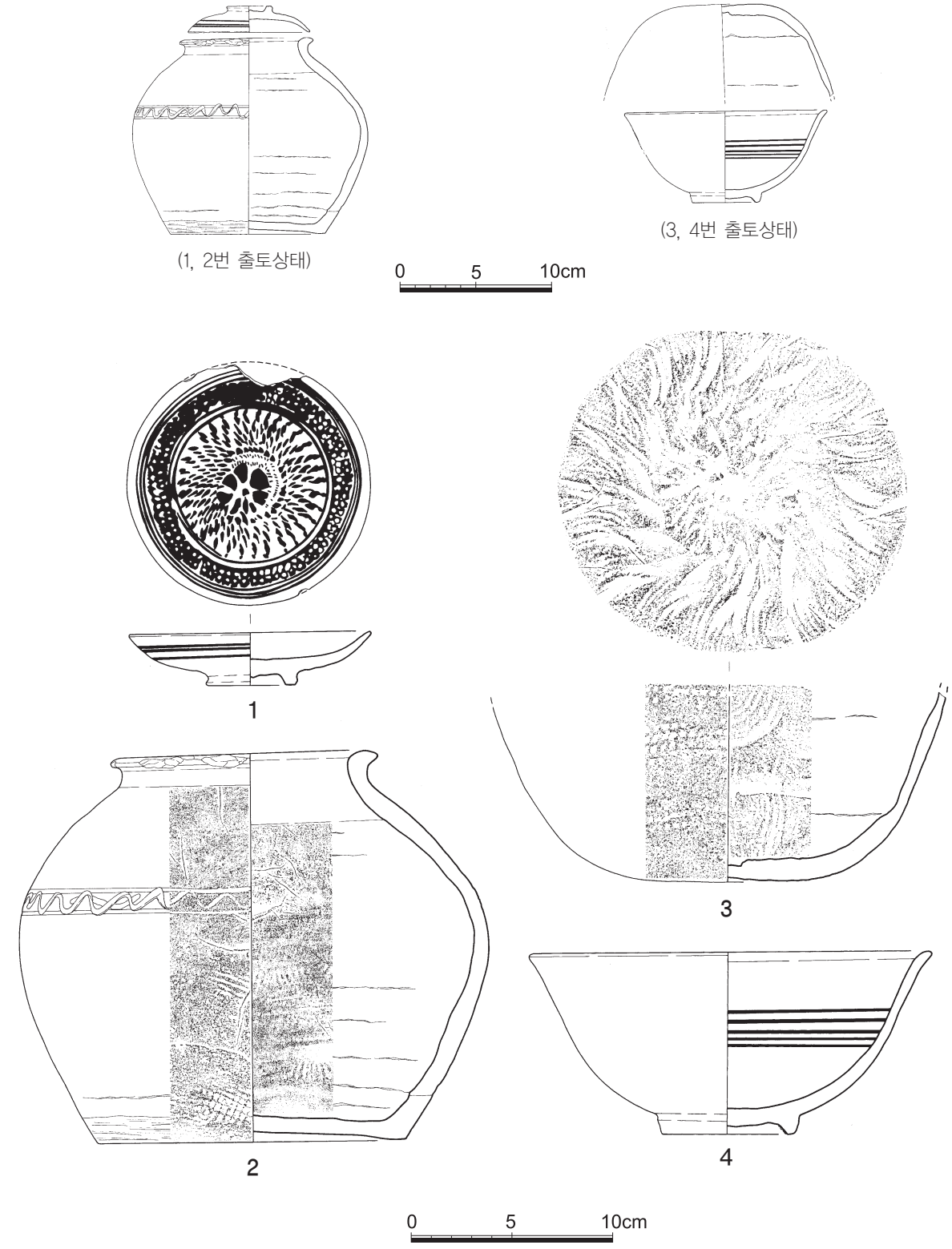
(1) 유구(도면 19, 사진 22·23)

3호 석관묘는 능선의 평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쪽 4m지점에 고인돌, 동쪽 4.8m지점에 2호 석관묘, 북쪽 3.5m지점에 1호 석관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25m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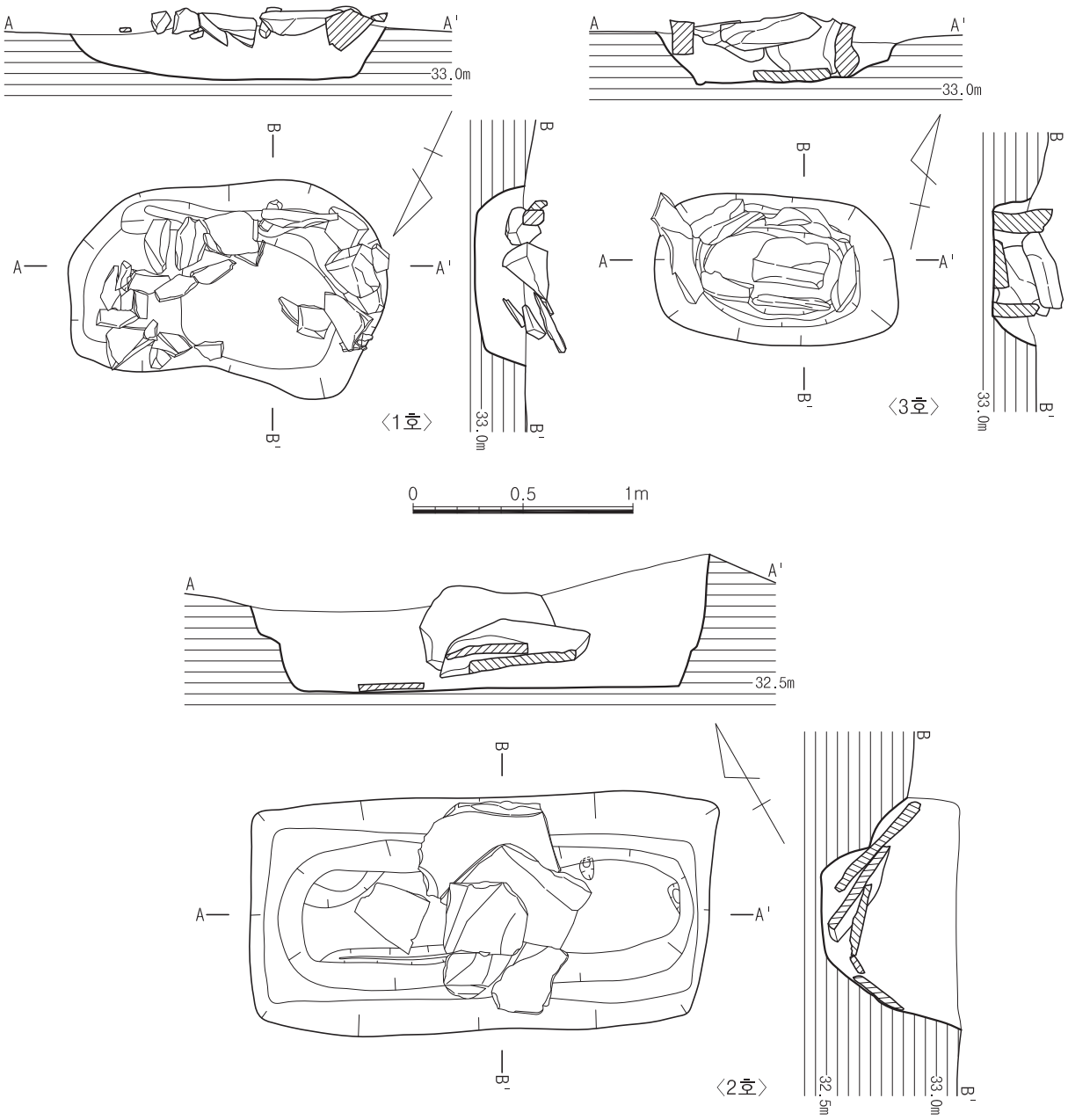
묘광의 크기는 108×68×26㎝(1.59:1), 석관의 크기는 83×58×40㎝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8°-E이다. 묘광은 북장벽은 수직으로 20㎝, 남장벽은 비스듬히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판석을 끼울 수 있도록 장타원형의 형태로 홈을 팠다. 토광을 판 후 바닥에 판석 1매를 시설하고 장단벽을 수직으로 세워 석관을 시설하였다. 내부에서는 숯과 인골편이 다량 수습되었는데, 석관 내부 전면에 깔려 있었다. 이것은 석관의 면석을 시설한 후 화장을 실시하고, 화장이 끝난 후 판석1매를 이용하여 개석을 올려 석관을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관은 두께가 10~15㎝정도로 일정한 편마암제 판석을 이용하였는데, 장축(남·북벽)은 각각 2매의 할석을 나란히 쌓기를 하였고, 단축(동·서벽)은 각각 1매의 할석을 가로쌓기를 하였다. 상석은 동단벽에 붙여 편마암 할석 1매(35×20×5㎝)를 덮었다. 상석은 화장이 끝난 후 덮은 것으로 보령 평라리유적[44] 석관묘 개석과 동일하다. 바닥에서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깊이가 얕고 지름이 작은 것으로 보아 화장 시 작은 나무를 고정했던 용도로 파악된다.

---

44) 韓國水資源公社·忠北大學校博物館, 1996,『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査 報告②-평라리 선사유적』.
보고자는 석관묘의 개석이 판석 1매를 석관묘의 중앙에 위치시킨 것으로 석관묘의 규모보다 작은 판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석의 용도보다는 묘표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면 18.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지석묘 주변 출토유물



도면 19.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2·3호 석관묘 유구

4) 4호 석관묘

(1) 유구(도면 20, 사진 24)

4호 석관묘는 능선의 평평한 정상부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남서쪽 4.8m지점에 고인돌, 북쪽 2m지점에 2호 석관묘, 북서쪽 5.6m지점에 3호 석관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08m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묘광의 크기는 74×59×15㎝(1.25:1)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석관의 크기는 55.5×54×20㎝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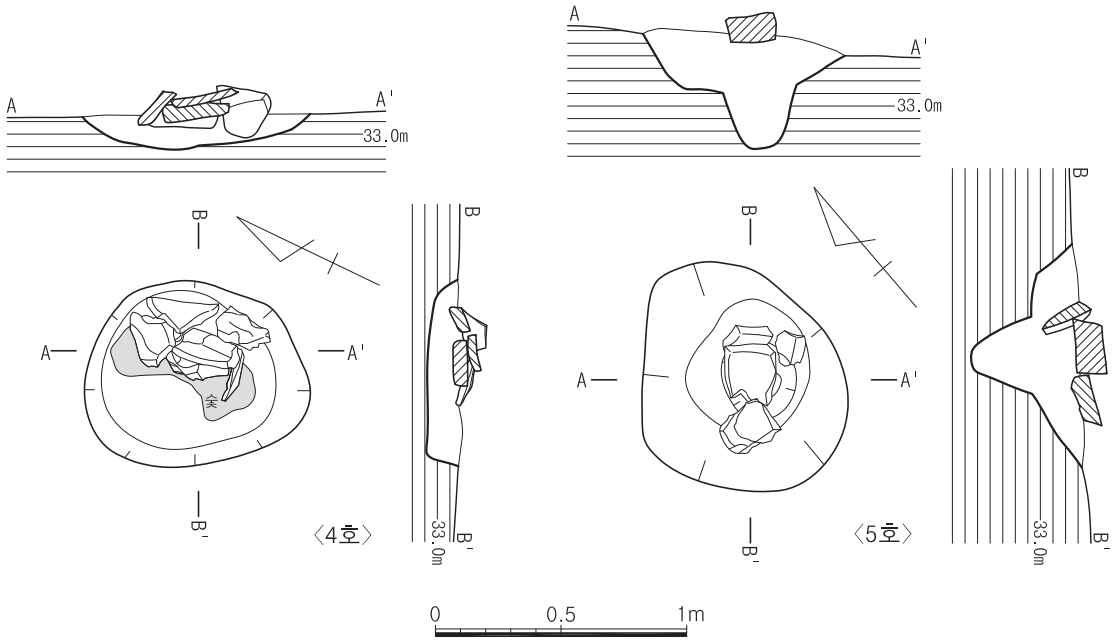
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6°-W이다. 묘광은 비스듬하게 장타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바닥은 굴광면부터 숯이 검출되었다. 층위는 내부에서 숯과 인골편이 다량 수습되었으며 그 위에 석관을 시설하였다. 이것은 3호 석관묘와는 다른 형태로 토광을 판 후 화장을 하였으며, 화장이 끝난 후 판석 5매를 이용하여 석관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석관은 길이 20~30㎝, 두께가 5~10㎝정도로 일정한 편마암제 판석을 이용하였는데, 동장벽은 1매, 서장벽은 2매, 단축은 각각 1매의 할석을 세웠다. 상석은 판석 1매를 얹었다.

5) 5호 석관묘

(1) 유구(도면 20, 사진 25)

5호 석관묘는 능선의 평평한 정상부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남서쪽 1m지점에 1호 석관묘, 남동쪽 2.4m지점에 2호 석관묘, 남서쪽 4.4m지점에 3호 석관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19m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크기는 88×81×46㎝(1.09:1)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석관의 크기는 51×33×27㎝로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40°-W이다. 묘광은 원형으로 20㎝ 굴광한 후 중앙에 지름 30㎝, 깊이 25㎝정도의 구멍을 굴광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구멍은 출토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층이 단일 토층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층위는 내부에서 적갈색 사질점토만이 확인되었다. 석관은 크기가 각기 다른 4매의 편마암 할석을 이용하였다. 면석은 정확히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바닥 중앙에 위치한 원형 구멍을 시설한 후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면 20. 2지점 가구역 청동기 4·5호 석관묘 유구

C. 조선시대 이후

1. 주거지

주거지는 모두 7기로, 가지능선 말단부의 남사면과 남서사면의 토광묘군 사이에 조성되었다. 3~7호는 모두 해발 33~34m의 동일 등고선 상에 입지한다. 4호와 5호는 토광묘의 한 벽을 파괴하고 조성된 반면, 동시에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에 의해 내부시설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내지 말각장방형이며 주향은 남향 또는 서향으로 축조되었다. 모두 완만한 남사면 또는 서사면의 무른 화강편마암 풍화암반층을 파고 조성하였다. 벽면에 아궁이시설이 확인된 것은 1호·3호·5호·6호이며, 2호·4호·7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5호 주거지는 중앙에 반타원형 수혈 아궁이와 고래 위에 소형 할석을 깐 구들시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유물은 주로 인화문 분청사기와 회청색경질의 토기반 및 파수부동이가 주를 이룬다. 3호에서는 아궁이 옆에 완형의 주구호 1점이 바로 놓여 출토되었고, 7호에서는 완형의 분청사기발 5점이 출토되었다.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1, 사진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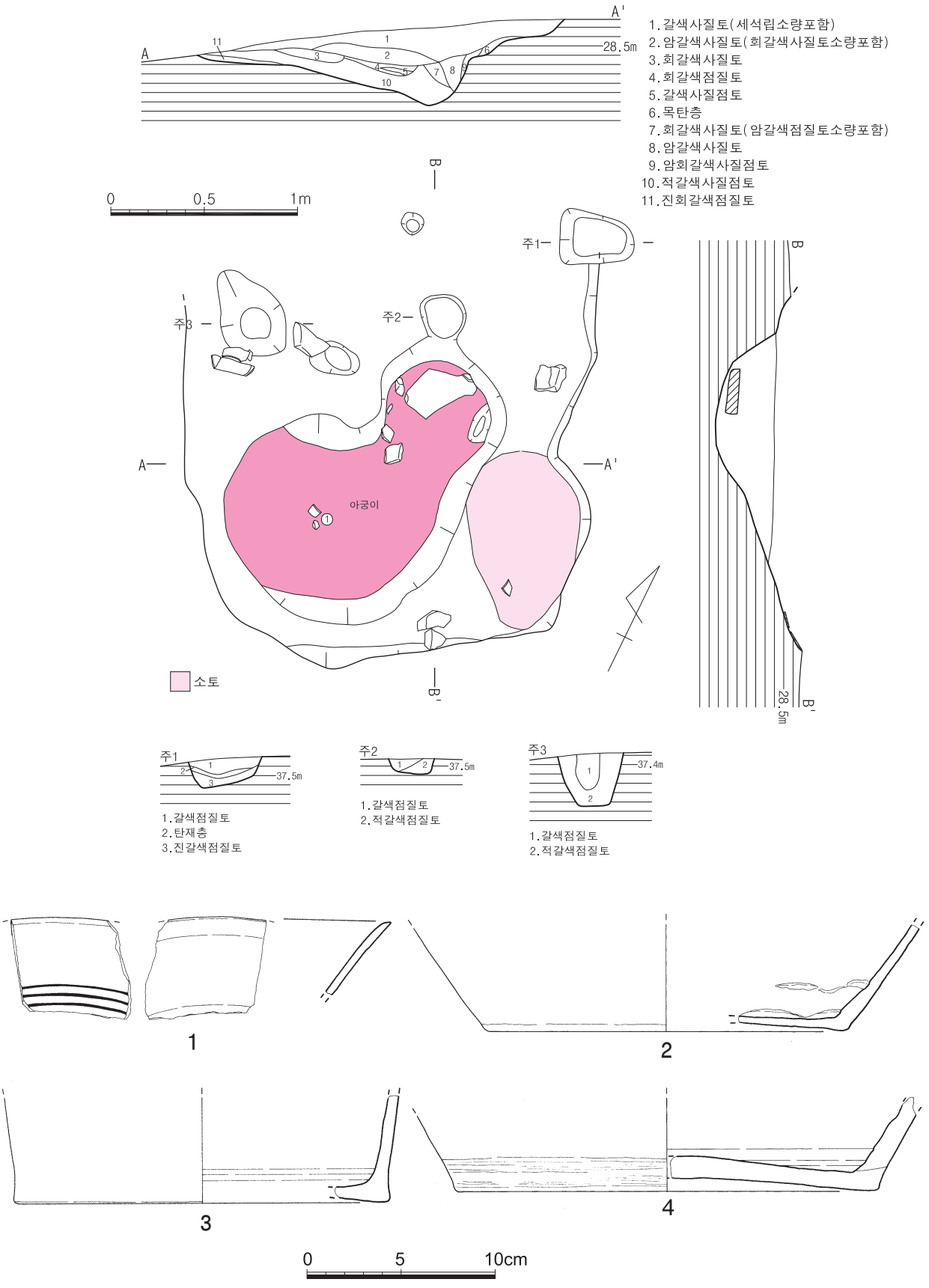
1호 주거지는 능선 서남쪽 하단부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며 남서쪽 4.7m지점에 조선시대 수혈유구, 동쪽 15m지점에 근대 이후 수혈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5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아궁이를 중심으로 하단부만 잔존하며 구들이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단부는 훼손되었다. 층위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므로 아궁이쪽만 퇴적토가 남아있다. 중간에 목탄층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갈색 계통의 사질토나 사질점토가 충전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4°-E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260×210×10㎝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3개,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으며, 서벽 중앙에서 15㎝ 떨어져 주주공(40×38×30㎝), 아궁이 서쪽에 소주공(25×23×7㎝), 동벽 중앙 어깨선 내에 주주공(40×28×10㎝)이 확인되었다. 주공3 내부에서는 탄재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45]으로 판단된다. 아궁이는 규모 170×110×46㎝이며, 내부에는 서벽에 세웠던 지각이 유실되었고, 동벽에는 지각을 고정하기 위해 판 홈이 남아있다. 지각 중간에는 이맛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20×5㎝ 크기의 판석이 1매 가로 놓여 있다.

유물은 아궁이 아래쪽과 남벽 주변 바닥에서 분청사기발 구연부편, 도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

45) 아궁이 동쪽 장벽 모서리에 잇대어 바닥 바로 위에 소토층이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의 폐기 원인이 화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1. 2지점 가구역 조선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분청사기발 구연부편(도면 21-1, 사진 27-⑧)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유색은 회청색을 띠며 유약의 융착상태가 좋지 않아 기면에 기포가 보인다. 내외면으로 작은 빙렬이 가득하다. 내면의 구연아래에 원권문의 일부가 남아있다. 현길이 5.1㎝

② 도기 저부편(도면 21-2, 사진 27-⑤)

동이류로 추정되는 저부로 1/2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7.5Y 3/1)을 띤다. 바닥은 가운데로 가면서 살짝 들린 형태로 저부하단에는 도구로 눌러 다진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5.8㎝, 복원저경 19.3㎝

③ 도기 저부편(도면 21-4, 사진 27-⑥)

저부부분의 1/2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 석영립과 함께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5/2)을 띤다. 바닥은 가운데로 가면서 두꺼워지며 살짝 들린 형태이다. 바닥과 동체를 접합한 후 횡으로 정면하였으며, 바닥외면에는 곡물껍질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5.0㎝, 복원저경 22.6㎝

④ 도기 저부편(도면 21-3, 사진 27-⑦)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회색(5Y 6/1)을 띤다. 기벽은 바닥에서 직립하듯 올라가며, 남아있는 동체내면에 동심원모양의 내박자흔이 보인다. 현고 5.7㎝, 복원저경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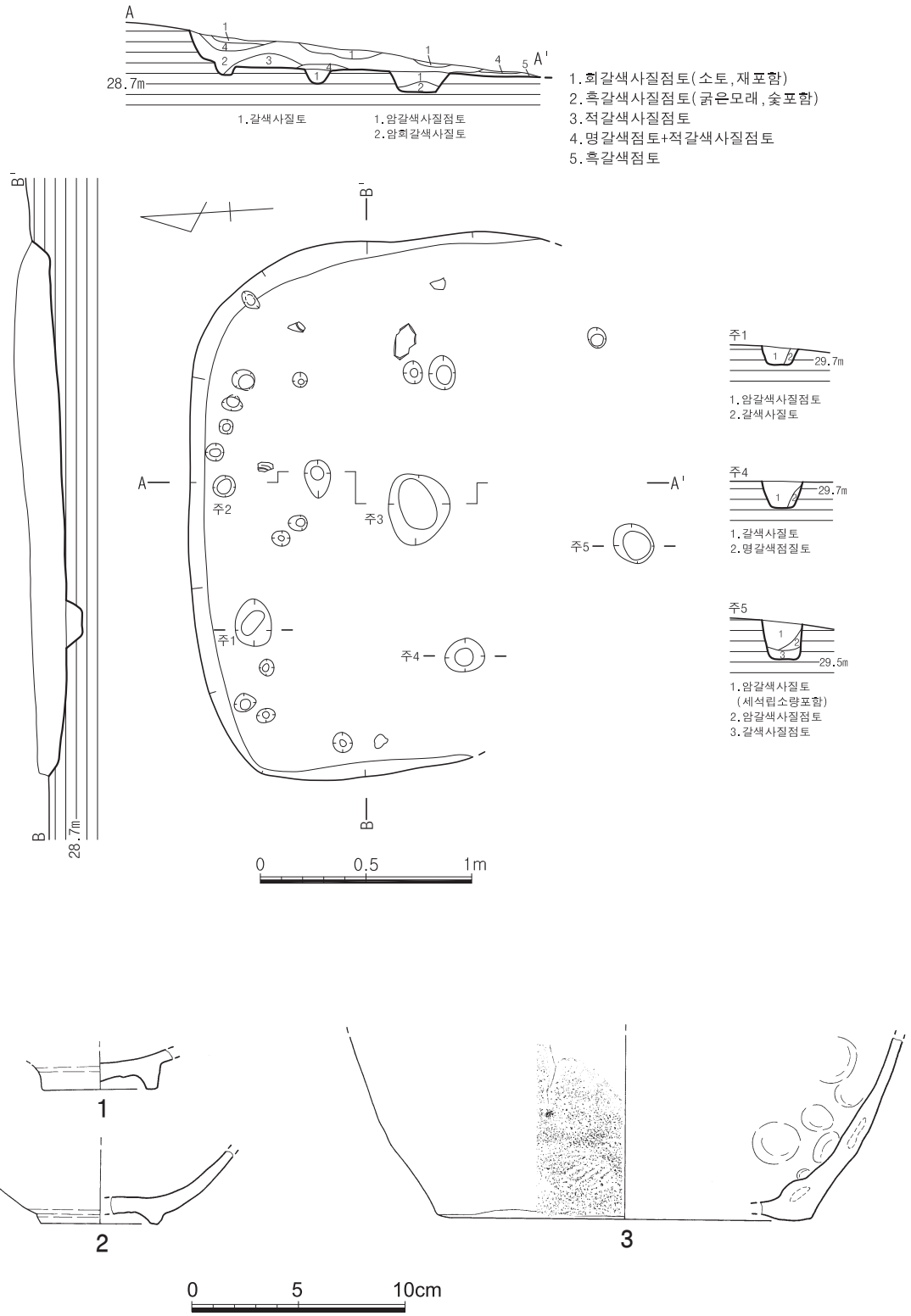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2, 사진 28·29)

2호 주거지는 능선 남쪽 하단부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며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 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9·7-1·7-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95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장벽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층위는 남장벽쪽은 삭평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북장벽에서 5개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남장벽 쪽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토양이 잔존하고 있다. 층위 내에 부분적으로 소토와 재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6°-W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345×253×13㎝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주공 5개, 소주공 16개가 확인되었는데, 주주공은 중앙에 중심주공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4주식을 이루고 있으며, 소주공은 주주공에 접하여 있는 것은 보조기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주공은 주로 북장벽에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장벽 소주공 주변에서 백자 저부편과 백자대접 저부편, 동쪽 주주공 주변에서 도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22.2지점 가구역 조선 2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22-1, 사진 29-③)

굽부분만 온전하게 남아있다. 굽은 약한 죽절굽의 형태를 띠며 굽안쪽을 거칠게 돌려깎았다. 유색은 담청색을 띠는데 내면은 산화로 인해 갈빛이 돈다. 굽안쪽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를 닦아냈다. 기면에 철반이 보이며 작은 빙렬이 있다. 안바닥에 태토를 빚어 받친 자국이 있다. 현고 1.9㎝, 저경 5.4㎝

② 백자대접 저부편(도면 22-2, 사진 29-④)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유색은 녹청색을 띠는데 외면은 산화로 인해 갈빛이 돌며 굽안쪽은 시유하지 않았다. 작은 빙렬이 있으며 받침흔적은 없다. 현고 3.5㎝, 복원저경 5.6㎝

③ 도기 저부편(도면 22-3, 사진 29-⑤)

저부의 1/4정도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태토에는 굵은사립 소량과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회색(N4/)을 띤다. 군데군데 기포가 발생해 기면이 고르지 못하며 외저면에는 타날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고, 내면 하단부에는 지두흔이 빼곡히 남아있다. 현고 8.8㎝, 복원저경 17.8㎝

3) 3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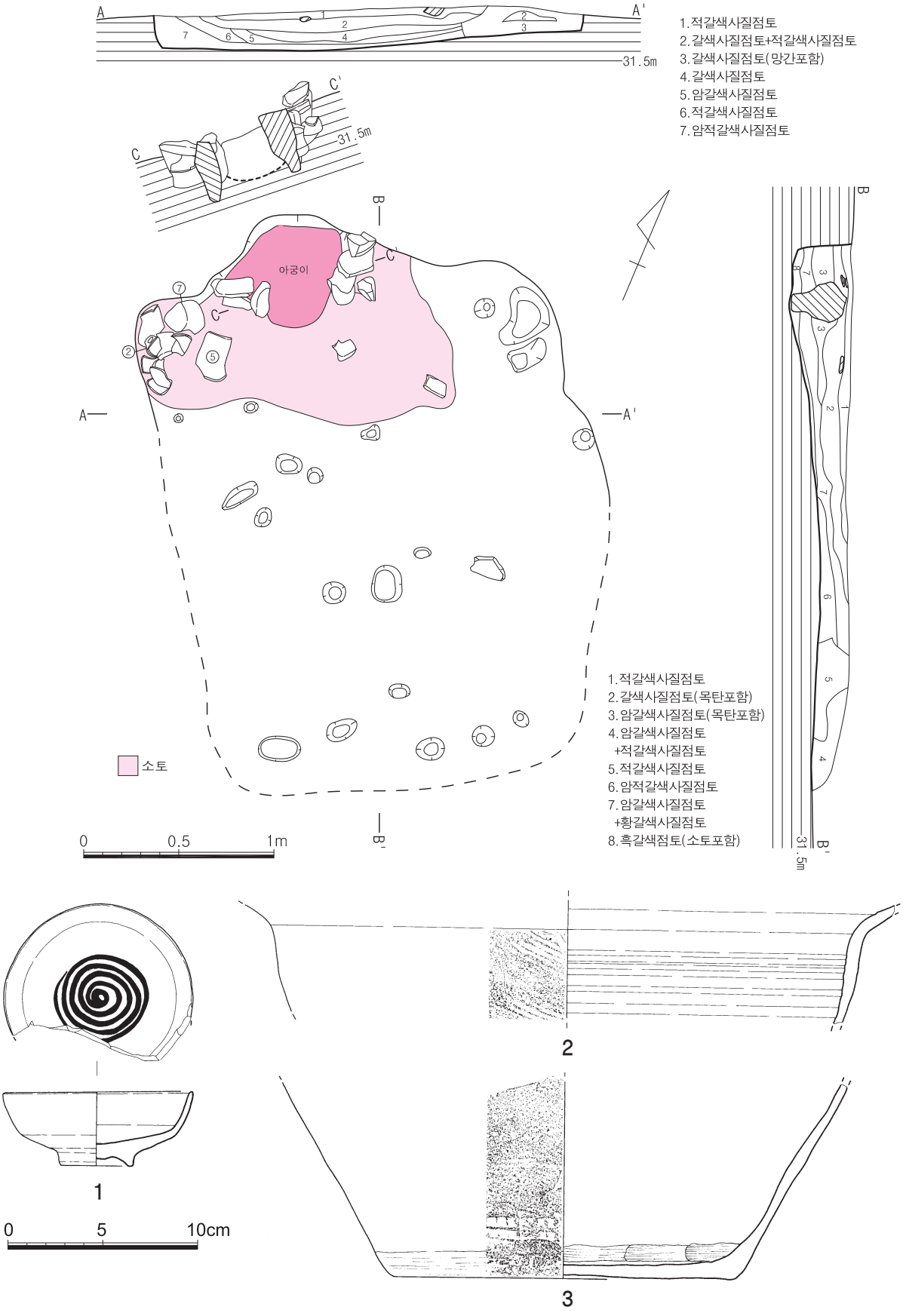
(1) 유구(도면 23, 사진 30·31)

3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 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조선시대 4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고,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77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쪽 하단부는 유실되었고, 아궁이를 포함한 북장벽쪽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층위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나 북장벽에 일부 원토층이 잔존하며 남장벽 쪽은 대부분의 토양이 재퇴적된 것이다. 잔존하는 토층은 대부분 아궁이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3°-W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290×240×28㎝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20개,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중심주공 1개와 소주공 19개로 모두 20개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배치는 주거지 중앙에 중심주공(20×15×20㎝)을 두었으며, 남장벽 쪽에 4개, 아궁이 주변에 좌우에 1개씩 2개의 소주공이 있다. 아궁이는 북벽 서쪽에 치우쳐 조성되었는데 규모 100×82×35㎝이며, 조성방식은 수혈을 판 후 지각을 양벽에 세웠으며 그 뒤를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내부토층은 7층을 제외하고 모두 목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유물은 분청사기 접시·동체부편, 철제 문고리가 주거지 바닥에서, 아궁이 북장벽 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주구호, 도기 뚜껑편·경부편·저부편·동체부편, 동이가 출토되었다.



도면 23. 2지점 가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분청사기접시(도면 23-1, 사진 32-③)

굽은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의 1/4가량이 결실되었다. 안바닥은 평평하며 기벽은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구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유색은 녹청색을 띠나 유층이 얇고 산화와 박락으로 인해 갈빛이 돈다. 접지면과 굽 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태토는 잡물없이 치밀한 편이다. 안바닥에 시계방향으로 회오리문을 음각하고 백상감하였는데 백토를 깨끗이 긁어내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백토가 박락되었다. 기면에 철반이 조금 보이며 받침흔적은 없다. 고 4.0㎝, 구경 10.0㎝, 저경 3.8㎝

② 주구호(도면 24-1, 사진 32-①)

동상위 일부와 저부의 가운데부분이 결실되었다. 경질이나 소성도는 다소 낮은 편이며, 태토는 소량의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7.5Y 4/1)을 띤다. 구연과 동상위부분이 눌려 일그러진 상태로 구연은 타원형을 이룬다. 동상위에 주구를 부착하고 동중위에 대상파수 2개를 부착하였다. 주구의 평면은 타원형이며 동체와 접합부분에 손누름흔과 정면흔이 잘 남아있다. 주구 바로아래에 3조의 침선을 두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침선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나 동상위부분은 물손질로 인해 지워졌으며 동중하위 일부에 타날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가는 물레흔이 전면에 남아있다. 바닥과 동체의 연결부는 횡으로 정면하였으며 내저면에는 도구로 눌러 다진 흔적이 있다. 고 24.4㎝, 구경 10.4~12.9㎝, 저경 16.2㎝

③ 도기 뚜껑편(도면 24-3, 사진 32-⑩)

단추형의 꼭지부분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소량의 석영립과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띤다. 현고 4.0㎝, 꼭지경 3.3㎝

④ 도기 뚜껑편(도면 24-2, 사진 32-⑪)

신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운모, 석영 등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흑갈색(2.5Y 3/1)을 띤다. 구연단은 살짝 내만한다. 고 4.5㎝, 복원구경 26.0㎝

⑤ 동이(도면 24-9, 사진 3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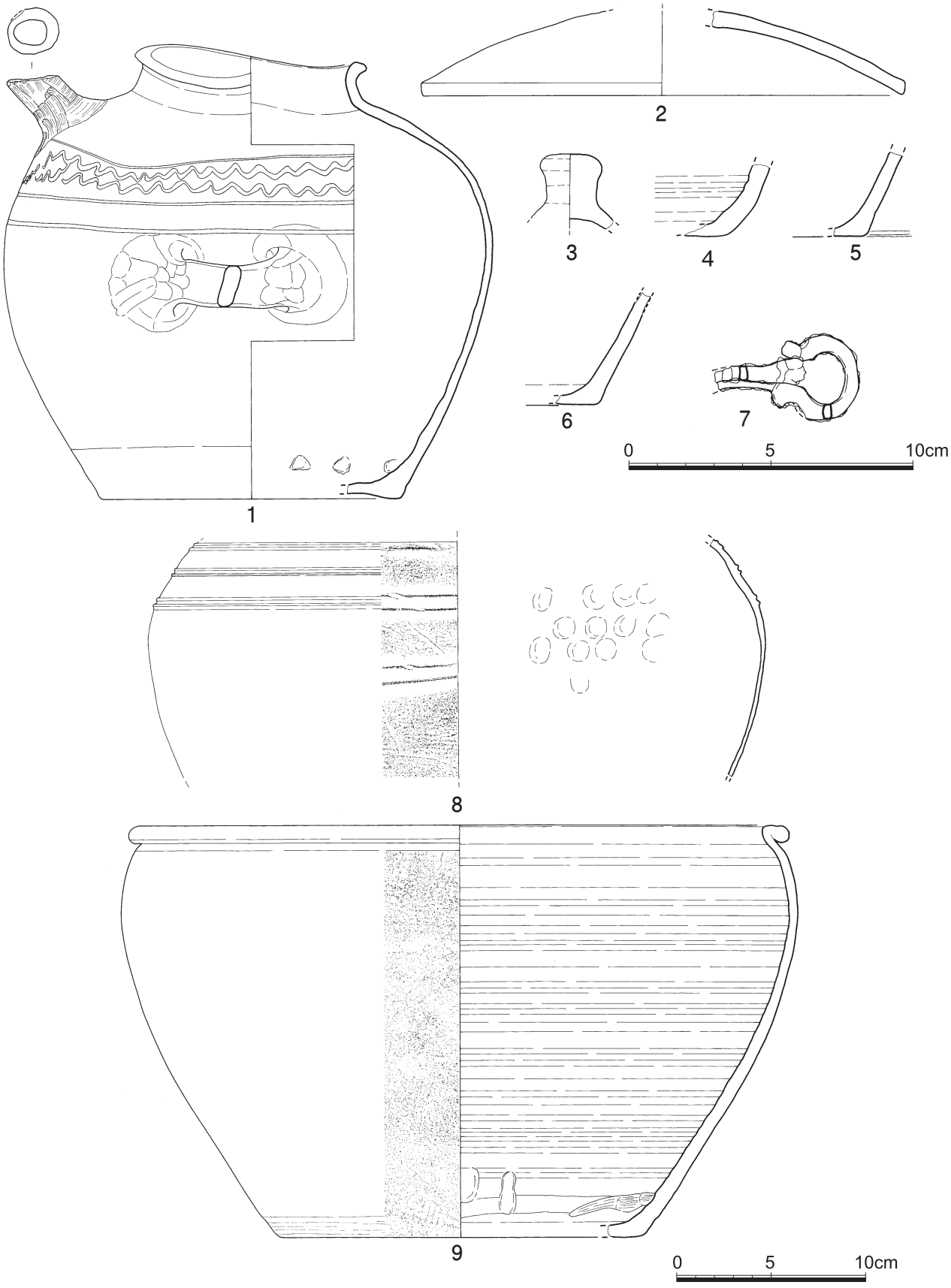
전체기형의 1/4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이 가능하다. 파수가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동체부분이 일부만 남아있어 파수부착 여부는 알 수는 없다. 연질이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태토에는 운모립 소량과 굵은 석영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색(7.5Y 4/1)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동그랗게 말았으며 구연 윗면에 홈을 돌렸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나 물손질로 많이 지워진 상태이며 내면에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분 외면은 횡으로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손으로 문지른 자국이 남아있다. 고 22.0㎝, 복원구경 24.5㎝, 복원저경 19.9㎝

⑥ 도기 경부편(도면 23-2, 사진 32-⑦)

구경부와 동상위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로 태토는 세사립이 약간 섞인 점질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며 속심은 회색이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현고 6.4㎝

⑦ 도기 저부편(도면 23-3, 사진 32-⑥)

바닥과 저부의 1/4 가량이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아 경도가 높지 않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굵은



도면 24. 2지점 가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출토유물

석립이 소량 포함되어 기면에 돌출되어 있으며 세사립도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전체적으로 회색(N4/)을 띠나 외면 일부는 회백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나 거의 지워진 상태이며, 동체와 저부의 접합부 내외면에는 횡으로 문질러 정면한 흔적이 잘 남아있다. 현고 10.5㎝, 복원저경 18.3㎝

⑧ 도기 저부편(도면 24-6, 사진 32-④)

바닥과 저부가 극히 일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다소 점질이 강한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2.5Y 3/1)을 띠고 내면은 회색(5Y 6/1), 속심은 황회색을 띤다. 현고 5.9㎝

⑨ 도기 저부편(도면 24-4, 사진 32-⑨)

바닥과 저부가 극히 일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점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굵은 석영립 소량이 기면에 돌출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3)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남아있는 동체 내면에 물레흔이 보인다. 현고 3.9㎝

⑩ 도기 저부편(도면 24-5, 사진 32-⑧)

바닥과 저부가 극히 일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면은 회색(7.5Y 6/1)을 띤다. 현고 4.5㎝

⑪ 도기 동체부편(도면 24-8, 사진 32-⑤)

대옹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되며 동중상위부분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백색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동상위부분 3군데에 2조씩 돌대를 돌렸으며 동체외면은 소격자타날하였으나 동상위부분은 물손질과 돌대부착으로 거의 지워지고 동중하위부분에 약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외면보다 큰 격자무늬의 내박자흔과 지두흔이 잘 남아있다. 현고 25.3㎝

⑫ 철제문고리(도면24-7, 사진 32-⑫)

단조품이며 고리와 排目이 결합되어 있는 단고리이다. 고리는 지름이 3.0㎝이고, 두께는 0.3㎝이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목의 신부는 고리에서 일직선상으로 곧게 첨부로 이어진다. 전체길이 5.0㎝, 무게 10g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5, 사진 33)

4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부의 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조선시대 3호 주거지와 중복, 북쪽은 북장벽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와 중복,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북쪽 1m 주변에 조선시대 52·53·54·5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8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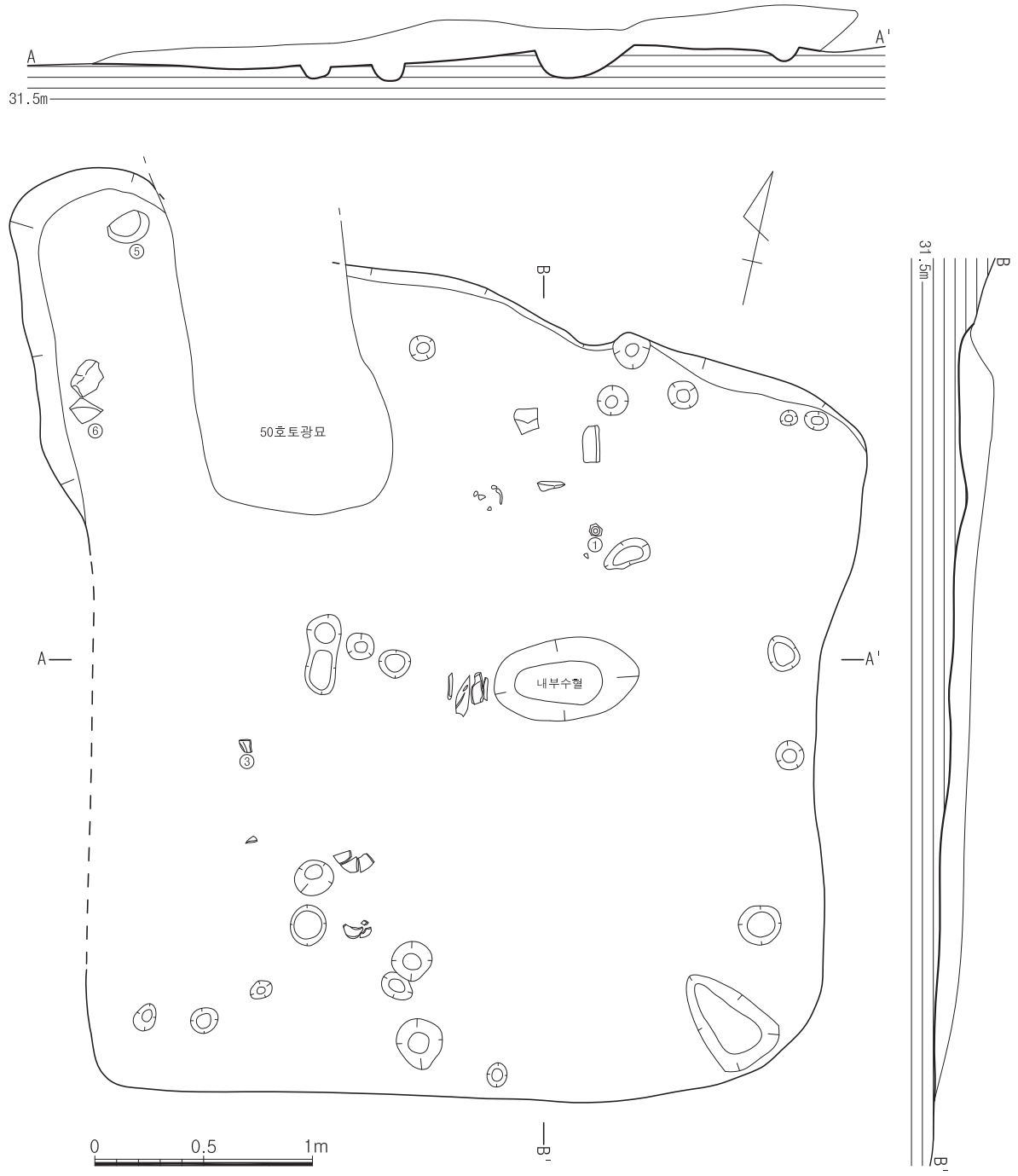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쪽 주거지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동쪽은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어깨선만 확인되었고, 북쪽은 조선시대 50호 토광묘에 의해 훼손되었다. 층위는 조선시대 3호 주거지와 50호 토광묘의 유구 중복으로 인하여 토층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로 이후에도 유수에 의해 재퇴적된 적갈색 사질점토로 인하여 원토층은 잔존하지 않는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13°-W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353×334×6㎝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23개, 수혈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남쪽으로 치우친 4주식으로 그 외에 소주공

17개가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주공은 안쪽에 있는 2개는 보조기둥이 있으며 동벽에 2개는 단독 주공이다.

수혈(90×72×12㎝)은 장축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되어 있으나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는데, 안쪽 주주공 주변과 북벽 소주공 주변에서 분청사기 저부·동체부편, 도기 경부편·저부편, 도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25. 2지점 가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유구

(2) 유물

① 분청사기 저부(도면 26-2, 사진 33-②)

접시로 추정되며 굽부분만 온전하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굽의 가운데부분을 도구로 문질렀다. 유색은 회녹색이나 내저면과 굽부분은 암적갈색을 띤다. 접지면에 받침탈락흔이 있다. 현고 1.7㎝, 저경 3.8㎝

② 분청사기 동체부편(도면 26-1, 사진 3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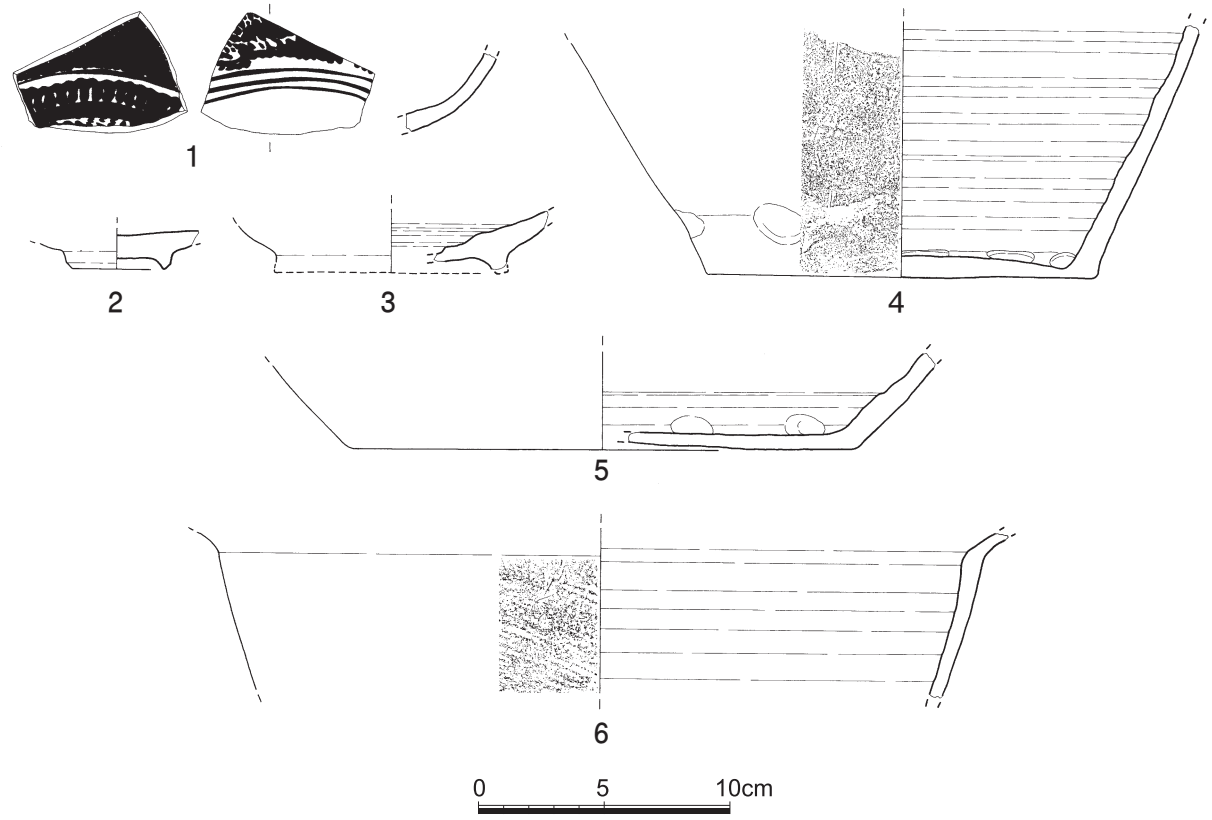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에는 원권으로 구획한 후 아래부터 우점문, 연판문 다시 우점문의 순서로 인화하였고, 외면에는 원권문과 우점문을 시문하였다. 유색은 회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다. 현길이 4.5㎝

③ 도기 경부편(도면 26-6, 사진 33-③)

경부와 동상위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로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였으며 점질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색(2.5Y 6/4)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현고 6.6㎝

④ 도기 저부편(도면 26-3, 사진 33-④)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는데 대각단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외면은 올리브흑색(7.5Y 3/1), 내면과 대각단 안쪽, 속심은 회올리브색(7.5Y 5/2)을 띤다. 현고 2.4



도면 26. 2지점 가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추정각경 9.6㎝

⑤ 도기 저부편(도면 26-4, 사진 33-⑥)

저부의 2/3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립, 백색세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기벽은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나 물손질로 인해 거의 지워졌으며 내면에도 격자문의 내박자 위에 물레흔이 나 있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내외면에 도구흔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10.5㎝, 저경 15.5㎝

⑥ 도기 저부편(도면 26-5, 사진 33-⑦)

저부의 1/4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립이 다량 포함되었고 석영과 장석 등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 5/2), 내면과 속심은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내면에 지두흔이 있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고 3.9㎝, 복원저경 20.6㎝

5) 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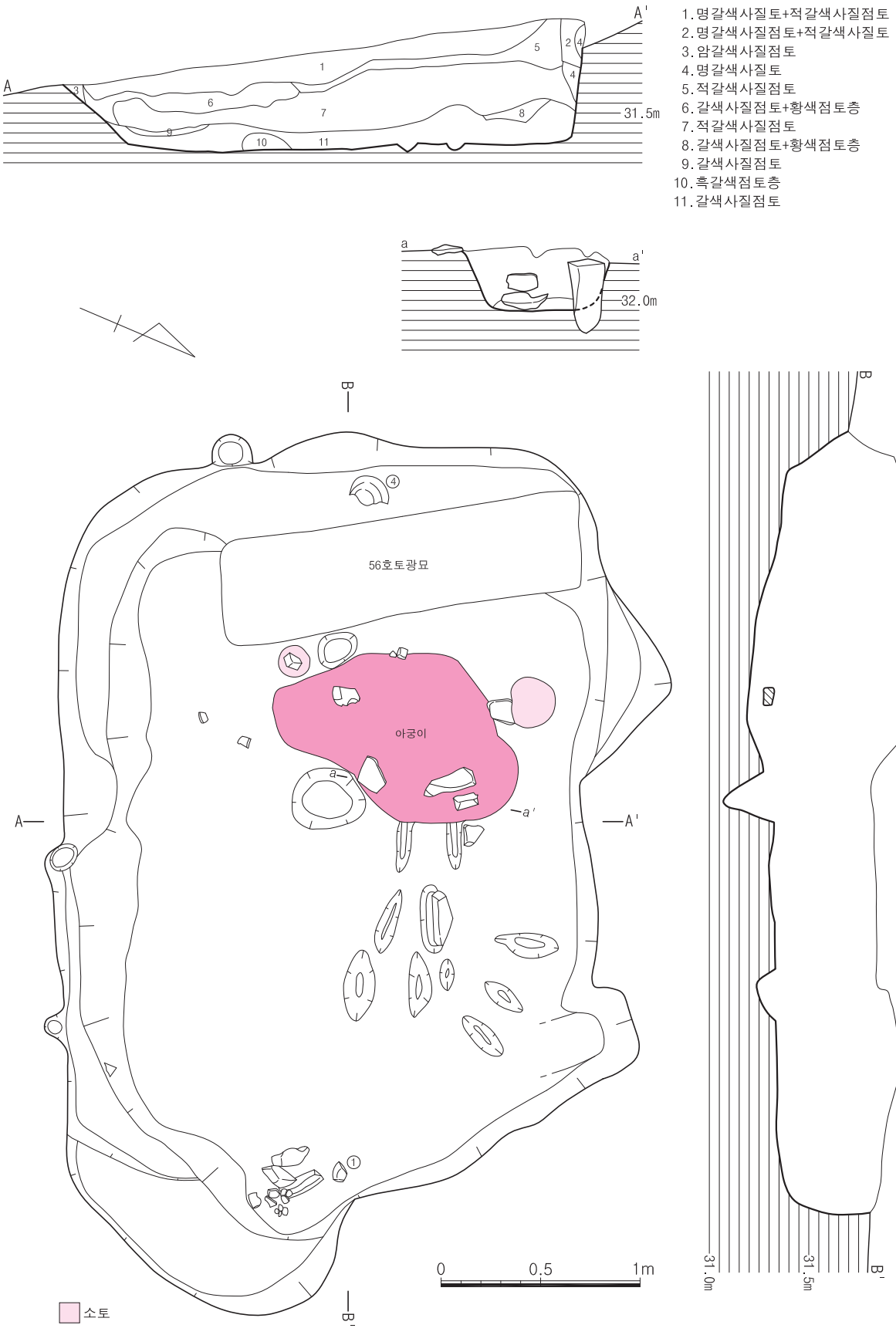
(1) 유구(도면 27, 사진 34·35)

5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부에서 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56호 토광묘가 내부에 중복되어 있고, 북쪽 1~2m지점 내외에 조선시대 54·55·57·58·59호 토광묘가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서쪽 2m에 4호 조선시대 주거지, 동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83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평면 윤곽이 그대로 남아있어 삭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층위는 사질토와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쌓여 안정된 층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에 망간이 집적된 것으로 보아 상부의 암반풍화토가 유수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11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암반풍화토와 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바닥다짐하였다. 이는 바닥층 아래에서 구들 홈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7°-E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442×261×48㎝(1.69: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 아궁이 1개, 구들, 단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거지 중앙 아궁이 남쪽에 잇대어 1개, 서벽 어깨선에 1개, 남벽 중앙 어깨선 안쪽에 1개, 동쪽으로 80㎝ 떨어져 어깨선에 1개가 있다.

아궁이는 구들시설과 연결되며 구들 화구부에서 단을 이루고 있다. 규모는 90×70㎝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지각은 20㎝ 내외의 돌을 사용하였는데, 북쪽 것은 홈에 박혀서 출토되었으나 남쪽 것은 내부에서 훼손되어 출토되었다. 구들은 고래등으로 사용된 홈 8개와 홈에 할석이 박혀서 확인된 1개를 포함하여 9개가 확인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고래등 중앙으로 1열과 북장벽 쪽으로 1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3열의 고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홈은 형태로 보아 할석이나 판석 1매씩을 세운 것으로 보이나 잔존 상태로 보아 폐기 시 이를 모두 제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시설은 동단벽과 남장벽 모서리 사이에 위치하며 130×70㎝ 규모로 바닥에서 30㎝정도 올라와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입구의 계단시설로 보인다.

유물은 아궁이 앞쪽과 동벽 생활공간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분청사기접시, 분청사기발, 파수부동이, 도기 구연부편·동체부편, 동벽 출입구 주변에서 수키와, 암키와편과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1.명갈색사질토+적갈색사질점토
2.명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4.명갈색사질토
5.적갈색사질점토
6.갈색사질점토+황색점토층
7.적갈색사질점토
8.갈색사질점토+황색점토층
9.갈색사질점토
10.흑갈색점토층
11.갈색사질점토

도면 27. 2지점 가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유구

(2) 유물

① 분청사기접시(도면 28-1, 사진 36-③)

전체 기형의 1/3가량이 남아있다. 내저면은 넓고 평평하며 측면은 저부에서 한번 꺾인 후 직사선으로 벌어져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굽은 내경하며 굽안쪽을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을 인화하고 그 주변에 점열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벽에는 4조의 원권문을 돌렸다. 유색은 탁한 회녹색을 띠며 굽과 그 주위를 제외하고 유약을 씌웠다. 기면에 철반이 가득하며 받침흔적은 없다. 고 3.5㎝, 복원구경 11.0㎝, 복원저경 3.8㎝

② 분청사기접시 구연부편(도면 28-4, 사진 36-①)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구연은 내만한다. 내저면 가장자리에 연판문의 일부가 보이며 내벽에는 원권으로 구획한 후 승렴문을 시문하였다. 외벽에는 구연아래에 원권으로 구획하고 그 사이에 사선문을 음각한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색은 옅은 회청색으로 추정되나 유층이 거의 탈락되어 확실치 않으며 태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현길이 4.8㎝

③ 분청사기접시 구연부편(도면 28-3, 사진 36-②)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구연은 내만하며 내벽에 원권문이 돌려져 있다. 태토에 잡물이 보이며 회녹색의 유조를 띠는데 광택이 있다. 현길이 3.6㎝

④ 분청사기발(도면 28-10, 사진 36-④)

분청사기상감중선문발로 구연과 동체의 1/3가량이 결실되었다. 측면은 양감이 큰 저부에서 'S' 자형태로 올라가며, 굽은 죽절굽으로 굽안쪽을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으며 가운데부분이 원뿔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내벽 가운데에 여러줄의 선문을 돌리고 백상감하였다. 태토에 사립과 잡물이 보이며 유색은 회녹색을 띠는데 구연부쪽을 제외하고는 산화되어 갈색을 띤다. 내저면에 태토비짐받침흔이 3곳 보이며 접지면에는 받침흔적이 없다. 고 7.7㎝, 구경 18.4㎝, 저경 5.9㎝

⑤ 분청사기대접 구연부편(도면 28-2, 사진 36-⑤)

대접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내벽 구연아래에 3조의 원권문이 돌려져 있고 그 아래에 연판문의 일부가 인화되어 있다. 태토에 사립과 기공이 조금 보이며 유색은 회청색을 띠는데 기면에 잔빙렬이 가득하다. 현길이 3.9㎝

⑥ 분청사기대접 저부편(도면 28-9, 사진 36-⑥)

저부의 1/2 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죽절형태로 깎은 듯 하나 깔끔하지 못하며 측면은 저부에서부터 둥글게 벌어져 올라간다. 내벽에 원권문이 백토상감되어 있다. 유색은 회녹색을 띠는데 굽안쪽을 제외하고 전면에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내저면에는 받침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접지면에는 받침탈락흔이 보인다. 현고 4.9㎝, 복원저경 5.5㎝

⑦ 파수부동이(도면 28-12, 사진 36-⑦)

전체 기형의 1/2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운모립 다량과 석영 등 기타 세사립이 섞였으며 점성이 다소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흑갈색(2.5Y3/2)을 띤다. 구연은 직각에 가깝게 밖으로 꺾었으며, 바닥은 가운데부분이 살짝 들린 형태이다. 동중상위에 대상파수를 부착하였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는데 하단부는 물손질로 인해 많이 지워졌다. 고

15.0㎝, 복원구경 33.9㎝, 저경 18.8㎝

⑧ 도기 구연부편(도면 28-5, 사진 37-①)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모두 흑갈색(2.5Y 3/1))을 띠고 속심은 암갈색이다. 구연은 둥글게 밖으로 말아붙였다. 현길이 3.7㎝

⑨ 도기 저부편(도면 28-7, 사진 37-②)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동체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으며, 내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5/2)을 띤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되었다. 현고 5.2㎝

⑩ 도기 저부편(도면 28-8, 사진 37-③)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동체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 석영, 장석 등 다량의 사립이 포함되어있다. 기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5Y3/1)을 띠는데 기외면은 박리되어 갈회색의 태토가 드러나 있다. 현고 5.8㎝

⑪ 도기 동체부편(도면 28-6, 사진 37-④)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내외면으로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있다. 태토에는 굵은 사립이 섞였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7.5Y5/1)을 띤다. 외면은 격자타날되었다. 현길이 5.2㎝

⑫ 도기 동체부편(도면 28-11, 사진 36-⑧)

호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N3/)을 띤다. 동체외면은 타날흔이 있으나 지워져 희미하며, 동중위에 침선을 돌렸다. 내면은 일정간격으로 지두흔이 돌아가며 물레흔이 선명하다. 현고 11.1㎝

⑬ 수키와(도면 28-13, 사진37-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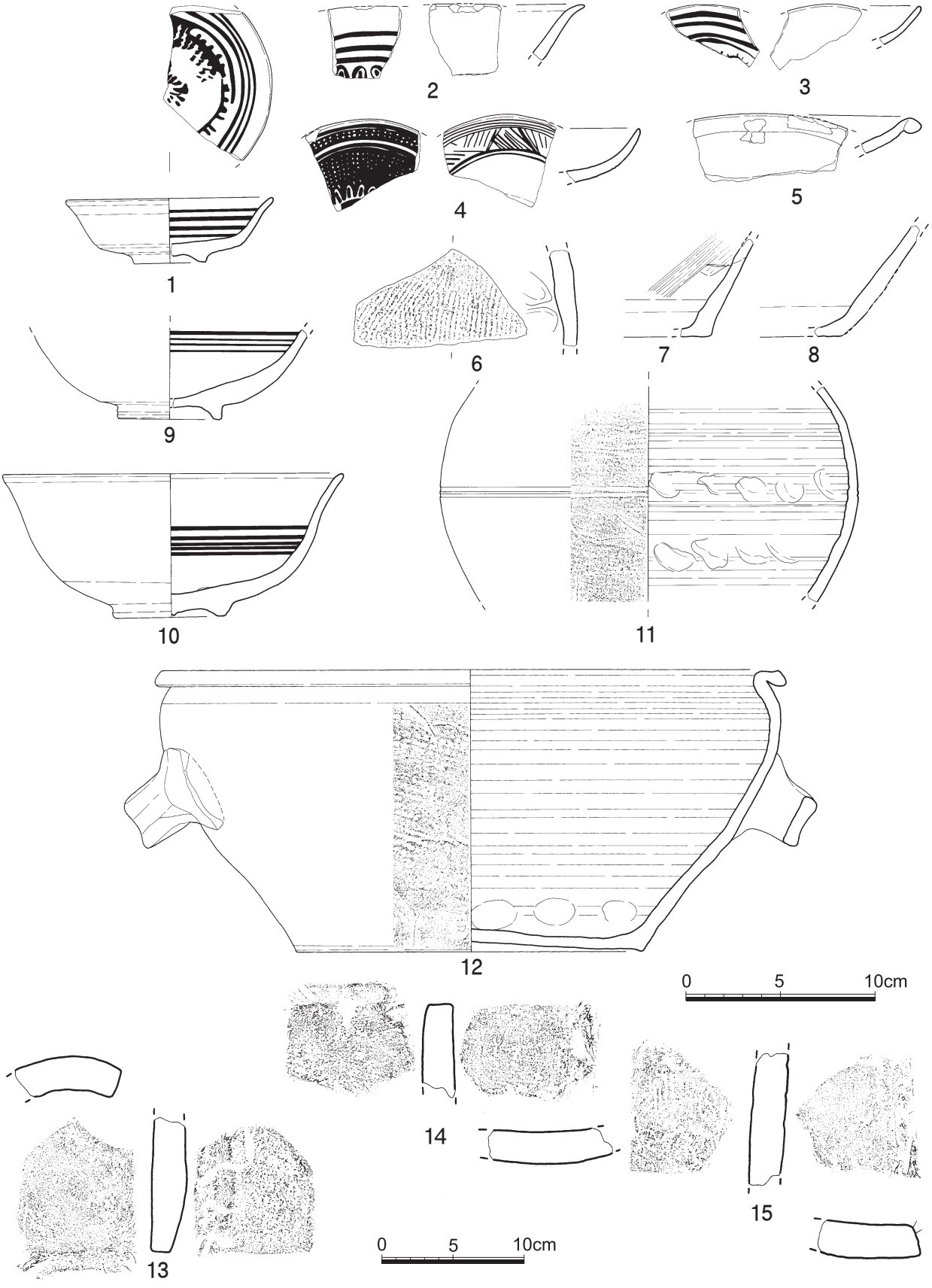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태토의 회백색 연질소성 수키와편이다. 등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무문이며 배면에서는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마모되어 와도흔이 뚜렷하지 않다. 현최대길이 9.4㎝, 현최대폭 8.2㎝, 두께 2.4㎝

⑭ 암키와(도면 28-14, 사진 37-⑤)

태토는 세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매우 정선된 태토이며,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표면이 박락되어 문양은 확인되지 않으나 무문으로 추정된다. 배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에서는 일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긁힘 흔적이 있으나 와도흔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분할계선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6.5㎝, 현최대폭 9.0㎝, 두께 2.4㎝

⑮ 암키와(도면 28-15, 사진 37-⑦)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직선문과 사선문이 결합된 복합문의 양상이다. 배면은 일부에서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올수는 알 수 없다. 빗질정면흔이나 윤철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으며 폭은 5㎜가량으로 일정하다. 현최대길이 9.3㎝, 현최대폭 7.0㎝, 두께 2.5㎝



도면 28. 2지점 가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출토유물

6) 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9, 사진 37~39)

6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상단부 경사면에 위치하며 서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남쪽 1m지점에 61·62·64호 조선시대 토광묘, 북쪽 2.5m지점에 60·66호 조선시대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87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평면 윤곽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남장벽 중앙 일부가 식재에 의한 구덩이로 훼손되었다. 층위는 사질토가 우세한 것으로 보아 빈번한 유수에 의해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6층은 중앙부가 상대적으로 깊어 이를 메꾸면서 바닥을 사질점토와 암반풍화토를 이용하여 다짐하였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8°-E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310×240×28㎝(1.29: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3개,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동벽 어깨선에서 2개이며, 나머지는 정형성이 떨어지는 소주공들이다. 아궁이는 동벽 중앙에 위치하며 규모는 95×50×22㎝로 바닥에는 재층이 내부에 깔려 있다. 배연구는 벽면을 얕게 굴광하여 시설하였다.

유물은 주거지 내부에 고루 분포하는데, 분청사기 접시·대접저부, 원판형 토제품, 암키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분청사기접시(도면 29-1, 사진 39-③)

굽의 1/2가량과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측면은 저부에서 한번 꺾인 후 직사선으로 벌어져 구연에 이르며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면에는 중심에 국화문을 두고 그 주위로 우점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벽과 외벽에는 원권문이 둘러져 있다. 회녹색의 유조를 띠며 굽안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는데 굽주위로 유약이 흘러내렸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4.2㎝, 복원구경 10.7㎝, 저경 4.6㎝

② 분청사기대접 저부(도면 29-4, 사진 39-⑤)

저부만 남아있다. 측면은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며, 굽은 죽절굽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다. 시유를 하였으나 산화로 인해 유층이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로 명적갈색의 태토가 드러나 있다. 받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고 5.2㎝, 저경 5.6㎝

③ 분청사기대접 저부편(도면 29-2, 사진 39-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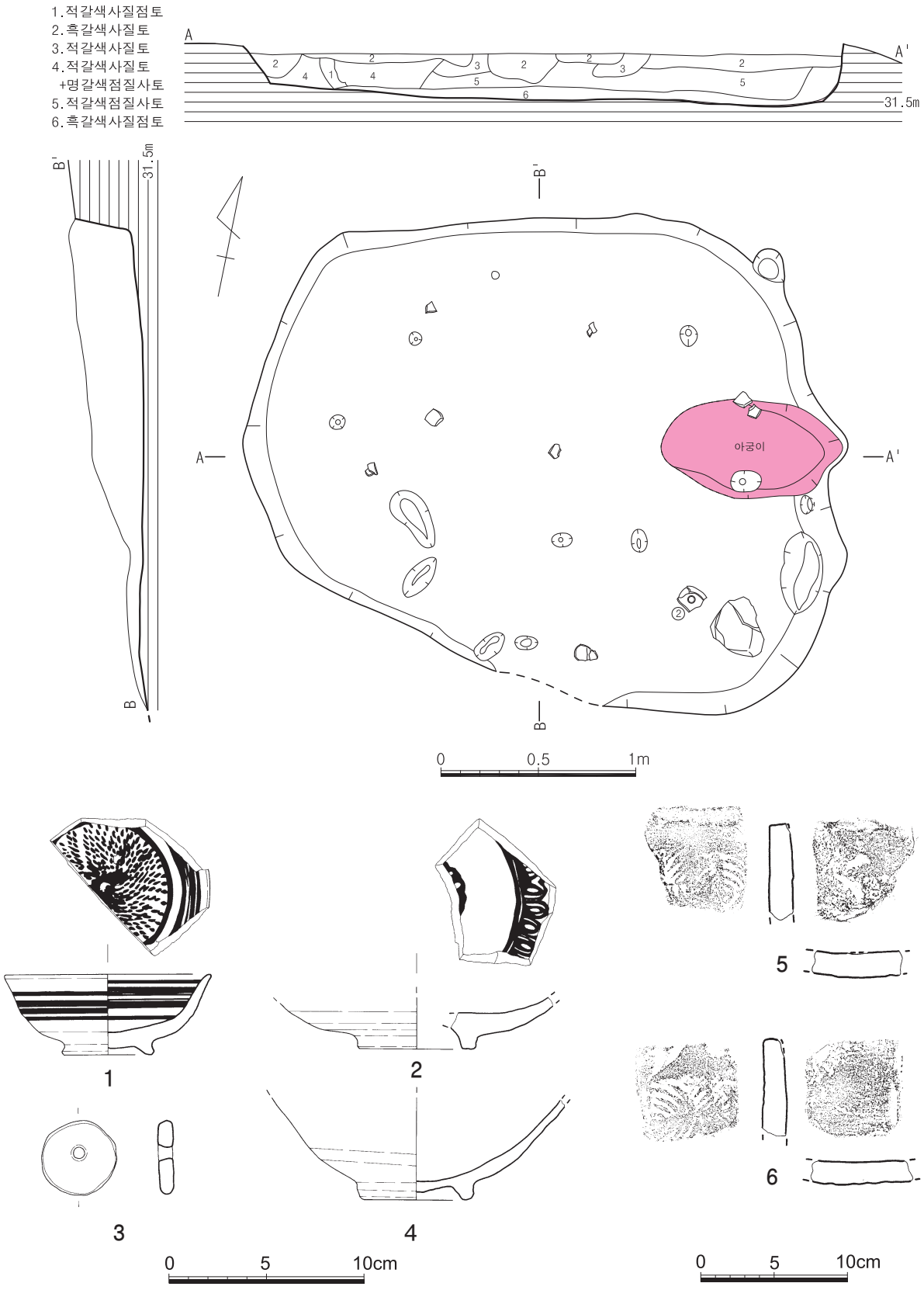
굽을 포함한 저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굽과 기벽의 하단부가 두꺼워 둔중한 느낌을 주며 굽은 죽절형으로 깎았다.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의 일부가 보이며 내벽에는 원권문과 연판문의 일부가 남아있다. 탁한 회녹색의 유조를 보이는데 굽안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를 닦아냈다. 현고 2.8㎝, 복원저경 5.7㎝

④ 원판형 토제품(도면 29-3, 사진 39-②)

토기편을 재가공하였다. 태토에 다량의 운모립과 석립들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을 띤다. 가운데에 직경 0.7㎝의 구멍이 나 있다. 직경 3.9㎝, 두께 0.8㎝, 무게 15g

⑤ 암키와(도면 29-5, 사진 39-⑦)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포함된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이 극히 일부만 잔존하



도면 29. 2지점 가구역 조선 6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고 있어 전체적인 문양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대칭형 어골문이 시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면은 표면이 박락되어 포목흔 및 정면흔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와도흔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6.8㎝, 현최대폭 7.0㎝, 두께 1.7㎝

⑥ 암키와(도면 29-6, 사진 39-⑥)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 문양은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문양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칭형 어골문이 시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면은 표면이 박락되어 포목흔 및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에서는 분할계선으로 추정되는 압인흔이 일부 보이며 와도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6.5㎝, 현최대폭 6.5㎝, 두께 1.6㎝

7) 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30, 사진 40·41)

7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73·74호 토광묘, 북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0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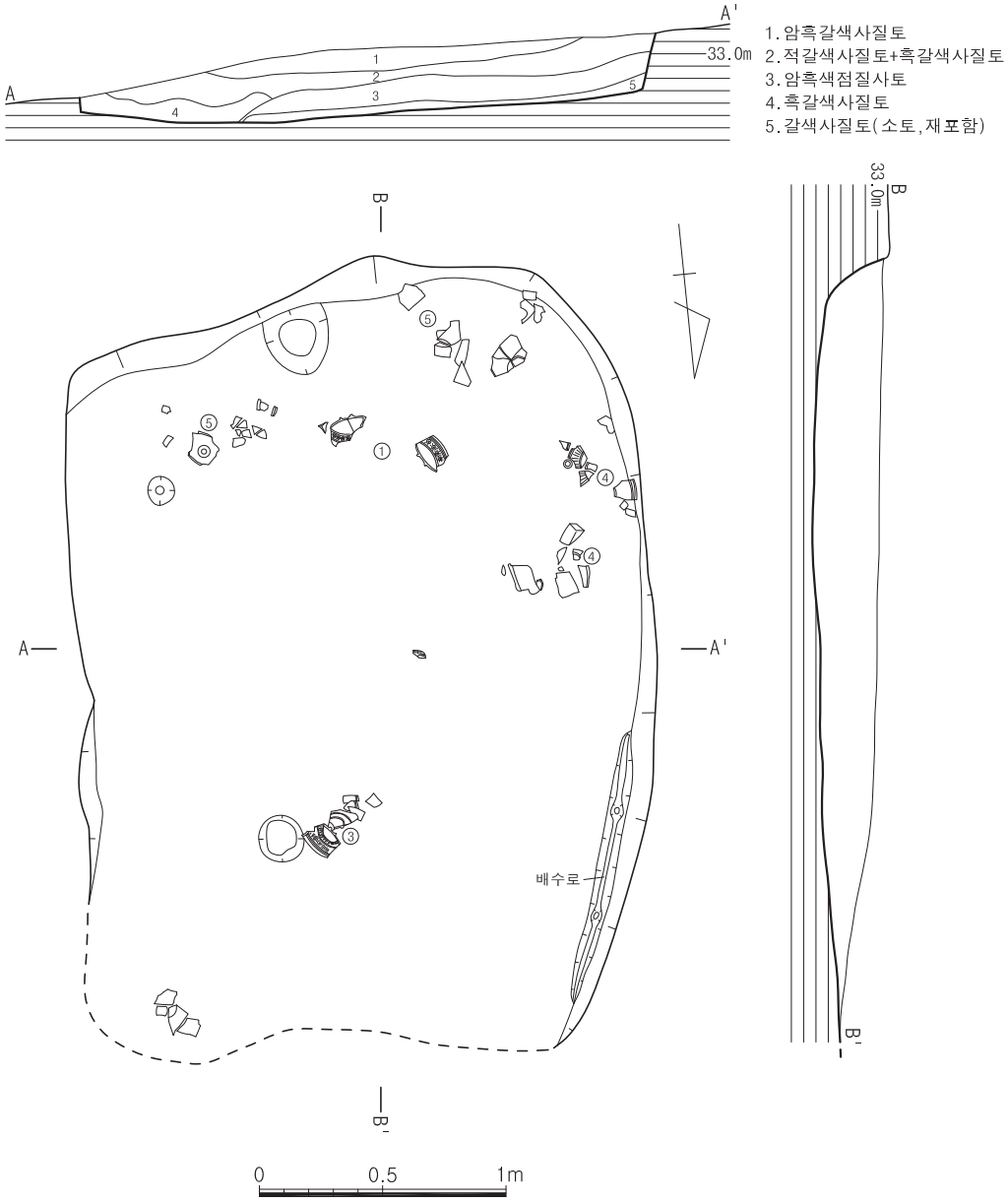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장벽 일부와 북단벽 전체가 삭평으로 훼손되었다. 층위는 사질토가 우세한 것으로 보아 빈번한 유수에 의해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5층은 바닥층으로 소토와 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고운 사질점토를 깐 후 불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6°-E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315×235×24㎝(1.34:1)로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3개,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주주공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남단벽에 1개(27×26×20㎝), 장축선상에서 동쪽에 치우쳐 1개(19×17×5㎝), 남동쪽 모서리에 소주공 1개가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서장벽 북쪽 모서리에서 확인되는데 규모는 120×12×10㎝로 경사면에서 유입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주거지 남단벽과 서장벽 모서리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으며, 내부 중심주공 서쪽에 잇대어 분청사기편이 집중되어 분포한다. 주로 분청사기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기 구연부편, 시루 저부편, 파수, 지석, 철제환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분청사기발(도면 31-1, 사진 42-①)

분청사기인화문발로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벽은 둥근 곡면을 이루며 굽은 죽절형태로 깎았다. 내벽에는 3~4조의 원권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국화문을 인화하고 백상감하였다. 태토는 치밀한 편이며 유색은 옅은 회청색을 띠는데 유층이 얇으며 시유상태도 다소 불량하여 곳곳에 유약이 흘러내려 뭉쳐있다. 굽안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를 닦아냈다. 광택이 적으며 기면에 잡티가 많다. 내저면에는 받침흔적이 없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 7.8㎝, 구경 18.3㎝, 저경 5.5㎝



도면 30. 2지점 가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유구

② 분청사기발(도면 31-2, 사진 42-②)

분청사기인화문발로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는 1/4가량이 남아있다. 안바닥은 넓고 평평하며 몸통은 하단부에 양감이 있는 형태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굽은 거칠게 돌려깎았으며 굽바닥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권으로 구획한 후 그 사이에 한줄의 연판문을 인화하였고 내벽에는 우점문을 가득 넣었다. 외벽에는 여러조의 침선을 거칠게 돌린 후 백상감하였다.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으며 유색은 회녹색으로 굽안쪽까지 전면에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도 양호한 편이며 광택이 있다. 내저면에는 3군데에 태토비짐받침을, 접지면에는 모래를 받쳤다. 고 7.6㎝, 복원구경 18.2㎝, 저경 5.2㎝

③ 분청사기발(도면 31-5, 사진 42-⑤)

1/2가량이 결실되었다. 기벽은 저부에서부터 둥글게 벌어져 올라오며 구연이 넓게 외반되는 형태이다. 굽은 죽절형태로 깎았고 굽안쪽도 단정하게 돌려깎았는데 가운데가 원뿔처럼 뾰족하게 나왔다. 내저면 가운데에 대국화문을 인화하고 내벽에는 원권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소국화문과 우점문을 시문하였으며 구연아래에는 초문을 상감하였다. 외벽에는 각 4조씩의 원권을 두르고 그 사이에 우점문을 빼곡히 시문하였다. 태토에는 잡물이 보인다. 회녹색의 유조이나 산화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갈색을 띠며 유층이 박락된 부분이 많다. 접지면의 유를 닦아냈으나 받침을 하지는 않았고 내저면에도 받침흔적은 없다. 고 7.2㎝, 복원구경 18.2㎝, 복원저경 5.3㎝

④ 분청사기발(도면 31-4, 사진 42-④)

1/2가량이 결실되었다. 기벽은 곡사선으로 벌어져 올라와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며, 굽은 낮고 내경한다. 내벽에 각 2조의 원권으로 구획한 후 그 사이에 우점문을 인화하였고 외벽에는 여러 줄의 침선을 돌렸으나 백토를 바르지는 않았다. 태토에는 잡물이 보이며 기포가 많다. 광택이 있는 회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도 양호하다. 내저면에는 태토받침자국이 남아있으며 접지면과 굽안쪽에는 모래받침이 있다. 고 8.2㎝, 복원구경 17.7㎝, 복원저경 6.2㎝

⑤ 분청사기발(도면 31-3, 사진 42-③)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바닥에서 구연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굽은 죽절형태이나 깎음새가 거칠고 투박하며 굽안쪽도 돌려깎기하였는데 충분히 깎아내지 않았고 접지면의 폭도 고르지 않다. 내벽에는 4조의 원권문을 넣은 후 백토상감하였는데 백토를 충분히 긁어내지 않았다. 태토에는 잡물이 많다. 유색은 회녹색을 띠는데 굽안까지 전면에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기면에 철반이 가득하다. 내저면에는 태토비짐눈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고 접지면에는 모래받침흔적이 남아있다. 고 7.4㎝, 복원구경 18.2㎝, 저경 5.7㎝

⑥ 도기 저부편(도면 31-6, 사진 42-⑥)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백색사립, 석영립 등 사립이 다량 섞여있으며 소성이 불량하여 크고 작은 기포가 많다. 외저면에는 자연유가 흘러내렸으며 내면에는 물레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4.5㎝

⑦ 도기 구연부편(도면 31-7, 사진 42-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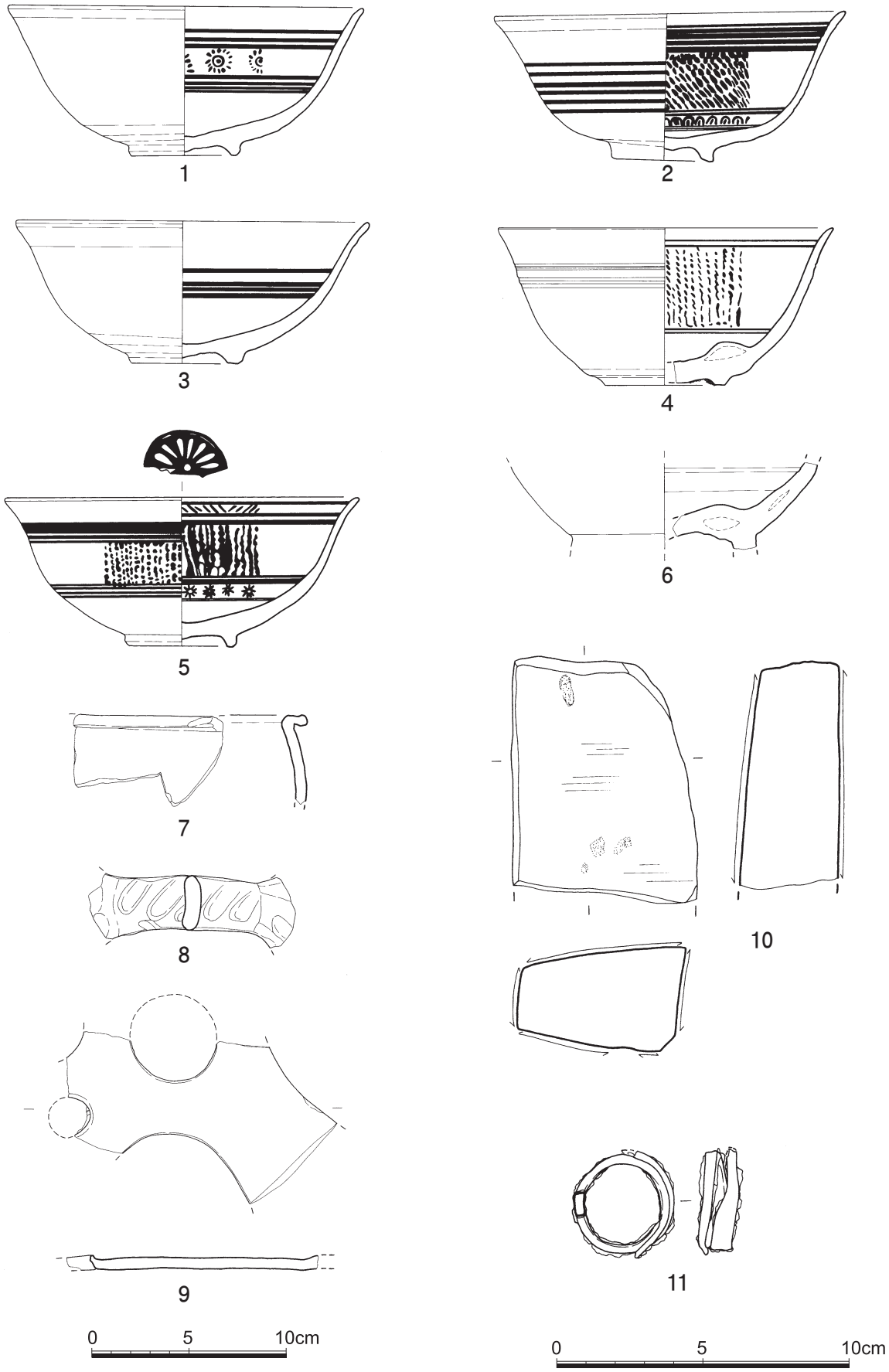
구연 일부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운모립과 소량의 석영립이 섞인 고운점토로 내외면과 속심 모두 탁한 등색(7.5YR 6/4)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꺾었으며 구연윗면에 한줄의 홈을 돌렸다. 동체내면에는 박자흔이 일부 남아있다. 현길이 4.6㎝

⑧ 시루 저부편(도면 31-9, 사진 42-⑨)

바닥부분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내면은 회색(5Y 4/1), 속심은 흑회색을 띤다. 원형으로 추정되는 크고 작은 구멍이 5개가 남아있다. 투공방향은 外→內이며 투공 후 깨끗이 정면한 구멍도 있으나 일부는 정면하지 않아 내면쪽으로 밀려나온 점토가 그대로 남아있다. 현폭 13.0㎝, 두께 0.6㎝

⑨ 도기 파수(도면 31-8, 사진 42-⑧)

대상파수이다. 연질이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소량의 석영립이 섞였으며 정선된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회색(7.5YR 4/1)을 띠며 속심은 등색을 띤다. 안팎으로 지두흔이 뚜렷



도면 31. 2지점 가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출토유물

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10.6㎝, 폭 2.9㎝, 두께 0.9㎝

⑩ 지석(도면 31-10, 사진 41-④)

암질은 유문암이며 일부 결실되었다. 4면이 마연되었다. 현길이 7.8㎝, 폭 5.8㎝, 두께 3.1㎝, 무게 300g

⑪ 철제환(도면 31-11, 사진 42-⑩)

단조품으로 납작하고 길쭉한 철판을 둥글게 구부려 겹치도록 만들었는데 철판의 양 말단부로 가면서 폭이 좁아진다. 직경 3.3㎝, 두께 0.3㎝, 무게 12g

2.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32, 사진 43)

수혈유구는 남쪽 능선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하단부 경사면에 위치하며 북동쪽 4.7m지점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25m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윤곽선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점토 순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9°-E이다. 규모는 140×72×40㎝로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사선으로 굴광하였다.

유물은 동단벽 주변에 동이편이 밀집되어 있으며, 내부토에서 산발적으로 도기 동체부편이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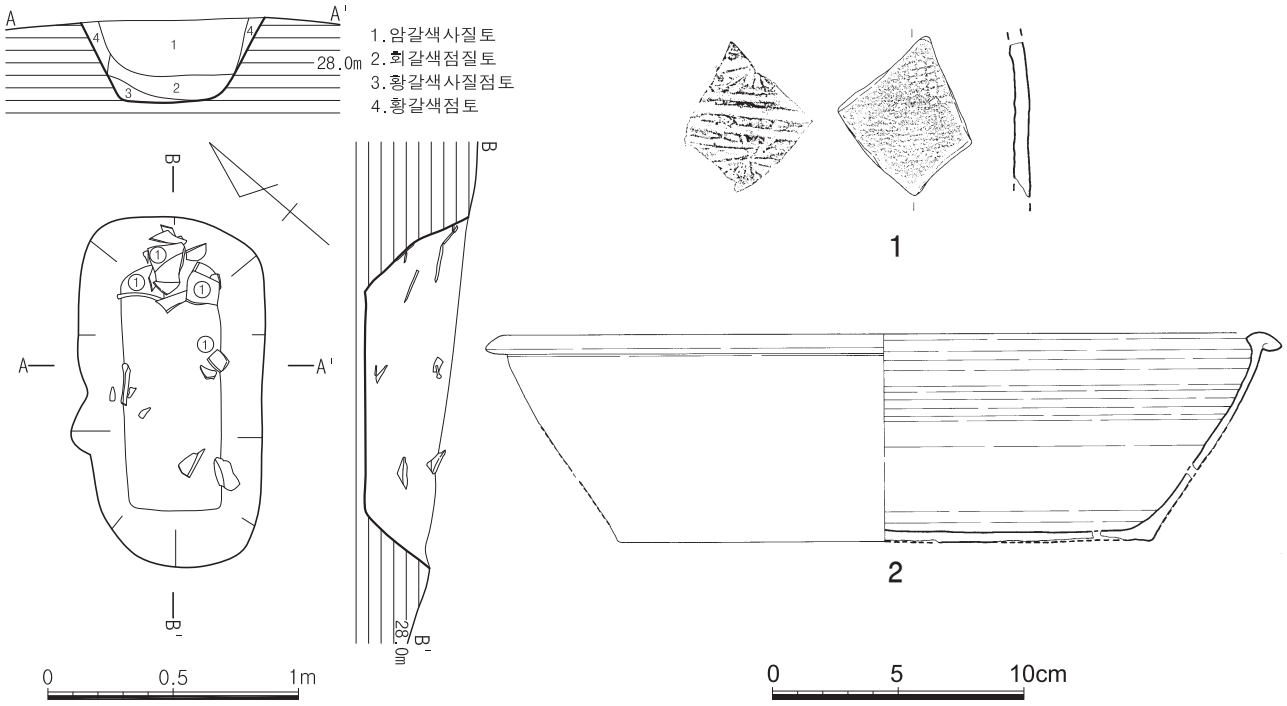
(2) 유물

① 동이(도면 32-2, 사진 43-④)

구연은 1/2정도, 저부일부와 바닥부분이 남아있는데 복원이 되지 않아 추정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가는 석영립 등 세사립이 섞였으며 점성이 다소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회색(N 3/)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구순부를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동중위에서 바닥까지 기외면이 박리되었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남아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복원고 16.6㎝, 복원구경 60.6㎝, 복원저경 42.8㎝

② 도기 동체부편(도면 32-1, 사진 43-⑤)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갈회색(10YR 4/), 내면은 회색(N 4/)을 띠며 속심은 갈색이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화문내박자의 일부와 물레흔이 보인다. 현길이 6.5㎝



도면 32. 2지점 가구역 조선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3. 토광묘

가구역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모두 86기로, 대부분 구릉의 남쪽 중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서사면과 동사면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토광묘 간 중복된 것은 거의 없고, 단지 회곽묘가 토광묘를 파괴하고 축조된 것이 몇 기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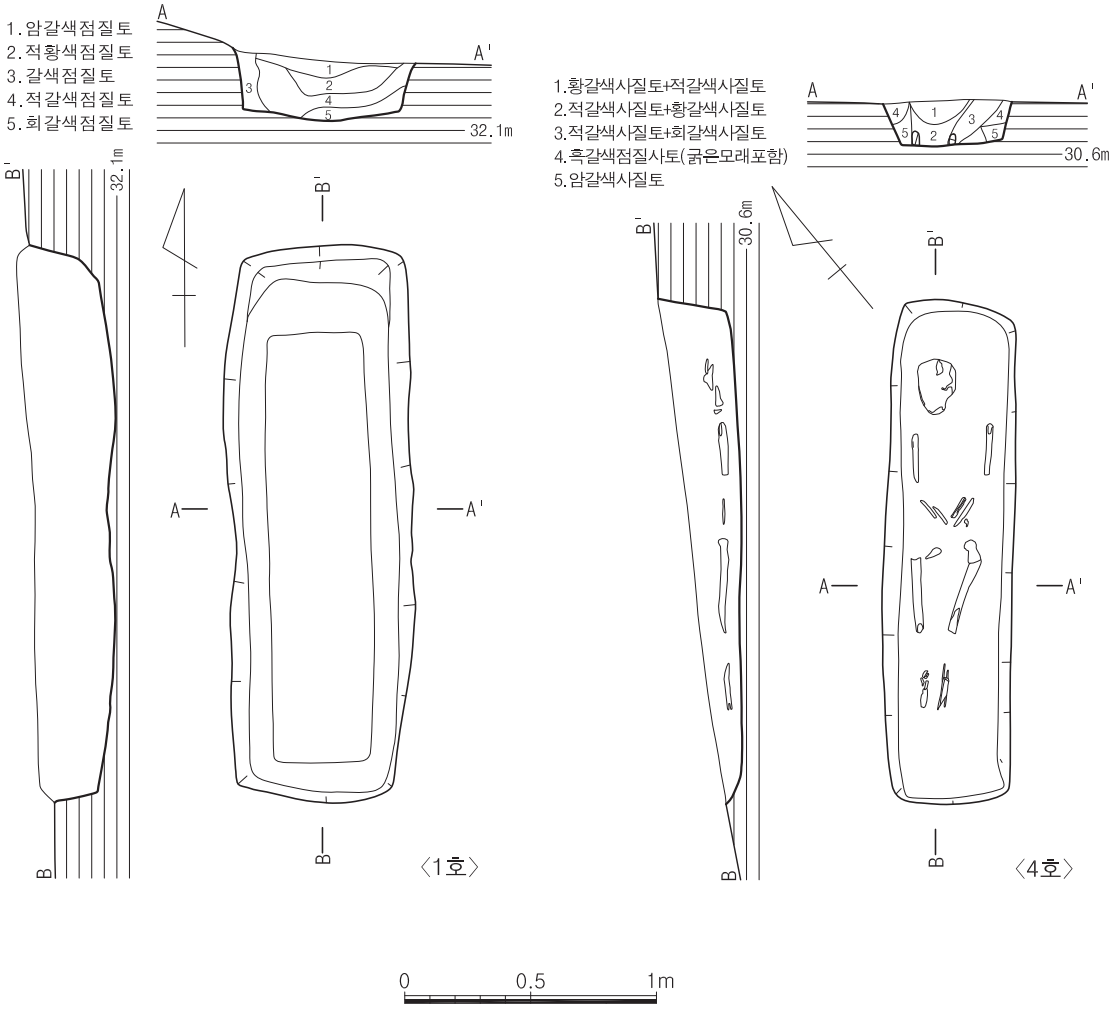
형태상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直葬한 순수토광묘와 목관을 사용한 토광목관묘로 크게 구분되는데, 순수토광묘가 훨씬 많다. 순수토광묘는 굴광방식이 대부분 일단광식이며,규모가 작은 것이 대다수이다.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3, 사진 44)

1호 토광묘는 조사지역 중앙에서 서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6.8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동쪽 35.6m지점에 조선시대 8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5m이다.

층위는 3층 갈색 점질토가 충전토이며 나머지 점질토들은 함몰토로 관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S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1×72×28㎝(3.07:1)로 토광목관묘이다. 충전토는 목관의 잔존흔으로 볼 때,



도면 33. 2지점 가구역 조선 1·2·3·4호 토광묘 유구

전벽을 돌아가며 시설하였으며 장벽 15㎝, 단벽은 20~30㎝ 두께이다. 목관의 규모는 171×41㎝(4.17:1) 정도이며 높이는 삭평으로 인해 알 수 없다.

2) 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3, 사진 45)

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북동쪽 11.6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0.23m이다.

층위는 사질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상면이 유수에 의해 대부분 삭평되었고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3×37×12㎝(2.51:1)로 토광직장묘이다.

3) 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3, 사진 45)

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북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5m이다.

층위는 사질점토와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상면이 유수에 의해 대부분 삭평되었고,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9×40×9㎝(2.98:1)로 토광직장묘이다.

4) 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3, 사진 46)

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토광묘, 남동쪽 10.4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0.8m이다.

층위는 4층 흑갈색 점질사토와 5층 암갈색 사질토가 충전토이며 1~3층은 함몰토로 관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1×52×27㎝(3.87:1)로 토광목관묘이다. 충전토는 토층상에서 확인되나 목관흔이 확인되지 않아 관의 크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5) 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4, 사진 47)

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 동쪽 6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 남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북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9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와 회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상면이 유수에 의해 대부분 삭평되었고,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7×34×14㎝(3.15:1)로 토광직장묘이다.

6) 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4, 사진 47)

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 북쪽 2.4m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0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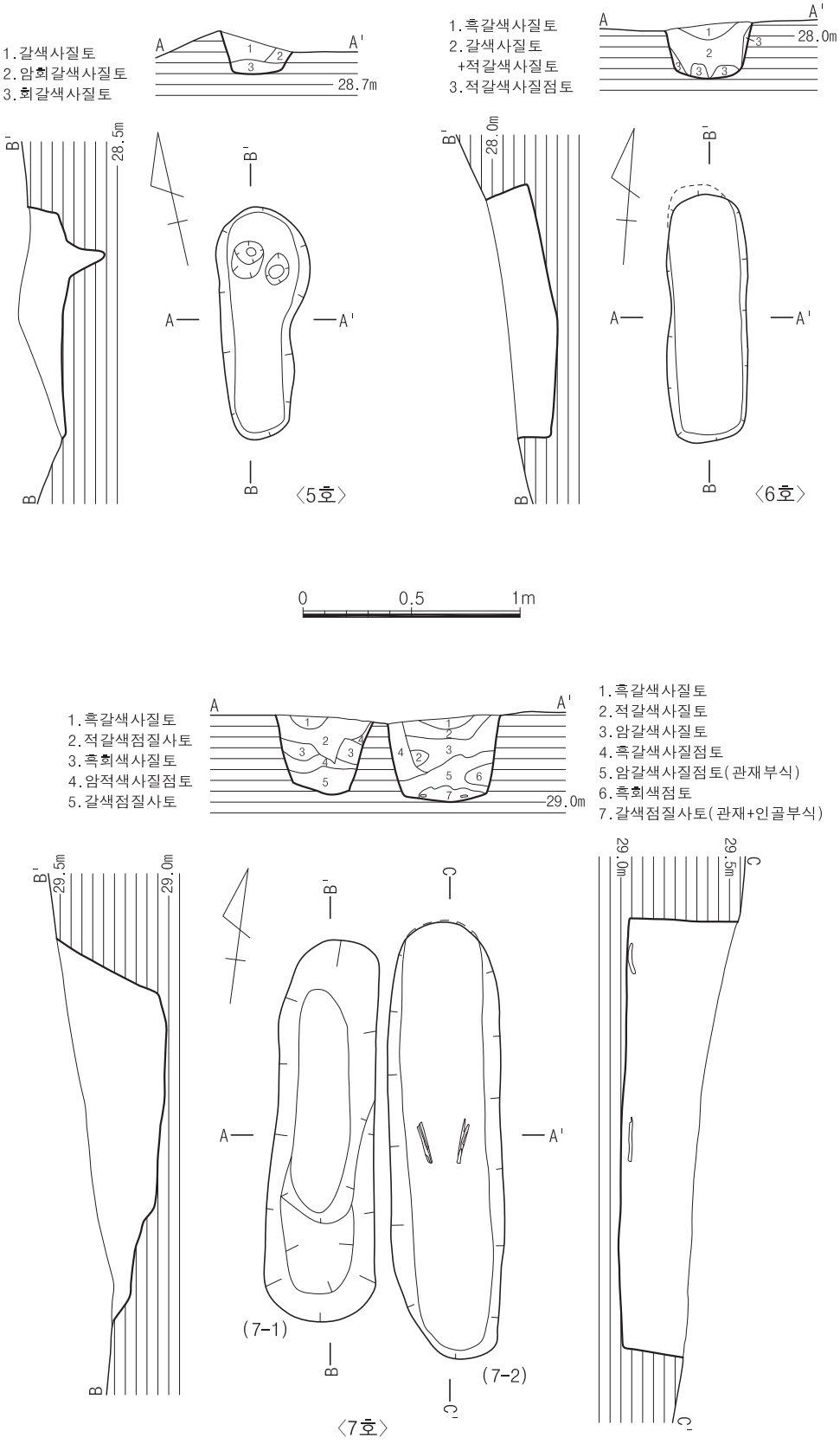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상면이 유수에 의해 삭평되었고,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3×40×19㎝(2.83:1)로 토광직장묘이다.

7) 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4, 사진 48)

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남서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7-1호 29.41m, 7-2호 29.54m이다.

층위는 7-1호가 흑갈색 사질토와 적갈색 점질사토-흑회색 사질토-암적색 사질점토-갈색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고, 7-2가 흑갈색 사질토-회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다.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상면이 유수에 의해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7-1호가 176×46×46㎝(3.83:1), 7-2호가 201×51×50㎝(3.94:1)로 토광직장묘(합장묘)이다.



도면 34. 2지점 가구역 조선 5·6·7호 토광묘 유구

8) 8호 토광묘

(1) 유구(도면35, 사진 49)

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동남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06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대부분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하단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8×36×17㎝(2.72:1)로 토광직장묘이다.

9) 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5, 사진 49)

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북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66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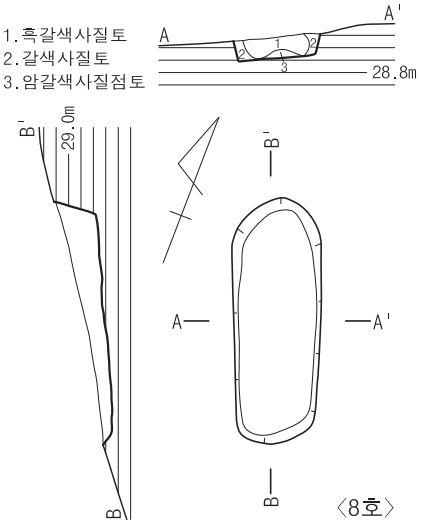
층위는 흑갈색 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는 4층인 것으로 보이나 함몰되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내부토는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대부분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하단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1×60×24㎝(4.16:1)로 토광목관묘이다. 목관은 목관흔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높이는 알 수 없으며 규모는 154×37㎝(4.16:1)이다. 내부시설로는 수혈 2개가 확인되었는데, 서장벽 중하단에 위치한 수혈은 규모 25×20×27㎝로 감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쪽 관 끝선에 위치한 수혈은 규모 18×15×15㎝로 관을 정치할 때 사용한 목주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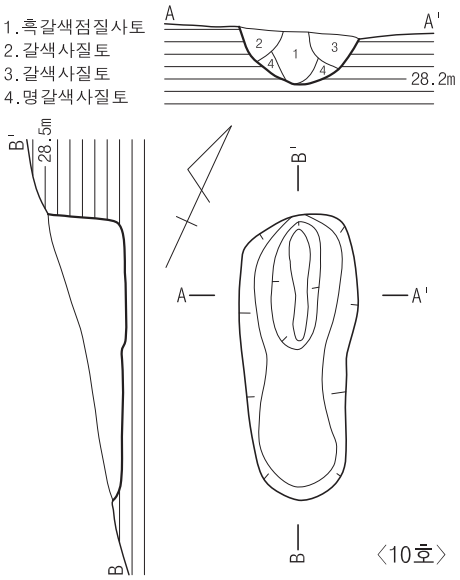
10) 10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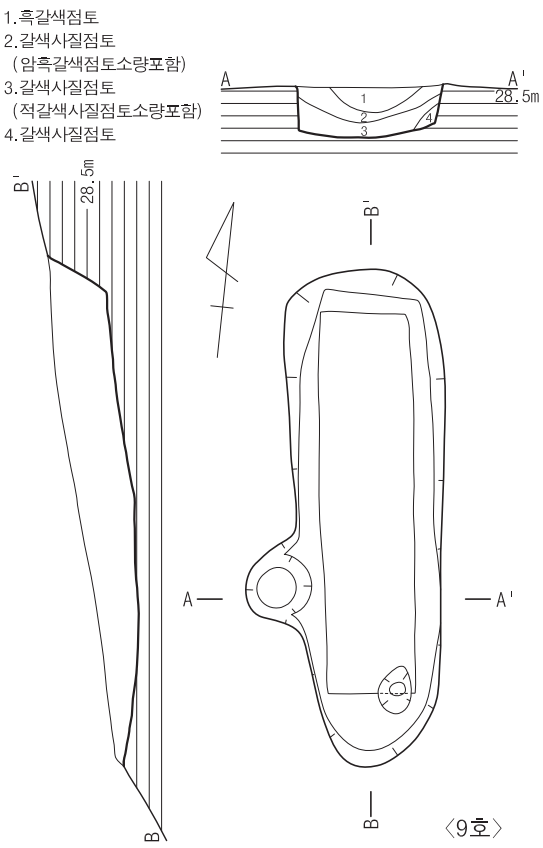
(1) 유구(도면 35, 사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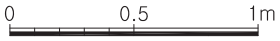
1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남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5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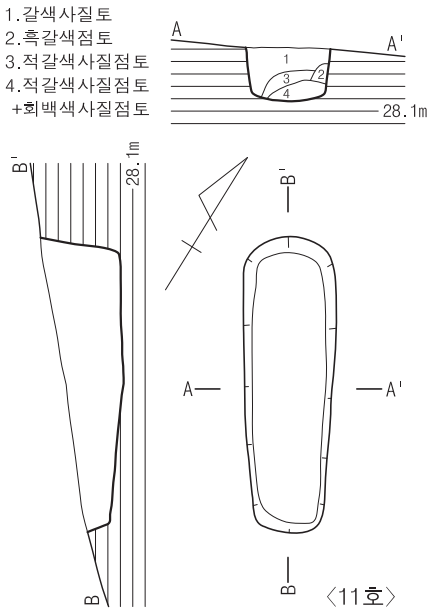
층위는 흑갈색 점질사토와 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대부분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하단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북쪽은 시신이 안치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시신의 폭에 맞게 중앙만 높이를 맞추어 약간 깊게 굴광하였다. 묘광 규모는 115×42×28㎝(2.74: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35. 2지점 가구역 조선 8·9·10·11호 토광묘 유구

11) 1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5, 사진 50)

1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5.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남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북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4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대부분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중단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9×35×31㎝(3.4: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12) 1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6, 사진 51)

1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남서쪽 3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 북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28.9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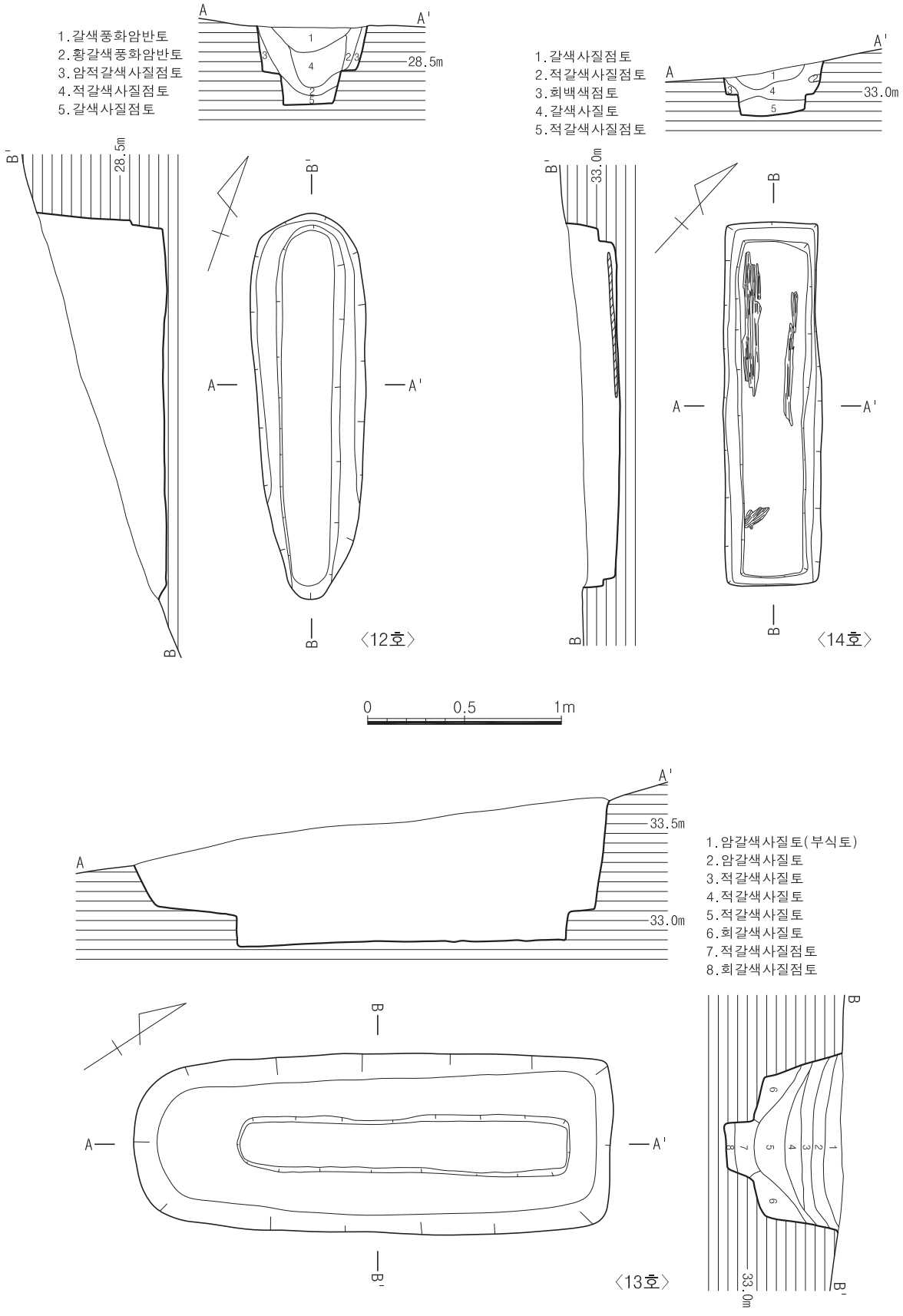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상태는 남쪽 단벽 일부가 유수에 의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0×57×65㎝(3.51:1), 내광 규모는 194×32×16㎝(6.06:1)로 토광직장묘이다.

13) 1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6, 사진 52)

1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 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남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2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와 적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8층은 바닥층이다.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어깨선이 뚜렷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46×92×72㎝(2.67:1), 내광 규모는 172×27×14㎝(6.37: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도면 36. 2지점 가구역 조선 12·13·14호 토광묘 유구

14) 1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6, 사진 53)

1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 남동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북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16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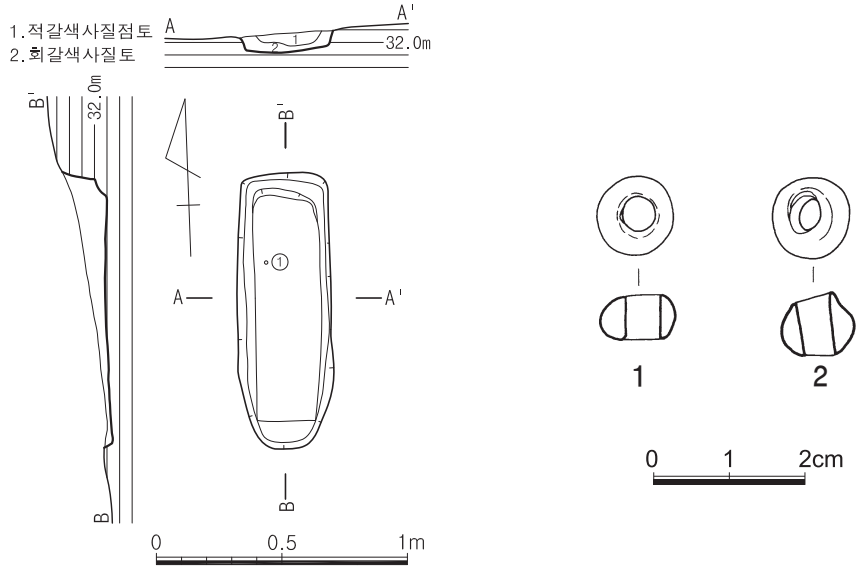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부분적으로 회백색 점토가 혼입되었다. 바닥층인 5층은 적갈색 사질점토를 다짐하였다.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상면은 일부 유수에 의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2°-W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8×51×24㎝(3.69:1), 내광 규모는 175×36×7㎝(4.86:1)로 토광목관묘(이단굴광)이다.

15) 1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7, 사진 54)

1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 북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 동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13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토만 잔존한다.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0×38×18㎝(2.89:1), 내광은 하단부 삭평으로 인하여 북쪽에만 잔존하며 내광 잔존규모는 90×27×5㎝(3.33:1)로 토광목관묘(이단굴광)이다.



도면 37. 2지점 가구역 조선 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은 갈색 유리구슬 2점이 바닥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중심선 흉부에서 동장벽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용도는 중앙에 구멍이 뚤린 것으로 보아 갓장식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구슬(도면 37-1·2, 사진 54-⑥·⑦)

갈색의 원형 유리구슬 2점이다. 직경 1.0㎝, 두께 0.6~0.8㎝, 구멍직경 0.4㎝, 무게 1g

16) 1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8, 사진 55)

1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북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52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회흑색 점토-적갈색 점토로 구성되었다.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6×51×32㎝(4.04:1), 내광 규모는 160×36×13㎝(4.44: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17) 1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8, 사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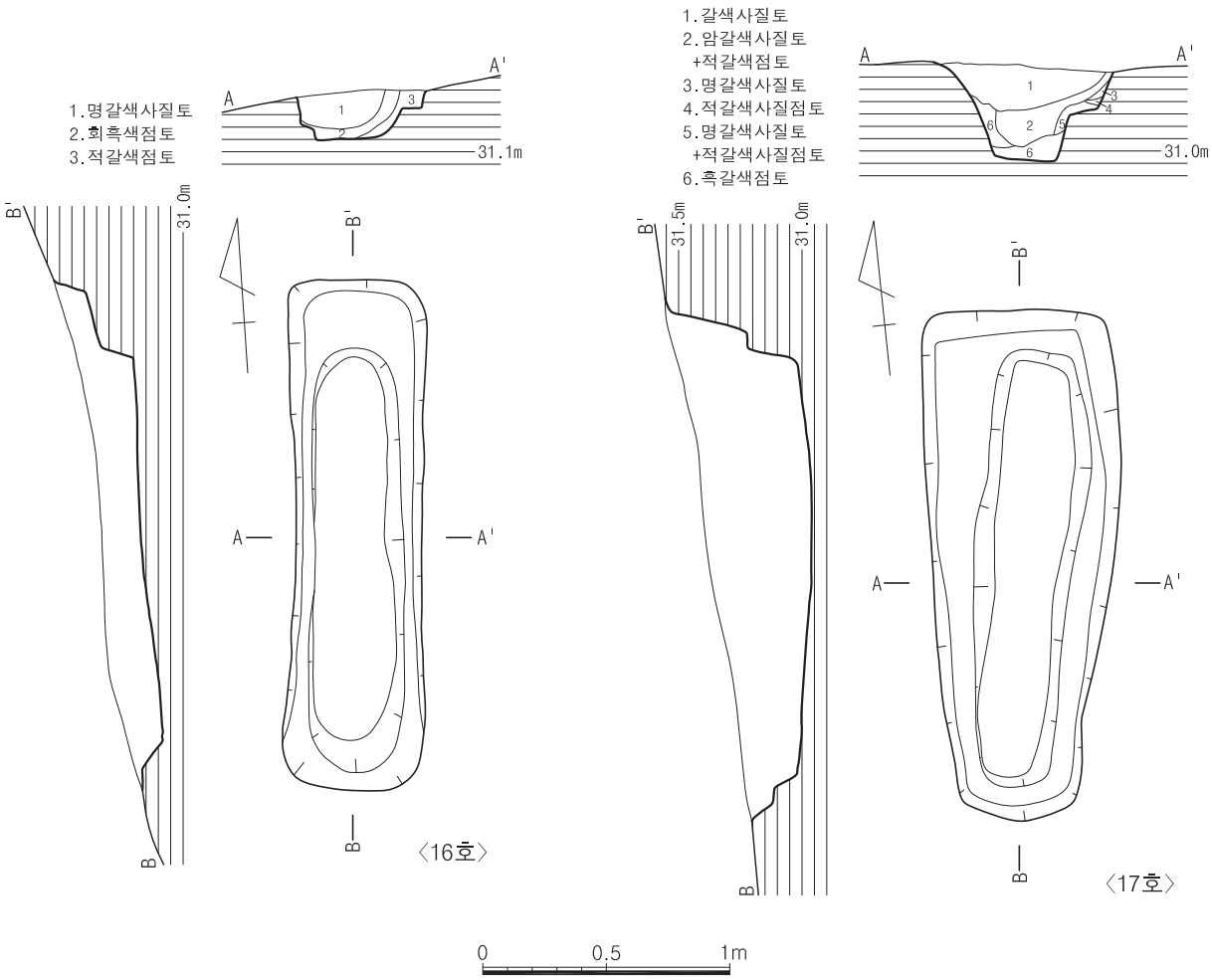
1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 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 남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5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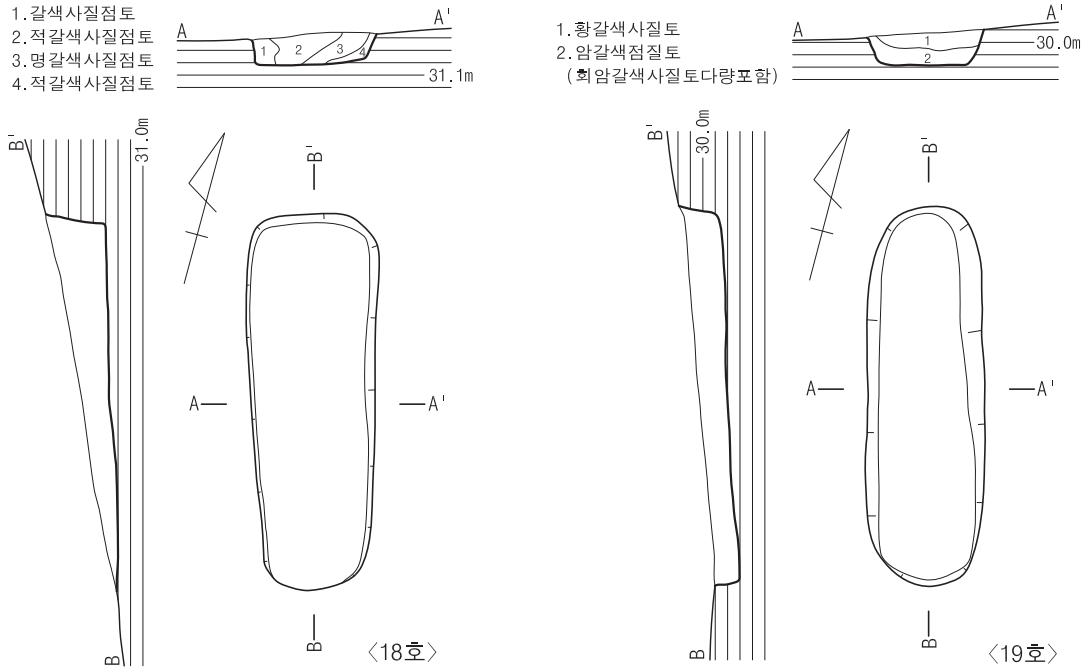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7×72×53㎝(2.88:1), 내광은 북쪽이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으며, 규모는 177×39×20㎝(4.54: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18) 1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8, 사진 57)

1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북동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북쪽 10.8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39m이다.





도면 38. 2지점 가구역 조선 16·17·18·19호 토광묘 유구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2×50×24㎝(3.08:1)로 토광직장묘이다.

19) 1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8, 사진 57)

1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북서쪽 10.4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남서쪽 5.2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0.09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암갈색 점질토로 구성되었으며, 내부토는 시신 부식으로 인한 함몰 시 상부 토양이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삭평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3×47×14㎝(3.26:1)로 토광직장묘이다.

20) 2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9, 사진 58)

2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 동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 남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1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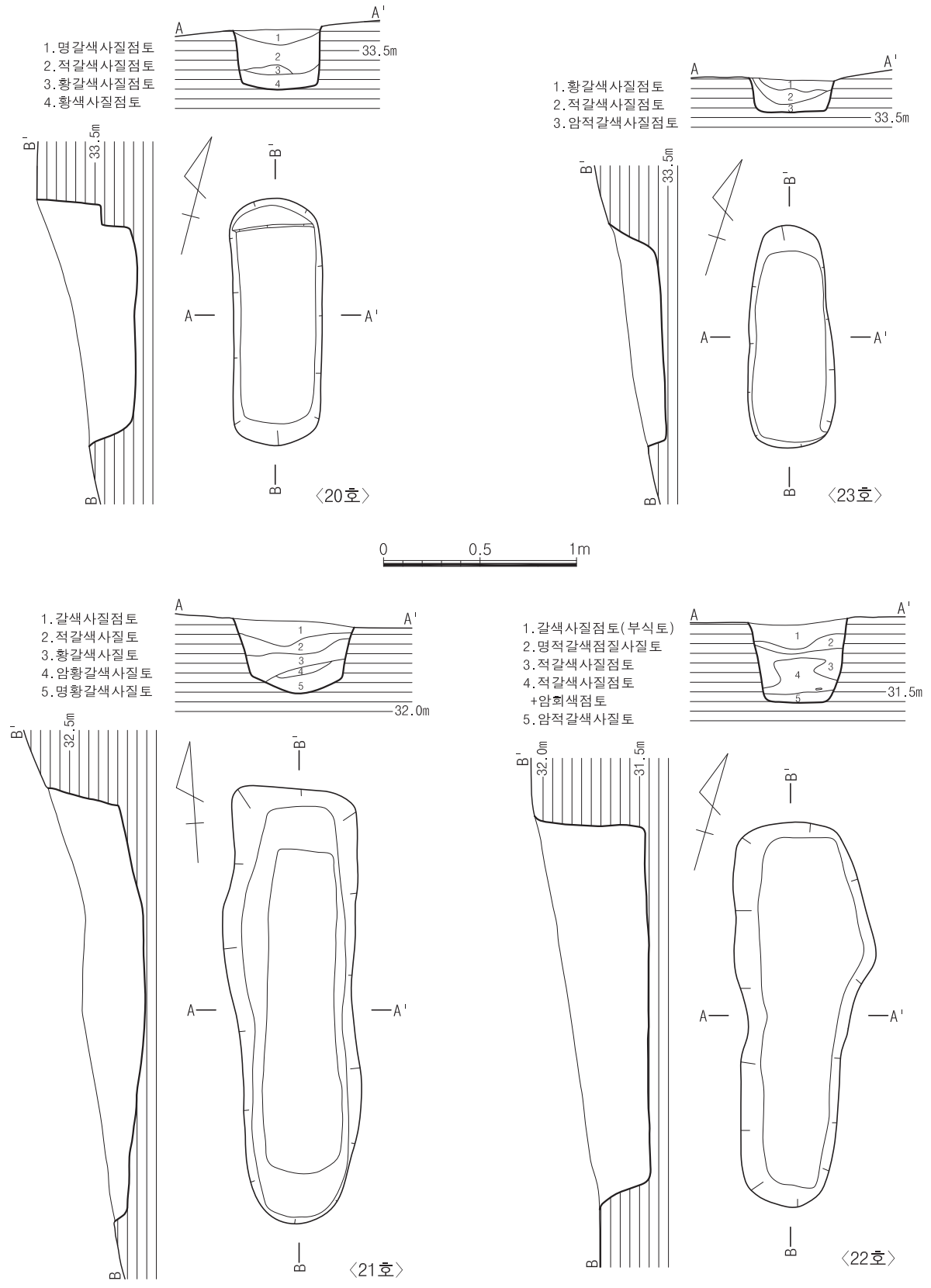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황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토는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28×46×48㎝(2.78:1)로 토광직장묘이다.

21) 2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9, 사진 59)

2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남서쪽 6.8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8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고, 묘광 규모는 226×62×37㎝(3.65:1)이며



도면 39. 2지점 가구역 조선 20·21·22·23호 토광묘 유구

목관은 목관흔을 기준으로 규모는 168×35㎝(4.8:1)로 토광목관묘이다.

22) 2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9, 사진 60)

2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북쪽 1.2m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04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53×57㎝(3.74:1)로 토광직장묘이다.

23) 2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39, 사진 61)

2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 남쪽 8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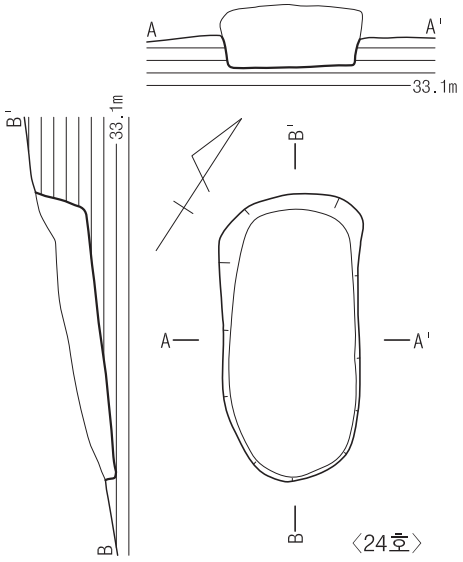
층위는 황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바닥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6×43×21㎝(3.7: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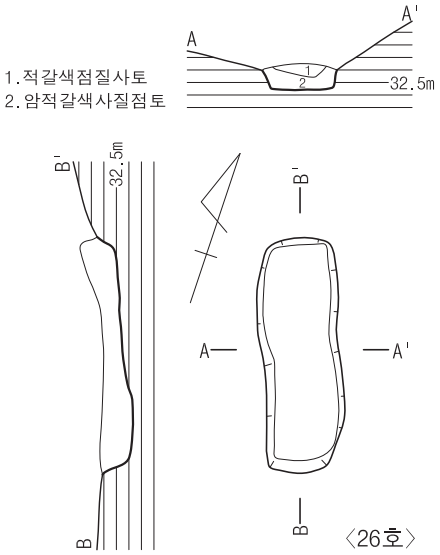
24) 24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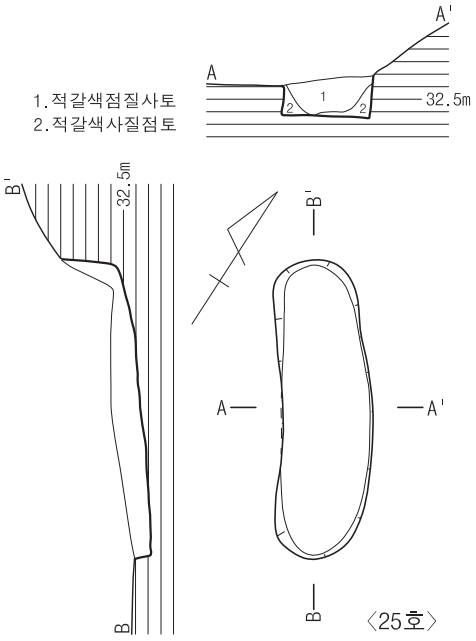
(1) 유구(도면 40, 사진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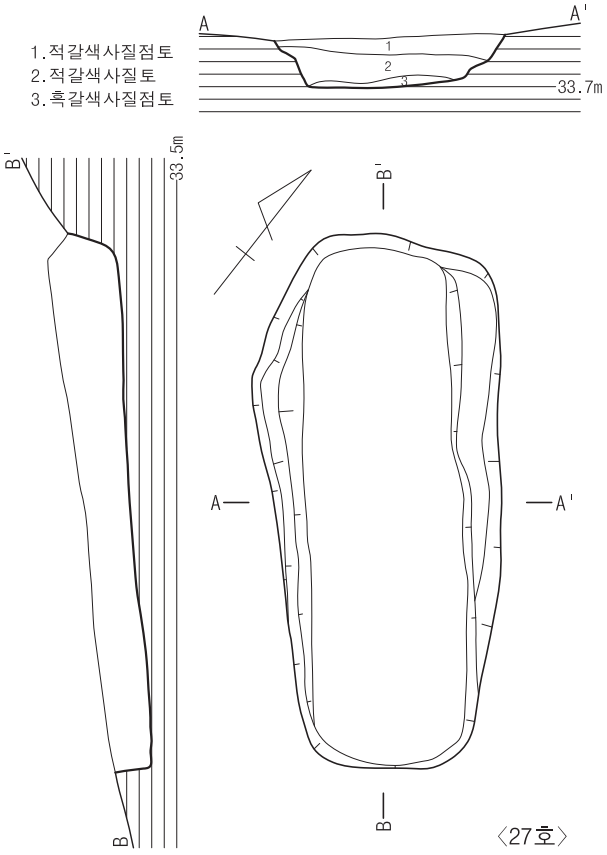
2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 북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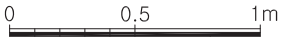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바닥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5×35×19㎝(2.09: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40. 2지점 가구역 조선 24·25·26·27호 토광묘 유구

25) 2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0, 사진 63)

2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7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바닥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9×36×21㎝(3.31:1)로 토광직장묘이다.

26) 2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0, 사진 64)

2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남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점질사토-암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바닥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9×31×6㎝(3.19:1)로 토광직장묘이다.

27) 2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0, 사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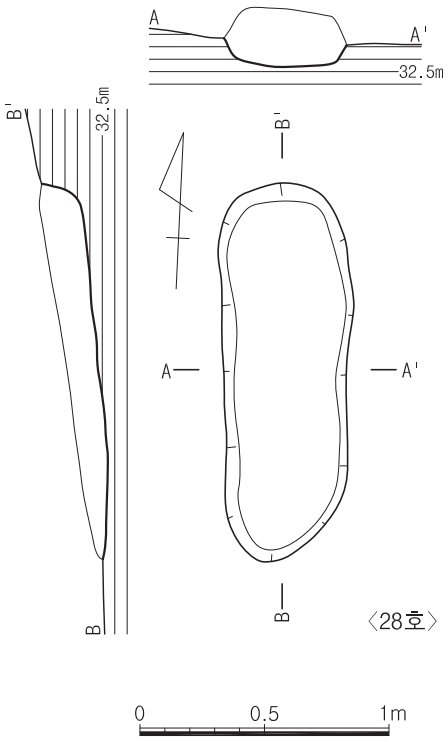
2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8호 토광묘, 북쪽 5.2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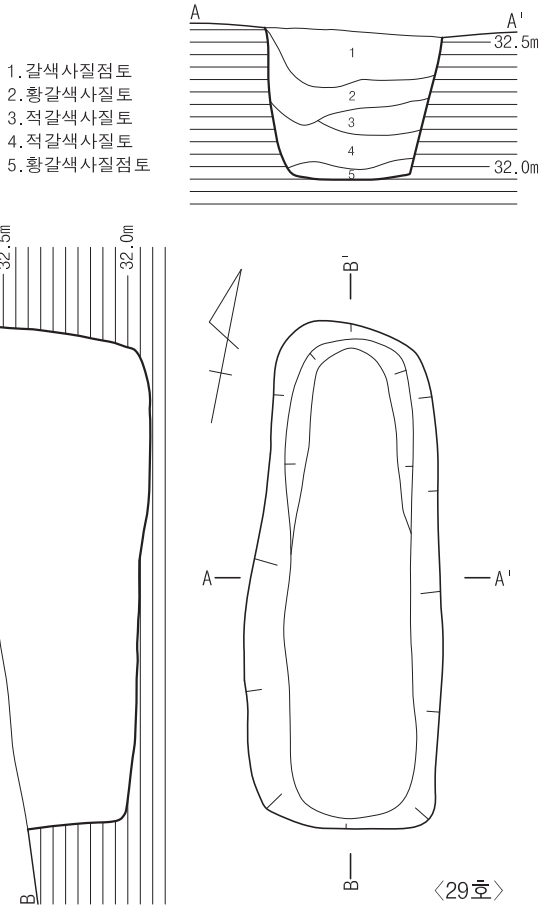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4×91×18㎝(2.35:1), 내광은 동·서장벽에 단을 지어 이단굴광하였고, 규모는 173×71×7㎝로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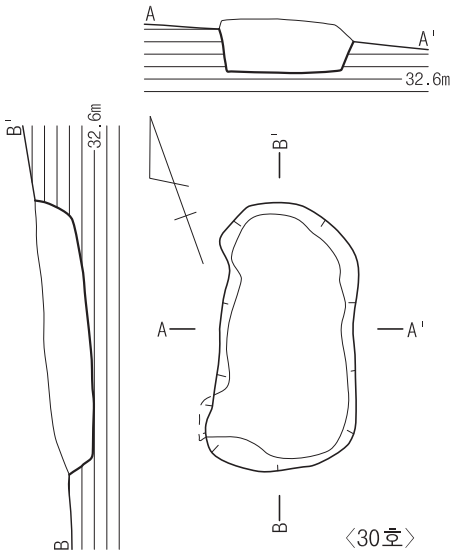
28) 28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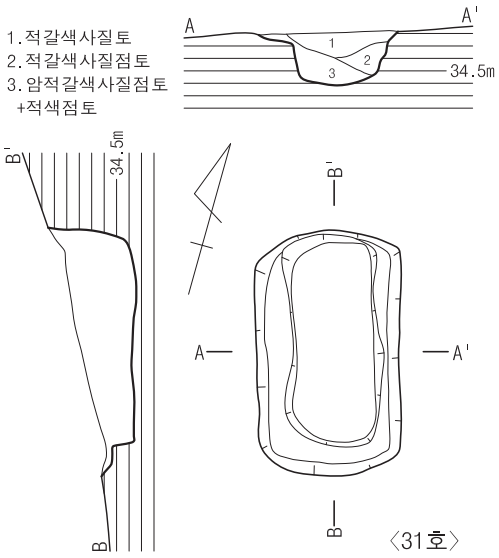
(1) 유구(도면 41, 사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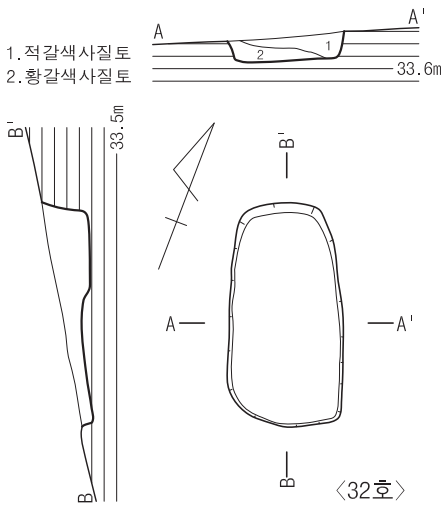
2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 남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2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84m이다.











도면 41. 2지점 가구역 조선 28·29·30·31·32호 토광묘 유구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2×49×15㎝(3.1:1)로 토광목관묘이다.

29) 2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1, 사진 67)

2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28호 토광묘, 남쪽 0.4m 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7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바닥 다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4×70×74㎝(2.91:1)로 토광직장묘이다.

30) 3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1, 사진 68)

3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남동쪽 8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34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훼손되어 하부 일부만 잔존하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8×54×14㎝(2:1)로 토광직장묘이다.

31) 3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1, 사진 68)

3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5.2m지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 동쪽 6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남동쪽 6.4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9×57×32㎝(1.74:1), 내광은 북단벽은 수직으로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양 장벽과 남단벽은 이단으로 굴광하였으며 규모는 86×36×9㎝(2.39:1)로 토광직장묘이다.

32) 3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1, 사진 69)

3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 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 북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0×46×17㎝(1.96:1)로 토광직장묘이다.

33) 3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2, 사진 69)

3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북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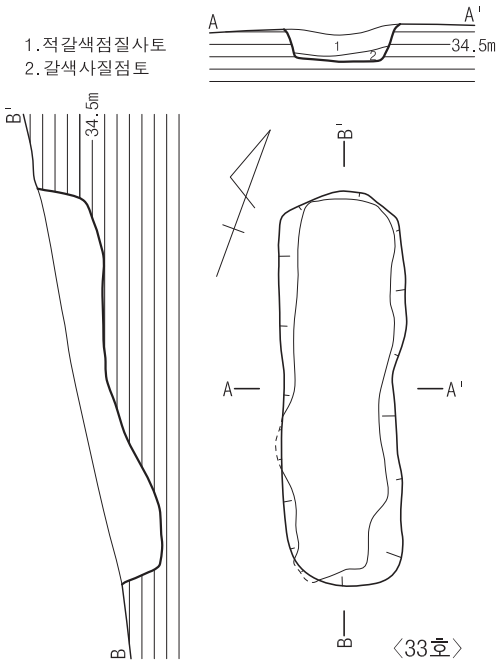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9×44×19㎝(3.61: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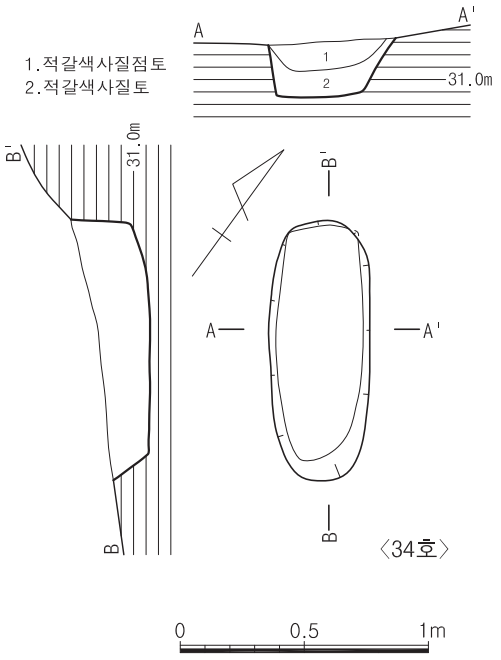
34) 34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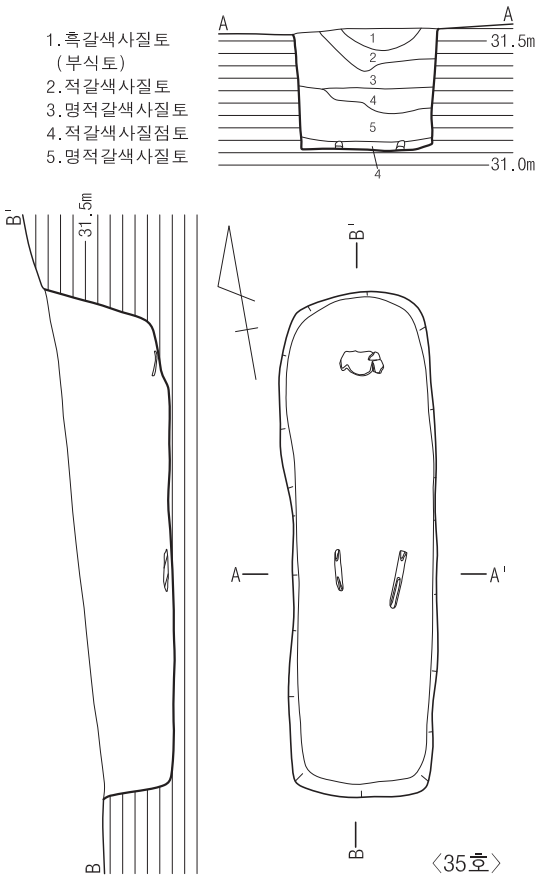
(1) 유구(도면 42, 사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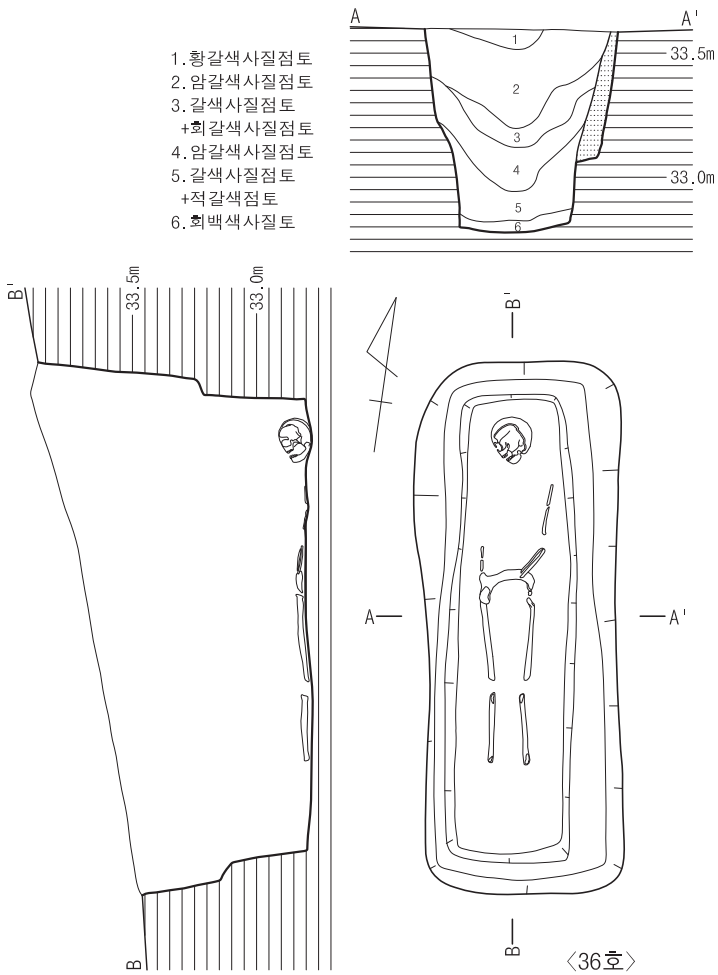
3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 남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66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4×58×41㎝(3.52: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42. 2지점 가구역 조선 33·34·35·36호 토광묘 유구

35) 3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2, 사진 71)

3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에 12.4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북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 서쪽 12.8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66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수평적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4×58×41㎝(3.52: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윗머리뼈 일부와 왼·오른쪽 허벅지뼈 머리쪽이 일부 남아있다.

36) 3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2, 사진 72)

3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에 2.8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 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북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8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회백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6층 바닥층을 제외하면 내부토 함몰 시 함몰된 'U'자형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5×77×108㎝(2.79:1), 내광은 어깨선에서 60㎝정도 아래로 내려와 조성하였고, 규모는 189×51×41㎝(3.71: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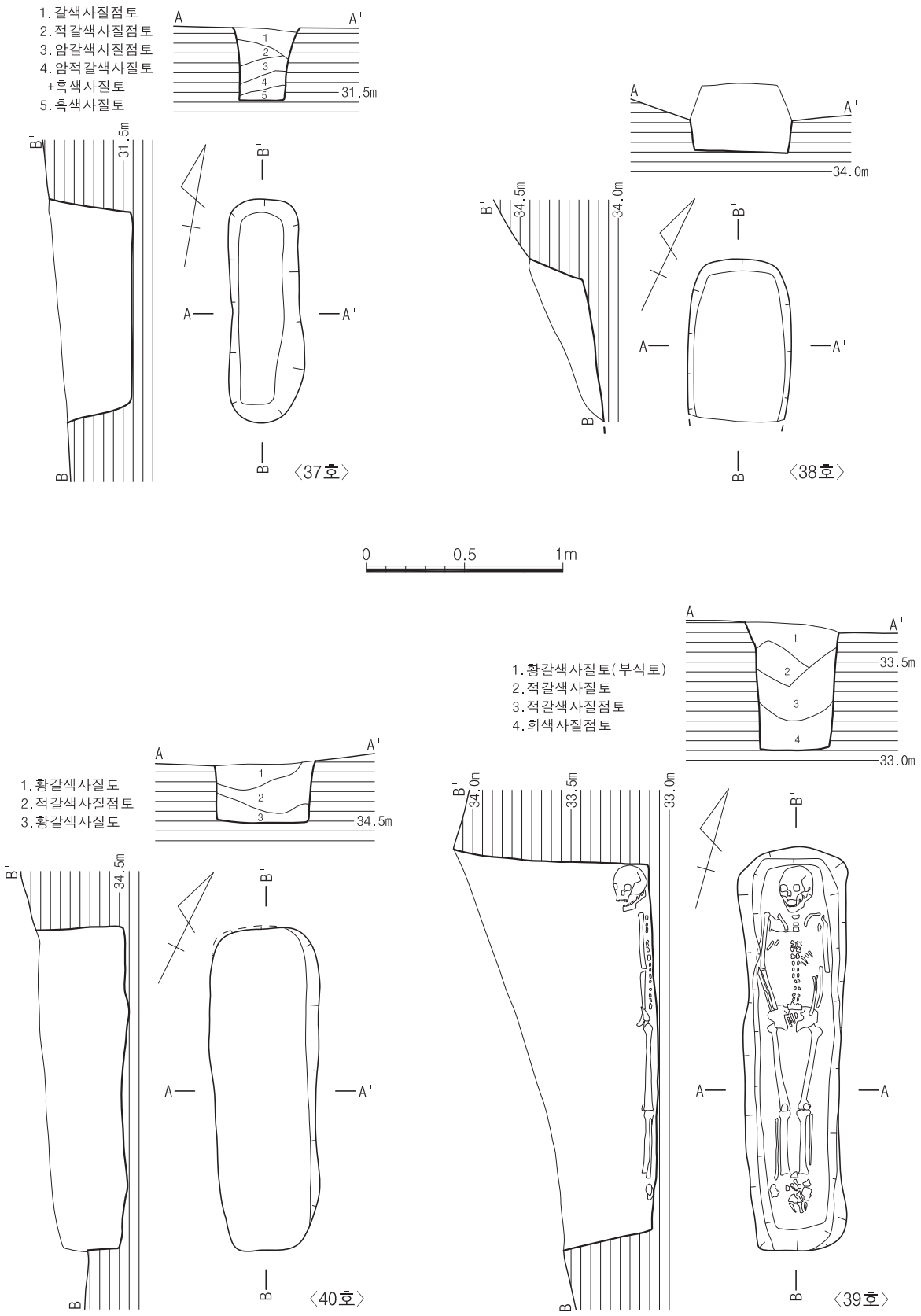
인골은 머리뼈, 왼쪽 위팔뼈, 골반뼈, 허벅지뼈, 정강이뼈가 남아있는데, 골단부는 부식되어 남아있지 않다.

37) 3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3, 사진 73)

3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 북서쪽 8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북쪽 12.4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88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4×34×41㎝(3.359: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43. 2지점 가구역 조선 37·38·39·40호 토광묘 유구

38) 3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3, 사진 73)

3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44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남단벽은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99×53×27㎝로 토광직장묘이다.

39) 3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3, 사진 74)

3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2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 동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북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1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회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 함몰 시 함몰된 'U'자형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6×48×100㎝(4.29:1), 내광은 어깨선에서 50㎝정도 아래로 내려와 조성하였고, 서장벽과 북단벽 동장벽 머리쪽에 얕게 시설하였다. 규모는 189×51×41㎝(3.71: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갈비뼈 대부분을 제외한 모든 뼈들이 남아있다.

40) 4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3, 사진 75)

4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 서쪽 6.4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 남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93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64×52×44㎝(3.15:1)로 토광직장묘이다.

41) 4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4, 사진76)

4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 동쪽

0.2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 남쪽 11.2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97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명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7°-E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9×53×13㎝(2.25:1)로 토광직장묘이다.

42) 4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4, 사진 77)

4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1.2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남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 북동쪽 7.6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92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0×49×25㎝(2.04:1)로 토광직장묘이다.

43) 4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4, 사진 78)

4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2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동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북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9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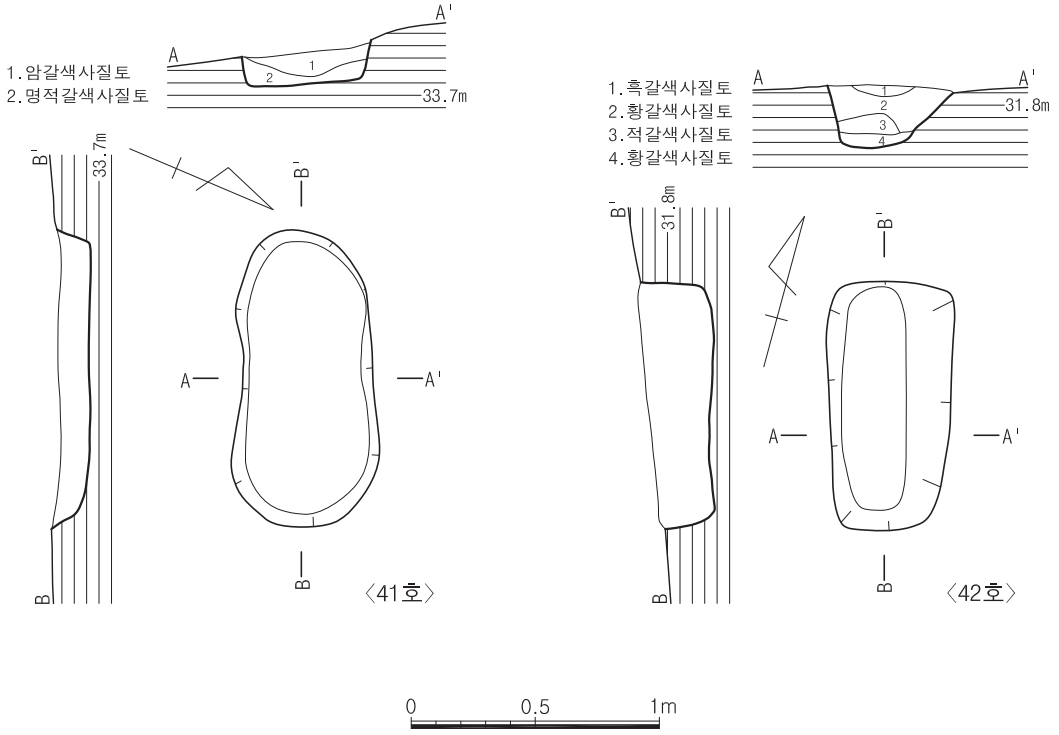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U'자형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아 인골 부식으로 인해 함몰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단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4×100×23㎝(2.14: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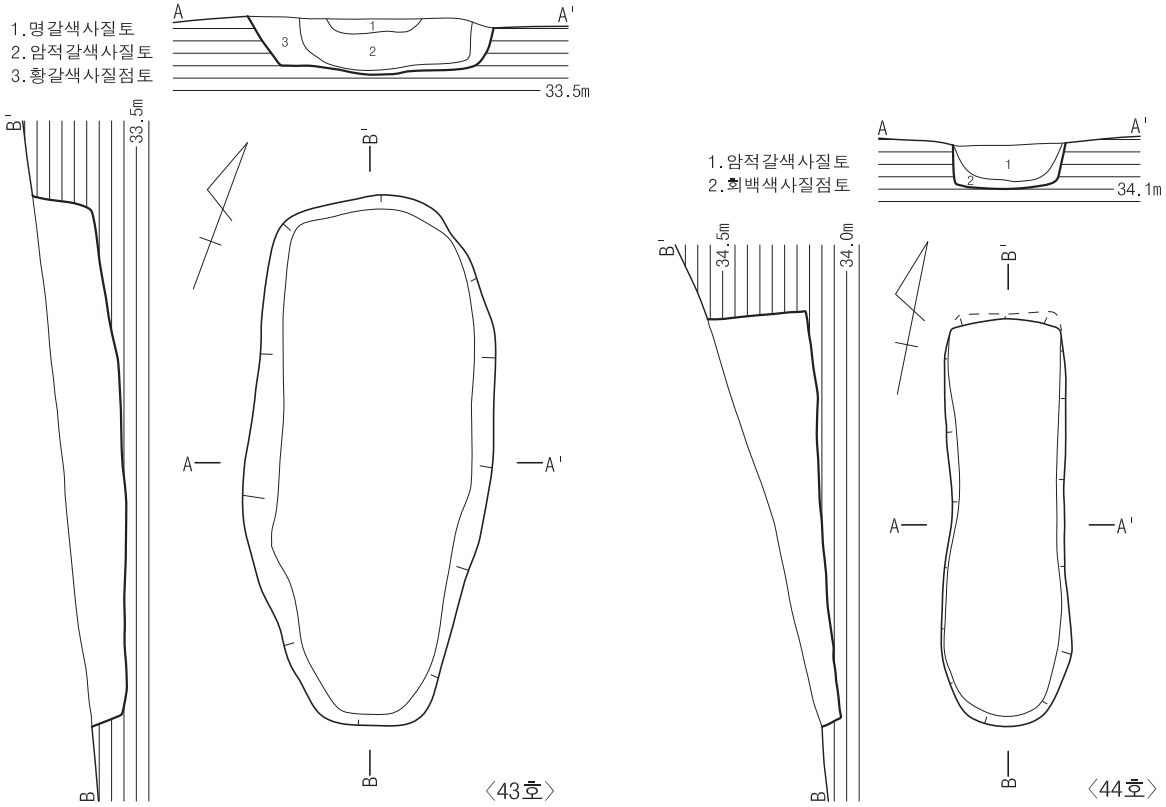
44) 4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4, 사진 79)

4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북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 북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56m이다.

층위는 암적갈색 사질토-회백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U'자형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아 인골 부식





도면 44. 2지점 가구역 조선 41·42·43·44호 토광묘 유구

으로 인해 함몰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단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65×46×39㎝(3.59: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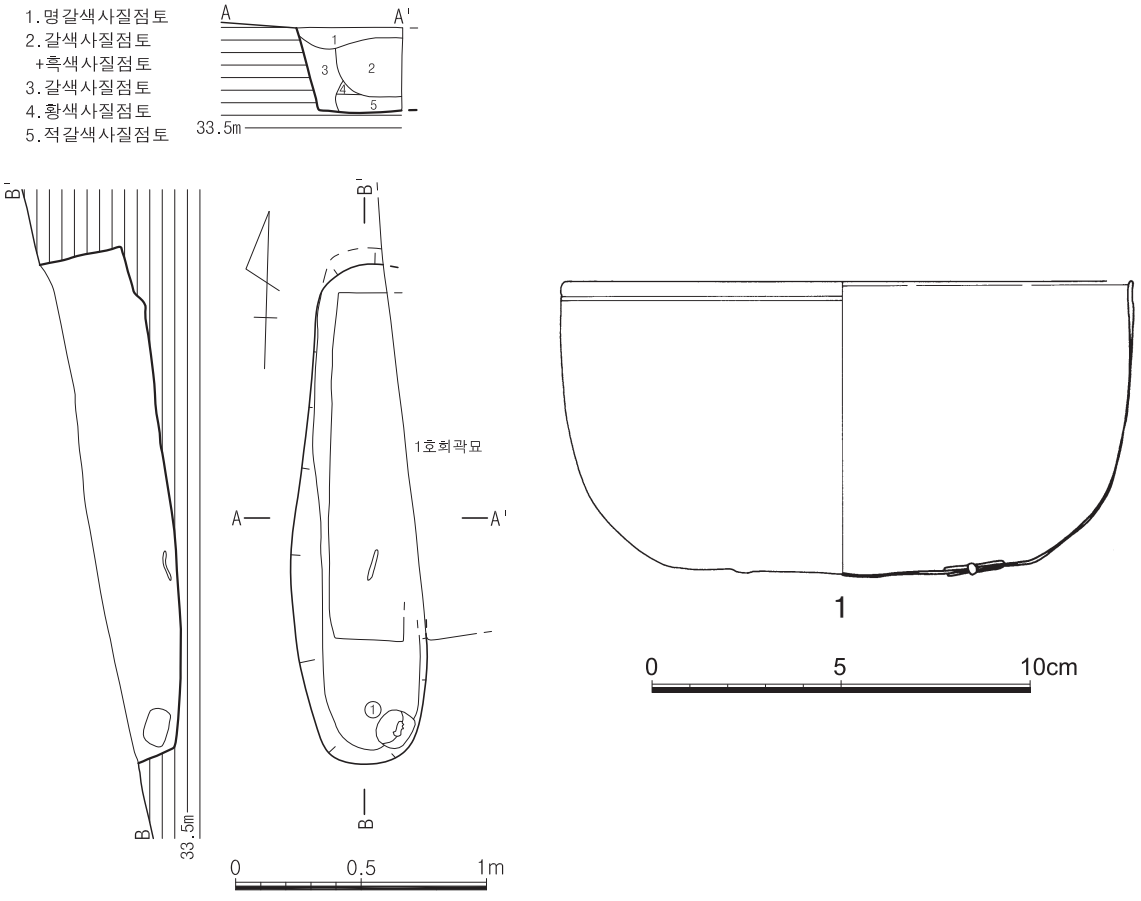
45) 4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5, 사진 80)

4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1호 회곽묘와 동쪽으로 중복, 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09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흑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충전토)-황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U'자형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아 관 부식으로 인해 함몰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0×53×32㎝(3.77:1), 목관은 북쪽 머리쪽을 단벽에 붙여서 안치하였고, 규모는 150×31㎝(4.84: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발치쪽 남단벽 모서리쪽에서 청동완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45. 2지점 가구역 조선 4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45-1, 사진 80-⑥)

청동대부완으로 대각은 결실되었고 신부일부도 결실되었다. 신부의 두께는 매우 얇은 편이나 구연단은 도톰하게 처리하였는데 외면 구연아래에는 한줄의 침선을 돌렸다. 바닥면에는 2군데에 원두정이 박혀 있는데 한 곳에는 내외면에 지름 1.5㎝가량의 원형의 청동판을 대고 원두정을 박았다. 고 7.8㎝, 구경 15.0㎝, 저경 3.5㎝, 무게 203g

46) 4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6, 사진 81)

4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 북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0×36×13㎝(3.61: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머리뼈, 왼쪽 위팔뼈, 허벅지뼈, 정강이뼈가 남아있는데, 골단부분은 모두 부식되었다.

47) 4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6, 사진 82)

4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남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 남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5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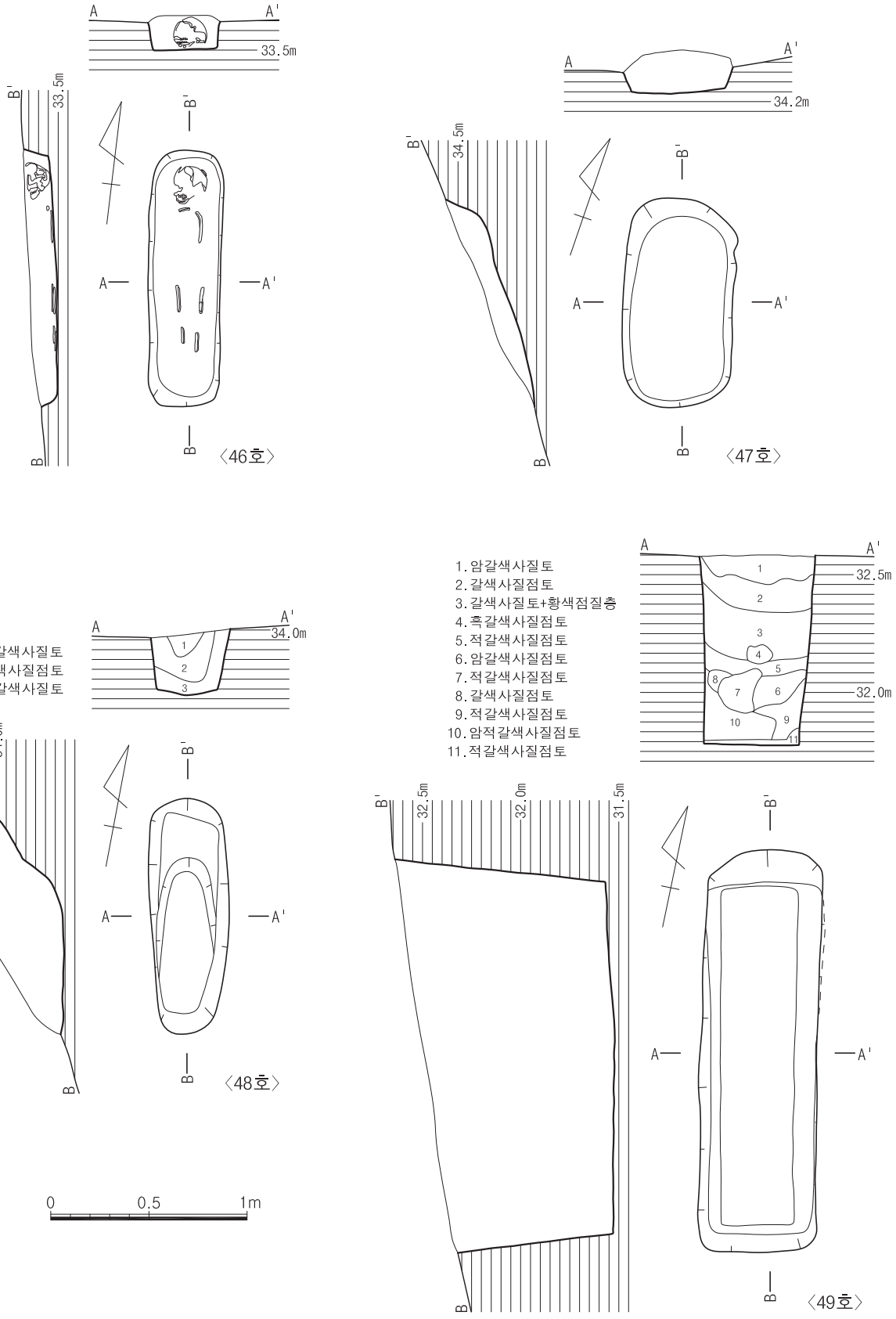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6×56×17㎝(1.89:1)로 토광직장묘이다. 묘광 바닥은 약 15°정도 남쪽으로 경사지게 조성되었다.

48) 4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6, 사진 82)

4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동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2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적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도면 46. 2지점 가구역 조선 46·47·48·49호 토광묘 유구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20×40×48㎝(3:1), 내광은 80×30㎝(2.67:1)로 토광직장묘이다. 묘광을 굴광하면서 내광까지 벽면은 사선방향을 이루다가 내광을 파면서 수직으로 20㎝정도 판 후 바닥은 수평을 이루게 굴착하였다.

49) 4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6, 사진 83)

4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북서쪽 4.4m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동쪽 12.8m지점에 조선시대 6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6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충전토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5×60×107㎝(3.42:1), 목관은 높이를 알 수 없으나 목관흔을 기준으로 173×38㎝(4.55:1)의 토광목관묘이다.

50) 5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7, 사진 84)

5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4호 주거지의 북벽에 중복되어 있다. 북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북동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0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흑갈색 점질사토가 우세하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8×82×70㎝(2.66:1), 내광은 182×53×17㎝(3.43: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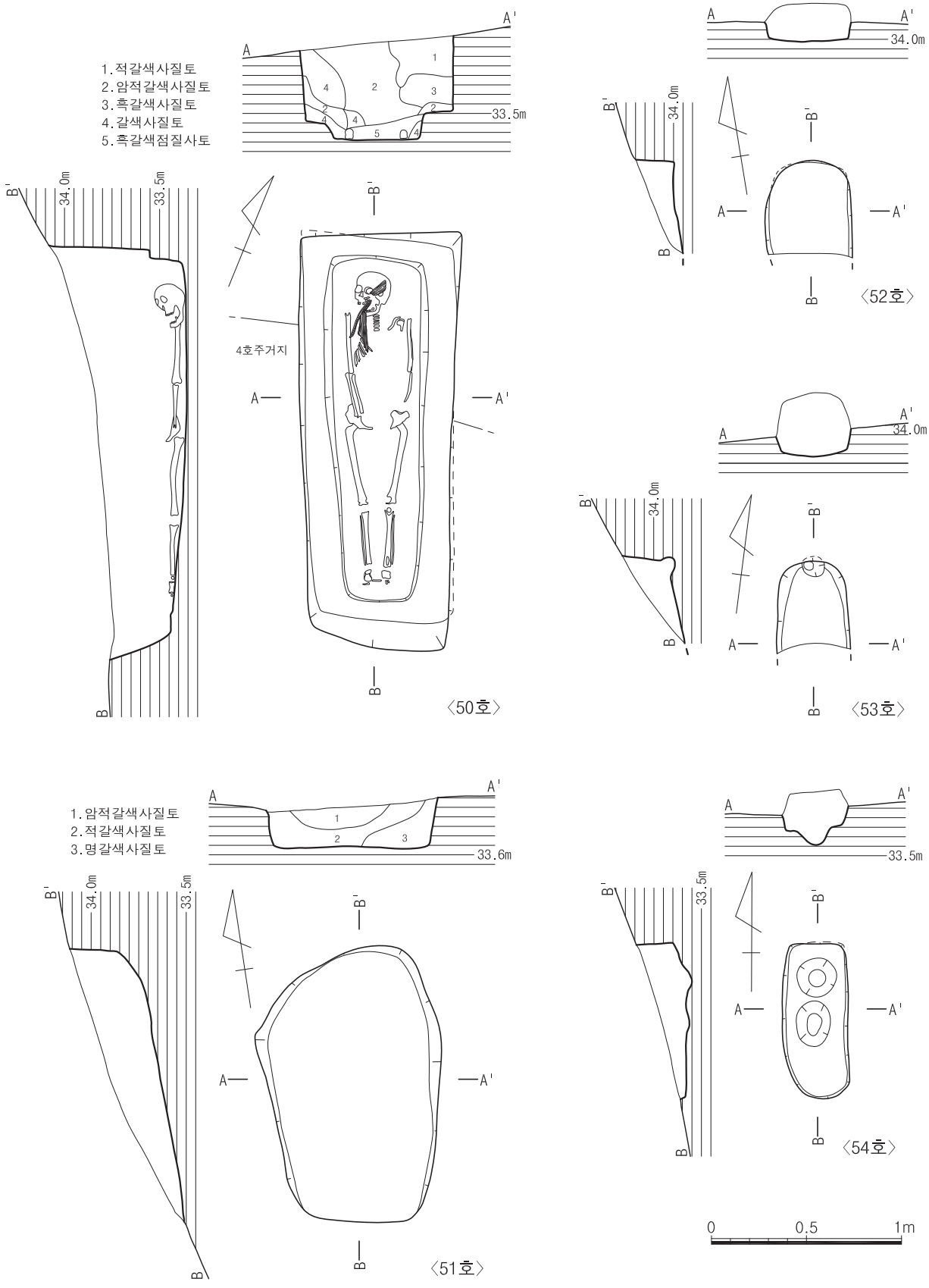
인골은 갈비뼈와 등뼈, 가슴뼈 등을 제외하면 모두 남아있으며, 색깔은 검은색을 띠고 있다.

51) 5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7, 사진 85)

5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 남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서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12m이다.

층위는 암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부만 남은 상태로 남쪽 단벽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E로 등



도면 47. 2지점 가구역 조선 50·51·52·53·54호 토광묘 유구

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44×91×27㎝(1.58:1)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남단벽으로 내려가면서 경사지게 조성하였다.

52) 5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7, 사진 85)

5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동쪽 0.2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 남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단부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북단벽 쪽은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78×45×20㎝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잔존상태로 보아 남단벽으로 내려가면서 경사지게 조성하였다.

53) 5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7, 사진 86)

5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2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 남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동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27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하단부는 대부분 유실되었고, 북단벽 쪽은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87×39×27㎝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잔존상태로 보아 남단벽으로 내려가면서 경사지게 조성하였다.

54) 5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7, 사진 86)

5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 북동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4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로 하단부는 바닥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S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82×35×19㎝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닥 중앙과 흉부쪽에 수혈 2개를 깊이 5㎝ 내외로 시설하였다.

55) 5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8, 사진 87)

5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 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서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3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유수에 의해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로 하단부는 바닥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5×36×23㎝(2.64:1)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남단벽으로 내려오면서 경사지게 조성하였다.

56) 5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8, 사진 87)

5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북장벽에서 서단벽 모서리쪽으로 중복, 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북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53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48×62×78㎝(4:1)로 토광직장묘이다. 바닥은 남단벽쪽에 5㎝ 높이의 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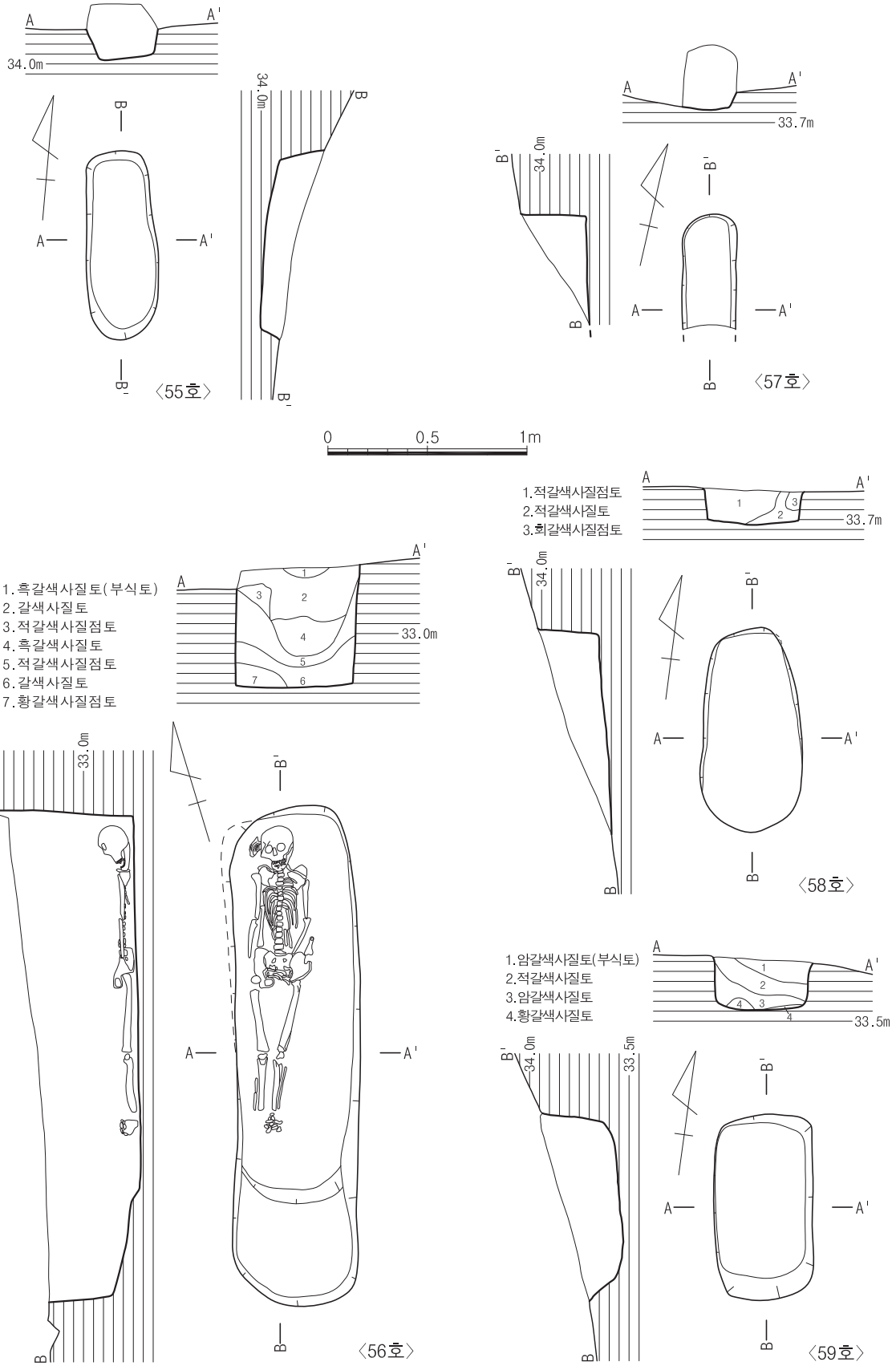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57) 5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8, 사진 88)

5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은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주거지와 잇대어 있으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동쪽 2.2m지점에 조선시대 5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89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상부만 일부 잔존하며 중간 이하는 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02×28×32㎝로 폭이 좁고 내부에 목관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광직장묘로 추정된다.



도면 48. 2지점 가구역 조선 55·56·57·58·59호 토광묘 유구

58) 5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8, 사진 88)

5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동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59호 토광묘, 남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0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바닥 일부만 남은 상태로 하단부는 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03×50×31㎝로 내부에 목관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토광직장묘로 추정된다.

59) 5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8, 사진 89)

5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남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북동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6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9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3×50×31㎝(1.86:1)로 토광직장묘이다.

60) 6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9, 사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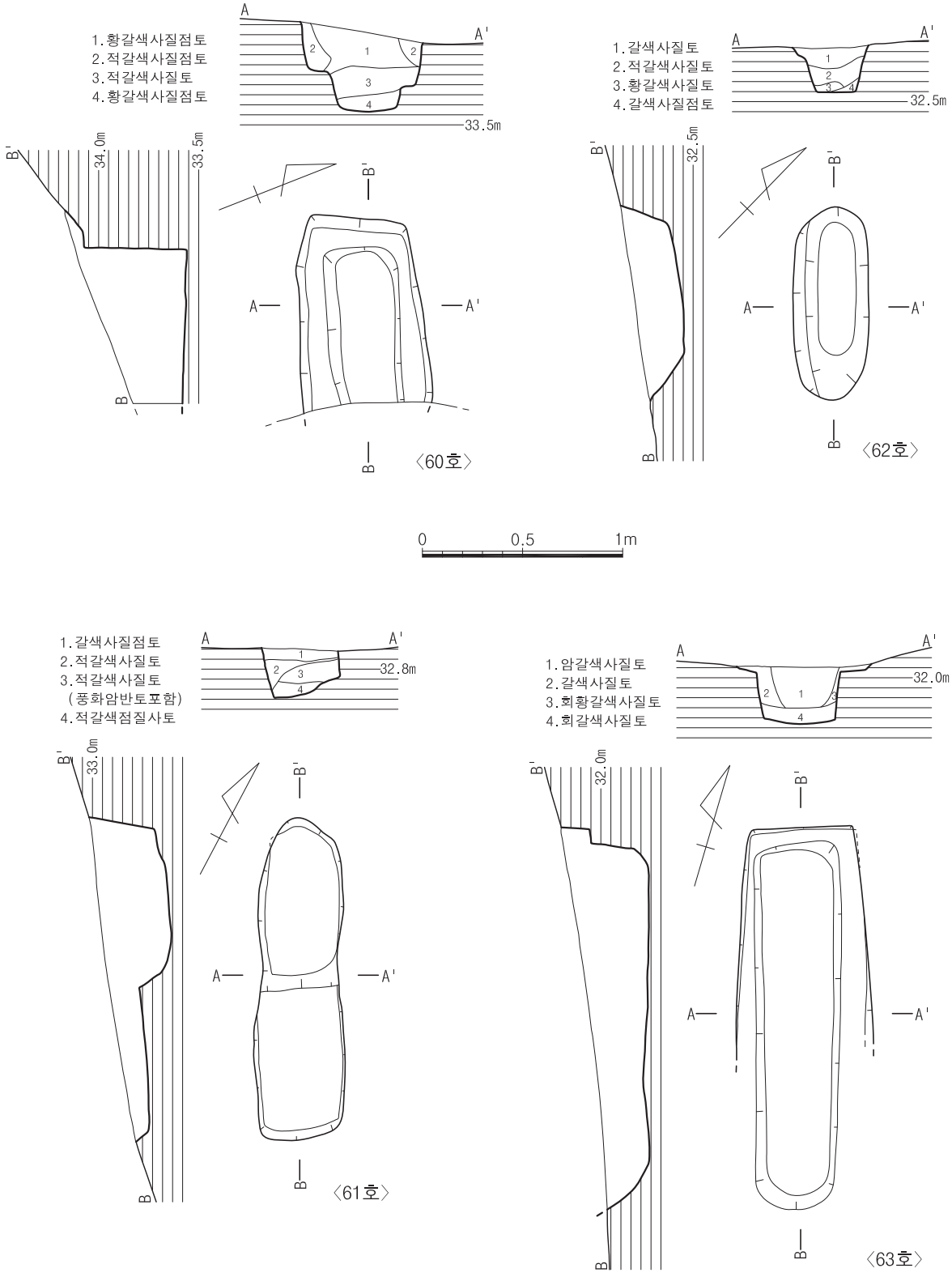
6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남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59호 토광묘, 북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6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17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바닥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아있는 상태로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03×61×61㎝, 내광 잔존규모는 89×37×20㎝로 토광직장묘이다.

61) 6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9, 사진 90)

6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62호 토광묘와 연



도면 49. 2지점 가구역 조선 60·61·62·63호 토광묘 유구

접하고, 북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동쪽 1.8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0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아있는 상태로 하단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0×39×33㎝(4.62:1)로 토광직장묘이다.

62) 6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9, 사진 91)

6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61호 토광묘와 연접하고, 북쪽 0.7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96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7×38×23㎝(2.55:1)로 토광직장묘이다.

63) 6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49, 사진 91)

6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6m지점에 조선시대 62호 토광묘, 서쪽 12.8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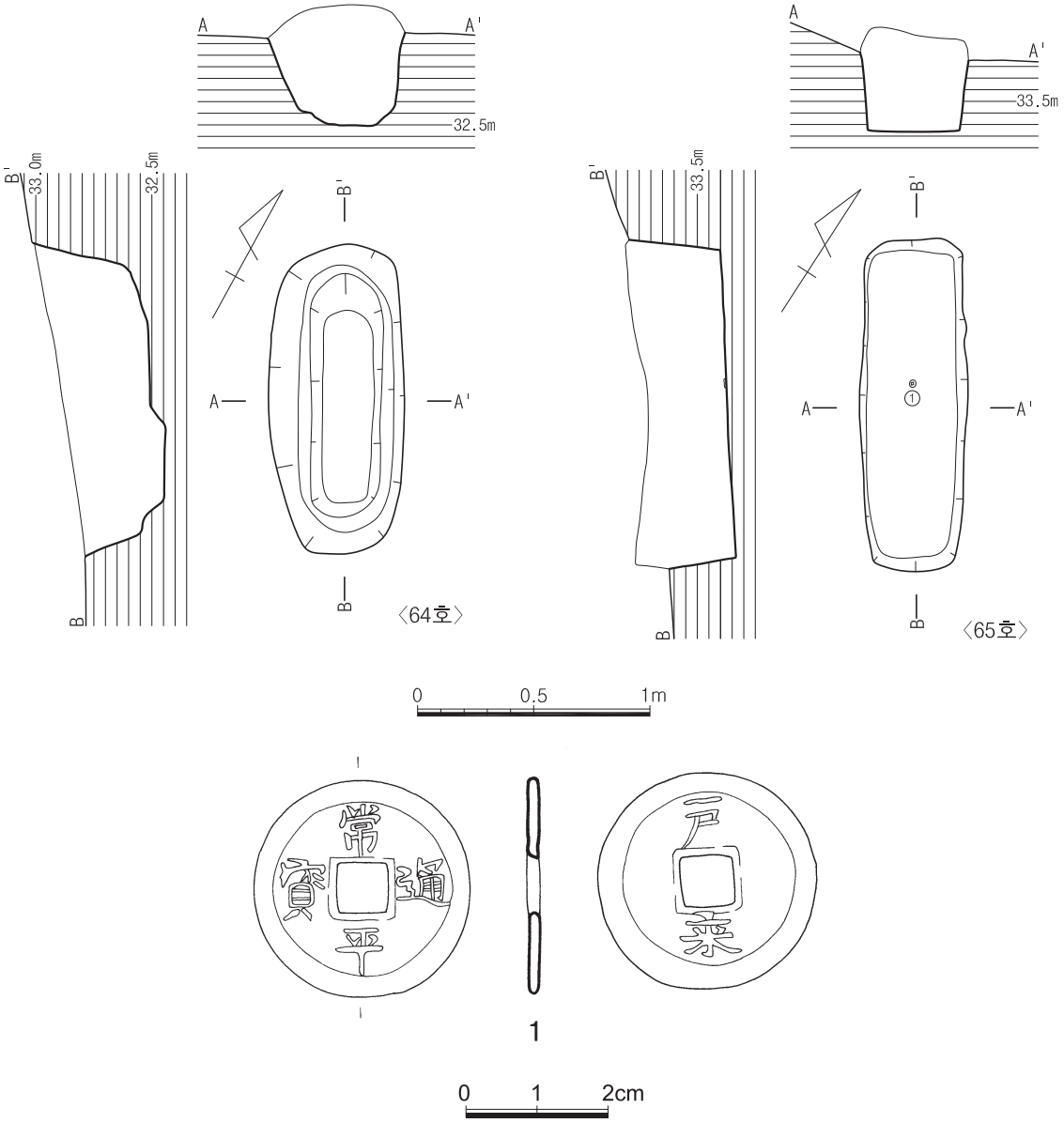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어깨선의 중간 이하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단 굴광선은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91×68×37㎝, 내광 규모는 183×42×22㎝(4.36: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64) 6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0, 사진 92)

6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62호 토광묘, 북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67호 토광묘, 동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6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9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도면 50. 2지점 가구역 조선 64·6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65호)

묘광 규모는 134×59×39㎝(2.27:1), 내광 규모는 109×30㎝(3.36: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65) 6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0, 사진 93)

6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69호 토광묘, 북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회곽묘, 남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6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

고도는 33.89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43×47×39㎝(3.04:1)로 토광직장묘이다.

유물은 중앙 바닥에서 상평통보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전(도면 50-1, 사진 93-⑤)

常平通寶 當二錢으로 後面에 戶來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외연이 닳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하게 부식되었다. 직경 3.1㎝, 두께 0.2㎝, 무게 6g

66) 6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1, 사진 94)

6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0호 토광묘, 남동쪽 2.6m지점에 조선시대 67호 토광묘, 남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5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황색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25×45×26㎝(2.78:1)로 토광직장묘이다.

67) 6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1, 사진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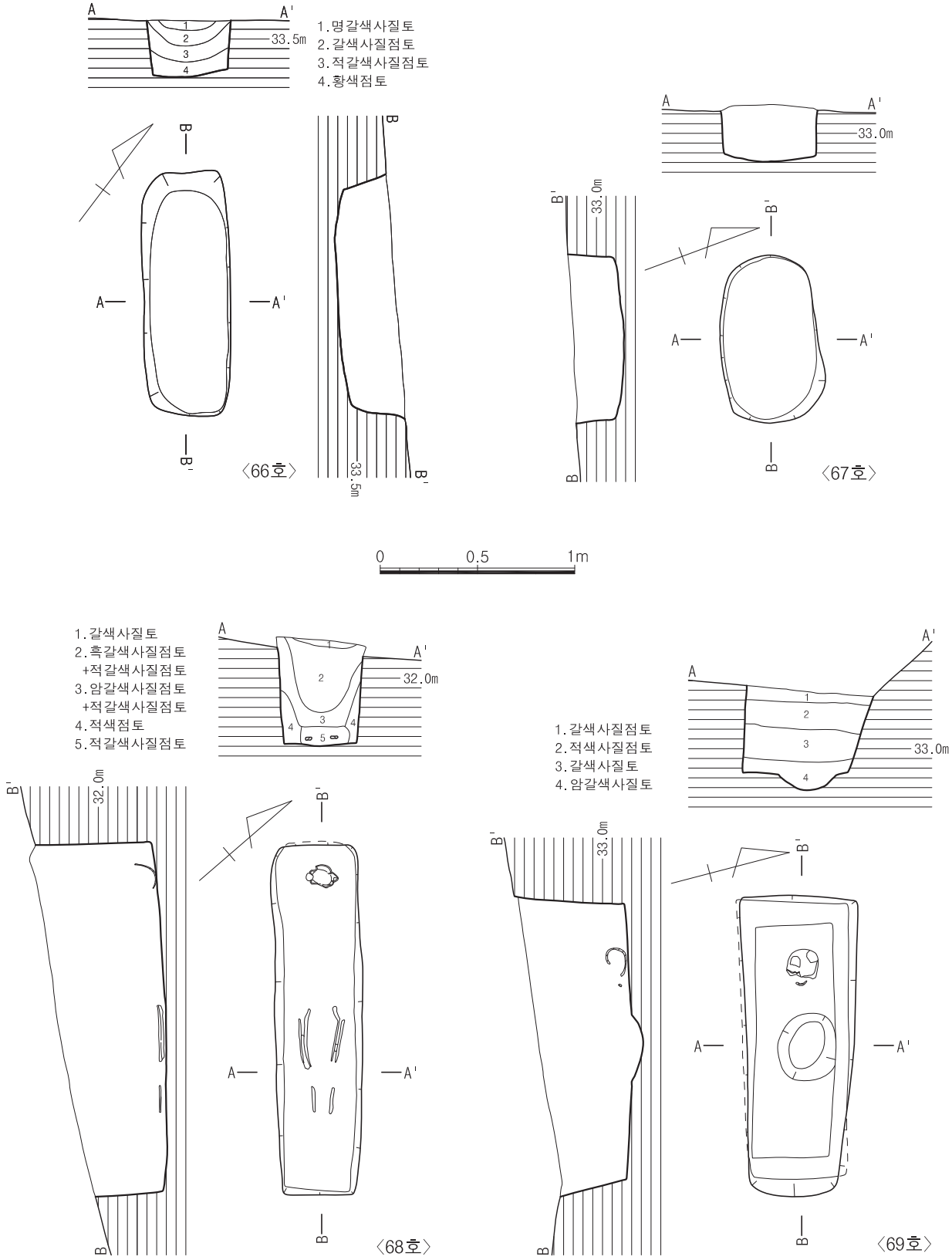
6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6m지점에 조선시대 66호 토광묘, 남서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남동쪽 6.2m지점에 조선시대 6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1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87×50×23㎝(1.74:1)로 토광직장묘이다.

68) 6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1, 사진 95)

6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6.2m지점에 조선시대 67호 토광묘, 서쪽 7.6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 북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



도면 51. 2지점 가구역 조선 66·67·68·69호 토광묘 유구

도는 32.3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색 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0×44×59㎝(4.09: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잔존 부위는 윗머리뼈, 허벅지뼈, 정강이뼈로 사지뼈는 골단부가 부식되어 있다.

69) 6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1, 사진 95)

6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65호 토광묘, 북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회곽묘, 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수평으로 퇴적되어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5×55×56㎝(2.82:1), 목관은 중앙에 위치하며 규모는 120×41㎝(2.93:1)로 토광목관묘이다. 내부시설로는 35×30×6㎝의 요갱이 중앙에서 북장벽에 치우쳐 시설되어 있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잔존 부위는 윗머리뼈 일부이다.

70) 7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2, 사진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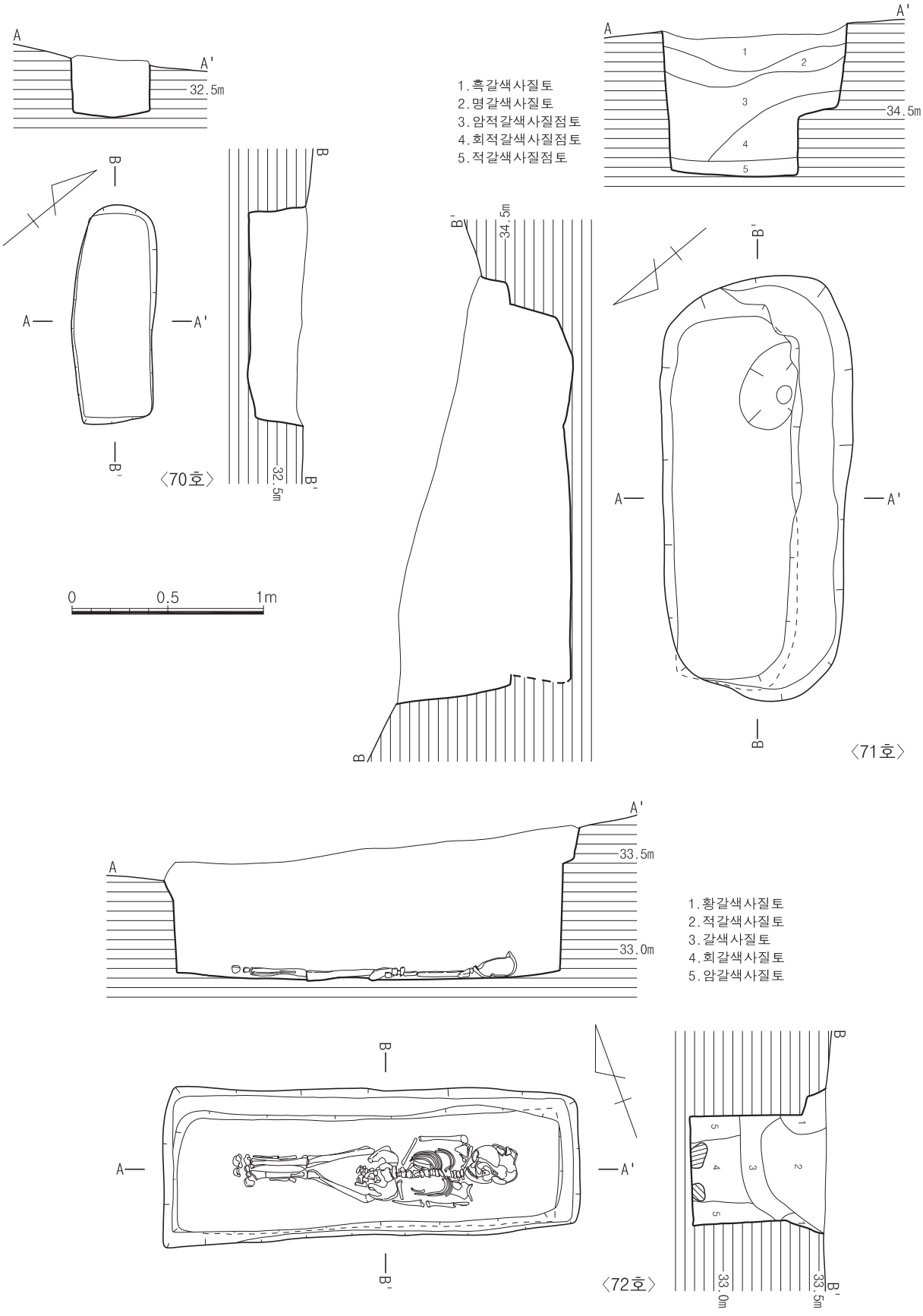
7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68호 토광묘, 북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회곽묘, 남서쪽 7.6m지점에 조선시대 6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6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4×43×30㎝(2.65:1)로 토광직장묘이다.

71) 7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2, 사진 96)

7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 남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회곽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07m이다.



도면 52. 2지점 가구역 조선 70·71·72호 토광묘 유구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점토-회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1×95×39㎝(2.33:1)로 토광직장묘이다. 북장벽을 제외하고 어깨선에서 50㎝정도 내려와 단벽 1/2을 포함하여 남장벽까지 단을 이루었다.

72) 7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2, 사진 97)

7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회곽묘, 남동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북쪽 6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4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8×76×75㎝(2.87:1), 내광은 204×55×56㎝(3.71:1)로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인골은 회백색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윗머리뼈가 파손되었을 뿐 나머지는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73) 7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3, 사진 97)

7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사면 동남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조선시대 74호 토광묘와 연접해 있으며, 북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남서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6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23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6°-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0×32×15㎝(2.81: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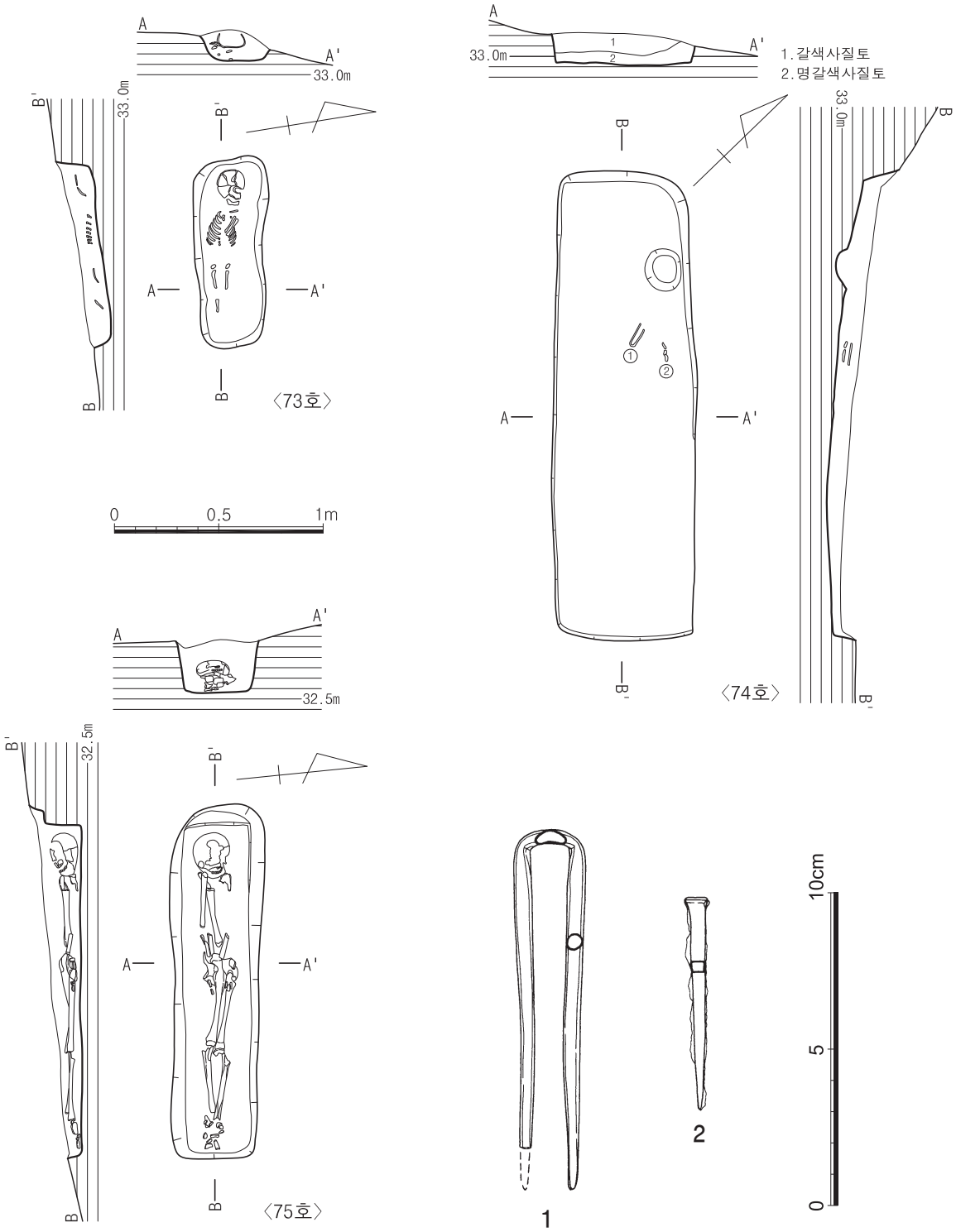
인골은 회백색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유아인 관계로 등뼈 및 각 뼈대의 골단부분이 부식되어 있다.

74) 7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3, 사진 98)

7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조선시대 73호 토광묘와 연접해 있으며, 북쪽 0.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남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27m이다.

층위는 적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도면 53. 2지점 가구역 조선 73·74·7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 : 74호)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5×69×17㎝(3.26:1)로 토광직장묘이다. 내부시설은 북장벽에서 동단벽쪽으로 치우쳐 12×7㎝ 크기의 수혈이 위치하고 있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왼쪽 가슴쪽으로 청동곳 1점과 북동장벽쪽으로 관정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곳(도면 53-1, 사진 98-⑥)

선단부 한쪽 끝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棒을 구부려 두 가닥을 평행하게 만들었다. 基部의 단면은 구부러진 장타원형이며, 棒部의 단면은 원형이다. 길이 11.6㎝, 무게 44g

② 관정(도면 53-2, 사진 98-⑦)

완형의 철제관정으로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6.9㎝, 폭 0.5㎝, 두께 0.4㎝, 무게 3g

75) 7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3, 사진 99)

7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북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81호 토광묘, 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7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69×40×25㎝(4.23: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보존상태가 좋은 관계로 모든 부위가 남아있다.

76) 7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4, 사진 99)

76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80호 토광묘, 북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북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38m이다.

층위는 회황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하단부와 이단굴광 하단부까지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10×63×25㎝, 내광 잔존규모는 96×29㎝로 토광직장묘이다.

77) 7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4, 사진 100)

77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81호 토광묘, 서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 남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7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2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암적갈색 점질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점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하단부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W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11×57×14㎝, 목관은 99×36㎝로 토광목관묘이다.

78) 7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4, 사진 100)

78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 서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82호 토광묘, 남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0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76×36×17㎝(2.11:1)로 토광직장묘이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남장벽 쪽으로 약간 치우쳐 철제 용기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철제용기(도면 54-1, 사진 100-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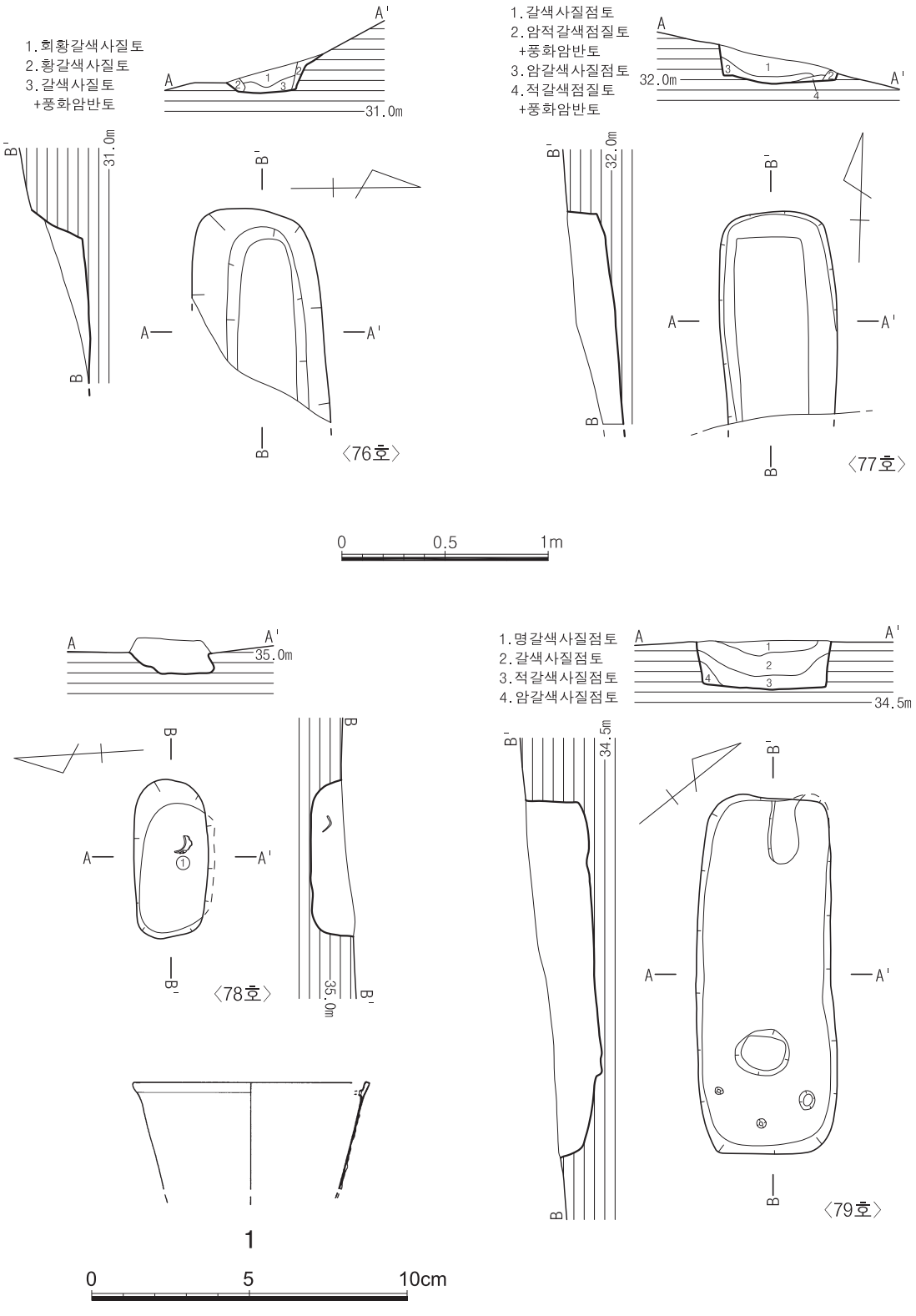
철제용기로 구연부편만 남아있다. 구연은 얇은 신부에 비해 도톰하게 처리하였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현고 3.4㎝, 복원구경 7.5㎝

79) 7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4, 사진 101)

79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회곽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 북서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89m이다.

층위는 연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토양 함몰에 의해 'U'자형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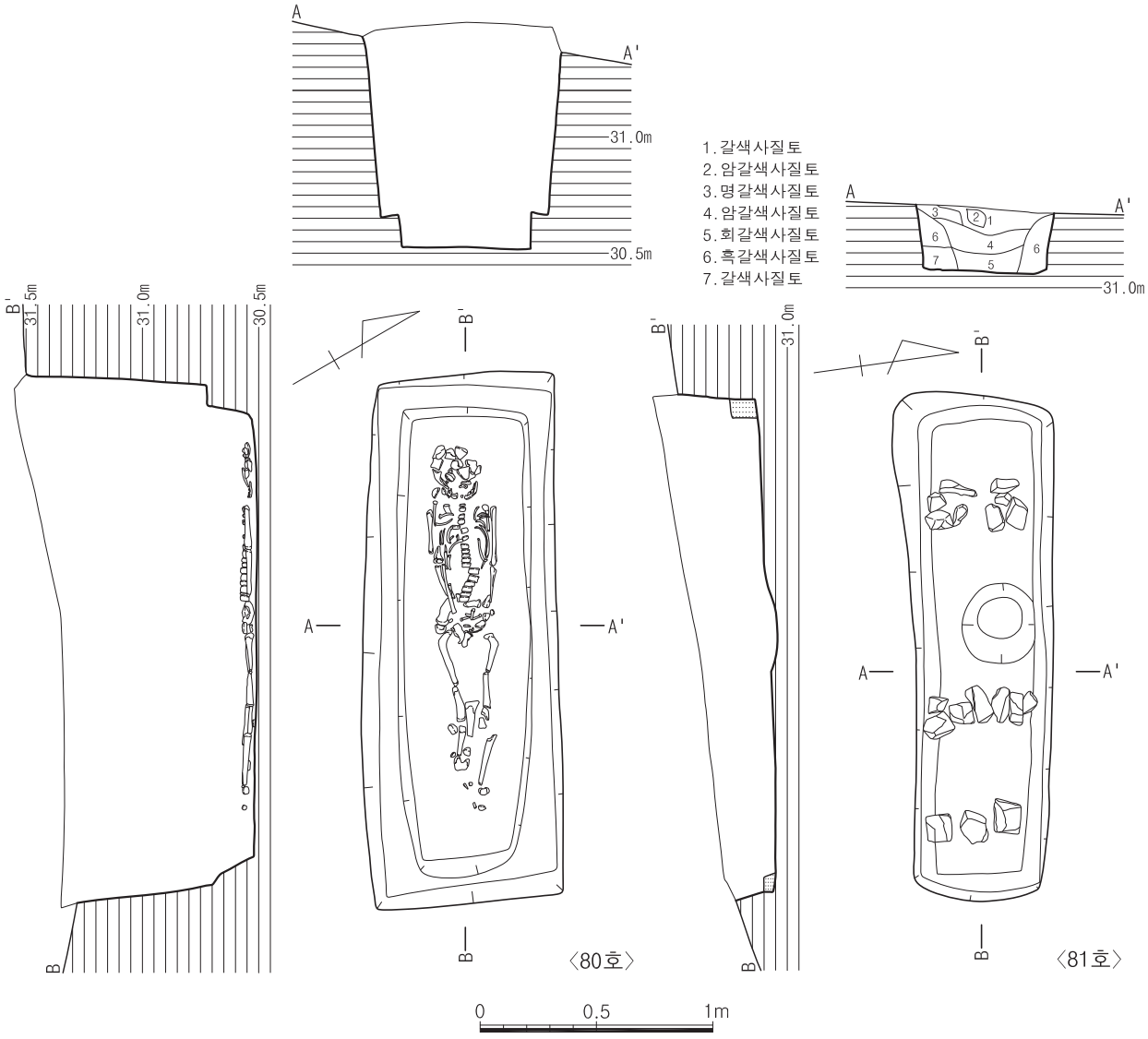
도면 54. 2지점 가구역 조선 76·77·78·7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 : 78호)

묘광 규모는 173×65×26㎝(2.66:1)로 토광직장묘이다. 내부시설로 주혈 1개와 소주혈 3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은 중심선에서 동단벽쪽 무릎부분에 15×5㎝크기로 얕게 조성되었고 소주혈은 발치에 역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용도는 알 수 없다.

80) 8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5, 사진 101)

80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81호 토광묘, 서쪽 12.4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회곽묘, 남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도면 55. 2지점 가구역 조선 80·81호 토광묘 유구

31.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9×84×96㎝(2.73:1), 내광은 굴광선에서 75㎝정도 내려와 안쪽으로 10㎝정도 단이 져 있고, 규모는 202×57×18㎝(3.54:1)로 토광직장묘(이단굴광)이다.

인골은 흑회색을 띠며 윗머리뼈만 파손되었을 뿐 나머지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81) 8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5, 사진 102)

81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의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80호 토광묘, 남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남서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4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갈색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6·7층은 충전토이다.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약간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8×59×33㎝(3.69:1), 목관 규모는 195×40㎝(4.88:1)로 토광목관묘(충전토)이다. 내부시설로는 요갱과 관 정치용 돌띠 3열이 확인되었다. 요갱(34×30×3㎝)은 중심선에서 북장벽에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관 정치용 돌띠는 3열로 머리-허리 아래-발치로 구분되며 방형·장방형의 소형 판석을 이용하여 머리쪽은 8매, 허리 아래는 7매, 발치는 3매를 이용하여 열을 지어 가로로 배치하였다.

82) 8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6, 사진 103)

82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부에서 동쪽에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동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 남동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6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약간 함몰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9×34×9㎝(4.09:1)로 토광직장묘이다.

유물은 머리쪽 남장벽에 접하여 자기초벌구이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자기 초벌구이편(도면 56-1, 사진 103-⑤)

초벌구이편으로 기형은 청자 기형으로 보이나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아 판단하기는 힘들다. 전체 기형의

1/2 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내경하며 기벽은 굽에서 경사가 급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내만한다. 내저에 굽경보다 좁은 원각이 돌려져 있다. 접지면의 폭이 다소 넓은 편이며 굽안쪽은 깊고 중앙부분은 오목하게 다듬었다. 고 7.0㎝, 복원구경 17.6㎝, 저경 6.3㎝

83) 8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6, 사진 104)

83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부에서 동북쪽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8.8m지점에 조선시대 84호 토광묘, 남쪽 30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3·4·5·7·9층은 충전토이다.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약간 함몰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6×69×38㎝(3.28:1), 목관은 194×50㎝(3.88:1)로 토광목관묘(충전토)이다. 내부시설은 중심선 중앙에 17×19×11㎝크기의 요갱이 있으며 발치 남장벽에 잇대어 소혈 1개가 있다. 소혈의 용도는 알 수 없다.

84) 8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6, 사진 104)

84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부에서 동북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8.8m지점에 조선시대 83호 토광묘, 북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8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73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흑갈색 점토-암갈색 점질토-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북장벽 쪽으로 치우쳐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97×28×33㎝(3.46:1)로 토광직장묘이다. 내부시설은 중심선 중앙에서 약간 내려와 남장벽에 잇대어 용도를 알 수 없는 수혈(19×16×5㎝) 1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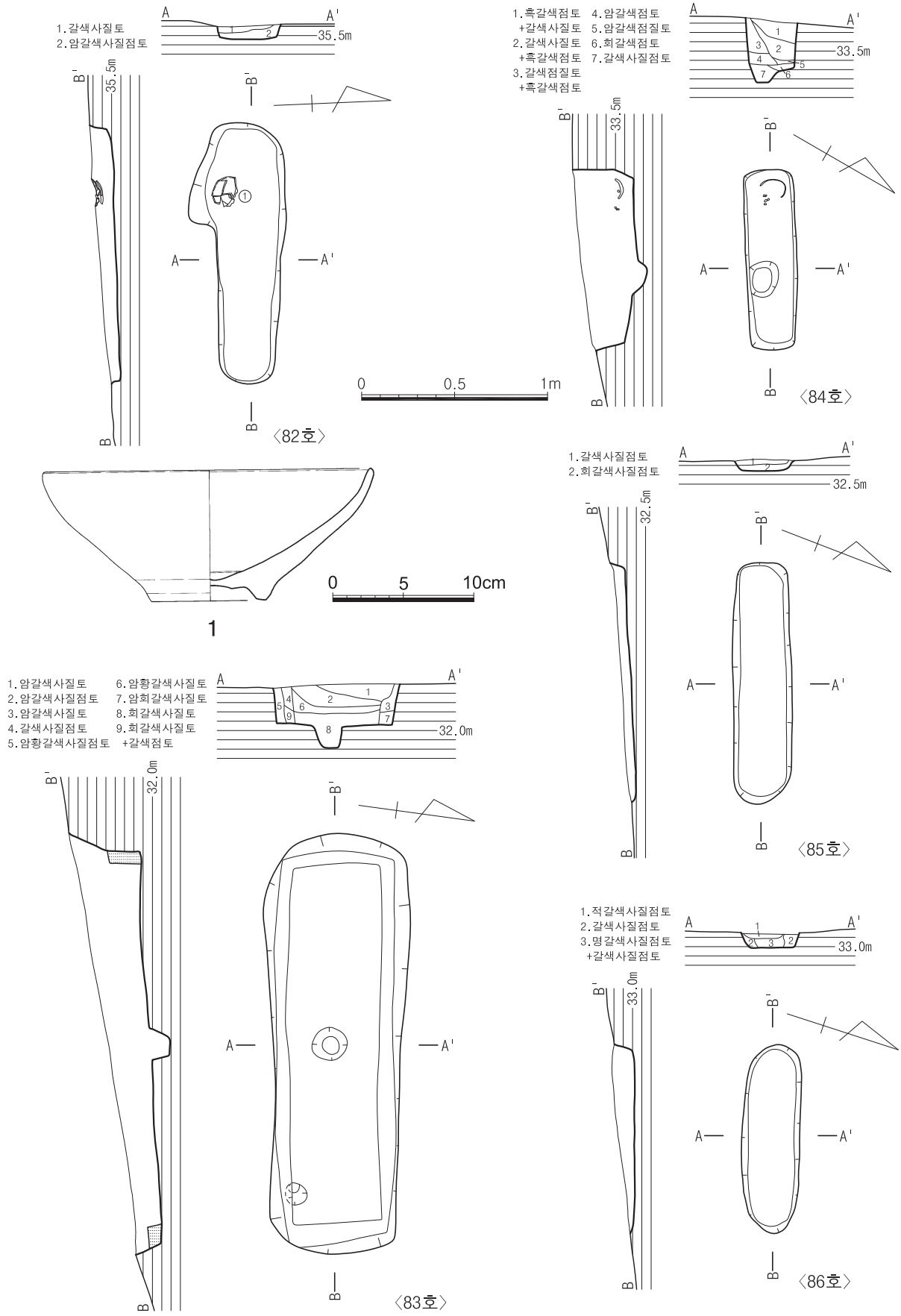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윗머리뼈 일부만 남아있다.

85) 8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6, 사진 105)

85호 토광묘는 남쪽 정상부에서 북쪽 능선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84호 토광묘, 서쪽 18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북서쪽 16.8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69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수평을 이루며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9°-E로 등



도면 56. 2지점 가구역 조선 82·83·84·85·8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82호)

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0×32×8㎝(4.06:1)로 토광직장묘이다.

86) 8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56, 사진 105)

86호 토광묘는 말안장 형태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남서쪽 9.6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남동쪽 12.4m지점에 조선시대 8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1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1×31×10㎝(3.26:1)로 토광직장묘이다.

4. 회곽묘

회곽묘는 모두 6기가 확인되었다. 묘역을 달리하여 조성되어 있지 않고 주로 土壙墓群과 같이 조성되었다. 3호는 조선시대 토광묘의 한 벽을 파괴시키고 조성되었다. 축조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한 후 사방을 10~15㎝ 두께의 회벽을 발라 만들었다. 회벽 위에 회덮개를 설치한 것은 1호·3호·6호이며, 특히 3호는 회덮개와 회벽 사이에 횡대 5매를 걸쳤다. 인골은 모두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1) 1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7, 사진 106)

1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45호 토광묘를 파괴하고 시설하였다. 남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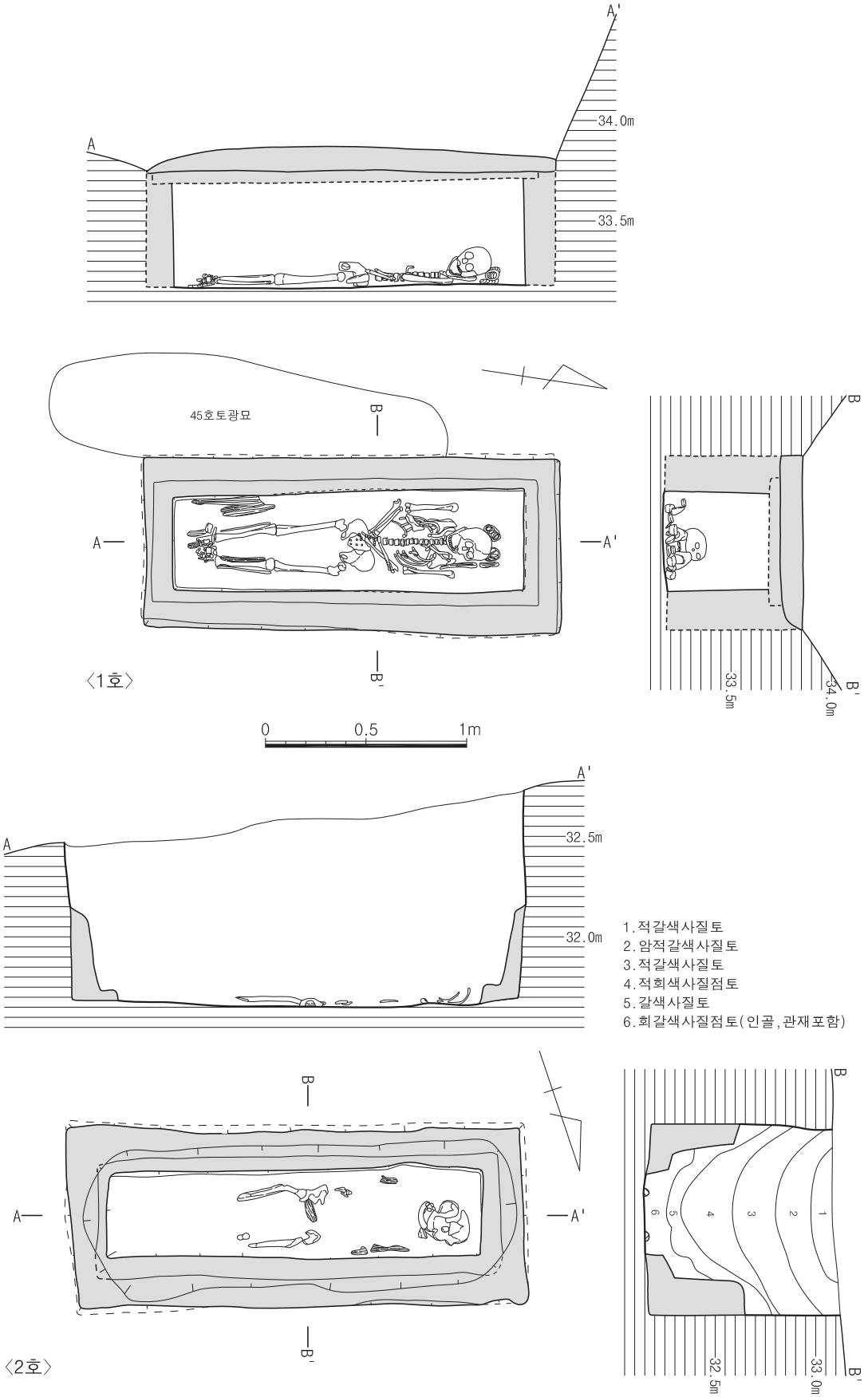
묘광은 규모 205×86×63㎝(2.38: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70㎝ 사선으로 내려가 두께 10㎝정도의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192×63×56㎝(3.05:1)로 바닥을 제외한 4벽을 바닥까지 55㎝ 하강하여 두께 10~15㎝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규모 174×50×53㎝(3.48:1)로 회곽 내에 낄 정도로 안치하였다.

인골은 회흑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2) 2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7, 사진 106)

2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74호 토광묘, 남쪽



도면 57. 2지점 가구역 조선1·2호 회곽묘 유구

2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 서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6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77m이다.

층위는 회뚜껑 설치 시 암반풍화토와 섞어 얕게 설치하여 토압에 의해 'U'자형으로 함몰되었다. 적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적회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14×69×103㎝(2.56: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1°-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60㎝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192×63×56㎝(3.1:1)로 바닥을 제외한 4벽을 바닥까지 45㎝ 하강하여 두께 20㎝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으나 부식으로 인하여 잔존 두께는 5~20㎝이다. 목관은 규모 186×45×10㎝(4.13:1)로 안치하였다.

인골은 흑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머리뼈, 아래턱, 윗팔뼈, 앞팔뼈, 골반뼈, 허벅지뼈 등이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온전한 형태는 없을만큼 불량하다.

3) 3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8, 사진 107)

3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 남동쪽 8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회곽묘, 북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55m이다.

층위는 회뚜껑 설치 시 암반풍화토와 섞어 얕게 설치하여 토압에 의해 'U'자형으로 함몰되었다. 적갈색 점질사토-회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02×79×109㎝(2.56: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2°-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50㎝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182×52×58㎝(3.5:1)로 바닥을 제외한 4벽을 바닥까지 60㎝ 하강하여 두께 10~20㎝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으나 내벽은 일부 부식되어 있다. 목관은 잔존흔이 없어 추정하기 어려우나 내광의 크기를 감안하면 유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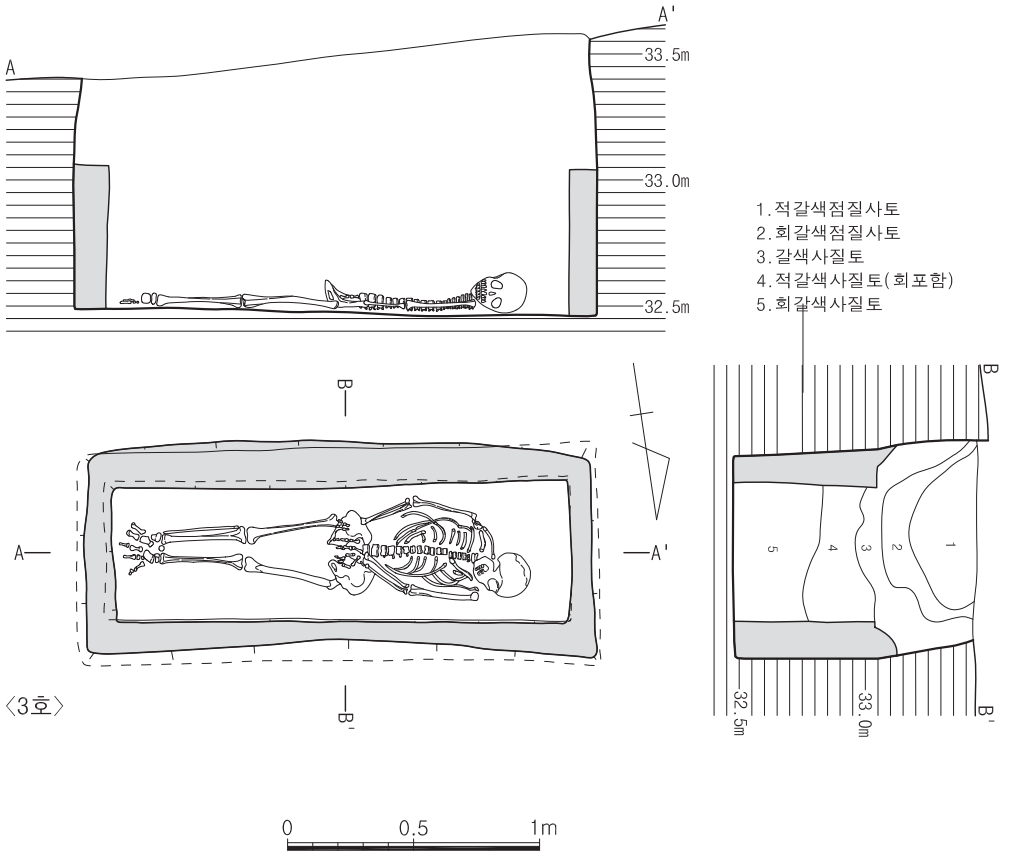
인골은 회흑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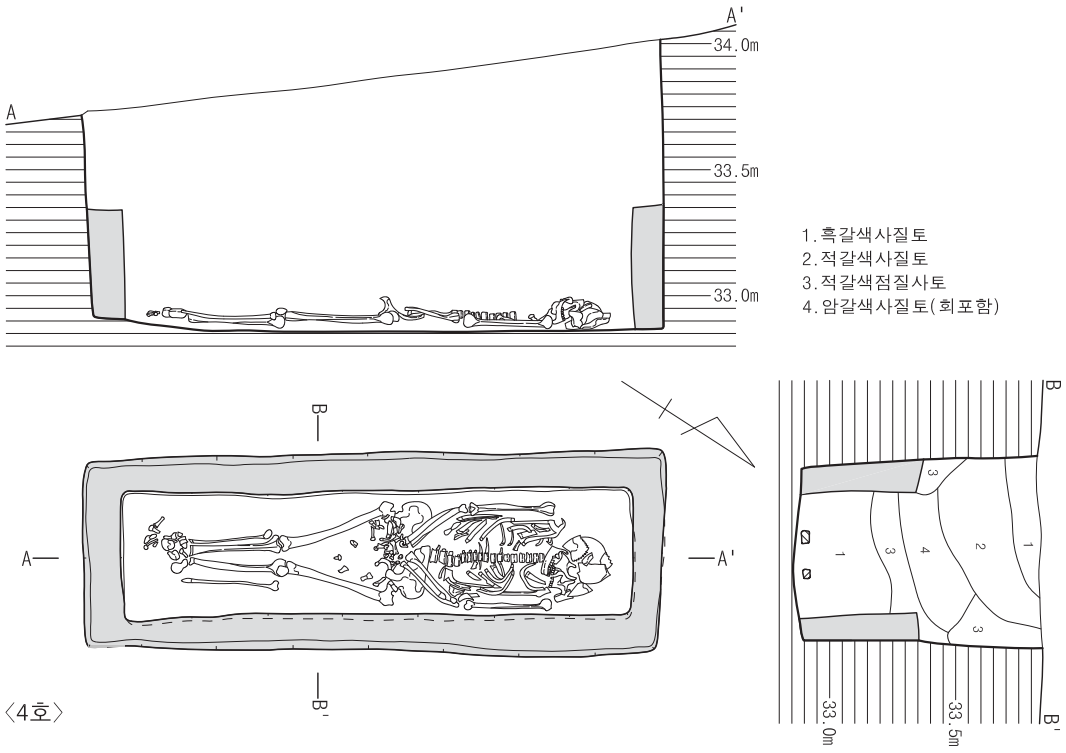
4) 4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8, 사진 107)

4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 남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06m이다.

층위는 회뚜껑 설치 시 암반풍화토와 섞어 얕게 설치하여 토압에 의해 'U'자형으로 함몰되었다. 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29×77×114㎝(2.97: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67㎝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202×59×48㎝(3.42:1)로 바닥을 제외한 4벽을 바닥까지 50㎝ 하강하여 두께 15~20㎝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잔존흔이 없어 추정하기 어려우나 내광의 크기를 감안하면 유추가 가능하다.





도면 58. 2지점 가구역 조선 3·4호 회곽묘 유구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5) 5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9, 사진 108)

5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북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 남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6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9m이다.

층위는 회뚜껑 설치 시 암반풍화토와 섞어 얕게 설치하여 토압에 의해 'U'자형으로 함몰되었다. 회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회백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회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35×78×102㎝(3.01: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3°-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37㎝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203×69×63㎝(2.94:1)로 바닥을 제외한 네 벽을 바닥까지 65㎝ 하강하여 두께 15~20㎝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규모 203×44×54㎝(4.23:1)로 안치하였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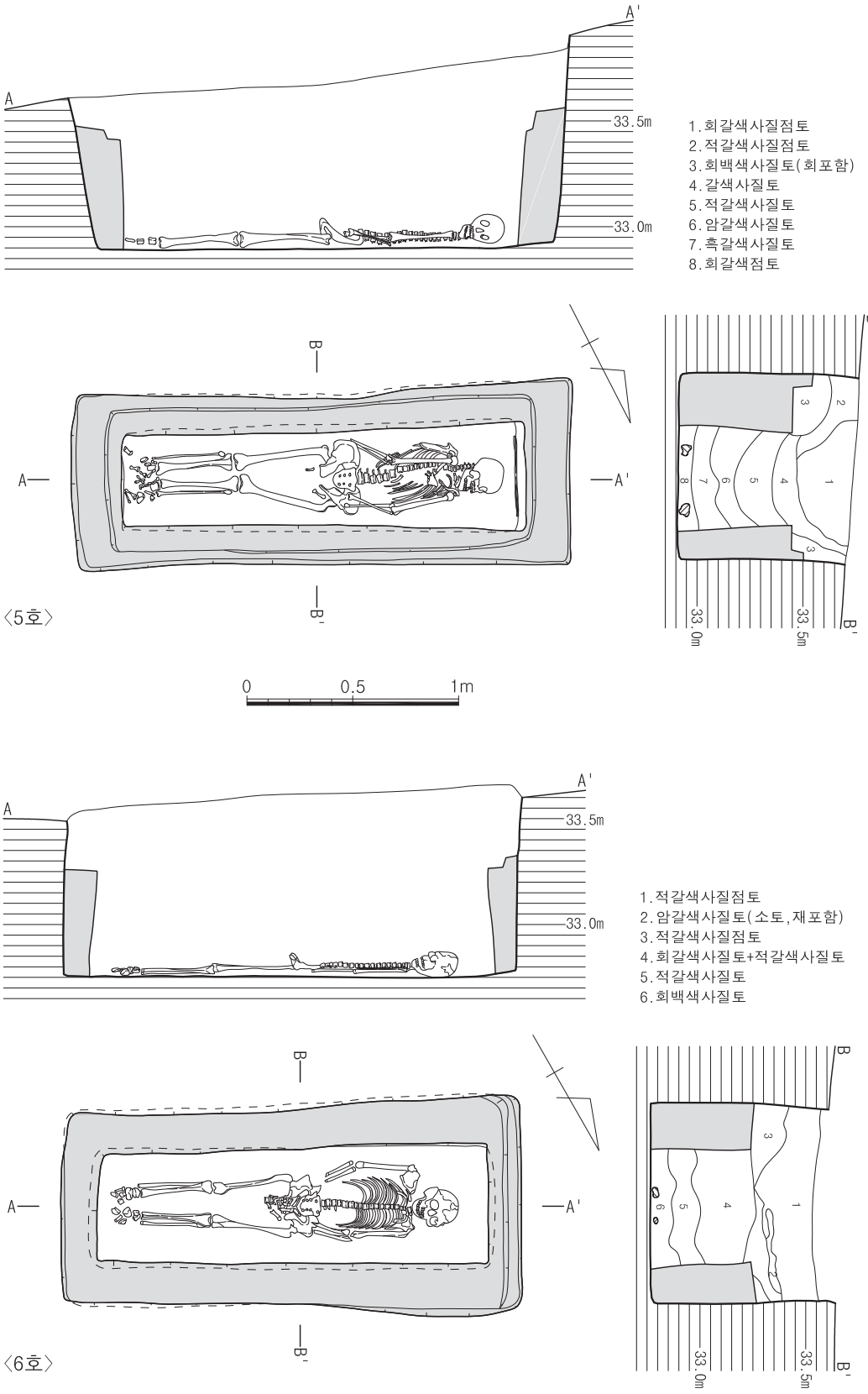
6) 6호 회곽묘

(1) 유구(도면 59, 사진 108)

6호 회곽묘는 남쪽 정상부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6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 서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 북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7m이다.

층위는 회뚜껑 설치 시 암반풍화토와 섞어 얕게 설치하여 토압에 의해 'U'자형에 가깝게 함몰되었다. 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회백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18×93×83㎝(2.34: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0°-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40㎝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185×55×50㎝(3.36:1)로 바닥을 제외한 네 벽을 바닥까지 50㎝ 하강하여 두께 15~20㎝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잔존흔이 없어 추정하기 어려우나 내광의 크기를 감안하면 유추가 가능하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도면 59. 2지점 가구역 조선 5·6호 회곽묘 유구

D. 지표수습유물

① 몸돌(도면 60-1, 사진 109-①)

돌감은 입자가 크고 결이 거친 규암이다. 형태는 앞면과 뒷면의 아래쪽이 서로 만나는 오면체의 형태로, 자연면은 윗면에만 남아있고 나머지 네 면을 모두 격지떼기면으로 활용하였다. 이른 단계에서는 비교적 큰 격지를 떼어냈고, 이후 작은 격지들을 떼어냈다. 격지떼기 방향은 세로로 맞선방향떼기가 우세하나, 가로방향으로도 격지떼기를 시도하였다. 길이 9.8㎝, 너비 9.9㎝, 두께 10.6㎝, 무게 1,345g

② 몸돌(도면 60-2, 사진 109-③)

돌감은 규암으로 소형의 자갈돌을 이용하였다. 두 면을 때림면으로 사용하였는데, 모두 평평한 자연면을 이용하였다. 남아있는 격지떼기면의 상태로 보아 3개 이상의 작은 격지를 떼어낸 것으로 보이며, 소형의 단순 몸돌로 볼 수 있다. 길이 4.4㎝, 너비 5.9㎝, 두께 3.3㎝, 무게 101g

③ 몸돌(도면 60-3, 사진 109-②)

규암 자갈돌을 이용한 몸돌로 여러 방향에 걸쳐 격지떼기가 진행되었다. 주된 때림면(윗면)은 평평한 자연면을 이용하였다. 윗면과 아랫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격지떼기면으로 활용되었다. 격지떼기가 진행된 양상을 보아 여러면석기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길이 7.0㎝, 너비 9.3㎝, 두께 8.4㎝, 무게 595g

④ 긁개(도면 61-1, 사진 110-①)

돌감은 규암으로 등면과 굽에 돌결면이 남아있다. 몸체는 굽에서 위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격지로, 등면에는 같은 방향으로 2번 이상 격지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남아있다. 잔손질이 배면에서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인데,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 잔손질을 베풀어 집중날긁개를 만들었다. 길이 5.1㎝, 너비 6.3㎝, 두께 2.3㎝, 무게 60g

⑤ 긁개(도면 61-2, 사진 11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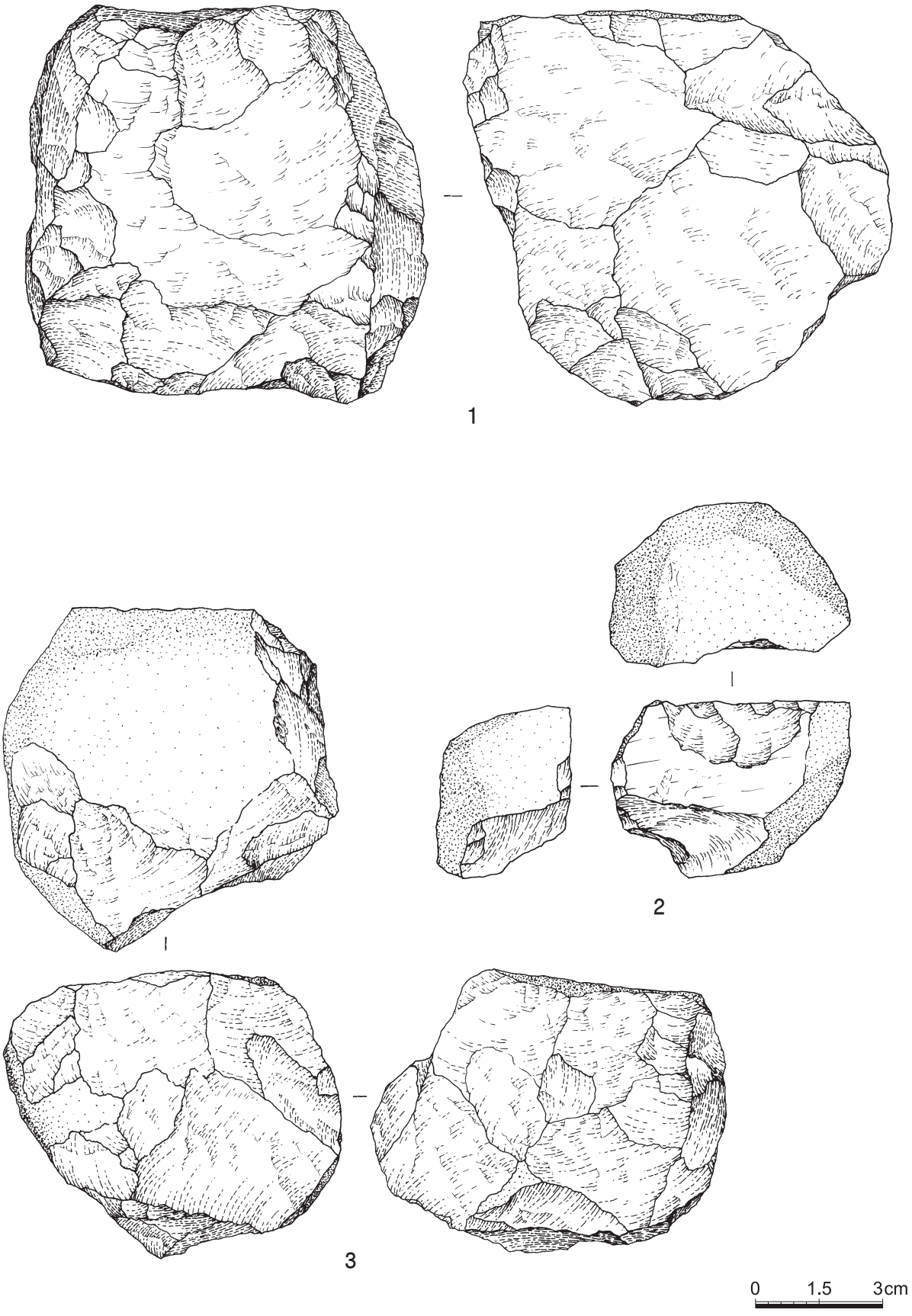
돌감은 비교적 질이 좋은 반암으로, 등면에 남아있는 자연면의 형태로 보아 자갈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몸체는 비교적 얇은 격지를 이용했다. 등면의 오른쪽 가장자리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잔손질을 베풀어 둥근날의 세로날긁개를 만들었다. 길이 7.6㎝, 너비 6.4㎝, 두께 1.8㎝, 무게 68g

⑥ 여러면석기(도면 61-3, 사진 11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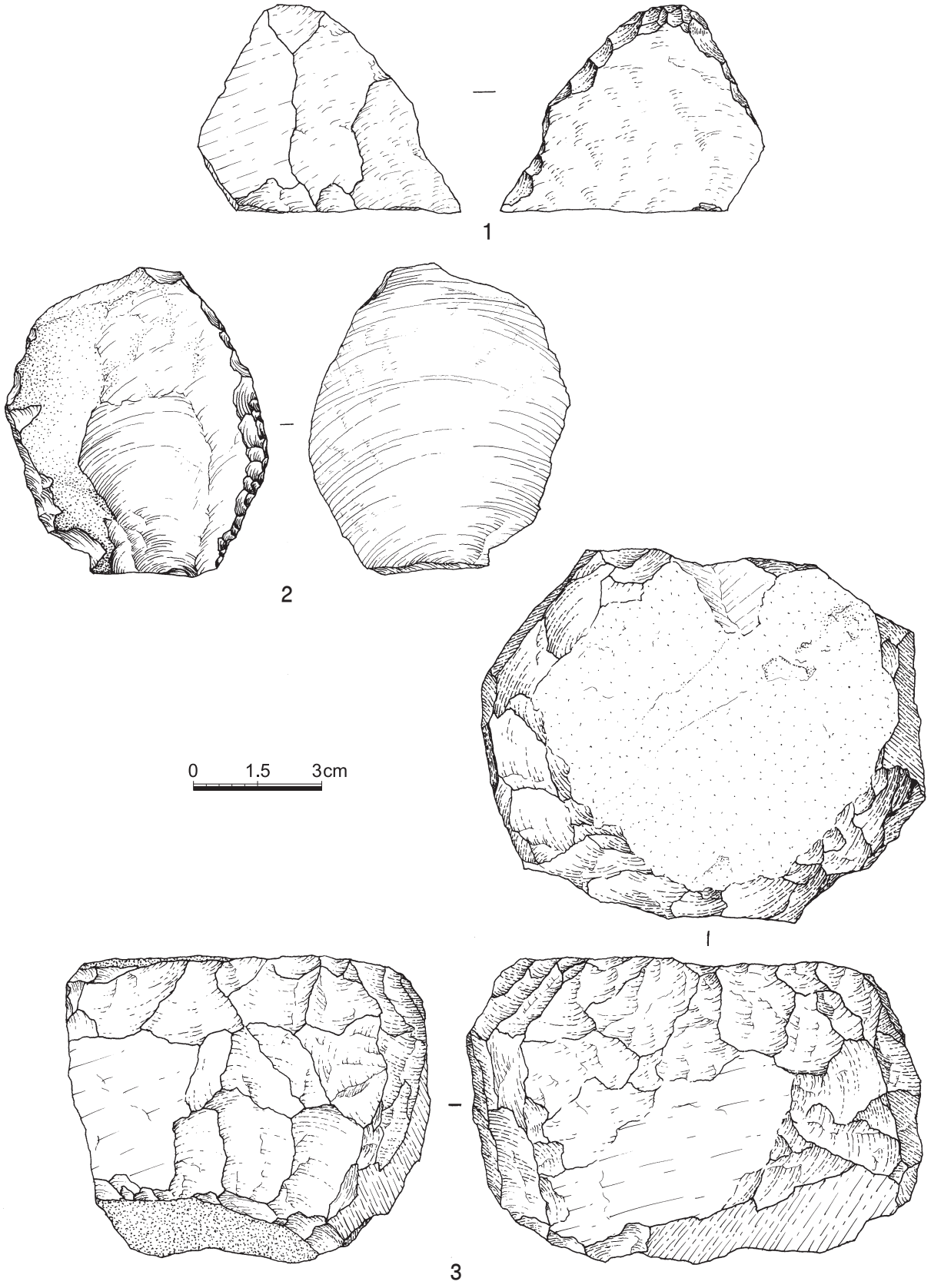
돌감은 비교적 결이 많은 규암 자갈돌을 이용하였다. 주된 격지떼기 방향은 세로로 맞선 방향이다. 윗면과 아랫면에 가까워질수록 격지를 뗀 각도가 둔각에 가까워지고 격지의 크기도 작아지는데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북 모양을 이루었다. 완전한 구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몸돌로써의 기능보다는 의도적인 떼기양상을 보아 여러면석기로 볼 수 있다. 길이 7.4㎝, 너비 11.2㎝, 두께 9.0㎝, 무게 1,115g

⑦~⑮ 석기류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⑦	62-3	111-①	석검편	3.3	3.2	1.3	23	병부 말단부만 남음, 단면은 菱形
⑧	62-1	111-⑥	석부	13.9	5.2	4.2	535	합인석부, 암청회색 띰, 평면형태 세장방형
⑨	62-6	111-④	편인석부	3.6	3.3	0.8	16	인부만 남음, 암청회색을 띠는 편암제, 全面이 치밀하게 마연됨



도면 60.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도면 61.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⑩	62-9	111-③	석도편	3.0	3.8	0.7	11	인부 일부가 남음, 암청회색을 띠는 편암제, 全面이 마연됨
⑪	62-7	111-②	석도편	3.0	4.0	0.5	8	한쪽 끝부분이 남음, 암청회색을 띠는 편암제, 全面이 마연됨
⑫	62-2	111-⑨	고석	7.6	7.1	4.1	387	평면형태 원형, 단면형태 장타원형, 편마암제, 前面에 고타흔이 있음
⑬	62-4	111-⑧	미완성 석기	8.9	4.3	1.5	119	일부 결실되어 확실치는 않으나 미완성 상태의 편인석부로 추정됨, 평면형태 장방형,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암질은 안산암제
⑭	62-8	111-⑤	불명석기	4.0	4.2	1.7	41	일부가 남아있음, 암녹색을 띠는 안산암제, 全面이 마연됨
⑮	62-5	111-⑦	불명석기	14.1	5.2	3.8	410	평면형태 장타원형으로 네 측면이 둥글게 갈려 있음, 편암제

⑯ 무문토기 발(도면 63-1, 사진 112-①)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1/3 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립과 장석립, 운모립이 섞였으나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5/6)인데 외면 일부와 바닥면은 흑갈색을 띤다. 저부의 굽은 높이가 다소 높은 편이며 저부 접합부외면으로 지두흔이 뚜렷하게 나 있다. 구연부내면에는 도구 정면흔이 있다. 바닥면에는 나뭇잎흔이 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고 7.5㎝, 복원구경 14.7㎝, 저경 6.4㎝

⑰ 대부완저부(도면 63-2, 사진 112-②)

대부완으로 추정되며 저부와 동체하단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회올리브색(5Y5/3)을 띤다. 八자상으로 벌어지는 대각은 낮은 편이다. 기면이 약하게 마모되었다. 현고 4.3㎝, 저경 6.8㎝

⑱ 청자대접(도면 63-3, 사진 112-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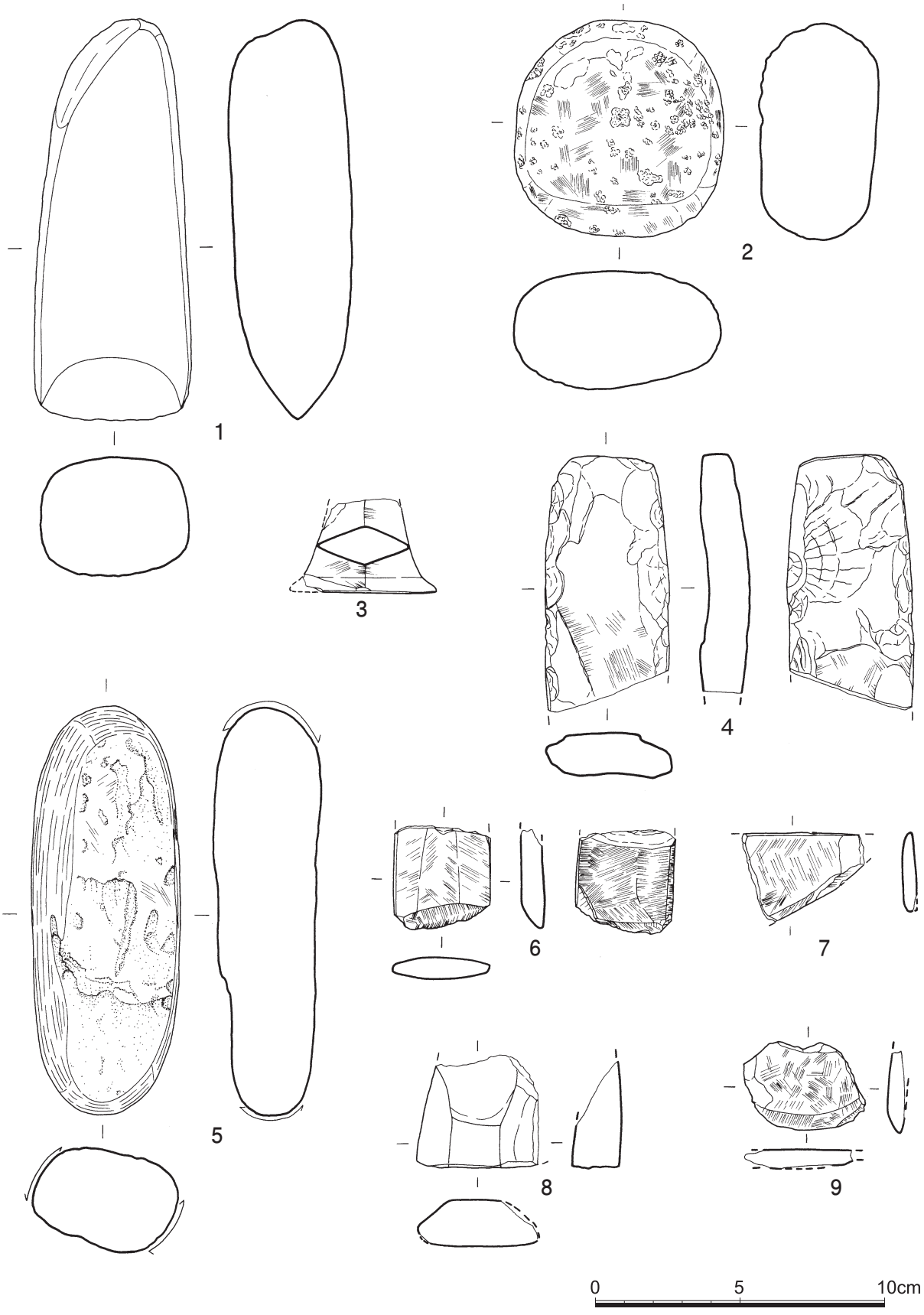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구경이 넓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이다. 안바닥 가장자리에 깊은 원각이 있으며 내면 구연아래에는 2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상감하였다. 굽은 안굽인데 굽안쪽을 다소 깊고 반듯하게 깎아냈다. 유는 회녹색으로 투명하며 광택이 좋으나 잔빙렬이 나 있다.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가 섞인 내화토를 받쳤다. 고 6.0㎝, 구경 18.6㎝, 저경 4.9㎝

⑲ 분청사기접시(도면 63-6, 사진 112-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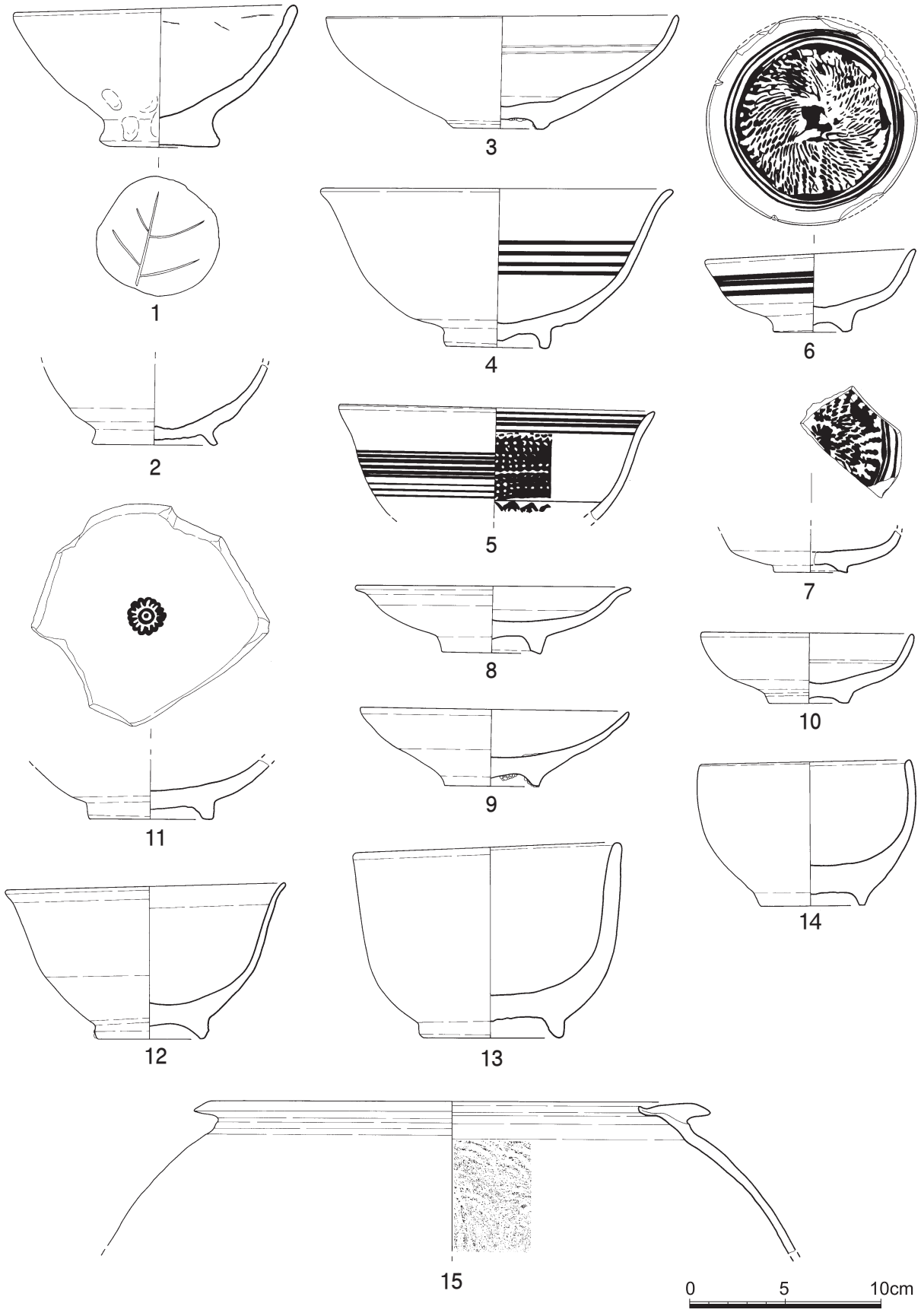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굽에서 넓게 벌어진 동체는 동중위에서 한번 꺾인 후 구연으로 이어진다. 굽은 직립하며, 굽안쪽은 둥글게 돌려깎아냈다. 안바닥은 점열문으로 가득 채웠으며 내벽과 외벽에는 여러 줄의 원권을 두르고 백상감하였다. 태토에는 기공과 잡티가 보이며, 유색은 회색조인데 산화되어 광택을 잃었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4.1㎝, 구경 10.9㎝, 저경 4.1㎝

⑳ 분청사기접시 저부(도면 63-7, 사진 112-⑤)

저부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굽은 낮은 편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에는 가운데에 국화문



도면 62.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도면 63. 2지점 가구역 지표수습유물

을 두고 그 주위로 점열문을 빼곡해 채웠으며, 내벽에는 원권을 둘렀다. 태토에는 잡티가 보이며 유색은 회녹색조로 광택이 있다. 현고 2.3㎝, 복원저경 3.9㎝

㉑ 분청사기발(도면 63-4, 사진 112-⑥)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부와 동체부가 1/3가량 결실되었다. 기벽은 저부에서 둥글게 벌어져 올라와 구연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굽은 죽절형식이며,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 가운데가 뾰족한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밀린 점토가 그대로 붙어 있다. 내벽에는 4조의 원권을 두른 후 백상감하였다. 태토에는 잡티와 기공이 보이며, 유색은 회녹색조인데 발색과 광택은 좋은 편이나 기면에 잡티와 철반이 많아 다소 지저분하다. 안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쳤다. 고 8.4㎝, 구경 18.4㎝, 저경 5.5㎝

㉒ 분청사기대접 구연부편(도면 63-5, 사진 112-⑧)

구연부의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이다. 내벽에는 하단에 연판문의 일부가 보이고 그 위로 승렴문을 인화하였으며 구연아래와 외벽에는 여러조의 원권을 둘렀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며, 유는 회녹색으로 광택은 적다. 현고 5.8㎝, 복원구경 16.8㎝

㉓ 분청사기 저부(도면 63-11, 사진 112-⑦)

발로 추정되며 저부만 남아있다. 굽안바닥에는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로 문지른 자국이 있으며, 안바닥 중앙에는 국화문을 인화하였다. 태토에는 잡티와 사립이 조금 보이며 유색은 갈회색조인데 얇게 시유되어 광택이 적은 편이다. 안바닥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현고 3.2㎝, 저경 6.6㎝

㉔ 백자접시(도면 63-10, 사진 113-①)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굽은 죽절형식이며, 굽안쪽은 얕고 평평하게 깎아냈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지름 약 9.0㎝가량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담청색조로 광택이 적은 편이며 외벽에는 유약이 흘러내려 뭉쳐있다. 고 3.7㎝, 구경 11.0㎝, 저경 4.3㎝

㉕ 백자접시(도면 63-8, 사진 113-②)

완형이다. 굽은 직립하며, 굽안쪽을 깊게 깎아냈다. 넓고 평평한 안바닥에는 지름 10.3㎝가량의 원각이 있다. 유색은 담청회색을 띠는데 시유상태와 발색, 광택이 모두 좋은 편이다. 안바닥과 접지면 각 4곳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3.5㎝, 구경 14.4㎝, 저경 5.3㎝

㉖ 백자접시(도면 63-9, 사진 113-③)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굽안쪽은 둥글고 깊게 깎아냈으며, 안바닥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루며 구연으로 이어진다. 외벽은 성형 후 잔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레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태토는 깨끗하고 치밀하며, 유색은 연회색을 띠는데 시유상태나 발색, 광택이 모두 뛰어나다. 접지면과 안바닥에는 흙물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 4.1㎝, 구경 14.1㎝, 저경 5.0㎝

㉗ 백자대접(도면 63-12, 사진 113-④)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부는 1/4가량이 남아있다. 굽외측은 죽절형으로 깎았으며 굽안쪽은 비교적 깊고 오목하게 깎아냈다. 안바닥은 둥근 곡면을 이룬다. 유색은 연한 회녹색조로 굽안쪽까지 시유하였는데 광택은 좋으나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기면에 기포가 많으며 빙렬이 있다. 접지면과 안바닥에는 흙물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 8.1㎝, 복원구경 14.6㎝, 저경 5.7㎝

㉘ 백자소발(도면 63-14, 사진 113-⑤)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부는 1/4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안굽이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는데 깎음새가 단정치 못하며 접지면의 폭도 고르지 않다. 기벽은 평평한 안바닥에서 둥근 곡면을 이루며 올라가 살짝 오무라든다. 태토는 치밀하고 깨끗한 편이며, 유색은 담청색으로 굽안쪽까지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굽안팎으로는 소성시의 온도가 낮아 적갈색을 띤다. 또한 용융상태도 다소 불량해 굽 주위로 기포가 많으며 기면에 빙렬도 보인다. 접지면에만 흙물을 묻힌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 7.6㎝, 복원구경 10.9㎝, 저경 5.5㎝

㉙ 백자발(도면 63-13, 사진 113-⑥)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다. 바닥과 기벽이 두꺼워 무게감이 있다. 기벽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에서 직립하듯 올라가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이다. 유색은 담록색조로 굽안쪽까지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굽주위로 기포가 보이며 유약이 뭉쳐있다. 기면에 빙렬이 가득하다. 고 10.1㎝, 구경 14.0㎝, 저경 7.7㎝

㉚ 도기 구연부편(도면 63-15, 사진 113-⑦)

대옹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2.5Y3/1)이며,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2.5Y4/1)을 띤다. 구연부는 넓게 밖으로 꺾어접어 윗면이 평평한 전을 이루며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고 7.8㎝, 복원구경 25.8㎝

다. 2지점 나구역(도면 9, 사진 114)

2지점 나구역은 구릉이 동에서 서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경계로 북측 구릉은 중단부에만 토광묘와 고려시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남측 구릉은 중단부에 산발적으로 조선시대 주거지와 토광묘가 분포하여 하단부에는 통일신라시대 유구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수혈유구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25m 간격을 두고 완만한 남서사면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및 굴립주 건물지, 수혈유구는 해발 30~33m상의 서사면 하단부에 국한하여 밀집 분포하고 있다. 고려시대 주거지는 북쪽 능선 남사면에 국한하여 열을 지어 위치하며, 조선시대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서사면에 중복 없이 조성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는 고려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주거지 사이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A. 청동기시대

1. 수혈

1) 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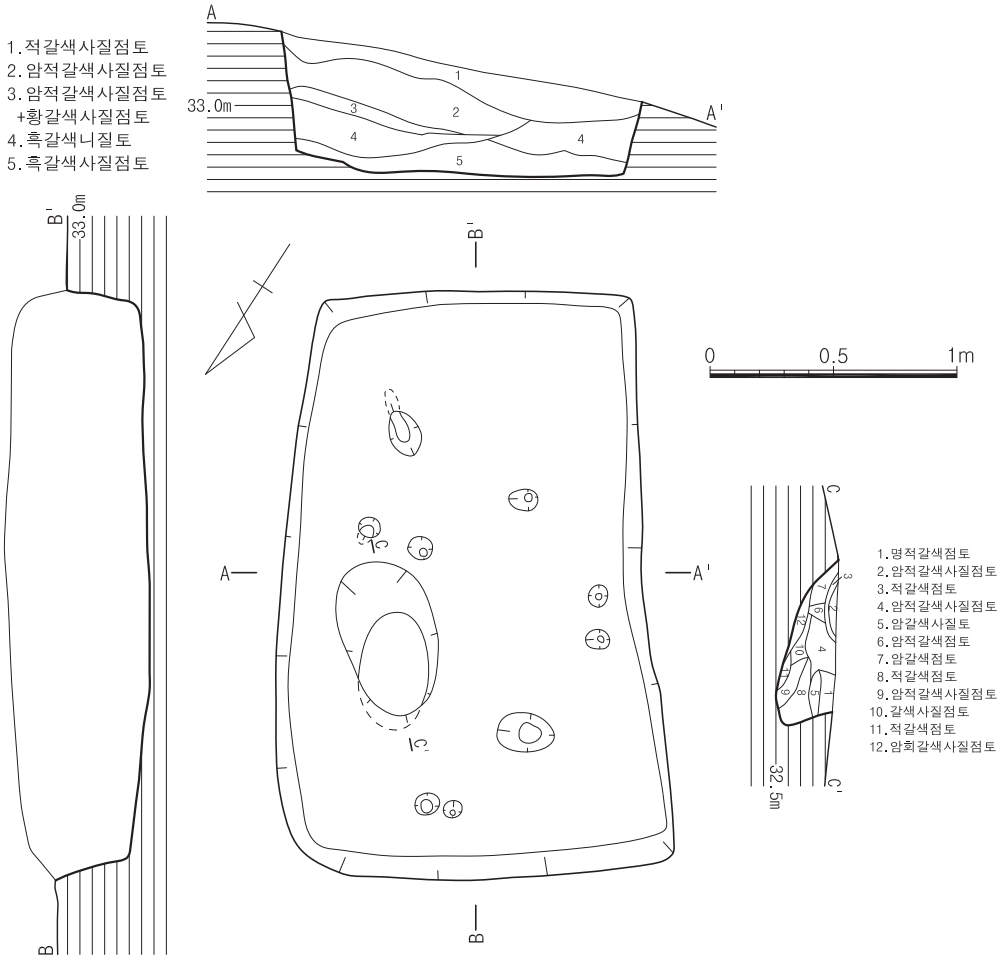
(1) 유구(도면 64, 사진 115)

수혈유구는 남쪽 능선 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1.7m지점에 통일신라 4호 굴립주 건물지, 북서쪽 5.8m지점에 통일신라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3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상부 일부가 삭평되었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수평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부분적으로 1㎝ 내외의 점토를 깔은 흔적이 있으나 그 외의 특별한 바닥시설 없이 굴광된 암반풍화토면을 바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을 고르기 위해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238×145×30㎝로 장단비는 1.64: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타원형 수혈 1개와 소주공 9개가 확인되었는데, 타원형 수혈은 주거지 중앙에서 북장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63×38×20㎝로 시설하였다. 내부 토층은 적갈색 점토-암적갈색 사질점토가 교차로 퇴적되어 있으며 점토질이 우세한 것으로 보아 물을 사용한 작업공일 가능성이 높다. 소주공은 타원형 수혈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반원형을 이루며 분포되어 있으며 2개씩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유물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무문토기 동체부편과 저부편이 확인되었으나 바닥층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상부 유입토에서 확인되어 주거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면 64. 2지점 나구역 청동기 1호 수혈 유구

B. 초기철기시대

1. 토광묘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65, 사진 116·117)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북동쪽 2.2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 남동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5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11층 암적갈색 점토는 목재가 부식되어 남은 관흔으로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상부는 남아있지 않았다. 10층 명갈색 사질점토층은 'U' 자상으로 퇴적되었으며 그 위의 층은 급격히 함몰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적갈색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

며, 묘광 규모는 241×80×14㎝(3.01:1), 목관의 규모는 목관흔을 기준으로 172×51㎝(3.37:1)이며 높이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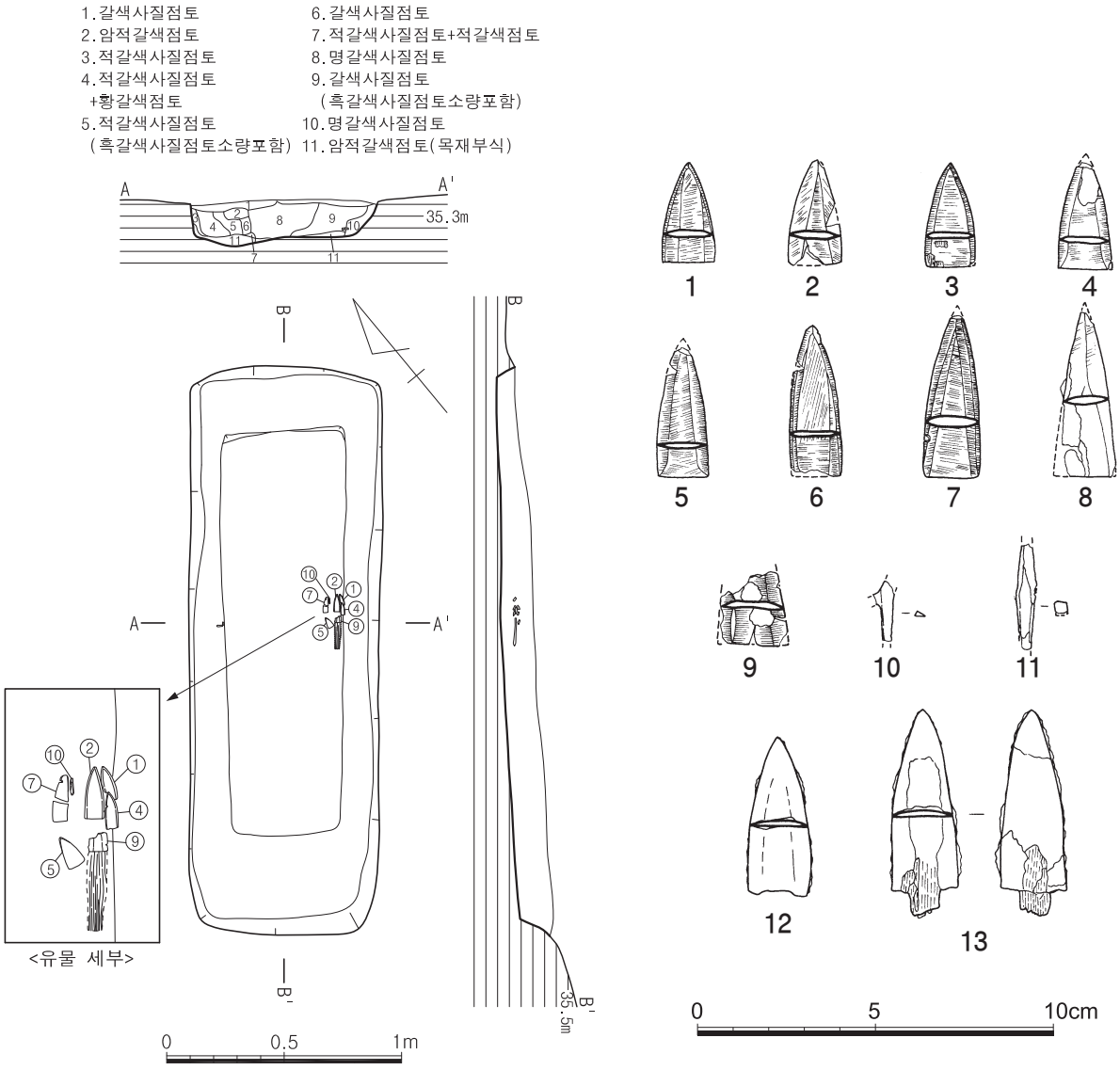
유물은 중심선에서 허리부분 동쪽 관선 내에서 확인되어 관내 피장자 옆에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양상은 석촉 8점, 동촉 2점, 동제품 1점, 철촉 2점 등 총 13점이, 화살촉은 화살대에 부착된 상태로 석촉-동촉-철촉 순으로 뭉쳐서 출토되었다. 철촉에는 목질이 붙은 채로 출토되어 나무 화살대를 부착했음을 알 수 있다.

(2) 유물

①~⑬ 화살촉류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최대폭	두께	무게	
①	65-1	117-④	석촉	2.8	1.5	0.2	1	삼각형 석촉으로 완형임, 암질은 이암제로 암자회색을 띰, 날부분은 폭이 상당히 좁으며 횡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②	65-2	117-⑤	석촉	3.0	1.5	0.2	1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일부가 결실됨, 암질은 이암제로 암자회색을 띰, 날부분은 사방향, 가운데부분은 횡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③	65-3	117-⑥	석촉	3.0	1.4	0.2	1	삼각형 석촉으로 완형임, 암질은 이암제, 날부분은 폭이 상당히 좁으며 횡방향으로 마연함, 촉신 하단부 일부에 목질흔, 단면은 평평육각형
④	65-4	117-⑦	석촉	(3.0)	1.5	0.2	1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선단부가 결실, 암질은 암자회색을 띠는 이암제, 횡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⑤	65-5	117-⑧	석촉	(3.6)	1.4	0.2	1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선단부가 결실, 암질은 암자회색을 띠는 이암제, 한쪽 날부분의 상단에 홈을 냄,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⑥	65-6	117-⑨	석촉	4.2	1.4	0.15	2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말단부 일부가 결실, 암질은 암청색을 띠는 편암제, 한쪽 날부분의 상단에 홈을 냄, 날부분은 횡방향으로, 가운데부분은 사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⑦	65-7	117-⑮	석촉	4.6	0.3	0.3	3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선단부가 결실됨, 암질은 암청색을 띠는 편암제, 한쪽 날부분의 하단에 홈을 냄,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함, 단면은 평평육각형
⑧	65-8	117-⑯	석촉	(4.6)	1.7 (추정)	0.2	2	삼각형 석촉으로 촉신 일부가 결실, 암질은 암자회색을 띠는 이암제, 한쪽 날부분의 하단에 홈을 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실로 인해 알 수 없음, 단면은 평평육각형
⑨	65-9	117-⑩	동촉	(2.1)	(1.8)	0.2	3	삼각형 동촉으로 촉신 하단부가 남아있는데 부식됨, 날부분의 방향이 일정치 않음, 단면은 평평육각형의 형태이나 後面이 前面에 비해 움푹하게 들어감.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최대폭	두께	무게	
⑩	65-10	117-⑪	동제품	(1.7)	0.3	0.1	1	일부만 남아있어 형태를 알기는 어려움, 남아있는 부분의 단면은 삼각형
⑪	65-11	117-⑫	동촉	(3.0)	0.4	0.4	1	결실로 인해 용도를 알 수 없음,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단면은 오각형태를 보임
⑫	65-12	117-⑬	철촉	4.5	1.7	0.2	3	삼각형 철촉으로 완형, 부식이 심한 편, 단면은 평평육각형의 형태이나 後面이 前面에 비해 움푹하게 들어감
⑬	65-13	117-⑭	철촉	5.8 (자루포함)	1.8	0.2	6	삼각형의 철촉으로 완형, 부식되었으며 목재 자루가 장착된 상태로 출토됨



도면 65. 2지점 나구역 초기철기 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C. 통일신라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6, 사진 118·119)

남쪽 능선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m지점 선상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굴립주 건물지 5호·6호가 인접하여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동-서향에 가까우며 유구의 남쪽면은 삭평되어 유실되었다. 규모는 길이 605㎝, 잔존너비 477㎝, 깊이 80㎝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잔존형태 상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사선방향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벽면은 둔각을 이루며 밖으로 크게 벌어지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수평에 가까운 평탄면을 이루게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직경 10~15㎝정도의 소형 주공이 굴착되어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직경 20~30㎝정도로 보다 큰 규모의 주공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또한 주거지 동쪽 모서리 부분에는 소형 적심으로 추정되는 20×10㎝정도 크기의 소형석재를 원형으로 집석한 시설도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내부토와 바닥면에서 대부완, 병 구연부편, 갈색계 연질의 토기 저부편, 흑색경질의 토기 동체부편, 회색계 연질의 파수 등 토기류와 함께 지석, 석제용기, 철제품이 확인되었다.

(2) 유물

① 대부완(도면 67-1, 사진 120-①)

대각부분은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의 1/4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성이 다소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흑색(N 2/)이나 외면일부와 대각 안쪽은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 회흑색이다. 대각은 외반한다. 고 8.2㎝, 복원구경 19.1㎝, 저경 9.6㎝

② 경부편(도면 67-7, 사진 120-③)

흑색(7.5Y 2/1) 연질의 경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사립이 섞여있다. 내면은 기면이 박리되어 회올리브색을 띤다. 현길이 4.5㎝

③ 병 구연부편(도면 67-4, 사진 12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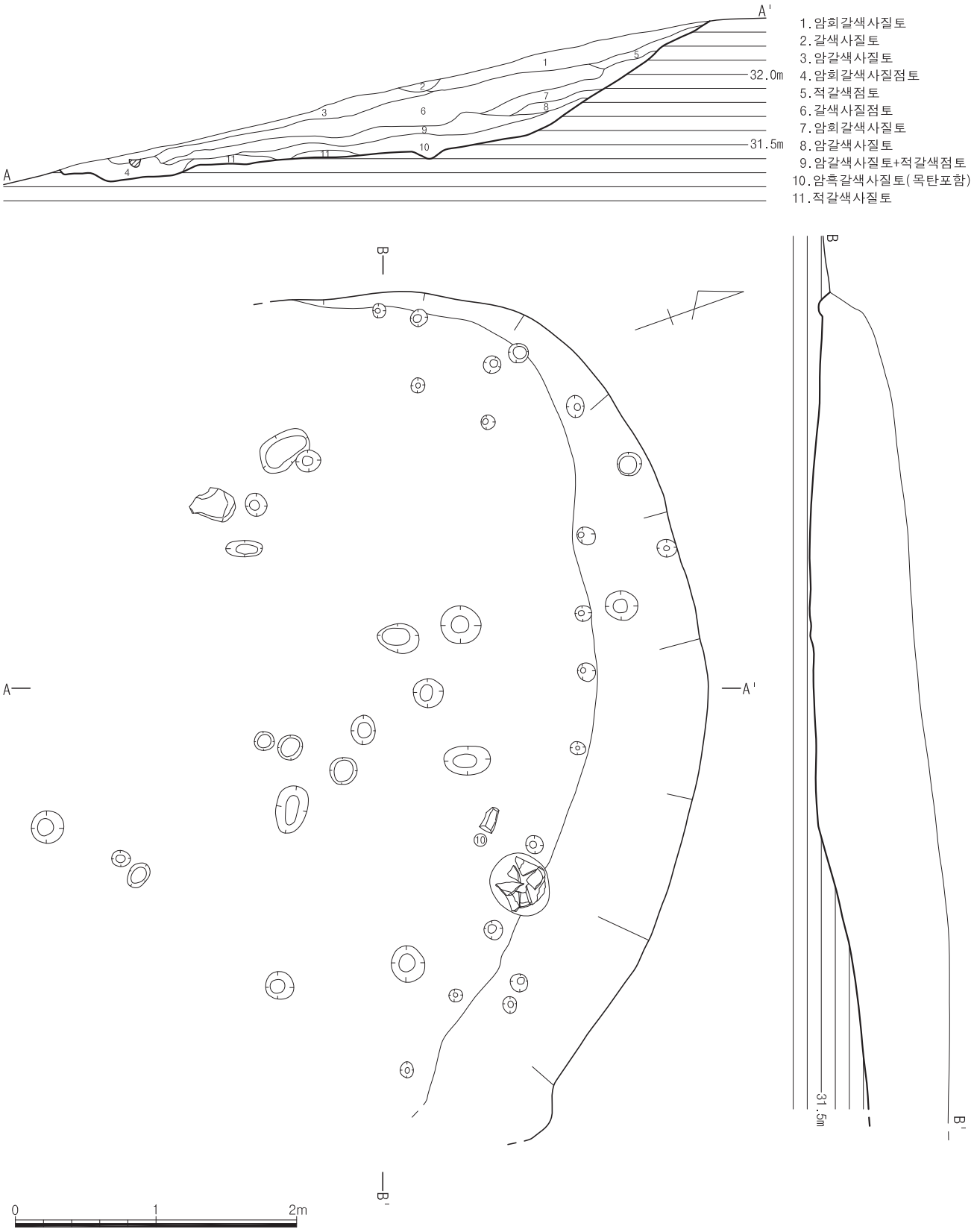
반구형 병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N 3/)을 띠며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현길이 2.7㎝

④ 저부편(도면 67-2, 사진 120-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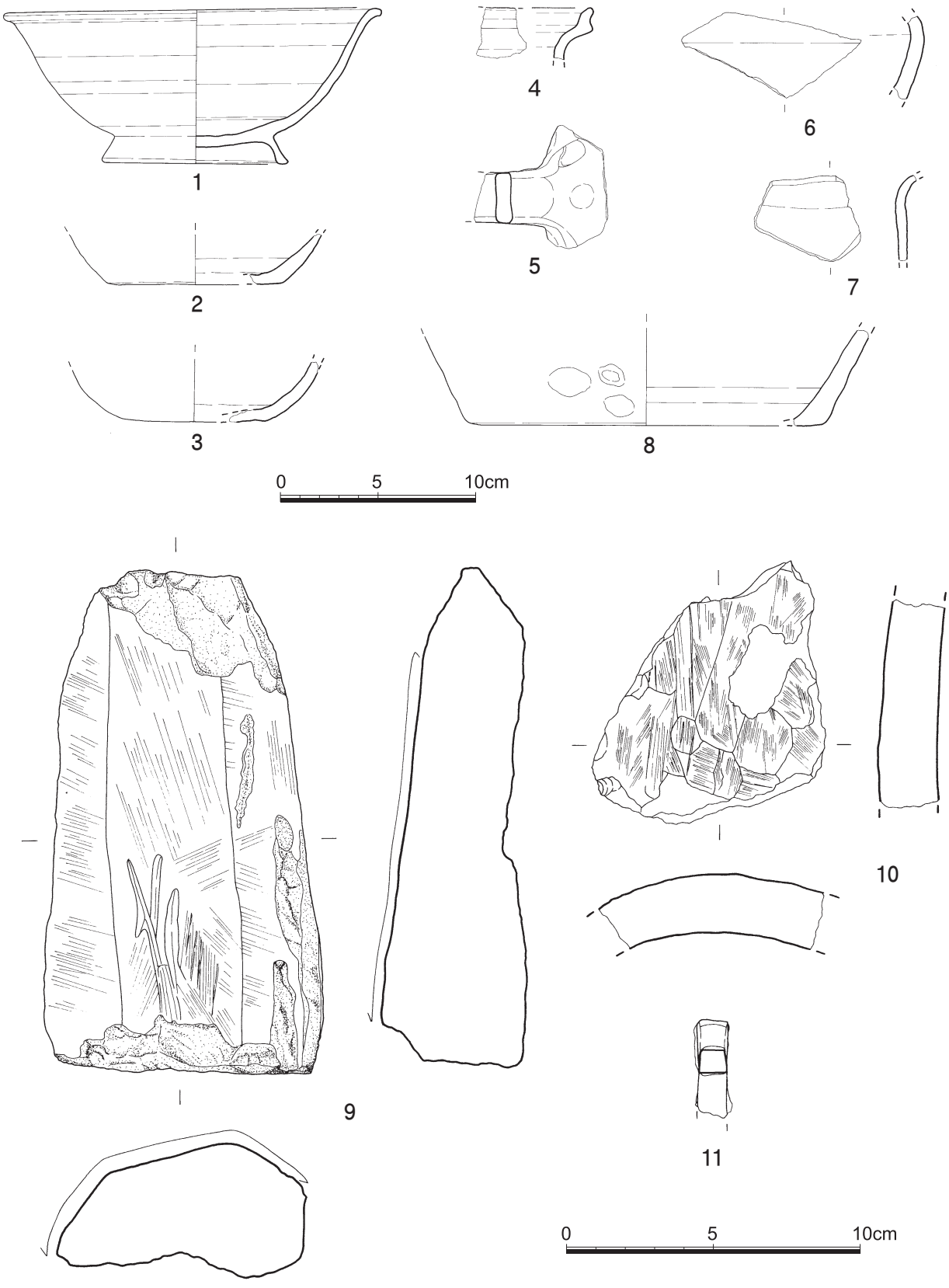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현고 2.6㎝, 복원저경 9.2㎝

⑤ 저부편(도면 67-3, 사진 120-⑦)

연질이며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기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7.5Y 3/1)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이 많아 외면은 황갈색, 내면은 회올리브색을 띤다. 현고 3.2㎝, 복원저경 7.7㎝



도면 66.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주거지 유구



도면 67.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⑥ 저부편(도면 67-8, 사진 120-⑤)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운모립과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흑색이나 외면은 약하게 박리되어 회황색을 띤다. 외저면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5.0㎝, 복원저경 18.6㎝

⑦ 동체부편(도면 67-6, 사진 120-⑥)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흑색을 띠고 내면은 회색, 속심은 암적갈색을 띤다. 현길이 4.3㎝

⑧ 파수편(도면 67-5, 사진 120-⑧)

연질의 대상파수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였으나 상당히 정선되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띤다. 현길이 6.6㎝, 파수폭 2.6㎝, 두께 0.9㎝

⑨ 석제용기편(도면 67-10, 사진 120-⑩)

납석으로 만든 용기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내외면을 마연하였으며 외면에는 불맞은 흔적이 있다. 현길이 9.1㎝, 두께 2.1㎝, 무게 220g

⑩ 지석(도면 67-9, 사진 120-⑪)

평면형태 장방형의 지석으로 암질은 편암제이다. 前面은 비교적 매끈하게 마연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깊게 패인 부분이 있다. 後面 일부도 약하게 마연되었다. 길이 17.3㎝, 최대폭 9.5㎝, 두께 5.0㎝, 무게 1,165g

⑪ 철제품(도면 67-11, 사진 120-⑨)

선단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3.4㎝, 폭 0.9㎝, 무게 9g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8, 사진 121·122)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m 선상에 굴립주 건물지군을 2중으로 감싸고 있는 배수로 사이에 위치하며 1호 배수로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나란하고, 주거지 하단부는 삭평되어 유실되었다. 규모는 길이 756㎝, 잔존너비 180㎝, 깊이 33㎝정도이며, 잔존 규모와 형태상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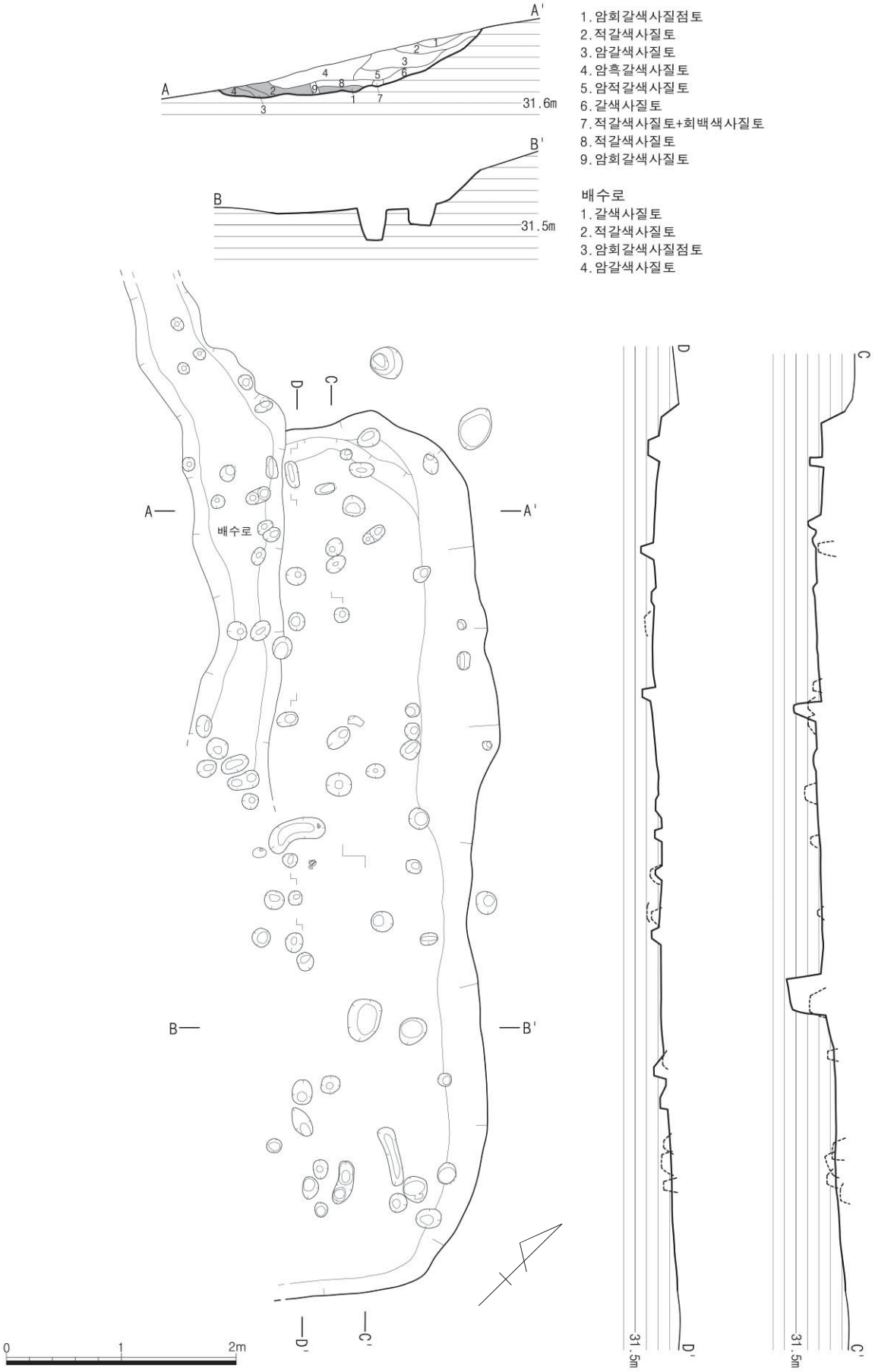
주거지는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사선방향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벽면은 둔각을 이루며 밖으로 크게 벌어지게 굴착하여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바닥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평탄면을 이루게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벽면과 바닥면에서 직경 15~25㎝정도 크기의 소형 주공이 불규칙하게 굴착되어 있으며 노지와 기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대호, 바닥면의 소형 주혈 내에서 대부완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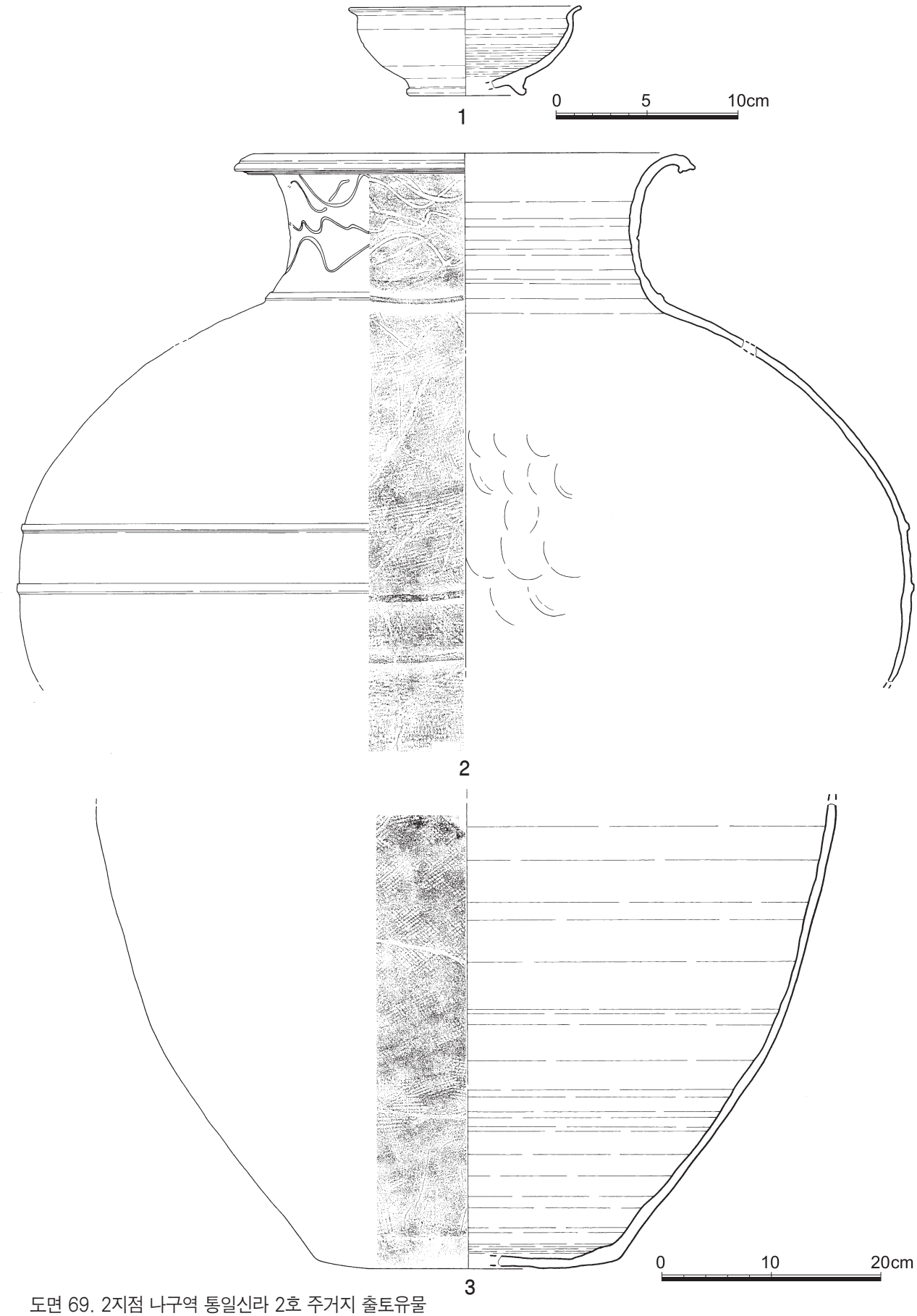
(2) 유물

① 대부완(도면 69-1, 사진 122-②)

구연에서 대각까지 일부가 남아있어 기형을 알 수 있다. 연질이며,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탁한 황색(2.5Y 6/3)을 띠고 내면은 회황색, 속심은 흑색을 띤다. 대각의 말단부는 밖으로 말려 있다. 현고



도면 68.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주거지 유구



도면 69.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주거지 출토유물

5.0㎝, 복원구경 12.8㎝, 복원저경 6.4㎝

② 대호(도면 69-2, 사진 122-④)

대호의 구연부와 동상위부분이 각 1/4 가량 남아있는데 복원되지는 않아 도면상에서 임의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은 회올리브색(5Y 6/2), 내면은 회색,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크게 벌어지며 구순외면에 2줄의 침선을 돌렸다. 경부외면에는 여러줄의 파상문이 자유분방하게 시문되어 있다. 동체외면은 소격자타날한 후 동중위에 2조의 돌대를 둘렀으며 내면에는 동심원모양의 박자흔이 남아있다. 복원고 47.5㎝, 복원구경 42.2㎝

③ 저부(도면 69-3, 사진 122-③)

대호의 저부로 1/3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외면은 회색(N5/)을 띠고, 내면은 회백색을 띤다. 바닥은 평저이나 가장자리가 살짝 들려 있으며, 안바닥 가장자리는 점토를 덧댄 흔적이 불룩하게 남아있다. 동체부 외면은 소격자타날하였고 내면에는 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고 42.3㎝, 복원저경 27.1㎝

2.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70, 사진 123)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3m 선상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평면비가 1:1에 가까운 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170㎝, 너비 168㎝, 잔존깊이 32㎝정도이다. 주축방향은 남서-북동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수혈은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벽면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면은 고르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내부나 바닥면에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완 등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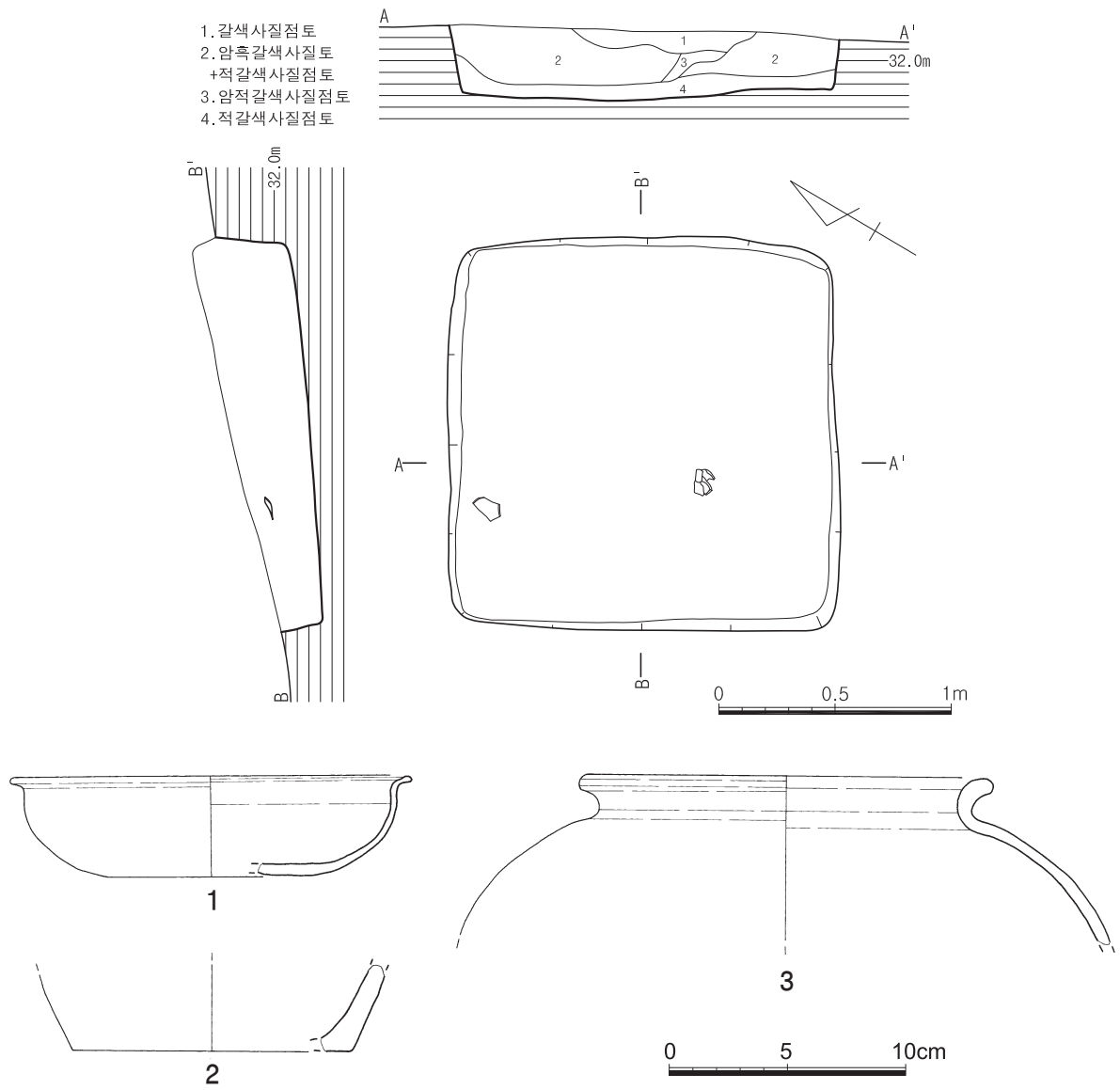
① 완(도면 70-1, 사진 123-⑤)

전체기형의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손에 묻어나는 정도의 연질로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밝은 황색(2.5Y 7/3)을 띤다. 구연은 직각에 가깝게 외반하며 구연안쪽에 한줄의 홈을 돌렸다. 바닥은 평평하다. 고 4.3㎝, 복원구경 16.8㎝, 복원저경 9.7㎝

② 구연부편(도면 70-3, 사진 123-⑦)

구연과 동상위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과 장석립, 기타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을 띠고, 내면은 밝은 황색,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짧은 경부를 가지고 있으며 구연에서 외반한다. 기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현고 7.0㎝, 복원구경 17.3㎝

③ 저부편(도면 70-2, 사진 123-⑥)



도면 70.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병이나 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3/1)을 띤다. 현고 3.7㎝, 복원저경 11.9㎝

2) 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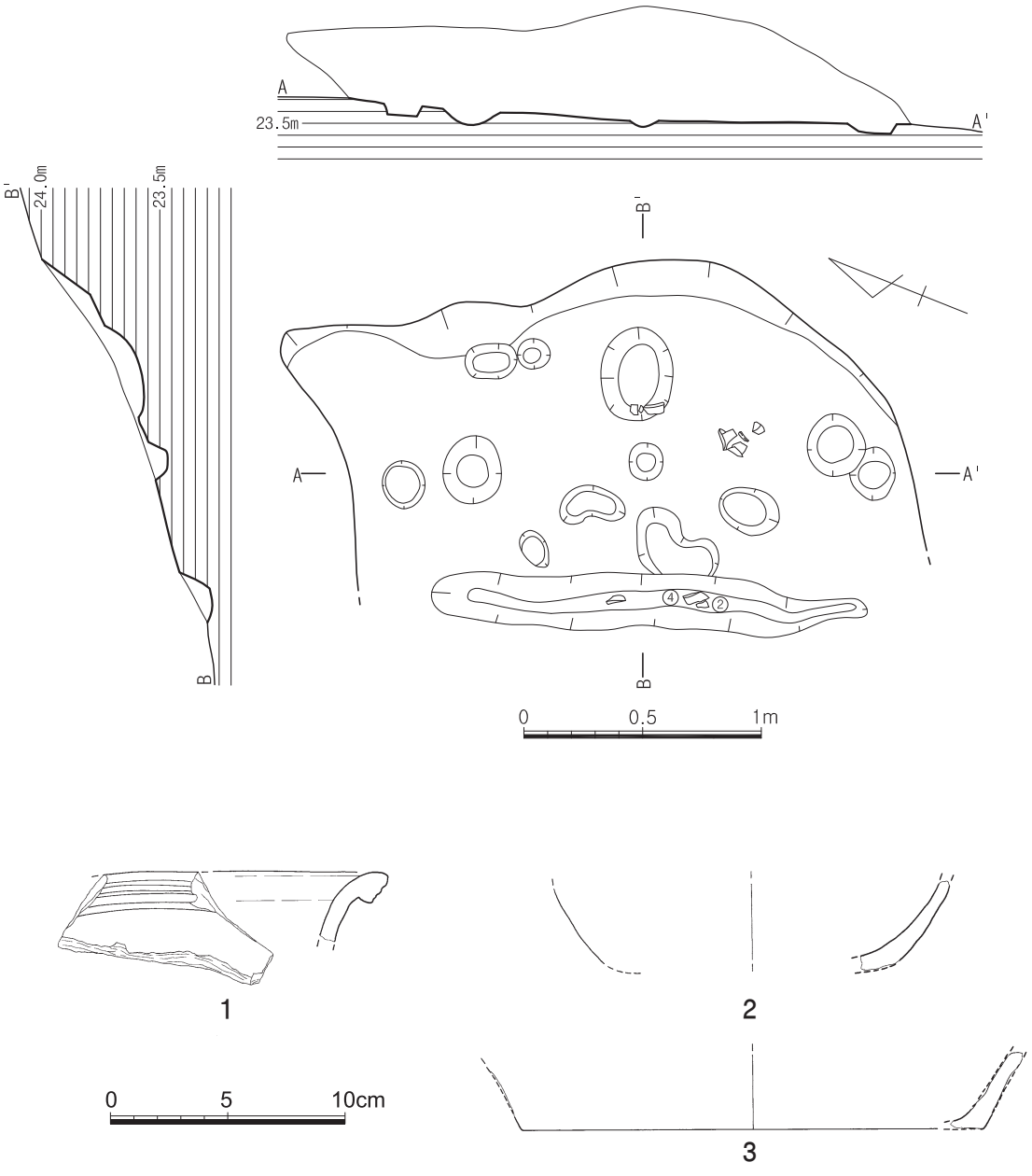
(1) 유구(도면 71, 사진 124)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m 선상에 3호 수혈과 나란히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나란하다. 경사면 아래에 있는 수혈의 서쪽부분은 삭평되어 유실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271㎝, 잔존너비 125~140㎝, 깊이 21㎝정도이다. 잔존 규모로 볼 때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수혈은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벽면은 둔각을 이루며 밖으로 크게 벌어지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약 17°정도의 경사를 이루게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주공으로 추정되는 직경 20~30㎝ 내외 크기의 소형 수혈과 함께 서쪽 바닥면 끝부분에서 유구의 장축향과 나란하게 구 시설이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바닥면과 소형 수혈 및 구 시설 내부에서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도면 71.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호 구연부편(도면 71-1, 사진 124-⑥)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에 가까우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 소량과 기타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외면은 암회색(N 3/), 내면은 회색(N 4/),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구연은 벌어진 경부에서 짧게 이어지며 구순외면에 2줄의 홈을 돌렸다. 현길이 3.9㎝

② 저부편(도면 71-2, 사진 124-⑦)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하단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과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밝은 황색(2.5Y 7/4)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현고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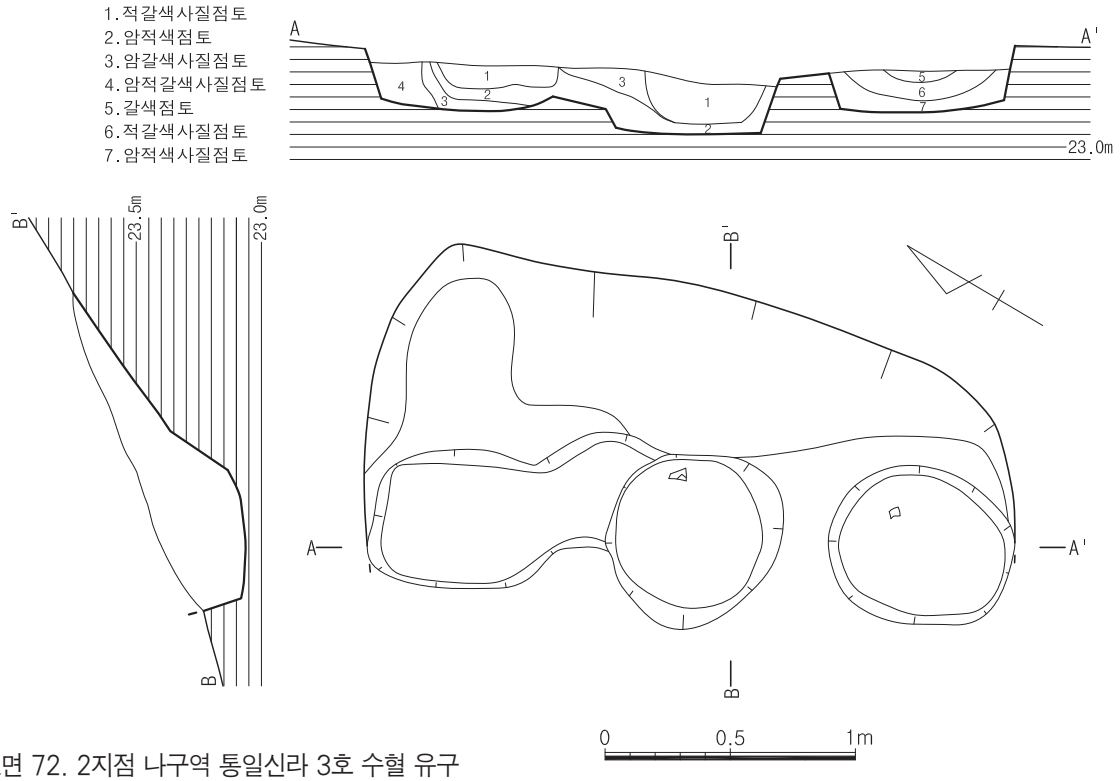
③ 저부편(도면 71-3, 사진 124-⑧)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기면박리가 심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였으나 점성이 다소 강한 고운태토이며, 내외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을 띤다. 현고 3.2㎝, 복원저경20.0㎝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72, 사진 125)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m 선상에 2호 수혈과 나란히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나란하다. 경사면 아래부분인 서쪽부분은 삭평되어 유실되었다. 규모는 길이 259㎝, 잔존너비 155㎝, 깊이 50㎝정도로 잔존 규모로 볼 때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도면 72.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수혈 유구

수혈은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벽면은 둔각을 이루며 밖으로 크게 벌어지게 굴착하였으며, 바닥면도 약간 경사를 이루게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수혈 3기가 나란히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70㎝, 깊이 20~25㎝정도로 바닥면은 수평에 가까운 평탄면을 이룬다.

3. 굴립주 건물지

1) 1호 굴립주 건물지

(1) 유구(도면 73·74, 사진 126~128)

곡부로 이어지는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최하단부인 해발 31m 선상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었다. 잔존하는 주공의 배치와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400×350㎝정도의 규모로(면적 14.0㎡)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정면 2칸×측면 2칸 규모의 건물지이다.

주주공은 양 장축면에 모두 6개가 배치되었는데, 주주공간 거리는 200㎝정도이다. 주주공의 크기는 직경 50~60㎝×잔존깊이 50~70㎝정도이며, 주주공 사이의 주공의 크기는 직경 30~45㎝, 잔존깊이 25~35㎝정도이다. 건물지의 남서쪽 모서리부분에는 직경 10~15㎝ 내외 크기의 소형 주공이 밀집·분포한다.

현 바닥면은 약 10° 정도의 기울기를 보이며 바닥면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평면 타원형의 노지가 확인된다. 노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주공이 노지를 에워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지는 길이 100㎝×너비 45㎝×깊이 5㎝정도의 크기로 바닥면에는 얇은 탄재층만이 확인될 뿐 벽면이나 바닥면에 소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공의 굴착방법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경사지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일부는 단이 지게 이단구조로 굴착하기도 하였다. 바닥면에는 일부 목주압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토층단면상 목주의 크기는 크게 중심목주는 직경 21~23㎝정도이며, 중심목주 사이의 보조목주는 직경 11~13㎝정도 크기이다. 목주는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거나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주공과 노지 내부에서 회색계 연질토기편과 용도미상 석제품 1점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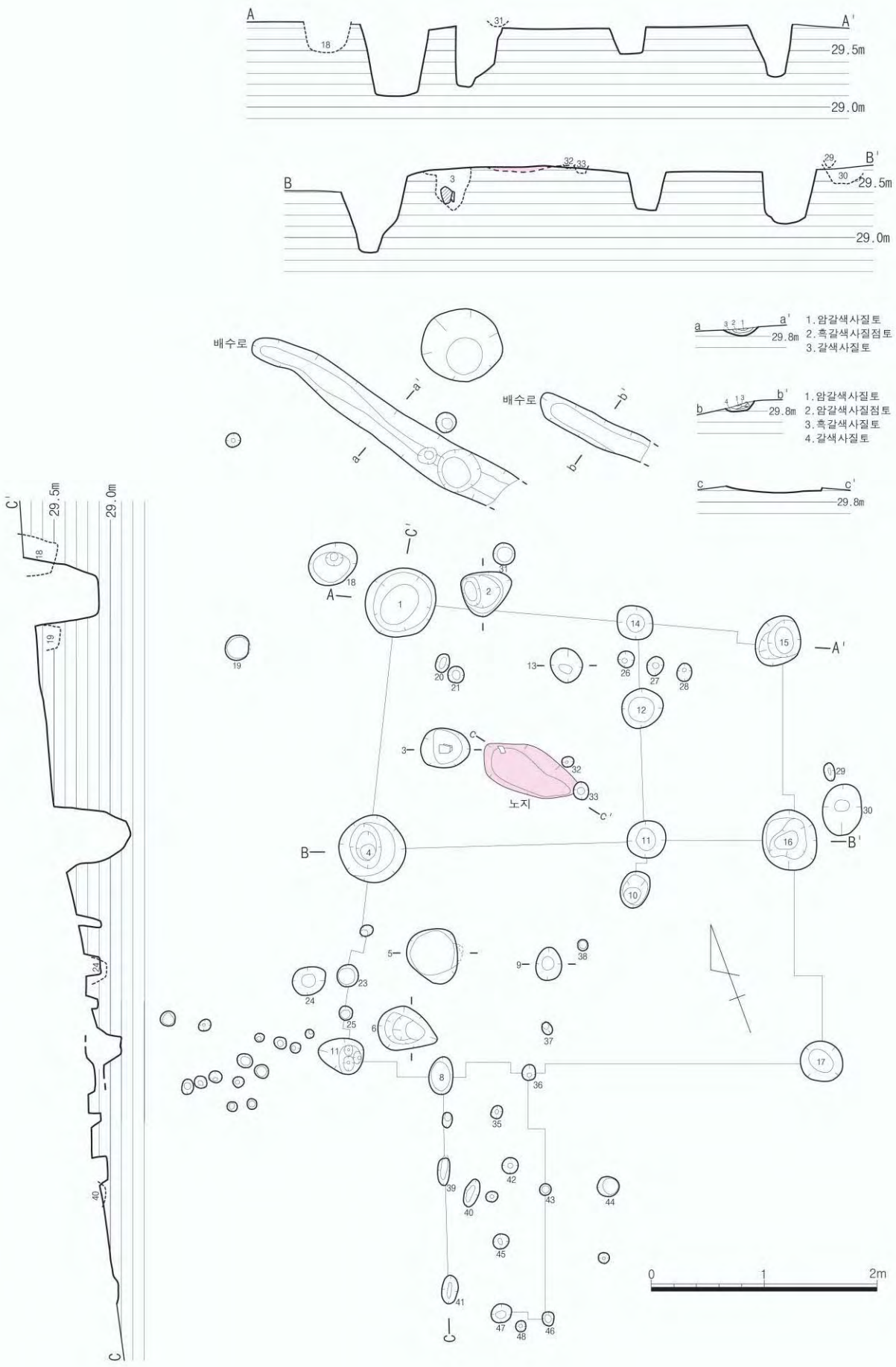
(2) 유물

① 동체부편(도면 74-2, 사진 128-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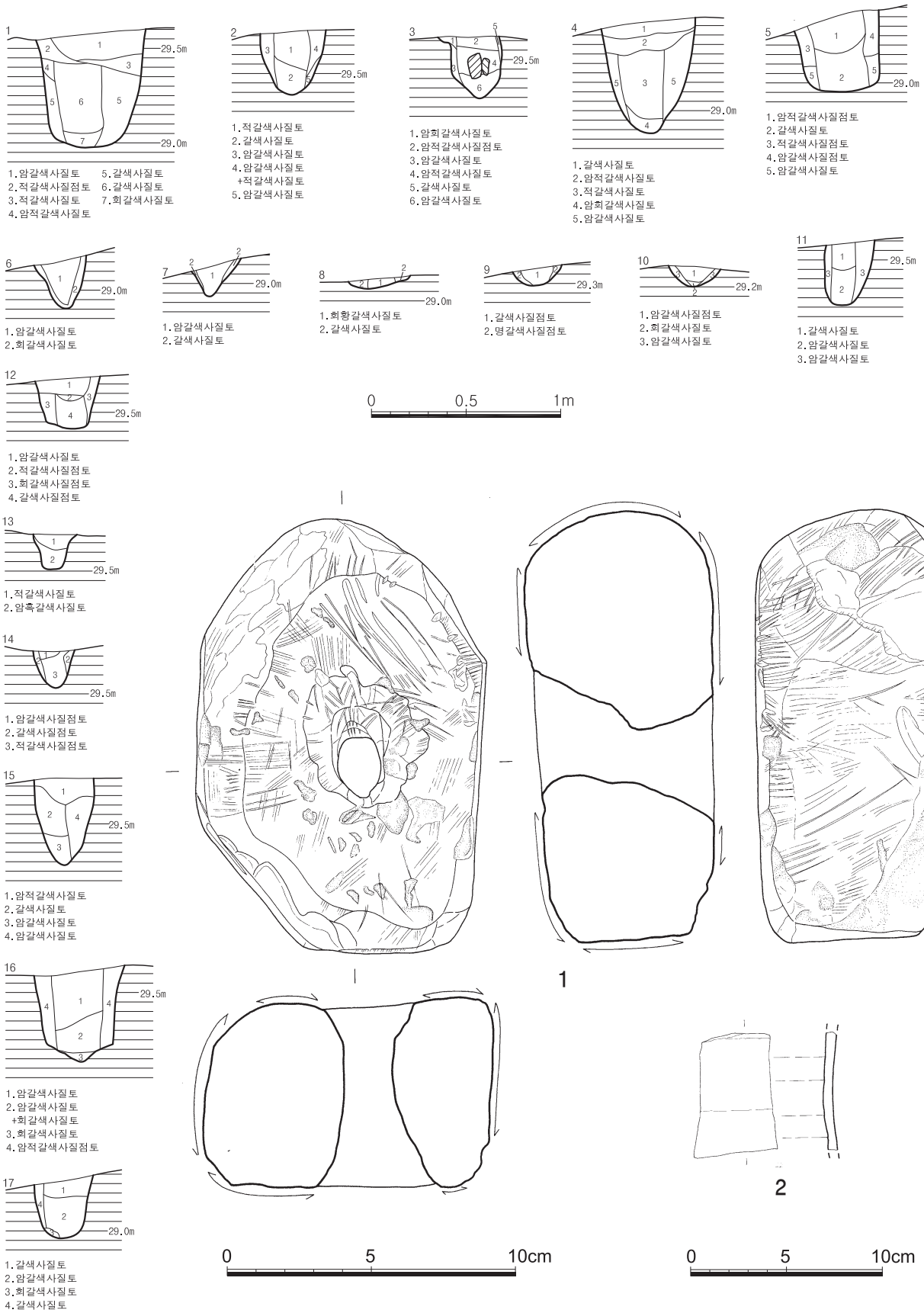
동체일부가 남아있는 연질의 토기편으로 소성도가 높은 편이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소량 섞였으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갈색(10YR 5/3), 내면은 탁한 황등색(10YR 6/4), 속심은 회갈색을 띤다. 현길이 6.5㎝

② 석제품(도면 74-1, 사진 128-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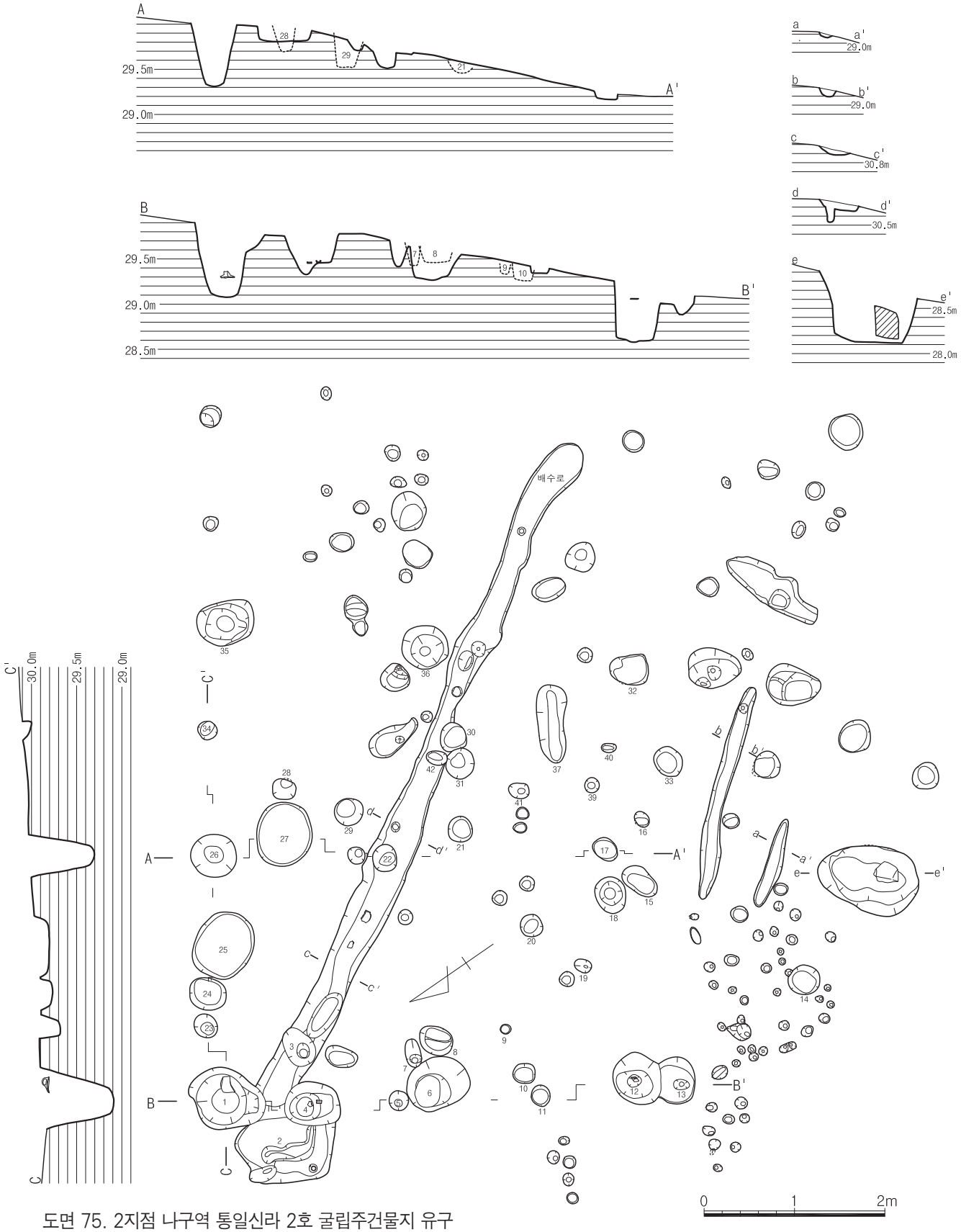
납석제 석제품으로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가운데에 직경 약 1.6~2.0㎝의 타원형구멍이 뚫어져 있다. 全面에 마연의 흔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깊게 패여 있다. 길이 15.2㎝, 폭 10.0㎝, 두께 6.6㎝, 무게 1,70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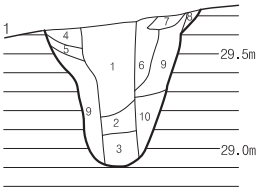
도면 73.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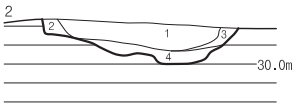
도면 74.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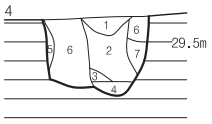
도면 75.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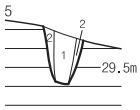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6.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3.적갈색사질토 7.희갈색사질토
4.갈색사질점토 8.적갈색사질토
+암갈색점질토 9.암흑갈색사질토
5.암회색사질점토 10.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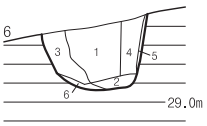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토(암갈색사질토소량포함)
3.암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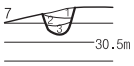
1.희갈색사질점토
2.암흑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토
4.암희갈색점질토
5.암갈색사질점토
6.암갈색사질토
+희갈색사질토
7.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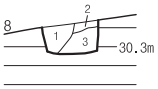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2.암회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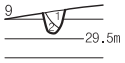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점질토
3.암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5.갈색사질토
6.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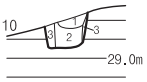
1.희갈색사질토
2.진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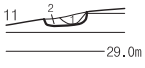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황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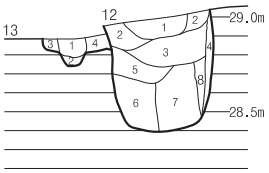
1.암갈색점토
2.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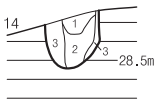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3.진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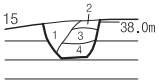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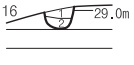
1.흑갈색사질점토 1.암갈색사질점토
2.회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점토
3.흑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토
+적갈색사질점토 5.적갈색사질토
6.암갈색사질토
7.명갈색사질토
8.명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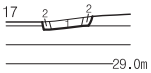
1.암회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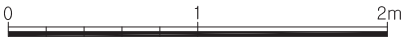
1.암회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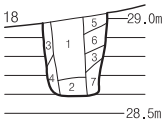


1.암희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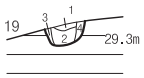


1.회황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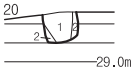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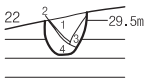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황갈색점질토
3.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점질토
5.암갈색사질점토
6.암갈색사질토
7.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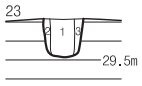
1.적갈색점토
2.갈색점질토
3.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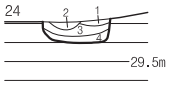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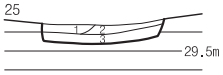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2.적갈색점토
3.적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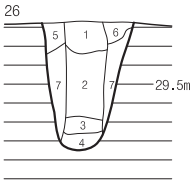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2.진갈색점토
3.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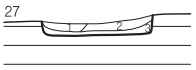
1.암흑갈색사질토
2.암희갈색사질토
3.암적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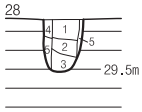
1.희황갈색사질토
2.암희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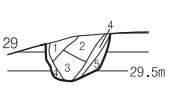
1.암흑갈색사질토 5.갈색사질토
2.암적갈색사질토 6.암갈색사질점토
3.암희갈색사질토 7.갈색사질점토
4.희갈색점질토
+희황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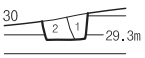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암적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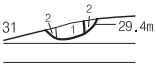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회갈색사질점토
4.암갈색니질토
5.회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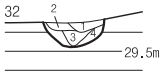
1.흑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3.암적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5.적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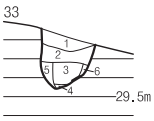
1.암갈색점질토
2.갈색사질점토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1.암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토
4.갈색사질토



1.회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토
3.회갈색사질토
4.황갈색사질토
5.암황갈색사질토
6.회갈색사질토

도면 76.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2) 2호 굴립주 건물지

(1) 유구(도면 75·76, 사진 129~131)

곡부로 이어지는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최하단부인 해발 31m 선상으로 1호와 3호 건물지 사이에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잔존하는 주공의 배치와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550㎝×단축 530㎝정도의 규모로(면적 29.1㎡)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정면 2칸×측면 2칸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주주공간 거리는 250㎝ 내외의 간격을 보인다. 주주공의 크기는 직경 55~75㎝×잔존깊이 65~80㎝정도이며, 주주공 사이의 주공의 크기는 직경 25~35㎝×잔존깊이 15~20㎝정도이다.

건물지의 남서쪽 모서리부분에는 1호 건물지와 같이 직경 8~15㎝ 내외 크기의 소형 주공이 밀집·분포하는데, 건물지의 출입시설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현 바닥면은 약 10° 정도의 기울기로 건물지 내부에는 직경 10~30㎝ 내외 크기의 주공들이 불규칙하게 다수 분포하며, 건물지의 북쪽모서리 부분에서 남 장측면을 가로지르는 배수로와 북동 단측면에서 평면 원형인 직경 70×깊이 20㎝정도 크기의 저장시설 2기가 확인된다. 주공의 굴착방법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일부는 단이 지게 이단 구조로 굴착하기도 하였다. 바닥면에는 일부 목주압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토층단면상 목주의 크기는 크게 중심목주는 직경 25~30㎝정도이며 중심목주 사이의 보조목주는 직경 15㎝ 내외의 크기이다. 목주는 끝단에 있어 대부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하였는데, 일부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은 주혈과 배수로 내부에서 갈색계 연질 토기편과 회색 연질의 시루편, 대상 파수, 석제 뚜껑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2) 유물

① 경부편(도면 77-7, 사진 131-⑤)

연질의 도기 경부편이다. 태토에는 이물질이 섞였으나 비교적 고운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탁한 황등색(10YR 7/4)을 띤다. 현길이 5.1㎝

② 저부편(도면 77-3, 사진 131-⑦)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였으며 점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 5/2)을 띠고 속심은 갈색이다. 내면에 물레의 흔적이 보인다. 현고 3.4㎝

③ 시루저부편(도면 77-5, 사진 131-⑨)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회색 연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띤다. 바닥에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구멍 하나가 확인된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내외면을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현고 8.1㎝, 복원저경 14.6㎝

④ 동체부편(도면 77-1, 사진 131-⑧)

대상파수가 부착된 도기의 동체부편이다. 경질이나 경도가 낮은 편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립과 석영립,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띤다. 파수접합 후 접합면을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도 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나 있다. 현길이 16.0㎝

⑤ 동체부편(도면 77-6, 사진 131-⑥)

돌대가 부착된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소성도가 낮은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여 있다. 외면은 회색(N 4/), 내면은 회올리브색, 속심은 암갈색이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돌대를 부착하였으며 내면에도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있다. 현길이 5.4㎝

⑥ 동체부편(도면 77-4, 사진 131-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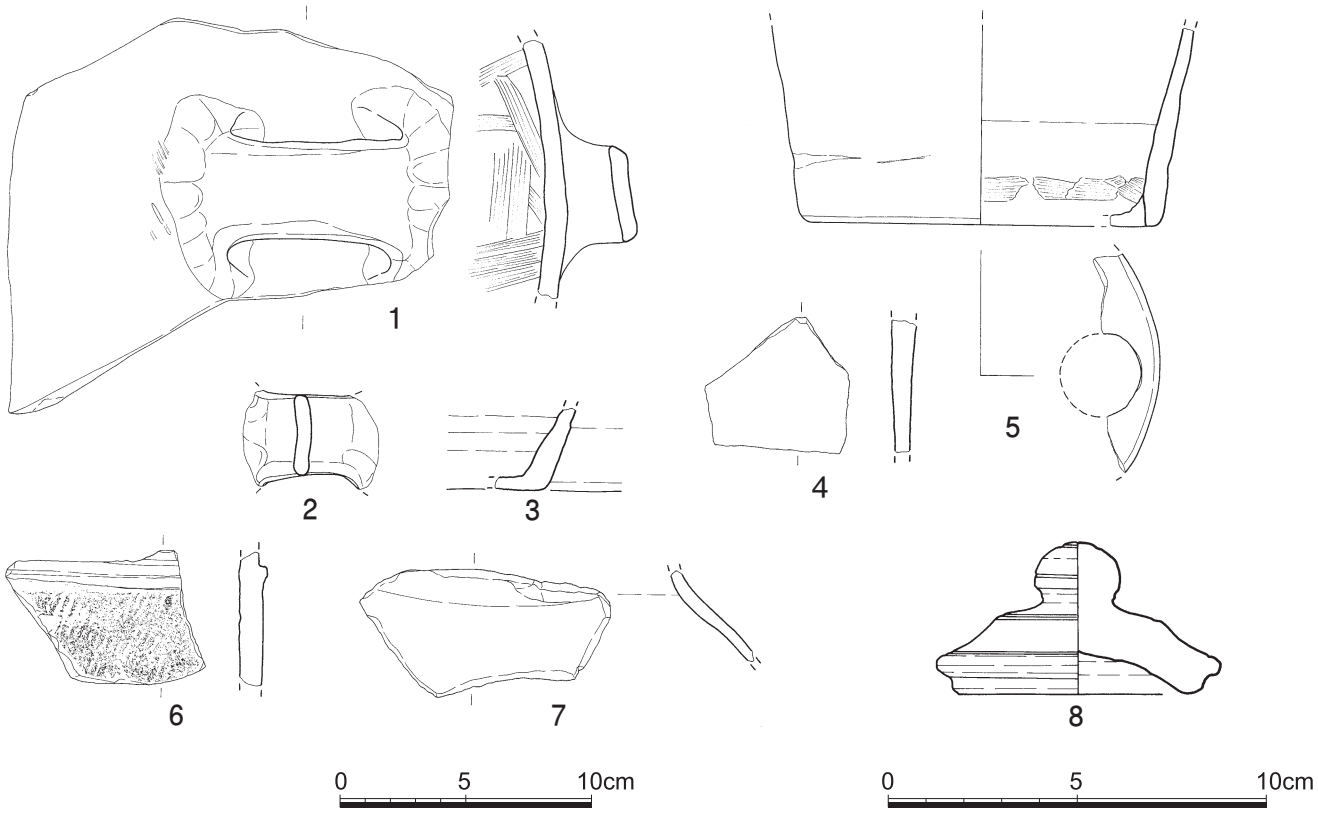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고운점토이다. 외면은 자연유로 인해 회갈색(7.5YR 4/2)을 띠며 내면은 회색, 속심은 암적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있다. 현길이 5.5㎝

⑦ 파수(도면 77-2, 사진 131-⑪)

연질의 대상파수이다. 태토에 가는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올리브흑색(7.5YR 3/1)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파수길이 5.5㎝, 파수폭 3.3㎝, 두께 0.7㎝

⑧ 석제 뚜껑(도면 77-8, 사진 131-⑫)

납석 재질의 석제 뚜껑으로 완형이다. 꼭지의 형태는 보주형이다. 고 4.1㎝, 드림경 6.2㎝, 무게 155g



도면 77.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2호 굴립주건물지 출토유물

3) 3호 굴립주 건물지

(1) 유구(도면 78·79, 사진 132·133)

곡부로 이어지는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최하단부인 해발 31m 선상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약 3m정도 떨어져 2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잔존하는 주공의 배치와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400㎝×단축 380㎝정도의 규모로(면적 15.2㎡)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정면 2칸×측면 2칸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현 바닥면은 약 10°정도의 기울기를 보이며 주주공간 거리는 200~260㎝ 내외의 간격으로 불규칙한 간격을 보인다. 주공의 크기는 건물의 외곽을 이루는 주공은 직경 35~45㎝×잔존깊이 30~55㎝정도이며, 기타 건물지 내부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소형 주공의 크기는 직경 10~25㎝×잔존깊이 10~20㎝정도이다.

주공의 굴착방법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일부는 단이 지게 이단 구조로 굴착하기도 하였다. 바닥면에는 일부 목주압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토층단면상 목주의 크기는 크게 건물의 외곽을 이루는 중심목주는 직경 20~30㎝정도이며, 중심목주 사이의 보조목주는 직경 10~15㎝ 내외의 크기이다. 목주는 끝단에 있어 대부분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하였는데, 일부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출토유물은 주공 내부에서 회색 연질의 토기 저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

(2) 유물

① 저부편(도면 78-1, 사진 133-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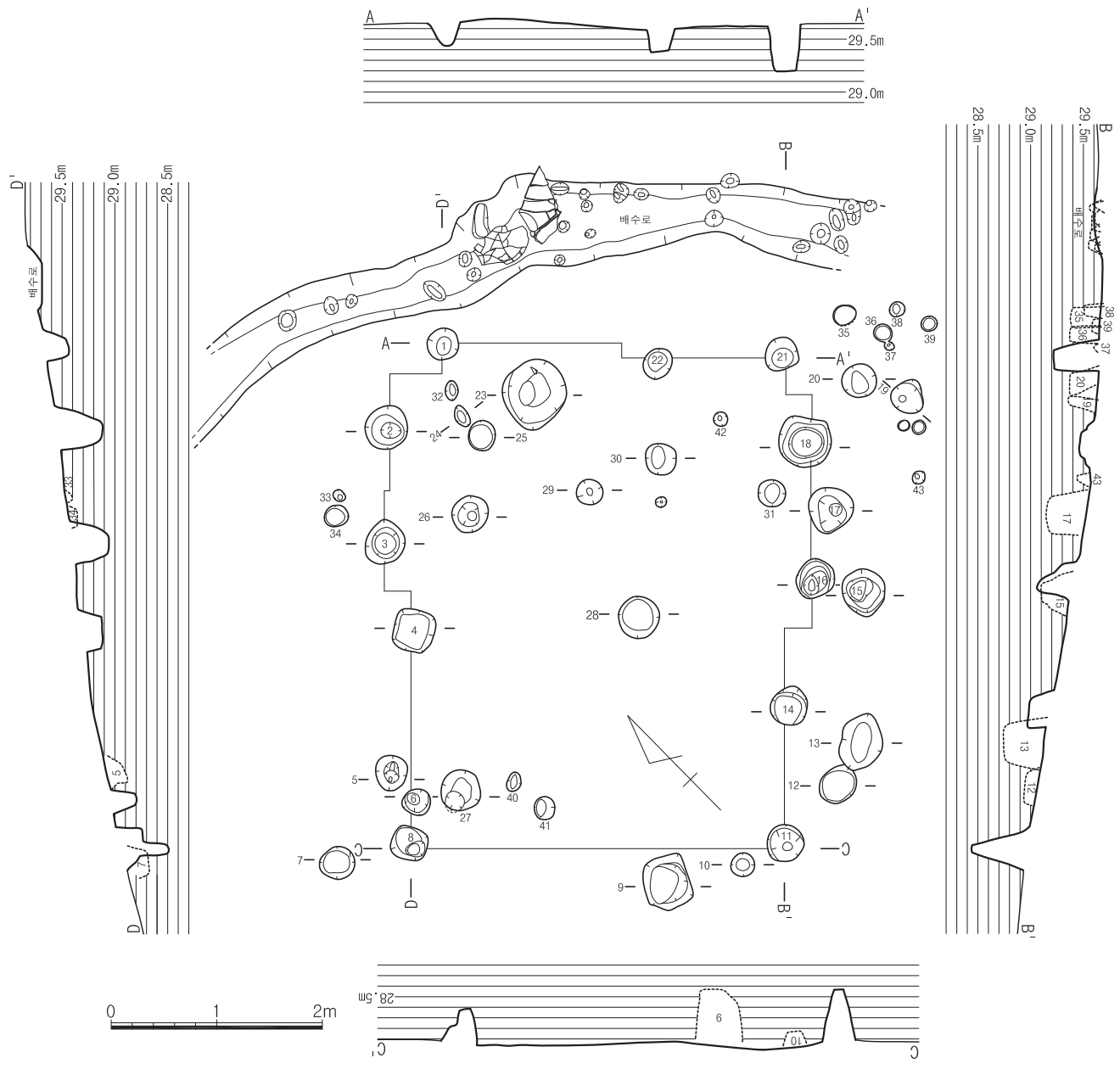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띤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있다. 현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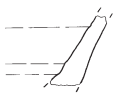
4) 4호 굴립주 건물지

(1) 유구(도면 80, 사진 134)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3m 선상에 위치하며 남동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39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잔존하는 주공의 배치와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310㎝×단축 290㎝정도의 규모로(면적 9.0㎡)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정면 1칸×측면 2칸 정도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현 바닥면의 기울기는 약 19°로 하단부에 위치한 1·2·3호 건물지와는 다르게 사면 경사가 매우 급하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남서 단측부 양쪽 주공에는 대각선상으로 보조주공이 배치되어 있다. 주공의 크기는 건물의 네 모서리에 배치된 주주공은 직경 35~38㎝×잔존깊이 30~40㎝정도이며, 기타 주공의 크기는 직경 26~38㎝×잔존깊이 15~25㎝정도이다. 주공의 굴착방법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일부는 단이 지게 이단 구조로 굴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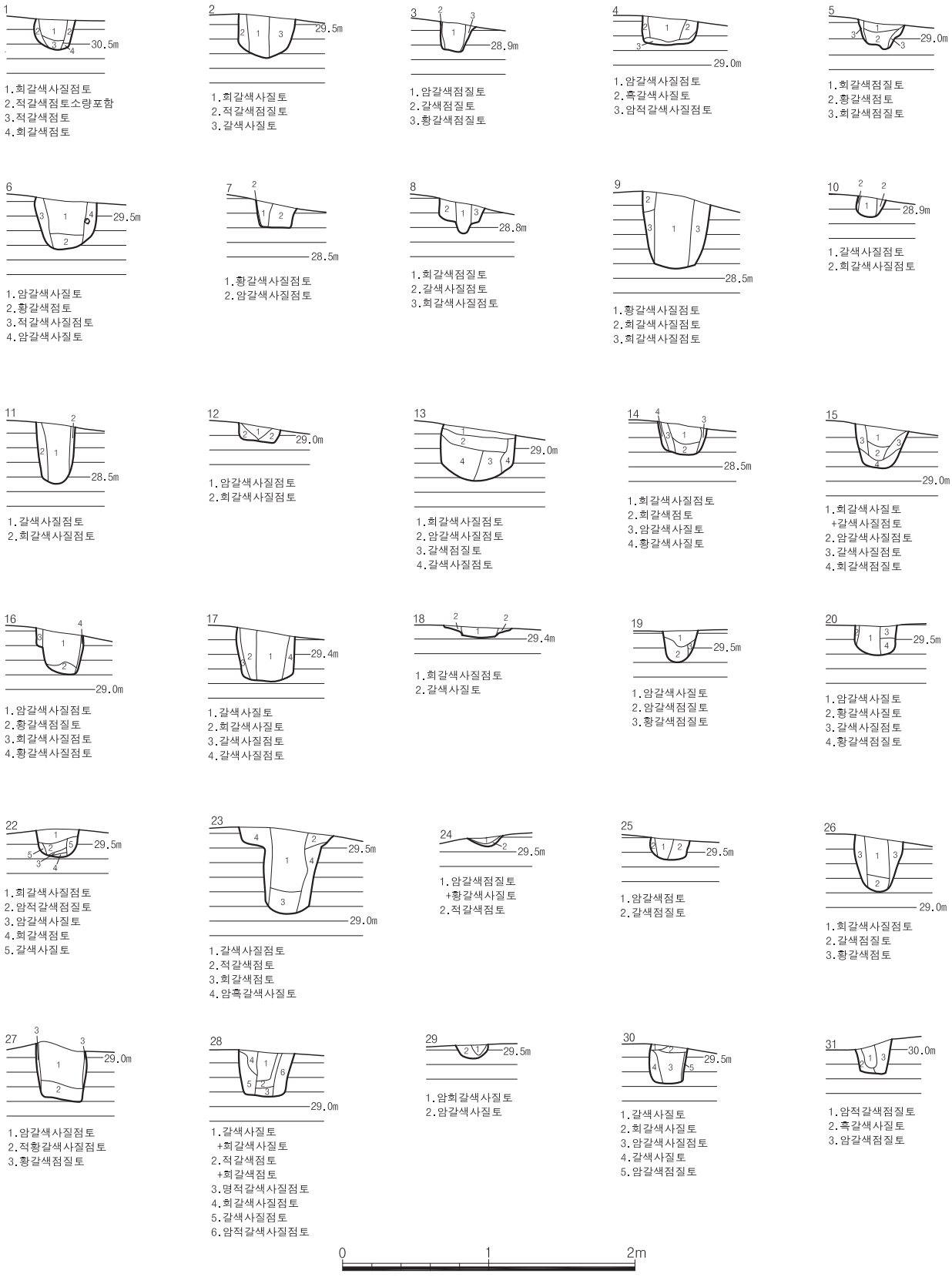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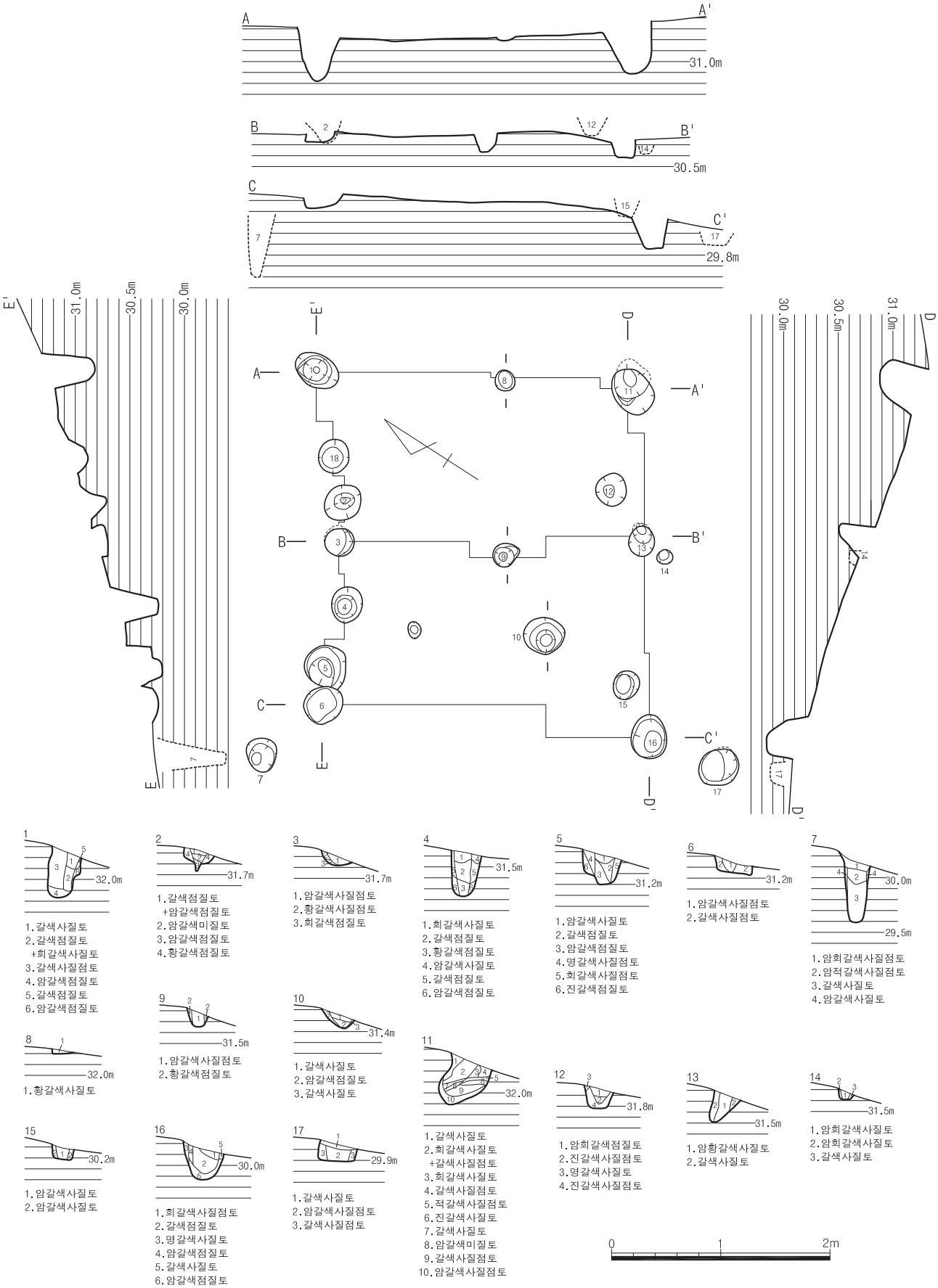
1

0 5 10cm

도면 78.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79.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도면 80.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4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토층단면상 목주의 크기는 직경 18~28㎝정도이며 목주는 끝단에 있어 대부분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5) 5호 굴립주 건물지

(1) 유구(도면 81·82, 사진 135)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5m 선상에 위치하며 북서쪽에 바로 연하여 6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조사 당시 약 25개의 크고 작은 주공들이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 주공의 배치와 간격,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280㎝×단축 264㎝정도의 규모로(면적 7.4㎡)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정면 1칸×측면 1칸 정도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현 바닥면의 기울기는 약 13°정도로 하단부에 위치한 1·2·3호 건물지보다 사면 경사가 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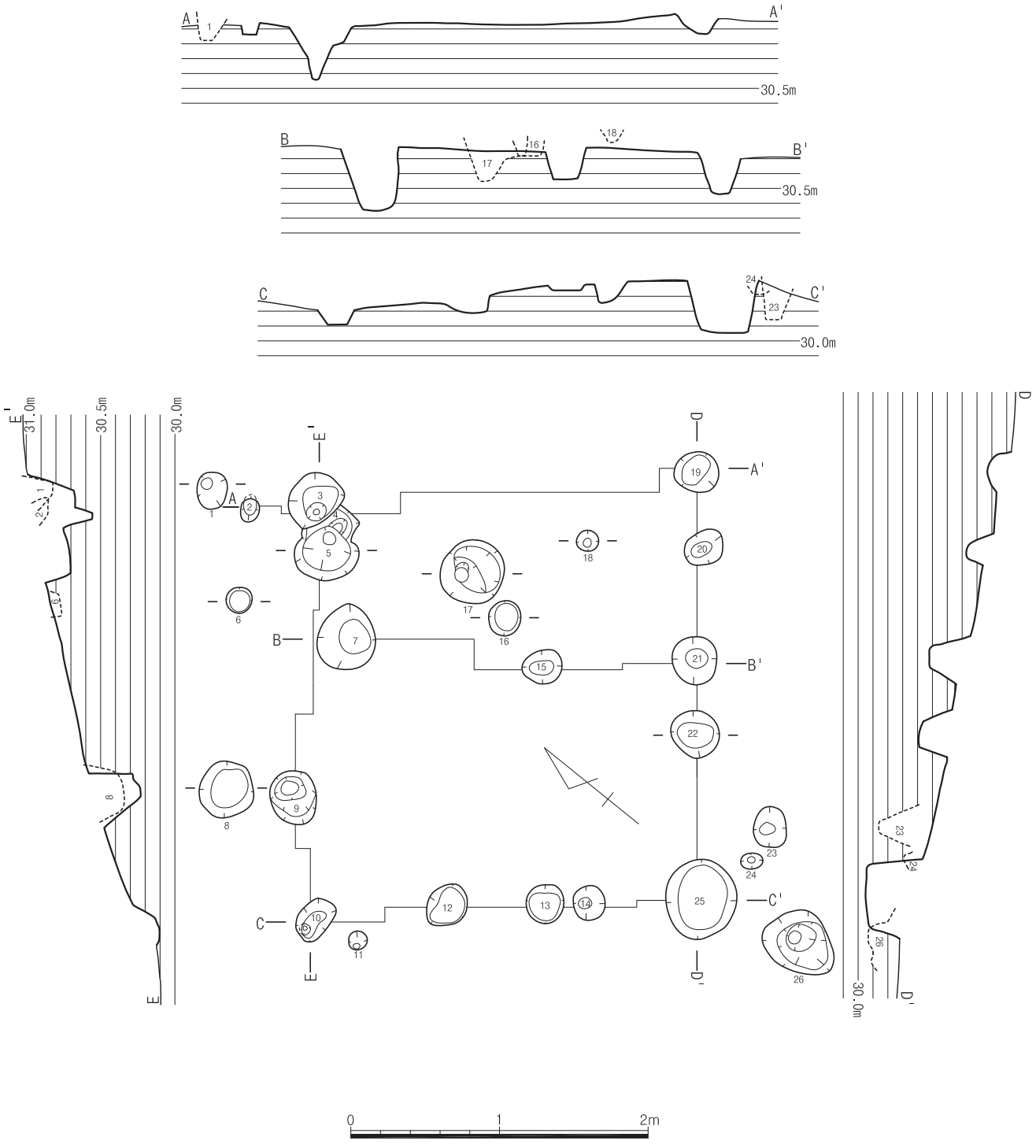
주공은 평면 방형을 이루며 열을 지어 분포한다. 주공의 크기는 직경 30~48㎝×잔존깊이 20~40㎝인 것과 직경 20~25㎝×잔존깊이 10~20㎝인 것으로 나뉜다. 주공의 굴착방법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일부는 단이 지게 이단 구조로 굴착하기도 하였다. 토층단면상 목주의 크기는 대부분 직경 15~20㎝ 내외의 크기이며 직경 30㎝이상인 것도 일부 나타난다. 목주는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하거나 일부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6) 6호 굴립주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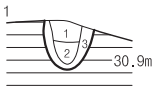
(1) 유구(도면 83, 사진 136)

남쪽 능선의 남서사면 하단부인 해발 32.5m지점 선상에 5호 건물지와 나란히 위치한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을 이루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조사 당시 약 15개의 크고 작은 주공들이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 주공의 배치와 간격, 직경, 깊이를 고려할 때 장축 340㎝×단축 230㎝정도의 규모로(면적 7.8㎡) 평면형태는 횡장방형에 가까운 정면 2칸×측면 1칸 정도 규모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현 바닥면의 기울기는 약 15°정도로 하단부에 위치한 1·2·3호 건물지보다 사면 경사가 급하다. 건물지 위쪽 경사면에는 'ㄷ'자형으로 건물지를 감싸는 배수로가 굴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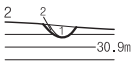
주공은 上廣下狹形으로 약간 비스듬히 굴착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일부 바닥면에는 목주압흔이 확인된다. 건물지 외곽에 배치된 주공은 직경 25~30㎝×잔존깊이 30~58㎝정도의 크기를 보이며 내부에는 직경 10~20㎝정도 크기의 소형 주공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다. 토층단면상 목주는 대부분 직경 20~25㎝정도의 크기를 보이며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하거나 일부 끝단을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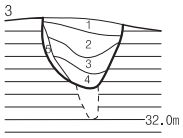
도면 81.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5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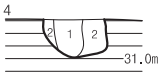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회갈색점질토
3.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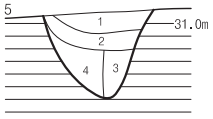
1.흑갈색점질토
2.회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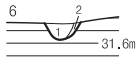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점토
4.황갈색사질점토
5.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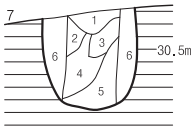
1.암갈색점질토
2.황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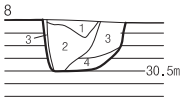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점토
4.황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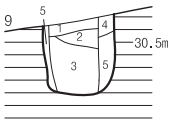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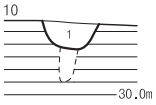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2.명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토
4.갈색점질토
5.암갈색 점질토
6.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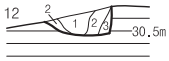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점질토
3.흑갈색점질토
4.갈색사질토



1.황갈색사질점토
2.암적갈색사질점토
3.갈색점질토
4.명갈사질점토
5.암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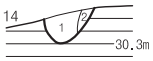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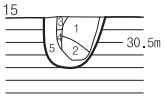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점토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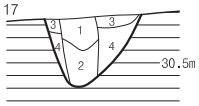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토소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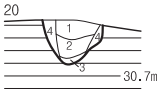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2.갈색점질토
(희황색사질토소량포함)
3.암갈색사질토
4.희갈색사질토
5.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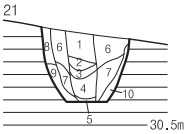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점토
2.갈색점질토
3.회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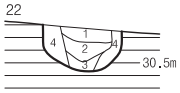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희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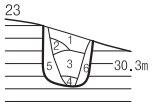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점질토
3.암갈색점질토
4.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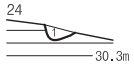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굳기약함)
2.흑갈색 점질토
3.희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4.갈색사질점토
5.황갈색점질토
6.희갈색사질점토
7.암갈색사질점토
8.적갈색사질점토
9.희갈색사질토
10.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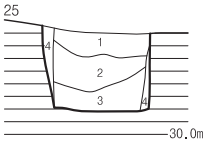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2.적갈색질점토
3.암갈색점질토
4.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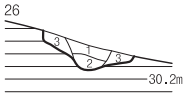
1.희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점질토
4.갈색점질토
5.갈색사질점토
6.암갈색점질토



1.희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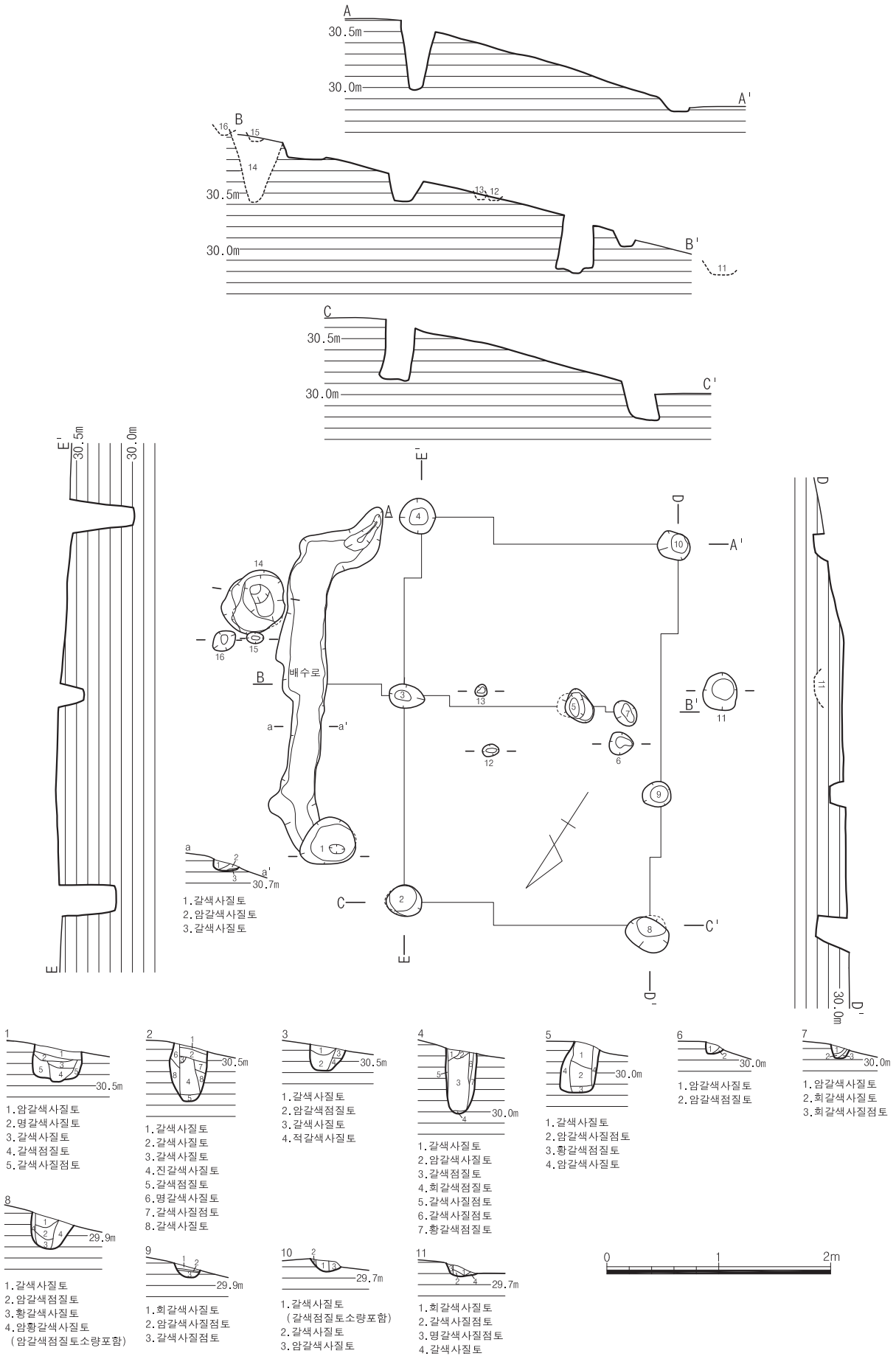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토
2.적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점토
4.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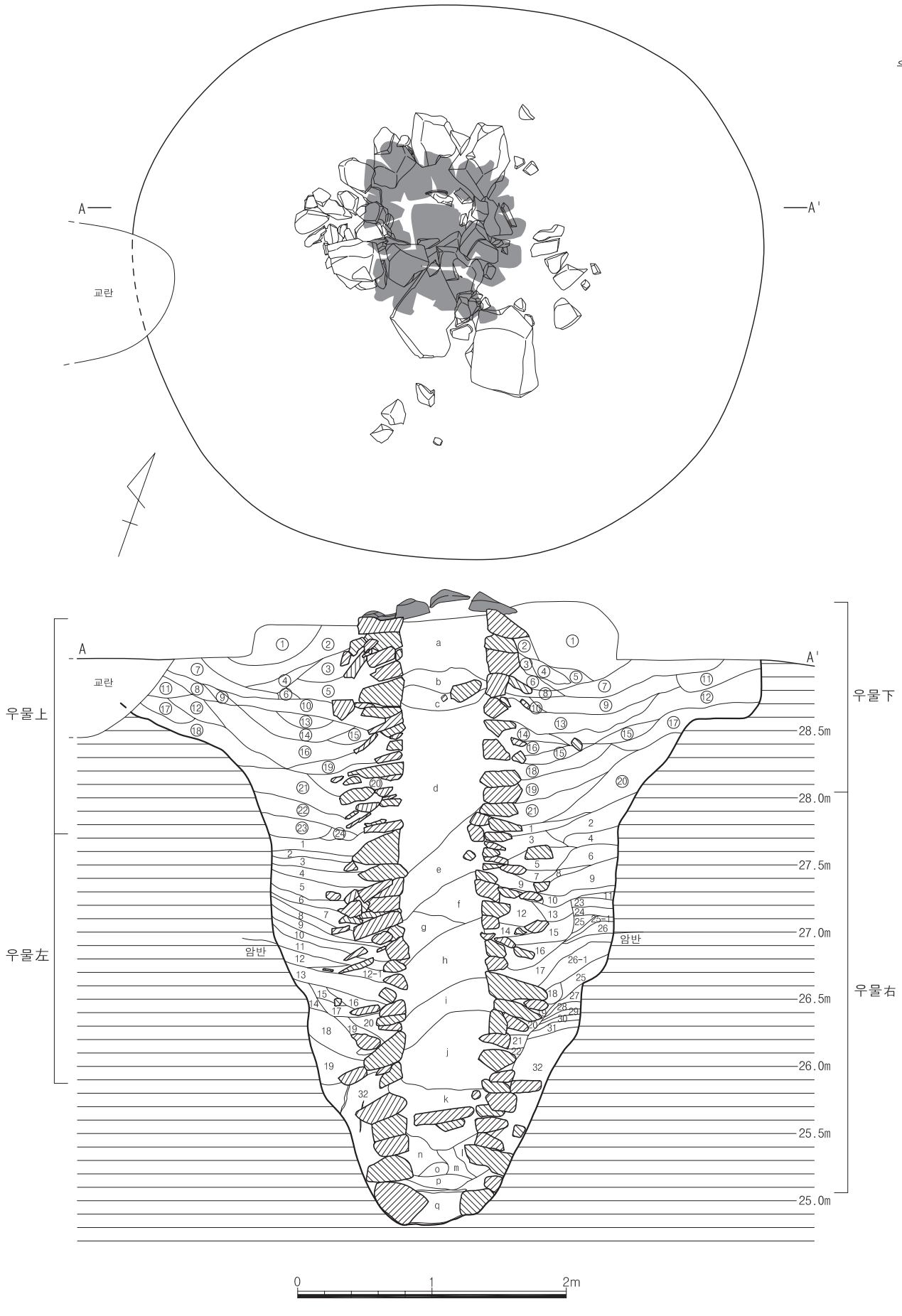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점토

도면 82.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 토층도



도면 83.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6호 굴립주건물지 유구

여 백



우물上 - ① 암갈색사질점토
② 암갈색사질점토(1층보진함)
③ 갈색사질점토
④ 암갈색사질점토
⑤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
⑥ 갈색사질점토
⑦ 암갈색사질점토
⑧ 갈색사질점토
⑨ 암적갈색사점질토
⑩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
⑪ 암갈색사질점토
⑫ 적갈색사질점토
⑬ 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
⑭ 갈색사질점토
⑮ 갈색사질점토
⑯ 암갈색사질점토
⑰ 적갈색사질점토
⑱ 암갈색사질점토
⑲ 명갈색사질점토
⑳ 갈색사질점토
㉑ 암갈색사질토
㉒ 적갈색사질토
㉓ 암갈색사질토
㉔ 암갈색사질토

우물下 - ① 암갈색사질점토
② 갈색사질점토
③ 황갈색사질점토
④ 갈색사질점토
⑤ 암갈색사질점토
⑥ 갈색사질점토(약간붉은색을띰)
⑦ 적갈색사질점토
⑧ 갈색사질점토
⑨ 암갈색사질점토
⑩ 암갈색점질토
⑪ 암갈색사질점토
⑫ 갈색사질점토
⑬ 암갈색사질점토
⑭ 갈색점질토
⑮ 암갈색사질점토
⑯ 갈색사질토
⑰ 갈색사질토(입자가굵음)
⑱ 암갈색사질토
⑲ 흑갈색사질토
⑳ 갈색사질토
㉑ 갈색사토(모래층)

우물右 - 1.황갈색점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황갈색사토
4.회갈색사토
5.흑갈색사질토+갈색점질토
6.갈색점질토
7.회갈색사질토+적갈색사질토
8.암갈색점질토
9.회갈색점질토
10.암갈색점질토
11.암갈색사질점토
12.황갈색사토
13.회갈색사토
14.갈색사질점토
15.암갈색사질점토
16.암황갈색사토
17.갈색사질점토
18.암갈색점질토
19.황갈색점질토
20.암갈색점질토
21.암갈색사질토
22.암갈색사질점토
23.황갈색점질토
24.갈색점질토
25.암갈색사질토
25-1.황갈색점질토
26.암갈색사질토
26-1.암갈색사질점토
27.암갈색사질토
28.적갈색사질점토
29.암갈색사질토
30.적갈색사질점토
31.암갈색사질토
32.회색점질토

우물左 - 1.황갈색점질토
2.암갈색사질점토
3.황갈색점질토
4.회갈색점질토+갈색사질토
5.회갈색사질점토
6.회갈색사질점토
7.암갈색사질토
8.회갈색점질토
9.황갈색점질토
10.암갈색사질점토
11.회갈색사질점토
12.암갈색사질점토
12-1.갈색점질토
13.갈색점질토(암갈색사질토소량포함)
14.암갈색사질토
15.적갈색사질점토
16.암갈색사질점토
17.갈색사질점토
18.갈색사질토
19.흑갈색사질토

우물내부 토층 - a.회갈색점토
b.회갈색점토(갈색사질토소량포함)
c.회황갈색점토
d.암갈색사토
e.암갈색사토(황갈색점토소포함)
f.황갈색사토
g.갈색사질점토
h.암갈색사토(황갈색사토소량포함)
i.적갈색사토
j.암갈색사토
k.회색점질토
l.황갈색사질점토
m.회색사질점토
n.회색점질토
o.회색점질토
p.회색사질점토
q.회갈색사토

도면 84.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우물 유구

4. 우물

1) 1호 우물

(1) 유구(도면 84, 사진 137·138)

평면 '∩'자형을 이루는 능선인 가구역과 나구역 사이 형성된 곡부 중앙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직경 65㎝ 내외의 크기의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축조방법은 먼저 곡부퇴적토에서 시작해 곡부퇴적토는 이단굴광하여 넓게 굴광하고 기반암풍화층이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굴광이 좁아지는 上廣下狹形의 이단굴광구조로 굴착하였다. 굴광면에는 부분적으로 평면 장방형으로 너비 20㎝정도의 굴착도구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벽체는 주로 횡평적하여 원통형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석재는 대부분 한쪽 면을 다듬은 할석재이나 일부 천석재도 사용하였다. 벽체와 굴광면 사이는 점토와 사질토를 겹겹이 다져넣었으며, 부분적으로 폐토기와 할석재를 섞어 넣기도 하였다. 우물 바닥은 굴광 바닥면에서 약 170㎝ 위에 마련하였는데, 중앙에 판석재를 놓고 주위를 소형석재를 두른 구조이다.

출토유물로는 우물 내부토와 굴광면 다짐토 내에서 황갈색과 회색계 연질의 대부완, 대옹구연부편, 석제파수, 지석 등이 확인되었다.

(2) 유물

① 대부완(도면 85-2, 사진 139-①)

대각단은 멸실되었으며 신부와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은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띤다. 구연부는 일그러졌으며 외저면에는 깎기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7.2㎝, 복원구경 14.6㎝

② 대각편(도면 85-5, 사진 139-⑤)

신부바닥과 대각의 1/2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은 탁한 황색(2.5Y 6/4)을 띠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을 띤다. 대각은 외반한다. 현고 2.0㎝, 복원각경 8.6㎝

③ 대각편(도면 85-6, 사진 139-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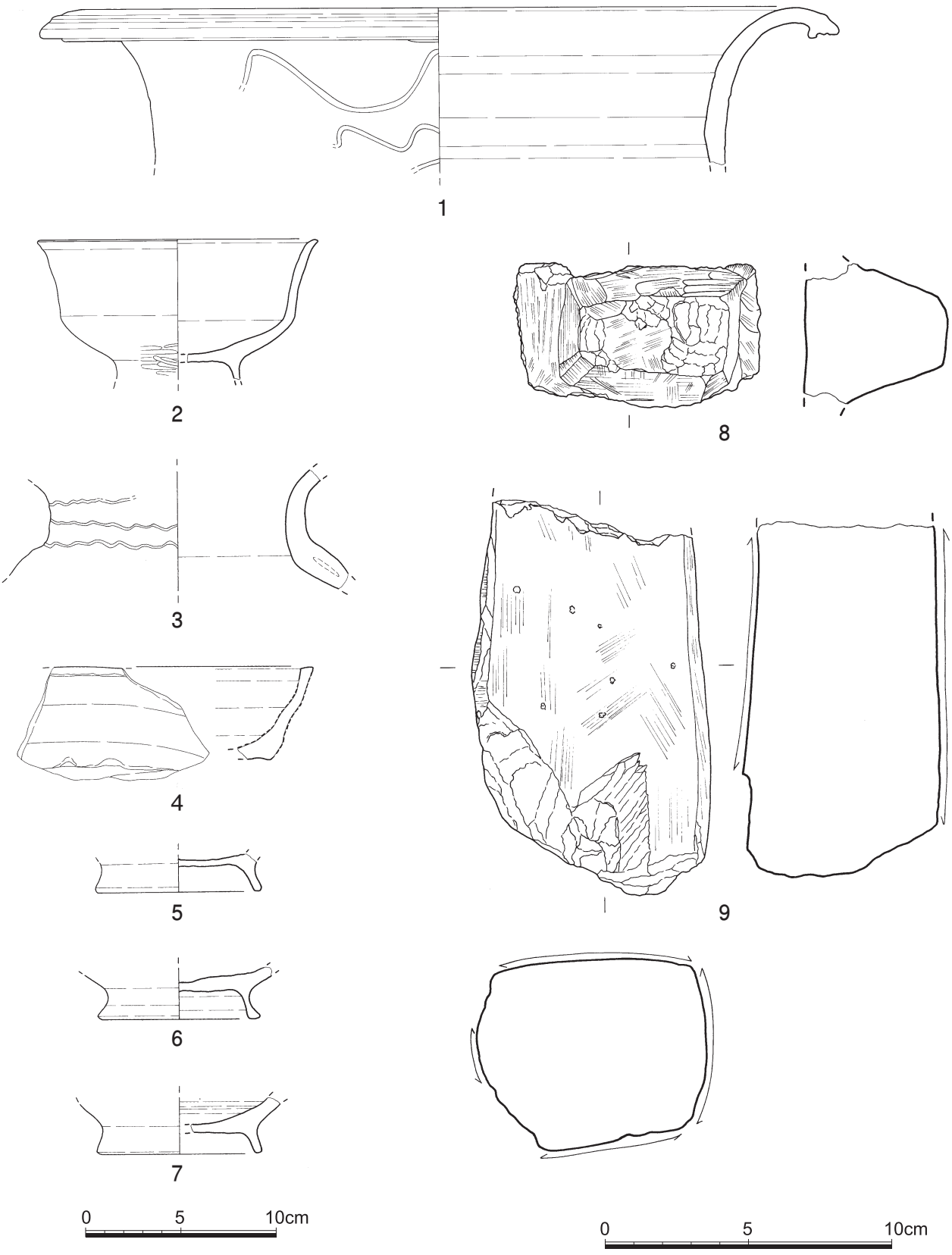
신부바닥과 대각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내외면은 회색(5Y 5/1)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과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신부에 비해 대각은 두께가 얇은 편이며 외반한다. 현고 2.8㎝, 복원각경 8.0㎝

④ 대각편(도면 85-7, 사진 139-⑦)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띤다. 대각은 외반한다. 현고 3.0㎝, 복원각경 8.8㎝

⑤ 대옹 구연부편(도면 85-1, 사진 139-②)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소성도가 낮은 경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과 백색사립 기타 잡물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회색(5Y 6/1)을 띠고 속심은 회흑색이다. 구연은 크게 외반하며 경부외면에는 3조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현고 8.4㎝, 복원구경 38.0㎝



도면 85.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우물 출토유물

⑥ 호 경부편(도면 85-3, 사진 139-⑥)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외면은 암회색(N 3/)이나 자연유로 인해 흑색을 띠며, 내면은 회색, 속심은 회갈색을 띤다. 크고 작은 기포가 많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기면이 고르지 못하며 경부외면에 3조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현고 6.4㎝

⑦ 반(도면 85-4, 사진 139-③)

전체기형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기면이 박리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고, 내외면, 속심 모두 탁한 황색(2.5Y 6/3)을 띤다. 현길이 5.0㎝

⑧ 석제품(도면 85-8, 사진 139-⑧)

납석 재질의 석제품으로 손잡이부분만 남아있다. 손잡이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全面이 마연되어 있다. 현길이 5.0㎝, 현폭 8.5㎝, 두께 5.0㎝, 무게 155g

⑨ 지석(도면 85-9, 사진 139-⑨)

암질은 유문암으로 3면은 치밀하게 마연되었으며 1면은 일부만 약하게 마연되었다. 현길이 12.6㎝, 폭 8.0㎝, 두께 6.9㎝, 무게 1,225g

D. 고려시대

1. 주거지

총 5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로 보아 동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해발 36~38m 사이의 비교적 완만한 사면에 위치하며 풍화암반을 'L'자형으로 파고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2호에서 5호 주거지는 서쪽 등고선 방향으로 연이어 겹쳐 있어 증축 또는 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과 구들시설, 배수로, 저장공, 주공 등이 확인된다. 아궁이시설은 1호와 4호에서 나타나는데, 조선시대 주거지내 아궁이시설처럼 한쪽 벽면을 파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중앙을 약간 굴광하였다. 구들시설은 4호에서만 나타나는데, 반타원형 수혈의 아궁이와 터널 형태의 구들이 결합되어 있다. 배수로는 1호와 3호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등고선 상으로 높은 장벽에 붙여 설치되어 있다. 2호에서는 지름 30㎝이상의 저장공 3개가 단벽을 따라 줄지어 확인된다. 유물은 흑색 내지 흑회색, 회색, 흑갈색을 띤 연질 토기발, 자배기, 호, 옹 등이 주로 출토되며, 경질 옹 및 병, 잔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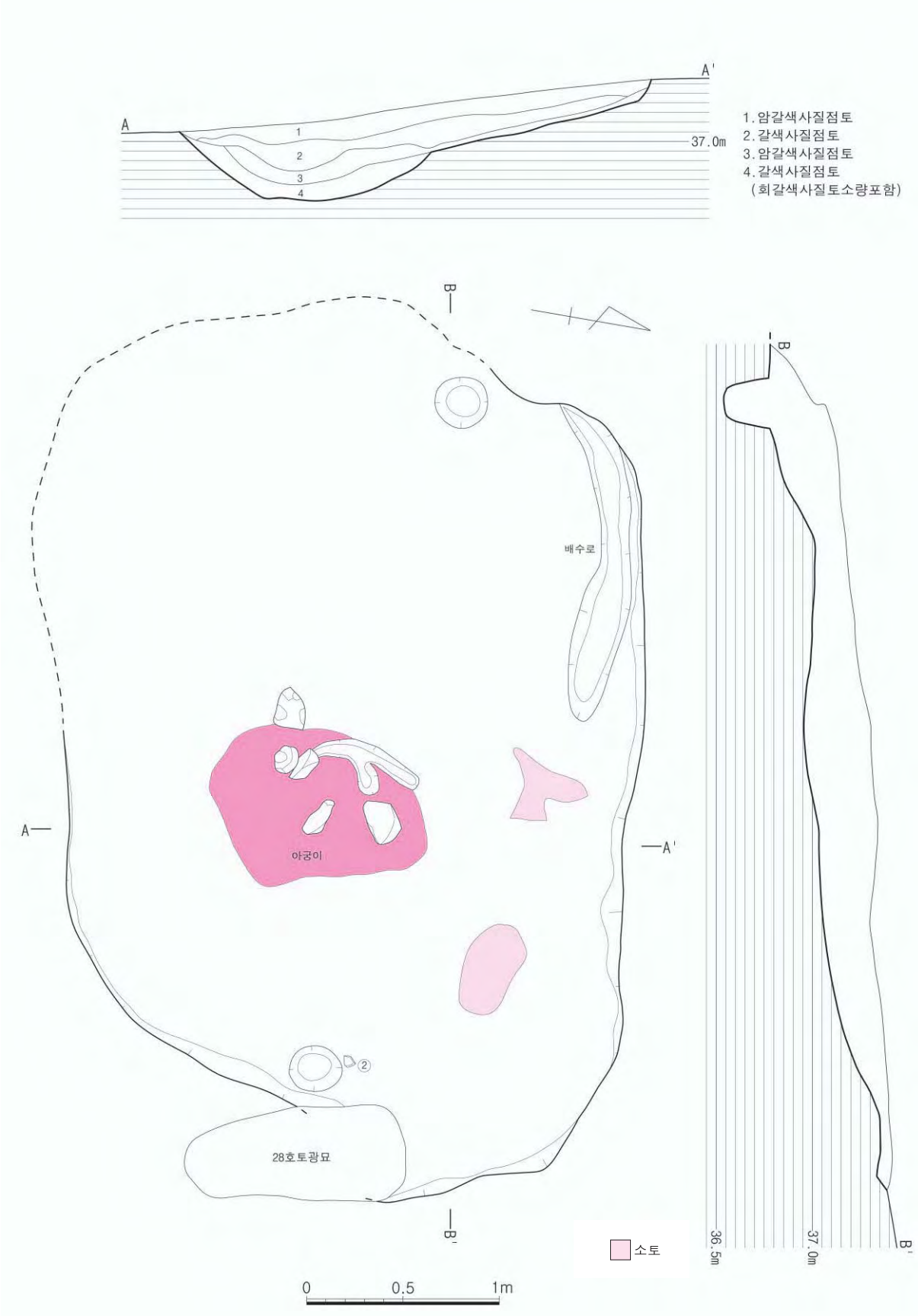
(1) 유구(도면 86, 사진 140·141)

1호 주거지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단벽에 조선시대 28호 토광묘가 중복되어 있고, 북벽에 잇대어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 북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49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갱신세층(적갈색 점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과 중복 유구들로 인해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고, 서단벽과 남장벽 대부분이 유실되었으며 아궁이를 포함한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층위는 아궁이를 중심으로 퇴적토가 잔존하는데 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가 교차하여 퇴적되어 있다. 아궁이 내부에는 재가 함께 포함된 층이며 'U'자형으로 넓게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0°-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잔존규모는 442×287×12㎝이다. 굴착방식은 갱신세층을 수직으로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2개, 아궁이 1개, 배수구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으로 보이며 동단벽(25×28×18㎝)과 서단벽(23×28×15㎝)에 잇대어 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아궁이는 주거지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조성되었는데, 규모 115×80×35㎝이며, 조성방식은 수혈을 판 후 지각을 양벽에 세웠고 그 뒤를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부에 5개의 작은 할석들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배수구는 북장벽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시설되었으며 잔존 규모는 170×25×10㎝로 벽면을 따라 동쪽 모서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 86.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주거지 유구

유물은 도기 저부편·경부편·동체부편이 내부토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저부편(도면 87-3, 사진 141-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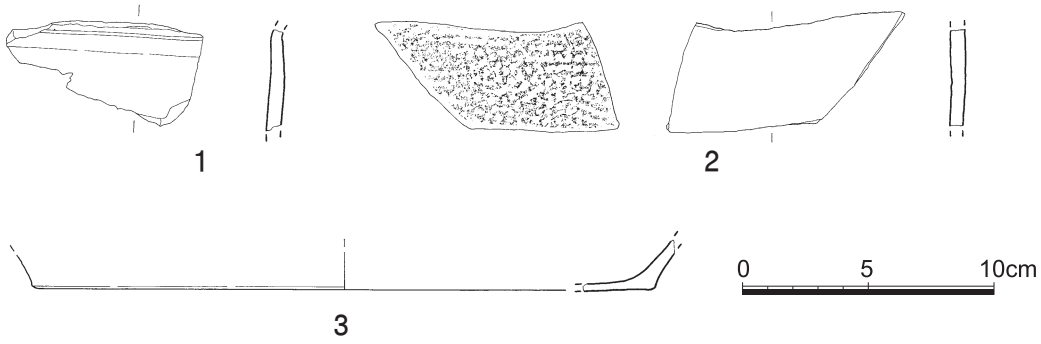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을 비롯한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색(N 3/), 내면은 암갈색(2.5Y 3/1)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현고 2.0㎝, 복원저경 25.0㎝

② 도기 경부편(도면 87-1, 사진 141-⑤)

경부,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으며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경부 바로아래에 가느다란 돌대가 돌아간다. 현길이 4.1㎝

③ 도기 동체부편(도면 87-2, 사진 141-⑥)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암회색(N 3/)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외면은 격자타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일부가 남아있어 확인할 수 없으며, 내면에는 격자문의 내박자가 선명하다. 현길이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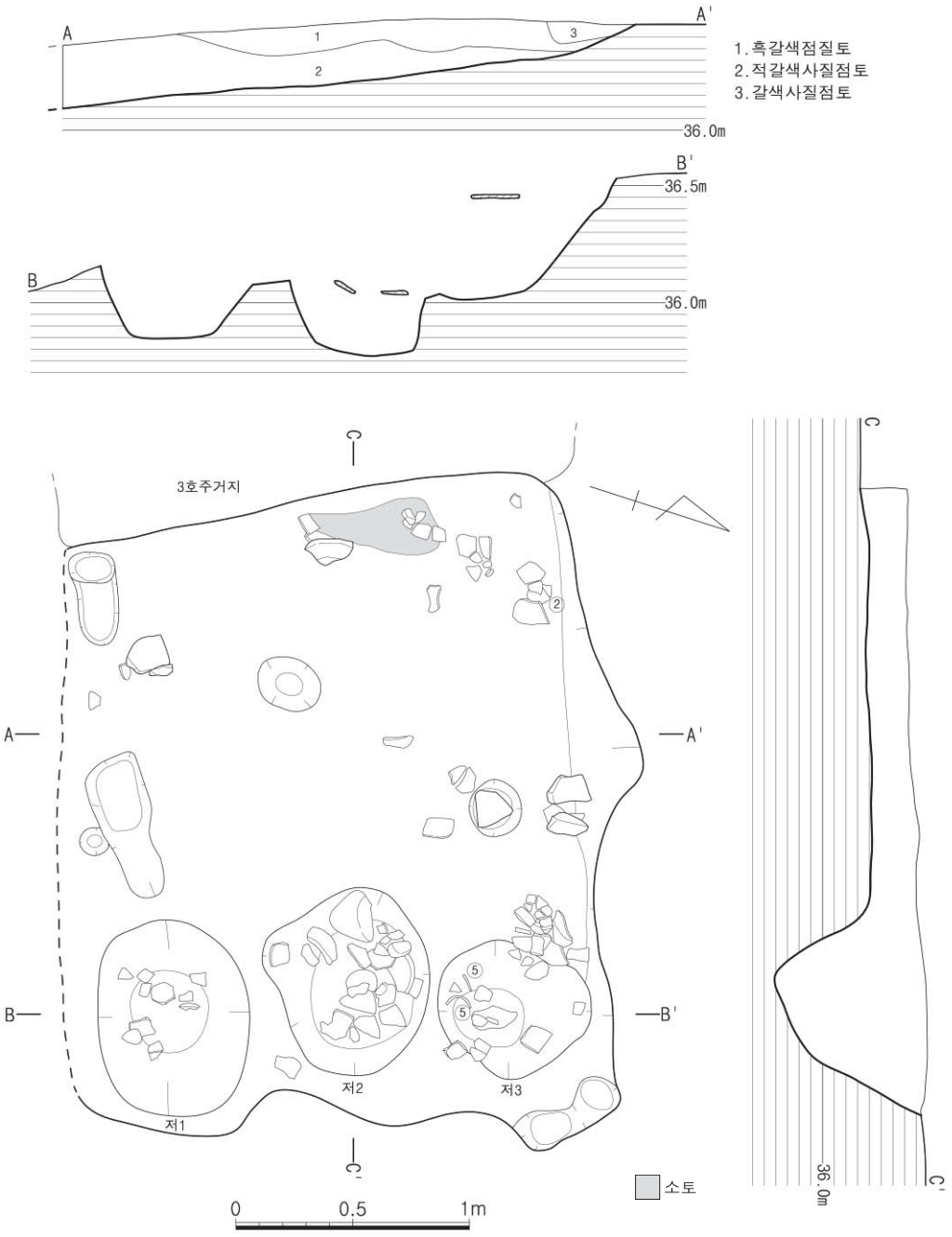
도면 87.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88, 사진 142·143)

2호 주거지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고려시대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고, 동북쪽 3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49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하단부만 남은 상태이다. 서쪽 윤곽선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3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층위는 흑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은 암반풍화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2°-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규모는 268×239×31㎝(1.12:1)이다. 굴착방식은 벽선에서 바닥으로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도면 88.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유구

내부시설은 주공 5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중앙에 대칭으로 양 장벽에서 약간 떨어져 주주공 2개가 배치되어 있다. 북쪽 것은 내부에 17×15×5㎝정도의 판석을 주공 아래에 놓았으며 크기는 24×21×17㎝, 남쪽 것은 보조기둥이 있으며 60×27×10㎝이다. 북장벽 동쪽 모서리에 2개의 주공이 잇대어 있는데 주공의 각도가 모두 수직을 이루고 있어 먼저 것을 폐기하고 다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동벽을 따라 3개가 열지어 배치되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62×10㎝, 70×32㎝, 73×30㎝로 내부에는

도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어 저장용기를 내부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분청 저부편, 도기호, 도기호 구연부편·경부편, 도기반, 편병 저부편, 도기 저부편, 파수편, 암키와편이 저장공 내부 및 서북쪽 모서리에서 밀집되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분청 저부(도면 89-1, 사진 144-①)

저부만 1/2 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외측에 비해 안쪽을 깊게 깎아냈고 굽안쪽면에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로 누른자국이 있다. 태토는 치밀한 편이며 유색은 회녹색을 띠는데 산화되었다. 현고 2.8㎝, 저경 5.0㎝

② 병 구연부편(도면 89-2, 사진 144-②)

구연부분이 1/3정도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5/)을 띤다. 현고 2.6㎝, 복원구경 11.0㎝

③ 병 구연부편(도면 89-3, 사진 144-③)

구연부분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색(N 3/)을 띠나 자연유가 부착된 부분은 광택이 나는 흑색이다. 현고 1.8㎝

④ 호 구연부편(도면 89-4, 사진 144-④)

구연부만 1/4 가량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띤다. 구연내면에 소성시 부착된 이물질이 있다. 현고 3.2㎝, 복원구경 15.0㎝

⑤ 호 구연부편(도면 89-5, 사진 144-⑤)

구연부분만 1/4 가량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색(2.5Y 6/3)을 띠며 내면은 암회황색(2.5Y 4/2), 속심은 흑갈색을 띤다. 현고 2.2㎝, 복원구경 14.0㎝

⑥ 호 구연부편 (도면 89-6, 사진 144-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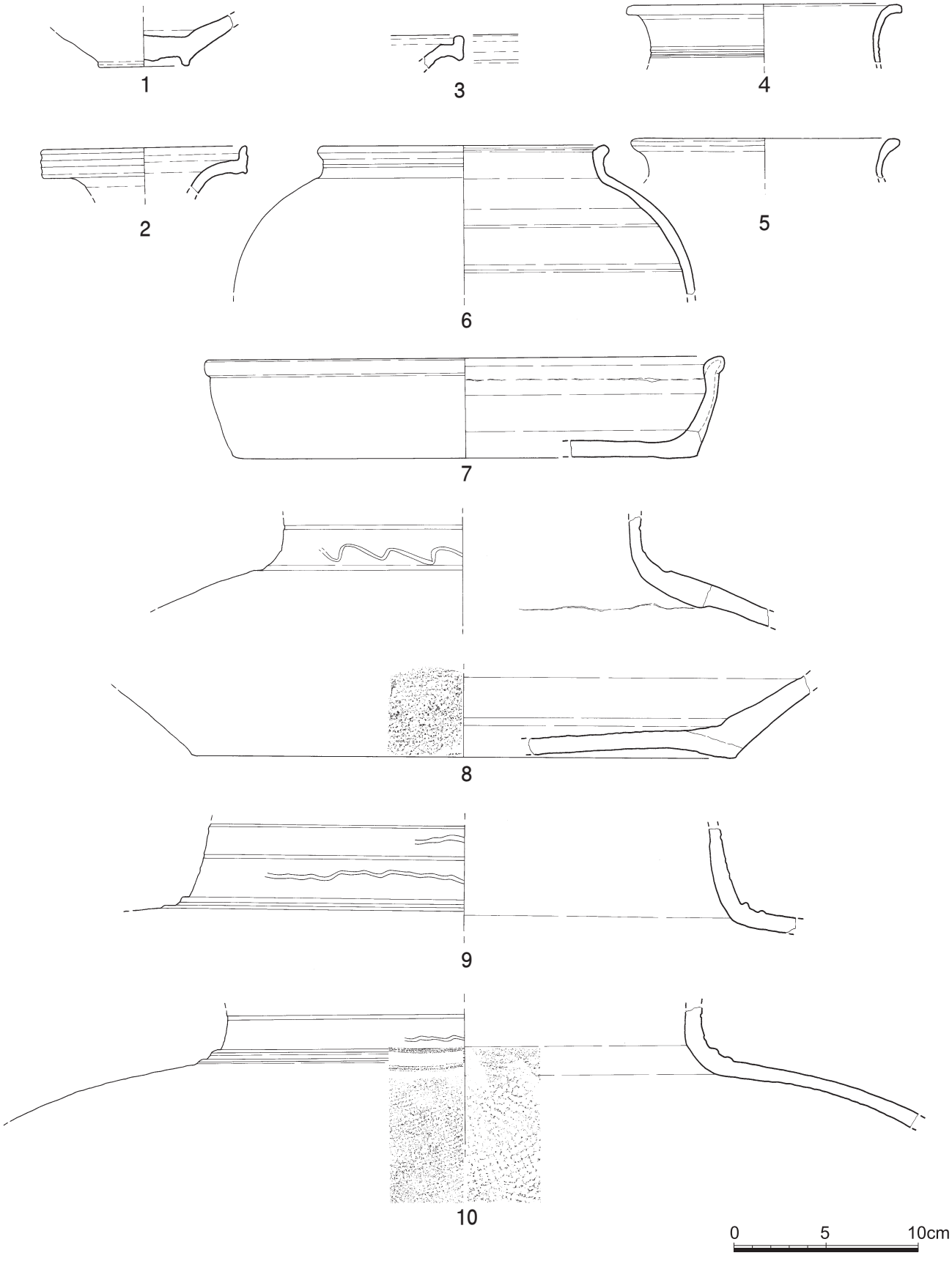
구연과 동상위부분이 1/3 가량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은 편으로 태토에는 운모립과 백색세사립 등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6/)을 띤다. 경부가운데에 침선을 1조 돌렸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고 8.1㎝, 복원구경 15.6㎝

⑦ 호(도면 89-8, 사진 144-⑧)

경부와 저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굵은 석영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색(N 3/)을 띠고 내면은 회색(N 5/)을 띤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凹面을 두어 경계면을 뚜렷이 하였으며 경부외면에 침선과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견부내면에는 점토접합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저부의 동하단부 내외면과 바닥내면에 격자타날의 흔적이 있다. 경부 현고 6.0㎝, 저부 현고 4.6㎝, 복원저경 30.2㎝

⑧ 호 경부편(도면 89-9, 사진 144-⑨)

대호로 추정되며 경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암회색(N 3/) 경질이며 속심은 암적갈색을 띤다. 태토는 백색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경부에서 견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2중의 돌대를 돌렸고 경부에는 침선과 파상문을 번갈아 시문하였다. 동체외면에는 소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현고 5.7㎝



도면 89.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⑨ 호 경부편(도면 89-10, 사진 144-⑩)

대호로 추정되며 경부와 견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소량의 굵은석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모두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2중의 돌대를 돌렸고 경부외면에는 침선과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동체외면에는 소격자문으로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격자문의 박자흔이 선명하다. 현고 7.2㎝

⑩ 반(도면 89-7, 사진 144-⑥)

전체 기형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굵은 석립이 소량 섞여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N 5/)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말아붙였으며 구연내면에는 점토접합흔이 잘 남아있다. 고 5.7㎝, 복원구경 19.6㎝, 복원저경 17.2㎝

⑪ 편병 저부편(도면 90-4, 사진 145-③)

저부의 가장자리부분과 동하단부 일부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동체부가 일부여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편병으로 추정된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암적갈색을 띤다. 일부에 기포가 발생해 기면이 부풀어 올랐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현고 4.5㎝, 저경 7.8㎝

⑫ 편병 저부편(도면 90-6, 사진 145-⑤)

편병의 저부로 추정되며 현재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도 양호하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7.5Y 6/1)을 띤다. 현고 4.1㎝, 복원저경 7.1㎝

⑬ 도기 저부편(도면 90-1, 사진 145-①)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이 섞였으며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띤다. 바닥과 동체를 접합한 후 접합부 내외면을 정면하였다. 바닥과 동체의 내면에는 물레의 흔적이 있다. 현고 10.8㎝, 복원저경 21.3㎝

⑭ 도기 저부편(도면 90-2, 사진 145-②)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과 굵은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암회색(N 3/)을 띠고 내면은 회색(N 4/), 속심은 암자회색을 띤다. 바닥과 동체 접합 후 내외면을 정면하였다. 현고 6.8㎝, 복원저경 23.2㎝

⑮ 도기 저부편(도면 90-3, 사진 145-⑥)

병이나 호의 저부로 추정되며 1/3가량이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있다. 현고 2.9㎝, 복원저경 12.1㎝

⑯ 도기 저부편(도면 90-5, 사진 145-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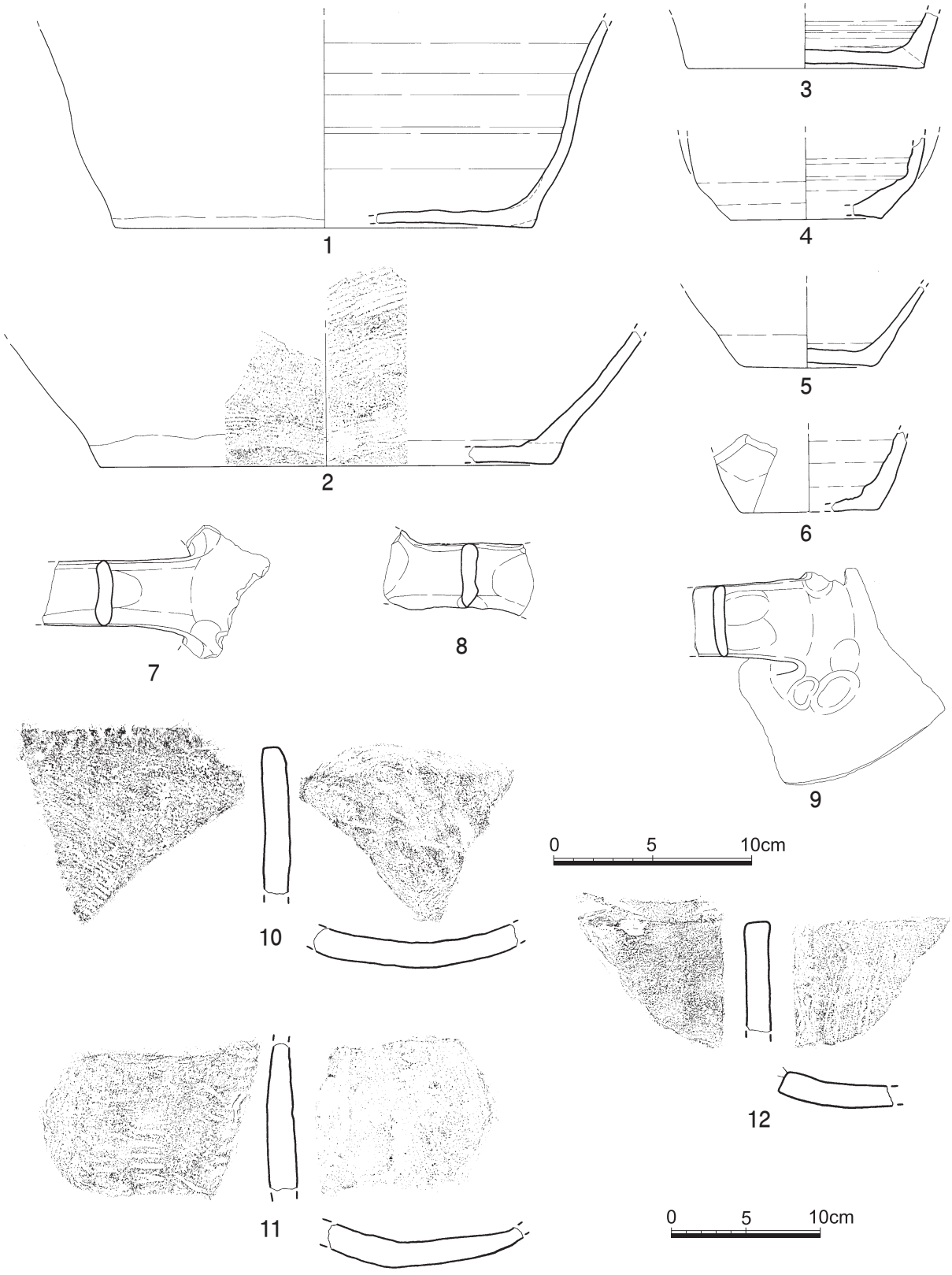
저부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이 섞였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 암갈색이다. 현고 4.2㎝, 저경 6.9㎝

⑰ 도기 파수편(도면 90-7, 사진 145-⑦)

대상파수편이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석영립 등이 섞여있다. 내외면 모두 탁한 황색(2.5Y 6/3)을 띠고 속심은 등색이다. 현파수길이 9.8㎝, 파수폭 3.4㎝, 파수두께 0.9㎝

⑱ 도기 파수편(도면 90-8, 사진 145-⑧)

대상파수편이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모두 탁한 등색(7.5YR 6/4)을 띠고



도면 90.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속심은 황색이다. 현파수길이 7.6㎝, 파수폭 3.2㎝, 파수두께 0.8㎝

⑲ 도기 파수편(도면 90-9, 사진 145-⑨)

대상파수가 부착된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으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였으나 점성이 강한 태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회황색(2.5Y 7/2)을 띠는데 속심은 회흑색이다. 파수외면과 동체와의 접합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현길이 11.1㎝, 파수폭 3.6㎝, 파수두께 0.6㎝

⑳ 암키와(도면 90-10, 사진 145-⑩)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비교적 큰 석립이 포함된 황갈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박락되어 문양은 희미하나 등면 일부에서 사선문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배면은 대부분 표면이 박락되어 포목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부분도 마모되어 와도흔 및 분할계선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12.0㎝, 현최대폭 14.5㎝, 두께 1.7㎝

㉑ 암키와(도면 90-11, 사진 145-⑫)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포함된 회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표면이 일부 박락되어 어골문계로 추정되는 문양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문양판은 구별되지 않는다. 배면에는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며 올수는 대략 10올 이상으로 추정된다. 배면 중앙에 점토를 덧댄 흔적인 점토합흔이 종방향으로 확인되며 측면와도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9.7㎝, 현최대폭 12.5㎝, 두께 2.0㎝

㉒ 암키와(도면 90-12, 사진 145-⑪)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색 경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물손질 처리되어 무문이다. 배면일부에서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올 수는 알 수 없다. 부분적으로 빗질흔으로 보이는 정면흔이 측면에 인접해서 확인된다. 측면 와도흔은 4㎜가량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은 뒤 절단했다. 현최대길이 8.0㎝, 현최대폭 9.5㎝, 두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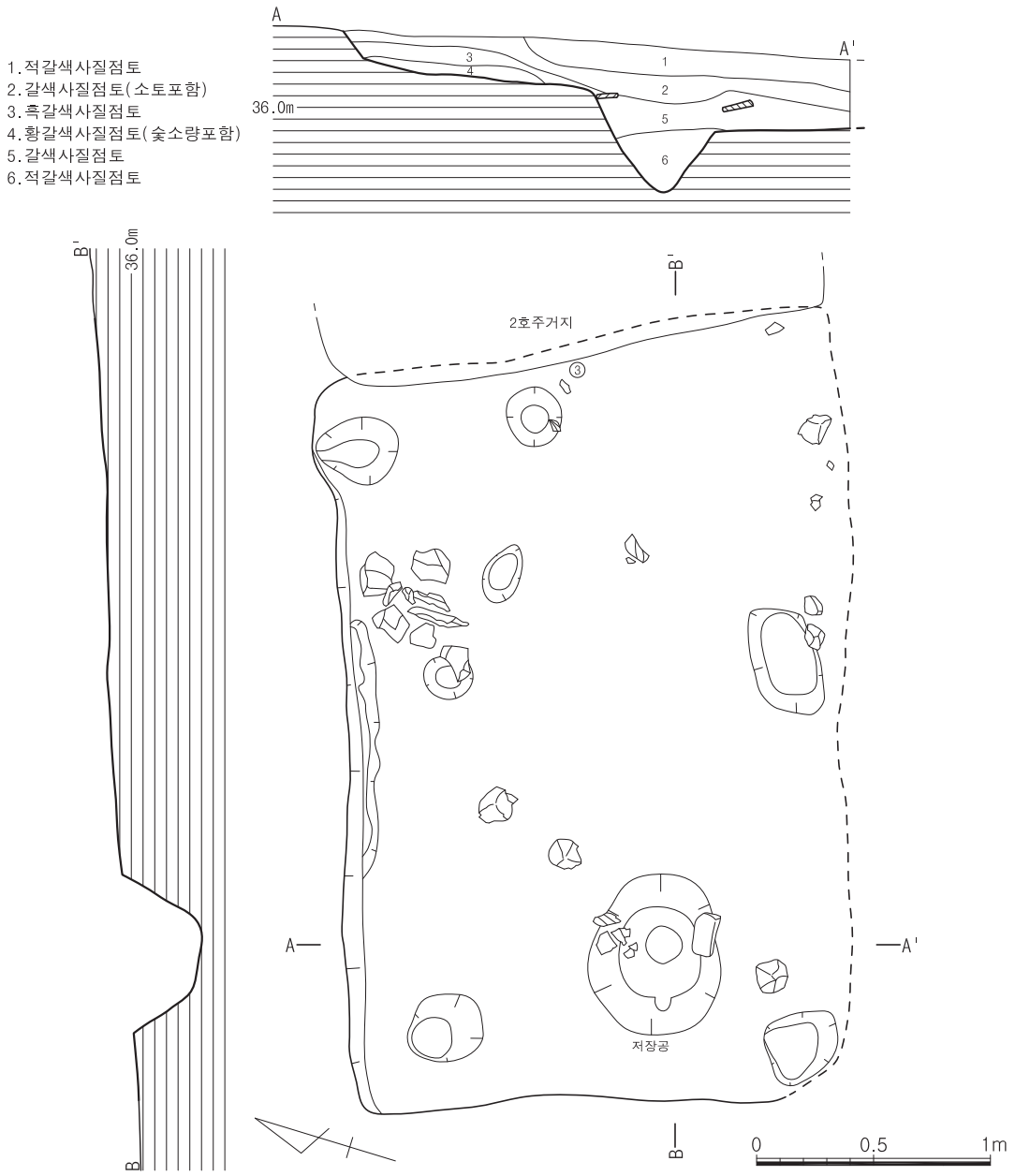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91, 사진 146·147)

3호 주거지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고려시대 2호 주거지와 중복, 서쪽은 고려시대 4호 주거지와 중복되었으며, 북서쪽 2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수혈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34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남장벽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동단벽은 2호에 의해 파괴되었고, 서단벽은 4호의 동벽을 파괴한 것으로 보아 4호→3호→2호 순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73°-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잔존규모는 332×211×13㎝이다. 굴착방식은 벽선에서 바닥으로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 저장공 1개, 배수구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북장벽 서쪽 모서리에 32×29×42㎝, 동쪽 모서리에 35×29×12㎝, 남장벽 서쪽 모서리에 30×30×29㎝, 동벽 중앙에 26×24×14㎝가



도면 91.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주거지 유구

배치되어 있다. 주공의 배치상으로 보면 남장벽 동쪽 모서리에는 주공없이 기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장공은 서단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67×55×50㎝로 시설하였다. 배수구는 북장벽 중앙에 벽면에 잇대어 시설되었으며, 규모는 115×15×10㎝로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도기 구연부편·동체부편, 암키와, 석촉이 저장공 내부 및 남장벽 동쪽 모서리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구연부편(도면 92-2, 사진 147-⑦)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립 등 사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2.5Y 5/3)을 띠고 내면은 탁한 갈색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접어 붙였으며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단면이 역삼각형을 이룬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희미하다. 현고 6.8㎝, 복원구경 33.6㎝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92-1, 사진 147-⑥)

대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부분만 1/4가량 남아있다. 암회청색(5PB 3/1) 경질이며, 태토에 백색세사립 등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부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온 구연은 밖으로 꺾었으며 구순내면에 도구로 사선모양의 문양을 넣었다. 경부에는 파상문과 침선을 각각 3조씩 시문하였다. 경부내면에는 물레흔이 선명하다. 현고 8.4㎝, 복원구경 38.6㎝

③ 도기 저부편(도면 92-4, 사진 147-⑩)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으로 태토는 점성이 다소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탁한 황등색(10YR 7/4)을 띠고 내면은 갈회색을 띤다. 현고 3.3㎝, 복원저경 25.5㎝

④ 도기 저부편(도면 92-3, 사진 147-⑨)

회색(N 4/) 경질의 도기 저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선된 점토이다. 기벽은 평평한 저부에서 직사선으로 뻗어올라간다. 바닥내면 가장자리에 소성시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으며 동체내면에는 점토접합흔이 남아있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 후 접합면을 격자문양의 타날판으로 다듬었다. 현고 10.1㎝, 복원저경 22.1㎝

⑤ 도기 동체부편(도면 92-5, 사진 147-⑧)

회색(N 4/)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사립이 약간 섞여있다. 외면은 소격자문으로, 내면은 대격자문으로 타날되었다. 현길이 11.4㎝

⑥ 암키와(도면 92-6, 사진 147-⑪)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사질점토이며, 회색 연질소성 암키와 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등면은 무문이며, 물손질 정면되었고, 배면에는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현최대길이 9.0㎝, 현최대폭 6.3㎝, 두께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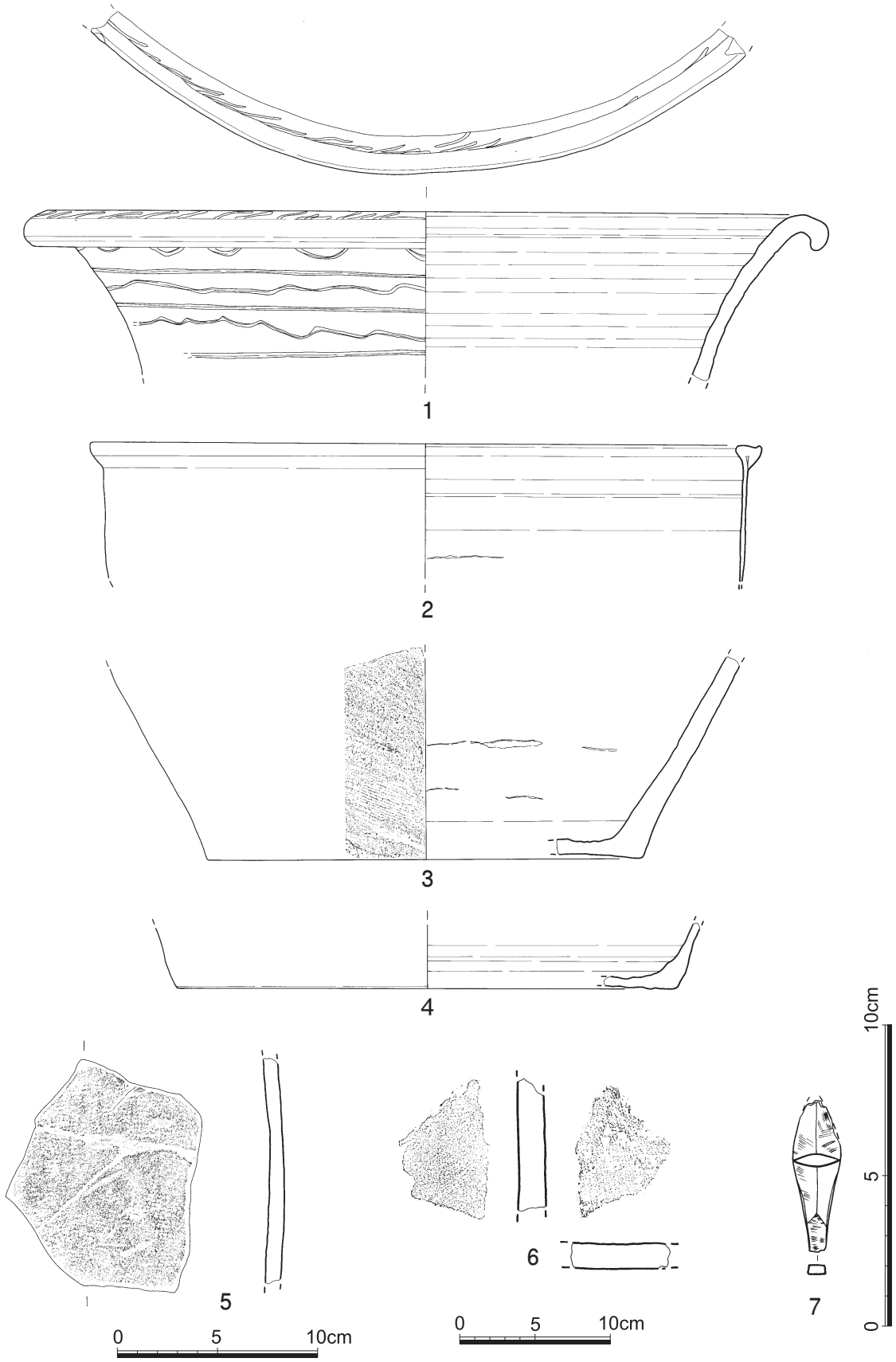
⑦ 석촉(도면 92-7, 사진 147-⑫)

유경식 석촉으로 촉신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제로 암청회색을 띤다. 신부의 단면은 菱形이고, 경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5.0㎝, 폭 1.6㎝, 두께 0.5㎝, 무게 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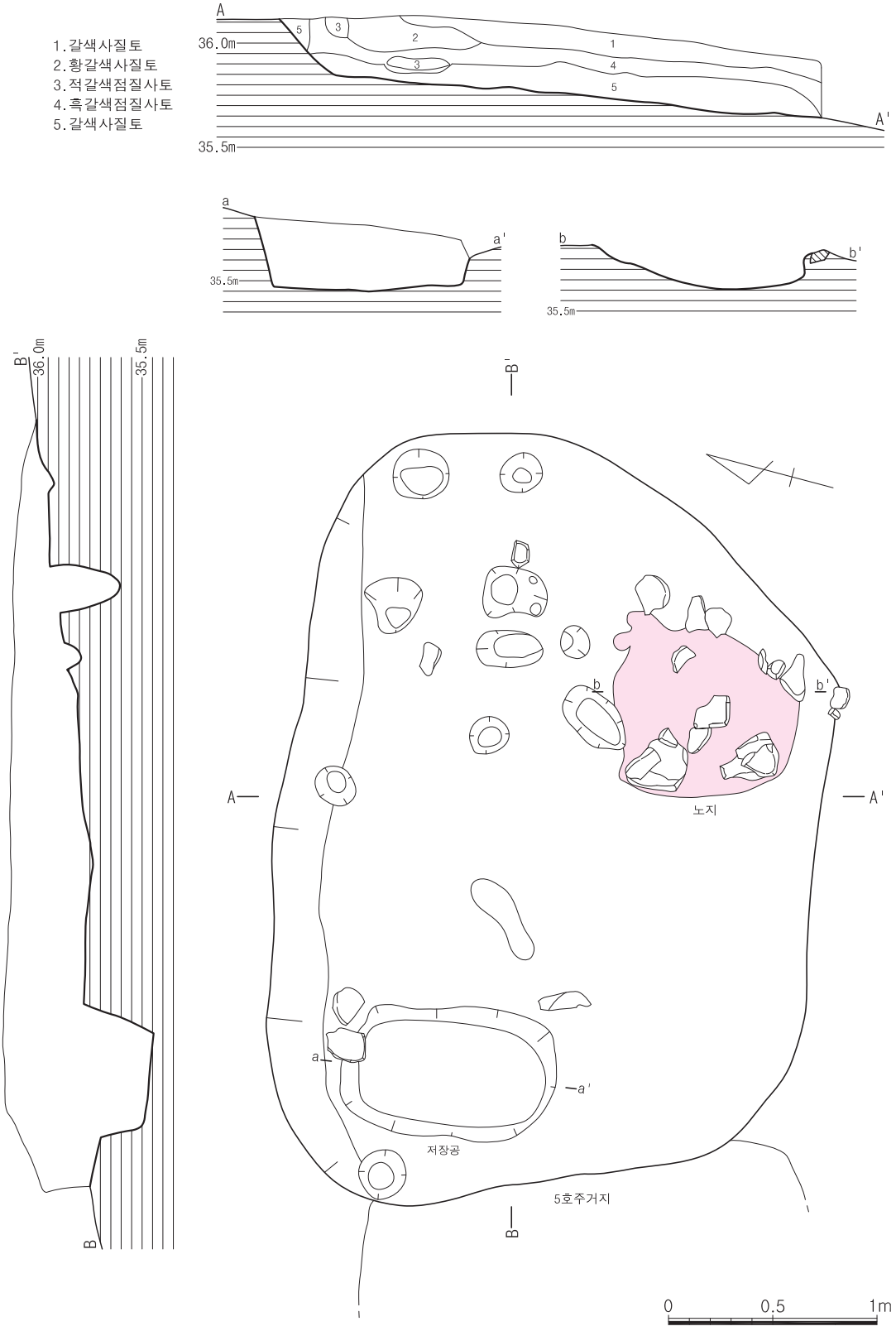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93, 사진 148·149)

4호 주거지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고려시대 3호 주거지와 중복, 서쪽은 고려시대 5호 주거지와 중복되었으며, 북쪽 2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수혈, 북서쪽 1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수혈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13m이다.



도면 92.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93. 2지점 나구역 고려 4호 주거지 유구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남장벽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동단벽은 3호에 의해 파괴되었고, 서단벽은 5호의 동벽을 파괴하였다. 중복 상태로 보아 5호→4호→3호→2호 순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흑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고, 바닥은 남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5°-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규모는 360×257×31㎝이다. 굴착방식은 벽선에서 바닥으로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5개, 구들을 포함한 아궁이 1개, 저장공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북장벽 서쪽 모서리에 24×23×22㎝, 북장벽 중앙에 19×18×21㎝, 북장벽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27×26×29㎝, 북장벽 동쪽 모서리에 26×23×14㎝, 아궁이와 북장벽 사이에 30×20×34㎝에 있다. 주로 북장벽에 잇대어 위치하며 그 아래에 정형성없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둥의 위치를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아궁이는 남장벽에서 동단벽쪽으로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하는데, 규모 105×115×20㎝로 화구부쪽으로 경사지게 올라가 구들부와 연결되어 있다. 구들은 고래등에 세웠던 돌이 빠진 흔적만이 확인되었다. 저장공은 서단벽에서 북장벽에 치우쳐 규모 103×62×33㎝이며 평면형태 말각장방형으로 시설하였다.

유물은 시루편, 도기 동체부편·저부편·파수편, 암키와, 석제용기, 불명철기 등이 저장공 내부 및 주변, 노지 주변의 내부토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저부편(도면 94-1, 사진 150-①)

저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5/1)을 띠는 경질로 태토에는 석영립, 장석립, 백색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동체외면은 소격자문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도 대격자문의 내박자가 남아있다. 현고 5.5㎝, 복원저경 28.7㎝

② 도기 저부(도면 94-2, 사진 150-②)

저부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밝은 황색(2.5Y 7/4)을 띠고 속심은 흑색이다. 바닥외면의 가운데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다. 현고 2.7㎝, 저경 6.4㎝

③ 시루편(도면 94-3, 사진 15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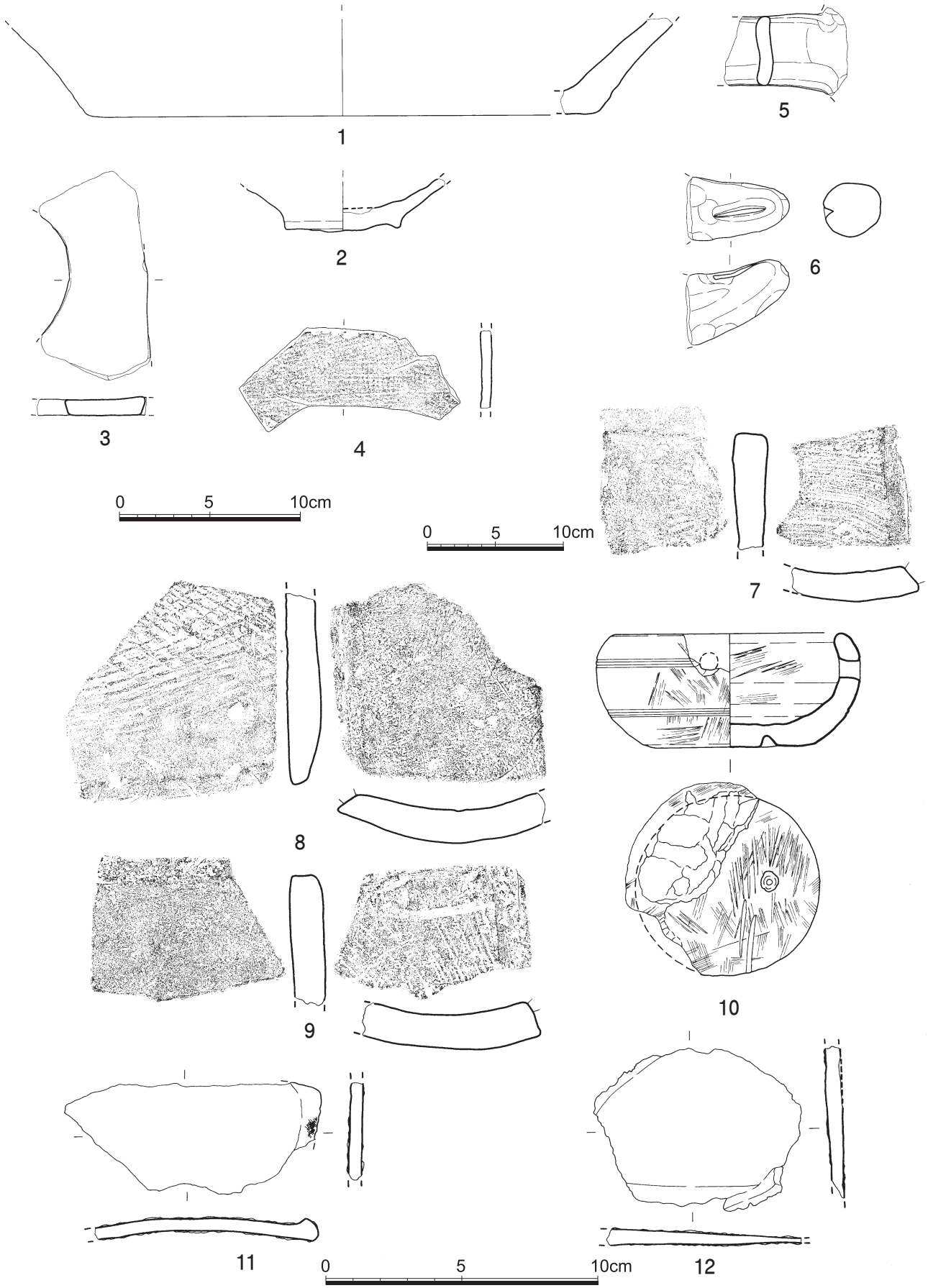
시루 바닥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4/1)을 띤다. 현재 구멍 2개의 일부가 남아있다. 현길이 11.7㎝, 두께 1.0㎝

④ 도기 동체부편(도면 94-4, 사진 150-④)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백색사립 등 세사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내외면은 회색(N 4/)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외면은 소격자문으로 타날되었고 내면은 대격자문으로 타날되었다. 현길이 5.8㎝

⑤ 도기 파수(도면 94-6, 사진 150-⑤)

등색(7.5YR 6/6)을 띠는 연질의 우각형 파수이다. 태토에는 운모립 등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파수 윗면 가운데에 길이 3.6㎝, 깊이 0.6㎝의 길쭉한 홈을 내었다. 파수길이 5.7㎝, 파수폭 3.9㎝



도면 94. 2지점 나구역 고려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⑥ 도기 파수편(도면 94-5, 사진 150-⑥)

대상파수편으로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영립 소량과 운모립,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회색(7.5Y 4/1)을 띤다. 현파수길이 6.8㎝

⑦ 암키와(도면 94-8, 사진 150-⑧)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사질점토이며, 황갈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상당부분 결실되어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등면에 사선문이 교차 시문되어 일부 사격자문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단일부는 물손질 정면되었다. 배면에는 성긴 포목흔이 관찰되나 대부분 박리되어 올수를 관찰하기 어렵다. 측면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0.7㎜가량이다. 현최대길이 14.5㎝, 현최대폭 14.5㎝, 두께 2.5㎝

⑧ 암키와(도면 94-9, 사진 150-⑨)

태토는 세사립이 일부 포함된 사질점토이며, 황갈색 연질소성 암키와이다. 상당부분 결실되어 좌상단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등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무문이며, 배면은 결실부분에서 일부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희미하여 올 수를 확인하기 어렵다. 배면 정면을 위한 빗질흔이 관찰되고 와통을 둘렀던 윤철흔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배면상단부에서 관찰된다. 측면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최대 1㎝폭으로 나타난다. 현최대길이 9.0㎝, 현최대폭 14.0㎝, 두께 2.7㎝

⑨ 암키와(도면 94-7, 사진 150-⑦)

태토는 세사립이 일부 포함된 사질점토로 비교적 정선된 태토이며, 황회색의 연질소성이다. 일부만 잔존하고 있으며, 등면에서 사선문이 일부 관찰되나 정면흔에 의해 대부분 지워져 정확한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배면에서는 포흔을 지우기 위한 빗질흔이 좌→우 방향으로 확인된다. 측면와도흔은 거의 전면에 가까울만큼 넓게 확인되고 있으며 약 1.2㎝가량이다. 현최대길이 8.2㎝, 현최대폭 9.3㎝, 두께 2.3㎝

⑩ 석제용기(도면 94-10, 사진 150-⑩)

소형의 납석제용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전체 기형을 알 수 있다. 全面을 마연하였다. 동상·하위에 각각 2조씩의 침선을 돌렸으며 남아있는 동상위부분의 침선에 면해 지름 0.6㎝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며, 다른 하나는 반파되었는데 간격으로 보아 구멍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닥에도 반투공된 구멍 하나가 남아있다. 고 4.2㎝, 복원구경 8.2㎝, 저경 6.4㎝, 무게 220g

⑪ 불명철기(도면 94-12, 사진 150-⑫)

板狀의 철제품으로 단부의 한쪽면을 가공하여 인부를 만들었다. 현길이 5.8㎝, 현폭 7.1㎝, 두께 0.6㎝, 무게 75g

⑫ 불명철기(도면 94-11, 사진 150-⑪)

板狀의 철제품으로 한쪽 면에 목질흔과 포흔이 있다. 현길이 3.6㎝, 현폭 8.3㎝, 두께 0.5㎝, 무게 78g

5) 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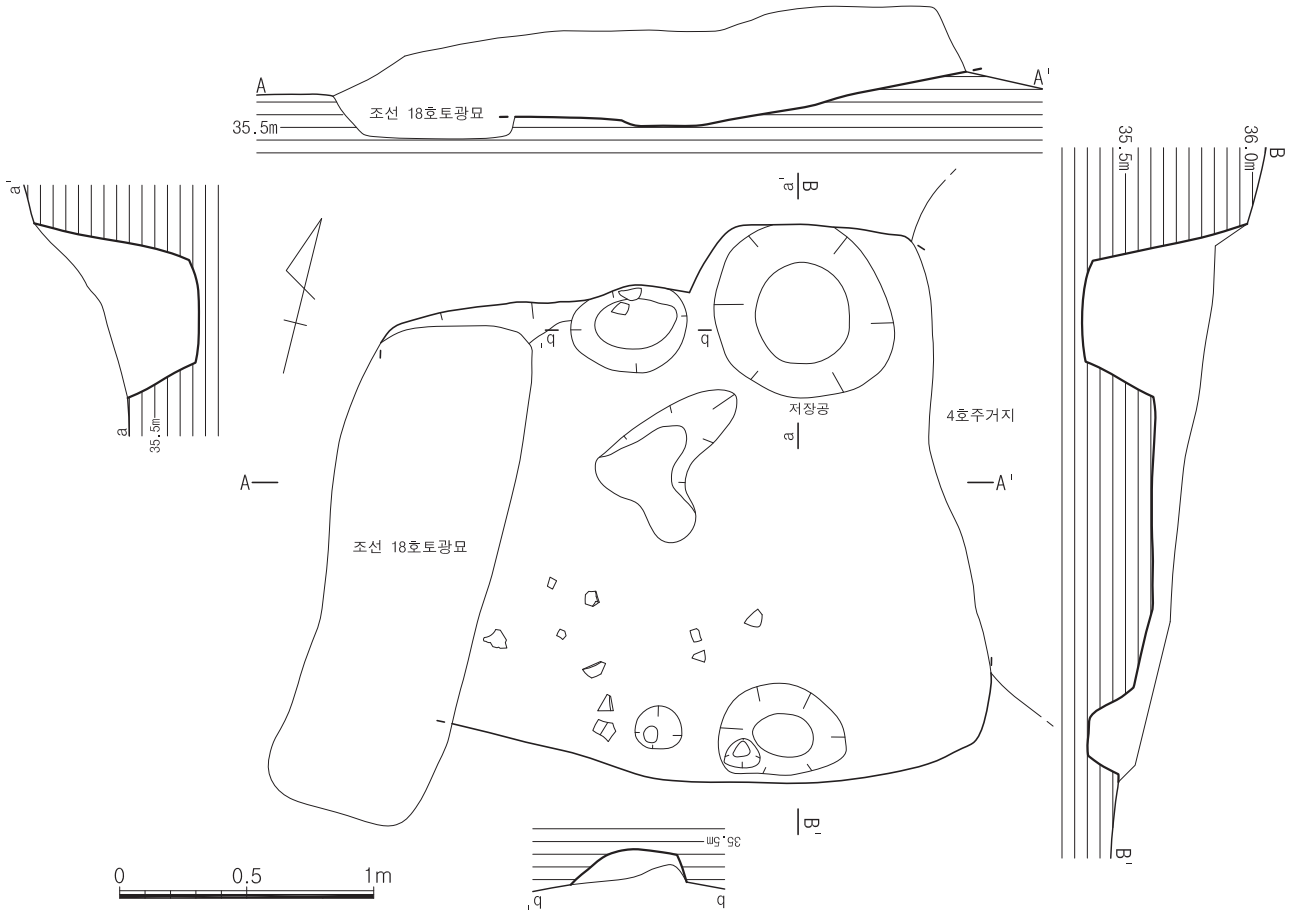
(1) 유구(도면 95, 사진 151·152)

5호 주거지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고려시대 4호 주거지와 중복, 서쪽은 조선시대 18호 토광묘와 중복되었으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98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 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동단벽은 4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고, 서단벽은 조선시대 1호 토광묘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76°-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잔존규모는 238×219×37㎝이다. 굴착방식은 벽선에서 바닥으로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 저장공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북장벽 중앙에 42×35×10㎝, 그 아래에 보조기둥이 있고 파손된 주공 1개, 남장벽 중앙에 25×20×15㎝, 그 동쪽에 45×37×25㎝가 위치하며 대체로 남북으로 대칭되는 배치를 보이고 있다. 주공 주변에 1개의 주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폐기 후 주변으로 기둥을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북장벽 동쪽에 치우쳐 있고, 규모는 68×64㎝이며 평면형태 원형으로 시설하였다.

유물은 도기 구연부편·경부편·동체부편·저부편, 시루편, 도기편병 동체부편, 암키와편, 지석 등이 주거지 내부 전면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도면 95. 2지점 나구역 고려 5호 주거지 유구

(2) 유물

① 도기 구연부편(도면 96-1, 사진 152-⑤)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2.5Y 5/3)이며 내면과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윗면에 홈을 돌렸다. 현길이 3.4㎝

② 도기 경부편(도면 96-2, 사진 152-⑥)

호의 경부편이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이다. 경부내면에 조으기흔이 보인다. 현고 4.0㎝

③ 시루 저부편(도면 96-5, 사진 153-②)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며, 태토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4/1)을 띤다. 바닥에 2개의 구멍 일부가 보인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다. 현고 6.25㎝, 복원저경 21.6㎝

④ 도기저부편(도면 96-4, 사진 153-①)

굽의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고운점토이며, 내외면은 명황갈색(7.5YR 5/6)을 띠며 속심은 명적갈색이다. 굽은 낮은 편으로 외측이 약하게 외경한다. 현고 1.3㎝, 복원저경 6.8㎝

⑤ 도기 저부편(도면 96-9, 사진 153-③)

저부의 1/4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토기부스러기와 사립이 섞여있다. 탁한 황등색(10YR 7/4)을 띤다. 동체 내외면으로 물레흔이 있다. 현고 8.2㎝, 복원저경 19.8㎝

⑥ 도기 저부편(도면 96-7, 사진 153-④)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병이나 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토기부스러기와 세사립이 섞였으며, 색조는 기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5Y 4/1)을 띤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고 4.3㎝, 복원저경 9.0㎝

⑦ 도기 저부편(도면 96-10, 사진 153-⑤)

암회색(N 3/) 경질로 호나 옹의 저부로 추정된다. 태토에 백색세사립 다량과 소량의 굵은석립이 섞여있다. 바닥과 동체 접합 후 내외면을 도구로 눌러 다졌다. 동체내면에는 점토띠흔 일부가 보인다. 동체외면은 세·소격자타날하였으나 거의 지워졌고 내면에도 내박자흔이 일부 남아있다. 현고 10.2㎝, 복원저경 25.6㎝

⑧ 편병 동체부편(도면 96-6, 사진 152-⑧)

편병의 동상위부분의 일부가 남아있다. 회색(N 4/) 경질이며, 태토는 정선된 편으로 백색세사립이 소량 보인다. 견부와 동상위 경계에 1조의 침선을 돌렸다. 현길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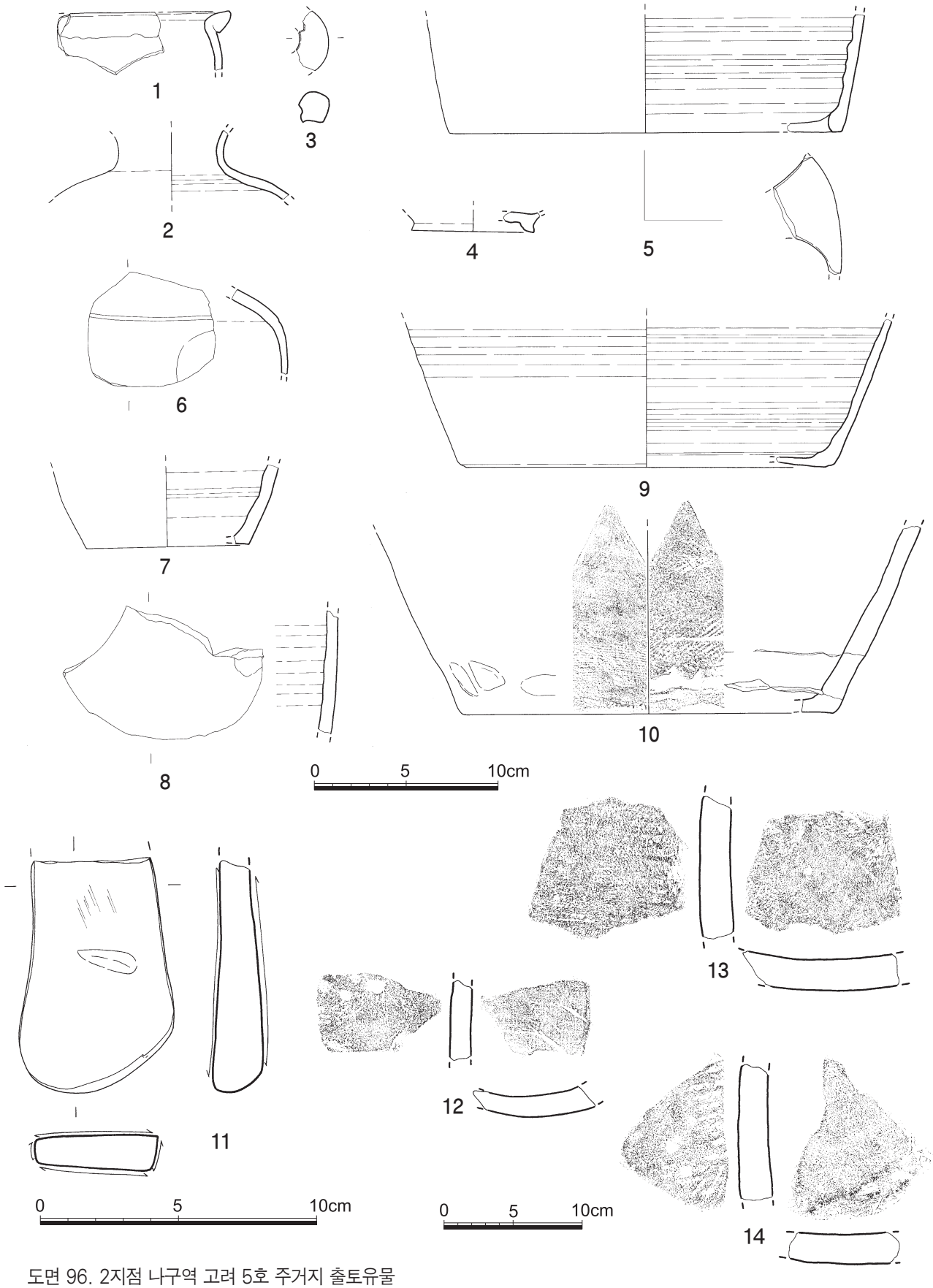
⑨ 도기 동체부편(도면 96-8, 사진 152-⑨)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토기부스러기와 세사립이 섞여있으나 정선된 편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7.5Y 5/1), 속심은 명적갈색이다. 내면에 물레흔이 있다. 현길이 6.8㎝

⑩ 도기 파수편(도면 96-3, 사진 152-⑦)

반원형의 파수편이다. 경질이며 파수윗부분에는 소성시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태토에는 소량의 굵은 석립이 포함되었으나 정선된 편이며,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1)이다. 기면 일부가 터져있다. 현길이 3.2㎝, 폭 1.6㎝, 두께 1.6㎝

⑪ 암키와편(도면 96-12, 사진 153-⑥)



도면 96. 2지점 나구역 고려 5호 주거지 출토유물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사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나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대부분 표면이 박락되어 문양은 확인되지 않으며, 배면은 매우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어 정확한 올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측면이 결실되어 와도흔 및 분할면을 관찰할 수 없다. 현최대길이 5.7㎝, 현최대폭 9.2㎝, 두께 1.6㎝

⑫ 암키와편(도면 96-13, 사진 153-⑦)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박락되어 문양대가 희미하지만 태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면 역시 상당부분 표면이 마모되어 포목흔이 뚜렷하지 않다. 연질소성임에 따라 측면이 마모되어 와도흔 및 분할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9.5㎝, 현최대폭 11.5㎝, 두께 2.1㎝

⑬ 암키와편(도면 96-14, 사진 153-⑧)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포함된 회청색 경질소성 암키와 편이다. 등면 문양은 상당부분 박락되어 문양대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배면은 7~8올 가량의 성긴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빗질흔 등의 정면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측면이 상당부분 마모되어 와도흔을 확인할 수 없다. 현최대길이 9.3㎝, 현최대폭 10.5㎝, 두께 2.1㎝

⑭ 지석(도면 96-11, 사진 153-⑨)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암질은 편암제로 全面이 마연되었다. 현길이 8.3㎝, 폭 5.6㎝, 두께 1.3㎝, 무게 111g

2. 수혈

1) 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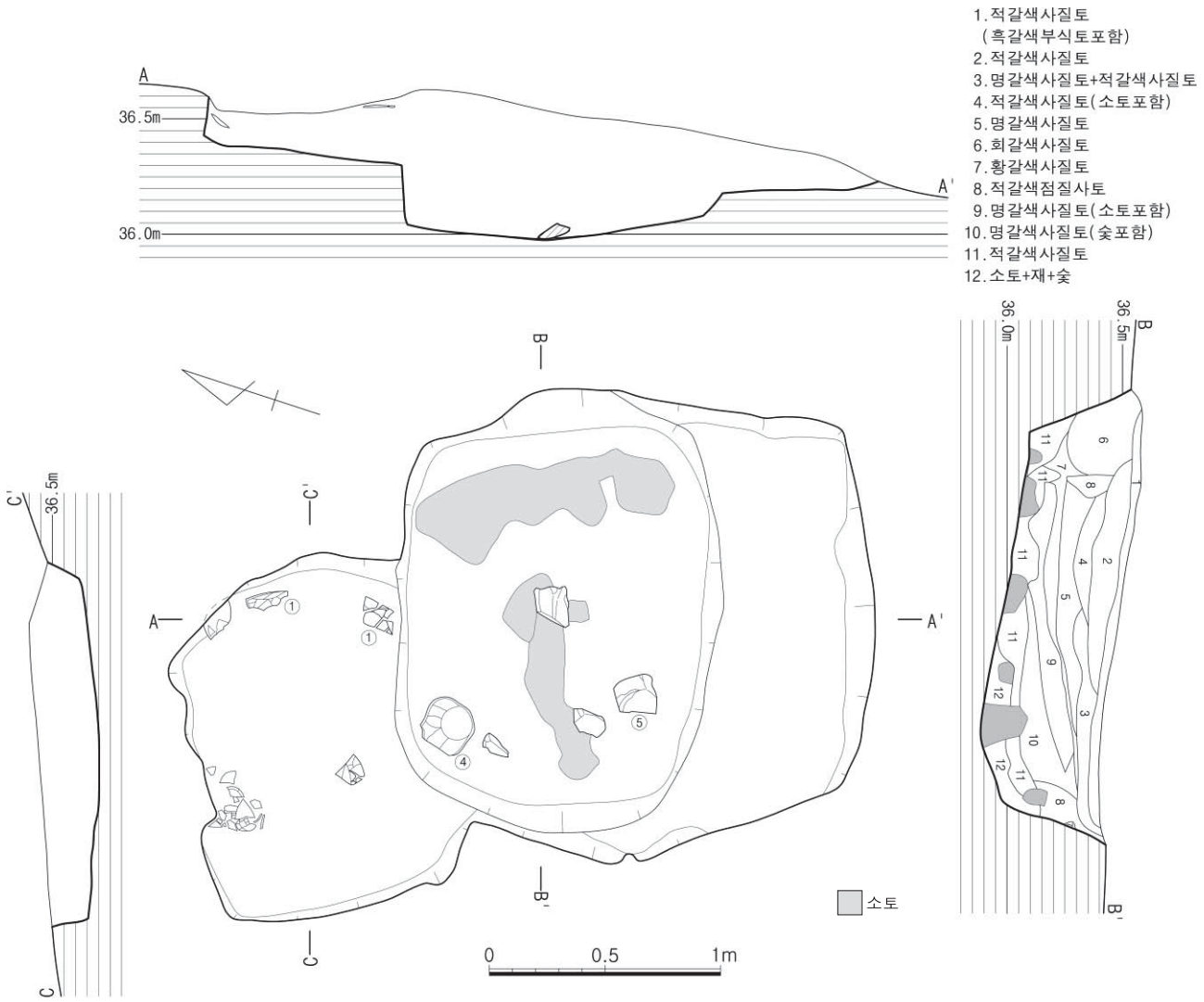
(1) 유구(도면 97, 사진 154·155)

1호 수혈은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벽에 잇대어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북동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 1.2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수혈, 남쪽 0.5m지점에 고려시대 4·5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 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윤곽선의 상태로 보아 상부 일부만 삭평된 상태이다. 중앙부가 가장 깊게 파이고 그 위·아래에 단이 지는 듯한 형태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의 토층양상이 규칙성 없이 복잡하게 매몰시킨 양상을 보이므로 의도적인 폐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8°-W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을 이룬다. 규모는 300×205×45㎝(1.46: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중앙 바닥에 소토와 재, 숯층이 잔존하며 그 위에 명갈색 사질토를 깔은 것으로 보아 제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파수부동이, 도기 구연부편·저부편 등이 내부토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매몰 시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도면 97.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수혈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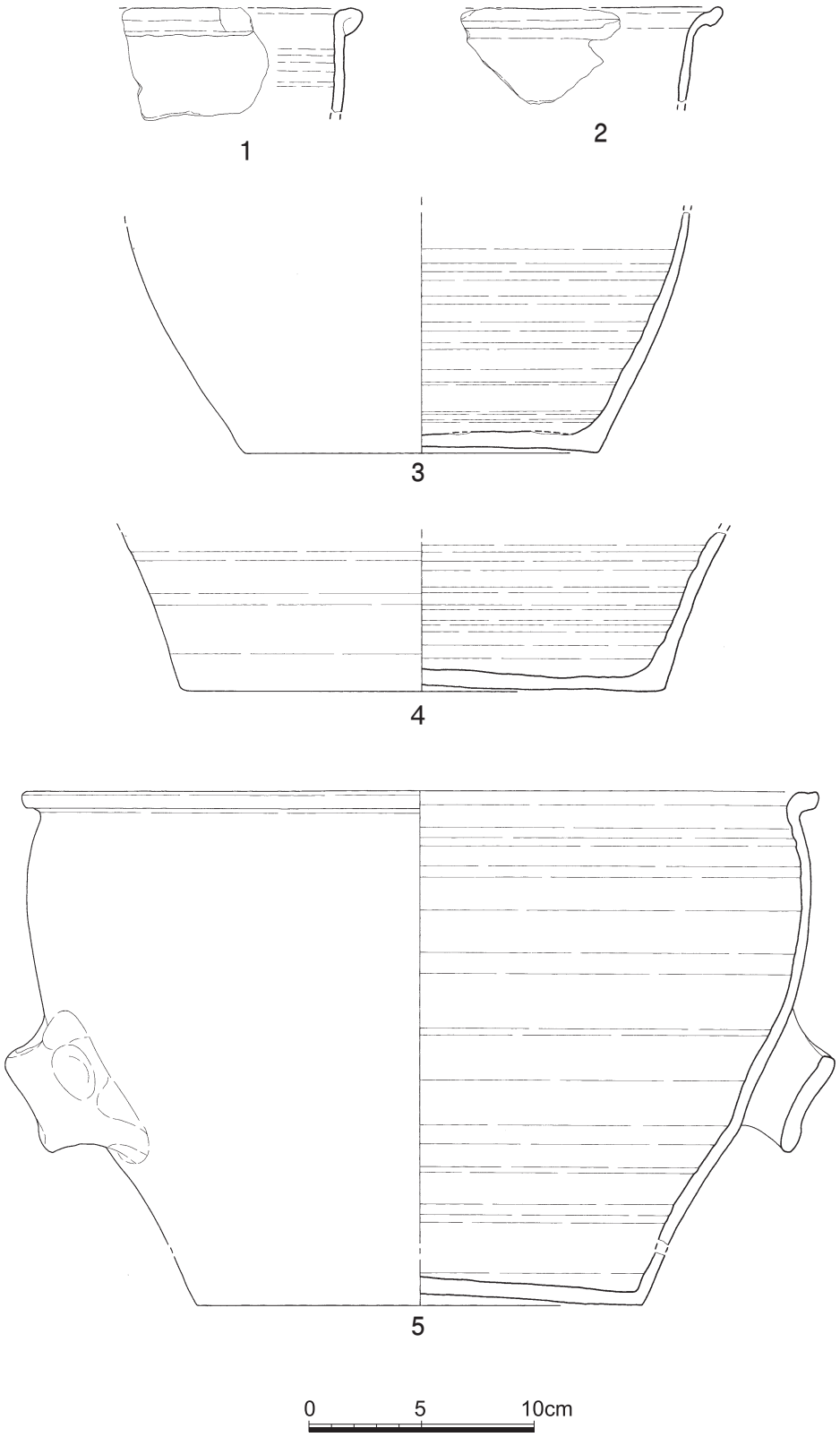
(2) 유물

① 파수부동이(도면 98-5, 사진 155-②)

전체 기형의 1/3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점질이 강한 고운 태토를 사용하였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흑색에 가까운 회색(N3/)을 띠며 동체외면 일부와 바닥외면은 암회황색을 띤다. 현재 대상파수 1개가 동중하위에 약간 처진 상태로 붙어 있으며 저부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파수의 양끝면에는 동체와 접합시에 생긴 지두흔이 있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로 가운데로 갈수록 들린 형태이다. 복원고 23.0㎝, 복원구경 35.6㎝, 복원저경 20.2㎝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98-1, 사진 155-④)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원래 회흑색을 띠는 연질이나 기면이 약하게 박리되어 전반적인 색조는 밝은 황



도면 98. 2지점 나구역 고려 1호 수혈 출토유물

색(5Y7/3)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접어붙였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4.9㎝

③ 도기 구연부편(도면 98-2, 사진 155-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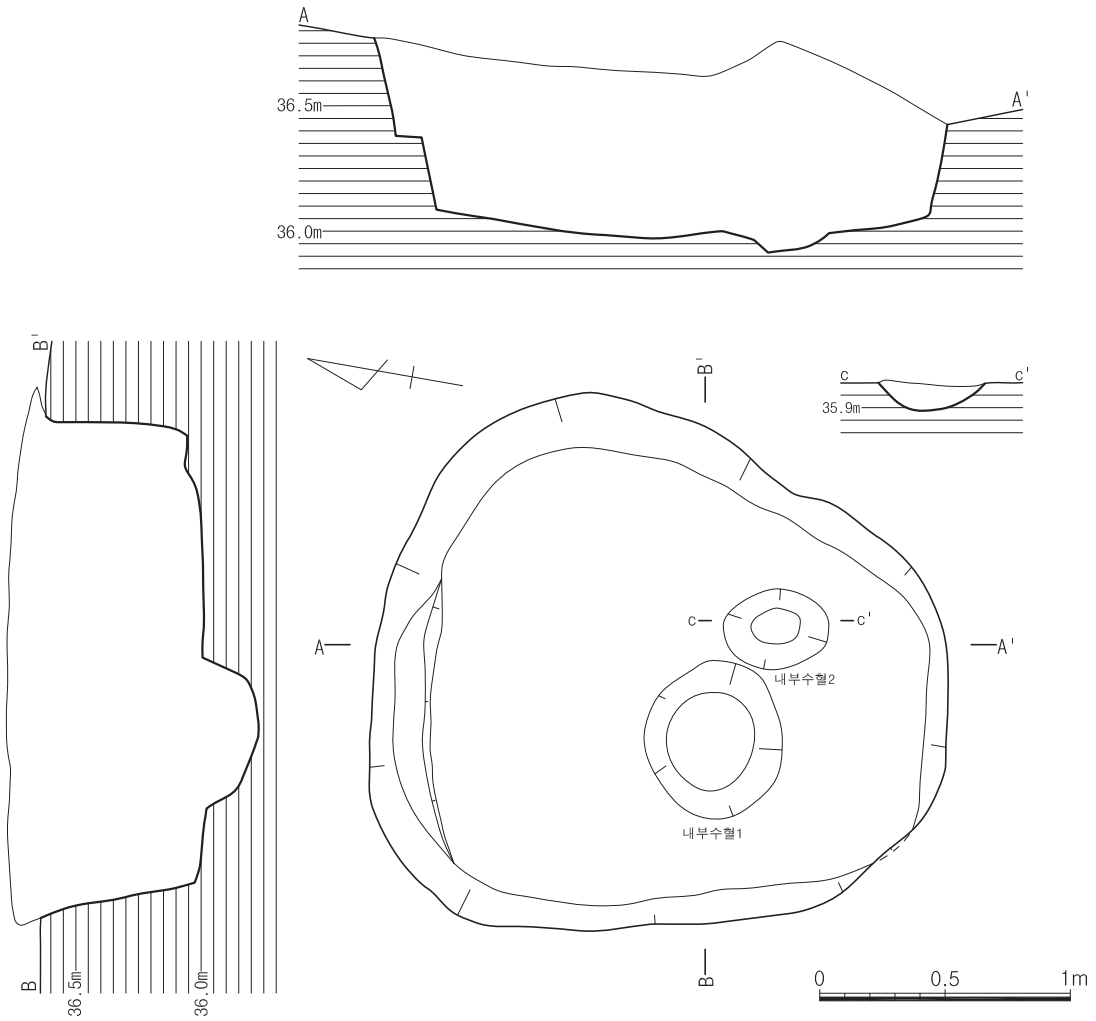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등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밝은 황색(5Y7/3)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기벽이 얇은 편으로 구연안쪽에는 홈을 돌렸다. 현길이 4.5㎝

④ 도기 저부(도면 98-3, 사진 155-⑤)

저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석영립, 기타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5YR 6/1)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동체와 바닥내면은 기면 박리가 심한 편이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현고 10.9㎝, 저경 15.8㎝

⑤ 도기 저부(도면 98-4, 사진 155-⑥)

바닥과 동체하단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함께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굵은 석립도 소량 포함되어 기면에 돌출되어 있다. 외면은 흑색에 가까운 회색(N 3/)을 띠고 내면은 탁한 황등색(10YR 6/3), 속심은 암갈색이다. 바닥과 동체부의 연결흔이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잘 남아있다. 현고 7.2㎝, 복원저경 21.8㎝



도면 99. 2지점 나구역 고려 2호 수혈 유구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99, 사진 156)

2호 수혈은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 남서 1.2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수혈, 남쪽 1.8m지점에 고려시대 3·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7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윤곽선의 상태로 보아 상부 일부만 삭평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228×214×68㎝(1.06:1)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을 이루게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바닥 중앙에 2개의 수혈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수혈 1은 62×55×18㎝, 내부수혈 2는 규모 42×32×10㎝로 저장공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공을 폐기한 후 바닥에 적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바닥을 정리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3. 토광묘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00, 사진 157)

1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남쪽 4.4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주거지, 남동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2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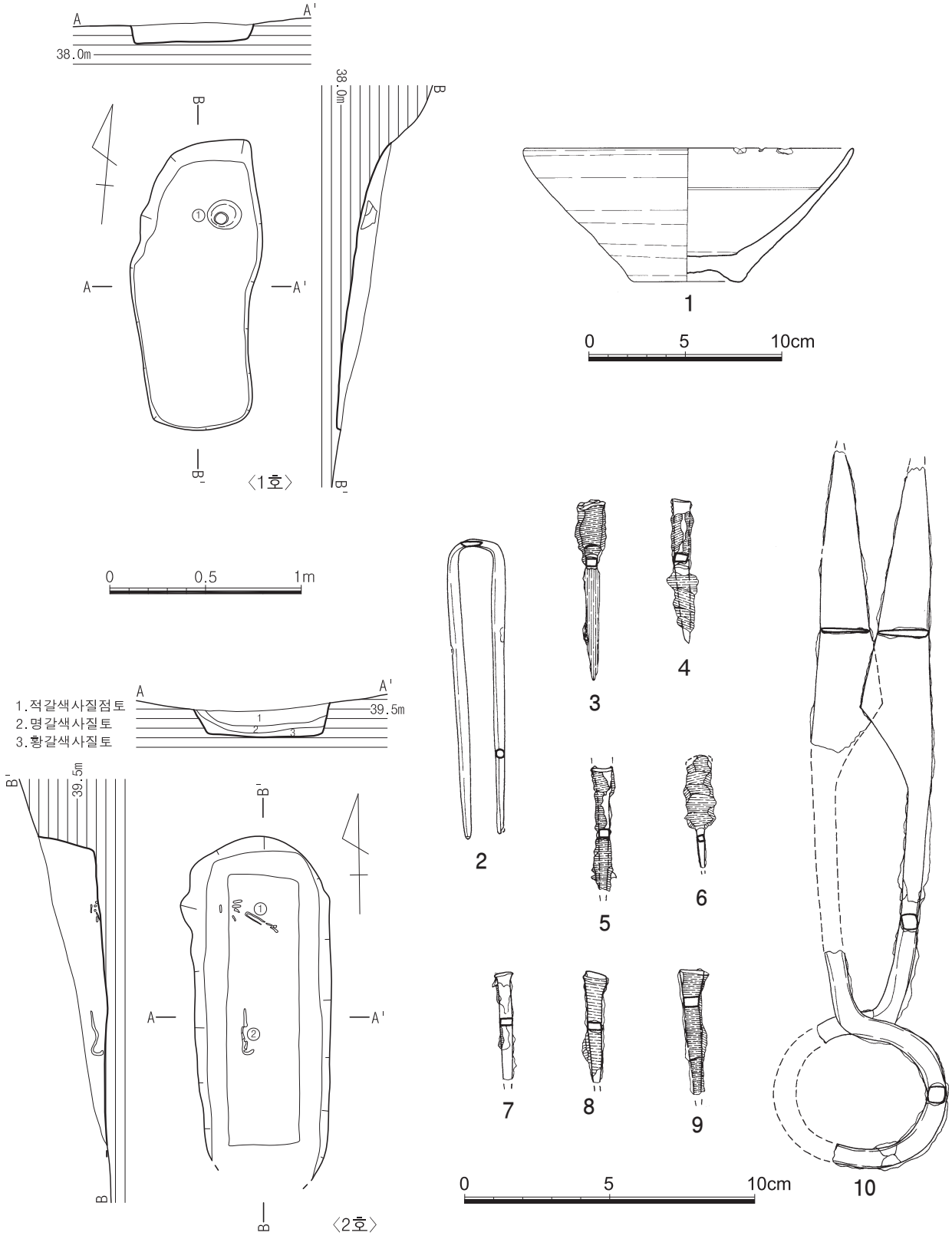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묘광 규모는 150×63×10㎝(2.38:1)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규모와 출토유물의 위치로 볼 때, 토광직장묘로 추정된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머리쪽 동쪽에 치우쳐 청자대접 1점이 뒤집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출토상황 및 위치로 볼 때, 관 위에 매납되었던 것이 내부토 함몰로 인하여 뒤집어지면서 현 위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청자대접(도면 100-1, 사진 157-③)

완형이다. 굽은 내경하며 굽바닥은 돌려깎아냈는데 가장자리가 깊다. 기벽은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구연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구연에서 약하게 내만한다. 내면에는 구연아래에 한줄의 음각선이 있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지름 5.4㎝의 원각을 깊게 돌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었다. 기외면에 물레흔이 있다. 내면은 연녹색의 유색을 보이나 구연내면과 기외면은 전반적으로 갈색을 띤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백색 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6.9㎝, 구경 17.2㎝, 저경 5.9㎝



도면 100. 2지점 나구역 고려 1·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1호, 2~10:2호)

2) 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00, 사진 158)

2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남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남서쪽 4.8m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6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바닥 정지)-명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U' 자형의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단부는 일부 유실되었지만 머리쪽은 30㎝정도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묘광 잔존규모는 190×71×28㎝(2.68:1), 목관은 목관흔이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규모는 142×39㎝(3.64: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머리쪽 서장벽에 잇대어 관선 주변에서 관정, 머리쪽에서 동곳 1점, 중심선 허리쪽에서 서장벽 쪽으로 철제가위 1점이 출토되었다. 부장위치는 적갈색 사질점토 위에 놓여진 것으로 보아 관내에 매납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동곳(도면 100-2, 사진 158-⑤)

선단부 한쪽 끝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棒을 구부려 두 가닥을 평행하게 만들었다. 基部의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棒部의 단면은 원형이다. 길이 10.4㎝, 무게 18g

② 철제가위(도면 100-10, 사진 158-⑥)

握部와 손잡이 일부, 刃部의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원형의 악부와 신부는 하나의 鐵棒을 이용하여 'X' 자로 교차하게 만들어졌다. 악부와 손잡이는 평행하게 이어지고 인부는 안쪽을 향하고 있다. 악부와 손잡이의 단면형태는 방형이고, 신부는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24.8㎝, 무게 61g

③~⑨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100-3	158-⑦	6.4	0.4	0.3	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④	100-4	158-⑧	5.1	0.5	0.4	3	완형,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⑤	100-5	158-⑨	(4.8)	0.4	0.3	3	신부만 남음, 횡방향 목질흔
⑥	100-6	158-⑩	(4.9)	0.2	0.3	2	선단부 일부와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⑦	100-7	158-⑪	(3.8)	0.4	0.3	2	말단부 결실, 일부에 횡방향 목질흔
⑧	100-8	158-⑫	(3.8)	0.5	0.3	2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⑨	100-9	158-⑬	(4.4)	0.6	0.5	3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3) 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01, 사진 159)

3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3.6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 동쪽 3.2m

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 남서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98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4층과 6층은 충전토, 7층 회갈색 사질토는 바닥 전면에 깔았다. 내부토는 'U' 자형의 함몰된 양상을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단부 이하만 잔존하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4×76×26㎝(2.68:1), 목관 규모는 152×43㎝(3.53: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가슴쪽 요갱(24×24×10㎝) 내에 청자대접 1점과 내부에 구슬 7점, 요갱에서 동쪽 관선에 잇대어 청자대접 1점, 요갱에서 서쪽 관선 사이에 철제가위 1점, 중심선 발치쪽 서편에 반구병 1점, 관선 안쪽과 관선에 잇대어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자대접(도면 101-1, 사진 160-①)

완형이다. 구연과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이루어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구연아래 내벽에 한줄의 음각선을 돌렸으며 안바닥은 평평하게 다듬고 가장자리에 깊게 원각을 돌렸다. 유색은 황녹색이나 유약의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기면전체에 유약을 얇게 입혔는데 시유상태가 다소 불량하며 접지면은 유를 닦아냈다. 접지면과 내저면 각 5곳에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고 6.8㎝, 구경 17.2㎝, 저경 5.8㎝

② 청자대접(도면 101-2, 사진 16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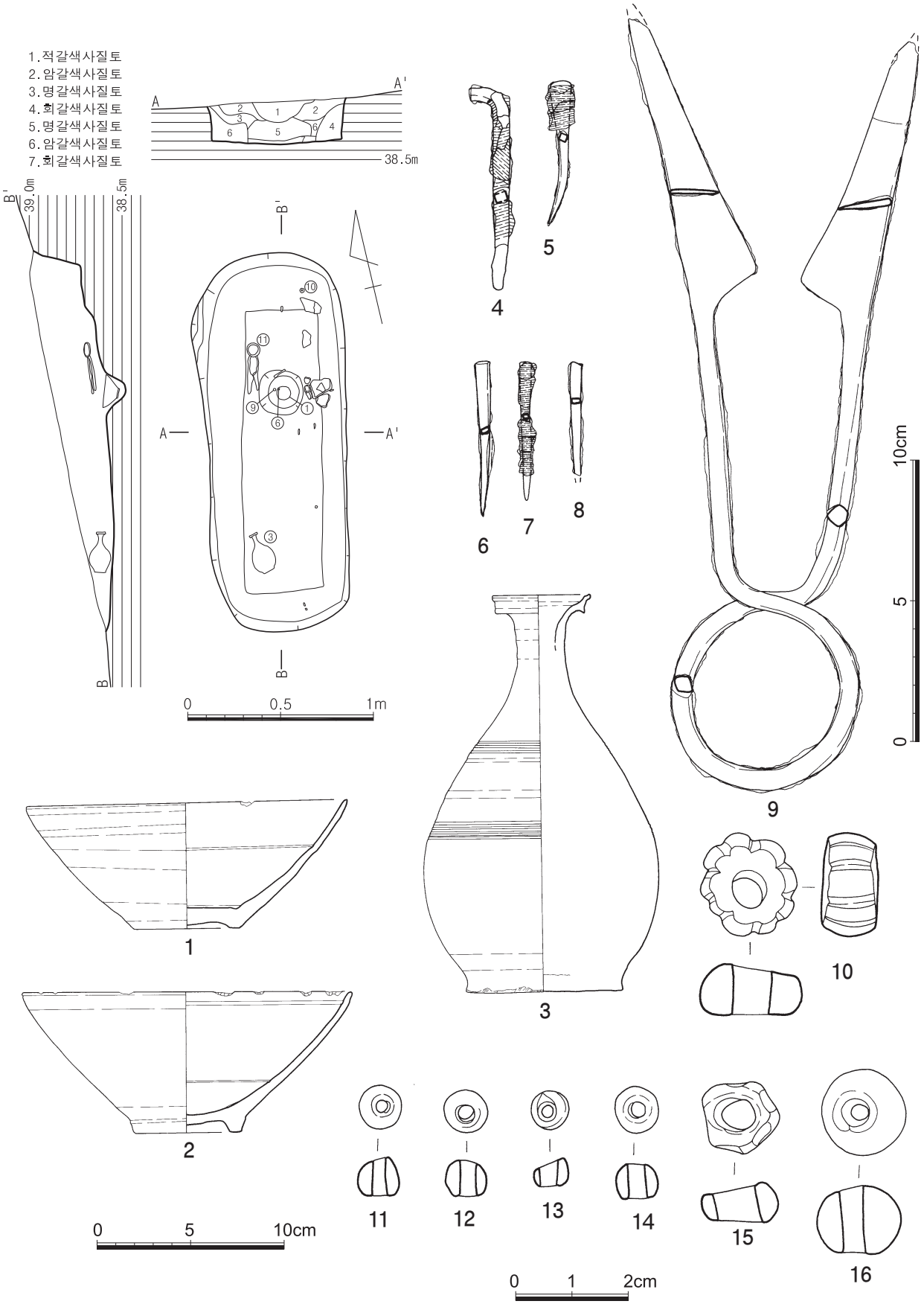
완형이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며 기벽은 넓게 벌어져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살짝 내만한다. 안바닥은 둥근곡면을 이루며 내면의 구연아래와 저면에 각각 음각선을 넣었다. 태토에는 잡물이 섞여있으며 유약을 입혔으나 유층이 박락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접지면에는 받침흔적이 없으나 안바닥에는 5곳에 백색 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7.5㎝, 구경 17.7㎝, 저경 6.0㎝

③ 도기병(도면 101-3, 사진 160-③)

완형이다. 암회색(N 3/)을 띠는 경질의 반구병으로 구연내외면과 기외면의 동중위까지는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기면이 거칠고 황회색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동체와의 연결부는 횡으로 돌려깎아 정면하였고 바닥가장자리의 밀린 점토는 쓸어내렸다. 동체는 아랫부분이 풍만한 형태로 최대경이 동중하위에 있어 안정감이 있다. 동상위와 중위에 각 5~6조의 가는 침선을 돌렸다. 고 21.5㎝, 구경 5.2㎝, 저경 8.5㎝

④~⑩ 구슬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직경	두께	구멍직경	무게	
④	101-11	160-⑤	0.8	0.7	0.3	0.5	명황색, 투명, 단면 원형
⑤	101-14	160-⑥	0.8	0.6	0.3	1	연황색, 투명, 단면 원형
⑥	101-13	160-⑦	0.6	0.5	0.4	0.3	연황색, 일부결실, 산화됨
⑦	101-12	160-⑧	0.8	0.6	0.3	0.5	명황색, 투명, 단면 원형
⑧	101-15	160-⑨	1.3	0.7	0.7	1	단면 원형으로 추정되나 산화로 일그러짐
⑨	101-16	160-⑩	1.5	1.2	0.4	5	연갈색, 투명, 단면 원형
⑩	101-10	160-⑪	1.8	0.9	0.7	6	진록색, 평면 花形, 단면 호박형



도면 101. 2지점 나구역 고려 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⑪ 철제가위(도면 101-9, 사진 160-④)

양쪽 刃部의 선단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원형의 握部와 신부는 하나의 鐵棒을 이용하여 'X' 자로 교차하게 만들어졌다. 손잡이와 신부는 평행하게 이어지고 인부는 안쪽을 향하고 있다. 악부와 손잡이의 단면형태는 방형이고, 신부는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27.7㎝, 악부직경 6.8㎝, 무게 82g

⑫~⑯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⑫	101-4	160-⑫	7.3	0.5	0.3	6	완형, 횡방향 목질흔, 선단부가 'ㄱ' 자로 구부러짐
⑬	101-5	160-⑬	5.2	0.3	0.3	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이 구부러짐
⑭	101-6	160-⑭	5.6	0.3	0.2	2	완형,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⑮	101-7	160-⑮	5.0	0.2	0.2	1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⑯	101-8	160-⑯	(4.1)	0.3	0.2	1	말단부 결실

E. 조선시대 이후

1.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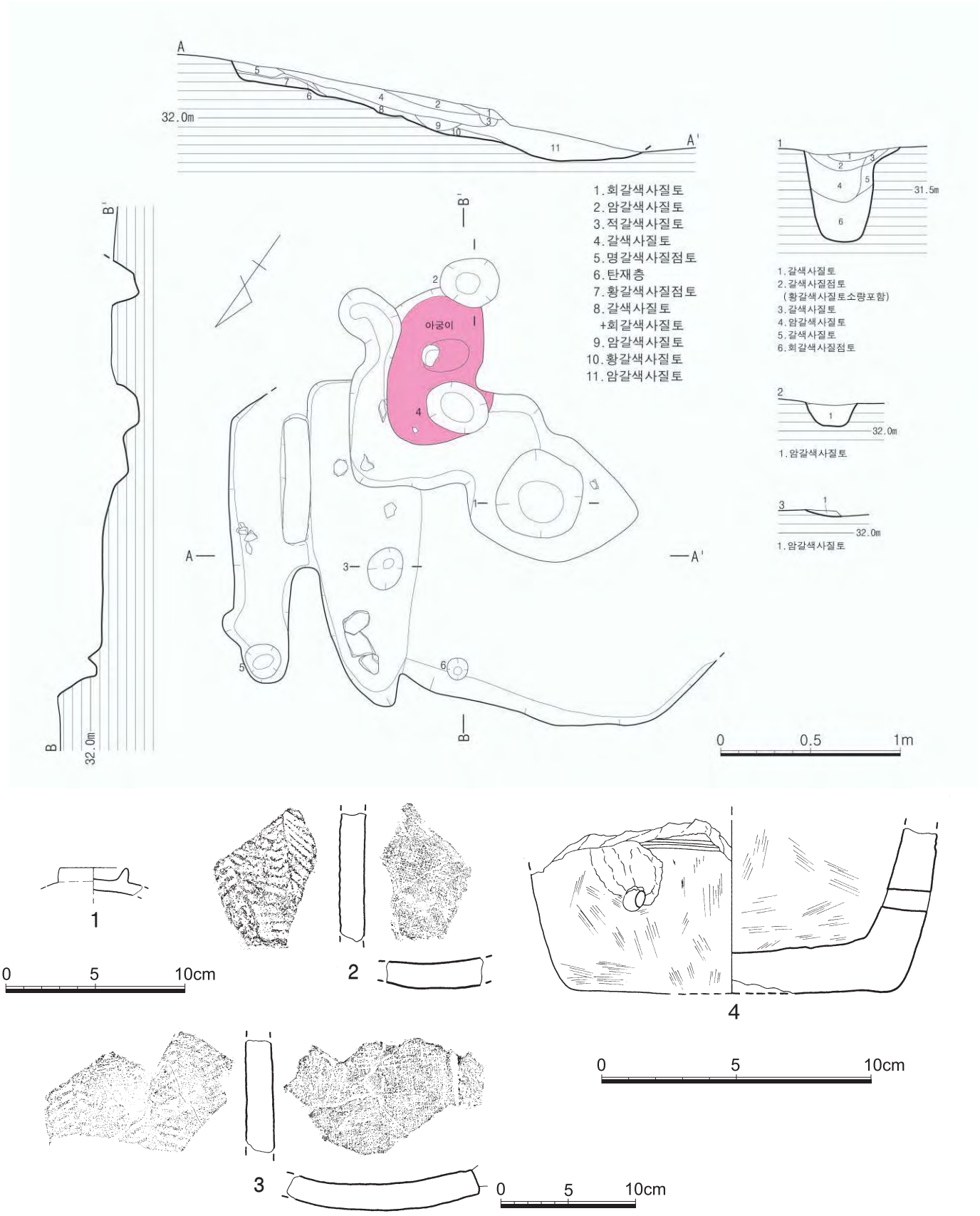
주거지는 모두 15기가 확인되었는데, 중복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며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로 보아 동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발 34~36m지점 사이의 비교적 완만한 편마암풍화토를 'ㄴ' 자형으로 파고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절반가량 하단부가 유실되었다. 내부시설은 한쪽 벽면을 약간 파고 배연시설을 만드는 아궁이시설과 구들시설, 段시설, 저장공, 주공이 확인된다. 특히, 구들시설이 잘 남아있는 주거지는 1호, 2호, 10호, 11호인데, 1호와 10호는 암반풍화토층에 고래를 판 수혈식이며 9호는 수혈식 고래 위에 작은 할석을 얹어 열기와 연기가 흐르도록 만들었다. 구들시설이 없는 주거지들은 소형이며 특별한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 아닐까 추정한다.

유물은 백자대접, 백자접시, 백자병, 백자발, 백자잔 등의 백자류 다수와 분청사기잔 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회청색 또는 회흑색을 띤 자배기, 평저호, 발 등의 생활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다양한 크기의 지석과 철제품도 출토되었다.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2, 사진 161·162)

1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동쪽은 10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수혈유구, 남



도면 102.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쪽 8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유구와 주공군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77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쪽 주거지 하단부는 유실되었으며 아궁이와 흙구들 하단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아궁이쪽은 암갈색 사질토만 퇴적되어 있다. 대부분의 퇴적층은 구들과 화구부 사이에 잔존하며 퇴적층이 경사면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상부에서 삭평으로 인하여 재퇴적된 것이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부정형이나 구들과 아궁이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몸'자형일 가능성이 높다. 장축방향은 N-35°-E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280×265×22㎝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6개, 구들,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1은 중심주공(45×39×51㎝)일 것으로 보이는데, 주공 폐기 후 아궁이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공2는 동벽쪽 중심주공(20×18×13㎝)으로 대칭되는 서벽에 소주공 1개가 위치하고 있다. 그 외의 주공들은 구들 설치 이전에 조성된 것들로 보인다. 구들은 아궁이에서 북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화구부, 구들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몸'자형을 이루며 화구부와 고래부분이 구분된다. 고래는 풍화암반을 수혈식으로 굴광하여 조성하였으며 아궁이와 직교하고 있다. 아궁이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지각은 세우지 않았다. 규모는 98×72×15㎝이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하단부가 생활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종류는 도기 뚜껑편, 암키와, 납석제 석제용기이다.

(2) 유물

① 도기 뚜껑편(도면 102-1, 사진 162-⑦)

뚜껑의 꼭지편으로 꼭지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색조는 외면은 올리브황색(5Y 6/3)을 띠며 내면은 회올리브색, 속심은 회흑색을 띤다. 현고 1.6㎝, 복원꼭지경 4.0㎝

② 암키와(도면 102-2, 사진 162-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사립 및 석립 등의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회백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세선어골문이 시문되었으며 배면에는 비교적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된다. 정면흔과 제작상의 특징들은 관찰되지 않으며 측면이 결실되어 와도흔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8.8㎝, 현최대폭 7.5㎝, 두께 1.9㎝

③ 암키와(도면 102-3, 사진 162-⑥)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황갈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서 세선어골문이 관찰되며 배면에서는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빗질흔 등의 정면흔은 보이지 않고 측면도 마모되어 와도흔이 확실하지 않다. 측면과 인접해서 분할계선이 일부에서 남아있다. 현최대길이 8.5㎝, 현최대폭 14.3㎝, 두께 2.1㎝

④ 석제용기(도면 102-4, 사진 162-⑧)

납석제 용기로 저부의 1/4 가량이 남아있으며 바닥외면은 일부를 제외하고 결실되었다. 현재 직경 0.7㎝의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으며 그 위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용기 全面에 마연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6.5㎝, 복원저경 12.2㎝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3, 사진 163·164)

2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동쪽 2m지점에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23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서벽 전체와 남벽이 1/2 유실되었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황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퇴적층은 아궁이쪽이 두껍고, 내부에는 숯과 재를 포함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부정형이며 1호와는 달리 구들과 아궁이가 직교하는 형태이다.장축방향은 N-17°-E로 등고선방향과 사선방향이다. 잔존규모는 334×260×32㎝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5개, 구들,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거지 내에 2개, 외부에는 동벽 어깨선이 아궁이 방향으로 꺾이는 부분에 소주공 2개와 아궁이 동편에서 50㎝ 떨어져 소주공 1개가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 내 주공은 중앙에 중심주공 1개(56×46×49㎝)를 두었고, 동벽과 아궁이 사이에 소주공 1개가 있다. 구들은 아궁이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며 2열을 이루고 있다. 고래열은 15㎝폭으로 90㎝정도 잔존하고 있으며, 아궁이 방향과 직교하고 있다. 아궁이는 북벽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연결된 구들과 직교한다. 화구부는 직접 고래로 경사없이 연결되고 있으며 지각은 세우지 않았다. 규모는 135×70×35㎝이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에 수혈을 판 후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아궁이 내부에서 백자 저부편, 암키와편, 지석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저부편(도면 103-1, 사진 164-⑧)

저부의 1/2 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외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회백색의 유조를 띠며 시유상태도 양호한데 굽안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를 닦아 냈다. 태토에 잡물은 없으나 작은 기공이 보이며 적갈색을 띤다. 현고 3.8㎝, 복원저경 7.4㎝

② 암키와(도면 103-2, 사진 164-⑦)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석립 등의 불순물이 소량 포함된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희미하게 세선어골문으로 추정되는 문양대가 시문되었다. 배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횡방향의 압흔이 있으나 윤철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측면은 결실되어 와도흔 및 분할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9.0㎝, 현최대폭 9.7㎝, 두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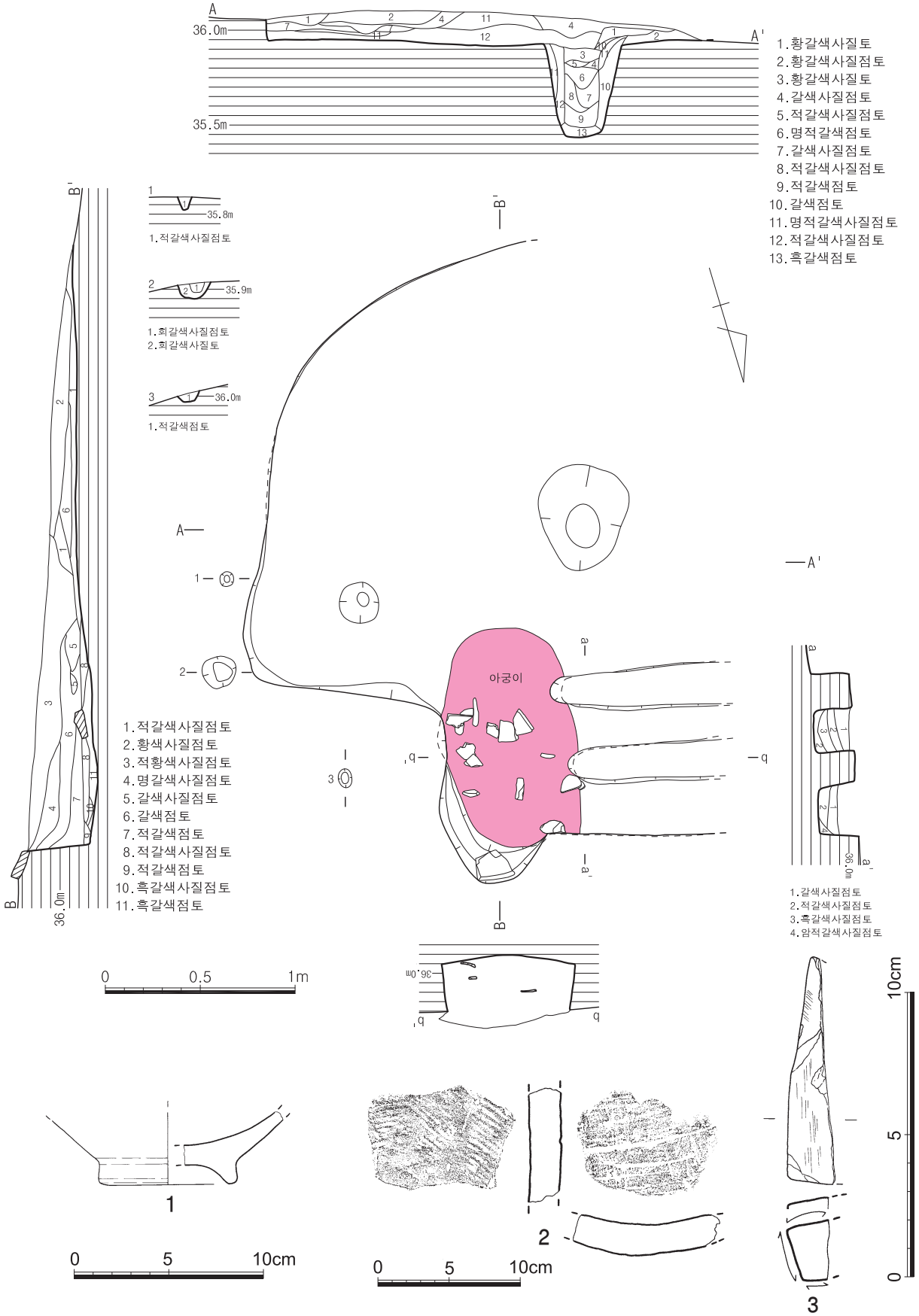
③ 지석(도면 103-3, 사진 164-⑨)

암질은 편마암이며 일부가 남아있는데 마연되었다. 길이 8.0㎝, 현폭 1.4㎝, 두께 2.0㎝, 무게 3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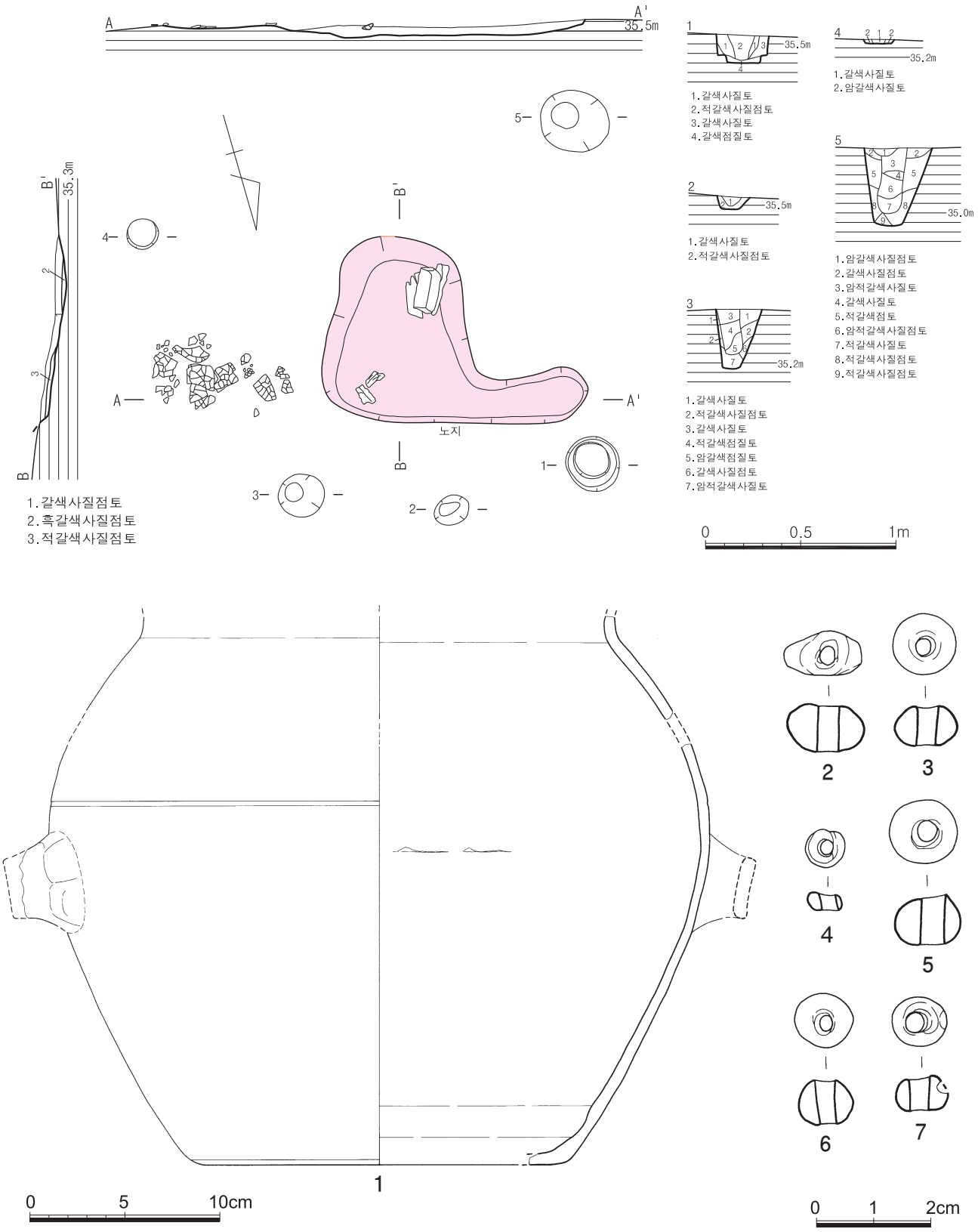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4, 사진 165)

3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남서쪽



도면 103. 2지점 나구역 조선 2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104. 2지점 나구역 조선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0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55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바닥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알 수 없는데, 주공의 배치상으로 보면 주주공간 150~200㎝ 이격되어 있어 방형일 가능성이 높다. 장축방향은 N-16°-E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220×200×5㎝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5개, 노지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3개(주공1·3·5)의 중심주공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4주공식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북쪽 중심주공간 소주공 1개(주공2), 아궁이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120㎝ 떨어져 소주공 1개(주공4)가 배치되어 있다. 아궁이는 북쪽 주주공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 주공1쪽으로 화구부가 조성되었다. 규모는 130×100×15㎝이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에 수혈을 판 후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아궁이 동쪽에 연하여 도기호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6점의 구슬이 내부토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호(도면 104-1, 사진 165-⑥)

저부와 동체, 파수, 경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태토는 점성이 강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N 2/)을 띠고 내면은 흑갈색, 속심은 갈회색을 띤다. 동최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1조의 침선을 돌렸고 연결은 되지 않으나 그 아래에 대상파수를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기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으며 동체내면에 점토띠흔적이 남아있다. 복원고 29.0㎝, 복원저경 20.4㎝

②~⑦ 구슬(도면 104-2~7, 사진 165-⑦~⑫)

초록색과 갈색의 유리구슬로 각 3점씩이다. 대부분 원통형이나 1점은 납작한 형태이다.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직경	두께	구멍직경	무게	
②	104-2	165-⑦	1.4	0.8	0.3	1	초록색, 타원형
③	104-3	165-⑧	1.1	0.7	0.3	1	초록색, 원형
④	104-4	165-⑨	0.7	0.3	0.3	0.5	초록색, 원형
⑤	104-5	165-⑩	1.2	0.9	0.4	1	갈색, 원형
⑥	104-6	165-⑪	1.0	0.7	0.3	1	갈색, 원형
⑦	104-7	165-⑫	0.9	0.6	0.3	1	갈색, 원형

4) 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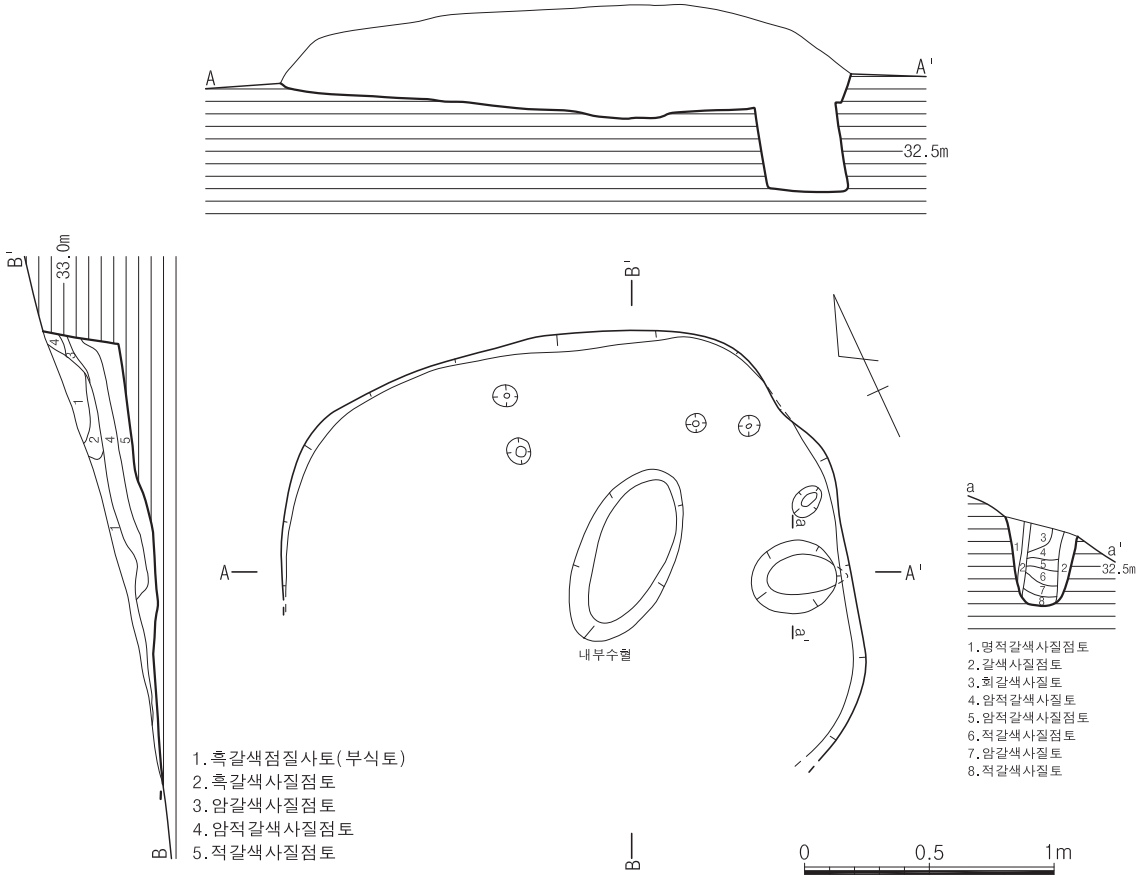
(1) 유구(도면 105, 사진 166)

4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7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서쪽 7m지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 남동쪽 11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08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장벽과 서단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북장벽은 30㎝정도 퇴적층이 잔존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사지는 양상에 따라 층위도 경사를 이루며 퇴적층이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5°-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228×185×30㎝이다.

내부시설은 수혈 1개, 주공 6개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은 주거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73×38×8㎝로 용도는 알 수 없다. 주공은 동단벽 중앙에 잇대어 규모 34×26×35㎝의 주주공, 북쪽에 잇대어 소주공 1개, 다시 북쪽으로 50㎝ 떨어져 소주공 2개, 북장벽 중앙에서 안쪽으로 20㎝ 떨어져 소주공 2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도면 105. 2지점 나구역 조선 4호 주거지 유구

5) 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6, 사진 167·168)

5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8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북서쪽 11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1.03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는 유실된 상태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E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277×220×20㎝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서벽에 붙어 있는 주주공(45×35×7㎝) 1개,

서쪽으로 20㎝, 25㎝, 70㎝ 이격되어 소주공이 배치되어 있다. 아궁이는 북벽 중앙에 위치하며 윤곽선을 따라 지석 3매와 그 주변에 3매의 할석이 흐트러져 놓여 있다. 규모는 65×45×7㎝이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에 수혈을 판 후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 적갈색 사질점토상에서 백자 저부편, 도기 뚜껑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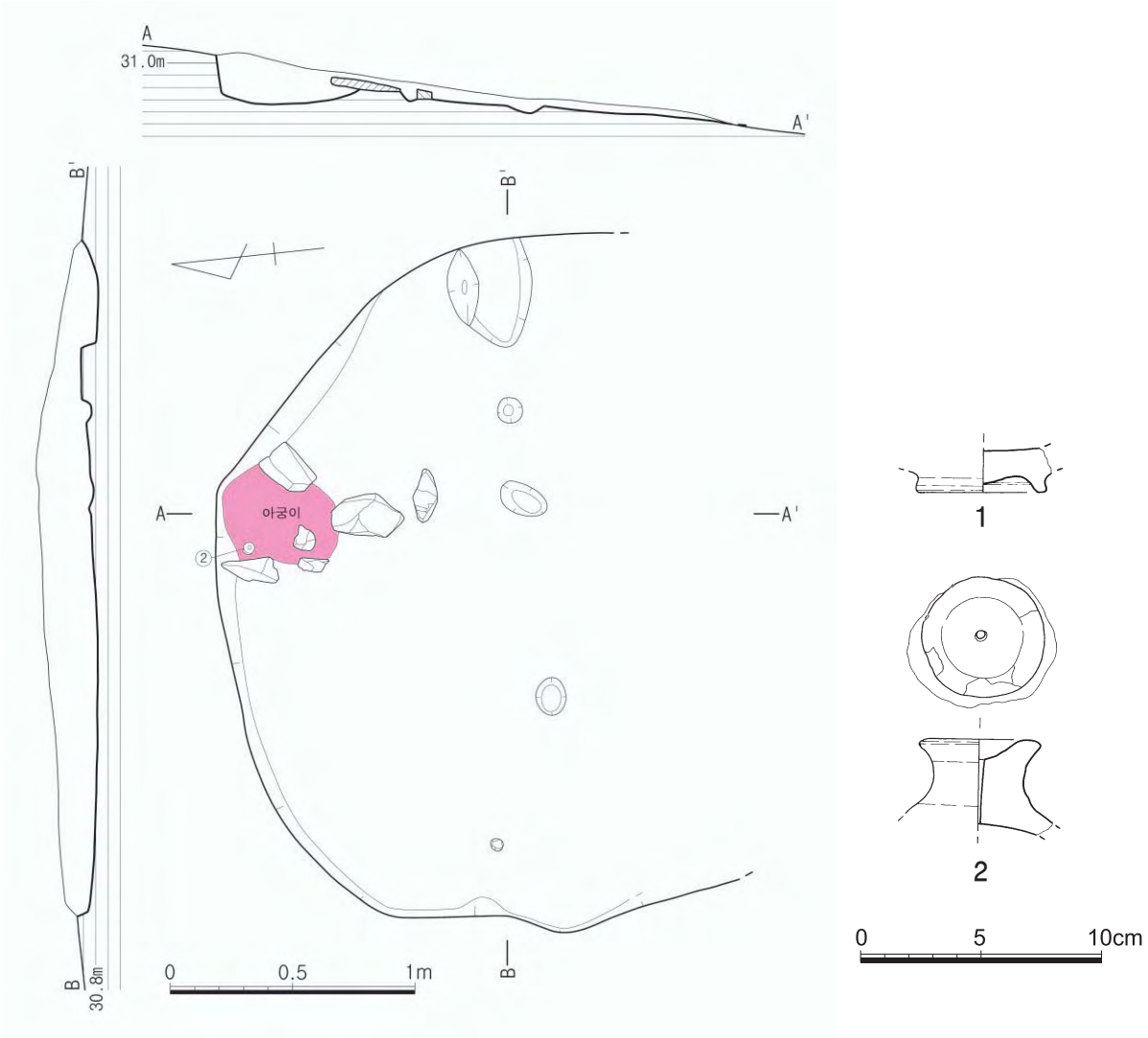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106-1, 사진 168-④)

굽부분만 온전히 남아있다. 굽은 외경하며 깎음새가 거칠고 접지면의 폭도 고르지 않다. 회청색의 유조이나 산화되어 황갈색을 띤다. 내저면에 태토비짐을 받쳤다. 현고 1.9㎝, 저경 5.4㎝

② 도기 뚜껑편(도면 106-2, 사진 168-⑤)

꼭지부분만 남아있다. 단추형으로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방추차로 재사용 된 것으로 보여진다. 구멍은 윗부분이 지름이 0.4㎝이고 아랫부분은 0.25㎝로 좁아져 내려온다. 태토에는 백색사립과 석영립 등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이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현고 4.0㎝, 꼭지경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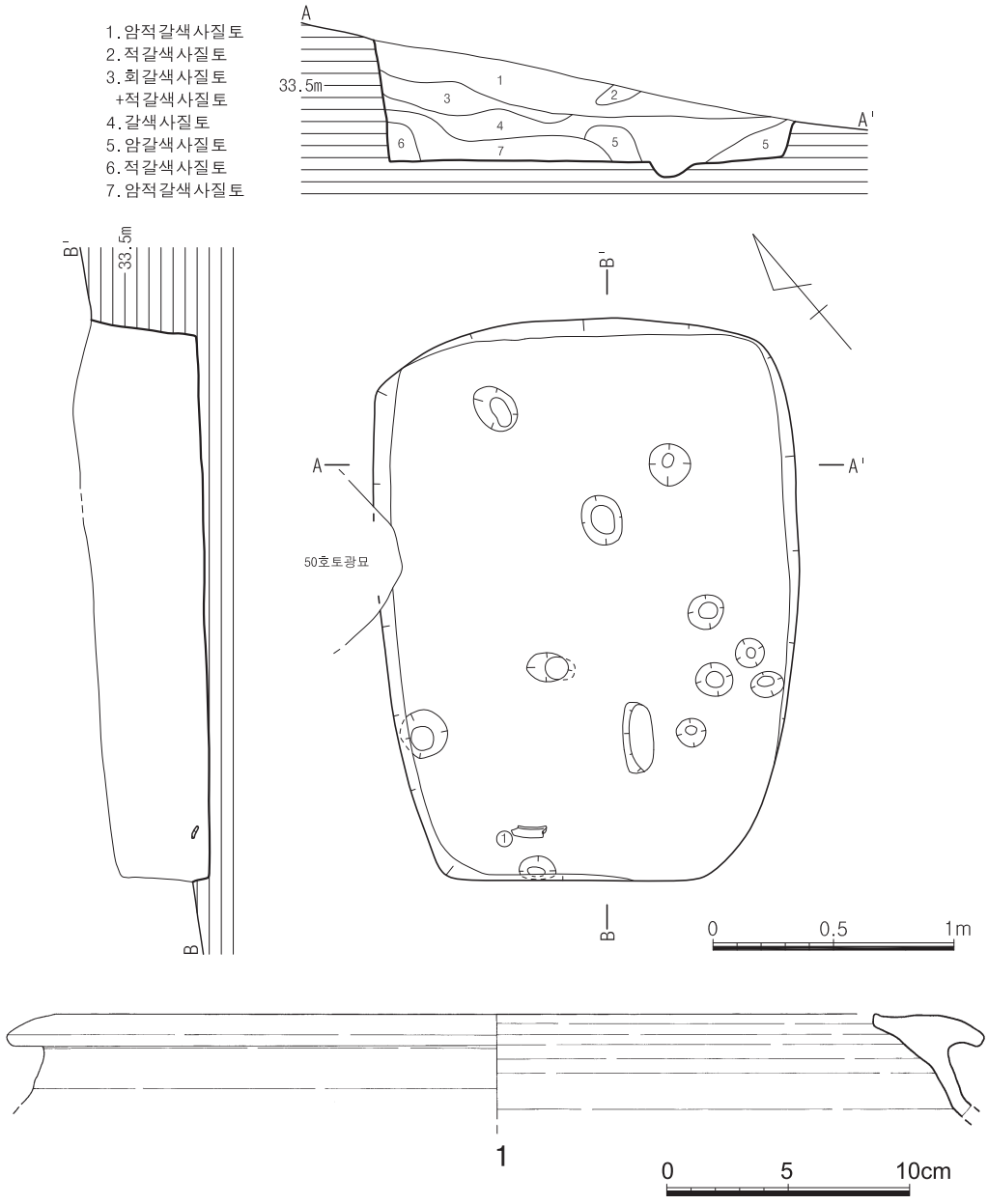
도면 106. 2지점 나구역 조선 5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6) 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7, 사진 169)

6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장벽 중앙에 어깨선을 일부 파괴하고 조선시대 50호 토광묘가 중복되어 있다.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9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는 어깨선 15㎝ 위에서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규모는 234×174×43㎝(1.34:1)이다. 층위는 암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도면 107. 2지점 나구역 조선 6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사질토가 우세하며 유수에 의해 하단부 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시설은 주공 12개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소주공으로 중심기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배치상 규칙성도 떨어진다.

유물은 남단벽 주공 안쪽에서 도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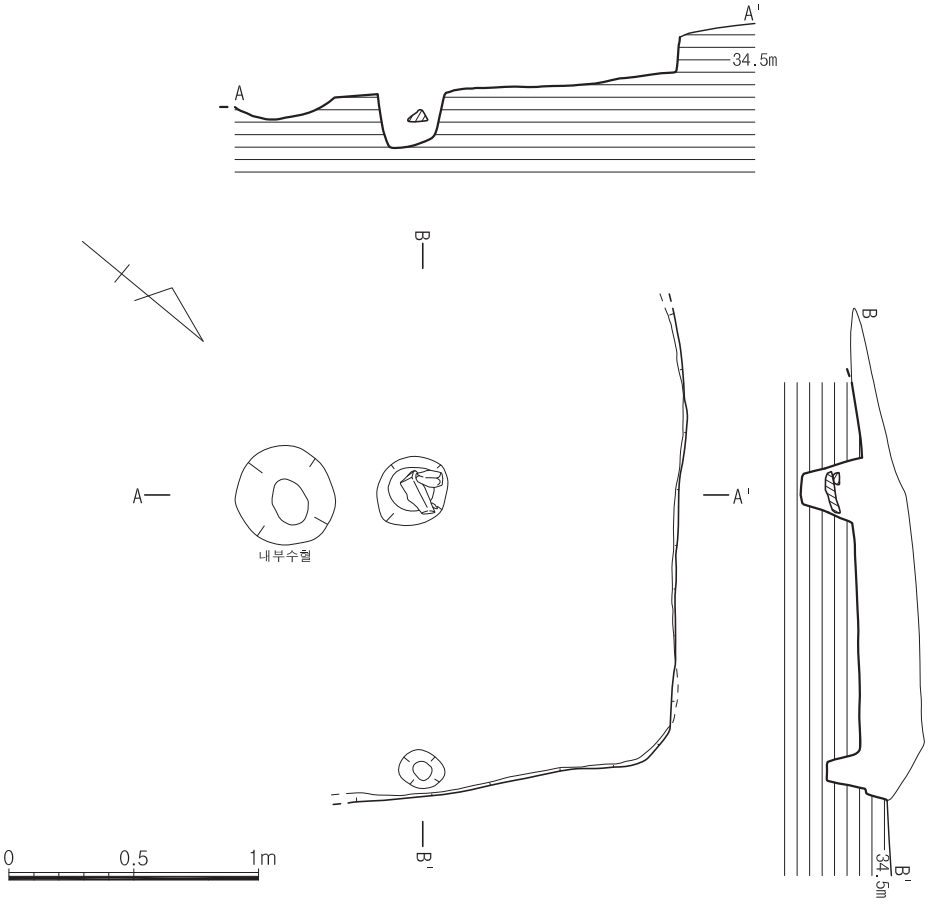
① 도기 구연부편(도면 107-1, 사진 169-④)

암회색(N 3/) 경질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부분만 1/4가량 남아있다. 태토는 고운점토에 백색사립이 섞였으며 소성은 양호하다. 구연은 윗면을 넓게 만들어 단면이 역삼각형을 이룬다. 현고 4.2㎝, 복원구경 37.0㎝

7) 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8, 사진 170)

7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벽 벽선을 따라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남쪽 2m지



도면 108. 2지점 나구역 조선 7호 주거지 유구

점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와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59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북벽과 동벽 일부만 잔존하며 하단부는 바닥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중심주공과 벽주공의 위치와 거리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40°-W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잔존규모는 210×185×15㎝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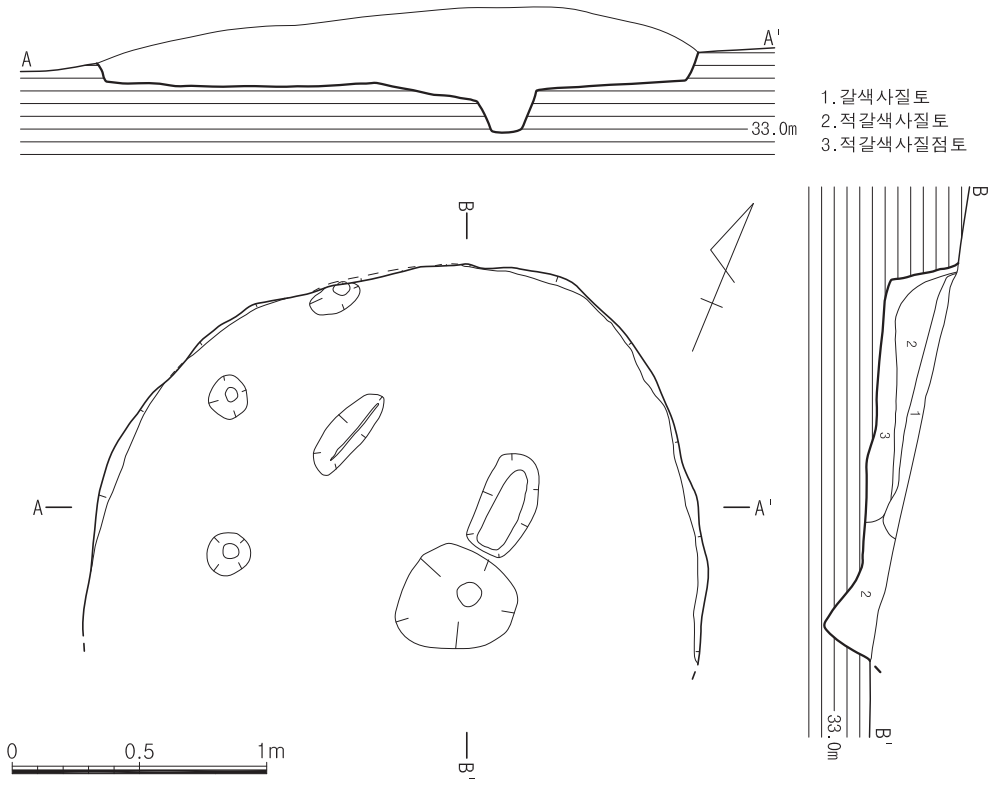
내부시설은 주공 2개, 수혈 1개가 확인되었는데, 중앙에 위치한 중심주공은 규모 27×27×15㎝이며 할석 2매가 주공 내부에서 출토되어 기둥을 양쪽에서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단벽에 잇대어 주공 1개 배치되어 있다. 수혈은 중심기둥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위치하며 규모는 40×40×5㎝로 용도는 알 수 없다.

8) 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9, 사진 171·172)

8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53호·5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7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



도면 109. 2지점 나구역 조선 8호 주거지 유구

평으로 중간 이하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236×180×16㎝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수에 의해 하단부 쪽으로 경사를 지며 퇴적되어 있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가 확인되었는데, 중앙에 위치한 중심주공(50×45×15㎝)을 제외하면 배치의 규칙성은 보이지 않는 소주공이 3기이다.

유물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백자 저부편 7점, 도기 구연부편·저부편, 파수부 동이, 수키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접시 저부(도면 110-1, 사진 172-②)

백자접시이며 저부만 온전하다. 굽은 안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았는데 가운데가 원뿔처럼 뾰족하며 안바닥은 평평하다. 유색은 연한 회갈색으로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기면에 작은 기포가 많이 보인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흙물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현고 2.1㎝, 저경 5.7㎝

② 백자 저부(도면 110-5, 사진 172-③)

백자잔으로 추정되며 저부를 제외하고 모두 결실되었다. 굽은 안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안바닥은 둥근곡면이다. 유색은 연녹청색으로 굽안까지 시유되었으며 태토에는 잡물이 보인다. 기면에 철반과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 흙물을 묻힌 뒤 굵은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1.8㎝, 저경 3.8㎝

③ 백자 저부(도면 110-2, 사진 172-④)

저부의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가늘고 높은 편으로 접지면의 폭이 좁다. 기벽은 동체하단에서 한번 꺾여 올라간다. 담청색을 띠는 유약을 굽안쪽까지 입혔으며 시유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발색과 광택이 좋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흙물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2.9㎝, 복원저경 4.8㎝

④ 백자 저부(도면 110-3, 사진 172-⑤)

저부의 1/2이 남아있다. 굽은 직립굽에 가까우며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기면에는 잔빙렬이 가득하다. 접지면은 흙물에 담근 뒤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2.6㎝, 저경 4.8㎝

⑤ 백자 저부(도면 110-4, 사진 173-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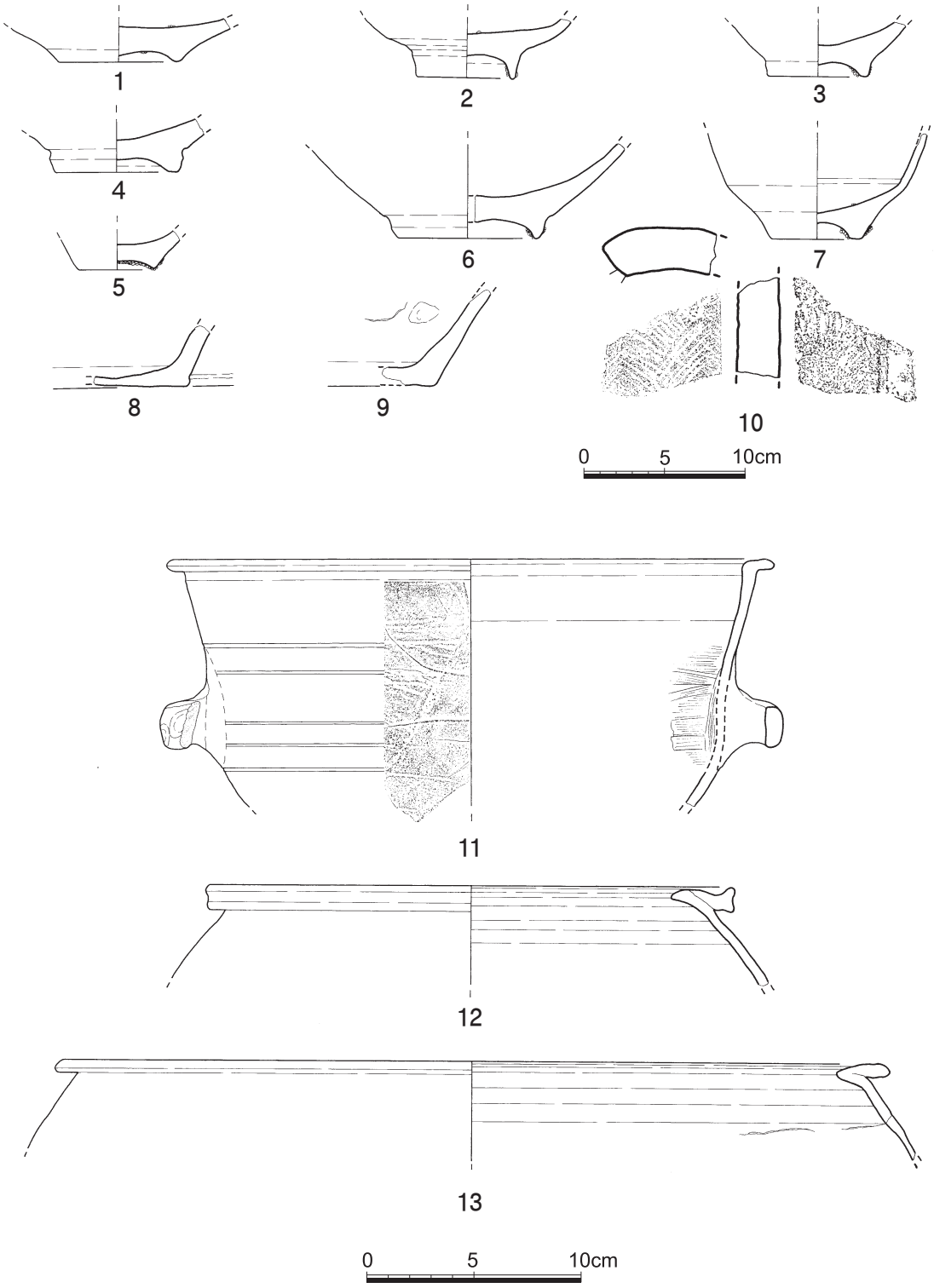
저부의 1/2가량이 남아있다. 죽절굽이며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유약의 용융상태가 불량해 기포가 많고 굽주변에 유약이 뭉쳐있으며 유색은 회갈색을 띤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모래받침을 하였다. 현고 2.5㎝, 저경 5.8㎝

⑥ 백자 저부(도면 110-7, 사진 173-②)

저부의 2/3가량이 남아있다. 대접으로 추정되며 굽은 기벽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안굽이다.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던 기벽은 동하단부에서 한번 꺾인다.광택이 있는 담청색의 유약이 굽안쪽까지 입혀졌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접지면에는 흙물에 굵은 모래를 받쳤다. 현고 5.0㎝, 복원저경 4.4㎝

⑦ 백자 저부(도면 110-6, 사진 173-③)

발의 저부로 추정되며 저부의 1/3 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죽절형식이며 굽안쪽은 둥글게 깎아냈는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유색은 광택이 있는 연한 회색인데 시유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치밀하다. 기면에 빙렬과 기포가 보인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흙물모래받침을 하여 번조하였다. 현고 4.5㎝, 복원저경 6.7㎝



도면 110. 2지점 나구역 조선 8호 주거지 출토유물

⑧ 옹기 구연부편(도면 110-12, 사진 173-④)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백색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구연은 밖으로 접어 윗면이 넓은 전을 형성하고 있다. 현고 4.7㎝, 복원구경 24.6㎝

⑨ 파수부동이(도면 110-11, 사진 173-⑤)

구연부와 대상파수 한쪽이 붙은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5Y 3/1)을 띠며 속심은 흑색이다. 동체외면은 타날 후 횡침선을 여러줄 돌리고 대상파수를 부착하였다. 파수부착면에는 지두흔과 정면흔이 잘 남아있으며 동체내면에도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현고 11.8㎝, 복원구경 27.8㎝, 파수두께 0.8㎝

⑩ 도기 구연부편(도면 110-13, 사진 173-⑥)

옹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다량의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7.5Y 4/1)을 띠며 속심은 회흑색이다. 구연은 밖으로 꺾어 윗면이 넓은 전을 이루고 있다. 동체외면은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점토띠흔과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고 4.6㎝, 복원구경 43.8㎝

⑪ 도기 저부편(도면 110-9, 사진 173-⑦)

연질의 도기로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립과 세사립, 토기부스러기가 섞였으며 점성이 다소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N 4/), 속심은 회백색이다. 동체외면은 평행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점토띠흔과 도구흔이 보인다. 현고 4.6㎝

⑫ 도기 저부편(도면 110-8, 사진 173-⑧)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갈색(10YR 3/2)을 띠나 바닥면은 갈색을 띤다. 현고 2.9㎝

⑬ 수키와(도면 110-10, 사진 173-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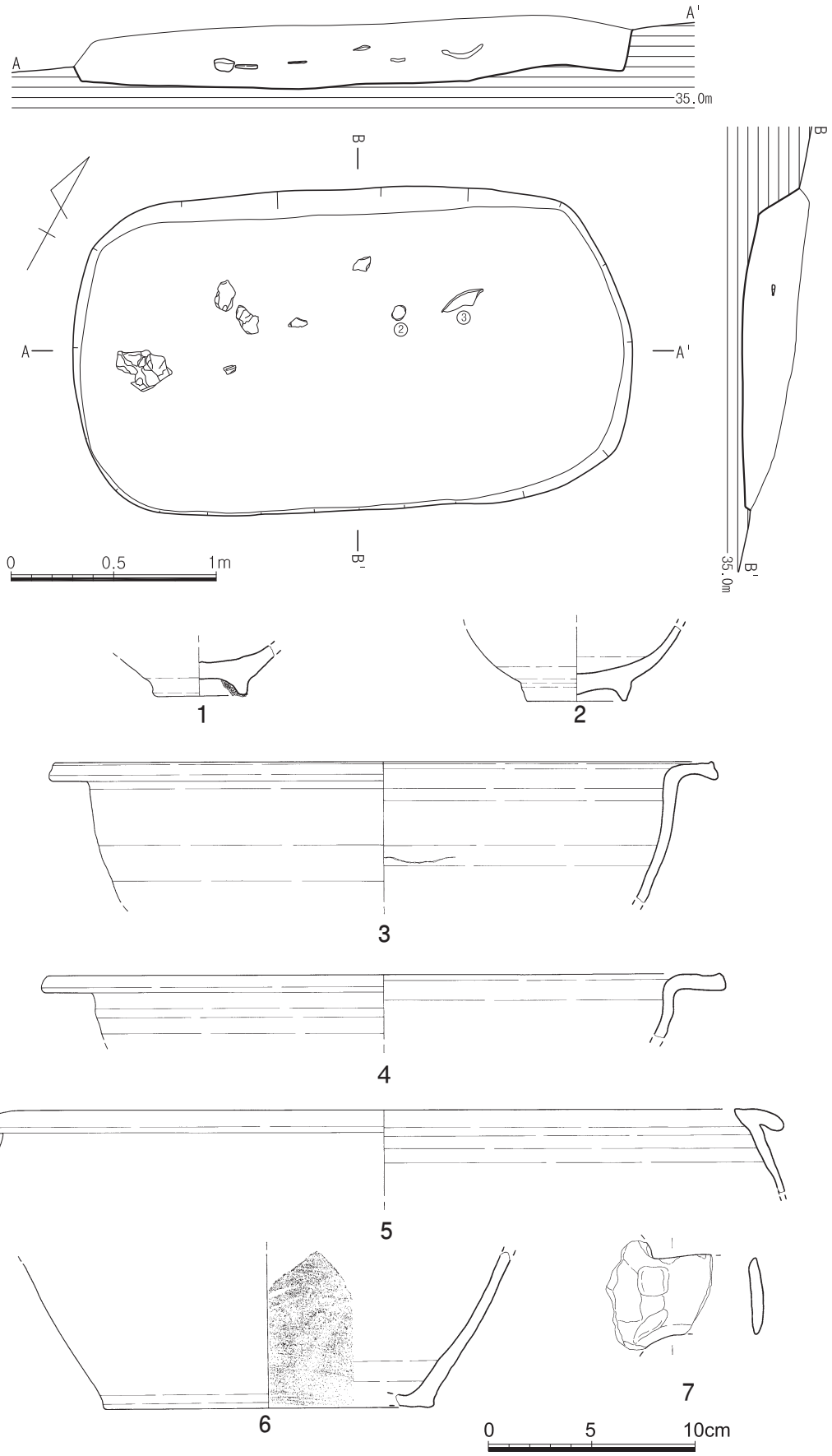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흑회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에는 교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배면에서는 물손질 정면되어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단면과 인접하여 사선방향으로 빗질흔이 일부 남아있다. 측면와도흔은 4㎜가량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 후 타격분할되었다. 분할계선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6.5㎝, 현최대폭 7.0㎝, 두께 2.5㎝

9) 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1, 사진 174·175)

9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 남쪽 5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 남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35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는 어깨선 윤곽만이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1°-E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규모는 273×155×20㎝(1.76:1)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인 것으로 보아 유수에 의해 급격히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111. 2지점 나구역 조선 9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은 적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며 장축선상과 북장벽 사이에서 열을 지어 백자 저부편, 도기 구연부편·저부편,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111-1, 사진 175-②)

저부를 제외하고 모두 멸실되었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며 굽안쪽을 깊고 둥글게 깎아냈다. 연한 회색의 유조를 보이며 굽안쪽까지 유약을 입혔는데 시유상태가 양호하다. 광택이 좋은 편이나 기면에 작은 흑반이 가득하다. 내저면에 모래받침흔적이 있고 접지면은 흙물에 담근 후 굵은모래를 잔뜩 묻혔다. 현고 2.5㎝, 저경 4.5㎝

② 백자 저부편(도면 111-2, 사진 175-③)

저부의 1/2가량이 남아있다. 죽절굽이며,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냈는데 가운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다. 광택이 있는 담청색의 유조를 보이는데 굽부분을 제외하고 유약을 입혔다. 태토는 잡물없이 깨끗하고 치밀하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태토받침 탈락흔이 있다. 현고 3.7㎝, 저경 5.0㎝

③ 도기 구연부편(도면 111-3, 사진 175-④)

동이류의 구연부로 1/4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석영립, 기타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올리브흑색(7.5Y 3/1)을 띠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은 올리브황색(5Y 6/3)을 띤다. 구연은 직각에 가깝게 밖으로 꺾어 윗면이 넓은 전을 이루고 있다. 동체내면에는 점토띠의 흔적이 보인다. 현고 6.9㎝, 복원구경 32.4㎝

④ 도기 구연부편(도면 111-4, 사진 175-⑤)

동이류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백색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4/1)을 띤다. 구연은 직각에 가깝게 밖으로 꺾어 윗면이 넓은 전을 형성한다. 현고 3.1㎝, 복원구경 33.0㎝

⑤ 도기 구연부편(도면 111-5, 사진 175-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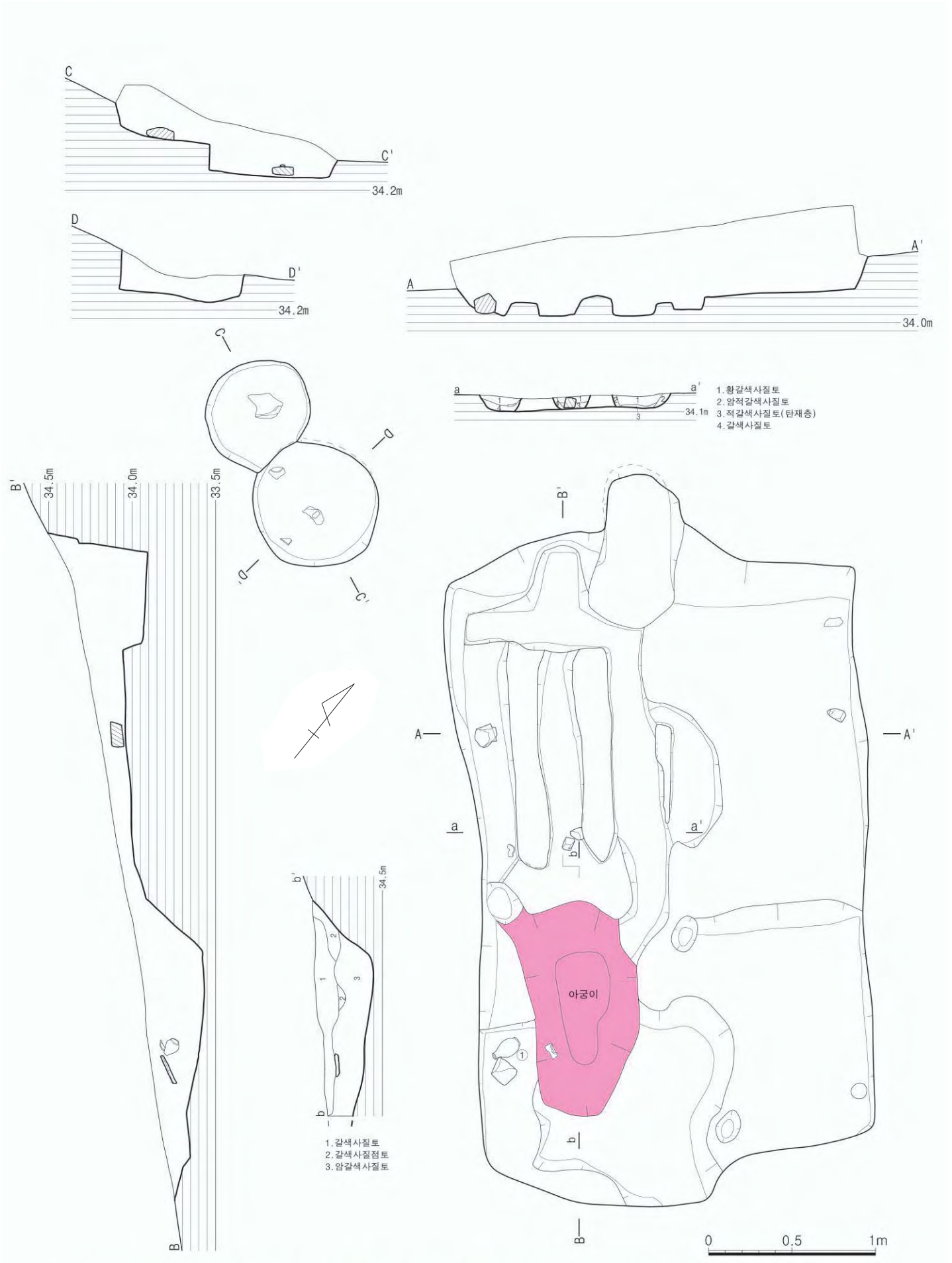
옹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다량의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은 밖으로 꺾어 접었고, 동체외면은 타날 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고 4.1㎝, 복원구경 36.2㎝

⑥ 도기 저부편(도면 111-6, 사진 175-⑦)

연질의 도기저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7.5Y 4/1)을 띠고 속심은 암갈색이다. 동체내면에 동심원 모양의 박자흔과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고 7.6㎝, 복원저경 16.2㎝

⑦ 도기 파수(도면 111-7, 사진 175-⑧)

연질의 대상파수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파수의 끝부분에는 손누름흔이 보인다.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내외면, 속심 모두 올리브흑색(7.5Y 3/1)을 띤다. 현파수길이 5.2㎝, 파수폭 3.8㎝, 파수두께 0.6㎝



도면 112. 2지점 나구역 조선 10호 주거지 유구

10) 1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2, 사진 176·177)

10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남서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북서쪽 3.5m지점에 조선시대 9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51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하단부 일부만 유실되었을 뿐 윤곽선이 뚜렷이 남아있다. 층위는 구들이 위치한 상단부는 토광묘 이장 시 대부분이 교란되었으며, 하단부는 아궁이 주변에서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구들이 위치한 상단부와 아궁이와 생활공간이 위치한 하단부로 단을 이루며 분할되어 있다. 장축방향은 N-38°-W로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400×245×60㎝(1.63:1)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3개, 구들,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하부 아궁이 동쪽에 잇대어 위치하며,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22×15×24㎝)으로 보아 중심주공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단벽 중앙에 1개, 동장벽 남쪽 모서리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구들은 아궁이에서 북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고래열과 연결된다. 상단부의 1/2정도 범위에 시설되었으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를 깊이 7~12㎝, 폭 20㎝로 굴광하여 3열의 고래를 조성하였다. 개자리는 북벽 배연부 앞쪽에 3열의 고래가 만나는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고래열보다 10㎝정도 깊게 굴광하였다. 아궁이는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구들과 단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화구부는 직접 고래로 경사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으며 지각은 세우지 않았다. 규모는145×68×37㎝이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에 수혈을 판 후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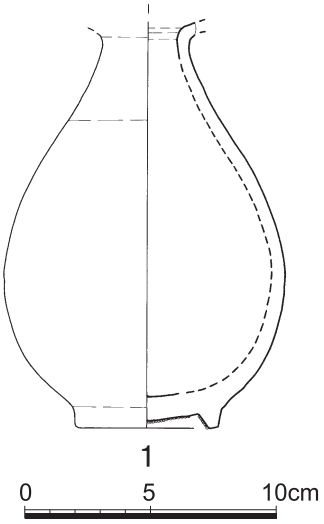
외부 시설은 주거지 북서쪽으로 50㎝ 떨어져 수혈 2개가 붙어서 확인되었는데, 토기편이 내부에서 출토되는 점, 위치와 규모상으로 보아 저장공으로 보인다.

유물은 아궁이 서쪽 서벽 하단부에서 백자병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병(도면 113-1, 사진 177-④)

구연부분만 결실되었다. 기벽은 사선으로 벌어져 내려오다가 몸체의 아랫부분에서 풍만한 곡면을 이루는 안정감이 있는 형태이다. 굽은 거의 직립하며 깎음새도 단정한 편이나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회백색의 유색을 보이며 굽안까지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하나 굽주변 일부는 유약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바닥에 가는모래가 붙어 있다. 현고 16.4㎝, 저경 5.7㎝



도면 113. 2지점 나구역 조선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11) 1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4, 사진 178·179)

11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벽 서쪽 모서리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와 중복, 북서쪽 20m지점에 2호 야외노지, 남서쪽 5.8m지점에 조선시대 5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74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조선시대 54호 주거지에 의해 서장벽 북쪽 모서리가 훼손되었을 뿐 양호하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고래열에는 소토와 흑갈색 사질토가 차 있으며 아궁이 및 하부에 탄재층과 소토가 퇴적토들과 섞여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구들이 위치한 상단부와 아궁이와 생활공간이 위치한 하단부로 단을 이루며 분할되어 있어 10호와 유사한 구조이다. 장축방향은 N-46°-E로 등고선방향과 사선방향이다. 규모는 413×228×47㎝(1.81:1)이다.

내부시설은 구들, 아궁이 1개가 확인되었는데, 구들은 아궁이에서 북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고래열과 연결된다. 상단부의 전면에 시설되었으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를 깊이 7~15㎝, 폭 15~20㎝로 굴광하여 4열의 고래를 조성하였다. 고래등은 3열이며 그 위에 작은 할석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고래등의 높이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자리는 북벽 배연부에 위치하며 내부에 판석 1매를 놓았다. 아궁이는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구들과 단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화구부는 직접 고래로 경사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으며 지각은 아궁이 입구에 2개의 홈을 둔 것으로 보아 할석을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92×85×30㎝이며, 조성방식은 암반풍화토에 수혈을 판 후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하단부 아궁이 아래쪽에서 백자접시 저부편, 도기 구연부편·저부편, 미상철제품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접시 저부편(도면 115-1, 사진 179-④)

저부의 1/3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내경하며 기벽은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광택이 있는 담청색의 유색을 띠며 시유상태도 양호하다. 굽접지면에 흙물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2.5㎝, 복원저경 5.0㎝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115-2, 사진 179-⑤)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경도가 낮은 편으로 태토는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은 암회색(N 3/), 속심은 회색을 띤다. 현고 1.3㎝

③ 도기 저부편(도면 115-4, 사진 179-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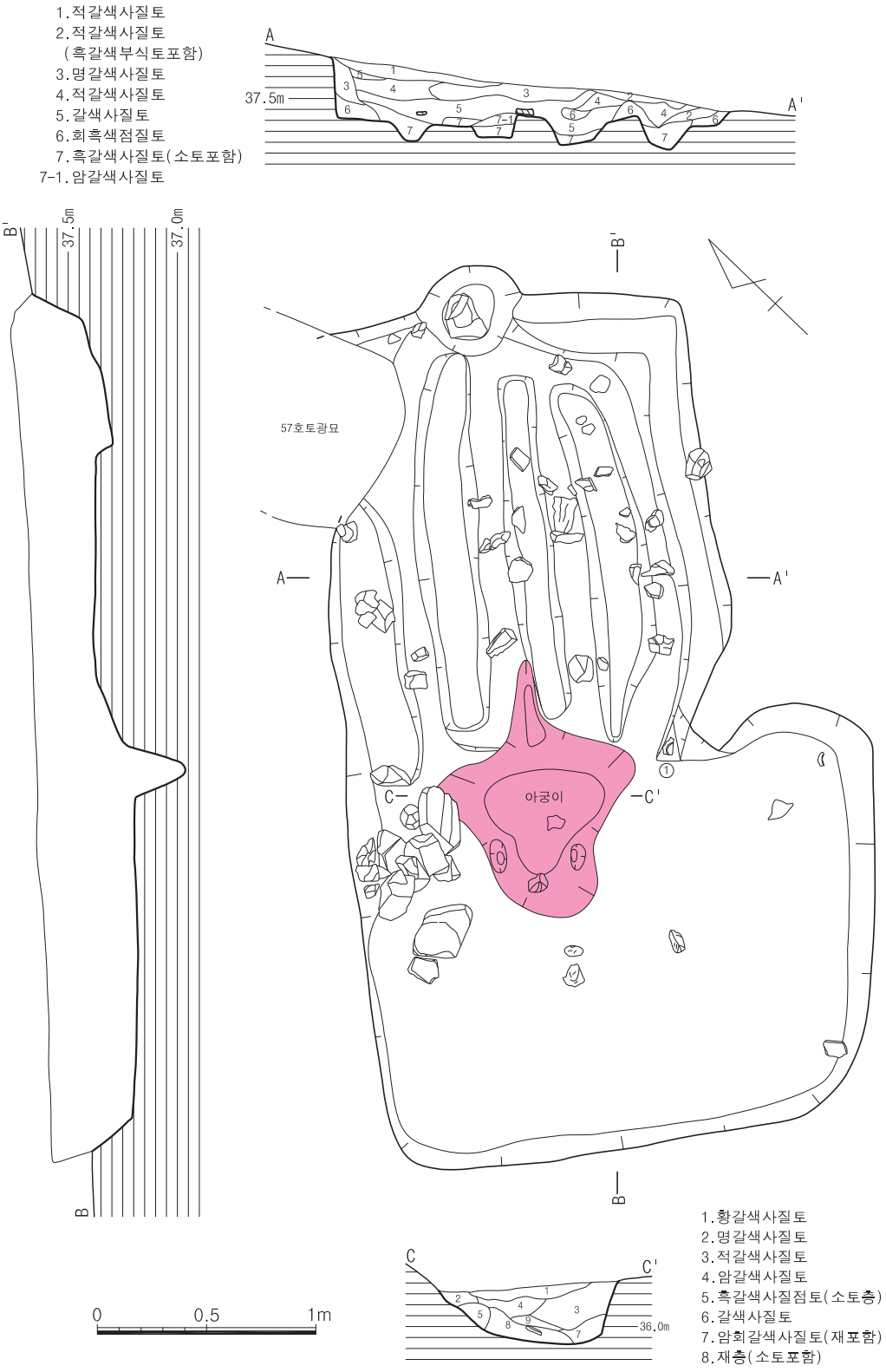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경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7.5Y 3/1)을 띠며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현고 4.8㎝, 복원저경 27.1㎝

④ 도기 저부편(도면 115-3, 사진 179-⑦)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경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석영립 소량과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5Y 2/1)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현고 7.7㎝

⑤ 미상철제품(도면 115-5, 사진 179-⑧)

일부가 남아있어 용도를 알기 어려운 얇은 판상형의 철제품이다. 현길이 1.4㎝, 현폭 6.1㎝, 두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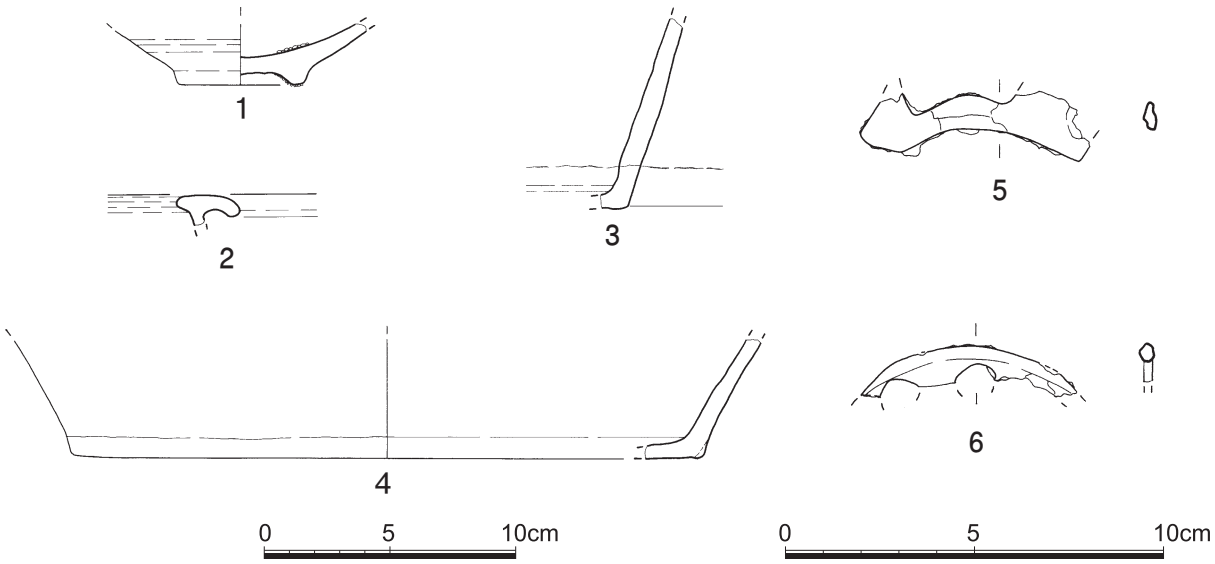


도면 114. 2지점 나구역 조선 11호 주거지 유구

무게 6g

⑥ 미상철제품(도면 115-6, 사진 179-⑨)

일부가 남아있어 용도를 알 수 없는 철제품으로 현재 남아있는 평면형태는 弧形이다. 구멍으로 추정되는 곳이 2군데 보인다. 현길이 1.0㎝, 현폭 5.7㎝, 두께 0.4㎝, 무게 3g



도면 115. 2지점 나구역 조선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12) 12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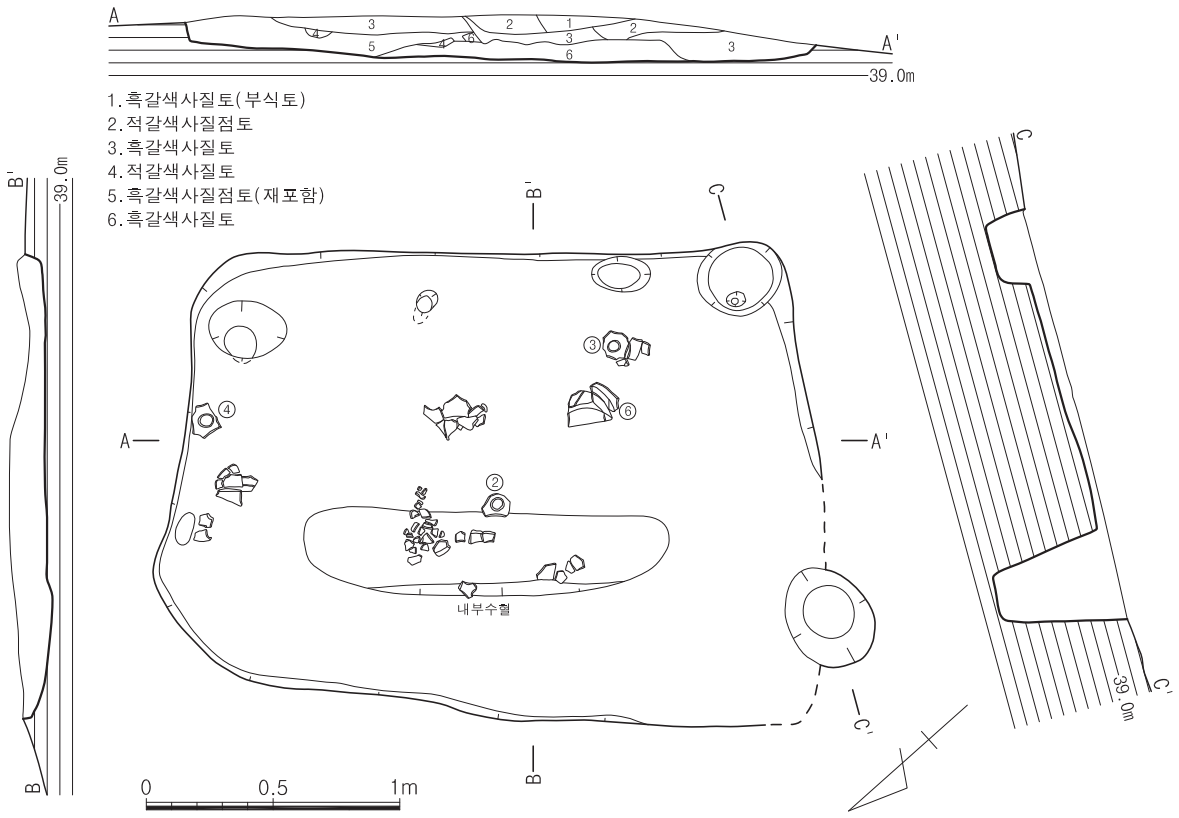
(1) 유구(도면 116, 사진 180·181)

12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5m지점에 2호 야외노지, 북동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2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로 서단벽 일부는 유실되었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가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바닥 중앙에는 흑갈색 사질토 속에 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2°-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규모는 265×186×7㎝(1.42:1)이다.

내부시설은 주공 4개, 수혈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 3개가 북장벽 동쪽 모서리를 제외하고 3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남장벽 서쪽 모서리에서 중앙쪽으로 30㎝ 떨어져 보조주공 1개가 위치한다. 수혈은 중앙에서 북장벽 쪽으로 30㎝정도 떨어져 장축방향과 나란하게 규모 150×30×5㎝로 길게 놓여져 있으며, 내부에서 백자 대접, 도기편 등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중앙 작업공간 주변과 동단벽에 중앙에 치우쳐 백자대접, 백자접시 저부, 백자발 저부, 도기 구연부편·저부편·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116. 2지점 나구역 조선 12호 주거지 유구

(2) 유물

① 백자대접(도면 117-1, 사진 181-⑤)

굽에서 구연까지 일부가 남아있어 기형을 알 수 있는 대접편이다. 굽은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한 편으로 내측을 둥글게 깎아냈다. 유색은 회녹색을 띠며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일부에 유약이 뭉쳐있고 유약의 융착상태도 좋지 않아 기벽에 기포가 많다. 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은 흙물에 모래를 받쳤고 내저면에도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구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고 8.0㎝, 복원구경 14.0㎝, 복원저경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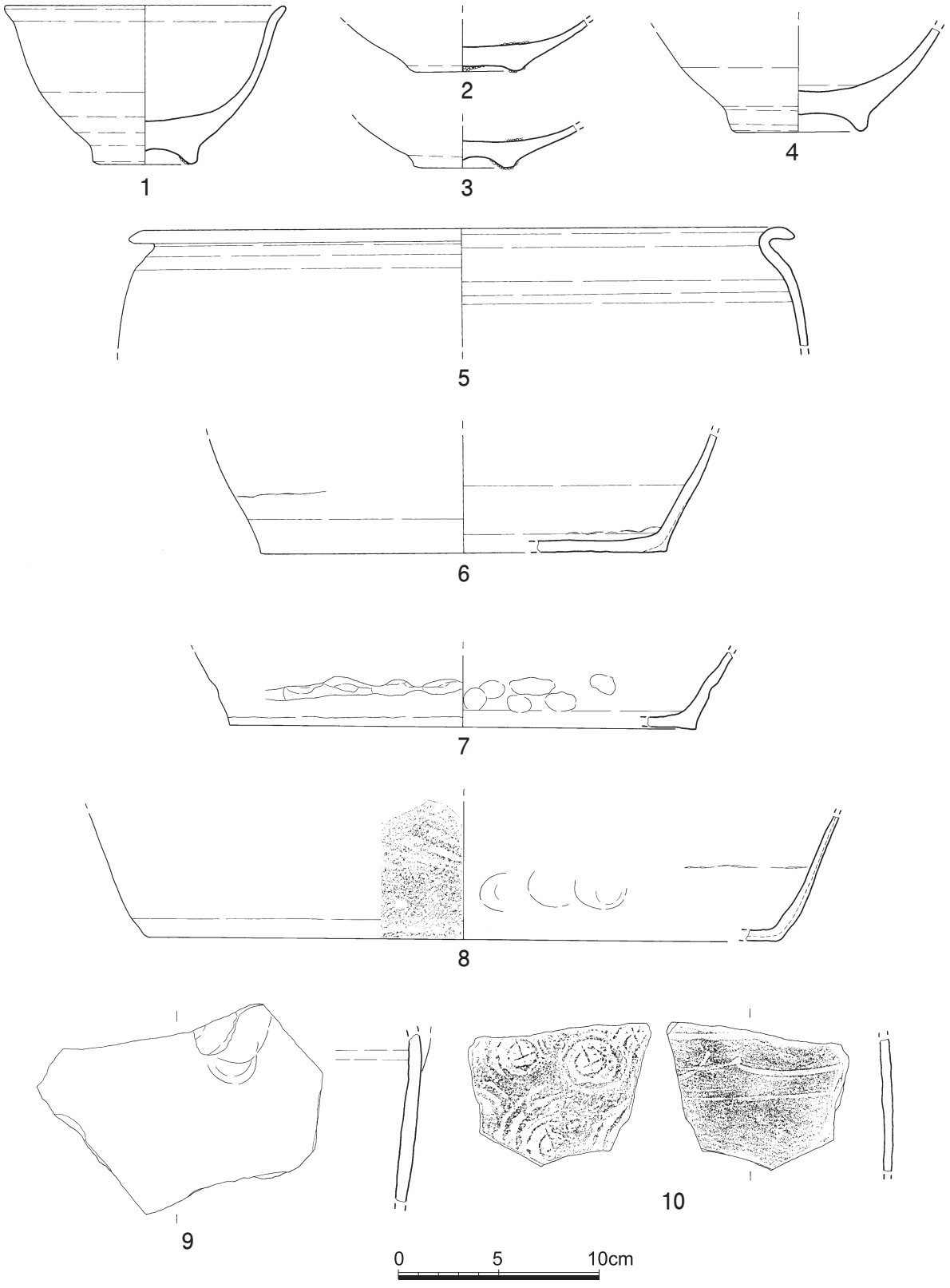
② 백자접시 저부(도면 117-2, 사진 181-③)

저부를 제외하고 모두 멸실되었다. 기벽은 낮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유색은 담청색을 띠며 굽안까지 시유하였다. 시유상태는 다소 불량하여 유약이 뭉치고 흘러내렸으며 기면에는 녹반과 잡물이 많이 보인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흙물모래를 받쳤다. 현고 2.7㎝, 저경 5.7㎝

③ 백자접시 저부(도면 117-3, 사진 181-④)

저부만 남아있다. 굽은 깎음새가 양호하며 굽안을 오목하게 돌려깎았는데 가운데가 원뿔처럼 뾰족하다. 회색조의 유색을 보이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굽안까지 시유하였다. 기내면에 녹반이 조금 보이며 회백색의 태토는 치밀한 편이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흙물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2.3㎝, 저경 5.0㎝

④ 백자발 저부(도면 117-4, 사진 181-⑥)



도면 117. 2지점 나구역 조선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저부를 제외하고 멸실되었다. 굽은 죽절형이며 전반적으로 깎음새가 단정한 편이다.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굽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외면은 회청색의 유조를 보이나 내면은 회갈색을 띠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유층이 얇으며 융착상태가 좋지 못해 기벽에 기포가 보인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흙물모래를 받쳤다. 현고 5.4㎝, 저경 6.7㎝

⑤ 도기 구연부편(도면 117-5, 사진 181-⑦)

동이류의 구연부편으로 1/3가량이 남아있다. 경질이나 경도는 다소 낮은 편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 다량과 석영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흑색(7.5Y 2/1)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꺾은 형태이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고 6.0㎝, 복원구경 32.0㎝

⑥ 도기 저부편(도면 117-6, 사진 181-⑨)

저부의 1/4가량이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R 4/1)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바닥과 동체를 접합한 후 내외면을 깨끗이 정면하였다. 현고 5.9㎝, 복원저경 20.7㎝

⑦ 도기 저부편(도면 117-7, 사진 181-⑧)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경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내외면, 속심 모두 올리브흑색(7.5YR 3/2)을 띤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내외면에 지두흔과 도구흔이 남아있다. 현고 4.0㎝, 복원저경 23.8㎝

⑧ 도기 저부편(도면 117-8, 사진 181-⑩)

저부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소량의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5Y 5/1)을 띤다. 동체외면을 타날하였으나 거의 지워졌으며 내저면에 점토띠흔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6.4㎝, 복원저경 32.2㎝

⑨ 도기 동체부편(도면 117-9, 사진 181-⑫)

파수부착흔이 있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에는 다량의 가는 운모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올리브흑색(7.5Y 3/2)을 띠며 속심은 등색이다. 파수부착면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8.4㎝

⑩ 도기 동체부편(도면 117-10, 사진 181-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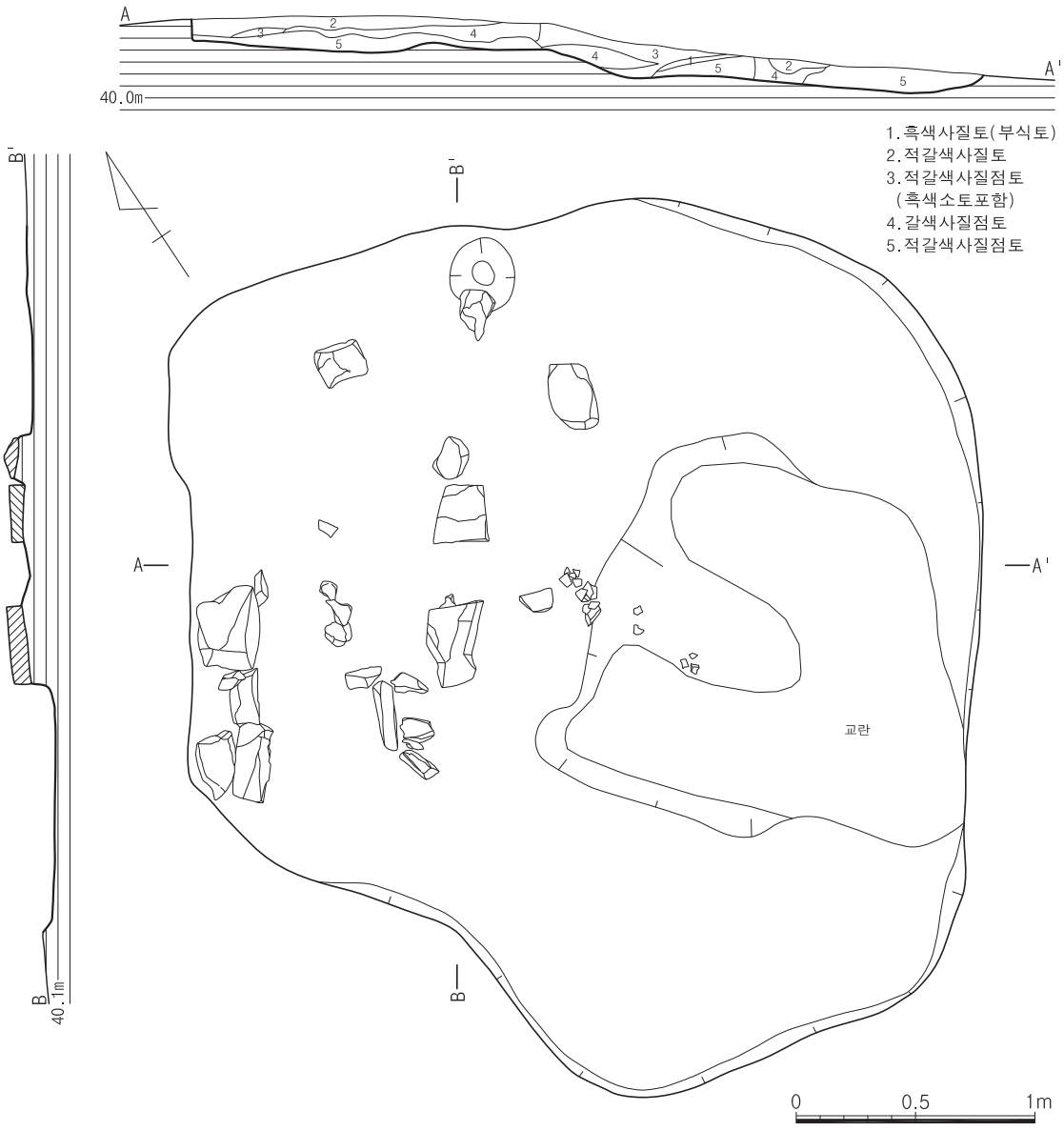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색(7.5Y 2/1)을 띠고 내면은 흑갈색, 속심은 암적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2조의 침선사이에 파상문을 시문하였고, 내면에는 동심원안에 '×'가 표시되어 있는 내박자흔이 잘 남아있다. 현길이 7.4㎝

13) 1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8, 사진 182·183)

13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정상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23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서벽과 남벽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동-서축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층위는 흑색 부식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은 바닥부 150㎝정도가 교란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



도면 118. 2지점 나구역 조선 13호 주거지 유구

상태로 보아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4°-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규모는 375×331×15㎝(1.13:1)이다.

내부시설은 북벽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주공 1개가 있으며, 구들시설은 서벽 중앙에 놓인 것들만 원위치이며 대부분 훼손되어 고래열의 확인이 어렵다.

유물은 중앙 교란된 수혈 서쪽 어깨선에 잇대어 백자접시 저부, 도기 구연부편·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접시 저부(도면 119-3, 사진 183-④)

저부만 남아있다. 기벽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며 굽은 낮은 오목굽으로 굽내측을 다소 평평하게 깎아냈다. 접지면의 폭이 좁은 편이다. 유색은 회백색을 띠나 발색이 좋지 않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조금 섞여있다. 기면에 녹반과 잔빙렬이 보인다. 접지면은 흙물을 묻힌 후 모래를 받쳤으며 내저면에도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현고 2.2㎝, 저경 5.1㎝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119-2, 사진 183-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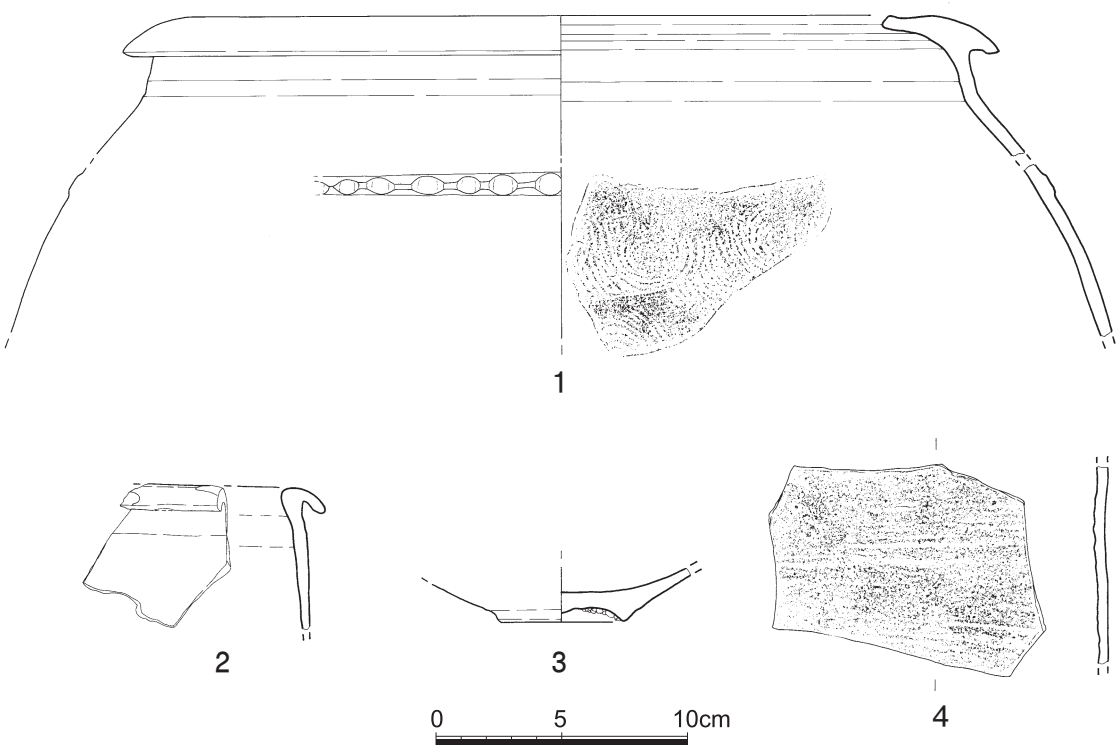
동이류이며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7.5Y 4/1)을 띠는 연질로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와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벽은 일직선으로 올라오며 구연은 밖으로 꺾어 접었다. 현길이 5.8㎝

③ 옹 구연부편(도면 119-1, 사진 183-⑤)

구연일부와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흑갈색(10YR 3/1)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을 띤다. 구연은 윗면을 둥글고 넓적하게 만들었으며 동상위부분에는 점토를 일정간격으로 눌러 둥글게 모양을 낸 돌대를 둘렀다. 동체내면에는 동심원모양의 박자흔이 있다. 복원고 13.0㎝, 복원구경 30.0㎝

④ 도기 동체부편(도면 119-4, 사진 183-⑦)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갈색(2.5YR 3/1)을 띠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이다. 외면은 평행·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동심원안에 '×'가 표시되어 있는 내박자흔이 있다. 현길이 8.5㎝



도면 119. 2지점 나구역 조선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14) 1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0, 사진 184·185)

14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벽 중앙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가 중복, 남쪽 11m지점에 조선시대 24·2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26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교란과 삭평으로 인하여 서벽과 남벽은 유실되었으며 하단부는 바닥 일부가 유실된 상태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점토가 우세하며 최하층 흑갈색 사질토가 쌓인 것으로 보아 잦은 유수로 인해 복잡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4°-E로 등고선방향과 평행한다. 잔존규모는 860×440×60㎝이다.

내부시설은 동벽과 북벽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5개 정도의 주공이 확인되며 정형성은 없다. 저장공은 북벽 중앙에 위치하며 61호 토광묘에 의해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저장공 내에서 맷돌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북벽 저장공 내에서 맷돌, 도기 동체부편, 중앙 바닥에서 백자 저부, 백자병 저부, 도기 구연부편·동체부편, 수키와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121-2, 사진 186-①)

대접의 저부로 추정되며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높고 굽안쪽을 오목하게 깎아냈는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기벽은 동체 아래쪽에서 한번 꺾여 올라간다. 유색은 청백색이며 굽안까지 시유되었는데 시유상태가 좋지 못해 굽주변에 유약이 뭉쳐있고 기포가 보인다. 기면에 빙렬이 있다. 접지면은 흙물에 모래를 받쳤고 안바닥에도 모래받침흔이 있다. 현고 4.7㎝, 복원저경 4.6㎝

② 백자 저부(도면 121-3, 사진 186-②)

굽은 온전하며 동체 하단부 일부가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며, 기벽은 곡면을 그리며 부드럽게 올라간다.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유색은 유백색으로 고르게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기면에 기포가 많다. 빙렬은 없다. 접지면에는 흙물에 모래를 묻혔으며 안바닥에는 모래받침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4.4㎝, 저경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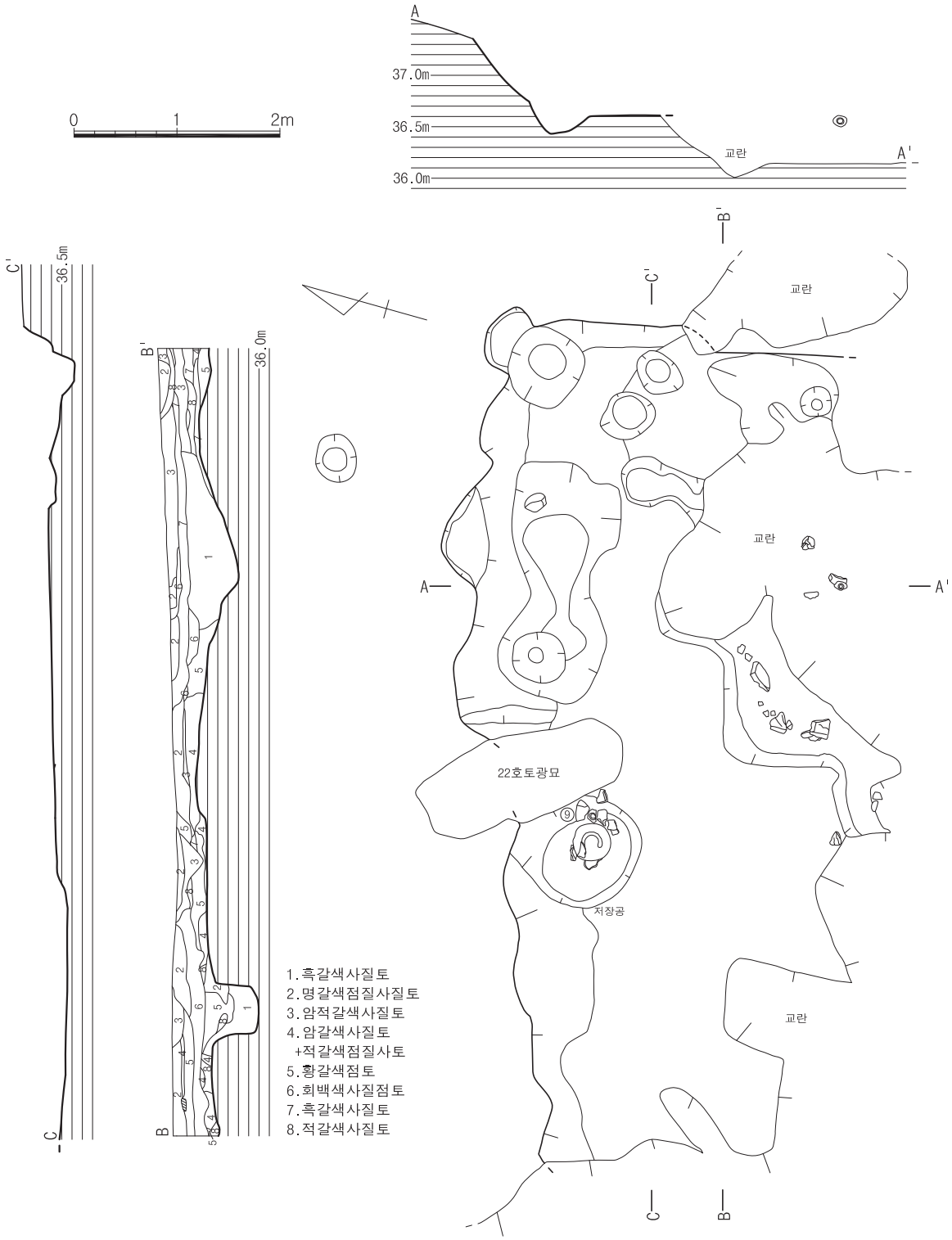
③ 백자 저부(도면 121-5, 사진 186-③)

저부만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며, 기벽은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바닥이 두꺼워 둔중한 느낌을 준다. 유색은 청백색을 띠는데 유층이 얇고 시유상태도 고르지 못하며 용융상태도 불량하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3.5㎝, 저경 6.1㎝

④ 백자 저부(도면 121-8, 사진 186-⑥)

백자접시로 저부만 남아있다. 굽은 높은 편으로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굽내측을 둥글게 돌려깎았다. 내저면은 넓고 평평하다. 광택이 있는 밝은 청백색의 유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 되었고 치밀한 편이다. 기면에 녹반과 빙렬이 있다. 접지면에는 흙물에 굵은 모래를 잔뜩 묻혔으며 내저면에도 굵은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현고 3.3㎝, 저경 5.5㎝

⑤ 백자 저부(도면 121-6, 사진 186-④)



도면 120. 2지점 나구역 조선 14호 주거지 유구

백자발의 저부로 2/3가량이 남아있다. 직립하는 굽은 다소 높은 편이며 기벽은 곡사선으로 올라간다. 광택이 있는 유약을 굽안쪽까지 고르게 입혔으나 소성시 산화로 인해 유색은 황갈색을 띤다. 기면에 큰 빙렬이 있다. 접지면은 흙물에 모래를 받쳤으며 안바닥에도 모래받침흔이 있다. 현고 4.8㎝, 저경 6.1㎝

⑥ 백자 저부(도면 121-7, 사진 186-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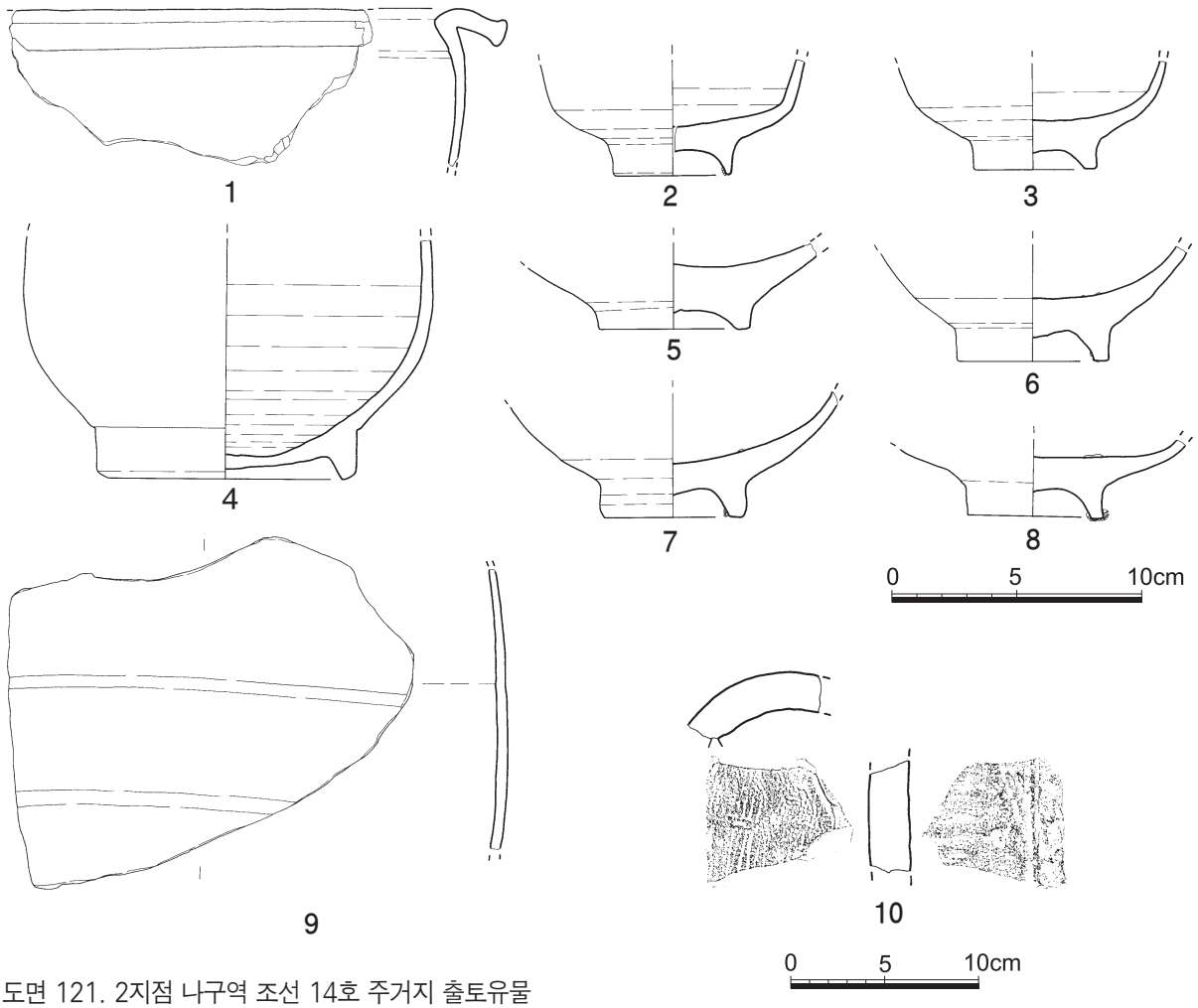
백자발의 저부로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죽절형태를 띠며 기벽은 곡사선으로 올라간다. 광택이 있는 청백색의 유약을 굽안쪽까지 시유하였다. 태토에는 잡물이 조금 보이나 정선되고 치밀한 편이다. 접지면에는 흙물에 모래를 받쳤고 안바닥에도 모래받침흔이 있다. 현고 5.0㎝, 저경 5.8㎝

⑦ 백자병 저부(도면 121-4, 사진 186-⑦)

저부부분이 1/2가량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며 동체하단부에 양감이 있어 안정감이 있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얇게 입혀졌으며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기면에 기포가 많다. 접지면의 유를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9.8㎝, 복원저경 10.9㎝

⑧ 도기 구연부편(도면 121-1, 사진 186-⑧)

동이류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며,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과 토



도면 121. 2지점 나구역 조선 14호 주거지 출토유물

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색조는 외면은 흑갈색(2.5Y 3/1), 내면은 암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이다. 현길이 6.4㎝

⑨ 도기 동체부편(도면 121-9, 사진 186-⑨)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5/)을 띤다. 내면에 동심원모양의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14.5㎝

⑩ 수키와(도면 121-10, 사진 186-⑩)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에는 세로방향의 긁힌 흔적들이 있으나 문양으로 보이지는 않고 정면흔으로 추정된다. 배면에는 10올 이상의 매우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되며 측면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 3㎜가량 일정하게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6.8㎝, 현최대폭 7.0㎝, 두께 1.9㎝

⑪ 맷돌(사진 185-⑧)

화강암제 맷돌로 위·아래 두짝으로 구성되나 현재 윗짝만 남아있다. 윗짝에는 곡식을 집어 넣는 구멍이 있다. 직경 37.0㎝, 두께 10.1㎝

15) 1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2, 사진 187·188)

15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굴립주 건물지, 남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05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주공의 배치로 보아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41°-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바닥은 평평하나 북쪽으로 약간 경사져 올라가고 있다.

내부시설은 주공 23개, 노지 1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주공은 4주식이며 사이에 소주공 및 내부 주공들이 정형성없이 배치되어 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107×69×10㎝로 암반풍화토를 굴토하여 굴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남동쪽 모서리의 주공을 중심으로 1열로 3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지름 40~70㎝, 깊이 45~60㎝로 저장공1에는 판석 1매와 할석 2매를 놓았으며 저장공2에는 판석 1매를 바닥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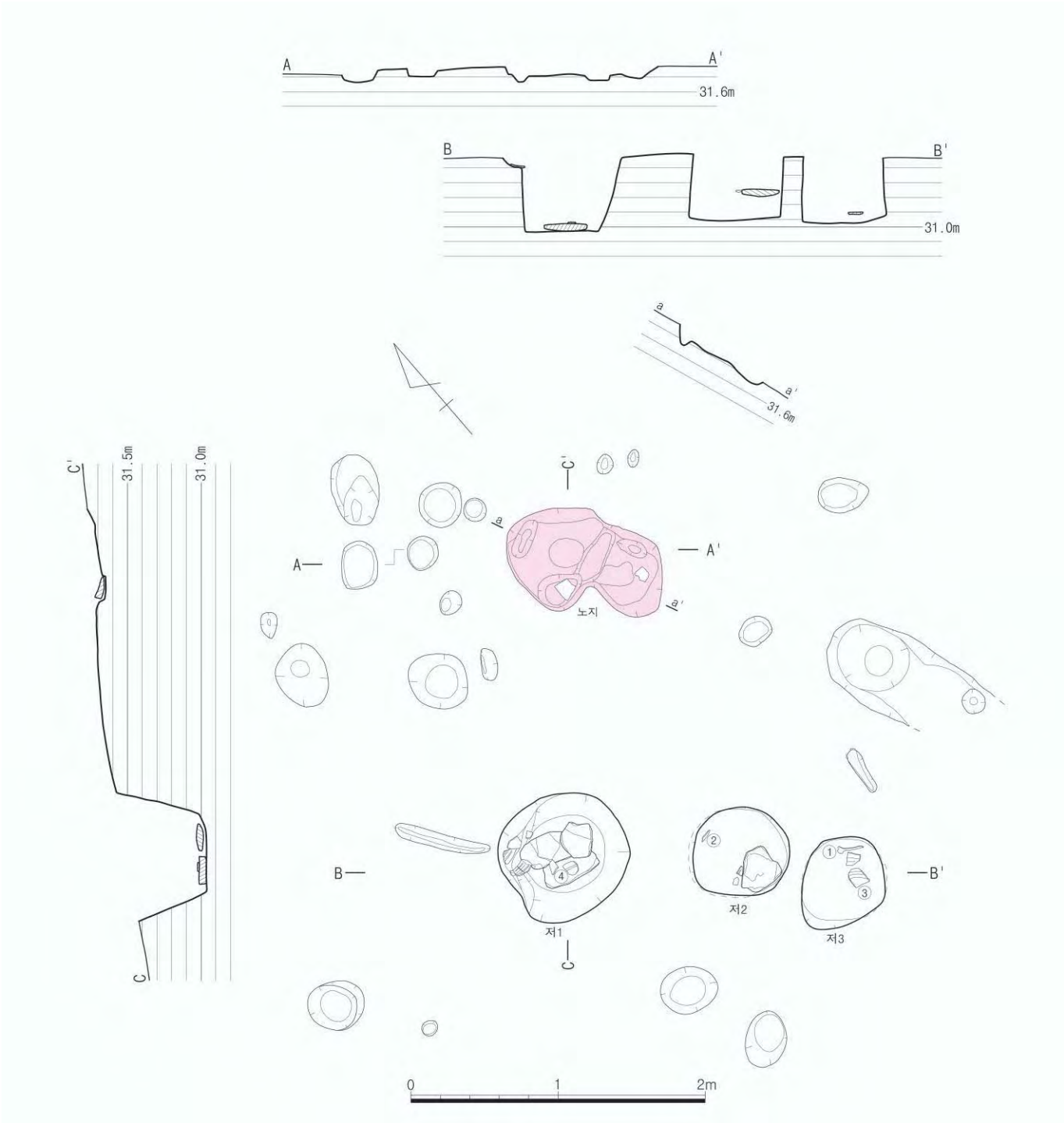
유물은 저장공 내에서 도기 뚜껑, 도기 구연부편·동체부편·저부편, 석제품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뚜껑(도면 123-1, 사진 188-②)

꼭지부분은 온전하며 신부는 1/4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과 석영립, 기타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7.5Y 4/1), 속심은 흑색을 띤다. 꼭지는 단추형이다. 신부외면은 격자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인해 많이 지워진 상태이며 내면에는 점토접합흔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고 12.0㎝, 복원드림경 27.7㎝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123-2, 사진 188-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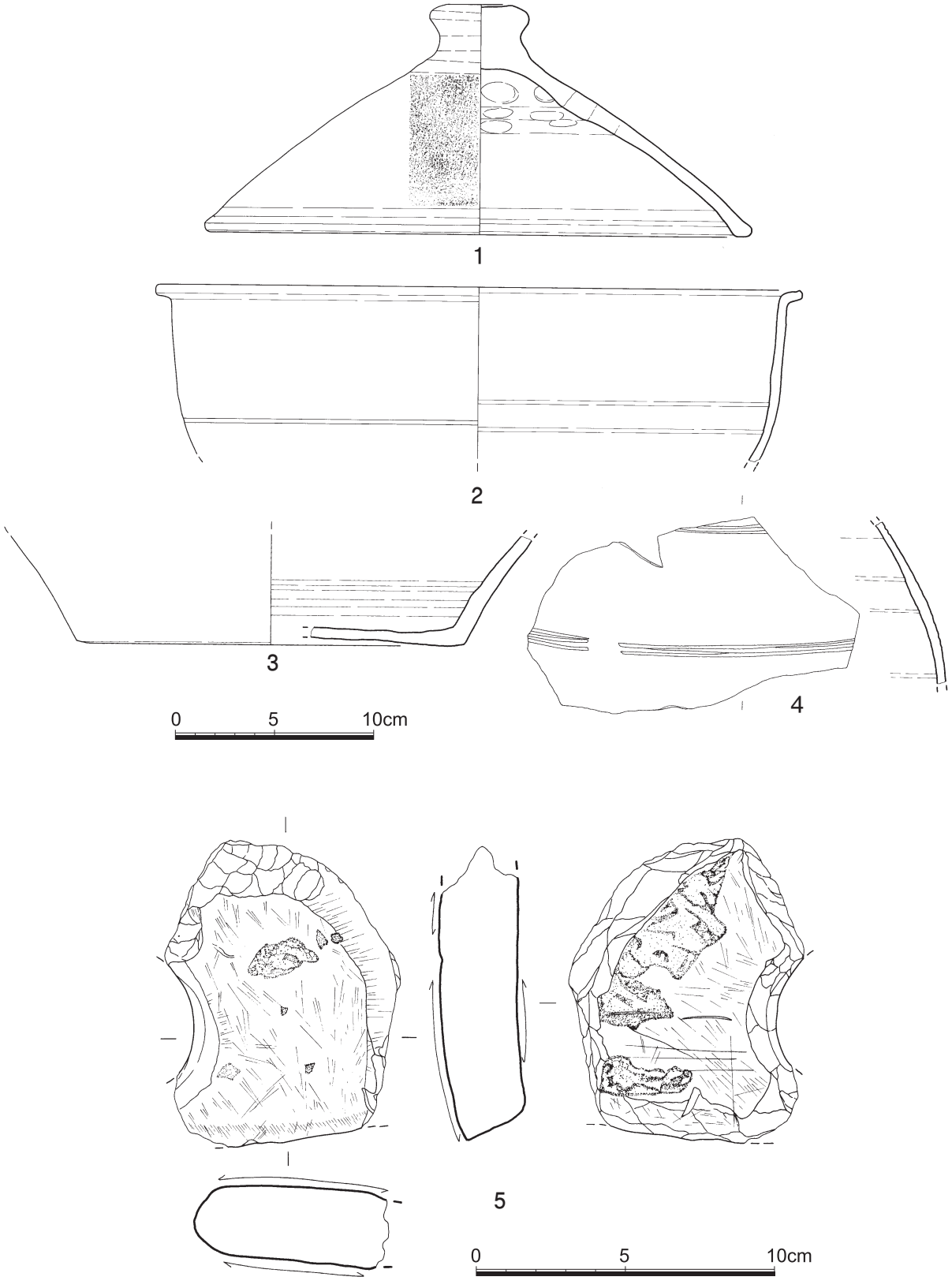


도면 122. 2지점 나구역 조선 15호 주거지 유구

동이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석영립 등 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내외면은 황갈색(2.5Y 5/3)을 띠고 속심은 황색이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고, 침선 1조가 돌려져 있다. 현고 8.7㎝, 복원구경 33.0㎝

③ 도기 저부편(도면 123-3, 사진 188-④)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을 포함한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도면 123. 2지점 나구역 조선 15호 주거지 출토유물

황색(10Y 6/4)을 띠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내면에 물레의 흔적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고 5.6㎝, 복원 저경 20.0㎝

④ 도기 동체부편(도면 123-4, 사진 188-⑤)

경질의 도기 동체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백색사립을 포함한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암회색(N 3/)을 띠나 외면은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기면이 거칠고 회갈색을 띤다.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외면은 격자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거의 지워졌으며 일정간격을 두고 2~3조씩의 침선을 둘렀다. 현길이 8.8㎝

⑤ 석제품(도면 123-5, 사진 188-⑥)

납석제 석제품으로 용도는 알 수 없다. 前·後面이 마연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고타흔적이 있다. 원형의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10.3㎝, 두께 2.6㎝, 무게 340g

2. 야외노지

모두 2기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다. 화강편마암풍화토 또는 회갈색 사질토층을 5~10㎝가량 반타원형으로 파고, 5~20㎝크기의 할석 2~5매를 벽에 붙여 세우고 그 사이에 연소를 하였다. 바닥과 벽면에는 붉게 경화된 면이 확인되고, 재와 숯이 검출된다. 유물은 노지 바닥면에서 백자접시편, 백자대접편을 비롯하여 도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1) 1호 야외노지

(1) 유구(도면 124, 사진 189)

1호 야외노지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6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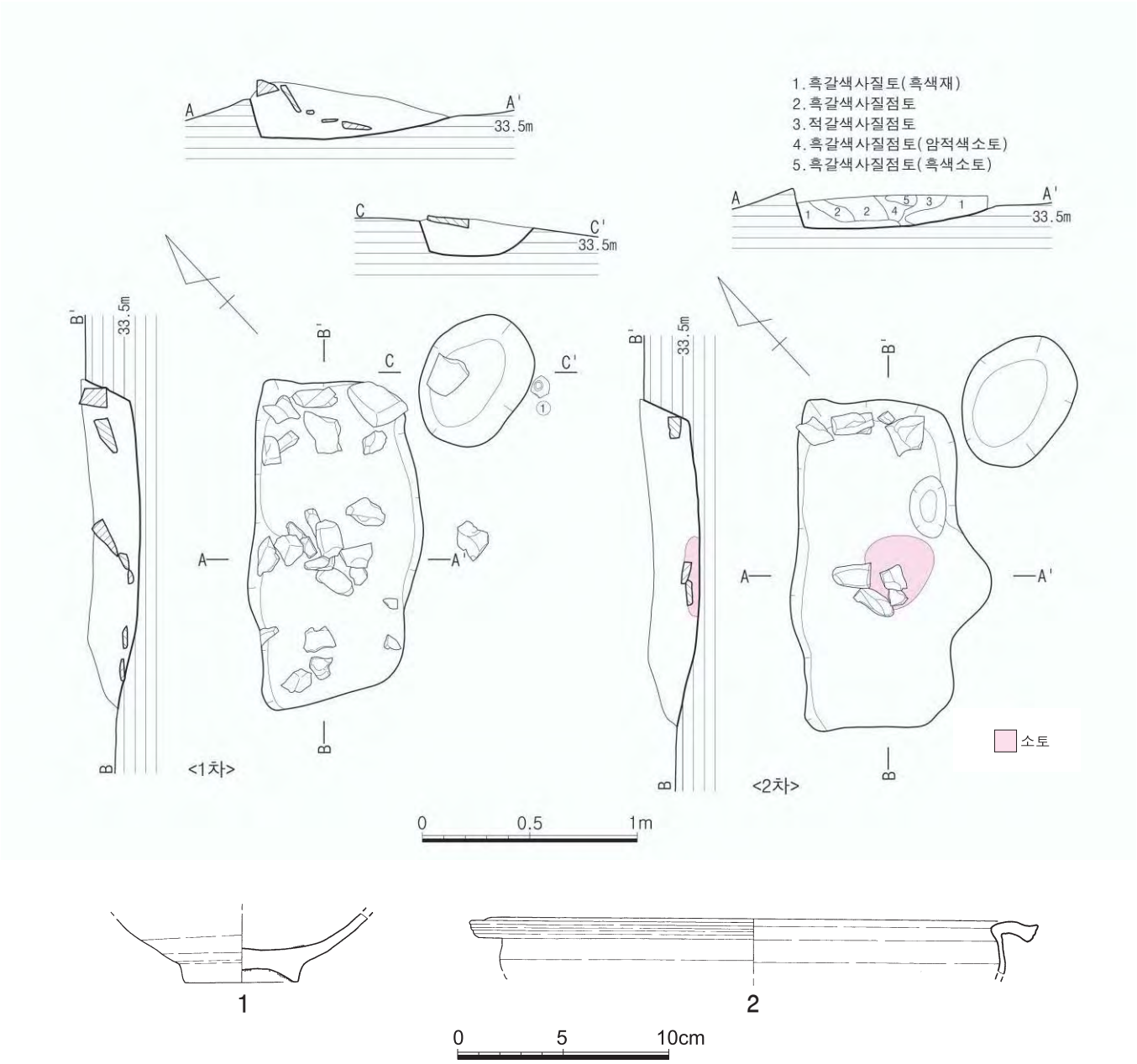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상부에 할석들과 조선시대 백자편과 토기편이 섞여서 확인되어 이를 제거한 후 장방형의 노지가 드러났다. 층위는 소결토 위에 흑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 폐기층을 드러내자 노지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152×92×20㎝이다. 주거지와는 떨어져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유물은 상부 할석과 섞인 폐기층에서 백자 저부와 도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124-1, 사진 189-⑥)

백자대접의 저부이다. 굽은 안굽의 형태이며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냈는데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다. 안바닥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룬다. 태토는 치밀하며 유색은 담청색으로 굽안쪽까지 고르게 시유되었다. 발색이나 광택이 모두 좋은 편이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받침을 하였고, 안바닥에는 굵은 모래받침흔적이 있



도면 124.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다. 현고 3.5㎝, 저경 5.5㎝

② 도기 구연부편(도면 124-2, 사진 189-⑦)

구연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4/1)을 띤다. 기벽이 얇으며, 구연은 직각에 가깝게 밖으로 꺾었고 윗면에 홈을 돌렸다. 현고 2.6㎝, 복원구경 25.2㎝

2) 2호 야외노지

(1) 유구(도면 125, 사진 190)

2호 야외노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4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는 폐기후 퇴적토가 덮여 이를 제거하자 부정형의 어깨선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흑갈색 부식토-적갈색 점질사토-회흑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회색 사질점토층에 재가 포함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307×127×23㎝(2.41:1)이다. 조선시대 12호 주거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 노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12호 주거지의 야외노지로 보인다.

내부시설은 북벽 배연부에 하단부를 오목하게 판 후 할석 1매를 이용하여 아궁이쪽에 세워 놓았다. 용도는 개자리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아궁이 내부에서 백자 저부편, 회구부 중간에서 도기저부편, 퇴적층 내에서 백자 저부편, 도기 저부편, 시루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저부(도면 125-1, 사진 190-④)

백자대접의 저부이다.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냈는데 가운데가 뾰족하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다. 안바닥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룬다. 유색은 회갈색으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되었는데 소성시의 온도가 낮아 굽주변은 연한 갈색을 띤다. 안바닥에 모래받침흔적이 있다. 현고 3.3㎝, 저경 6.2㎝

② 백자 저부편(도면 125-2, 사진 190-⑤)

백자대접의 저부로 1/2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안바닥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룬다. 유색은 회색으로 굽안쪽까지 고르게 시유되었는데 광택이 좋은 편이다. 기면에 흑반이 있다. 접지면에는 흙물에 굵은 모래를 받쳤고, 안바닥에도 굵은 모래받침흔적이 있다. 현고 4.2㎝, 복원저경 5.3㎝

③ 백자 저부편(도면 125-3, 사진 190-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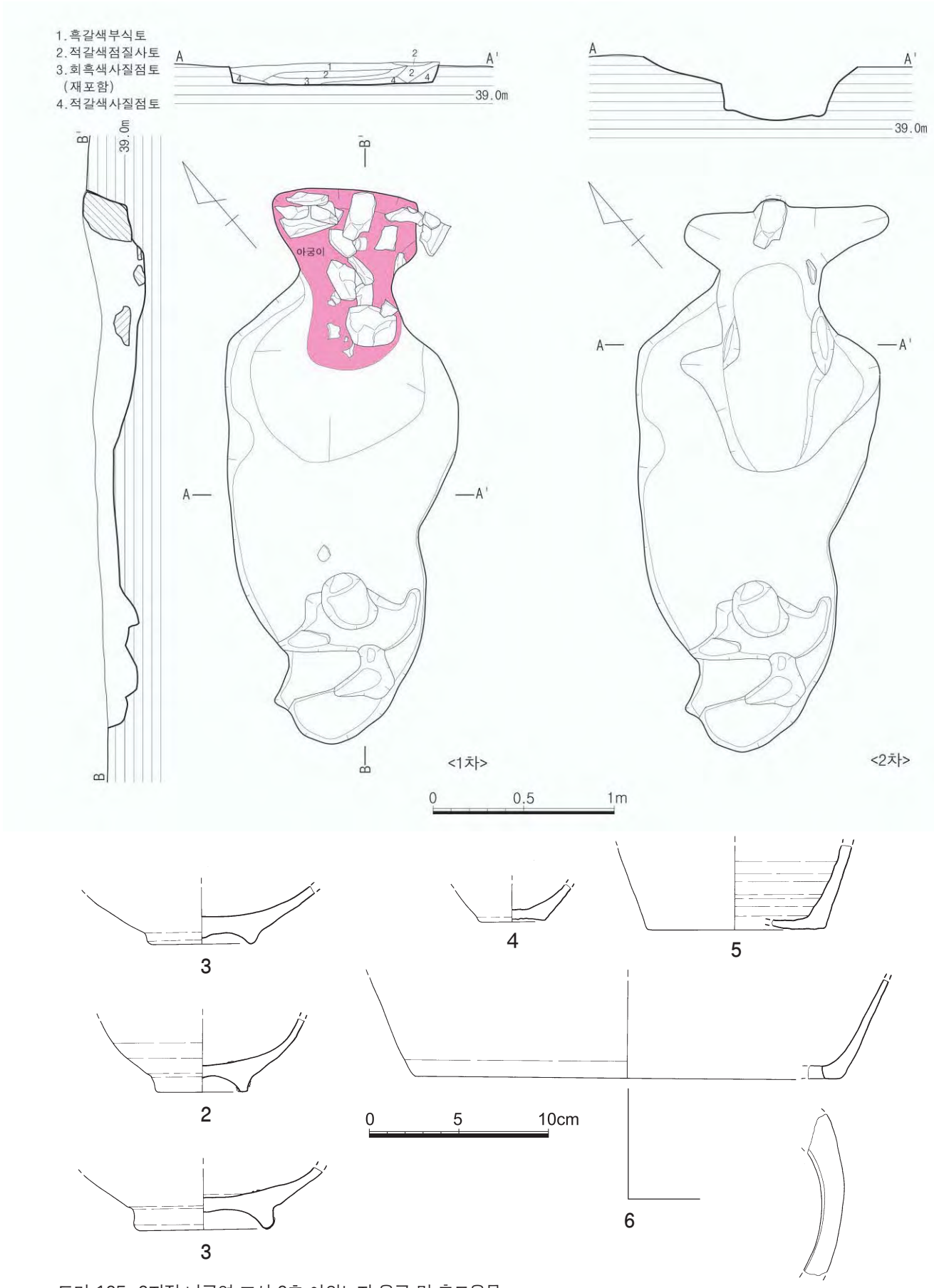
저부가 1/2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고, 기벽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안바닥에는 약 지름 4.6㎝가량의 좁은 원각선이 있다. 태토는 깨끗하고 치밀하며, 유색은 회색으로 굽안쪽까지 고르게 시유하였다. 기면에 잔빙렬이 있다. 접지면에는 유를 닦아낸 후 흙물을 묻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고, 안바닥에도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현고 3.5㎝, 복원저경 7.4㎝

④ 백자 저부편(도면 125-4, 사진 190-⑦)

소형 기종의 저부로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기벽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유약이 입혀졌으나 산화로 인해 갈색을 띠며 광택이 없다. 현고 2.1㎝, 복원저경 3.8㎝

⑤ 백자 저부편(도면 125-5, 사진 190-⑧)

호나 병의 저부로 추정되며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바닥은 평저이나 가운데로 가면서 살짝 들린 형태이고, 기벽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진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유색은 녹색을 띠는데 얇게 시유된 상태로 광택이 적다. 태토에는 잡물이 있다. 현고 4.8㎝, 복원저경 10.1㎝



도면 125. 2지점 나구역 조선 2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⑥ 시루 저부편(도면 125-6, 사진 190-⑨)

저부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은 편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7.5Y5/1)을 띤다. 바닥의 시루구멍은 일부가 남아 모양을 확인할 수 없다. 현고 5.6㎝, 복원저경 25.8㎝

3. 토광묘

토광묘는 대부분 구릉의 말단부와 완만한 남서사면 또는 남동사면에 중복 없이 집중 분포하며 모두 58기가 확인되었다. 해발 35m를 중심으로 유적 북편의 남서사면에 27기, 계곡부에 2기, 남쪽 능선 남서사면에 29기가 분포하고 있다.

유물은 주로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되는데 부장 위치에 따라 요갱에 매납하는 것, 충전토에 매납하는 것, 관위 또는 관내에 매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6, 사진 191)

1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2호 토광묘가 남장벽에 잇대어 중복, 남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동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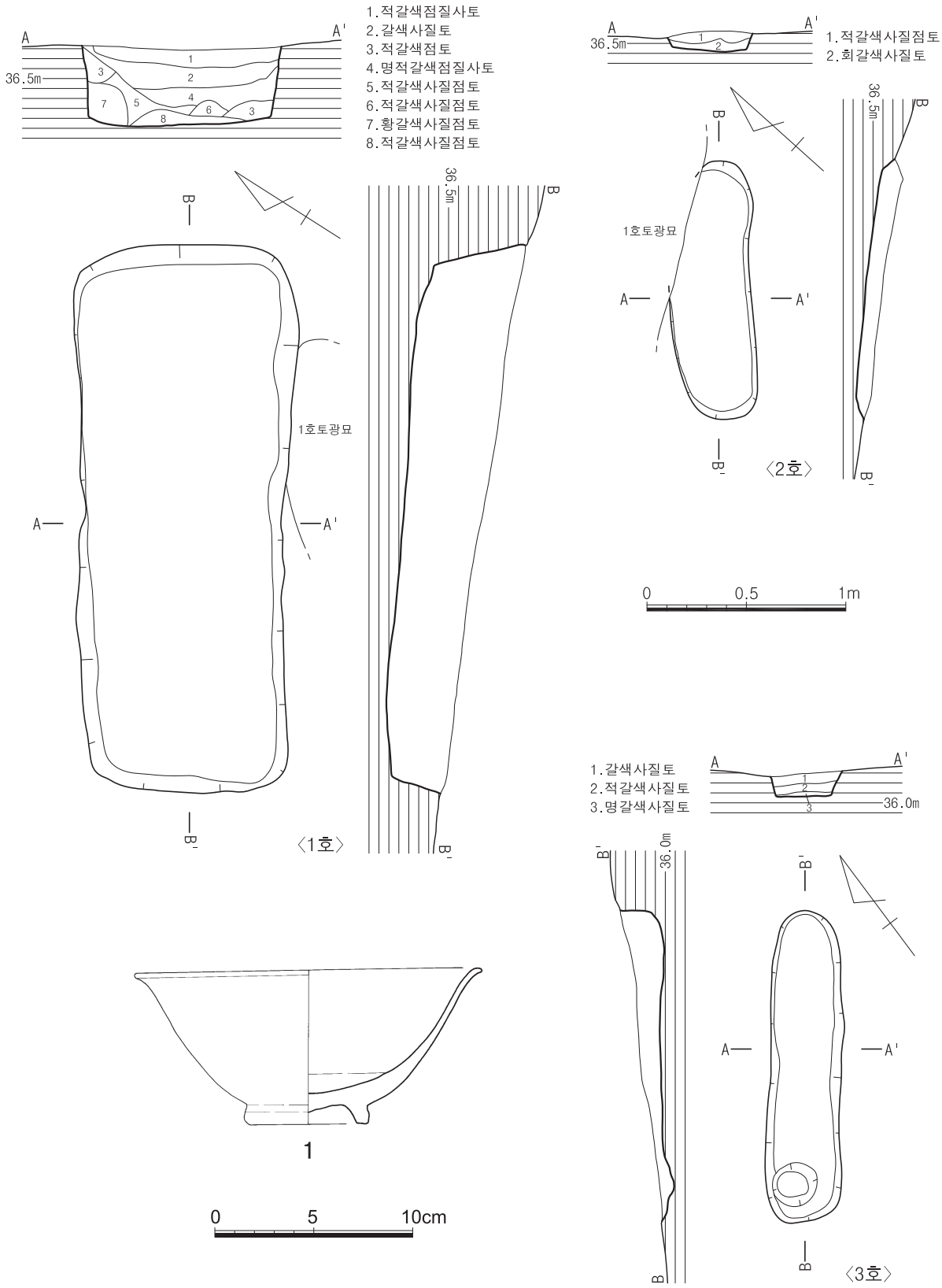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남동장벽 쪽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이나 얕은 'U'자형을 이룬다. 목관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의 출토 위치와 서북장벽에 충전토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목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75×100×46㎝(2.75:1)로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유물은 중심선 가슴쪽에서 서북장벽에 치우쳐 백자대접 1점이 파편 상태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 대접(도면 126-1, 사진 191-④)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어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있다. 굽은 다소 높은 죽절굽이며 몸체는 'S'자형으로 구연이 외반되었다. 내저에 굽경보다 큰 원각이 돌아간다. 담청색의 유색을 보이나 내면은 발색이 좋지 않아 갈색빛을 띠며 굽주위에는 유약의 용융상태가 불량해 기포가 많이 보이고 유약이 뭉쳐있다. 기면에 잔빙렬이 가득하다. 접지면에는 받침흔적이 없으나 내저면에는 4곳에 태토받침 탈락흔이 보인다. 고 7.9㎝, 구경 17.5㎝, 저경 6.1㎝



도면 126. 2지점 나구역 조선 1·2·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1호)

2) 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6, 사진192)

2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1호 토광묘가 북서쪽 모서리에 잇대어 중복, 동남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남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1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1호 토광묘가 조성되면서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0×41×6㎝(3.17:1)로 토광직장묘이다.

3) 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6, 사진 192)

3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남쪽 6.4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동남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23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6×35×17㎝(4.46: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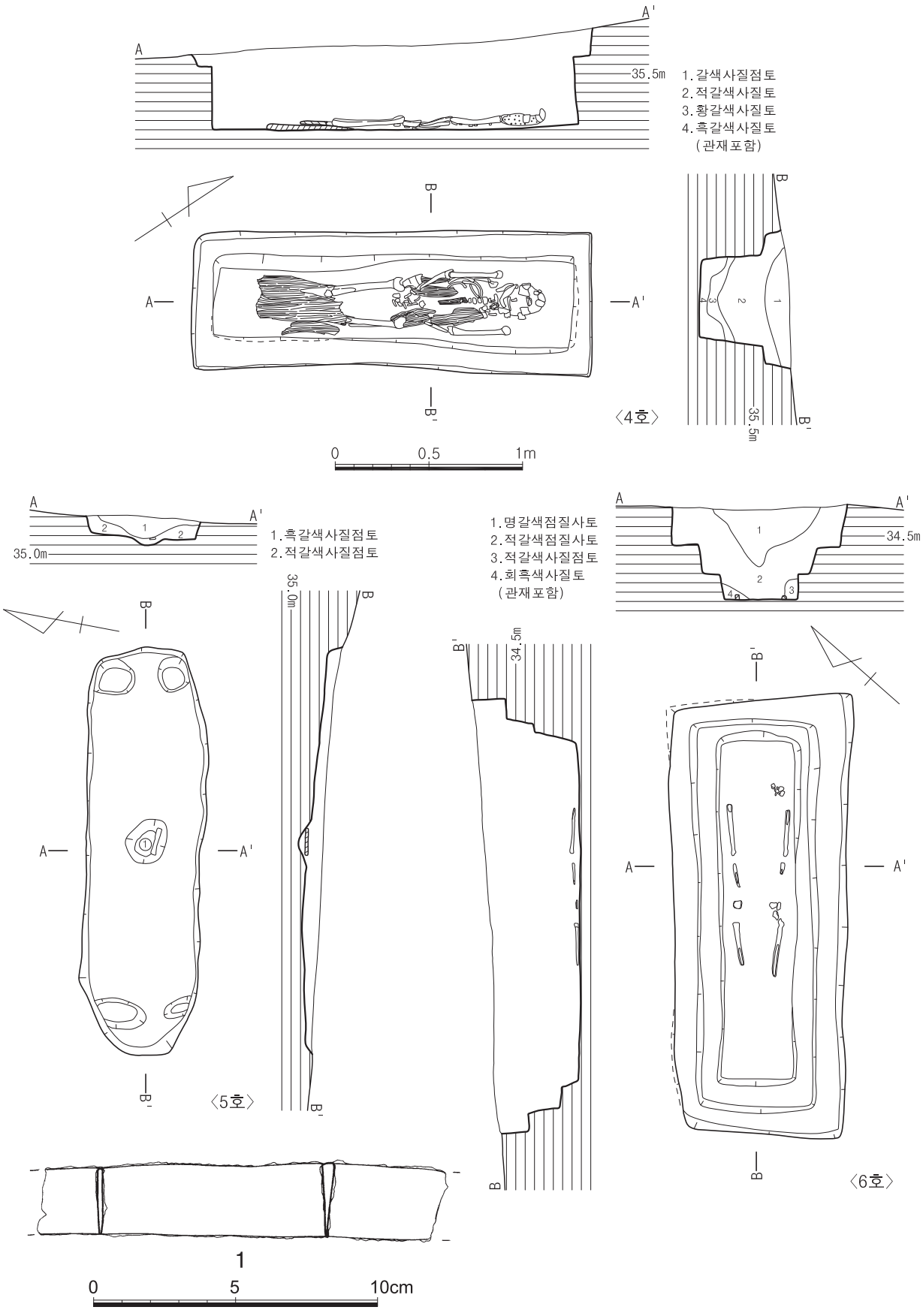
4) 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7, 사진 193)

4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 남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 남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74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관재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한 'U'자형을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4×73×51㎝(2.93:1), 내광은 193×49×36㎝(3.94:1)로 이단굴광식으로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관재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회백색을 띤다. 보존상태는 머리뼈는 편으로 부식되어 파손되었으며 사지뼈와 등뼈 일부, 골반뼈 일부, 손가락뼈 일부만이 출토되었다.



도면 127. 2지점 나구역 조선 4·5·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5호)

5) 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7, 사진 193)

5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 남서쪽 0.6m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동남쪽 4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27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얕은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9°-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8×60×8㎝(3.63:1)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나 'U'자형 내부토와 토광폭을 감안하면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4벽 모서리에 지름 10~20㎝, 깊이 10㎝ 내외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을 고정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 지름 15㎝, 깊이 5㎝의 요갱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철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철겸(도면 127-1, 사진 193-⑦)

신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14.0㎝, 폭 2.6㎝, 무게 35g

6) 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7, 사진 194)

6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0.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남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동쪽 1.2m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4m이다.

층위는 명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점토-흑회색 사질토(관재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해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상부만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2×93×56㎝(2.49:1), 이단광은 211×63×37㎝(3.35:1), 삼단광은 190×41×22㎝(4.63:1)로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윗팔뼈, 앞팔뼈, 허벅지뼈가 남아있고, 다른 부위는 모두 부식되었다. 내부시설은 중심선 중앙에 지름 15㎝, 깊이 5㎝의 요갱이 설치되어 있다.

7) 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8, 사진 194)

7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남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86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9×45×6㎝(4.2:1)로 토광직장묘이다.

내부시설은 중심선 중앙에 32×26×10㎝의 요갱이 설치되어 있다.

8) 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8, 사진 195)

8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 동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 북쪽 2.8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4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명갈색 점질사토-황갈색 점질사토-흑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점토-황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48×50×25㎝(2.96:1)로 토광직장묘이다.

남단벽 서쪽 모서리에 23×20×12㎝의 수혈이 위치하는데 수혈의 윤곽선이 내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토광묘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9) 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8, 사진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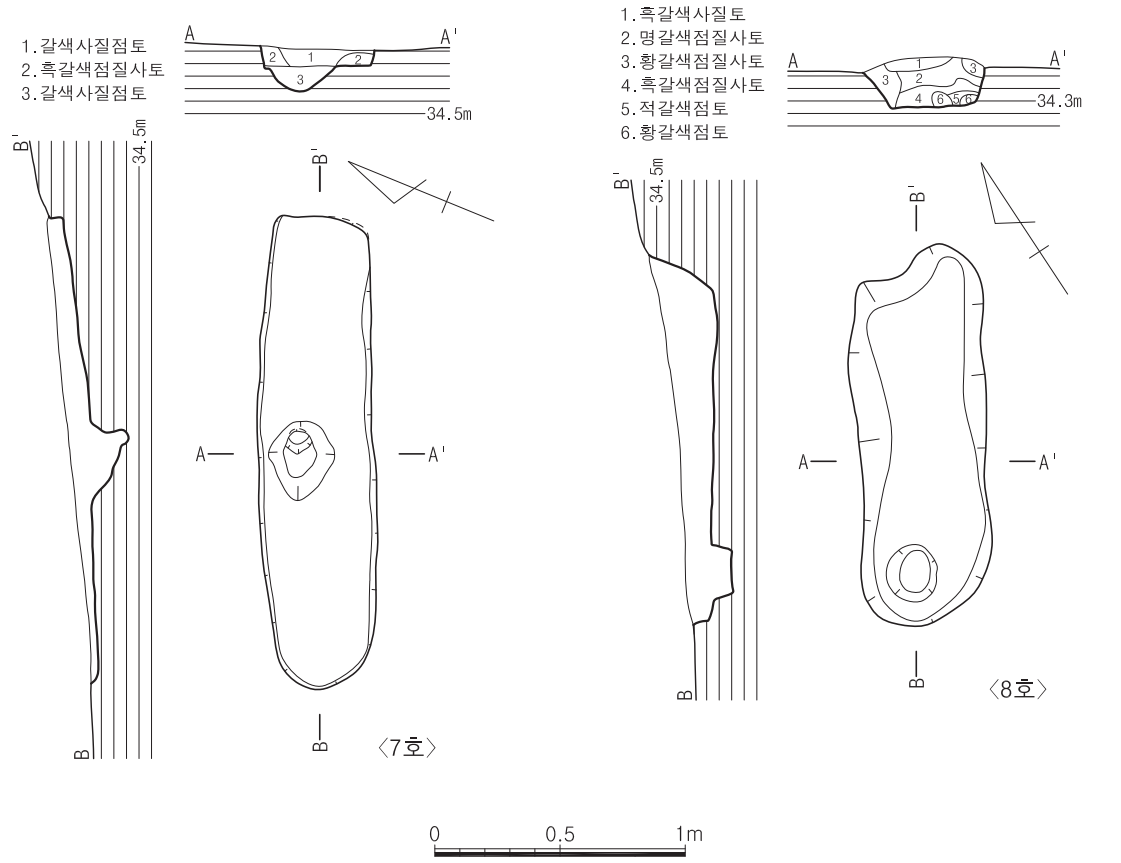
9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0.6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수혈유구, 남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동쪽 0.4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수혈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8m이다.

층위는 암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3°-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43×84×27㎝(1.7:1)로 내부에서 목관선이 보이지 않으며 관이 위치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토광직장묘이다.

10) 1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8, 사진 196)

10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 동쪽에 연하여 고려시대 1호 수혈유구,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도면 128. 2지점 나구역 조선 7·8·9·10호 토광묘 유구

36.47m이다.

층위는 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점질사토-황갈색 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0×55×5㎝(2.36:1)로 토광직장묘이다.

11) 1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9, 사진 197)

11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 남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 남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25m이다.

층위는 암갈색 점질사토-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명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해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2×58×23㎝(4:1), 목관은 143×40㎝(3.58:1)로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22×20×7㎝의 요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서 철겸 1점, 동서장벽 하단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철겸(도면 129-1, 사진 197-④)

결실과 부식으로 인해 분명치는 않으나 철겸의 基部와 身部 경계면으로 추정된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4.3㎝, 무게 1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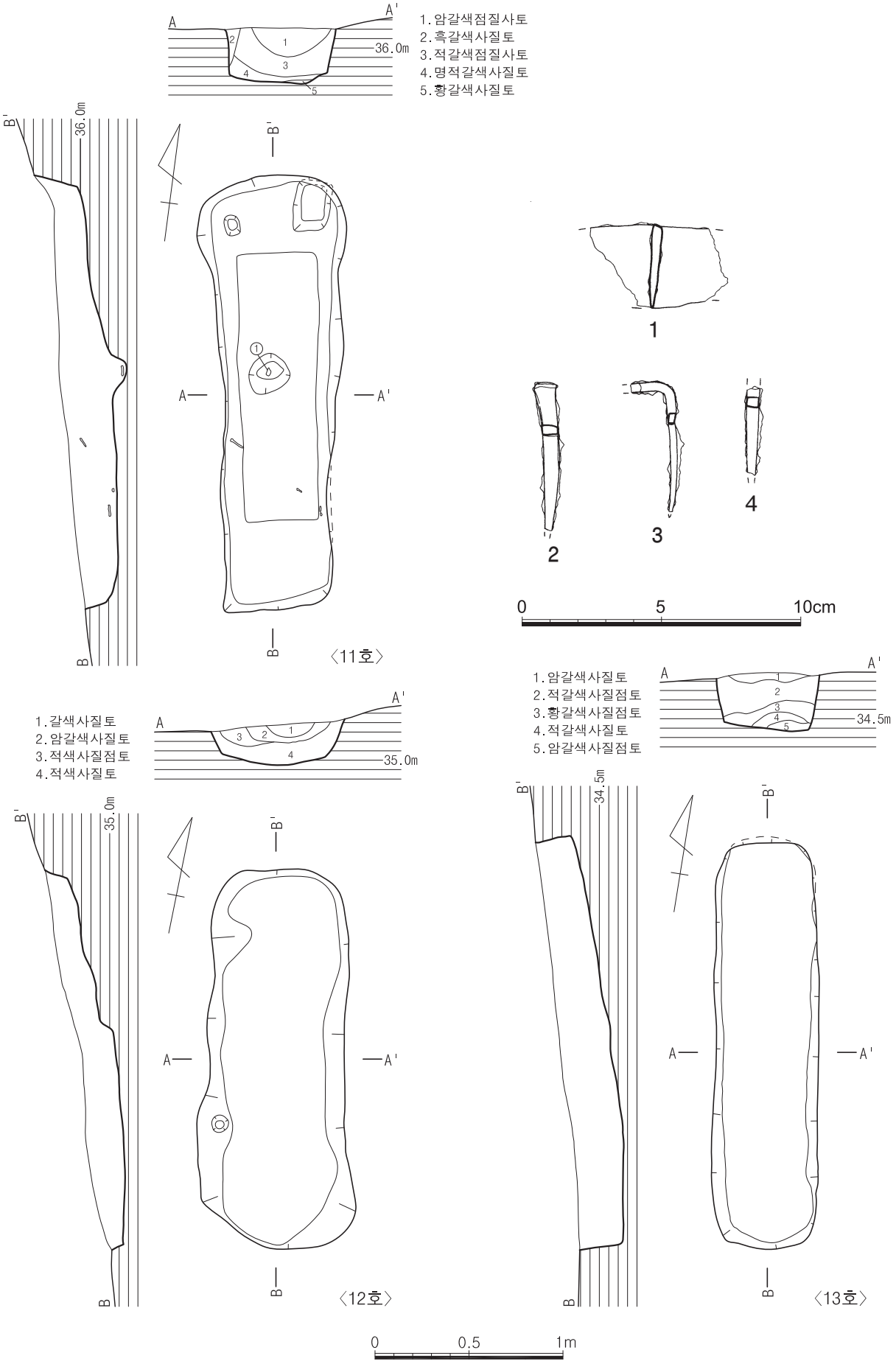
②~④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129-2	197-⑤	(5.4)	0.6	0.4	5	말단부 결실
③	129-3	197-⑥	(4.8)	0.3	0.4	2	선단부와 말단부 결실, 선단부가 ㄱ자형으로 구부러짐
④	129-4	197-⑦	(3.3)	0.5	0.4	3	신부만 남음

12) 1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9, 사진 198)

12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남동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서쪽 1.8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35m이다.



도면 129. 2지점 나구역 조선 11·12·1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11호)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적색 사질점토-적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해 'U' 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경사지며 바닥은 고르지 않다. 묘광 규모는 201×70×12㎝(2.87:1)로 토광직장묘이다.

서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지름 10㎝의 작은 수혈이 위치하는데 성격은 알 수 없다.

13) 1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29, 사진 198)

13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8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8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바닥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U' 자형이고, 그 아래는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5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중앙부 깊은 쪽 전면에 다져서 깔았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해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W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7×55×19㎝(3.95:1)로 토광직장묘이다.

14) 1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0, 사진 199)

14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3호 토광묘, 북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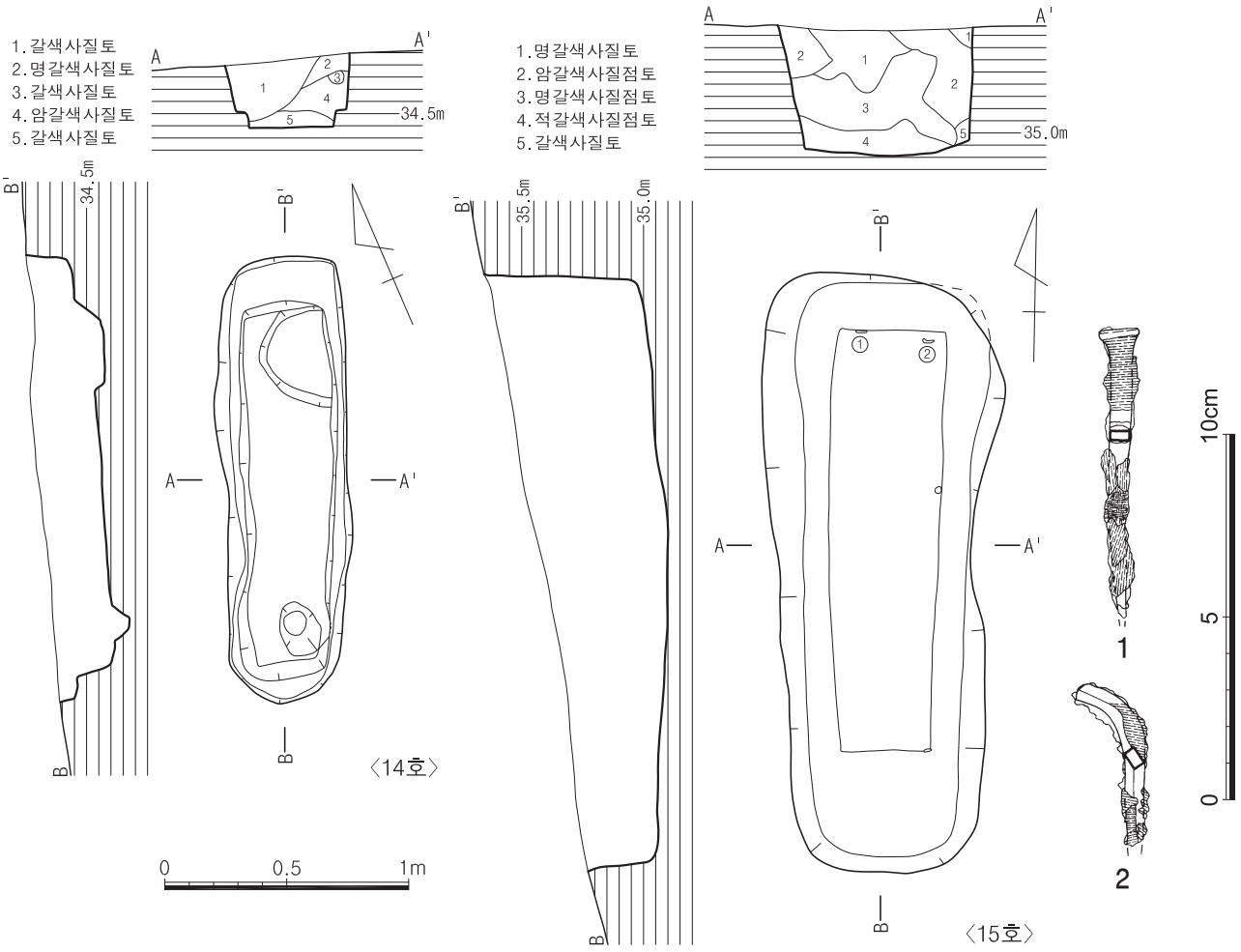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동쪽으로 치우쳐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3×50×30㎝(3.66:1), 목관은 155×39×15㎝(3.97:1)로 토광목관묘이다.

동벽 북쪽 모서리에 규모 40×30×4㎝의 수혈, 남벽 동쪽 모서리에 규모 22×17×5㎝의 수혈이 위치하는데, 성격은 알 수 없다.

15) 1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0, 사진 199)

15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 남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남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도면 130. 2지점 나구역 조선 14·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15호)

35.55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꺼운 퇴적층이 종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아 급격한 함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가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45×80×62㎝(3.06:1), 목관은 172×45㎝(3.82:1)로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북벽면에 얕은 수혈 2개, 동벽에 수혈 6개가 얕게 파여져 있는데 크기는 15~30㎝정도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관 북벽에서 관정 2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②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30-1	199-⑥	(8.0)	0.6	0.3	9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뿌리부분 일부에 포흔이 있음
②	130-2	199-⑦	(4.9)	0.4	0.6	5	뿌리부분 결실, 선단부가 구부러짐

16) 1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1, 사진 200)

16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북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85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바닥은 흑갈색 사질토와 황적갈색 사질점토로 깔았으며 그 위로 'U' 자형의 퇴적을 이루나 급격히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가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7×61×51㎝(3.56:1), 목관은 136×39㎝(3.49:1)로 서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중심에서 서벽에 약간 치우쳐 청동완 1점과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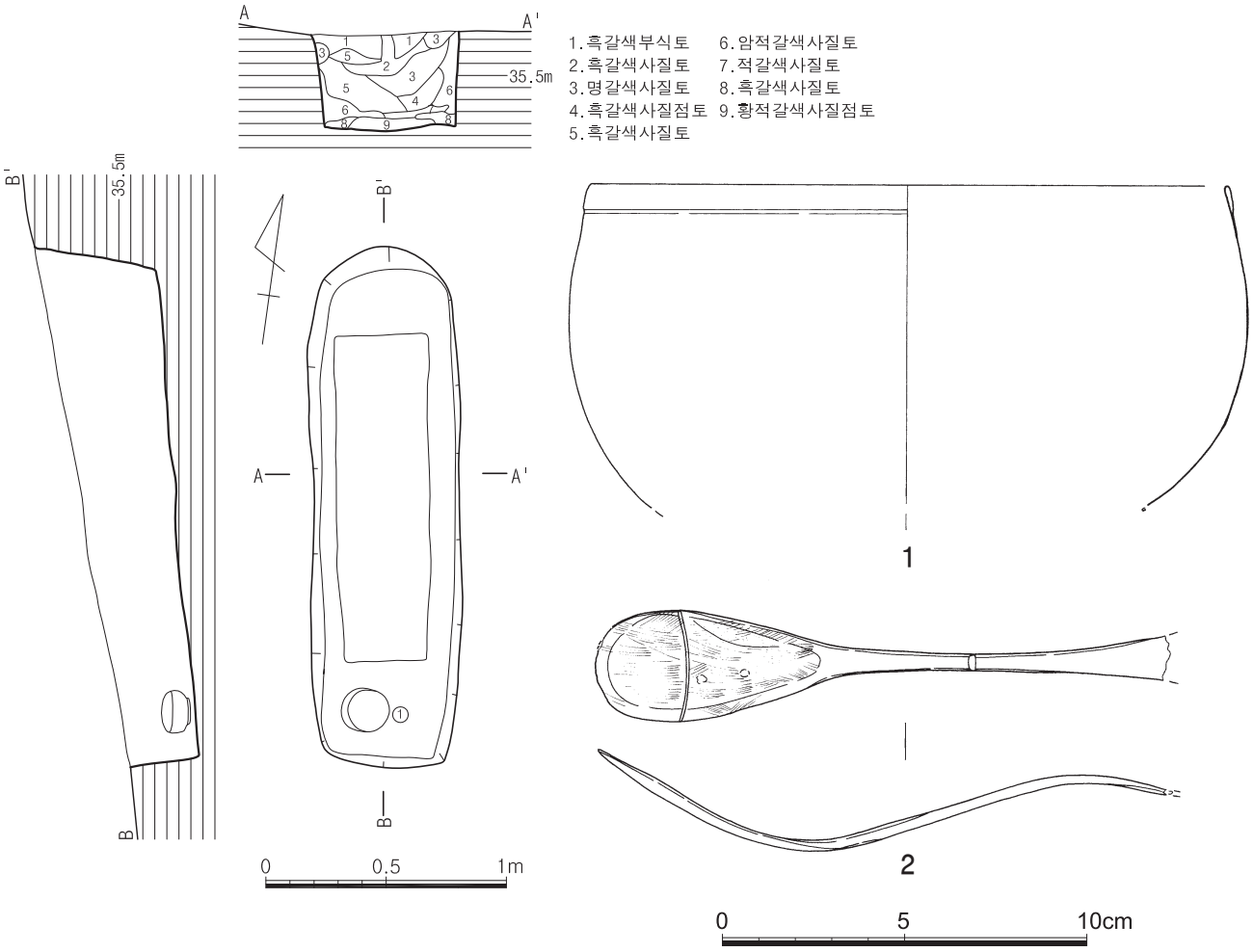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131-1, 사진 200-⑤)

구연부는 온전하나 신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결실되었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배부른 형태이며, 신부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데 비해 구연부는 도톰하게 처리하여 구연에서 신부로 단이 지면서 이어진다. 현고 8.9㎝, 구경 17.5㎝, 무게 181g

② 청동숟가락(도면 131-2, 사진 200-⑥)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은 얕은 편이며 끝부분이 뭉툭하다.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진다.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현길이 15.8㎝, 술잎길이 6.2㎝, 술잎폭3.0㎝, 무게 18g



도면 131. 2지점 나구역 조선1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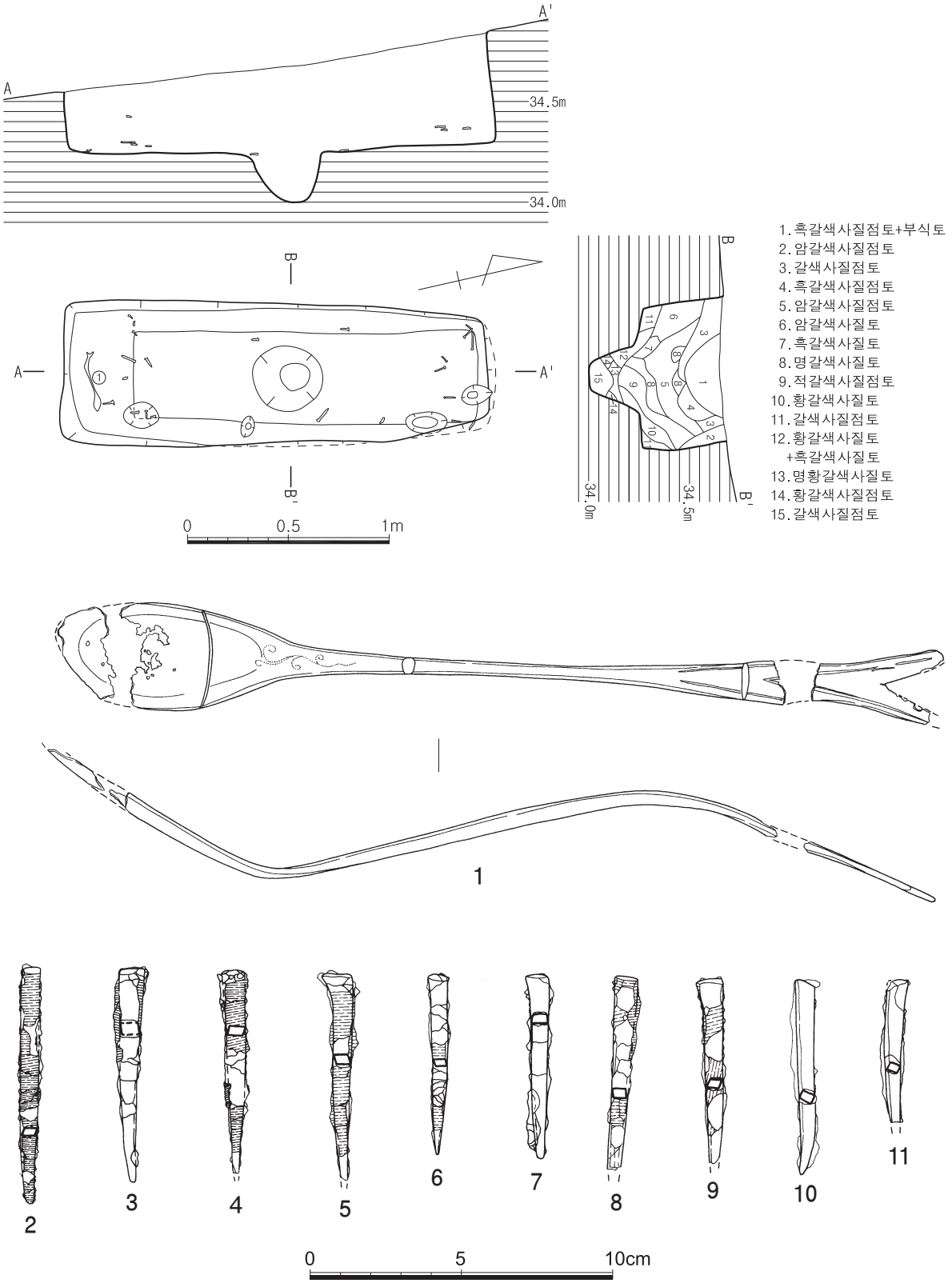
17) 1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2, 사진 201)

17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북서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 서쪽 5.2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84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바닥은 11층과 15층의 갈색 사질점토를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15층은 함몰되어 요갱 내로 유입되었다. 바닥층 위로는 'U' 자형의 퇴적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가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0×68×54㎝(3.09:1), 목관은 171×46㎝(3.72:1)로 북벽에 잇대어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요갱은 중심선 중앙에 규모 35×33×25㎝로 조성하였으며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용도를 알



도면 132. 2지점 나구역 조선 1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수 없는 작은 수혈이 관선 아래에서 확인되는데 북벽에서 동벽에 치우쳐 1개, 동벽 머리쪽, 골반쪽, 발치쪽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관 아래 부장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관과 남벽 사이에 동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 관선과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32-1, 사진 201-⑤)

술잎과 술대의 일부가 결실되어 복원되지 않는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데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말단부에 길이방향으로 길게 'V' 자형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이며, 말단부 단면은 세장타원형이다. 현복원길이 29.4㎝, 술잎폭 3.6㎝, 무게 51g

②~⑪ 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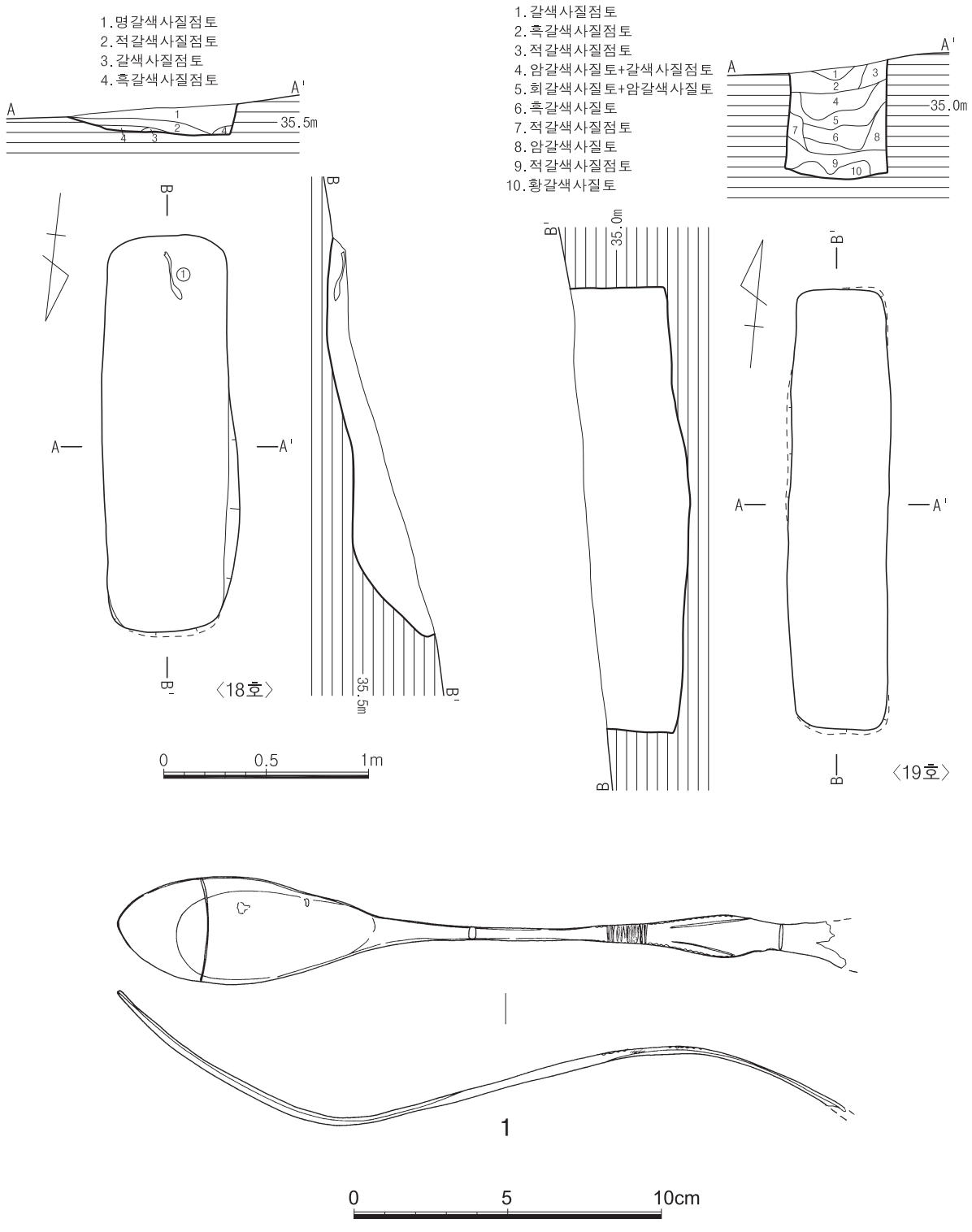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132-2	201-⑥	7.9	0.5	0.3	7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③	132-3	201-⑦	7.1	0.6	0.3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④	132-4	201-⑧	(6.8)	0.5	0.3	6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⑤	132-5	201-⑨	(6.9)	0.5	0.4	6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⑥	132-6	201-⑩	6.0	0.4	0.3	3	완형
⑦	132-7	201-⑪	6.1	0.6	0.3	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⑧	132-8	201-⑫	(6.6)	0.4	0.3	8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⑨	132-9	201-⑬	(6.1)	0.6	0.3	6	말단부 결실
⑩	132-10	201-⑭	6.4	0.5	0.4	6	완형
⑪	132-11	201-⑮	(4.9)	0.4	0.3	5	말단부 결실

18) 1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3, 사진 202)

18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 위치한 고려시대 5호 주거지 서벽을 파괴하고 중복,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수혈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85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퇴적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단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9×66×15㎝(3.02:1)이며 목관의 흔적은 없으나 부장유물의 위치가 관 아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도면 133. 2지점 나구역 조선 18·1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18호)

유물은 관아래 부장공간에 매납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하단부가 훼손되어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물의 부장위치로 보아 관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33-1, 사진 202-⑤·⑥)

술대 말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이단으로 벌어지는 형태인데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여러줄의 얕은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가장자리를 톱니모양으로 길게 음각하고 그 안쪽에 길이방향으로 'V' 자형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3.9㎝, 술잎길이 8.4㎝, 술잎폭 3.5㎝, 무게 24g

19) 1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3, 사진 203)

19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북서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북동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23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9층 이상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8×48×46㎝(4.54 :1)로 토광직장묘이다.

20) 2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4, 사진 204)

20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북쪽 0.4m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1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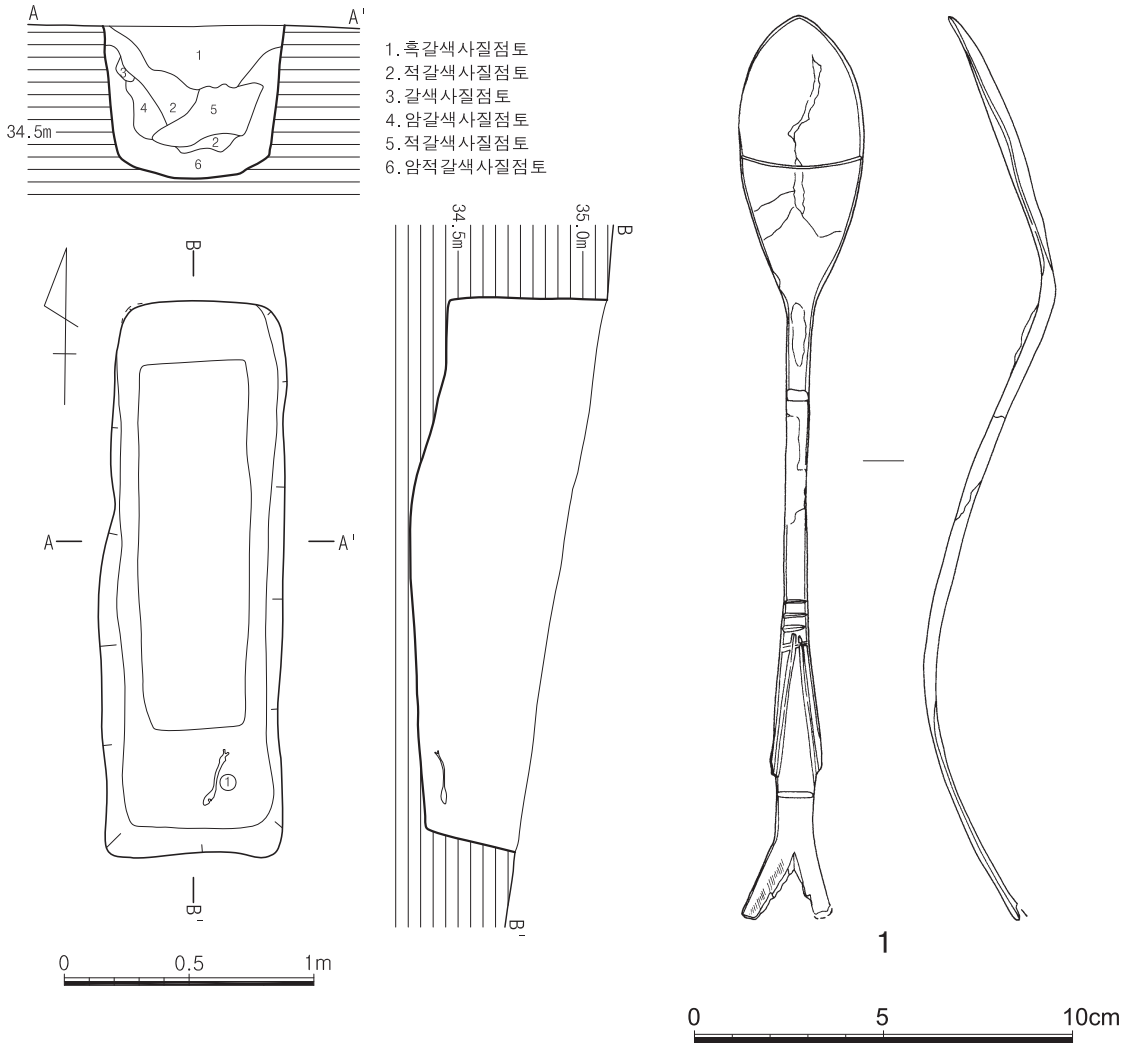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6층은 충전토로 바닥까지 함께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토는 'U' 자형의 퇴적을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1×71×63㎝(3.11:1)이며 목관은 148×44㎝(3.36:1)로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아래 부장공간에 매납된 것으로 청동숟가락 1점이 중심선에서 동벽에 약간 치우쳐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34-1, 사진 204-⑤)

부식으로 술잎 가운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은 편이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이단으로 벌어지는 형태인데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등간격으로 4줄의 짧은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V' 자형으로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3.8㎝, 술잎길이 7.5㎝, 술잎폭 3.3㎝, 무게 37g



도면 134. 2지점 나구역 조선 2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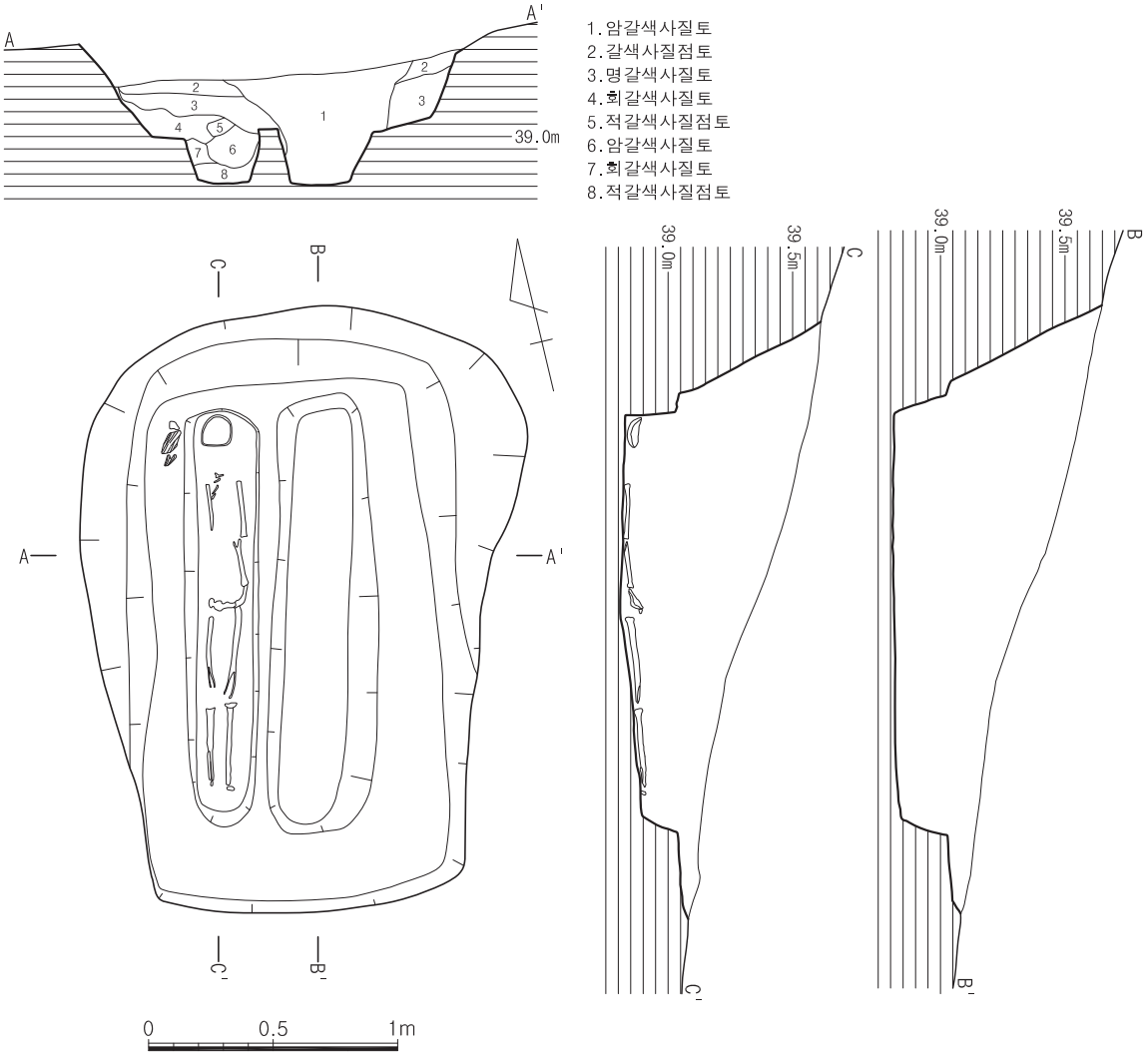
21) 2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5, 사진 205)

21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3.4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 남서쪽 2.4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 동쪽 4.4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65m이다.

층위는 동혈 합장묘인 관계로 먼저 조성된 좌측은 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수평적 층위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우측은 2층 갈색 사질점토를 판 후 조성한 것으로 암갈색 사질토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단부는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43×166×53㎝(1.46:1), 이단광은 좌측 168×30×21㎝(5.6:1), 우측 175×39×26㎝(4.49:1)로 이단광의 장폭을 감안하면 토광직장묘로 보인다.



도면 135. 2지점 나구역 조선 21호 토광묘 유구

22) 2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6, 사진 205)

2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14호 주거지에 의해 하단부가 중복, 남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4m이다.

층위는 주거지 조성으로 인해 교란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주거지 조성으로 인하여 하단부는 훼손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00×78×73㎝로 토광직장묘이다.

23) 2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6, 사진 206)

23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6.4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주거지, 남서쪽 2.8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9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서장벽 쪽으로 함몰되었다. 7층 황갈색 사질점토는 바닥토로 7㎝정도의 충전토 사이에 다져서 깔았다. 잔존상태는 상부가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2°-W로 등고선방향과 평행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6×79×30㎝(2.73:1)이고, 목관은 182×42㎝(4.33:1)로 북쪽은 서쪽 모서리, 남쪽은 동쪽 모서리에 치우쳐 배치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양단측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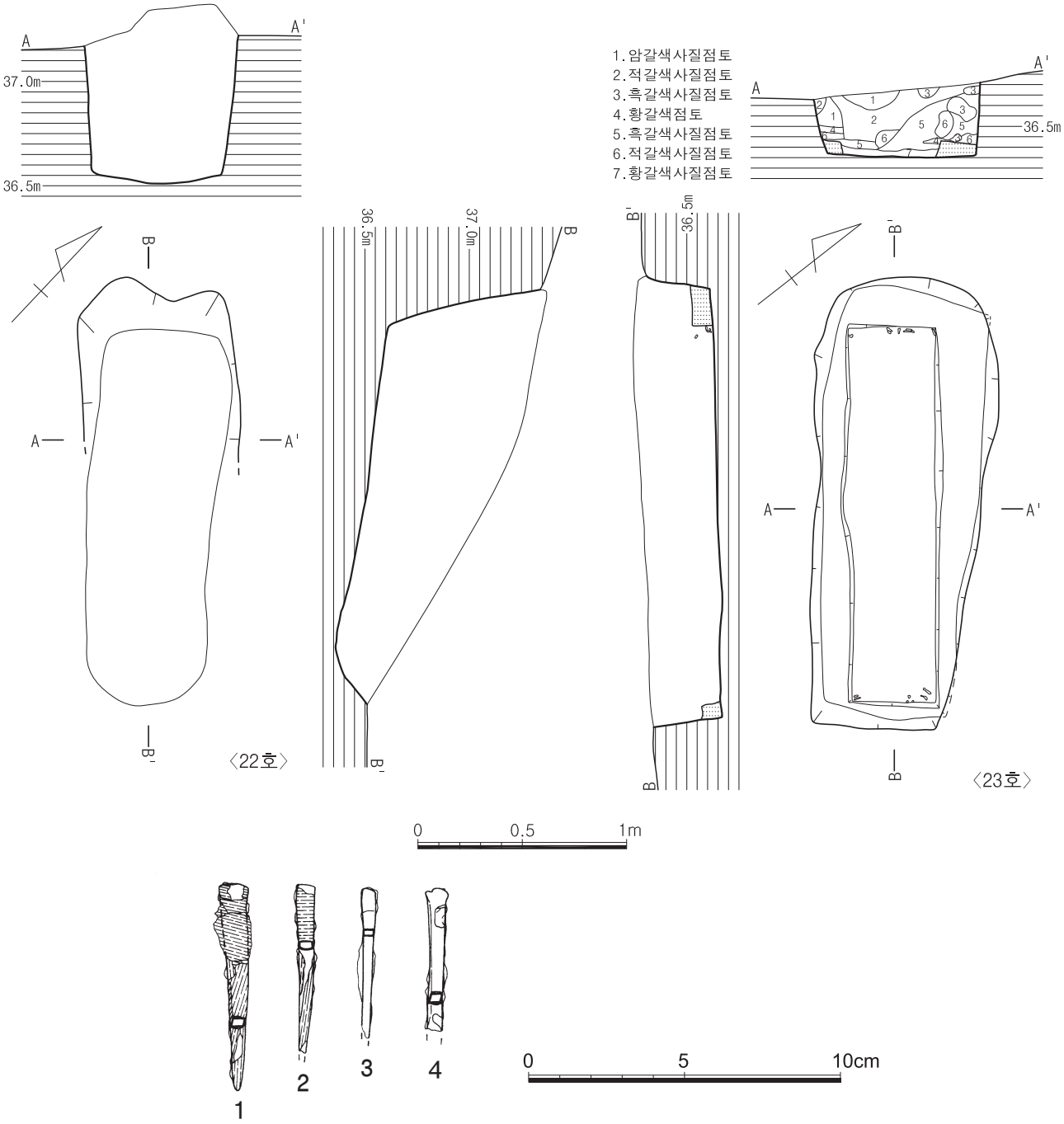
①~④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36-1	206-⑤	6.7	0.4	0.3	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②	136-2	206-⑥	(5.5)	0.4	0.3	2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③	136-3	206-⑦	(4.9)	0.3	0.2	2	말단부 결실
④	136-4	206-⑧	(4.6)	0.4	0.3	3	말단부 결실

24) 2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7, 사진 207)

2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0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북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도면 136. 2지점 나구역 조선 22·2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23호)

34.6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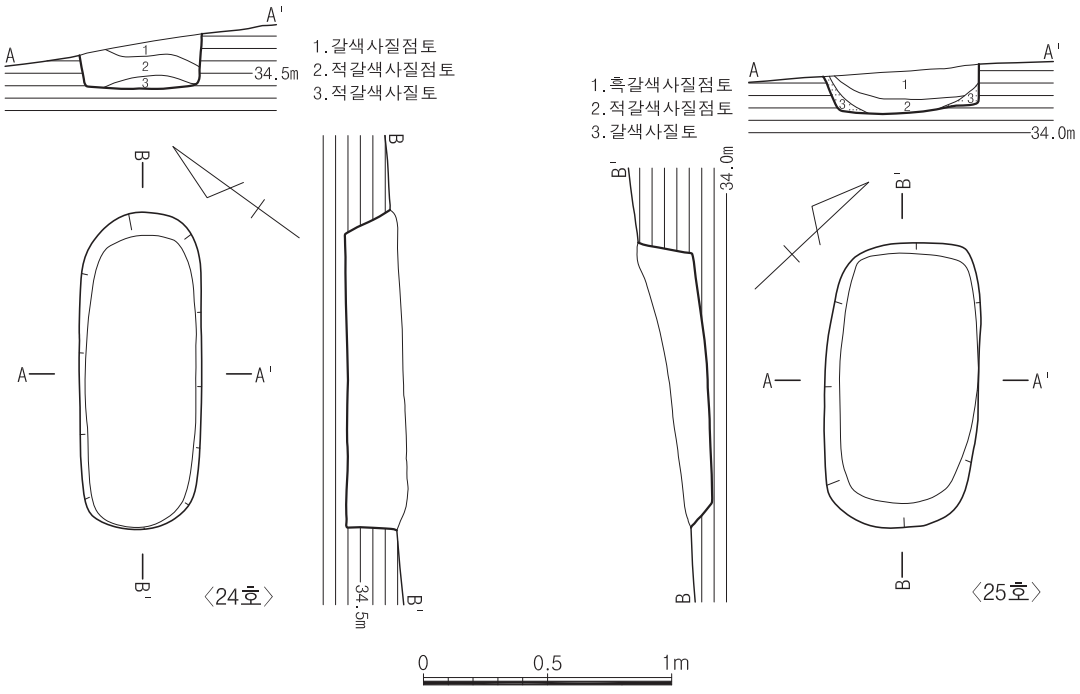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28×49×18㎝(2.61:1)로 토광직장묘이다.

25) 2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7, 사진 207)

2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주거지, 북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36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5×62×22㎝(1.85: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137. 2지점 나구역 조선 24·25호 토광묘 유구

26) 2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8, 사진 208)

26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에 잇대어 고려시대 1호 주거지 북장벽 중앙에 중복, 북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73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하부 바닥만 남은 상태

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76×31×6㎝(2.45:1)로 유아를 매장한 토광직장묘로 추정된다.

27) 2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8, 사진 208)

27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3.6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 북쪽 3.4m지점에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북동쪽 0.4m지점에 고려시대 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5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하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8×36×9㎝(3.28:1)로 토광직장묘이다.

28) 2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8, 사진 208)

28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고려시대 1호 주거지 동벽을 훼손하고 중복, 북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북쪽 5.2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4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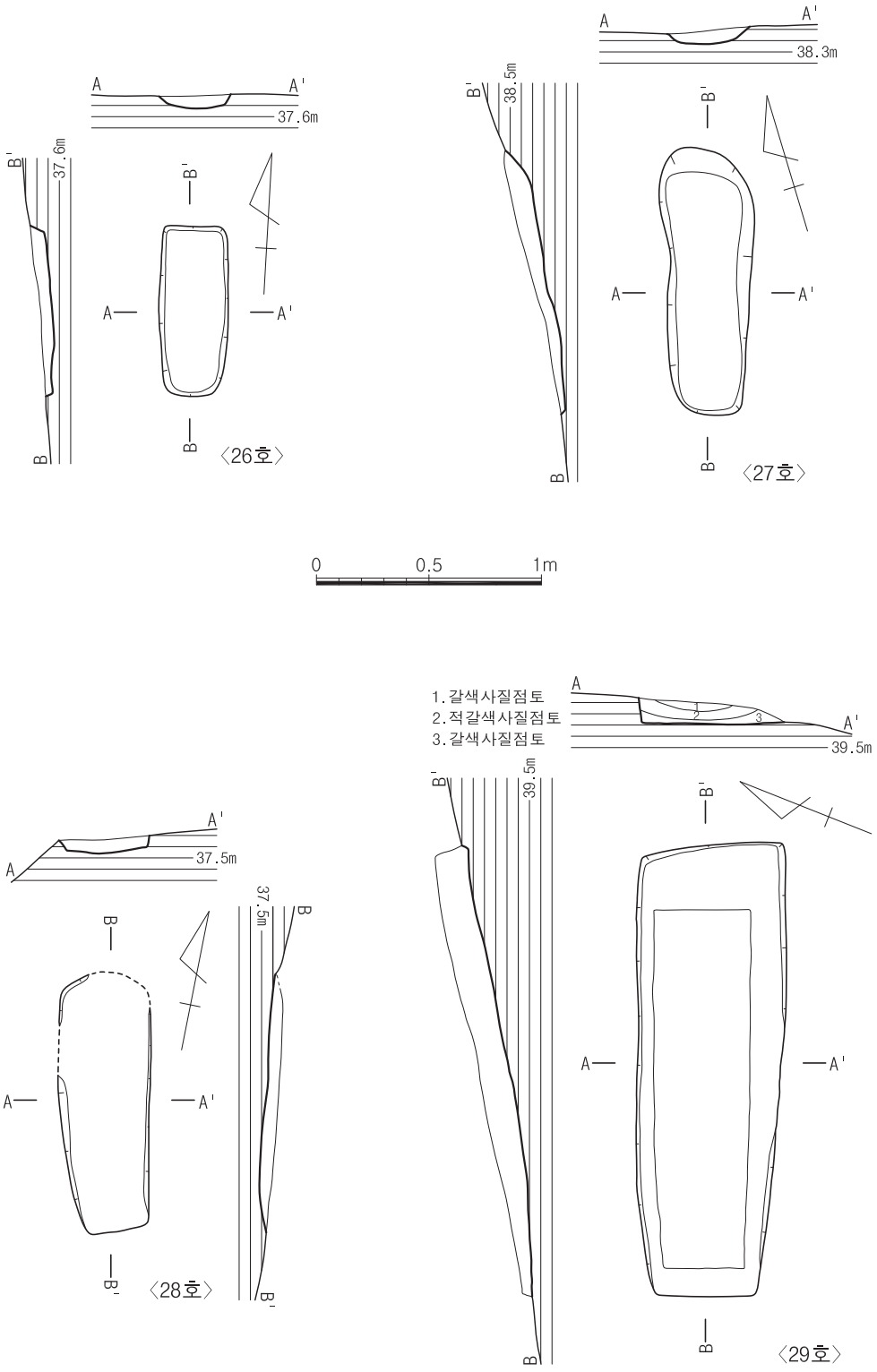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 단일층이며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하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갱신세층을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16×40×5㎝(2.9:1)로 토광직장묘이다.

29) 2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8, 사진 209)

29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4.4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 남동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서쪽 8.4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8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함몰에 의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의한 삭평으로 하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1×64×10㎝(3.14:1)이고, 목관은 160×43㎝(4.33:1)로 서벽과 북벽 쪽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138. 2지점 나구역 조선 26·27·28·29호 토광묘 유구

30) 3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9, 사진 209)

30호 토광묘는 북쪽 능선 서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남쪽 17.2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41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 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명갈색 사질점토와 4층 적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의 경사로 인해 하단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9×85×21㎝(2.22:1)이고, 목관은 160×45㎝(3.56:1)로 남장벽 쪽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단벽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39-1	209-⑥	7.9	0.6	0.5	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②	139-2	209-⑦	7.0	0.5	0.4	4	완형, 선단부가 구부러짐
③	139-3	209-⑧	6.3	0.5	0.4	6	완형,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31) 3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39, 사진 210)

3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북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7.2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남서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 남동쪽 29.2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3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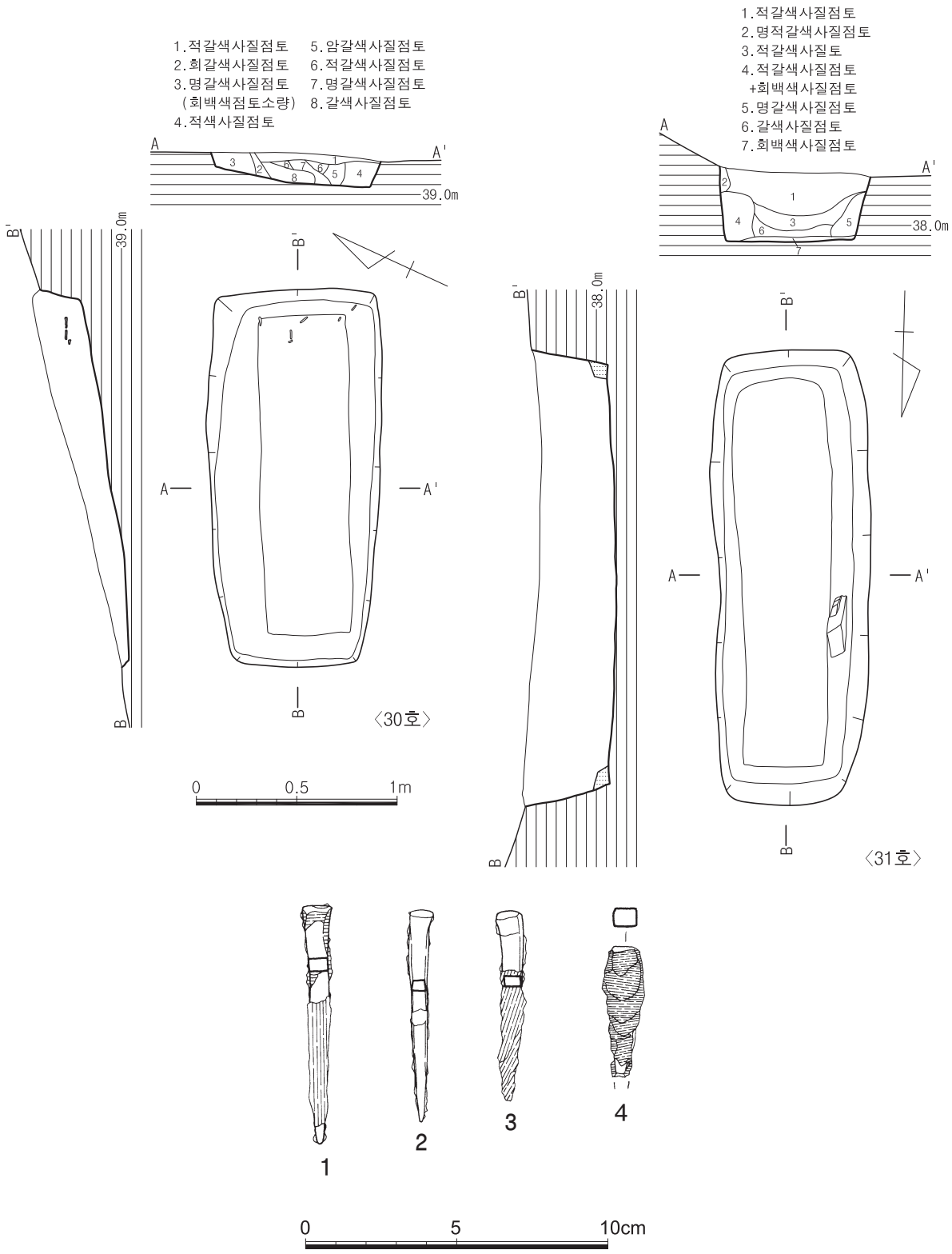
층위는 4층 적갈색 사질점토+회백색 사질점토와 5층 명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7층 회백색 사질점토는 바닥토로 충전토 아래에 3㎝정도 얕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W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7×75×39㎝(3.03:1)이고, 목관은 193×45㎝(4.29: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관정(도면 139-4, 사진 210-④)

뿌리부분이 결실되었고 횡방향으로 목질흔이 있다. 현길이 4.3㎝, 폭 0.8㎝, 두께 0.6㎝, 무게 5g



도면 139. 2지점 나구역 조선 30·3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30호, 4:31호)

32) 3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0, 사진 211)

3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북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28.8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북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 북서쪽 27.2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1m이다.

층위는 적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 회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고, 6층 회갈색 점토는 관재 부식토이다.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63×40㎝(3.14:1)이고, 내광은 178×44×19㎝(4.05:1)로 이단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장벽 중앙에서 동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청동완 1점과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140-1, 사진 211-④)

구연부만 남아있다. 구연부는 도톰하여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현고 1.0㎝, 복원구경 14.6㎝

② 청동숟가락(도면 140-2, 사진 211-⑤)

청동제숟가락으로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고, 술잎과 술대의 경계부가 결실되어 복원되지 않는다. 술대 가운데부분의 단면은 납작한 반원형에 가깝다. 현길이 19.5㎝, 무게 13g

33) 3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0, 사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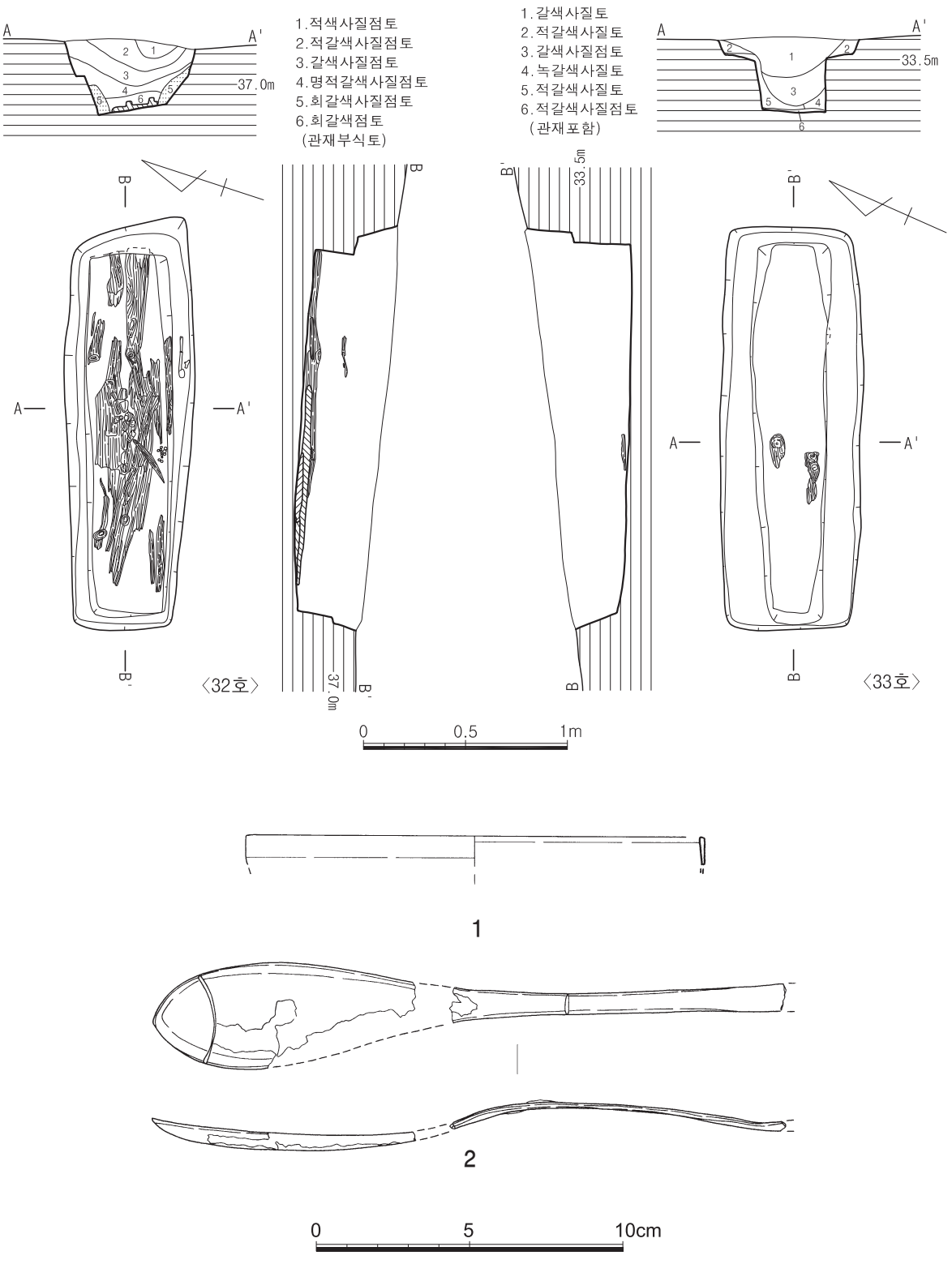
3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사면 하단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동쪽 10.4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남동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35호 토광묘, 남쪽 16.4m지점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76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녹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관재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목관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의 경사에 따라 상부 일부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6°-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7×68×51㎝(2.9:1)이고, 내광은 188×35×23㎝(5.37:1)로 이단광식 토광목관묘이다.

34) 3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1, 사진 212)

3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0.4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 남서쪽



도면 140. 2지점 나구역 조선 32·3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32호)

4m지점에 조선시대 35호 토광묘, 동쪽 14.8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96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상부 일부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72×35×22㎝(4.9:1)로 토광직장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서 동전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전(사진 212-⑦)

일제동전으로 前面에 一錢, 後面에 大日本, 三十年이 적혀 있다. 직경 2.3㎝, 두께 0.2㎝, 무게 3g

35) 3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1, 사진 213)

3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북서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 남서쪽 16.8m지점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6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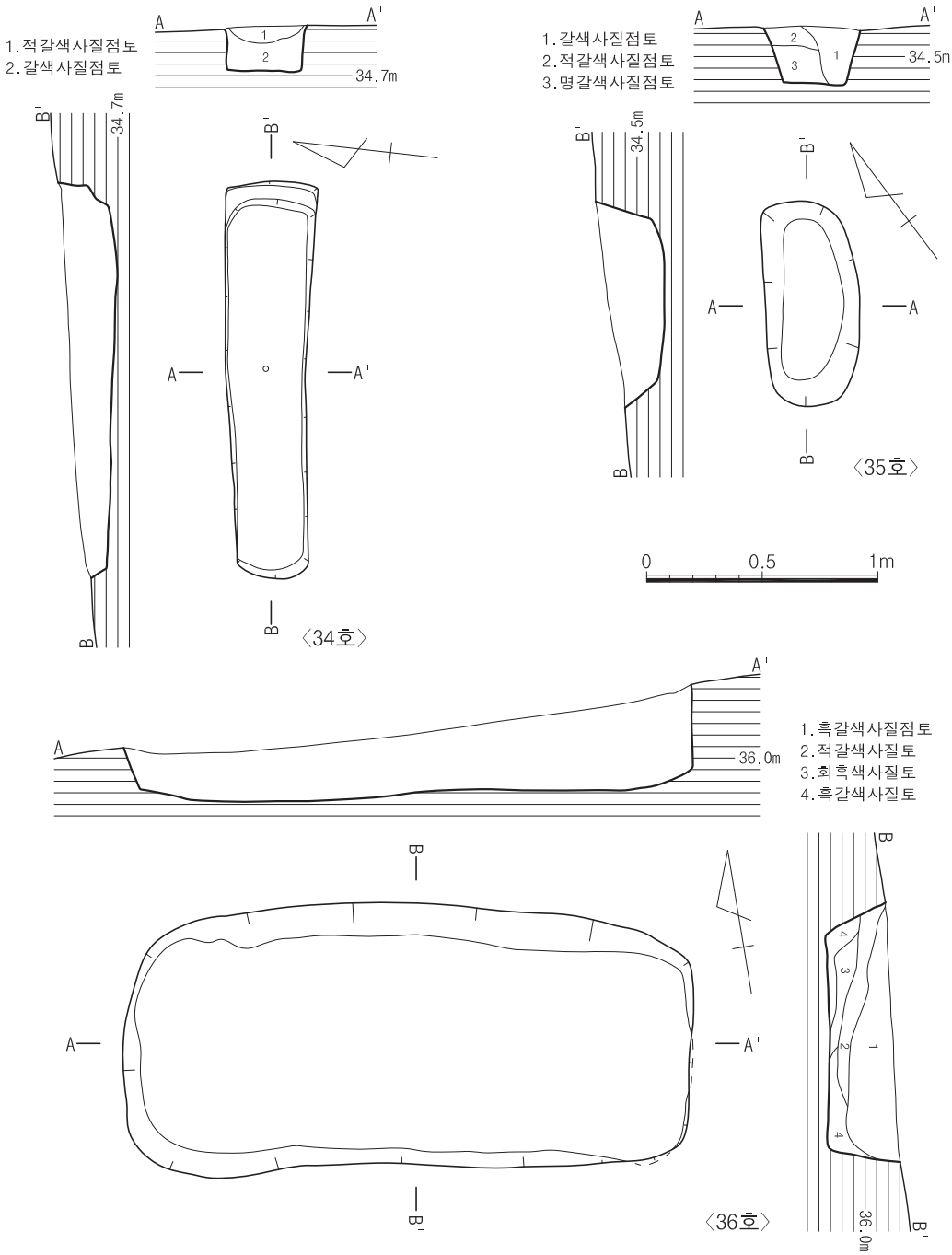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동장벽 쪽으로 비스듬히 함몰된 양상이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았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89×41×25㎝(2.17:1)로 토광직장묘이다.

36) 3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1, 사진 213)

3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2.4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 남동쪽 6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 서쪽 14.8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회흑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목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46×118×36㎝(2.08:1)이고, 목관은 흔적이 일부 바닥에 남아있는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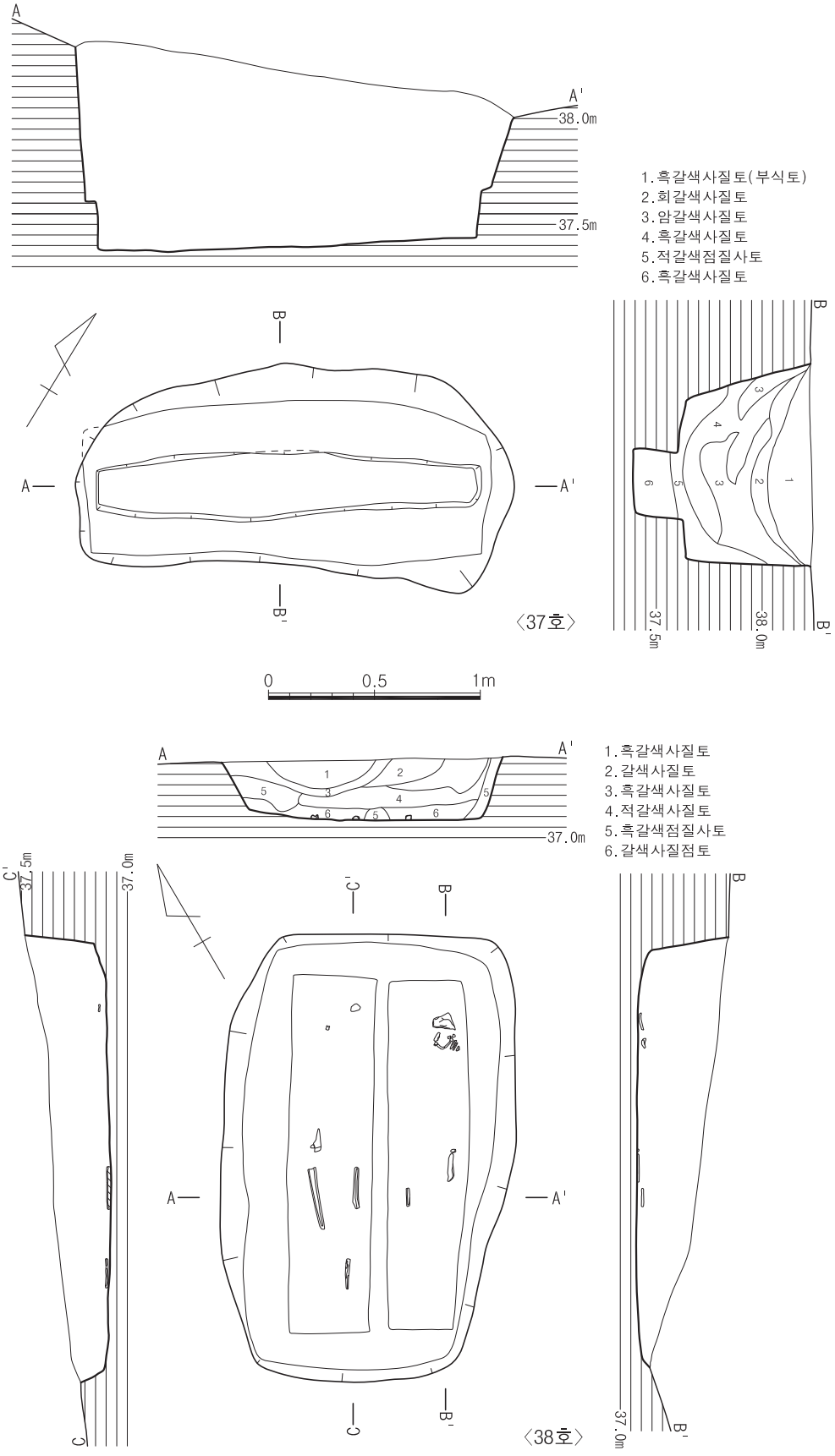


도면 141. 2지점 나구역 조선 34·35·36호 토광묘 유구

37) 3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2, 사진 214)

3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동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 남서쪽 8.8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 서쪽 12.4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도면 142. 2지점 나구역 조선 37·38호 토광묘 유구

38.33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목관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의 경사에 따라 상부 일부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8×95×95㎝(2.19:1)이고, 내광은 182×31×22㎝(5.87: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이다.

38) 3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2, 사진 214)

3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3.6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 북서쪽 6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 북동쪽 8.8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48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흑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5층 흑갈색 점질사토에 암반풍화토가 혼입된 층은 두 시신의 가운데 경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토는 넓은 'U'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6층 시신이 출토된 층이 동일하다. 이는 두 시신이 함께 매장되었음을 의미하며 먼저 사망한 시신을 함께 재매장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해 하단부는 경사지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2×134×37㎝(1.58:1)이고, 목관은 관선의 흔적으로 보아 좌측 168×40㎝(4.2:1), 우측 165×32㎝(5.16:1)로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부식이 심하다. 좌측이 골반뼈, 허벅지뼈, 정강이뼈, 우측이 머리뼈, 목등뼈, 허벅지뼈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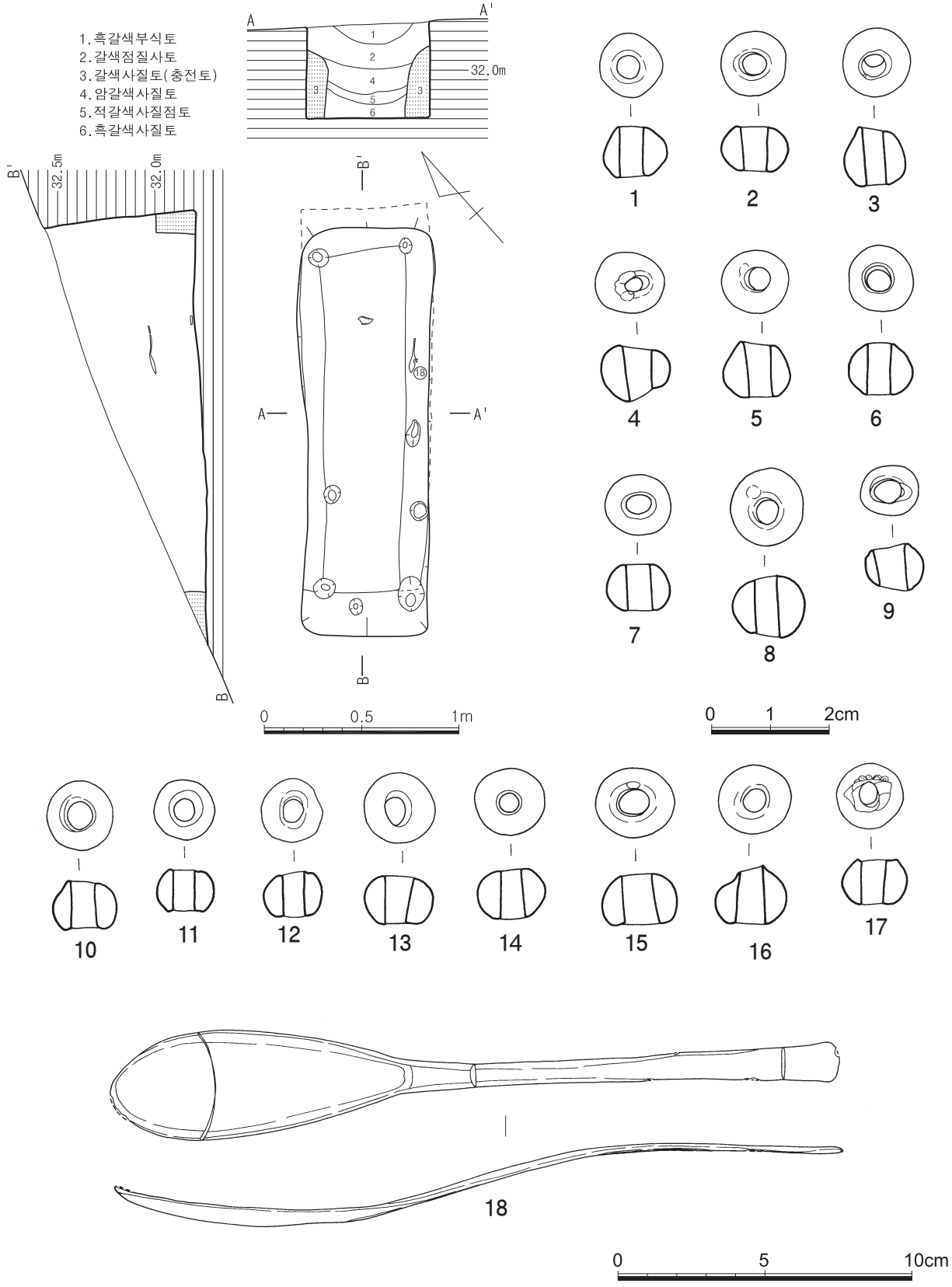
39) 3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3, 사진 215)

3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북쪽 4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수혈, 남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93m이다.

층위는 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3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내부토는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급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어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0×62×78㎝(3.39:1), 목관은 188×42m(4.48:1)로 토광목관묘이다. 충전토를 제거한 후 바닥에서 관선 4모서리와 그 사이에서 크기 10~20㎝의 소주공 8개가 확인되었는데 용도는 관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유물은 동벽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충전토 상면에서 청동숟가락 1점, 중심선에서 북쪽으로 50㎝정도 떨어져 목부분에서 유리구슬 17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43. 2지점 나구역 조선 3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⑰ 유리구슬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직경	두께	구멍직경	무게	
①	143-1	215-⑤	1.1	0.8	0.4	1	갈색, 원형
②	143-2	215-⑥	1.1	0.8	0.5	1	갈색, 원형
③	143-3	215-⑦	1.1	1.0	0.4	1	갈색, 원형
④	143-4	215-⑧	1.1	0.9	0.5	1	갈색(표면은 산화로 백색?), 원형
⑤	143-5	215-⑨	1.1	0.9	0.4	2	갈색, 원형
⑥	143-6	215-⑩	1.1	0.9	0.4	1	갈색, 원형
⑦	143-7	215-⑪	1.1	0.8	0.4	1	명갈색, 원형
⑧	143-8	215-⑫	1.2	1.0	0.4	2	흑갈색(불투명), 원형
⑨	143-9	215-⑬	1.0	0.8	0.5	1	명갈색, 원형
⑩	143-10	215-⑭	1.2	0.8	0.4	1	갈색, 원형
⑪	143-11	215-⑮	1.0	0.7	0.4	1	명갈색, 원형
⑫	143-12	215-⑯	1.1	0.7	0.4	1	명갈색, 원형
⑬	143-13	215-⑰	1.2	0.8	0.3~0.5	2	녹빛이 도는 갈색, 원형
⑭	143-14	215-⑱	1.2	0.9	0.3~0.4	1	갈색, 원형
⑮	143-15	215-⑲	1.2	0.9	0.5	2	갈색, 원형
⑯	143-16	215-⑳	1.1	1.0	0.4~0.6	1	갈색, 원형
⑰	143-17	215-㉑	1.1	0.8	0.4	1	갈색, 원형

⑱ 청동숟가락(도면 143-18, 사진 215-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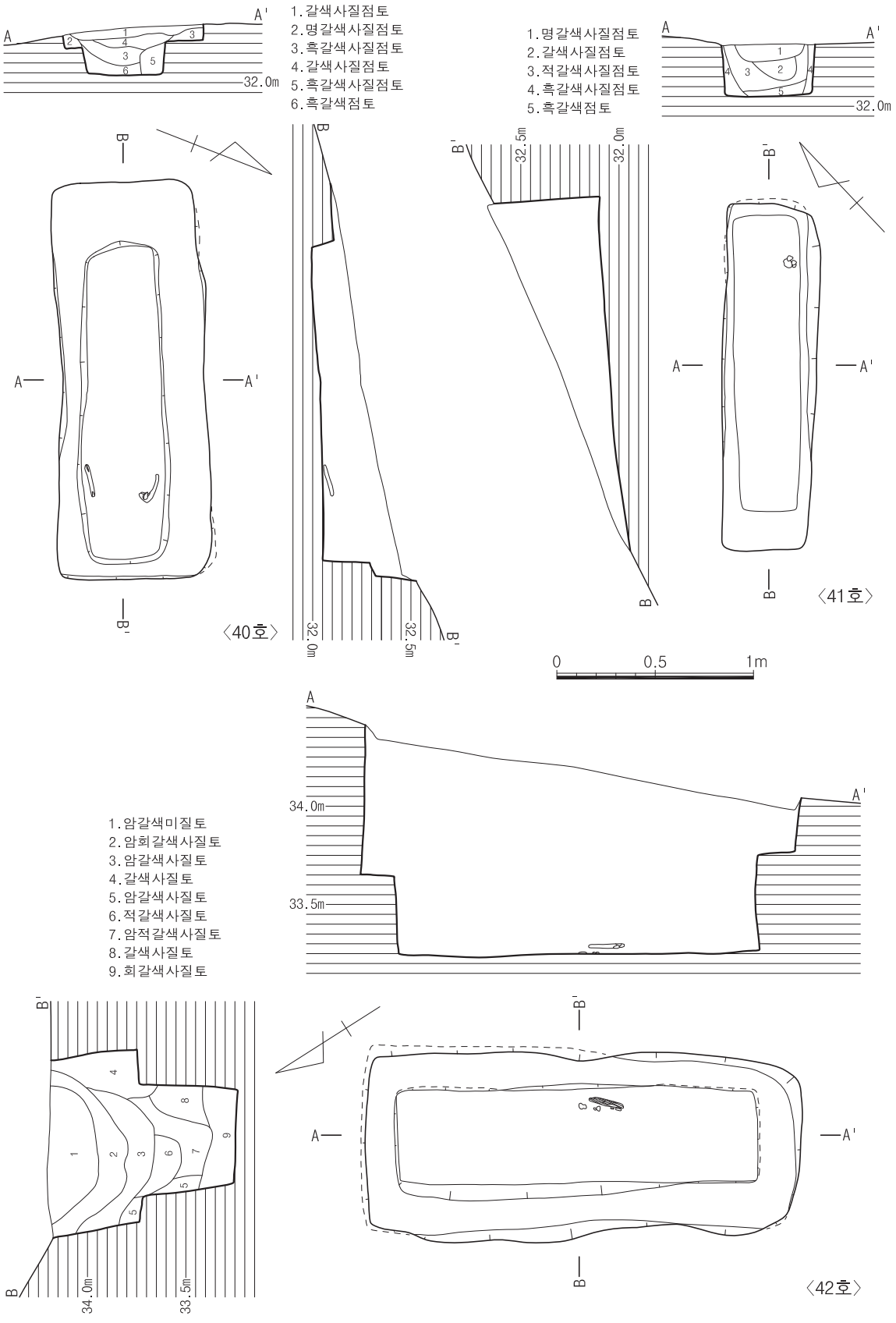
완형의 청동제 숟가락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유엽형으로 깊이가 있으며, 술대는 가장자리로 가면서 넓어지고 얇아진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이고,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24.9㎝, 술잎길이 10.1㎝, 술잎폭 3.7㎝, 무게 26g

40) 4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4, 사진 216)

4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남쪽 1.2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주거지, 북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3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5층 흑갈색 사질점토층을 제외하면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어 하부는 어깨선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71×48㎝(2.85:1), 내광은 북벽과 동벽에 약간 치우쳐 있



도면 144. 2지점 나구역 조선 40·41·42호 토광묘 유구

고, 규모는 165×42×23㎝(3.93:1)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위팔뼈편이 잔존하며 회백색을 띠고 있다. 보존상태는 끝단쪽이 모두 부식되었다.

41) 4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4, 사진 216)

4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남쪽 1.2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7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4층 흑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고, 5층 흑갈색 점토는 관 아래에 평평하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어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77×49×54㎝(361:1), 목관은 북벽과 서벽에 약간 치우쳐 있고, 규모는 151×34㎝(4.44:1)로 토광목관묘이다.

42) 4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4, 사진 217)

4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남서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북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41m이다.

층위는 암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2×90×116㎝(2.47:1), 내광은 185×58×39㎝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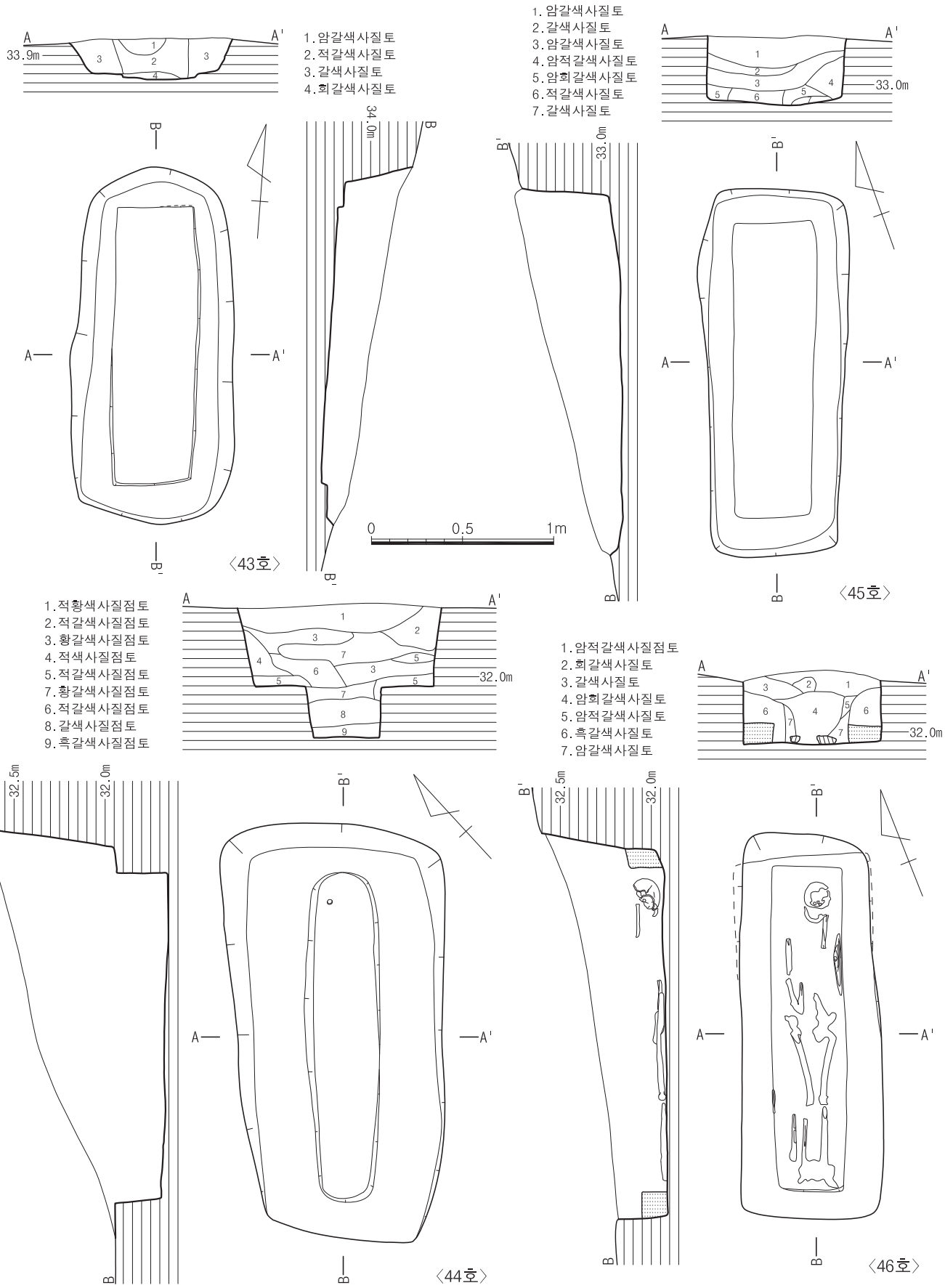
인골은 흑회색을 띠고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양골단이 부식된 상태로 허벅지뼈가 출토되었다.

43) 4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5, 사진 217)

4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0.8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 남서쪽 3.6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서쪽 9.2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23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고, 4층 회갈색 사질토는 관 아래에 평평하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어 하부는 묘광 어깨선이 일부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도면 145. 2지점 나구역 조선 43·44·45·46호 토광묘 유구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90×41㎝(2.2:1), 내광은 5㎝로 얕게 이단굴광을 하였는데, 바닥에 고운 사질토를 깐 것으로 보아 목관을 그 위에 고정하는 용도로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내광 규모는 153×48×5㎝(3.19:1)로 토광목관묘이다.

44) 4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5, 사진 218)

4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5.6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동쪽 6.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서쪽 2.2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71m이다.

층위는 적황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적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U'자형을 이루고, 하부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9층 흑갈색 사질점토층은 바닥에 평평하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로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이단굴광선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0×118×105㎝(1.95:1), 내광은 181×41×28㎝(4.41: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머리쪽 서쪽에 치우쳐 10원 동전이 출토되어 가장 후대에 쓰인 묘제임을 알 수 있다.

45) 4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5, 사진 218)

4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 남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서쪽 2.4m지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43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로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위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76×47㎝(2.66:1), 목관은 162×45㎝(3.6:1)로 토광목관묘이다.

46) 4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5, 사진 129)

4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남동쪽 9.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남서쪽 5.6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굴립주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8m이다.

층위는 6층 흑갈색 사질토가 충전토이며 내부토는 4층 암회갈색 사질토가 일시에 유입되었고, 그 위에 암

적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를 서벽쪽으로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로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76×60㎝(2.61:1), 목관은 179×42㎝(4.26:1)로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표면에 부식이 약간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47) 4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6, 사진 219)

4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8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북서쪽 5.6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굴립주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0.76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회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넓은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단부로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87×116×56㎝, 내광은 좌측 180×34×26㎝(5.29:1), 우측 184×35×24㎝(5.26: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동혈 합장묘)이다.

48) 4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6, 사진 220)

4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5.2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남동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 서쪽 7.2m지점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1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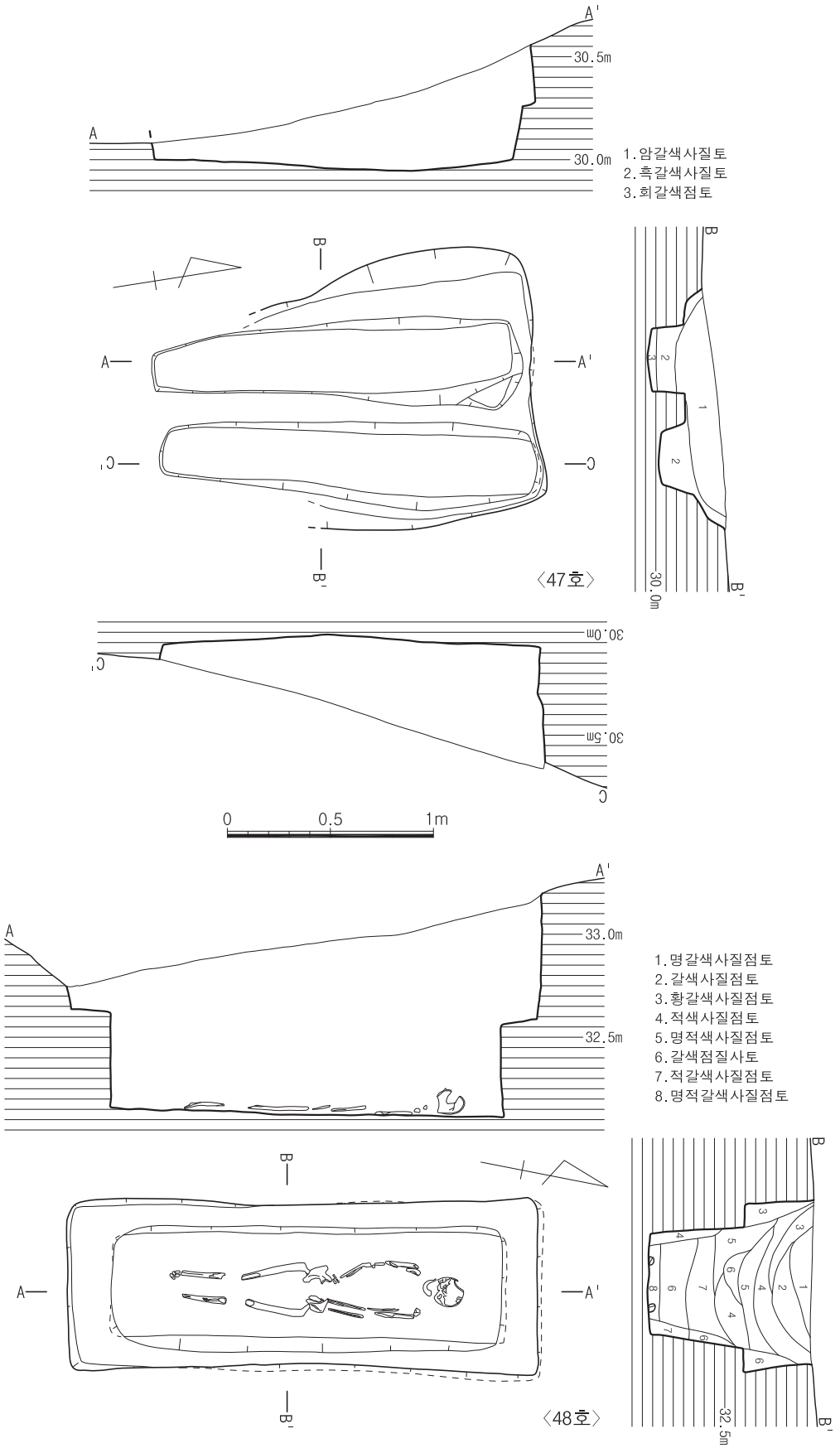
층위는 내부토는 관 위 6층 갈색 점질사토까지는 'U'자형을 이루며 그 아래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8×77×107㎝(2.96:1), 내광은 190×61×44㎝(3.11:1)로 내광 규모로 보아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표면에 부식이 약간 있으며, 보존상태는 발목뼈 이하가 부식되었을 뿐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49) 4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7, 사진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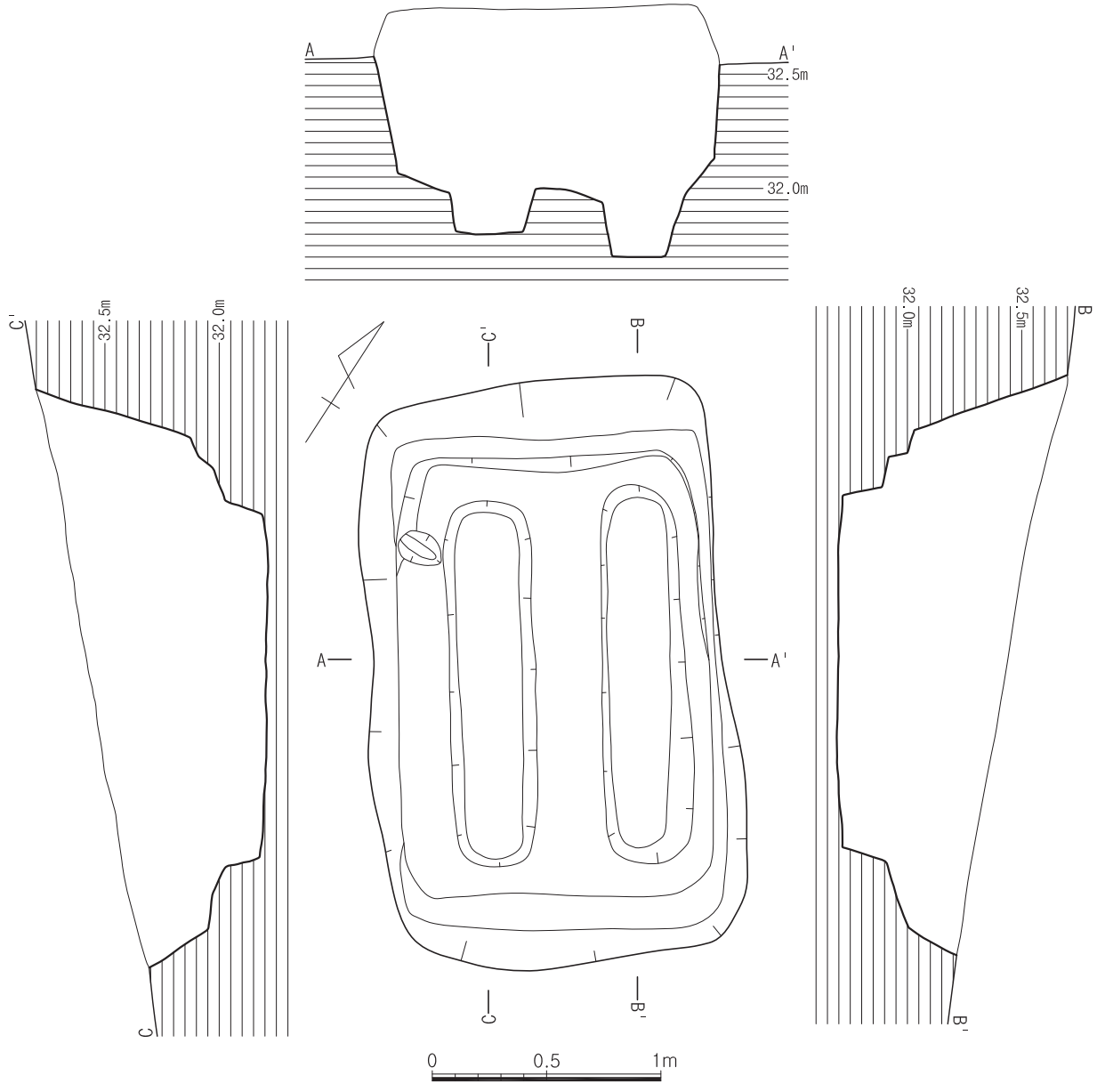
4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3.2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남서쪽



도면 146. 2지점 나구역 조선 47·48호 토광묘 유구

8.6m지점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북동쪽 5.2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80m이다.

이장묘로 내부토는 교란되었으며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하단부로 경사지면서 삭평되어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3×152×100㎝(1.66:1), 내광은 좌측 160×38×16㎝(4.21:1), 우측 165×36×17㎝(4.58: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동혈 합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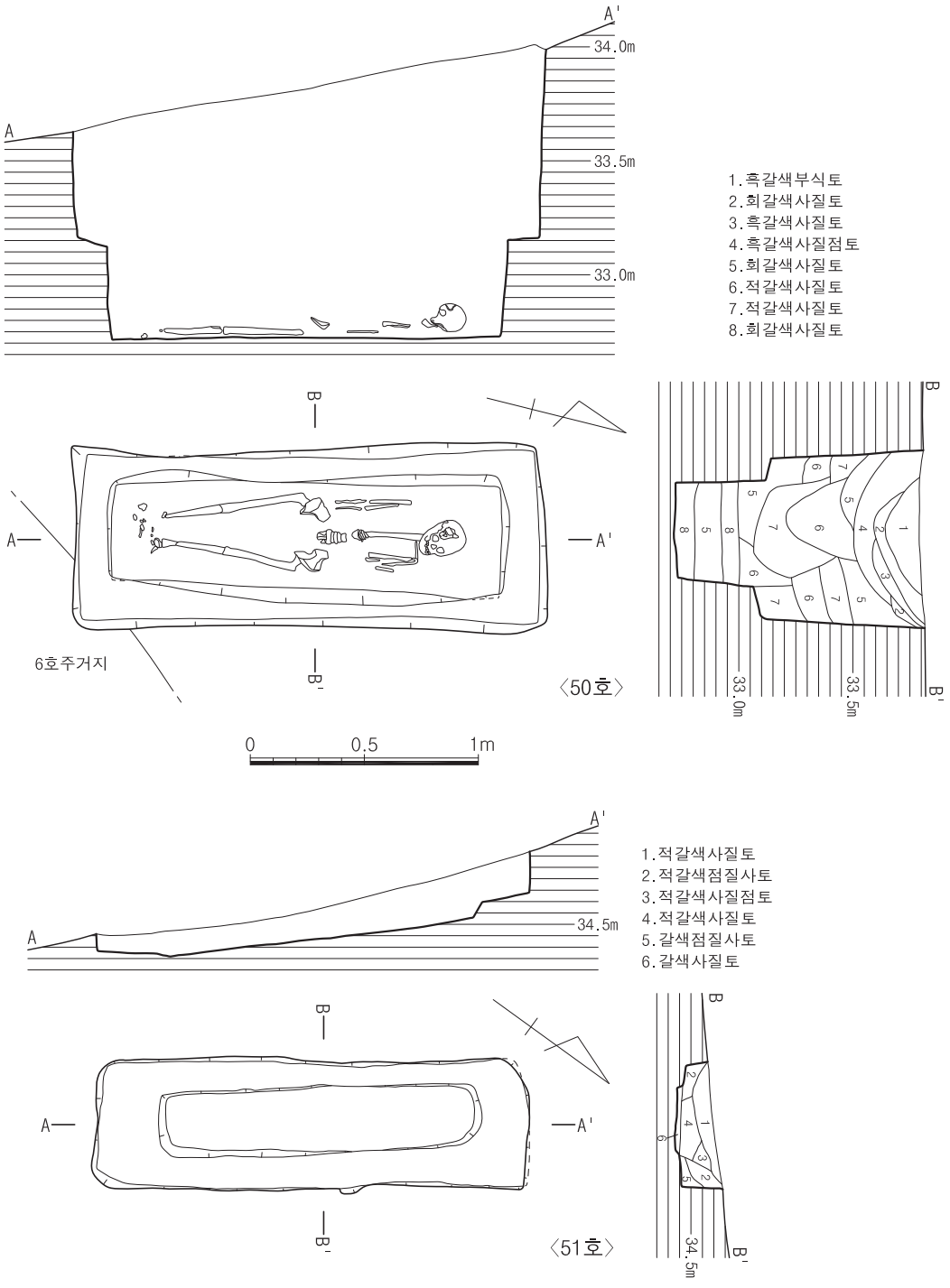


도면 147. 2지점 나구역 조선 49호 토광묘 유구

50) 5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8, 사진 221)

5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6호 주거지 북벽에 중복,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북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3.99m이다.



도면 148. 2지점 나구역 조선 50·51호 토광묘 유구

층위는 내부토는 관 위 7층 적갈색 사질토까지는 'U' 자형을 이루며 그 아래는 관 함몰 시 급격한 함몰로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7×78×127㎝(2.65:1), 내광은 177×54×41㎝(3.28:1)로 내광 규모로 보아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표면에 부식이 약간 있으며, 보존상태는 갈비뼈, 손목뼈·발목뼈 이하가 부식되었을 뿐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51) 5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8, 사진 222)

5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7호 주거지 동벽에 중복,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 남쪽 4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8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점질사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6층 갈색 사질토는 바닥에 3㎝정도로 얕게 관 아래에 깔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토는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0×56×29㎝(3.39:1), 내광은 142×31×7㎝(3.28:1)로 관 뒤채움을 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52) 5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49, 사진 222)

5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2m지점에 초기철기시대 1호 토광묘, 동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9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2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상부는 넓은 'U' 자형으로 퇴적되어 있고, 하부는 내부토의 퇴적이 서에서 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중앙 둑을 경계로 우측이 먼저 매장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장축은 'L' 자형, 단축은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8×236×78㎝(1.09:1), 내광은 좌측 168×42×31㎝(4:1), 우측 182×39×13㎝(4.67: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동혈 합장묘)이다.

53) 5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0, 사진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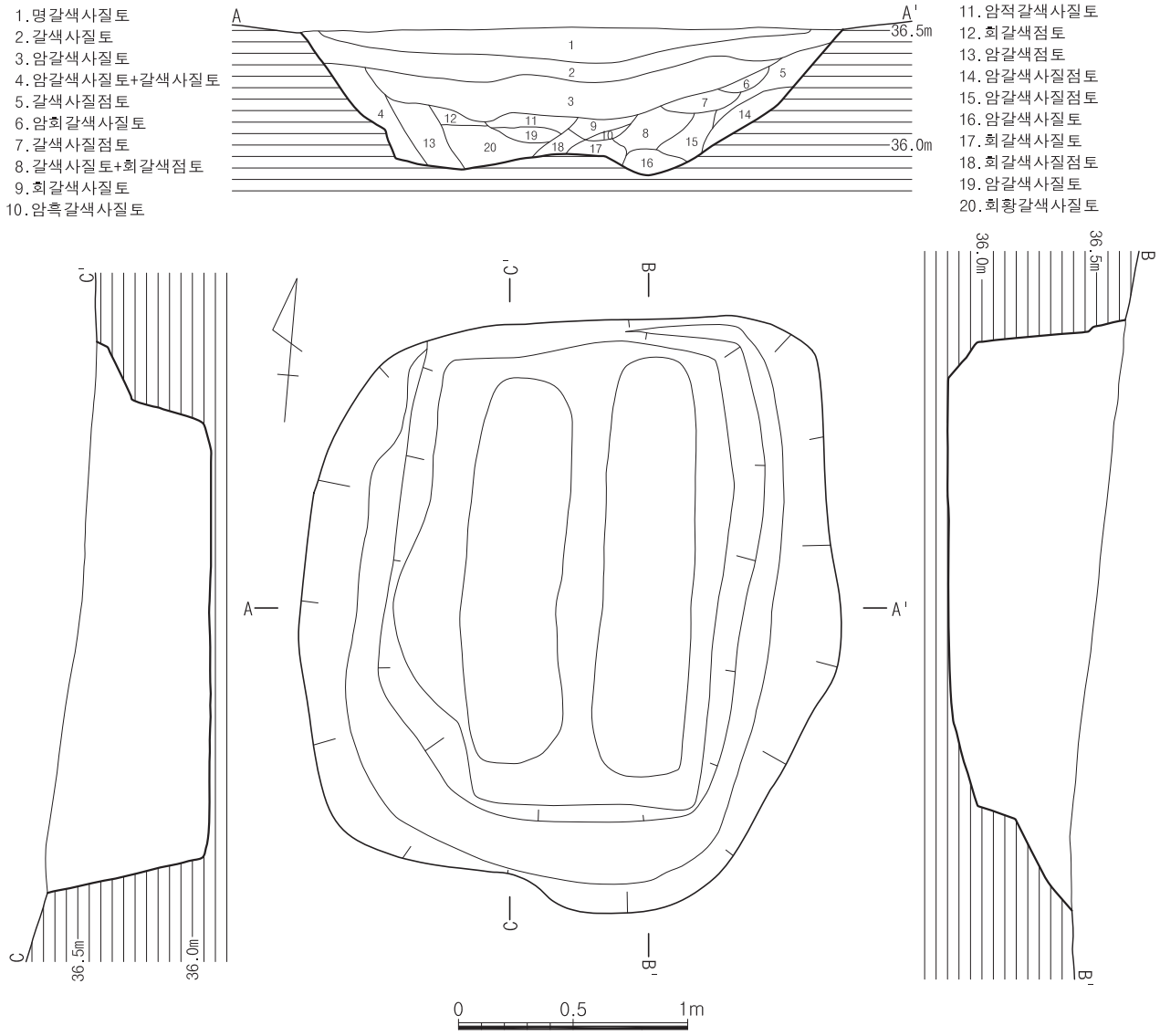
5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동쪽 2.2m지점

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남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76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가 우세하며 7층 암적갈색 점질사토는 관 뒤채움을 한 것이며 8층 흑갈색 사질토는 관 아래에 깔았다. 내부토는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3×63×73㎝(3.06:1)로 목관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관 뒤채움흙의 존재로 보아 토광목관묘로 추정된다.

인골은 흑색을 띠며 표면에 부식이 심한 편이다. 보존상태는 갈비뼈, 손목뼈, 발목뼈 이하, 등뼈 등이 부식되었으며 머리뼈와 사지뼈, 골반뼈가 끝단이 부식된 채 남아있다.

유물은 유입토 내에서 백자접시편 1점이 출토되어 조성시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골반뼈 위에서 청동지환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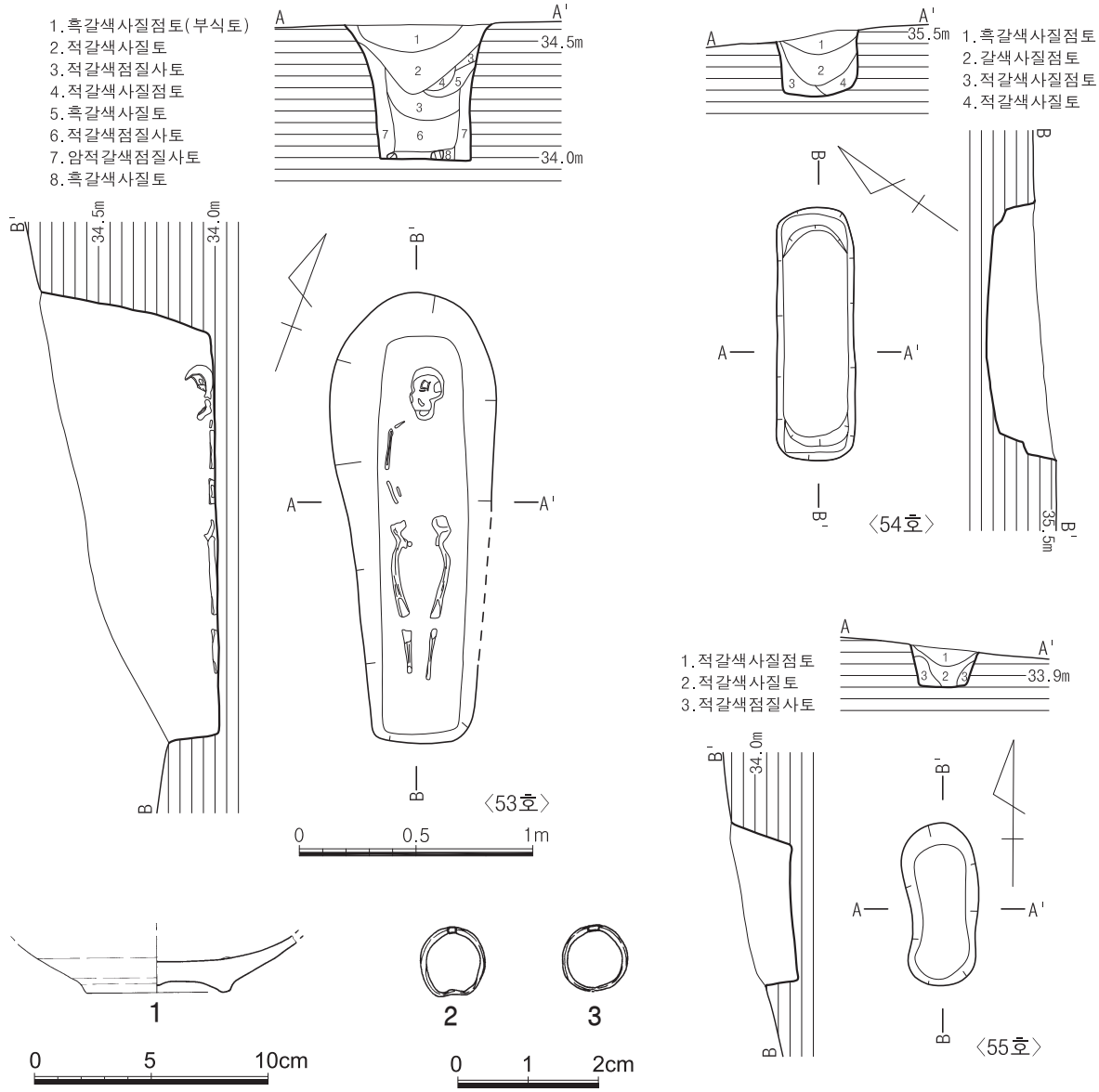
도면 149. 2지점 나구역 조선 52호 토광묘 유구

(2) 유물

① 백자접시 저부편(도면 150-1, 사진 223-⑤)

저부만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굽안쪽을 둥글게 깎아냈는데 가운데부분이 원뿔처럼 뾰족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은 넓고 평평하다. 유색은 광택이 있는 회청색이며 굽안쪽까지 전면에 시유하였고 시유상태도 양호하다. 기면에 빙렬이 가득하다. 접지면은 흙물에 담근 후 모래를 받쳤고 안바닥에도 모래받침흔이 남아있다. 현고 2.1㎝, 저경 6.3㎝

② 청동지환(도면 150-2·3 사진 223-⑥·⑦)



도면 150. 2지점 나구역 조선 53·54·5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53호)

청동지환 한쌍이다. 얇은 청동판을 원형으로 구부려 아래쪽에서 겹치도록 만들었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직경 1.9㎝, 두께 0.2㎝, 무게 각 1g

54) 5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0, 사진 224)

5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6.4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 남동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남쪽 13.2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43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토는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5°-E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09×33×18㎝(3.3:1), 내광은 95×33×7㎝(2.88:1)로 이단굴광식 토광직장묘이다.

55) 5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0, 사진 224)

5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6m지점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서쪽 2.2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 남서쪽 4.8m지점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4.1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S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70×29×26㎝(2.41:1)로 토광직장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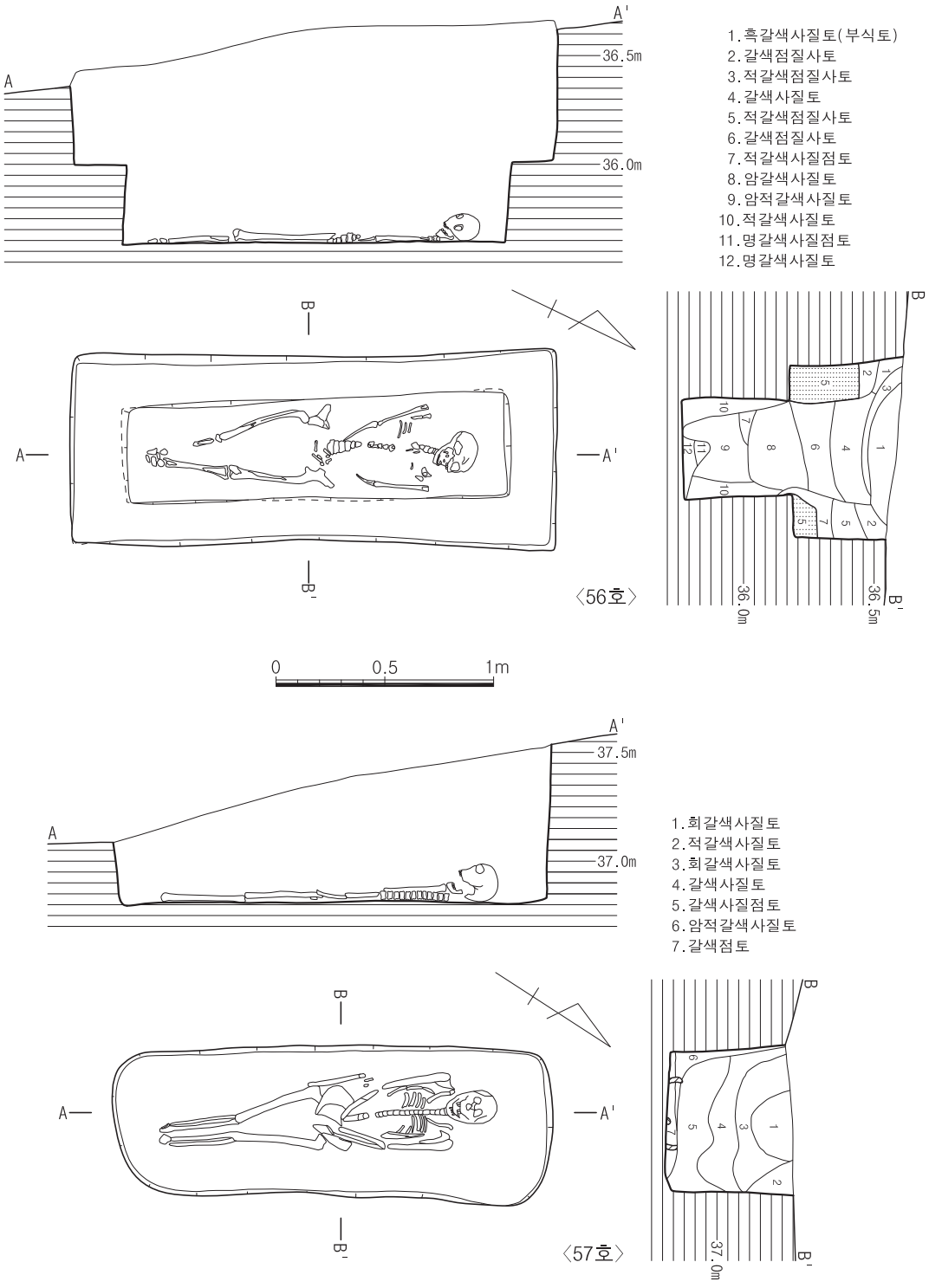
56) 5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1, 사진 224)

5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12.8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 북동쪽 5.6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1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갈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해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3×85×98㎝(2.62:1), 내광은 177×45×37㎝(3.93:1)로 관재의 잔존으로 보아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갈비뼈, 등뼈, 정강이뼈 일부가 부식되었다.



도면 151. 2지점 나구역 조선 56·57호 토광묘 유구

57) 5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1, 사진 225)

5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북벽에 중복, 북동쪽 9.6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북서쪽 10.8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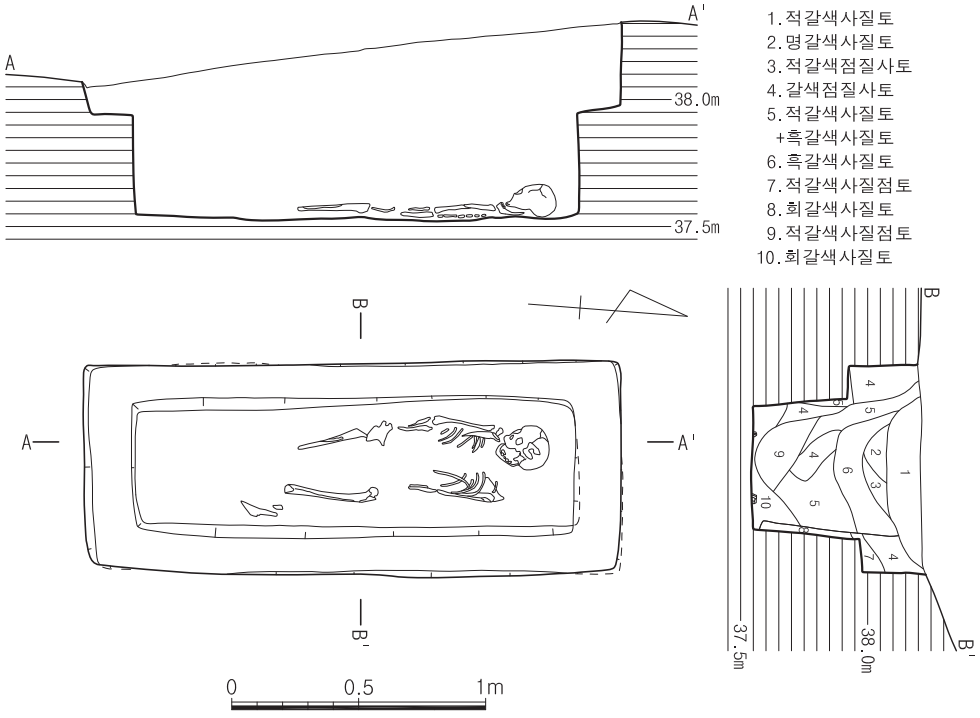
층위는 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해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7층 갈색 점토상에 인골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이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69×71㎝(2.93:1)로 토광직장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손목·발목뼈 아래가 부식되었을 뿐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58) 5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52, 사진 225)

5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9.6m지점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 북서쪽 11.6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남서쪽 18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26m이다.



도면 152. 2지점 나구역 조선 58호 토광묘 유구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점질사토-회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해 'U' 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10층 회갈색 사질토 내에는 관재가 포함되어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2×83×75㎝(2.55:1), 내광은 175×55×39㎝(3.18:1)로 관재의 잔존으로 보아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정강이뼈 이하는 부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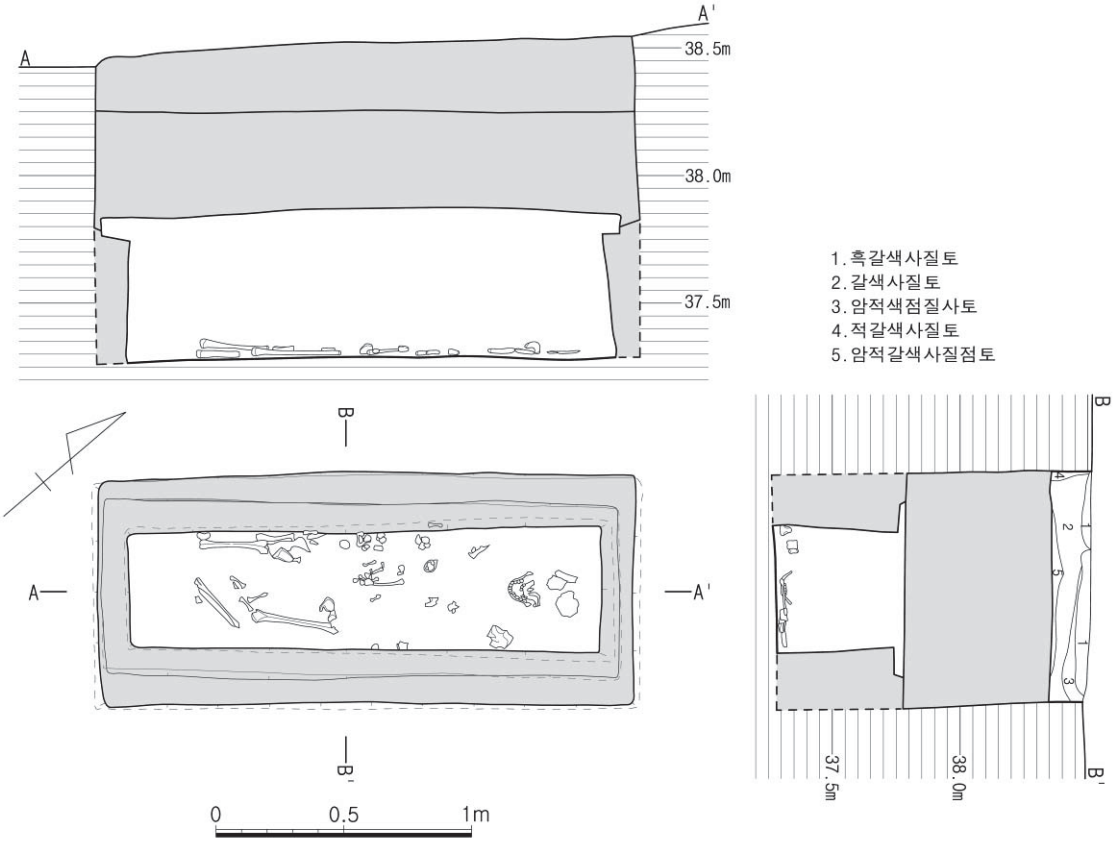
4. 회곽묘

1) 1호 회곽묘

(1) 유구(도면 153, 사진 226)

1호 회곽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4.4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 서쪽 13.6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 북동쪽 18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야외노지와 1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55m이다.

층위는 회뚜껑 위에 성토된 것으로 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적색 점질사토-적갈색 사질토-암적갈색



도면 153. 2지점 나구역 조선 1호 회곽묘 유구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묘광은 규모 210×91×127㎝(2.31: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어깨선에서 30㎝ 수직으로 내려가 회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203×69×55㎝(2.94:1)로 바닥을 제외한 네벽을 바닥까지 50㎝ 하강하여 단벽은 20㎝, 장벽은 10~15㎝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규모 185×45×49㎝(4.11:1)로 안치하였다.

인골은 흑회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상체는 대부분 편으로 잔존하거나 부식되었으며, 하체는 허벅지뼈, 정강이뼈, 종아리뼈가 잔존한다.

F. 시대미상

1.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154, 사진 227)

1호 수혈유구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서쪽 1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주거지, 남동쪽 2m지점에 시대미상 2호 수혈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9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부는 유실되었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중앙으로 함몰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3°-W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205×130×75㎝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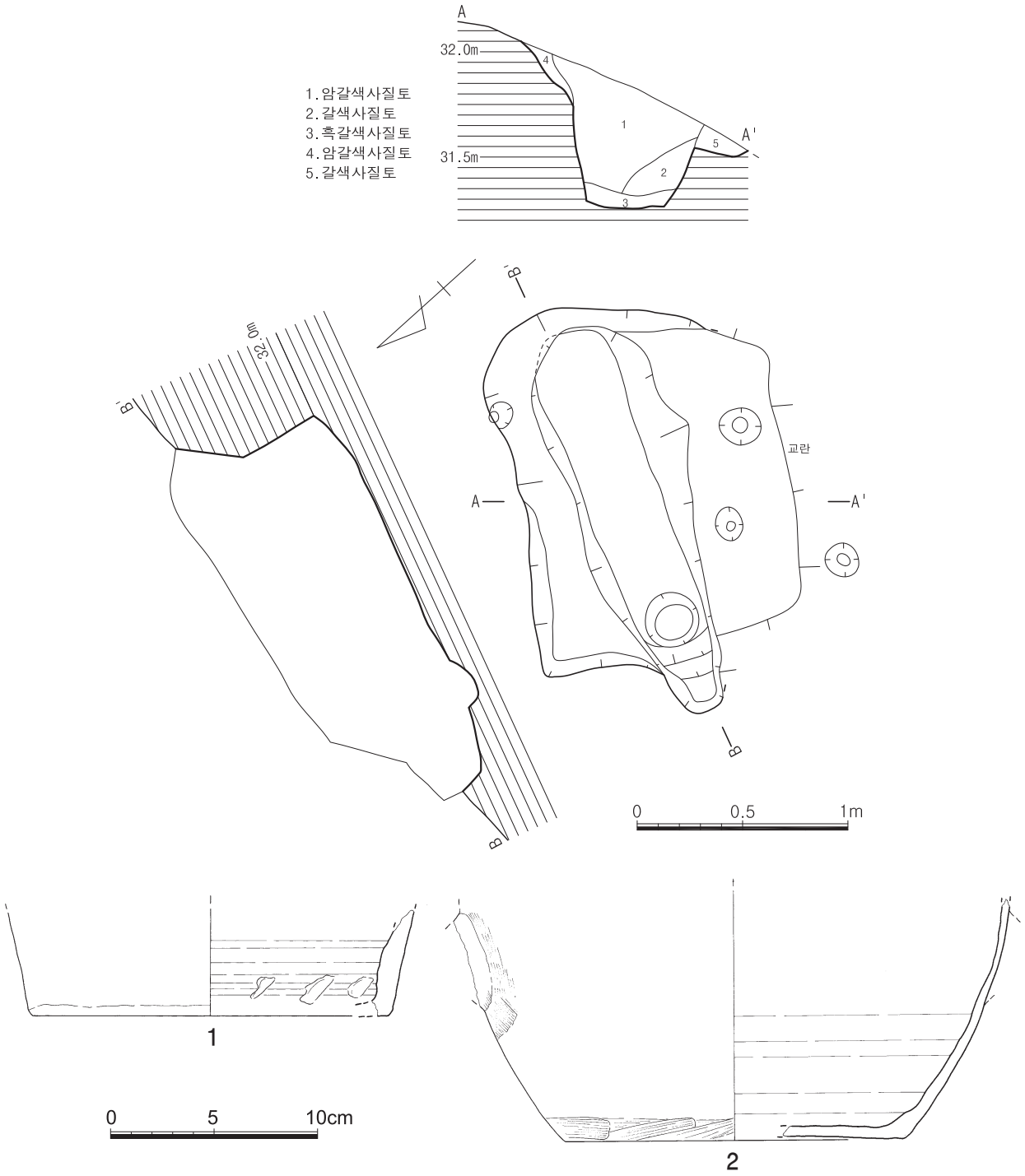
내부시설은 중앙에 장축선을 따라 190×55×40㎝의 수혈이 파져 있으나 용도는 알 수 없다. 소주공은 내부에 4개, 외부에 1개가 있다. 하단부 통일신라시대 주공군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나 유구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동이, 도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이(도면 154-2, 사진 227-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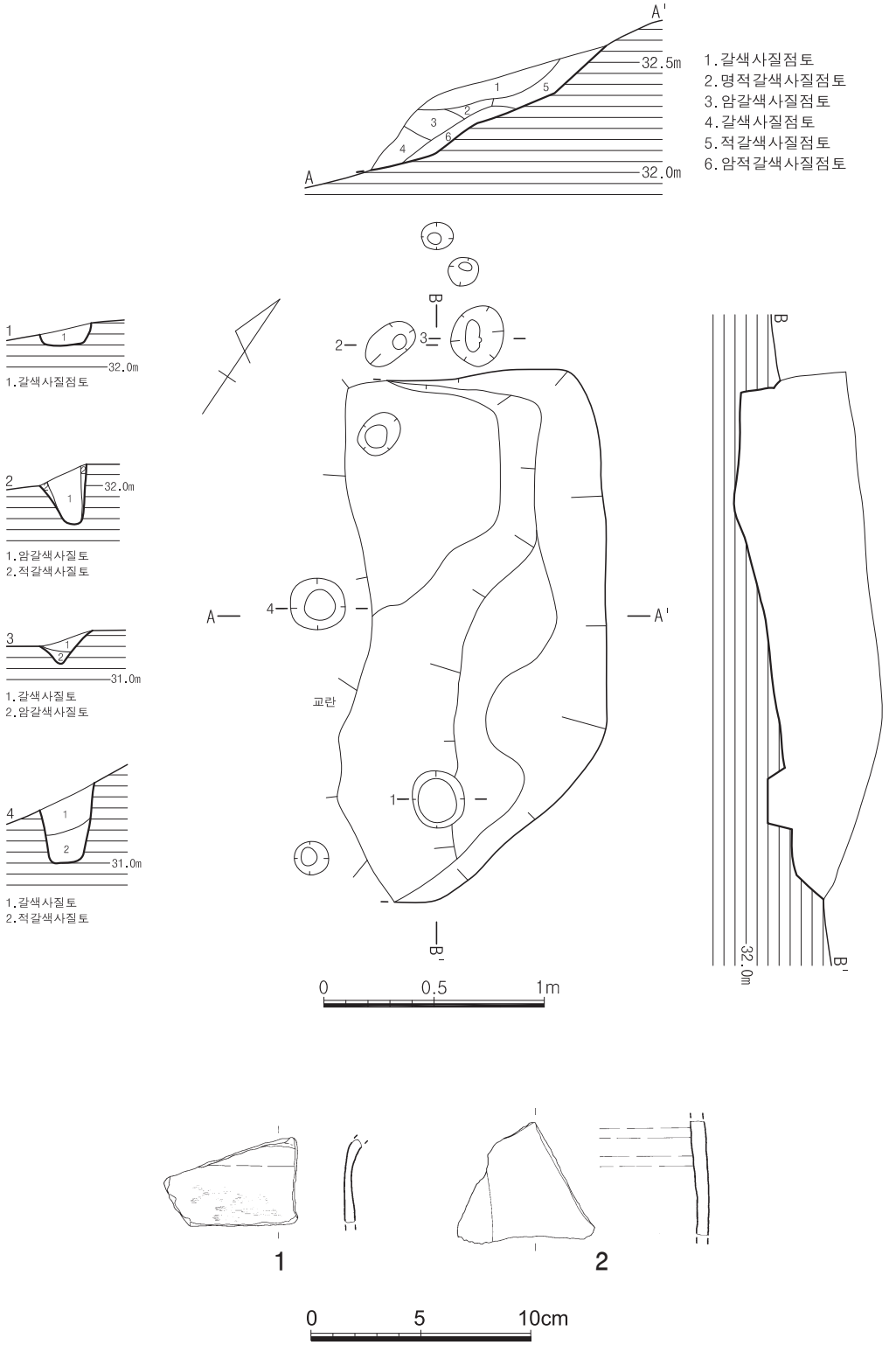
저부와 동체 중하단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다. 태토에는 가는 운모립을 포함한 세사립이 섞였으며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탁한 황갈색(10YR 5/3)을 띠고 속심은 회흑색이다. 동중위에는 대상파수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으며 저부와 동체의 접합부 내외면에 점토를 덧대어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12.1㎝, 복원저경 16.7㎝



도면 154. 2지점 나구역 시대미상 1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② 도기 저부편(도면 154-1, 사진 227-④)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내외면이 암회색(N 3/)을 띠는 경질이며 속심은 암자색이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굵은 사립이 소량 섞였으나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내면에는 도구로 꾹꾹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5.3㎝, 복원저경 18.4㎝



도면 155. 2지점 나구역 시대미상 2호 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155, 사진 228)

2호 수혈유구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2m지점에 시대미상 1호 수혈, 서쪽 1m지점에 통일신라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2.58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부는 유실되었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암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34°-W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237×155×48㎝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이 8개 확인되었는데, 유구 내에 4개, 북벽 밖에 4개가 배치되어 있다. 유구 내에 있는 것 중 중앙 25×23×30㎝, 남벽쪽 26×23×8㎝는 주주공으로 보인다. 그 외 북벽에 위치한 것 중 벽면에 가까이 있는 2개는 주주공이다. 주공의 역할이 하단부에 형성된 통일신라시대 주공군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구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유물은 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체부편(도면 155-1, 사진 228-④)

경부로 이어지는 동상위부분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은 회색(7.5Y 4/1)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은 탁한 황색을 띤다. 현길이 3.9㎝

② 동체부편(도면 155-2, 사진 228-⑤)

편병이나 편호의 동체부로 추정된다.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태토는 백색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현길이 5.3㎝

G. 지표수습유물

① 저부투공 무문토기(도면 156-2, 사진 229-②)

무문토기 저부만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 장석, 석영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6/6)을 띤다. 바닥 중앙에는 투공된 원형의 구멍 일부가 남아있다. 현고 2.8㎝, 복원저경 9.9㎝

② 무문토기 저부(도면 156-1, 사진 229-①)

저부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밝은 황색(2.5Y7/3)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2.8㎝, 복원저경 7.8㎝

③ 병 구연부(도면 156-4, 사진 229-⑦)

회청색 경질로 구순부는 3/4가량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구연내면과 남아있는 견부외면 일부에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었다. 경부는 거의 직립하며 구연에서 넓게 벌어진다. 경부내면에 조으기의 흔적이 있다. 현고 3.8㎝, 복원구경 4.8㎝

④ 완 저부(도면 156-3, 사진 229-④)

저부의 1/4가량이 남아있다. 흑색연질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과 속심은 회올리브색(5Y 6/2)을 띤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현고 2.5㎝, 복원저경 8.1㎝

⑤ 대부완 저부(도면 156-5, 사진 229-⑥)

저부만 남아있다. 대각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결실되었다. 회색(5Y5/1)을 띠는 연질토기로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八'자상으로 벌어진 대각은 면을 이루며 대각 안쪽은 가장자리로 깊은 홈을 돌렸다. 현고 2.0㎝, 복원저경 6.1㎝

⑥ 구연부편(도면 156-6, 사진 229-⑩)

연질 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토기부스러기가 섞였으며, 기면의 색조는 원래 회흑색이나 약하게 박리된부분은 회백색을 띤다. 구연은 경부에서 넓게 벌어지며 구순외면에 홈을 돌렸다. 현고 4.7㎝, 복원구경 22.0㎝

⑦ 구연부편(도면 156-7, 사진 229-⑫)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태토는 점성이 강한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외면의 색조는 회색(N6/), 내면은 회백색을 띤다. 현길이 7.1㎝

⑧ 병경부편(도면 156-8, 사진 229-⑪)

병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경부편으로 도면복원하였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었으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있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에는 약하게 턱을 두었고, 경부내면에는 조으기흔이 관찰된다. 현고 5.7㎝

⑨ 완(도면 156-9, 사진 229-③)

전체기형의 일부분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회흑색 연질이나 기면박리가 심하여 전체적으로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띠며, 태토는 점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기벽에는 물레흔이 보인다. 고 6.6㎝, 복원구경 17.1㎝, 복원저경 7.2㎝

⑩ 대부완 저부편 (도면 156-10, 사진 229-⑤)

완으로 추정되며 저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면은 원래 회흑색이나 박리되어 전반적으로 올리브황색(5Y6/3)을 띤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외반한다. 현고 3.0㎝, 저경 9.0㎝

⑪ 백자접시(도면 156-12, 사진 230-②)

구연부가 1/3가량 결실되었다. 굽은 직립하며, 굽안쪽은 둥글게 깎아냈다. 안바닥은 넓고 둥근 곡면을 이루며 기벽으로 이어져 구연에서 외반한다. 태토는 정선되고 치밀한 편이며, 유색은 연한 회색조로 굽안쪽까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접지면은 흙물에 담근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고 안바닥에도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고 4.7㎝, 구경 12.1㎝, 저경 4.5㎝

⑫ 백자대접(도면 156-11, 사진 230-①)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굽은 직립하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다. 둥근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굽지름보다 큰 원각이 돌려져 있다. 회백색의 태토는 곱고 치밀하며, 유색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하고 고르게 시유하였다. 광택도 좋고 빙렬도 없으나 기면에 기포가 조금 보인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태토 받침 탈락흔이 있다. 고 8.4㎝, 구경 17.8㎝, 저경 6.2㎝

⑬ 도기 구연부편(도면 156-13, 사진 229-⑧)

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굵고 가는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N4/)을 띠며, 속심은 암갈색을 띤다. 경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진 구연은 얇게 만들어 밖으로 꺾어접어 마무리하였다. 경부외면은 침선으로 구획 후 파상문을 시문하였고,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은 돌대로 구분하였다. 현고 8.4㎝, 복원구경 24.3㎝

⑭ 도기 저부(도면 156-14, 사진 229-⑭)

도기 호로 추정되며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백색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기외면은 암회색(N3/), 내면은 회색(N4/), 속심은 암갈색을 띤다. 바닥은 평저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눌러 다진 지두흔이 남아있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다. 현고 16.0㎝, 저경 13.5㎝

⑮ 도기 경부편(도면 156-15, 사진 229-⑬)

호의 경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4/)을 띤다. 남아있는 경부외면 하단에는 'V' 자형의 음각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에는 돌대가 둘러져 있다. 현길이 7.5㎝

⑯ 도기 뚜껑(도면 156-16, 사진 229-⑨)

뚜껑의 꼭지부분만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갈색(10YR4/2)을 띤다. 현고 2.1㎝, 꼭지경 3.8㎝

⑰ 도기 파수(도면 156-17, 사진 23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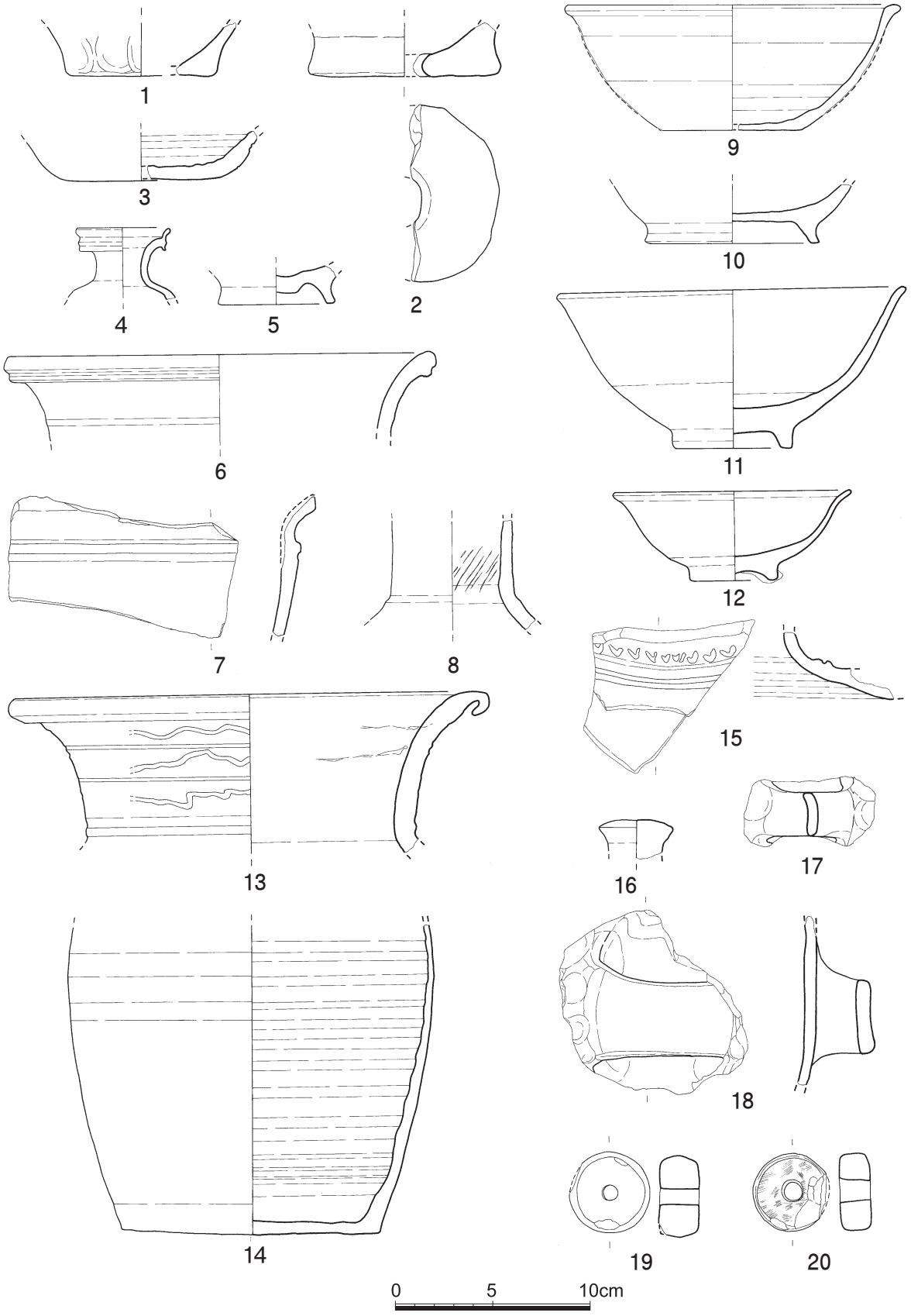
소형의 대상파수이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이 섞였으며 점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회흑색의 색조이나 기면이 박리되어 탁한 황색(2.5Y6/4)을 띠는 부분이 많다. 파수길이 6.8㎝, 파수폭 2.3㎝, 파수두께 0.6㎝

⑱ 도기 파수(도면 156-18, 사진 230-④)

대상파수이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으며,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점토이다. 내외면, 속심 모두 황회색(2.5Y5/1)을 띤다. 파수 접합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9.2㎝, 현파수길이 9.3㎝, 파수폭 3.7㎝, 두께 0.7㎝

⑲ 토제방추차(도면 156-19, 사진 230-⑤)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고운점토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인 색조는 탁한 황등색(10YR7/4)이나 부분적으로는 황회색을 띠기도 한다. 가운데에 직경 0.8㎝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 단면은 육각형의 형태를 띤다. 직경 4.2㎝, 두께 2.1㎝, 무게 40g



도면 156.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⑳~㉘ 석기류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⑳	157-3	230-⑥	마제석검	(2.6)	최장폭 5.0	0.8	11	병부 말단부만 남음, 녹색 이암혼펠스제, 단면은 삼각형
㉑	157-1	230-⑧	석촉	(5.4)	1.6	0.7	6	삼각형석촉, 선단부 결실, 암자색 이암제, 단면 菱形
㉒	157-2	230-⑨	석촉	(2.4)	(1.2)	0.3	1	말단부 결실, 녹회색을 띠는 편암제, 단면은 평평육각형
㉓	157-6	230-⑦	석착	6.0	1.8	1.2	23	완형, 회황색의 이암혼펠스제, 중앙부의 단면은 장방형
㉔	156-20	230-⑩	방추차	직경4.1		1.6	41	가장자리 일부 결실, 구멍직경 1.0~1.2㎝
㉕	157-4	231-①	지석	11.2	7.4	5.6	985	납석제, 全面이 치밀하게 마연됨, 깊게 갈려 길게 패인 부분도 있음, 하단부에 사방향으로 투공된 직경 0.4㎝의 구멍이 있고, 음각 문양도 있음
㉖	158-6	231-②	지석	(9.5)	5.2	3.3	294	일부 결실, 백운모편암제, 4면이 마연됨, 前·後面에 깊게 갈려 길게 패인부분이 있음
㉗	158-7	231-③	지석	(10.7)	11.0	6.3	1,046	일부 결실, 편암제, 全面이 마연됨, 前面 가운데에 패인 흠이 있는데 인위적인 타격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 있음
㉘	157-5	230-⑪	석제용기	(13.2)	(7.6)	1.7	331	납석제의 석제용기편으로 일부가 남음, 외면에 불맞은 흔적 있음

㉙ 동사(도면 158-1, 사진 231-④)

3개체로 나뉜 동체부가 수습되었다. 全面이 칠흑색 녹으로 덮여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조금 좁아지는 형태로 선단부는 결실되었으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만된 표면 중앙과 양측면에 종방향으로 평행하게 돌대처럼 가늘게 튀어나온 稜線이 있다. 선단의 刃部 양측면은 날이 잘 갈려 있으며 신부에는 날이 없다. 신부의 단면은 稜線이 튀어나와 납작한 '山'자 형태이며 裏面쪽이 살짝 들려 있다. 현길이 12.5㎝, 두께 0.3㎝, 무게 40g

㉚ 동착(도면 158-4, 사진 231-⑤)

완형의 細長한 銅鑿으로 全面에 칠흑색 녹이 덮여 있는데 부분적으로 부식된 부분은 연녹색을 띤다. 상태는 양호하다. ″¶口 외면에는 돌대가 돌려져 있고 평면형태는 육각형인데 내부구멍은 단면이 원형이다. 신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한쪽면을 가공해서 뾰족하게 만든 편도이다. 신부는 가운데부분까지는 合范痕이 튀어나와 있어 단면이 육각형이며, 그 아래쪽은 잘 마연하여 단면이 사각형을 이룬다. 길이 9.2㎝, 무게 39g

㉛ 청동환(도면 158-2, 사진 231-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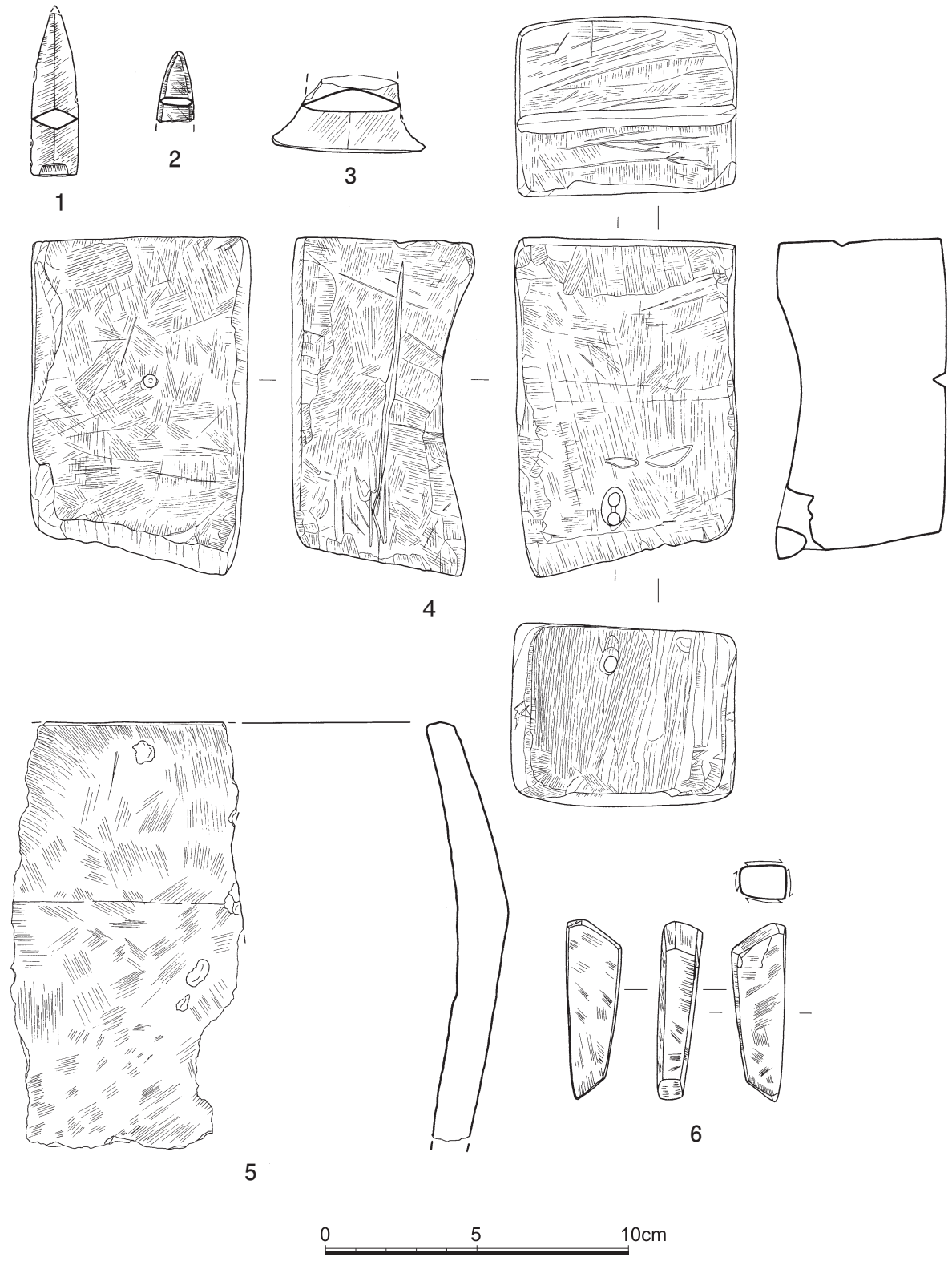
단면 원형의 청동환으로 기면 일부가 박리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직경 2.9㎝, 무게 10g

㉜ 청동합(도면 158-3, 사진 231-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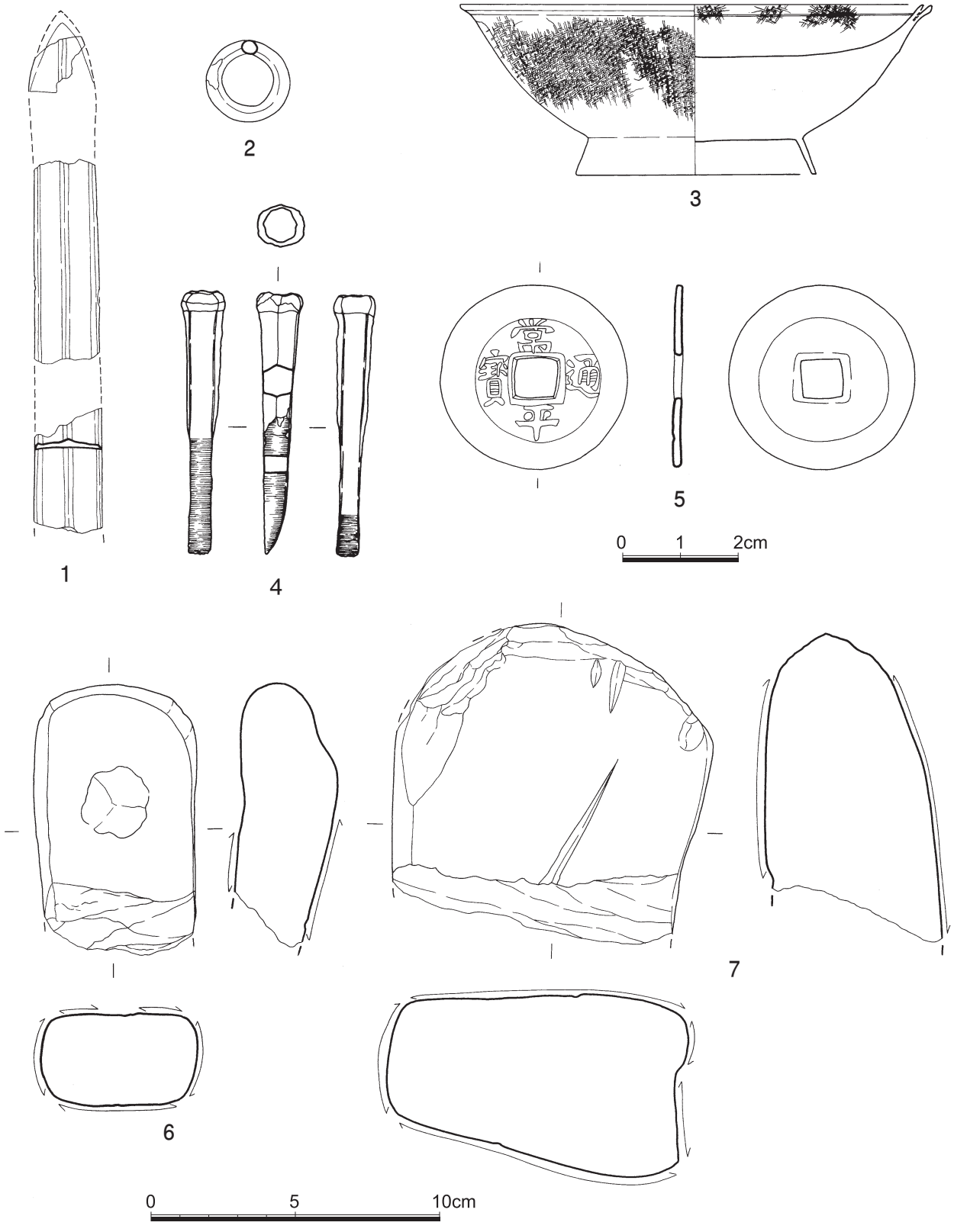
蓋와 합신이 고착되어 있다. 완형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개는 드림부 안쪽에 한줄의 침선을 돌아가고, 합신은 대각이 있는 형태로 대각은 '八'자형으로 벌어지는데 두께감이 있다. 기면에 포목흔이 붙어 있다. 고 6.0㎝, 구경 16.5㎝, 각경 8.4㎝

㉝ 동전(도면 158-5, 사진 231-⑧)

상평통보이다. 기면이 부식되어 後面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직경 3.3㎝, 두께 0.2㎝, 무게 8g



도면 157.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도면 158. 2지점 나구역 지표수습유물

라. 3지점 (도면 159, 사진 232)

3지점 북쪽 능선 정상부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려시대 주거지 및 주공군이 분포하며 서쪽과 동쪽 가지능선을 따라 토광묘들이 분포한다. 유구의 대부분은 동측 능선 말단부로 가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서쪽 능선은 남-북으로 난 소로를 경계로 북서쪽에 수목원이 접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군이 조사된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과 능선으로 연결되는 북쪽으로 관련유구들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확인된 유구 총수는 113기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고려시대 주거지 2기, 주공군, 석곽묘 1기, 토광묘 2기, 조선시대 야외노지 3기, 토광묘 99기, 회곽묘 1기이다.

A. 청동기시대

1. 주거지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4기로, 북쪽 능선 정상부에 3기, 동측 능선 말단부에 1기가 분포되어 있다. 북쪽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1기, 원형 2기이며 등고선과 직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출입구는 남쪽인 것으로 판단된다.

1)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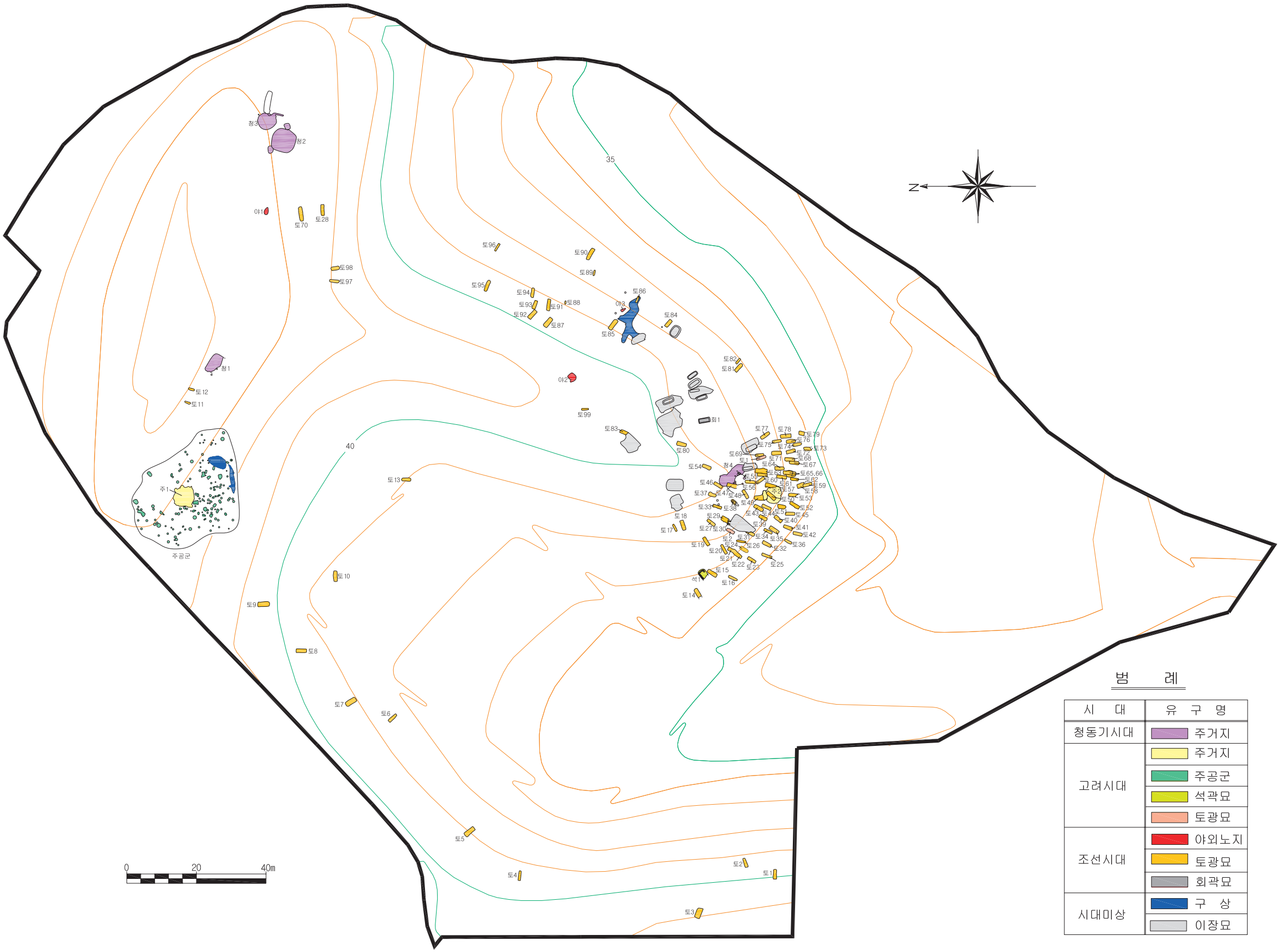
(1) 유구(도면 160, 사진 233·234)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평평한 남사면에 위치하며 북서쪽 5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43.59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점토인 갱신세층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장벽은 유실되었으며 단벽은 1/2정도 잔존한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탄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유실로 인하여 단절되었다. 1·3층에서 동반 출토되는 탄재 및 목탄은 벽체나 천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W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잔존규모는 446×225×17㎝이다. 굴착방식은 갱신세층을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0개, 노지 1개, 바닥다짐이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북벽에 4개, 동벽에 2개, 중앙에 1개, 남벽쪽에 1개, 서벽쪽에 2개가 확인되었다. 주공2와 10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주공8·9는 출입시설과 관련된 주공으로 보인다. 특히 주공7~10은 깊이가 10㎝이상이며 나머지는 5㎝미만이다. 노지는 수혈식 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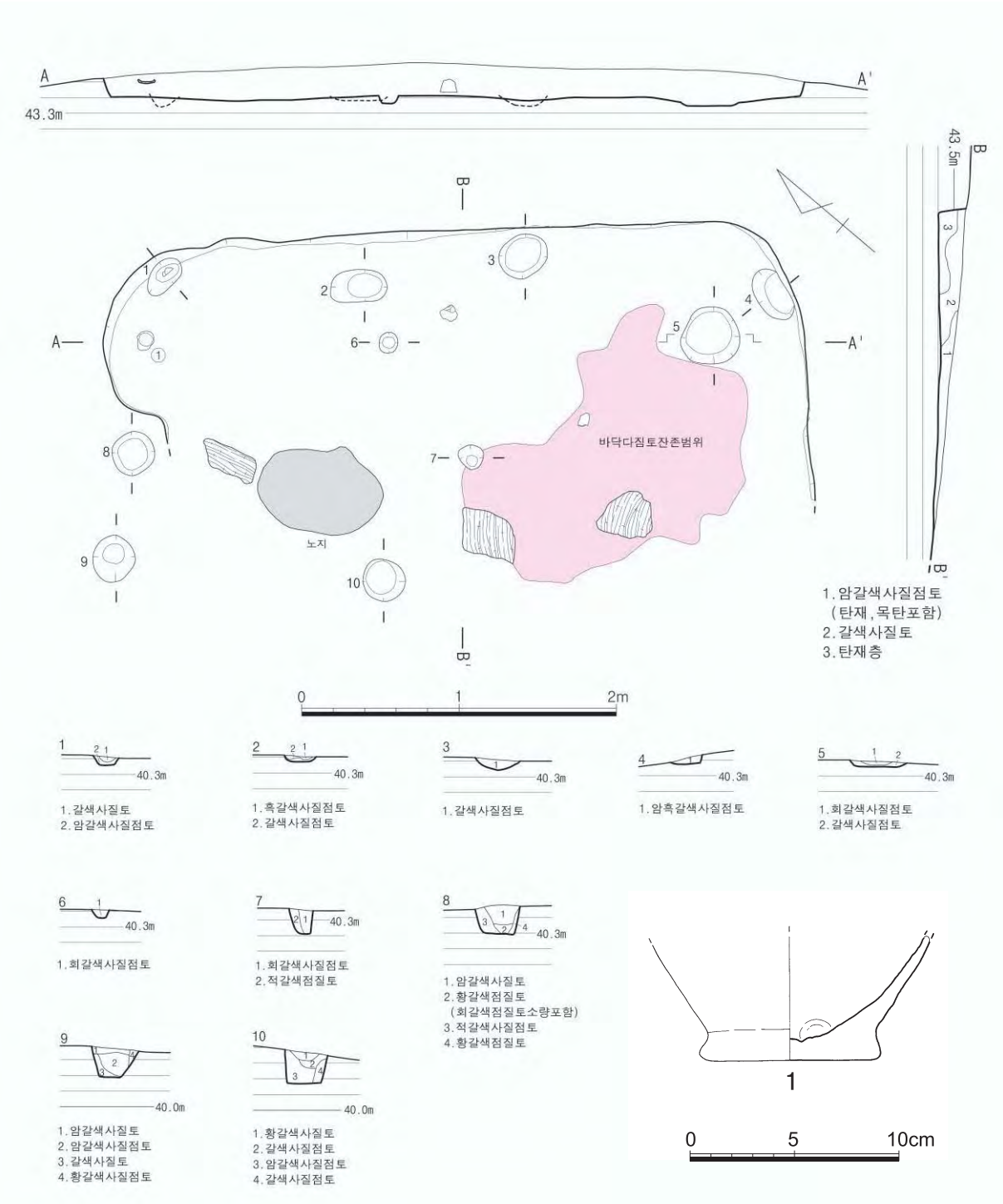
여 백



범 례

시 대	유 구 명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
	주공군
	석곽묘
	토광묘
조선시대	야외노지
	토광묘
	회곽묘
시대미상	구 상
	이장묘

도면 159. 3지점 유구배치도(1:800)



도면 160. 3지점 청동기 1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로 바닥을 5㎝정도 판 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바닥은 중심쪽에 적색 소결층이, 그 주변으로 적색 소결토가 잔존하고 있다.

바닥 다짐흙은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2m정도 범위에 부정형으로 잔존하는데 적갈색 사질토에 부분적으로 목탄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불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서단벽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적갈색 무문토기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무문토기 저부(도면 160-1, 사진 234-⑦)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영과 장석, 가는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부분적으로 기면이 박리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현고 6.0㎝, 저경 8.8㎝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1, 사진 235~237)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평평한 동사면에 위치하며 북동쪽 1m지점에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서쪽 20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2.78m로 등고선방향과 나란하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사질토인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쪽은 어깨선만 남은 상태이다. 동벽과 북벽은 배나무 이식에 따른 구덩이가 1개씩 있어 벽면 일부가 훼손되었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중앙은 'U' 자형을 이루고, 북쪽은 자연경사에 의해 잦은 유수의 영향을 받아 벽쪽에서 중앙쪽으로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상부 토양에서 목탄, 탄재, 소토[1] 등이 번갈아 가면서 토양 내에서 확인되는데 화재에 의해 벽체나 천정이 주거지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모서리가 말각된 형태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58°-W이다. 잔존규모는 506×490×30㎝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6개, 작업공 1개, 벽구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중앙에 작업공을 배치하였고, 그 주위에 중심주공 4개를 시설하였다. 중심주공은 남북:동서 길이비가 1:1.5정도이다. 그 외의 주공은 벽면을 따라 산포되어 있으며, 남벽 중앙에 배치된 주공3·4는 어깨선이 불분명하며 주공 주위가 벽쪽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출입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작업공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층위는 회황갈색 사질토-회갈색 점토-황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층위상으로 볼 때, 점토는 담수조건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작업도구인 갈돌, 갈판, 숫돌이 출토되어 유구의 성격이 작업공임을 반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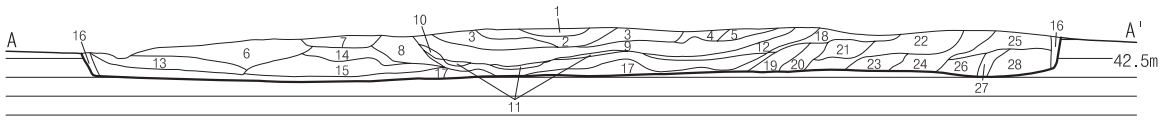
벽구는 북벽 중앙에서 서벽 모서리 쪽으로 가면서 돌아가는데, 길이는 200㎝, 폭 10~15㎝, 깊이 5㎝로 얕게 시설하였다. 부분적으로 벽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사가 높은 쪽에서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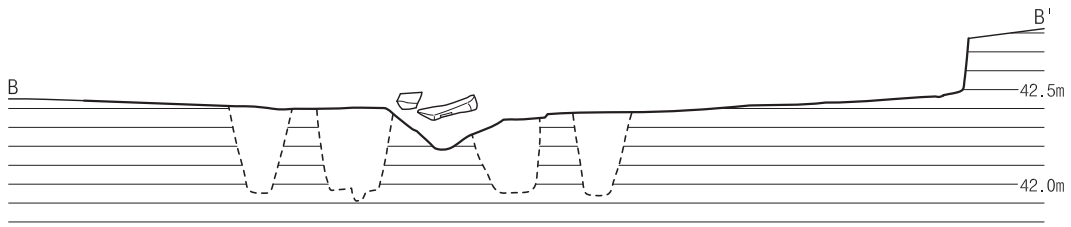
유물은 작업공 내에서 갈돌, 갈판, 지석, 무문토기 저부, 주공 주변에서 단도마연토기발,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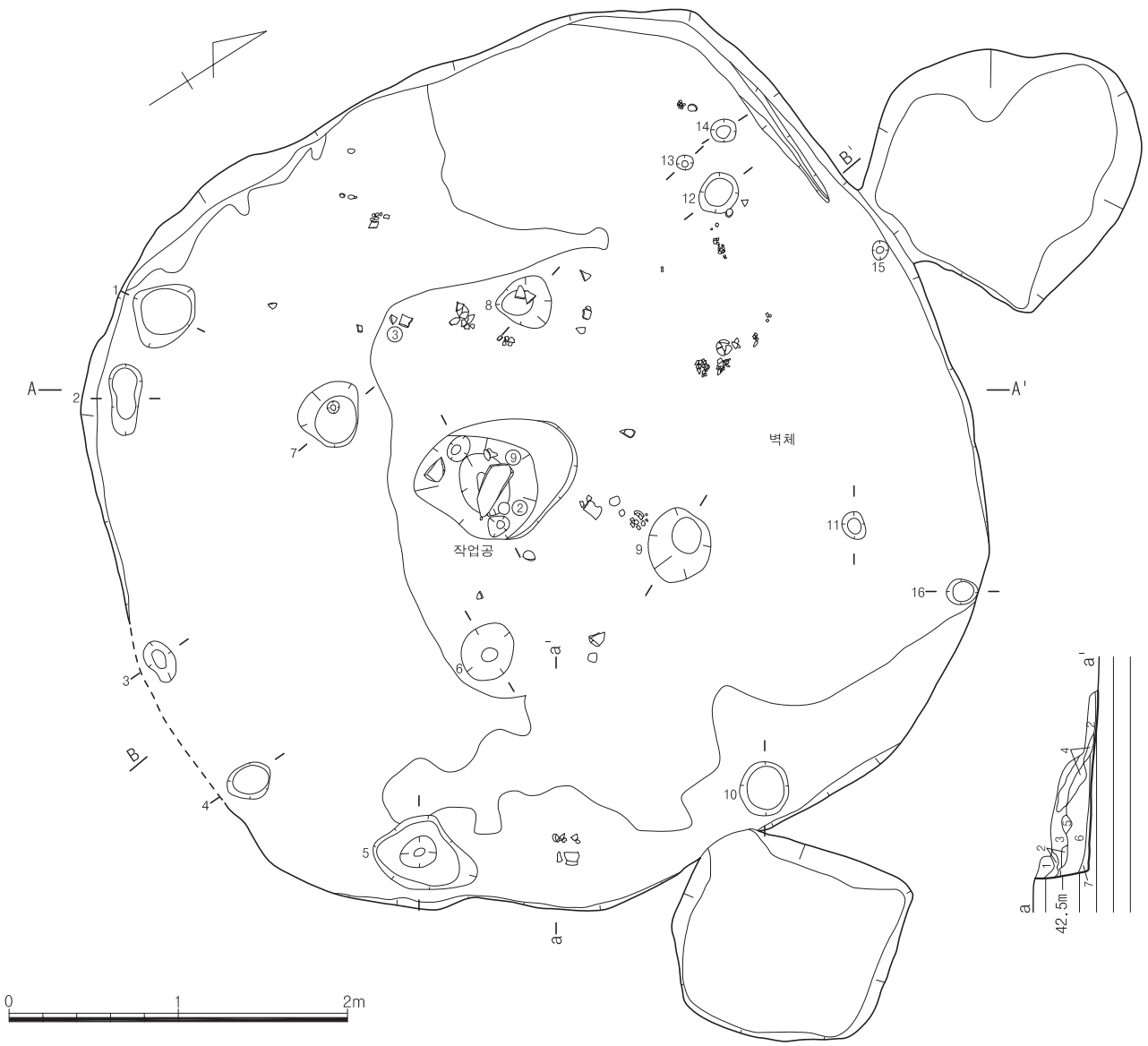
---

1) 목탄 및 탄재, 소토가 뒤엉켜 북벽 서쪽 모서리에서 중앙에 이르는 범위에 넓게 출토되었는데, 북쪽 모서리는 작은 나뭇가지편으로 된 목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작은 나뭇가지편과 함께 유기물들이 탄화된 체 출토되었다. 기존 송국리형 주거지의 복원에 사용된 짚과는 다른 재질로 판단되어 유기물 및 목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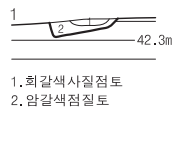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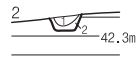


1. 갈색사질토, 탄재(목탄다량포함)
2. 갈색사질토, 탄재
3. 적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4. 암갈색사질토+회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5. 암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6. 갈색사질토
7. 회갈색사질토(목탄다량포함)
8. 갈색사질토
9. 흑갈색사질토(탄재층)
10. 갈색사질점토
11. 황갈색사질토
12. 갈색사질토
13. 암갈색사질토
14. 갈색사질토(소토소량포함)
15. 황갈색사질토(소토소량포함)
16. 적갈색사질점토
17. 황갈색사질토
18. 회갈색사질토(목탄, 소토소량포함)
19. 갈색사질점토
20. 황갈색사질점토
21. 명갈색사질토
22. 암갈색사질토
23. 회갈색사질토
24. 암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25. 갈색사질토
26. 갈색사질점토(목탄소량포함)
27. 갈색사질토
28. 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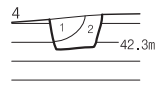
1. 회적갈색점질토(목탄포함)
2. 회갈색사질점토
3. 명갈색사질점토
4. 회갈색사질토
5. 회황갈색사질토
6. 회갈색사질점토
7. 회황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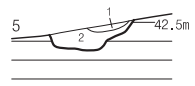
1. 회갈색사질점토
2. 암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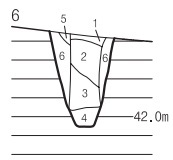
1. 회갈색사질점토
2. 암갈색점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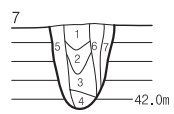
1. 갈색사질토
2. 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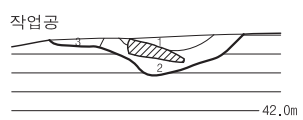
1. 회갈색사질토
2. 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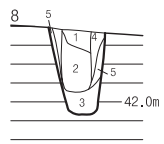
1. 황갈색사질점토
2. 갈색사질토 (목탄소량포함)
3. 회갈색사질점토
4. 회갈색점질토
5. 회황갈색사질토
6. 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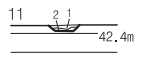
1. 갈색사질토
2. 갈색사질점토
3. 황갈색점질토
4. 회갈색점질토
5. 갈색사질점토
6. 회갈색사질토
7. 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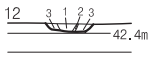
1. 회황갈색사질토
2. 회갈색점토(목탄미량포함)
3. 황갈색점토(목탄미량포함)



1. 암갈색사질토
2. 갈색사질점토
3. 회갈색점질토
4. 회갈색사질토
5. 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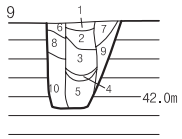
1. 회황갈색사질점토
2. 암갈색점질토



1. 갈색사질토
2. 암갈색사질토
3. 갈색사질토

1. 진갈색사질토
2. 황갈색사질토

1. 암갈색사질토
2. 갈색사질토



1. 흑갈색사질토 (목탄소량포함)
2. 황갈색사질점토
3. 갈색사질점토
4. 흑갈색점질토
5. 갈색점질토
6. 회황갈색사질토
7. 갈색사질토
8. 암갈색사질토
9. 회황갈색사질점토
10. 황갈색사질점토

도면 161. 3지점 청동기 2호 주거지 유구

(2) 유물

① 단도마연토기발(도면 162-1, 사진 237-③)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은 석영과 장석, 가는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이다.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고 10.9㎝, 복원구경 11.8㎝

② 무문토기 저부(도면 162-2, 사진 237-⑥)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였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암적갈색이다. 기면 박리가 심한 편이다. 현고 3.4㎝, 저경 7.0㎝

③ 무문토기 저부(도면 162-3, 사진 237-⑧)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석영과 장석, 운모가 다량 섞인 태토이며, 색조는 암적갈색을 띤다. 내외면의 기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동체내면에 도구로 정면한 자국이 남아있다. 현고 8.7㎝, 복원저경 9.7㎝

④ 무문토기 저부(도면 162-4, 사진 237-⑤)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였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은 회갈색을 띤다. 굽외면에 지두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현고 3.6㎝, 저경 6.4㎝

⑤ 무문토기 저부(도면 162-5, 사진 237-④)

굽부분과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는데 기면이 박리된 부분에는 사립이 돌출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갈색을 띤다. 바닥내면에는 유기물의 흔적이 검게 나타나며 동체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현고 6.3㎝, 저경 7.3㎝

⑥ 무문토기 저부(도면 162-6, 사진 237-⑦)

저부의 1/2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였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황갈색이나 일부는 흑갈색을 띤다. 동체와 저부의 경계에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4.4㎝, 복원저경 10.4㎝

⑦~⑨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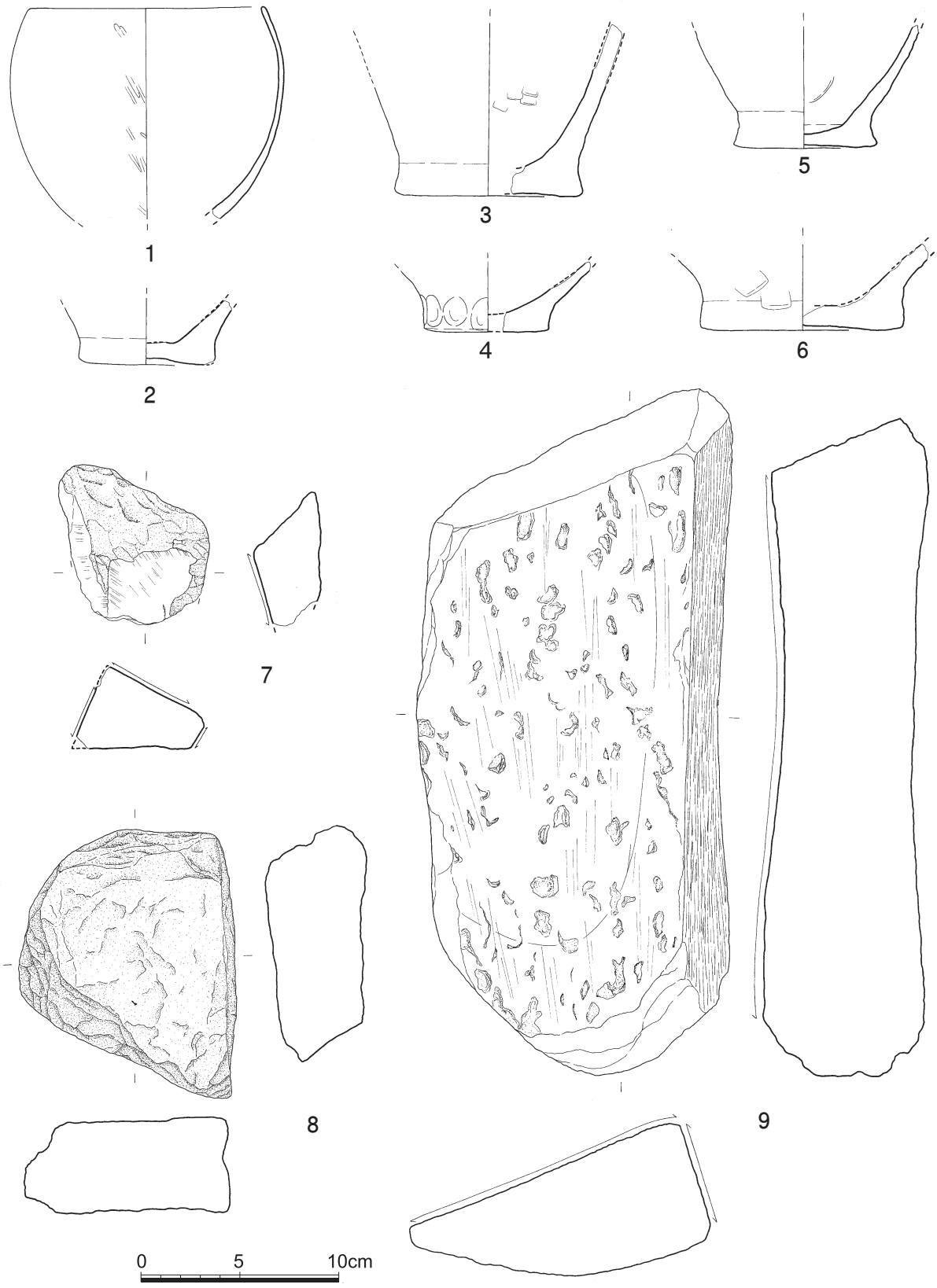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⑦	162-7	237-⑨	지석	7.7	7.1	4.2	200	유문암 , 3면이 마연되었음
⑧	162-8	237-⑩	갈돌	13.7	11.2	4.4~4.9	1,015	흑운모편암, 갈린 흔적과 쪼은 흔적 있음
⑨	162-9	237-⑪	갈판	35.4	15.4	6.6~8.2	5,900	흑운모편암, 장방형, 갈린 흔적과 쪼은 흔적 있음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3, 사진 238~240)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평평한 동사면에 위치하며 서남쪽 1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서남쪽 21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3.17m이다.

유구는 표토에서 무문토기편이 노출되어 주변을 확장한 후 윤곽선을 확인하였다. 적갈색 사질토인 암반풍



도면 162. 3지점 청동기 2호 주거지 출토유물

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남서쪽 200㎝는 유실되었다. 층위는 바닥만 남은 상태로 적갈색 사질토 단일층이다. 바닥은 부분적으로 적갈색 사질점토로 다짐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1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잔존규모는 395×360㎝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0개, 작업공 1개, 벽구, 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중앙에 중심주공 2개, 북벽에 1개, 남쪽에 6개, 북쪽 어깨선에서 30㎝ 떨어져 소주공 1개가 확인되었다. 주주공은 주거지 중앙에 남-북으로 120㎝정도 이격되어 배치되었다. 남벽에 배치된 소주공1·7·8은 경사를 이루며 높아지는 곳에 단을 이루며 그 위에 조성되었으며 60㎝정도 떨어져 있어 출입구로 보인다. 그 외에 소주공2·3·4도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출입시설을 재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작업공은 중앙 중심주공 사이에 위치하고, 단면은 'L'자형을 이루며 규모는 40×10㎝로 시설되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벽구는 잔존 상태로 보아 벽 전면에 시설한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폭 15㎝, 깊이 10㎝로 시설되었다. 벽구는 남쪽 출입구 동쪽으로 배수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 배수로는 남쪽 출입시설 동쪽으로 연결되어 남쪽 사면으로 빠지는 양상이며 규모는 폭 30㎝, 깊이 10㎝로 시설되었다.

유물은 배수로와 출입시설 쪽에서 발형토기 구연부편, 호형토기 구연부편, 호형토기 저부, 저부투공토기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구연부편(도면 163-1, 사진 240-⑤)

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장석과 석영,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내면은 암갈색을 띤다. 기외면은 박리된 부분이 많다. 현고 4.9㎝, 복원구경 20.2㎝

② 구연부편(도면 163-2, 사진 240-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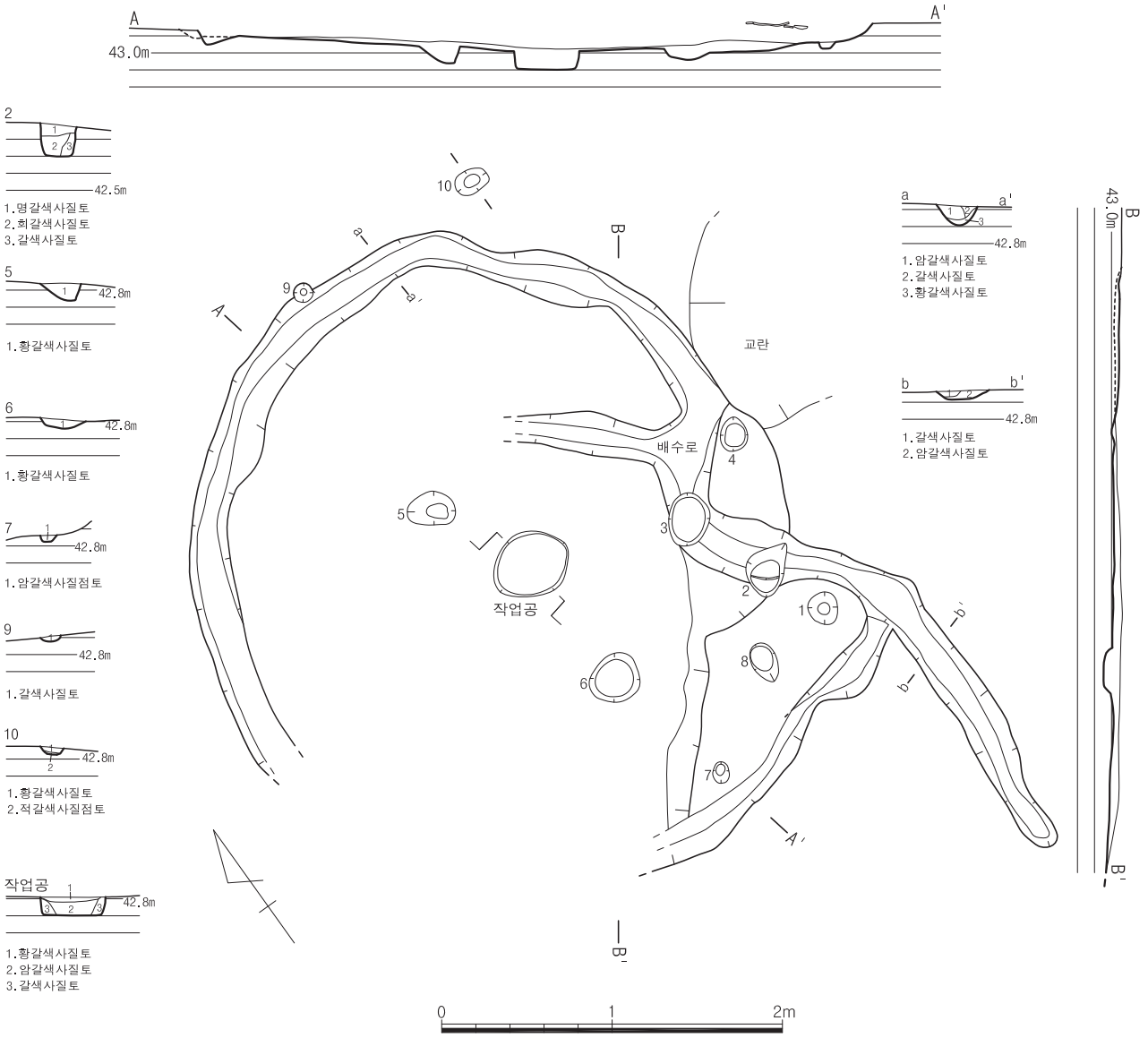
호형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구경부에는 점토를 따로 덧붙여 제작한 흔적이 뚜렷하다. 현길이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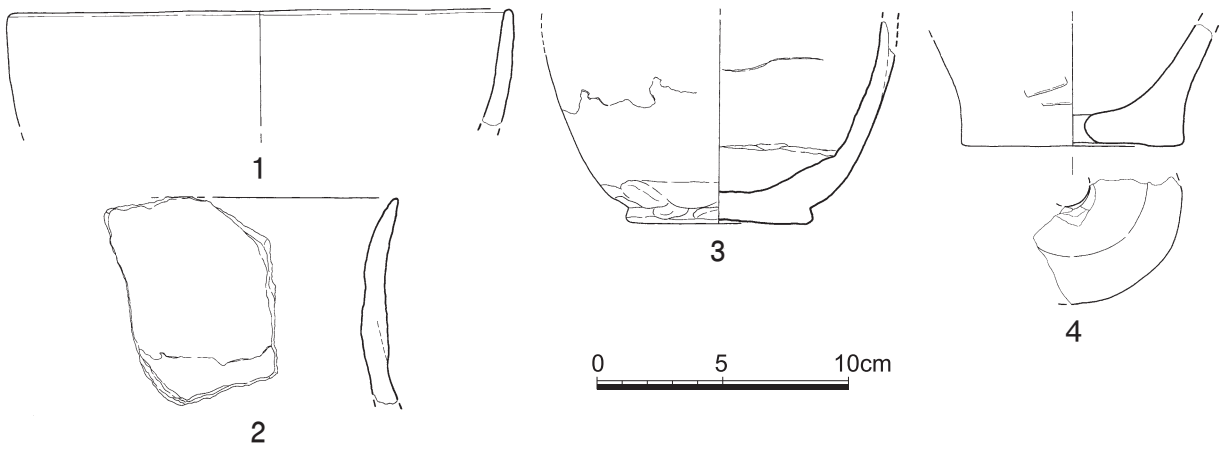
③ 무문토기 저부(도면 163-3, 사진 240-⑥)

호형토기의 저부로 추정되는데 굽부분은 온전하며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 운모 등이 섞여있으며, 전반적인 색조는 황갈색이나 외저면은 암갈색을 띤다. 동체외면에는 점토를 따로 덧붙여 성형한 흔적이 뚜렷이 있다. 저부와 동체 접합 후 경계면 내외면을 도구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고 8.3㎝, 저경 7.5㎝

④ 저부투공토기(도면 163-4, 사진 240-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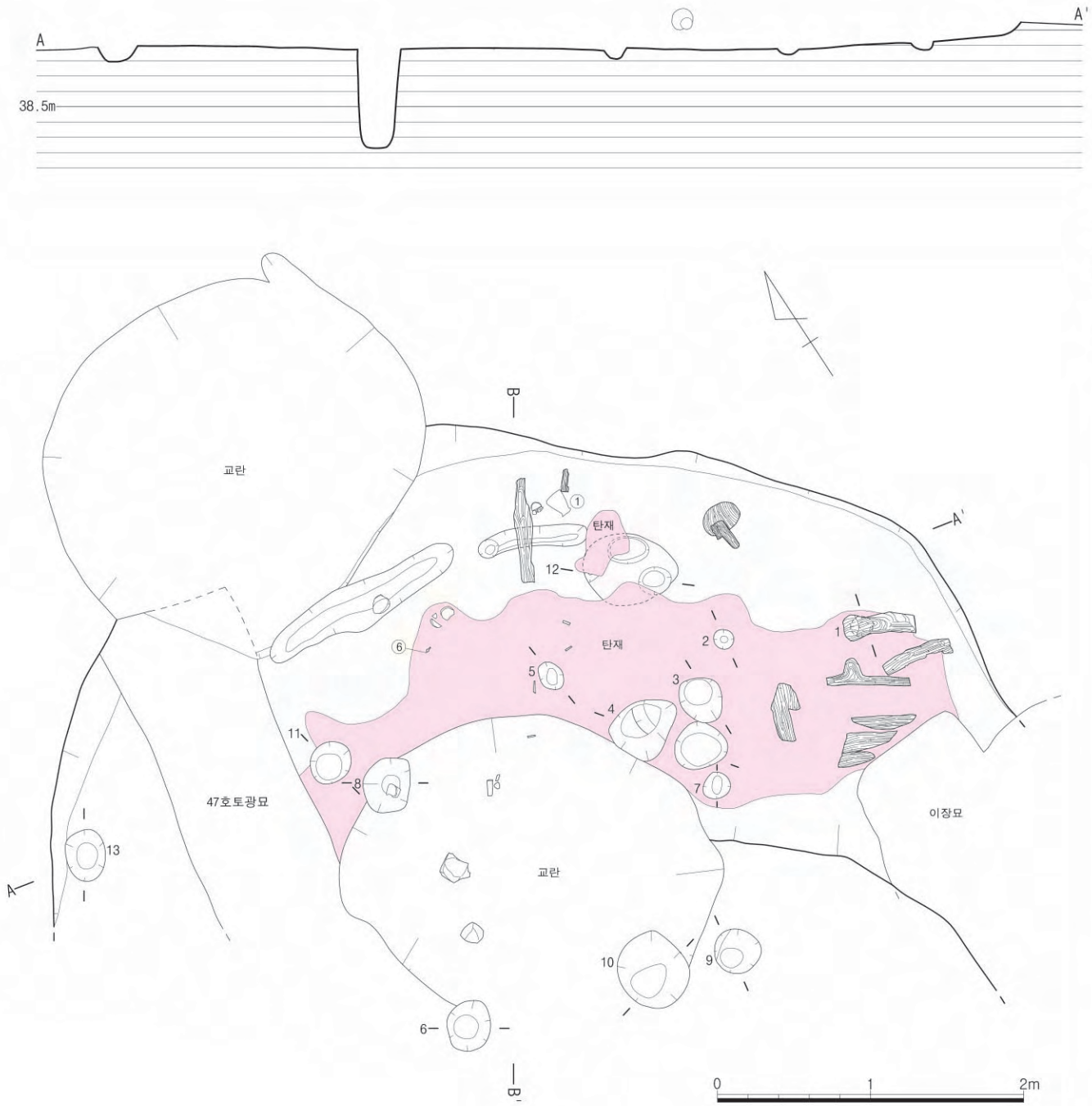
무문토기 저부만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 장석, 석영과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갈색을 띠며 내면은 황갈색을 띤다. 바닥 중앙에는 투공된 원형의 구멍 일부가 남아있다. 바닥은 약간의 굽이 있는 평저이다. 바닥과 동체의 경계면에 도구조정흔이 남아있다. 현고 4.9㎝, 복원저경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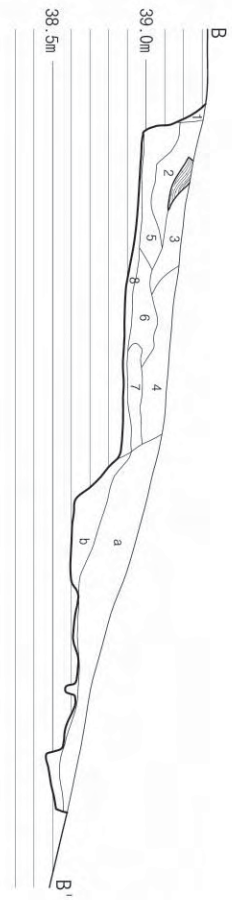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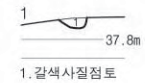
도면 163. 3지점 청동기 3호 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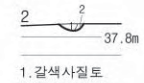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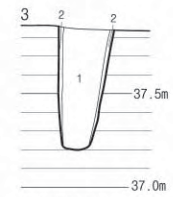
1.명갈색사질점토
2.명갈색사질토(목탄소량포함)
3.암갈색사질토
4.갈색점질토
5.암적갈색사질토(목탄다량포함)
6.갈색사질토(목탄,소토소량포함)
7.회갈색사질토(목탄다량포함)
8.적갈색점질토(바닥다짐토)
a.흑갈색사질토
b.회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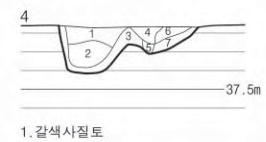
1.갈색사질점토



1.갈색사질토
2.황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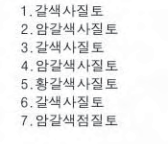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토
(목탄소량포함)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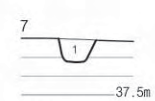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토
5.황갈색사질토
6.갈색사질토
7.암갈색점질토

1.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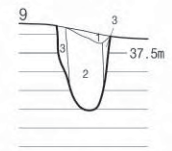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토
(목탄소량포함)
2.명갈색사질토
3.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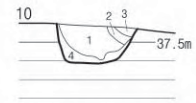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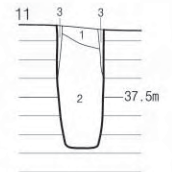
1.명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적갈색사질토
4.회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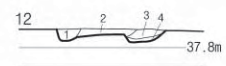
1.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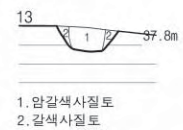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토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3.진갈색사질점토



1.암갈색사질토
2.황갈색사질토
3.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토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도면 164. 3지점 청동기 4호 주거지 유구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4, 사진 241~243)

4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주거지 중앙에서 서벽에 치우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와 중복,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서쪽에 잇대어 조선시대 4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37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사질토인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과 식재구덩이에 의해 북서벽과 중앙 작업공이 유실되었다. 동벽은 이장묘, 남쪽은 토광묘의 조성으로 주공 아래쪽이 훼손되어 모두 파괴되었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점토-암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은 적갈색 점토로 다짐하였다. 목탄과 소토는 4개 층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그 중 암적갈색 사질토와 회갈색 사질토에서는 목재가 쓰러진 방향을 유지한 채 출토되었다. 출토 양상으로 볼 때, 쓰러진 방향이 중앙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벽체에 사용된 목재가 화재로 인하여 중앙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2호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로 모서리가 말각된 형태이나 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잔존규모는 603×270×40㎝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3개가 확인되었는데, 중앙 식재구덩이 외곽으로 중심주공 4개와 보조기둥 2개, 그 외 중심주공 주변의 것들은 기둥을 약간씩 옮겼던 것으로 보이며, 소주공들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내부토에서 숯들이 일부 확인되며 주공1은 바닥층에 시설하였는데, 통나무기둥이 그대로 탄화되어 출토되었다.

유물은 4주공 내 작업공이 위치했던 부분에서 석부 2점, 유경식 석촉 1점, 주공1에 잇대어 무문토기발(완형), 그 외 주거지 내부에서 무문토기발, 무문토기 저부 및 편들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무문토기발(도면 165-1, 사진 244-②)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기형복원은 가능하다. 태토에는 장석과 석영, 운모 등 사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5/6)을 띠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은 암갈색을 띤다. 기외면의 박리가 심한 편으로 동체와 저부의 경계면에 지두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고 7.0㎝, 구경 9.7㎝, 저경 6.7㎝

② 무문토기발(도면 165-2, 사진 244-①)

구연 일부가 결실되긴 했지만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와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5/6)이나 구연에서 저부에 걸쳐 내외면으로 흑반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동체와 저부의 접합부 외면에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있으며, 동체내면에도 목리흔과 도구조정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고 15.2㎝, 구경 13.8~14.8㎝, 저경 8.1㎝

③ 무문토기 저부(도면 165-3, 사진 244-④)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 운모가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5YR4/6)을 띤다. 바닥은 두툼한 평저이다. 현고 3.7㎝, 저경 7.5㎝

④ 무문토기 저부(도면 165-4, 사진 244-⑤)

저부만 1/2 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가는 석영, 운모, 장석 등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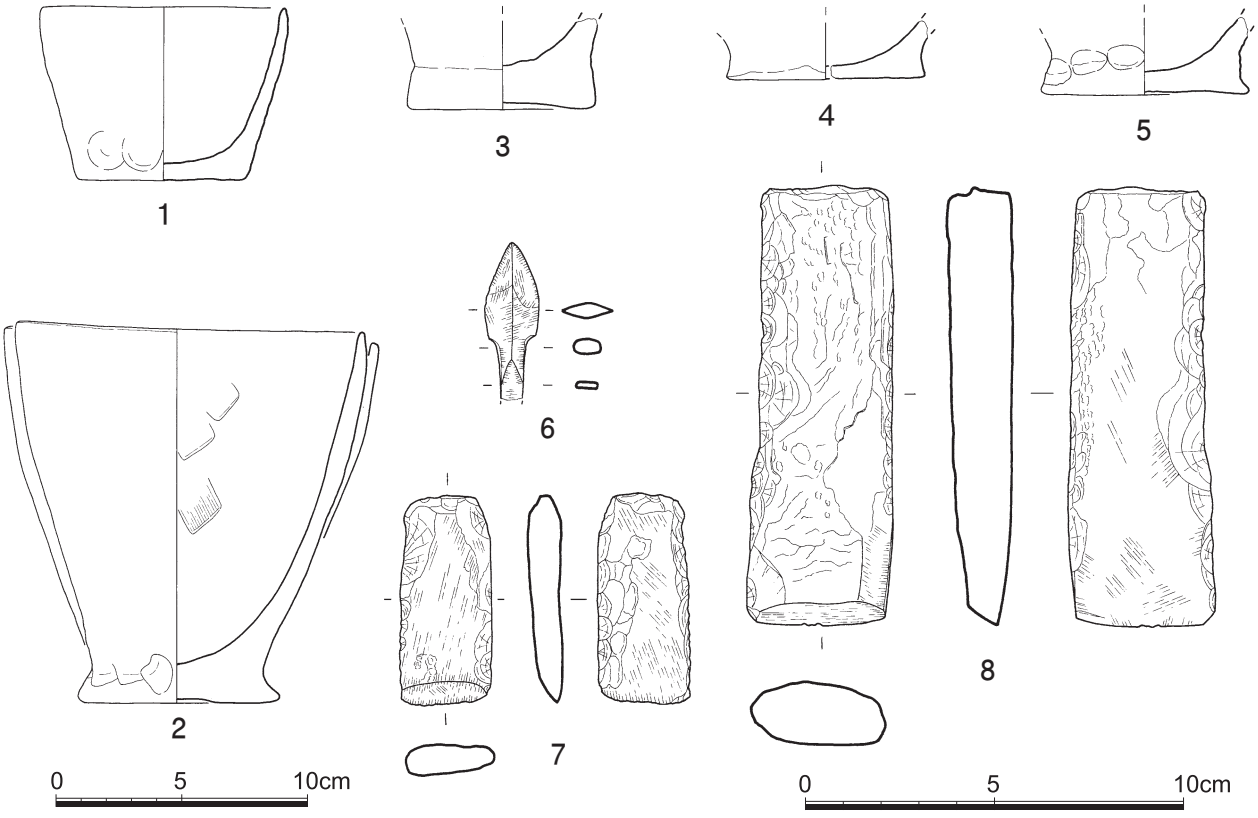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5/6)이며 바닥내외면으로 흑반이 있다. 현고 2.3㎝, 복원저경 7.8㎝

⑤ 무문토기 저부(도면 165-5, 사진 244-③)

저부만 온전하다. 태토에는 석영과 장석, 운모 등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황갈색(10YR5/4)에 가깝다. 동체와 저부의 접합부 외면에 지두흔이 있다. 현고 3.1㎝, 저경 8.4㎝

⑥~⑧ 석기류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유물명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⑥	165-6	244-⑥	석촉	(4.2)	1.5	0.4	2	이단경식 석촉으로 말단부가 결실됨, 암질은 이암제, 신부단면은 菱形, 1단경부단면은 육각형, 이단경부 단면은 장방형
⑦	165-7	244-⑧	편인석부	5.5	2.4	0.8	21	완형, 평면형태는 장방형, 段部의 한쪽면을 가공해서 짧고 뾰족한 片刃部 형성함, 인부 전·후면은 집중적으로 마연됨, 암질은 편마암
⑧	165-8	244-⑦	편인석부	11.6	3.8	1.7	143	완형,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段部의 한쪽면을 가공해서 짧고 뾰족한 片刃部 형성함, 인부 전·후면은 집중적으로 마연됨, 암질은 규질편마암



도면 165. 3지점 청동기 4호 주거지 출토유물

B. 고려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6·167, 사진 245~247)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평평한 서사면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고려시대 주공군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 23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3.17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사질토인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자연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남쪽은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북벽과 동벽은 어깨선이 불명확하다.

층위는 동-서 장축에서 확인된 층위에서 서쪽 저장공이 나중에 시설되면서 퇴적양상이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된다. 서쪽 저장공 주변은 1~10층으로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먼저 폐기전 동쪽 구들유구 쪽은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서쪽 방향으로 퇴적되었다. 퇴적양상으로 볼 때 아궁이와 배연시설이 갖춰진 시설을 사용하다가 폐기한 후 그 위에 구들을 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어깨선이 불명확하나 방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15°-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잔존규모는 447×421×20㎝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7개, 저장공 3개, 아궁이 1개, 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주공은 주공2와 6이 동서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벽을 따라 북벽에서 동벽쪽으로 주1, 주4·5, 주6, 주7이 벽면에 잇대어 배치되어 있다. 주공2의 토층은 중심에 두께 15㎝정도의 통나무를 세우고 양쪽을 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다져서 채워 기둥을 지지하였다.

저장공은 주거지 서북쪽에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저장공1은 90×80×30㎝의 수혈을 판 후 판석 1매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토기를 놓았다. 저장공2는 90×80×40㎝의 수혈을 판 후 중앙에 밑이 트인 와통을 설치하고 그 바깥 공간을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 단단하게 메꾸었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차여 있었다. 상부에는 기와를 이용하여 뚜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장공3은 60×55×28㎝로 포탄형의 수혈을 판 후 바닥에서 10㎝위에 판석을 놓았다. 그 위에 기와편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상부를 덮던 기와가 내부로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아궁이는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하는데 규모 175×160×30㎝로 화구부와 연도, 배연시설이 동벽을 따라 연결되어 북동모서리쪽으로 시설되었다. 잔존 형태로 보아 3열의 고래시설로 판단되나 상부가 훼손되어 구들의 흔적은 알 수 없다. 구들은 하부 아궁이를 대웅 및 토기, 청자접시, 청자완 등의 생활용기들을 파손하여 매몰한 후 그 위에 할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시설하였다. 폐기 시 고래열이 대부분 훼손되었는데, 잔존상태로 보아 폭 20~30㎝의 3열 고래를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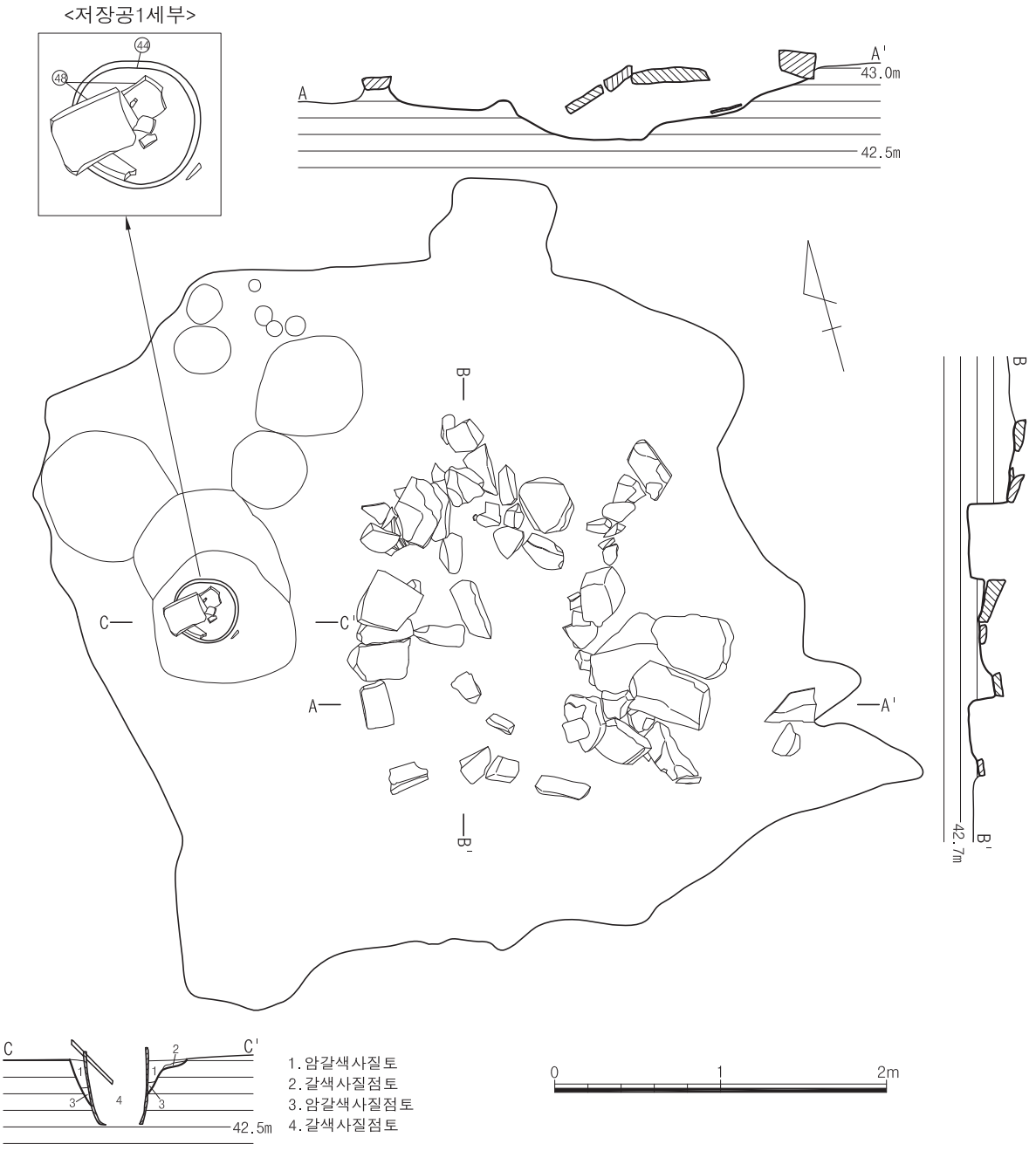
유물은 저장공1 내부에서 도기호 구연부, 고려백자접시, 청자저부, 저장공2 내부에서 와통, 수키와, 암키와, 저장공3 내부에서 암키와, 수키와, 철정, 아궁이 주변에서 대형 호 및 도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었고, 주거

지 내부토와 바닥에서 청자접시, 청자대접, 청자유병, 시루, 도기류, 지석, 청동숟가락, 청동곳, 불명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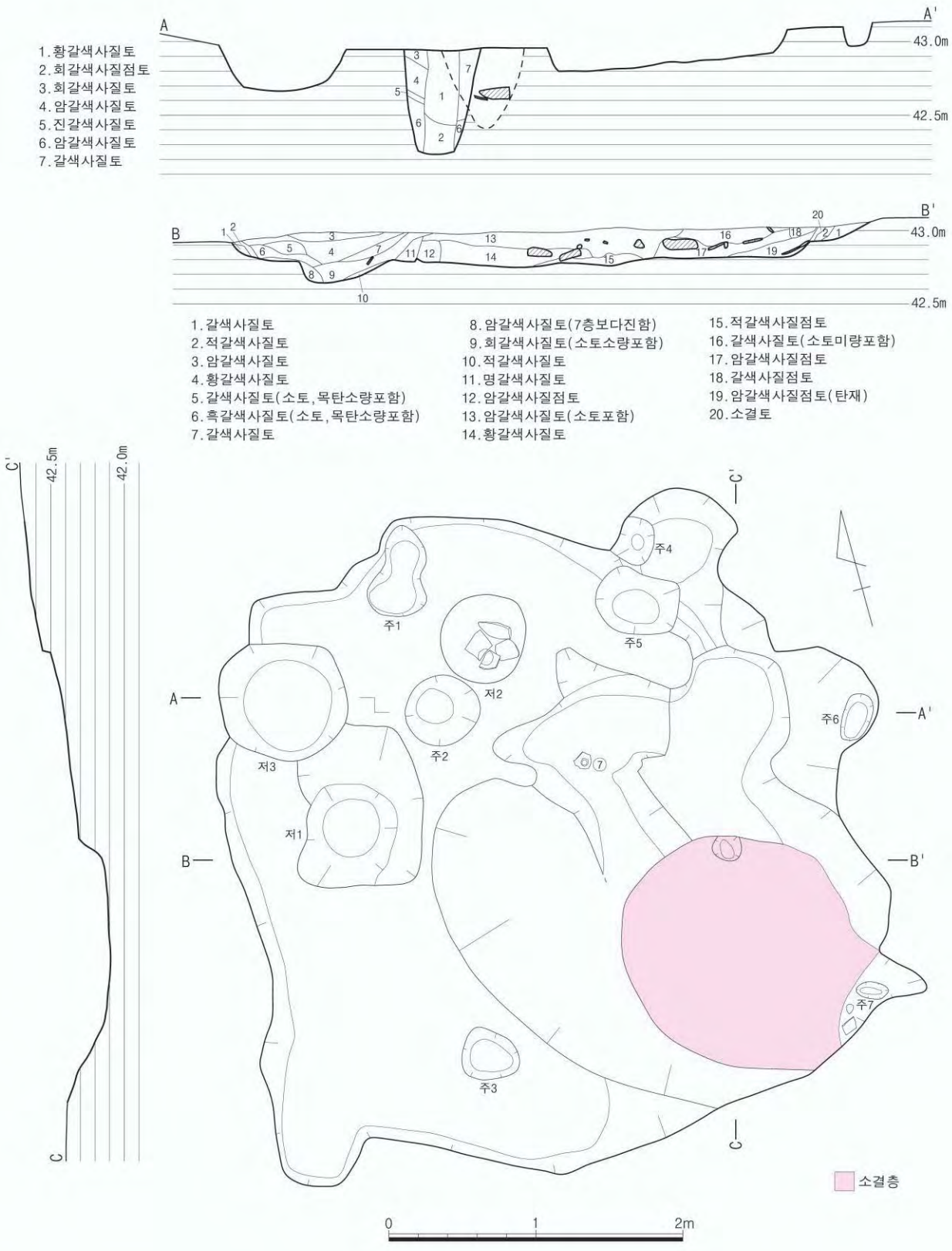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자접시(도면 168-1, 사진 24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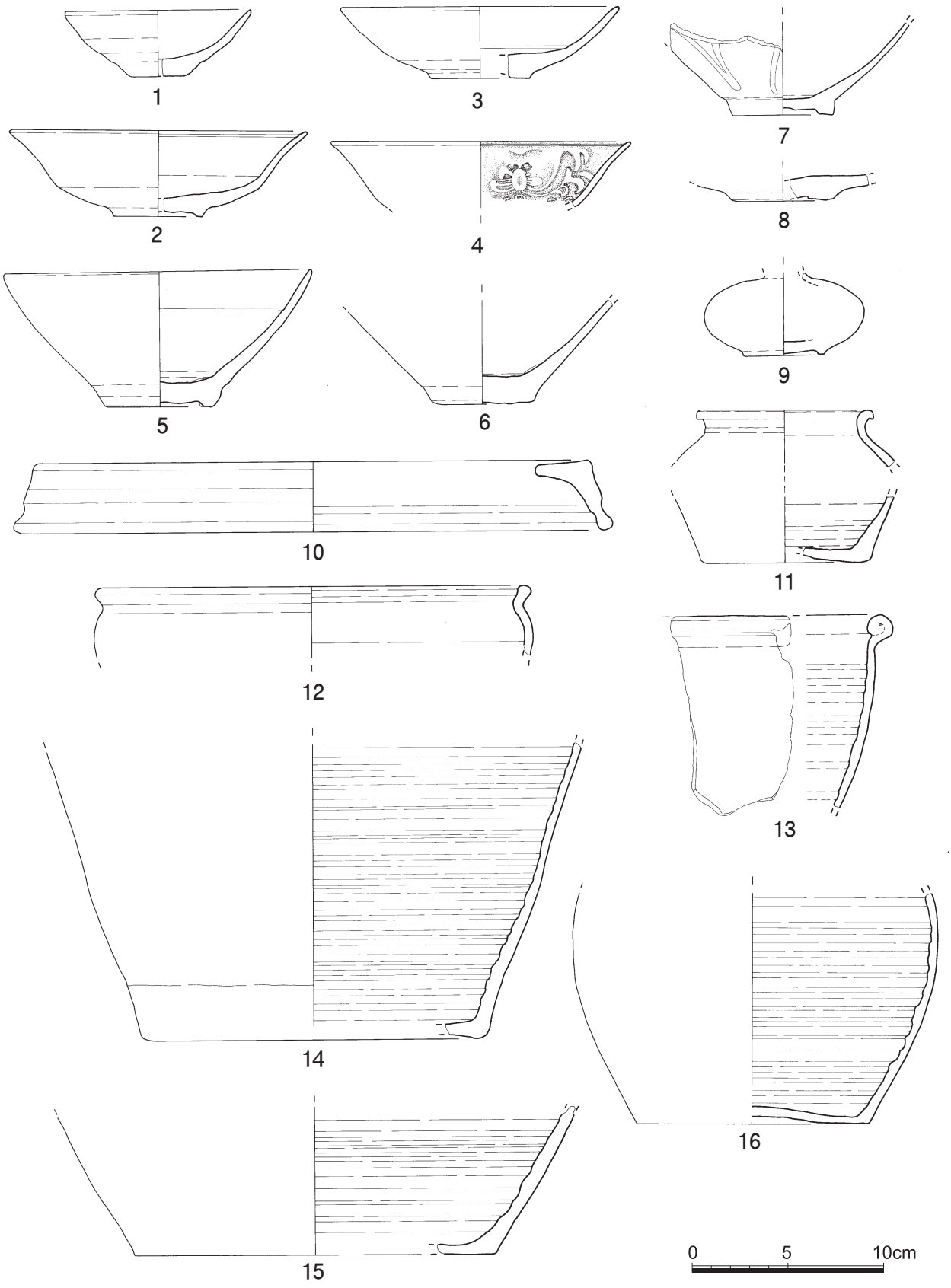
전체 기형의 약 1/2가량이 남아있다. 구연과 기벽이 가파른 사선을 이루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도면 166.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유구(1차)



도면 167.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유구(2차)



도면 168.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이룬다. 굽은 평저로 깎음새가 거친 편이다. 유색은 진녹색이나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는 부분이 많고 유층이 박락된 부분도 보인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고 3.7㎝, 복원구경 9.8㎝, 복원저경 4.0㎝

② 청자접시(도면 168-2, 사진 248-③)

전체 기형의 1/2가량이 남아있다. 기벽은 동체하단에서 한번 꺾여 직사선으로 벌어진다.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는데 전체적인 깎음새는 단정치 못하다. 광택이 있는 녹색의 유약을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는 고르지 못한 편으로 유약이 흘러내려 뭉쳐있다. 또한 안바닥 일부는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며 유약이 박락된 부분도 보인다. 기면에 잡티가 많아 다소 지저분하다. 고 4.5㎝, 복원구경 15.9㎝, 복원저경 4.8㎝

③ 청자접시(도면 168-3, 사진 248-②)

전체 기형의 1/3가량이 남아있다. 구연과 기벽이 넓게 벌어진 사선을 이룬다. 안바닥에 지름 약 9.4㎝의 원각선을 돌렸다. 태토와 기면에는 기포가 많은 편이며 유색은 녹갈색으로 얇게 시유되었고 광택은 적은 편이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를 받쳤다. 고 3.9㎝, 복원구경 14.8㎝, 복원저경 5.3㎝

④ 청자접시(도면 175-1, 사진 252-③)

저장공4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꺾여 내려와 바닥으로 이어진다. 굽은 평저에 가까운 낮은 굽으로 굽 가운데부분은 오목하게 깎아냈다. 태토에 잡물이 보이며 담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한 편이고, 산화로 인해 황갈색을 띤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3.2㎝, 복원구경 11.5㎝, 복원저경 4.6㎝

⑤ 청자접시 구연부편(도면 168-4, 사진 248-④)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내벽에는 구연아래에 한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연당초문을 압인 양각하였다. 연녹색의 유약을 얇게 시유하였으나 발색이 좋지 못하며 기면에는 가는 빙렬이 있다. 현고 3.5㎝, 복원구경 15.2㎝

⑥ 고려백자접시(도면 175-2, 사진 252-②)

저장공1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의 구연 바로 아래와 내저면에 침선을 돌렸다. 태토에는 잡물과 기공이 많이 보이며, 유색도 연녹색으로 얇게 시유되었는데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고 용융상태도 불량한 편이다. 기면에 잡티와 빙렬이 많아 다소 지저분하다. 현고 3.8㎝, 복원구경 17.0㎝

⑦ 청자대접(도면 168-5, 사진 248-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은 약하게 내만하고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이룬다. 굽은 내경하며, 굽안쪽을 얕게 돌려 깎아내 낮은 굽을 만들었다. 안바닥 가장자리에 지름 약 5.4㎝의 원각이 있는데 원각 안쪽을 평평하게 다듬어냈으며, 구연아래 내벽에는 음각선을 한줄 돌렸다. 유색은 광택이 있는 연한 녹갈색으로 전면에 얇게 시유되었으나 일부에 유약이 뭉쳐있다. 태토에는 잡물과 기포가 보인다.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아낸 후 백색내화토를 받쳤으며 안바닥에도 5곳에 백색내화토를 받쳤다. 고 7.2㎝, 복원구경 16.5㎝, 저경 5.9㎝

⑧ 청자대접 저부(도면 168-6, 사진 248-⑥)

저부만 남아있다. 기벽은 저부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굽은 평저로 바닥면을 다듬지 않아 면이 고르지 않고,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지름 약 4.5㎝의 원각이 돌려져 있는데 원각 안쪽은 평평하게 다듬었다. 태토에는 잡물과 사립이 섞였으며, 진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산화로 인해 갈색을 띤다.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현고 5.5㎝, 저경 5.6㎝

⑨ 청자대접 저부(도면 168-7, 사진 248-⑦)

청자연판문대접으로 저부만 남아있다. 굽은 단정하게 돌려깎았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지름 약 3.0㎝의 작은 원각이 있다. 외벽에는 연판문을 음각 장식하였다. 태토에는 잡티가 섞여있고, 연녹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아 적갈색의 태토가 드러나 있다. 기면에 흑반과 잡물이 많아 다소 지저분하다. 받침의 흔적은 없다. 현고 5.0㎝, 저경 5.5㎝

⑩ 청자 저부(도면 175-3, 사진 252-④)

저장공1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만 남아있다. 굽은 다소 높은 편으로 굽안쪽을 둥글게 깎아냈다. 기벽은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태토에는 사립과 잡물이 보이며, 기면은 산화로 인해 갈색을 띤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내화토를 받쳤다. 현고 5.0㎝, 저경 5.5㎝

⑪ 청자유병(도면 168-9, 사진 248-⑨)

구연부분이 결실된 청자유병이다. 굽은 낮고 단정하게 깎여져 있다. 태토는 곱고 치밀하다. 담녹색의 유약이 전면에 다소 두껍게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가 불량하며 산화로 인해 기면의 절반가량은 황갈색을 띤다. 현고 4.4㎝, 저경 4.3㎝

⑫ 도기 뚜껑(도면 168-10, 사진 249-①)

1/3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기면 박리가 심하다. 태토에는 운모립, 석영립 등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은 올리브흑색(7.5YR 3/1)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구연단부분이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며, 내면에는 물레흔이 선명하다. 고 3.7㎝, 복원구경 31.1㎝

⑬ 시루(도면 169-1, 사진 249-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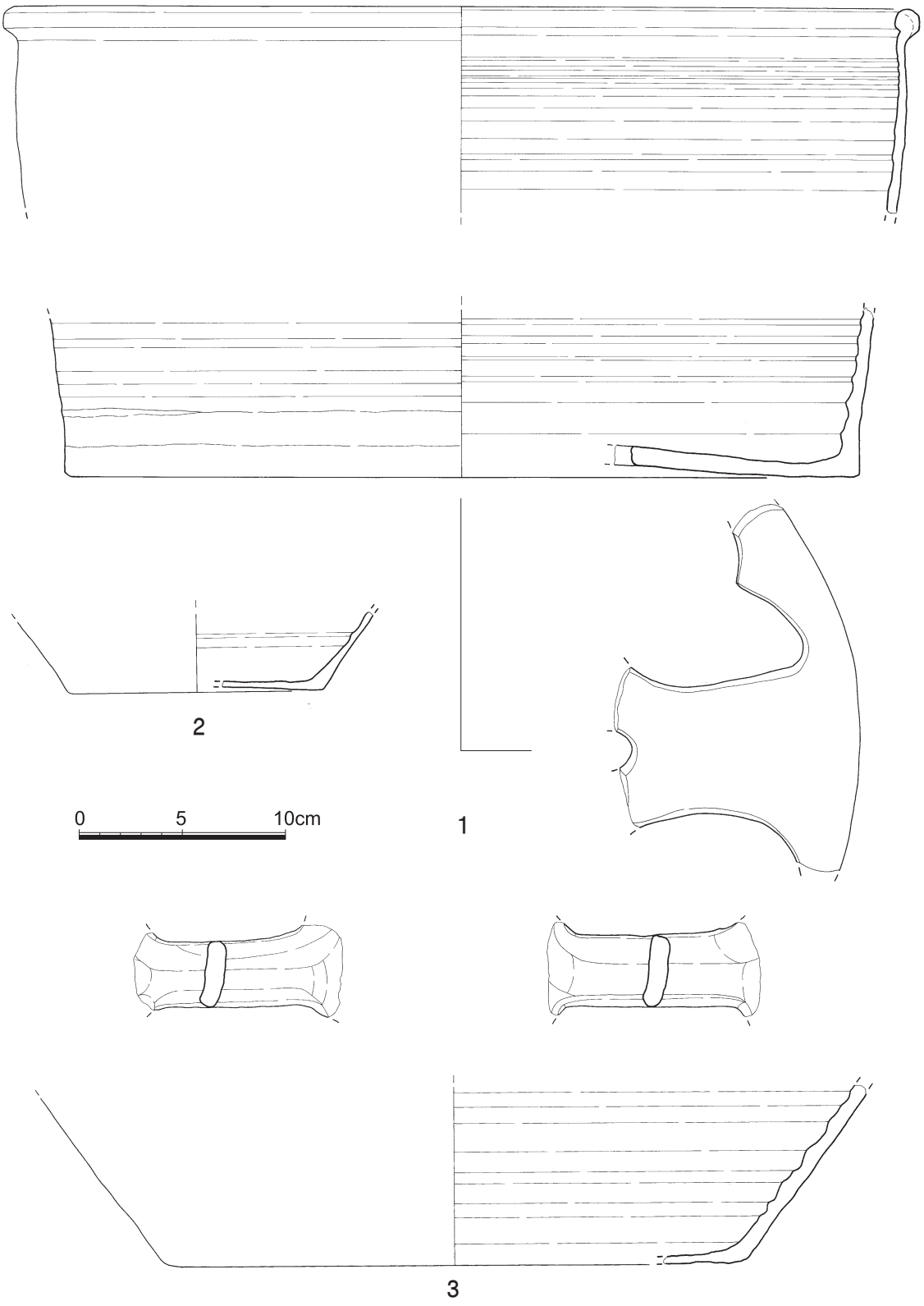
연질의 시루이며, 구연부와 저부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복원되지 않는다. 태토에는 운모립, 석영립, 장석 등 사립이 다량 섞여있어 기면이 거친 편이다. 내외면 모두 흑색(5Y 2/1)이나 기면이 박리된 부분은 황갈색을 띤다. 구연은 동그랗게 말아 붙여 단면이 원형을 이룬다. 바닥에는 중앙에 원형의 작은 구멍과 그 주위로 하트모양으로 추정되는 구멍 2개의 일부가 남아있다. 바닥에서 내면으로 투공한 것으로 보이며 투공 후 구멍주위를 깨끗이 정면하였다. 남아있는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선명하다. 구연부:현고 10.1㎝, 복원구경 44.0㎝, 저부:현고 8.6㎝, 복원저경 39.0㎝

⑭ 대호(도면 170-1, 사진 25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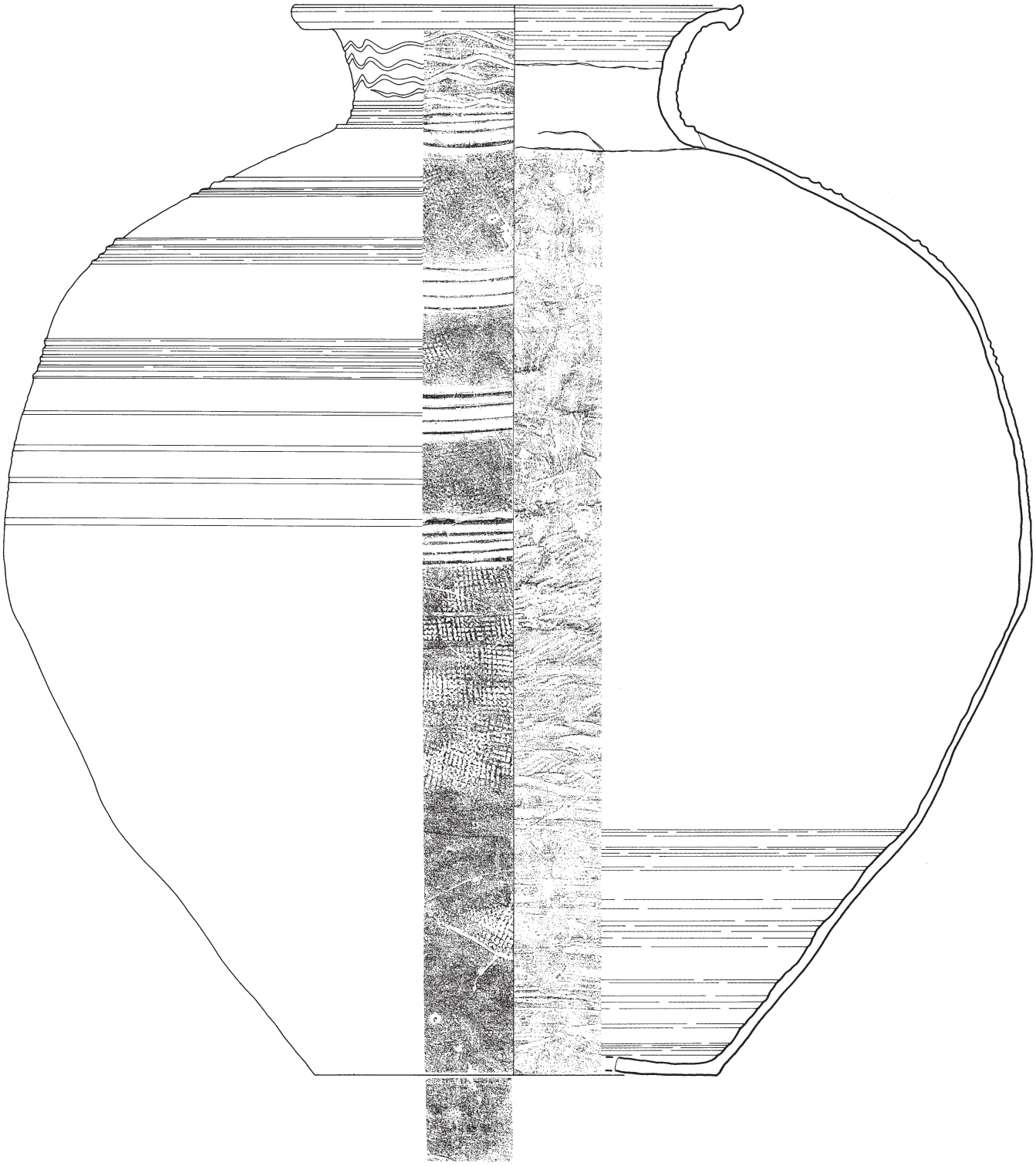
구연의 1/2가량과 동체일부, 저부바닥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높이가 70㎝가 넘는 대호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N 4/)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견부에서 동중위까지 풍만한 형태로 크기에 비해 동체부의 기벽이 얇은 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외반하며 구순외면에 2줄의 홈이 돌아간다. 경부외면에는 여러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과 동상위 각 3곳에 여러줄의 돌대를 둘렀으며 그 아래 동중위에는 침선을 일정간격으로 여러줄 시문하였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는데 중하위부분은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졌다. 동체내면은 중하위부분에는 물레흔이 있고 중상위부분은 박자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동중하위부분은 타날후 물레를 돌려 정면하였기 때문에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고 외면에는 타날이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고 70.2㎝, 구경 30.2㎝, 복원저경 28.2㎝

⑮ 대호(도면 171-1, 사진 250-②)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높이가 75㎝에 이르는 대호로 기형이 일그러졌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



도면 169.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70.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회색(N 3/)을 띠는데 구연내면과 견부는 자연유가 산화되어 거칠고 황회색을 띤다. 태토에는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바닥은 동체의 크기에 비해 작은 편으로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기벽은 바닥에서 넓게 벌어져 올라가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급격히 좁아져 경부에 이르는 배부른 형태인데 크기에 비해 기벽이 얇은 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넓게 외반하며 구순외면에는 2줄의 홈이 돌아간다. 경부외면에는 여러줄의 파상문이 자유분방하게 시문되어 있고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과 동상위 2곳에 여러줄의 돌대를 돌렸다. 그 아래 동중위에는 침선을 일정간격으로 여러줄 시문하였다. 동체외면은 격자타날하였는데 중하위부분은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졌다. 동체내면은 중하위부분에는 물레흔이 있고 중상위부분은 박자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동중하위부분은 타날후 물레를 돌려 정면하였기 때문에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고 외면에는 타날이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고 75.0㎝, 구경 33.6㎝, 저경 27.5㎝

⑯ 도기호(도면 168-11, 사진 249-⑧)

소호로 추정되며 구연과 저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6/1)을 띤다. 바닥의 가운데부분이 들려 있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현고 6.5㎝, 복원구경 9.3㎝, 복원저경 8.9㎝

⑰ 도기 구연부편(도면 168-12, 사진 249-②)

구연의 1/4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을 비롯한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흑색(10Y 2/1)을 띠며, 내면은 회색, 속심은 갈색을 띤다. 현고 3.8㎝, 복원구경 22.4㎝

⑱ 도기 구연부편(도면 168-13, 사진 249-③)

연질이며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석영립 등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모두 올리브흑색(7.5YR 3/1)을 띠며 속심은 갈색을 띤다. 구연은 안으로 말아붙여 단면이 동그랗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현길이 10.6㎝

⑲ 도기 구연부편(도면 175-4, 사진 252-⑤)

저장공1에서 출토되었다.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고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5/1)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둥글게 말아 붙였다. 현길이 3.3㎝

⑳ 도기 저부편(도면 168-8, 사진 248-⑧)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을 띠고 외면은 탁한 적갈색(5YR 5/4)을 띤다. 굽은 평저로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태토에 사립이 포함되어 있고 기포가 보인다. 현고 1.5㎝, 복원저경 5.5㎝

㉑ 도기 저부편(도면 168-16, 사진 249-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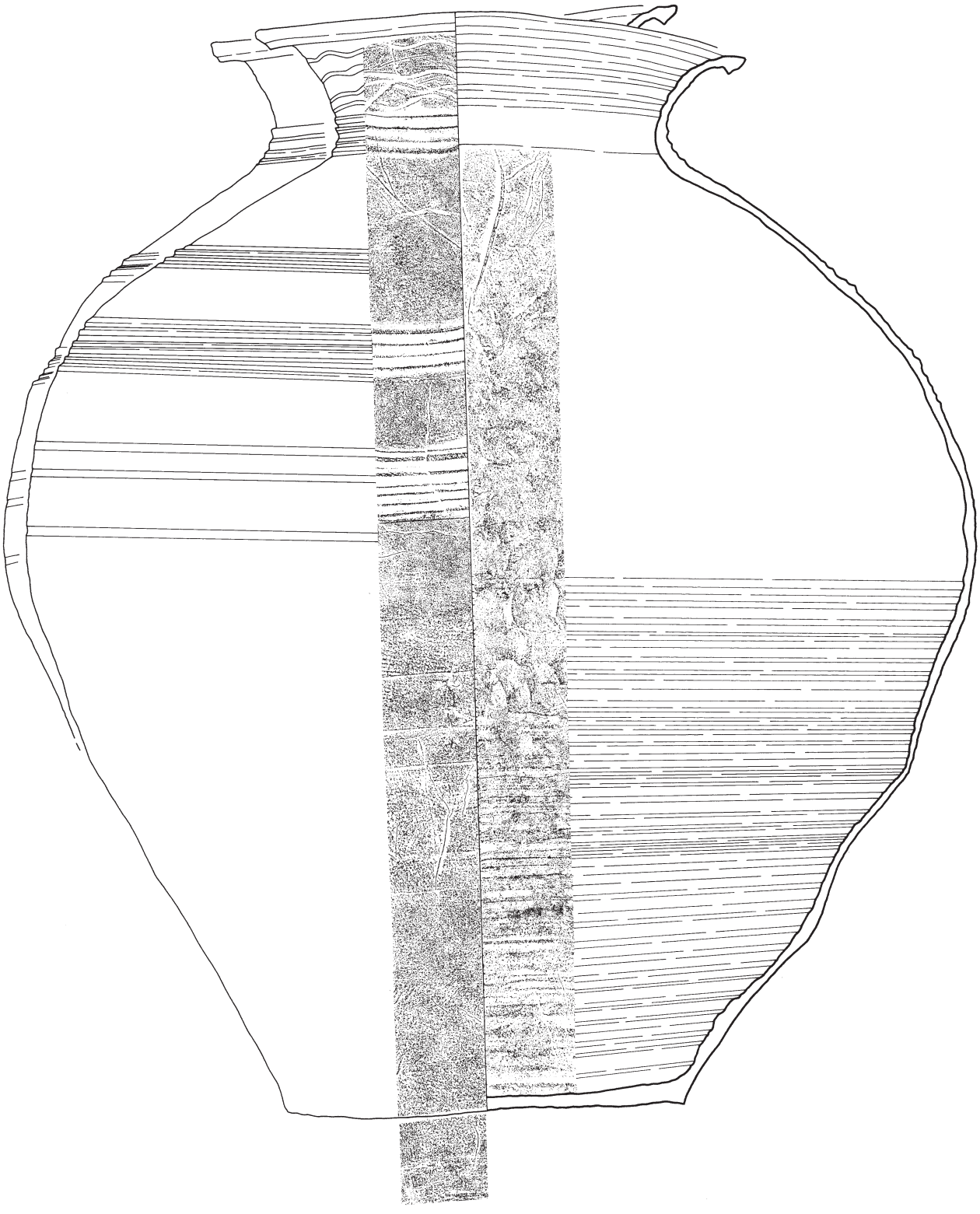
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경질이나 소성은 약한 편이다. 태토에는 운모립, 석영립 등 사립이 섞여있으며,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R 5/1)을 띤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 있으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선명하다. 현고 12.2㎝, 저경 12.4㎝

㉒ 도기 저부(도면 169-2, 사진 249-⑤)

연질의 도기 저부로 바닥은 가운데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립과 석영립, 기타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띠며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고 3.9㎝, 저경 12.5㎝

㉓ 파수부 동이(도면 169-3, 사진 249-⑭)

저부와 2개의 대상파수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점성이 강한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운모립과 석영립, 기타



도면 171.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탁한 황갈색(10YR 5/4)을 띠나 부분적으로는 명갈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이 박리된부분이 많으며 남아있는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다. 저부:고 8.7㎝, 복원저경 28.7㎝, 파수:길이 10.1~10.5㎝, 폭 3.3~3.5㎝, 두께 1.0㎝

㉔ 도기 저부편(도면 168-14, 사진 249-⑨)

저부의 가장자리와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N 2/), 내면과 속심은 암적갈색(5YR 3/3)을 띤다. 내면에 물레흔적이 선명하다. 현고 15.6㎝, 복원저경 18.2㎝

㉕ 도기 저부편(도면 168-15, 사진 249-⑥)

연질의 도기 저부편이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기면은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 4/1)을 띤다. 기벽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내면에 물레흔이 선명하다. 현고 7.8㎝, 복원저경 19.0㎝

㉖ 도기 저부(도면 175-5, 사진 253-①)

저장공1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만 남아있다. 내외면은 암회색(N3/), 속심은 암자색을 띠는 경질로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석영립, 장석이 포함되어 있다. 기포로 인해 바닥면은 고르지 못하다. 현고 4.1㎝, 저경 22.7㎝

㉗ 와통(도면 175-6, 사진 252-①)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기와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와통으로 완형이다. 소성은 양호하다. 내면에 포목흔이 있으며, 4군데에 기와분할계선이 뚜렷하고 하단부로 치우쳐서 윤철흔이 남아있다. 기와제작기법으로 성형 후 도치하여 끝부분에 점토를 덧대 단면 'L'자 형태로 만들었다. 덧댄부분은 두께가 얇으며 손으로 눌러 다진 흔적과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기외면의 색조는 전반적으로 갈색(7.5YR 4/4)이나 부분적으로는 흑갈색을 띠고 외면 하단부와 내면은 회황갈색을 띤다. 고 36.0㎝, 구경 38.8㎝, 저경 30.5㎝

㉘ 수키와(도면 172-1, 사진 251-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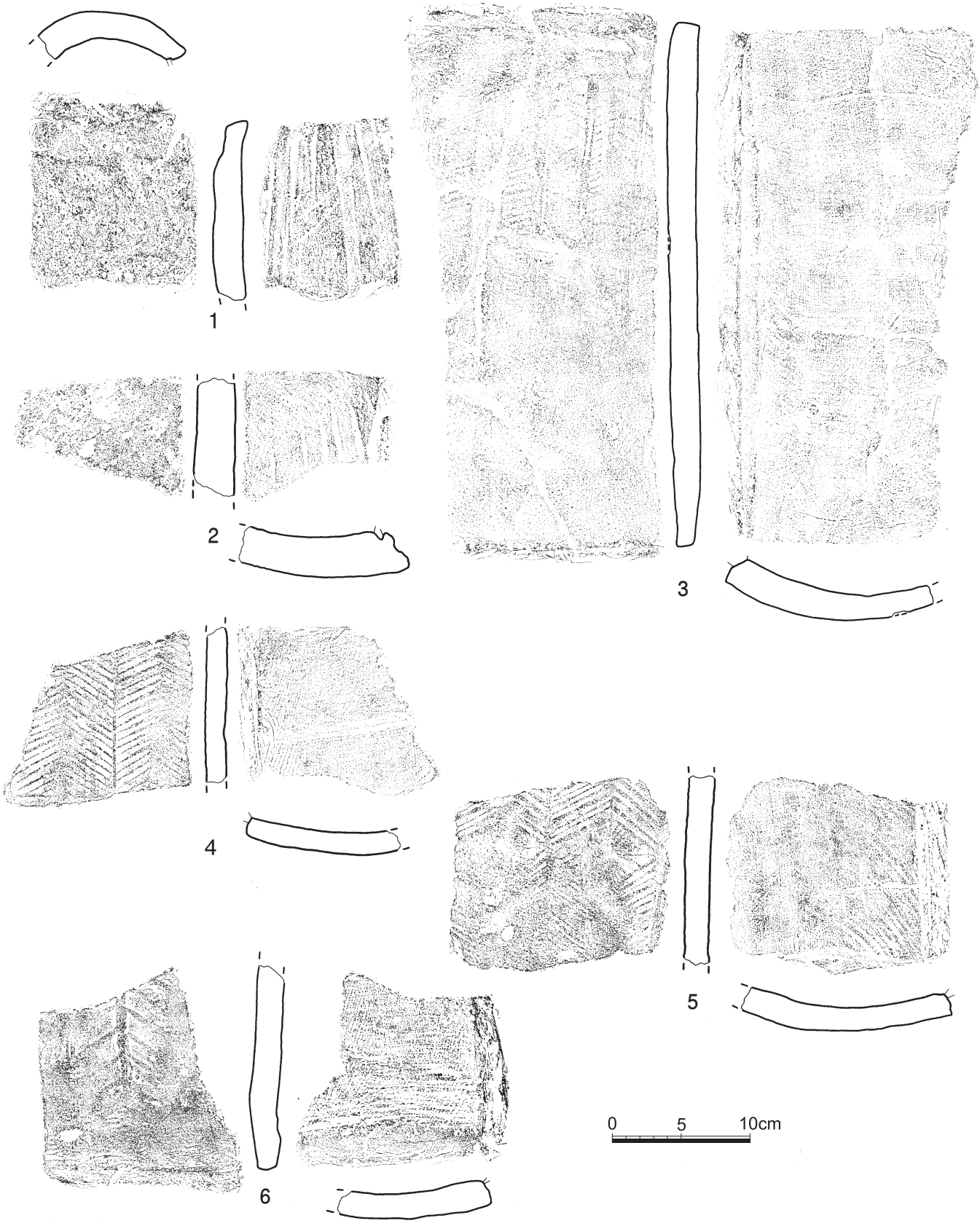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포함된 회백색 연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은 박락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며 배면에는 포목흔이 극히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올수는 알 수 없다. 종방향으로 포목겹침흔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선방향으로 일부 빗질흔도 관찰된다. 측면에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 2㎜가량으로 얕게 와도를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12.8㎝, 현최대폭 10.7㎝, 두께 2.2㎝

㉙ 수키와(도면 176-1, 사진 253-④)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 점토이며 세석립이 상당부분 포함된 회황색 경질 수키와 편이다. 등면은 표면이 박락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언강부분도 일부 결실되었다. 내면에는 포목겹침흔이 좌우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목흔은 극히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올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비교적 성긴 편이다. 측면은 결실되고 마모되어 와도흔이 뚜렷하지 않다. 현최대길이 16.5㎝, 현최대폭 11.5㎝, 두께 2.0㎝

㉚ 수키와(도면 176-2, 사진 253-⑤)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석립이 포함된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은 표면이 거칠고 문양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에서는 포목흔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단면은 5~10㎜가량 와도를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한 후 타격 분할하였다. 분할계선 및 기타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14.7㎝, 현최대폭 16.0㎝, 두께 2.2㎝



도면 172.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㉛ 암키와(도면 172-2, 사진 250-⑥)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박리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며 배면에서는 올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비교적 성긴포목흔이 일부에서 관찰된다. 빗질흔이 사선방향으로 확인되며 날카로운 도구에 긁힌 흔적들이 있으나 의도된 부분인지는 알 수 없다. 측면와도흔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그었으며 타격시 완전히 분할되지 않아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현최대길이 9.5㎝, 현최대폭 12.0㎝, 두께 3.0㎝

㉜ 암키와(도면 172-3, 사진 250-③)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 점토에 사립이 소량 포함된 절반가량 잔존하고 있는 황갈색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유사어골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시문되었으며, 표면의 상당부분이 박락되었다. 배면에는 매우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는데, 조밀한 부분은 10올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앙부분으로 점토를 이어붙인 점토합흔이 남아있고 중앙부 횡방향으로 연철흔도 일부 확인된다. 측면에서는 와도흔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최대 12㎜가량으로 그은 후 타격분할되었다. 분할계선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37.4㎝, 현최대폭 16.0㎝, 두께 2.4㎝

㉝ 암키와(도면 172-4, 사진 251-⑥)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석립이 소량 포함된 회청색 경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에 어골문이 비교적 선명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배면에서는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배면일부에서 빗질정면흔이 확인되며 윤철흔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측면와도흔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약 5㎜가량 폭으로 확인된다. 현최대길이 12.1㎝, 현최대폭 13.5㎝, 두께 1.7㎝

㉞ 암키와(도면 172-5, 사진 251-⑦)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석립이 포함된 회청색 경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어골문으로 추정되는 사선문이 일부에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배면에는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배면일부에서 윤철흔으로 판단되는 횡방향 압인흔적이 관찰되고 있으며,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흔적도 있으나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측면에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 3㎜가량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13.9㎝, 현최대폭 15.0㎝, 두께 2.0㎝

㉟ 암키와(도면 172-6, 사진 251-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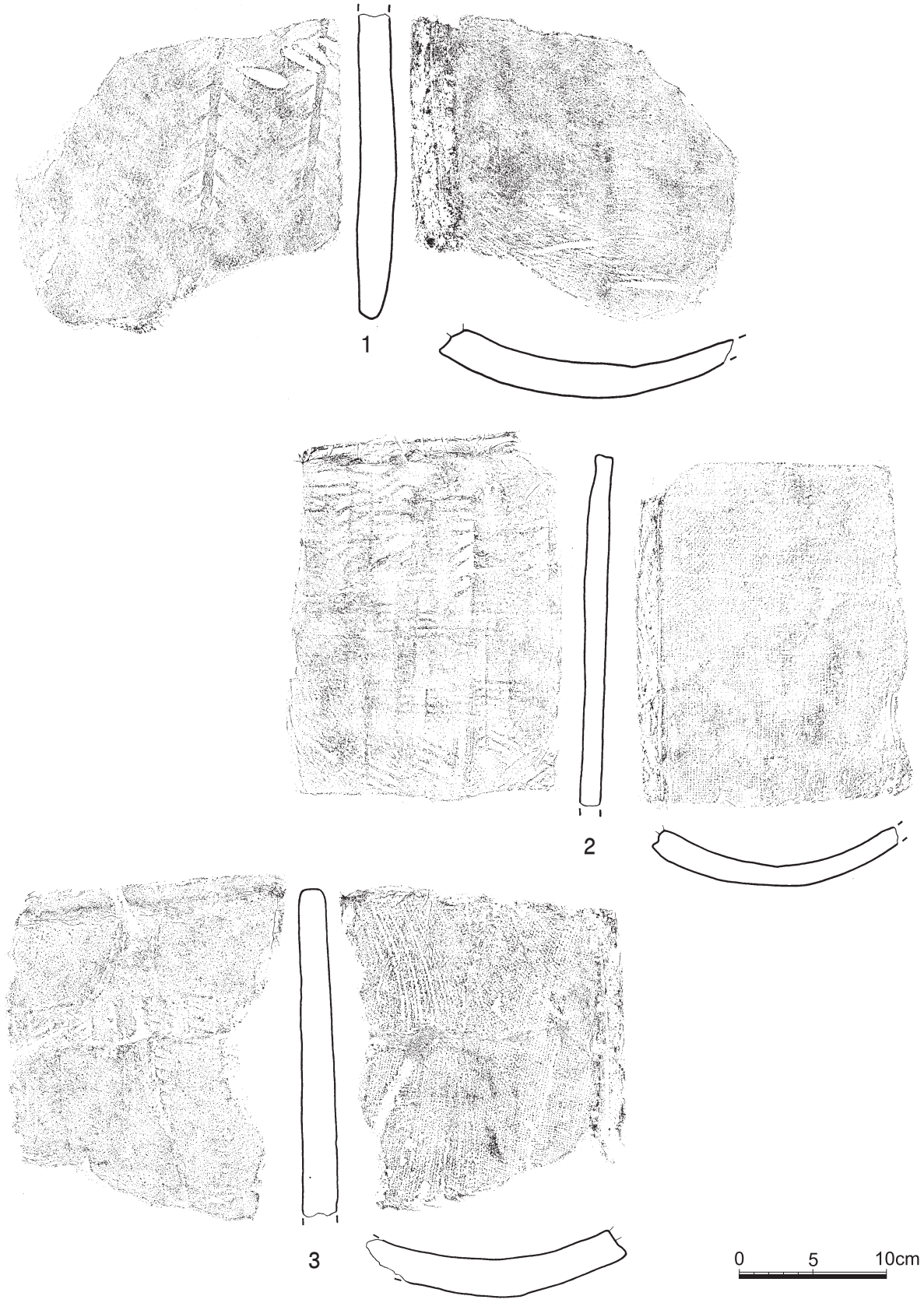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회백색 연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태선어골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포목흔이 있으며, 하단부에 조정흔이 관찰된다. 측면와도흔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15.0㎝, 현최대폭 14.5㎝, 두께 1.9㎝

㊱ 암키와(도면 173-1, 사진 251-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사립이 포함된 회청색 경질소성 암키와편이다. 등면에 태선어골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9올 이상의 조밀한 올이 관찰된다. 배면상단에 빗질정면흔이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밖의 정면흔은 보이지 않는다. 측면은 와도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1.3㎝가량 그은 후 타격분할되었다. 분할선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다. 현최대길이 19.5㎝, 현최대폭 21.5㎝, 두께 2.3㎝

㊲ 암키와(도면 173-2, 사진 250-④)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점토에 사립 및 세석립이 일부 포함된 회청색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격자문과 어골문이 중복 시문되었다. 배면에는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나 극히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올



도면 173.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수는 알 수 없다. 사선방향으로 빗질흔이 불규칙하게 남아있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2㎜가량으로 내면에 살짝 그은 후 타격 분할하였다. 분할계선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23.8㎝, 현최대폭 16.3㎝, 두께 1.8㎝

㊳ 암키와(도면 173-3, 사진 251-①)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황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표면이 대부분 박락되어 문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면에는 성긴 올(5×5올)이 확인되며 사선방향의 빗질정면흔이 관찰된다. 결실된 하단부쪽으로 새로방향의 점토합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7㎜가량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최대길이 22.5㎝, 현최대폭 17.0㎝, 두께 2.0㎝

㊴ 암키와(도면 174-1, 사진 250-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적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대부분 물손질 정면되었으나 결실된 하단부에 인접해서 어골문과 유사한 문양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배면은 표면이 대부분 박락되고 세로방향의 빗질정면흔으로 인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결실된 부분과 인접해서 윤철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12㎜가량의 두께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할계선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단면과 인접해서 확인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현최대길이 22.5㎝, 현최대폭 19.0㎝, 두께 1.7㎝

㊵ 암키와(도면 174-2, 사진 251-②)

태토는 매우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황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물손질 정면된 듯하나 문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무문일 가능성이 크다. 배면에는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정확한 올수는 알 수 없다. 결실된 하단부와 인접해서 윤철흔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압흔이 일부 관찰되고 있으며, 측면분할계선으로 추정되는 종방향 압흔도 와도와 인접해서 관찰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측면와도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최대 6㎜가량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22.7㎝, 현최대폭 16.5㎝, 두께 2.4㎝

㊶ 암키와(도면 174-3, 사진 25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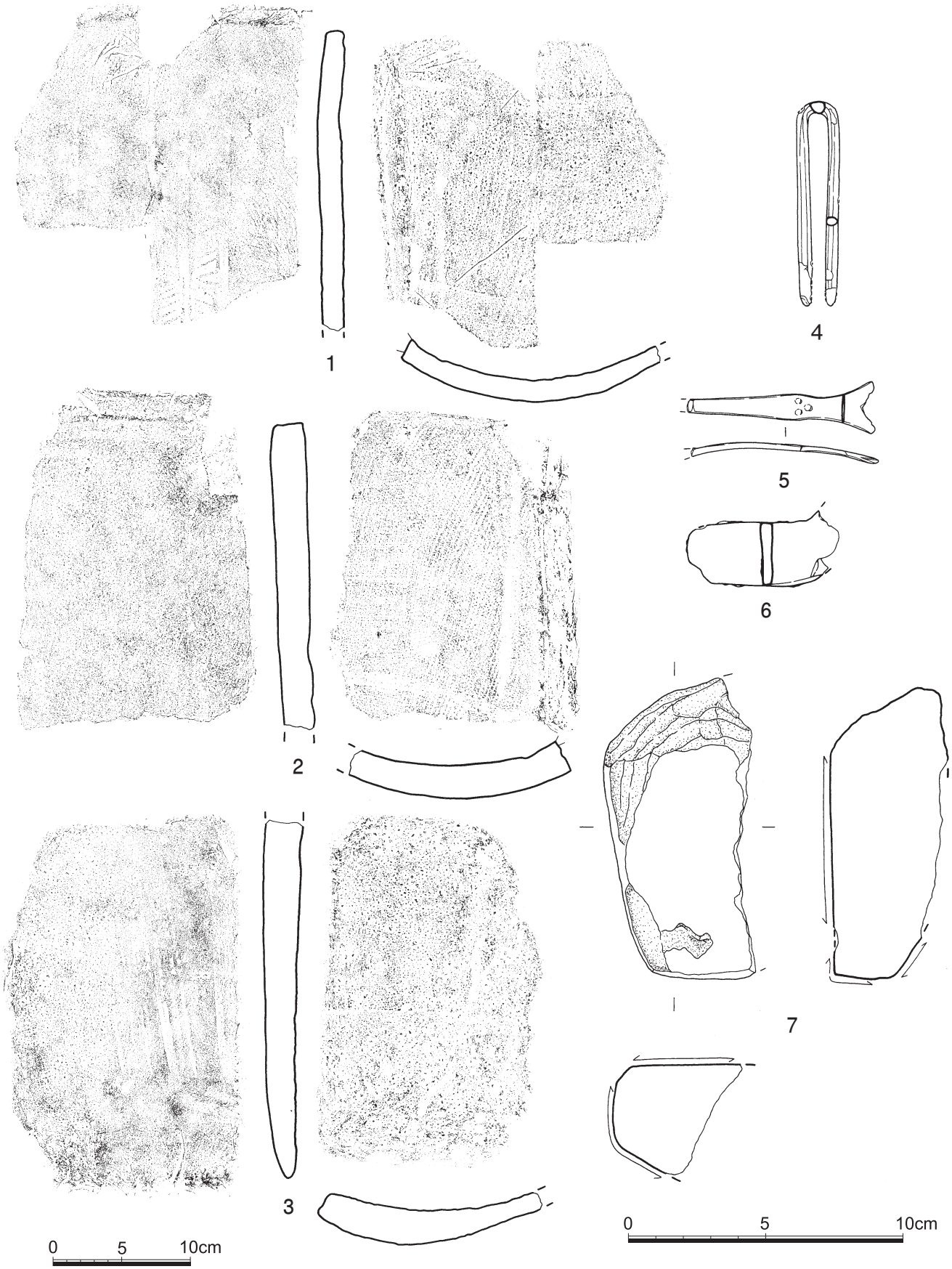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세석립이 다량 포함된 황갈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대부분 박락되고 일부에서 세격자문이 확인된다. 종방향의 타날판 긁힘흔이 관찰되고 있는데 시문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판단된다. 배면에는 표면이 대부분 박락되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중앙부에 윤철흔으로 추정되는 눌림흔적이 약 15㎜가량의 폭으로 확인된다. 종방향으로 점토합흔으로 추정되는 접합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단면에서 뚜렷하게 접합면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 측면와도흔은 마모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현최대길이 25.7㎝, 현최대폭 16.4㎝, 두께 2.5㎝

㊷ 암키와(도면 176-3, 사진 253-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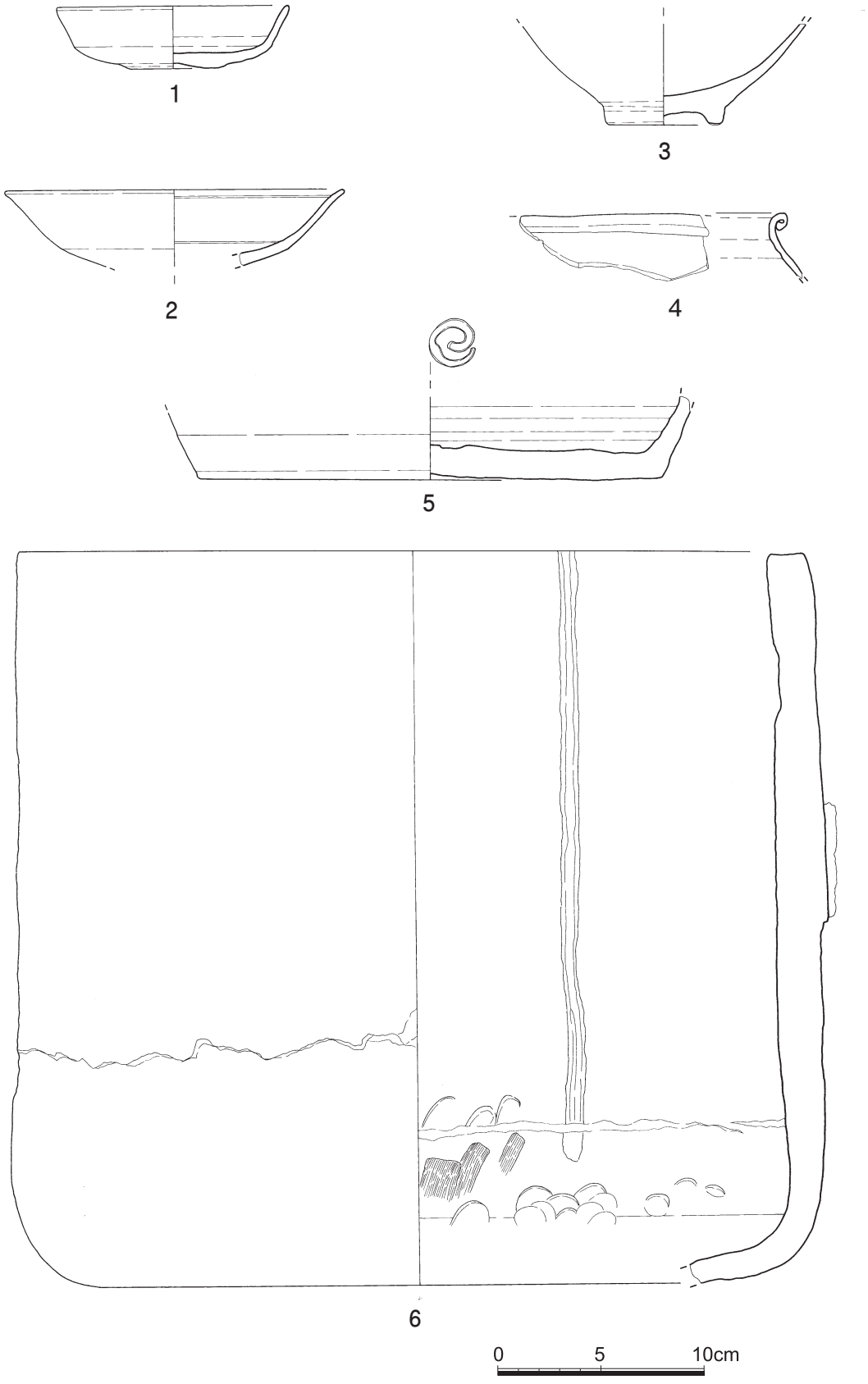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 점토이며 세사립과 소형 석립이 포함된 회황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무문이며,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배면에는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횡방향으로 비교적 넓은 너비를 가지는 윤철흔이 확인된다. 상단부와 하단부에 걸쳐서 빗질정면흔이 있으며 측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최대 13㎜가량의 와도를 그은 후 타격 분할하였다. 현최대길이 40.0㎝, 현최대폭 17.6㎝, 두께 2.4㎝

㊸ 암키와(도면 177-1, 사진 253-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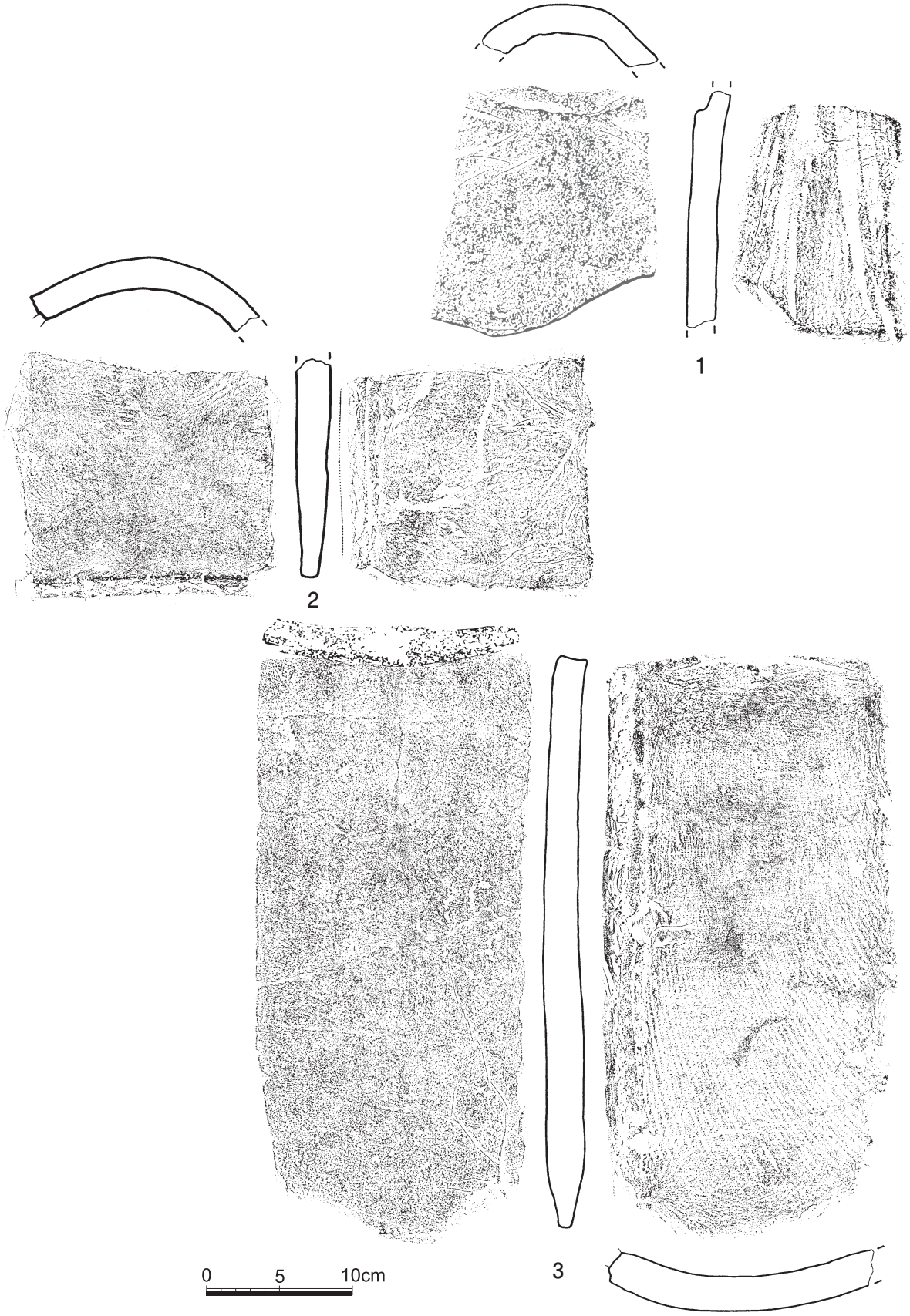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포함된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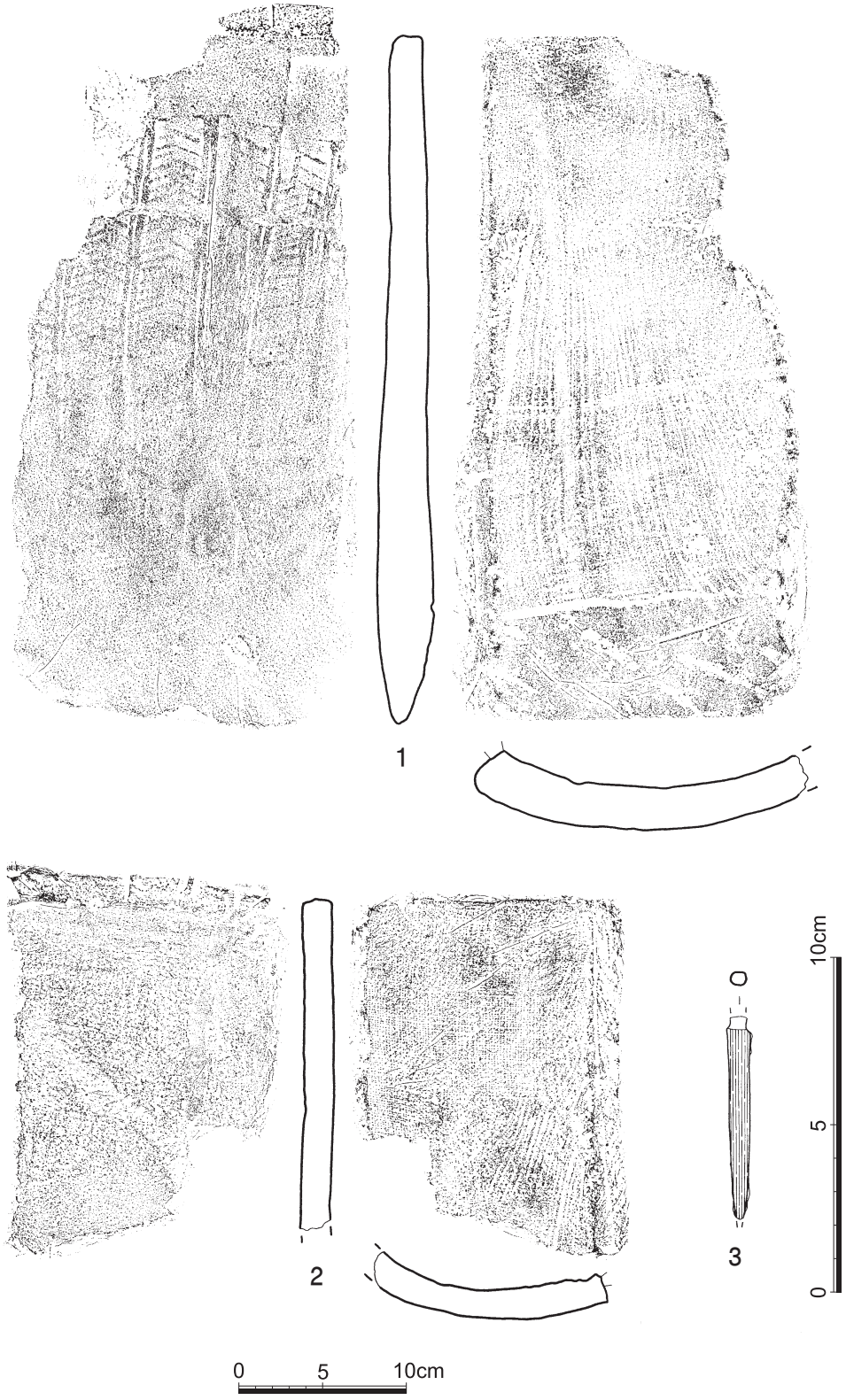
도면 174.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75.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도면 176.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도면 177. 3지점 고려 1호 주거지 저장공 출토유물

표면이 상당부분 박락되어 문양대가 뚜렷하지 않으나 잔존하는 부분으로 볼 때 사선문일 가능성이 크며, 상단부 일부에서 보이는 문양은 명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배면에서는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며 중단과 하단부에 윤철흔이 뚜렷하다. 일부 빗질정면흔으로 추정되는 사선방향의 도구흔이 있으며 분할계선으로 추정되는 종방향의 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측면에는 1㎝가량의 와도흔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42.0㎝, 현최대폭 19.5㎝, 두께 3.1㎝

㊹ 암키와(도면 177-2, 사진 253-⑥)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포함된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무문이며 일부 물손질 정면처리 되었으며, 배면은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일부 빗질정면흔이 남아있고 측면에는 최대 10㎜가량의 폭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은 후 타격 분할하였다. 현최대길이 21.2㎝, 현최대폭 15.0㎝, 두께 1.8㎝

㊺ 지석(도면 174-7, 사진 249-⑩)

일부 결실된 지석으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는 3면이 마연되었다. 현길이 11.0㎝, 현폭 4.8㎝, 두께 4.3㎝, 무게 270g

㊻ 청동곳(도면 174-4, 사진 249-⑪)

부식으로 인해 기면 일부가 박리되었다. 棒을 구부려 두 가닥을 평행하게 만들었는데 基部의 단면은 삼각형에 가까우며, 棒部의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길이 7.5㎝, 무게 13g

㊼ 청동숟가락(도면 174-5, 사진 249-⑫)

술대 말단부 일부가 남아있다. 술대는 말단부가 이단으로 이어지며, 끝부분이 燕尾形으로 갈라졌고, 말단부 前面에 침선으로 3개의 원을 새겨넣었다.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6.8㎝, 무게 6g

㊽ 불명철기(도면 174-6, 사진 249-⑬)

평면형태 장방형의 철기로 한쪽부분이 결실되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5.5㎝, 폭 2.3㎝, 두께 0.3~0.5㎝, 무게 20g

㊾ 철정(도면 177-3, 사진 253-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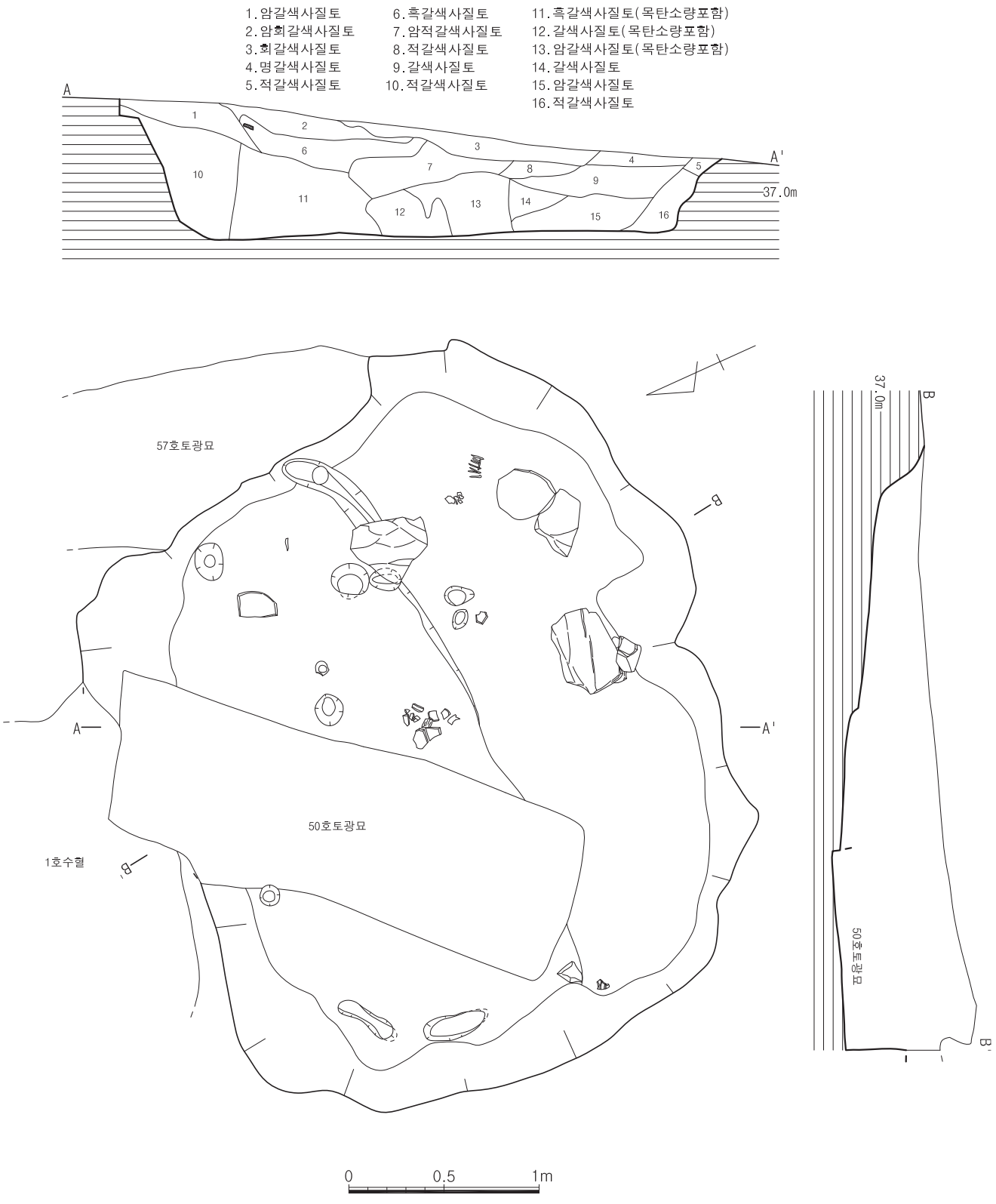
저장공3에서 출토되었다. 원형의 철정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종방향의 목질흔이 있다. 현길이 6.0㎝, 두께 0.4㎝, 무게 5g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8, 사진 254·255)

2호 주거지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벽에서 남동방향으로 내부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 중복, 동북 모서리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 중복, 동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61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67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사질토인 암반풍화토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당시 후대에 들어선 토광묘에 의해 북벽과 바닥이 훼손되었다. 층위는 서벽에 치우쳐 조성된 조선시대 50호 토광묘에 의해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지며 서쪽은 층이 불규칙적이다. 동쪽은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동벽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인다. 중앙쪽은



도면 178. 3지점 고려 2호 주거지 유구

토광묘 내부토이다. 평면형태는 중복에 의해 훼손이 심하나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방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2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379×301×78㎝이다.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7개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소주공이며 북벽에 1개, 동벽 북쪽 모서리에 1개, 나머지는 중앙에서 동쪽에 약간 치우쳐 5개가 규칙성 없이 배치되어 있다. 이외에 남벽쪽에 치우쳐 괴석 4개가 놓여 있는데 바닥 바로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폐기 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와 내부토에서 청자 구연부편, 청자대접 저부편, 청자 저부편, 철겸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광묘 유물인 관정 몇점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 조성 시 이미 조성되어 있던 고려시대 토광묘를 파괴하고 주거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유물

① 청자 구연부편(도면 179-1, 사진 255-⑤)

대접으로 추정되며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내면 구연아래에 3조의 상감선을 둘렀다. 광택이 있는 녹색의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태토에는 작은 기공이 보인다. 기면에 잔빙렬이 있다. 현길이 4.9㎝

② 청자대접 저부편(도면 179-3, 사진 255-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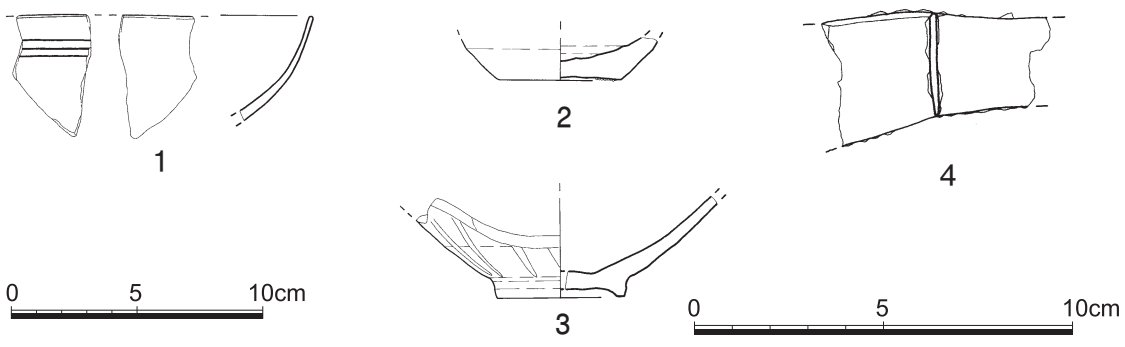
연판문대접으로 저부의 1/2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외면을 각이지게 다듬었으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다. 동체외면에 연판문을 음각장식하였다. 유색은 황녹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고, 기면에는 잔빙렬이 있다. 현고 4.0㎝, 복원저경 5.2㎝

③ 청자 저부편(도면 179-2, 사진 255-④)

바닥부분만 남아있다. 바닥은 평평하며 기벽은 동체 하단부에서 꺾여 올라간다. 유색은 황갈색을 띠는데 거의 박락되어 내면 일부에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사립과 잡물이 섞여있다. 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현고 1.7㎝, 복원저경 5.0㎝

④ 철겸(도면 179-4, 사진 255-⑥)

신부 일부가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3.5㎝, 무게 10g



도면 179. 3지점 고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주공군

1) 1호 주공군

(1) 유구(도면 180·181, 사진 256~258)

구릉의 남서사면 상단부인 해발 41.5~43.6m지점 선상에 37×30m 범위로 넓게 분포하며 주공군 중앙부에 고려시대 주거지가 자리한다. 직경 15~25㎝ 내외 크기의 주공이 규칙성 없이 폭 넓게 분포하며 곳곳에 장축 35~60㎝×단축 20~30㎝크기의 평면 타원형인 소형 수혈이 자리한다. 주공은 대부분 토층단면상 목주흔이 뚜렷이 확인되며, 주공과 수혈 내부에는 다량의 소토편이 잔존한다.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공과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는데, 주공은 중앙에 통나무를 세우고 이를 보강하는 흙을 채울 때 다짐흙과 같이 섞여 들어간 것들이다. 청자접시, 청자 잔, 청자대접편, 청자대접 저부편, 청자 저부편, 도기 구연부·저부·동체부편, 암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자 잔(도면 182-6, 사진 259-⑥)

46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벽은 구연에서 굽에 이르기까지 둥근 곡면을 유지한다. 굽은 가운데부분을 약간 오목하게 깎아냈으며 깎음새가 거칠다. 유약은 얇게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도 불량하고 산화되어 본래의 유색을 찾기 힘들며 유층이 거의 박락되었다. 태토는 잡물이 없고 치밀한 편이다. 바닥면에는 받침흔적이 없으며 내저면 4곳에 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4.8㎝, 구경 10.6㎝, 저경 4.1㎝

② 청자접시(도면 182-1, 사진 259-①)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굽은 1/2 이상, 구연과 동체의 1/3 가량이 남아있어 기형을 알 수 있는 접시편이다. 구연은 제대로 깎아내지 않아 매끄럽지 못하고 단이 지며, 기벽은 완만한 곡사선으로 굽에 이른다. 굽은 안쪽을 깎아내지 않아 형태만 갖춘 낮은 굽이다. 연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 불량으로 기면이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유박락된 부분도 보인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사질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2.1㎝, 복원구경 8.5㎝, 저경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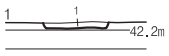
③ 청자접시(도면 182-2, 사진 259-②)

41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1/2 가량이 남아있다. 기벽은 구연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동체 중간에서 한번 꺾인다. 굽은 기벽이 바닥으로 이어지는 안굽이며 안바닥은 넓고 평평하다. 녹갈색의 유조를 보이며 유약의 용융상태와 시유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2.8㎝, 복원구경 11.6㎝, 저경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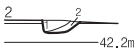
④ 청자접시(도면 182-3, 사진 259-③)

64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의 1/2정도와 구연과 동체의 1/3 가량이 남아있어 기형을 알 수 있는 접시편이다. 구연은 넓게 외반하며 기벽은 사선으로 내려와 동체 아랫부분에서 꺾여 굽에 이른다. 안바닥은 둥근곡면을 이루며 지름 7.2㎝가량의 원각선이 돌려져 있고, 굽은 안쪽을 제대로 깎아내지 않았다. 녹색의 유약이 입혀졌는데 구연부에 유약이 뭉쳐있으며 일부는 흘러내렸다. 기면에 잔빙렬이 가득하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사질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3.0㎝, 복원구경 11.8㎝, 복원저경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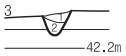
도면 180.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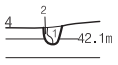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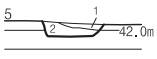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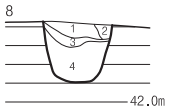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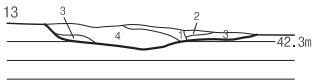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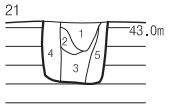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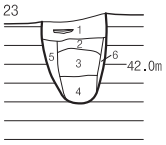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갈색사질점토
4.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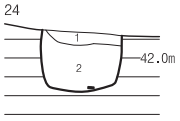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갈색사질토
4.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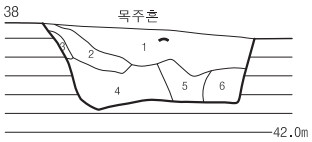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갈색사질점토
(회갈색사질점토소량포함)
4.갈색사질토
5.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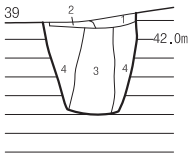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토
(회갈색점질토소량포함)
4.암회갈색사질점토
5.갈색사질토
6.암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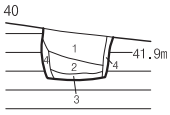
1.황갈색사질점토
2.적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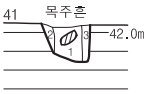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점토
(목탄소량포함)
2.암갈색사질점토
(소토다량포함)
3.적갈색사질점토
4.암회갈색사질점토
(목탄,소토다량포함)
5.회황갈색사질토
6.회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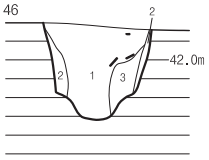
1.진갈색사질토
2.암갈색사질토
3.회갈색사질점토
4.적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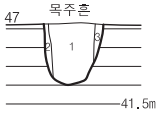
1.회갈색사질토
2.회갈색사질점토
3.갈색점토
(회갈색사질토소량포함)
4.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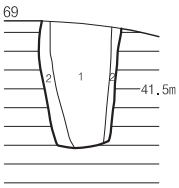
1.적갈색사질점토
2.갈색사질토
3.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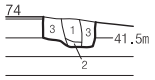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목탄미량포함)
2.적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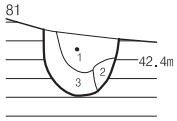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목탄,소토다량포함)
2.갈색사질점토
3.암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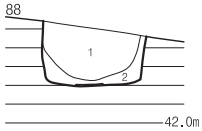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점토
(목탄미량포함)
2.적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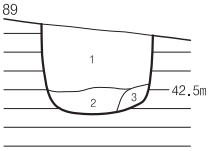
1.회암갈색사질점토
2.회갈색점토
3.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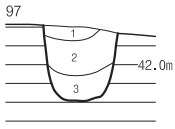
1.적갈색사질토(소토포함)
2.적갈색사질토
3.적갈색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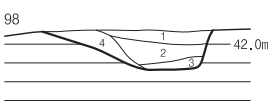
1.암갈색사질토
2.갈색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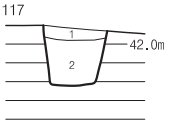
1.적갈색사질점토
2.황갈색사질점토
3.적갈색점토



1.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소량)
2.진갈색사질토
3.회갈색사질점토



1.명갈색사질점토
2.암갈색사질점토
3.갈색사질토(회갈색사질토소량포함)
4.갈색사질토



1.적갈색사질점토
2.명적갈색사질점토

도면 181.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토층 단면도

⑤ 청자접시(도면 182-4, 사진 259-④)

64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전체 기형의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구연은 넓게 외반하며 기벽은 몸체 아랫부분이 풍만하다. 안바닥은 둥근 형태이며 지름 7.6㎝가량의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유색은 녹색으로 얇게 입혀졌는데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한 편이며 산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황갈색을 띠기도 한다. 접지면과 내저면에 사질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3.2㎝, 복원구경 12.2㎝, 복원저경 4.0㎝

⑥ 청자접시(도면 182-5, 사진 259-⑤)

9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일부가 결실되었다. 기벽은 둥근곡면으로 올라가 그대로 구연으로 이어진다. 넓고 둥근 안바닥과 내벽의 경계에 침선을 둘렀다. 연녹색의 유약을 입혔으나 산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황색을 띠며 유가 박락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이 보인다. 접지면과 안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빚어 받쳤다. 고 3.5㎝, 구경 12.5㎝, 저경 4.4㎝

⑦ 청자대접편(도면 182-9, 사진 259-⑪)

47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멸실되었다. 구연은 약간의 곡면을 유지한 채 사선으로 내려온다. 연녹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었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 편으로 유박락된 부분이 있으며 구연부를 제외하고는 황갈색을 띤다. 태토에는 잡물이 보이며 기포가 많다. 현고 7.0㎝, 복원구경 16.4㎝

⑧ 청자대접 구연부편(도면 182-8, 사진 260-④)

11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의 1/3 가량이 남아있다. 넓게 외반하는 구연은 살짝 일그러졌으며, 기벽은 완만한 곡선으로 살짝 꺾여 내려온다. 내면의 구연 바로아래에 한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태토는 치밀하나 작은 기포가 보이며, 유약은 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화되어 거의 박락되었고 황갈색을 띤다. 현고 6.0㎝, 복원구경 16.2㎝

⑨ 청자 구연부편(도면 182-7, 사진 259-⑩)

11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의 구연 바로아래에 한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연녹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기면이 산화되어 전반적으로 갈색을 띤다. 현길이 4.1㎝

⑩ 청자 구연부편(도면 182-11, 사진 259-⑫)

47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대접의 구연부로 추정되며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 구연 바로아래에 한줄의 음각선을 돌렸다. 광택이 있는 회녹색의 유색을 띠며 기면에 잔빙렬이 있다. 현고 4.1㎝, 복원구경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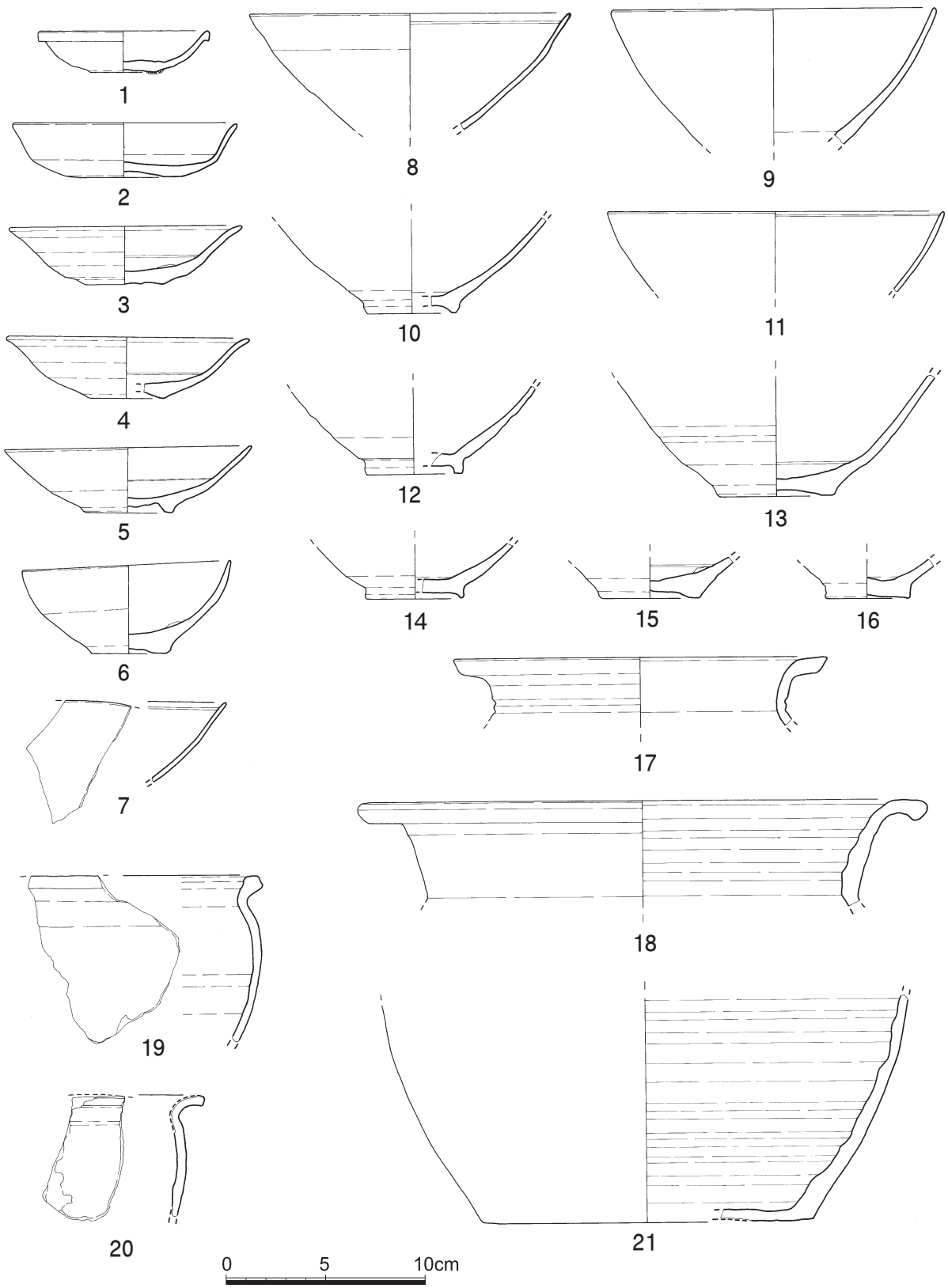
⑪ 청자대접 저부편(도면 182-10, 사진 259-⑦)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기벽은 직사선으로 내려온다. 굽은 죽절형태이며 굽안쪽을 오목하게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진녹갈색의 유조를 보이며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기면에 잔빙렬이 가득하다. 현고 6.1㎝, 복원저경 4.7㎝

⑫ 청자대접 저부편(도면 182-13, 사진 259-⑨)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굽부분이 1/2 가량 남아있다. 기벽은 직사선으로 내려오다가 동체 아랫부분에서 한번 꺾여 굽에 이른다. 굽안쪽을 약간 오목하게 돌려깎았으며, 내저면에는 굽경보다 큰 원각을 돌렸다. 담녹색의 유약을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는데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유약이 뭉쳐있으며 기포가 있다. 태토에 잡물이 있다. 내저면에는 백색내화토를 받쳤다. 현고 6.1㎝, 저경 5.8㎝

⑬ 청자 저부편(도면 182-12, 사진 259-⑧)



도면 182.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출토유물

46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대접의 저부로 추정된다. 다소 높은 굽은 죽절형태로 깎였으며 기벽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올라간다. 유색은 녹회색을 띠는데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태토에는 잡물이 조금 보이나 치밀한 편이며, 접지면에 받침흔적은 없다. 현고 4.4㎝, 복원저경 5.1㎝

⑭ 청자 저부편(도면 182-14, 사진 260-①)

46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굽부분이 1/3 이상 남아있다. 굽외측은 죽절형태를 보이며 굽안쪽을 반듯하게 깎아냈는데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으며 좁은 편이다.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굽과 외저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 치밀한 편이다. 현고 2.8㎝, 저경 5.0㎝

⑮ 청자 저부(도면 182-15, 사진 260-②)

89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굽부분만 남아있다. 굽은 기벽에서 바로 이어지며 굽안쪽을 오목하게 돌려깎아냈다. 내저에는 굽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녹갈색의 유색을 띠며 굽안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를 닦아냈다. 접지면과 안바닥 5곳에 백색내화토를 받쳤다. 현고 2.1㎝, 저경 5.2㎝

⑯ 청자 저부편(도면 182-16, 사진 260-③)

20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굽부분만 남아있다. 굽은 다소 높은 편으로 굽바닥이 평평하다. 안바닥과 기벽이 만나는 부분에 홈이 돌려져 있으며 안바닥 가운데부분이 불룩하다. 흑녹색의 유약이 입혀졌으며 자회색을 띠는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다. 현고 2.1㎝, 저경 4.3㎝

⑰ 도기 구연부편(도면 182-17, 사진 260-⑥)

113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다. 기외면은 암회색(N3/), 내면은 회색(N4/)을 띤다. 구연은 윗면이 평평한 전을 이루고 구순부를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현고 3.6㎝, 복원구경 18.9㎝

⑱ 도기 구연부편(도면 182-18, 사진 260-⑦)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굵은 석영립과 운모립,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N 4/)을 띠나 구순, 경부외면은 암갈색을 띤다. 구연은 넓게 외반된 형태이다. 경부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현고 5.4㎝, 복원구경 28.4㎝

⑲ 도기 구연부편(도면 182-19, 사진 260-⑤)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이의 구연부편으로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다. 태토에는 운모립과 백색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은 회색(7.5Y 4/1), 속심은 암갈색을 띤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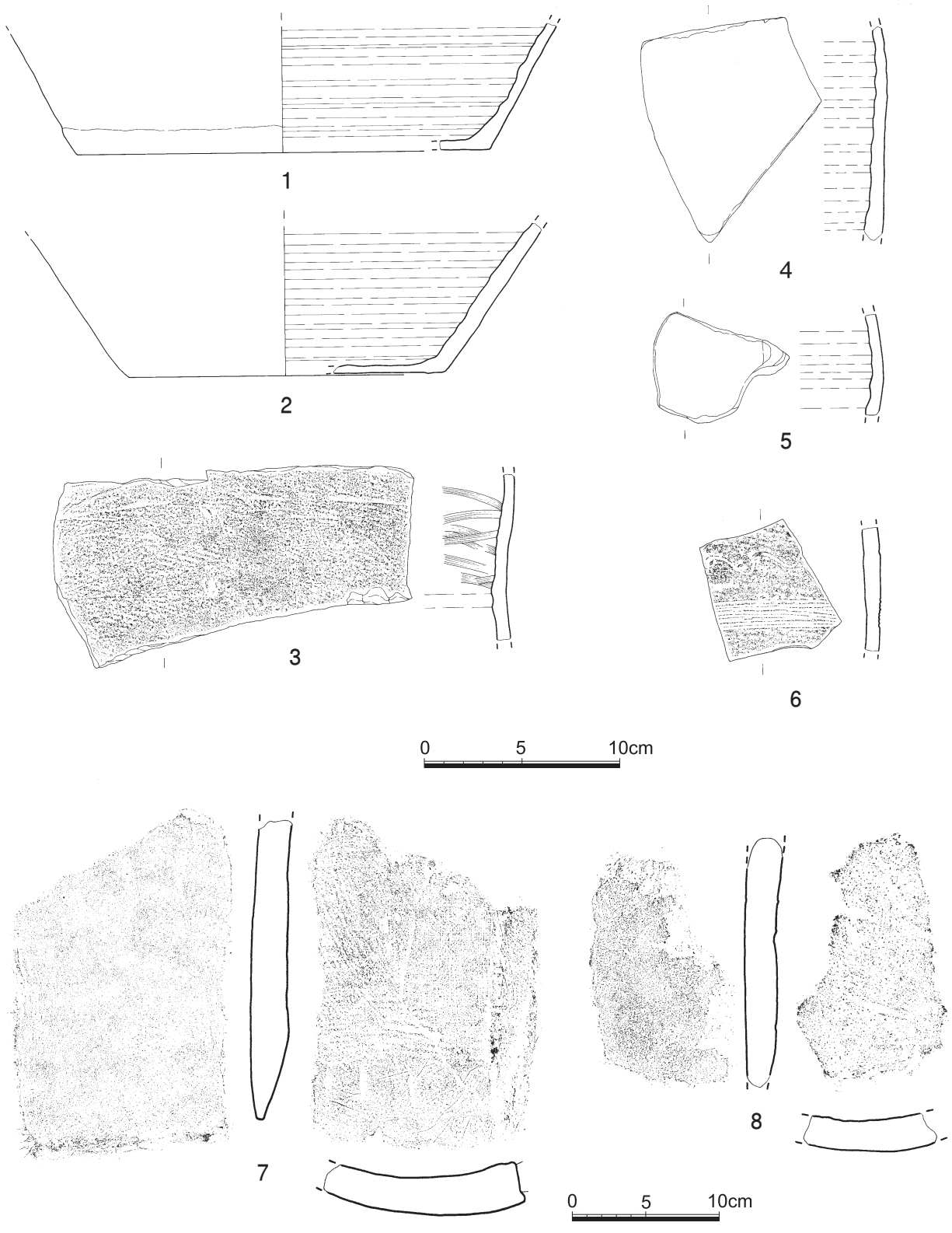
⑳ 도기 구연부편(도면 182-20, 사진 260-⑨)

11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이류의 구연부편으로 구연 일부가 남아있다. 기면에 균열이 있으며 내면은 박리된 부분이 많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영립을 포함한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색(7.5Y 2/1), 내면은 흑갈색(2.5Y 3/1)을 띠며 속심은 갈색이다. 현길이 6.3㎝

㉑ 도기 저부편(도면 182-21, 사진 260-⑬)

9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이로 추정되는 연질의 도기저부편으로 1/3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5Y 4/1)을 띠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 속심은 회색을 띤다. 내면에 물레흔이 뚜렷하다. 현고 11.3㎝, 복원저경 17.0㎝

㉒ 도기 저부편(도면 183-1, 사진 260-⑭)



도면 183. 3지점 고려 1호 주공군 출토유물

64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낮은 편이며, 태토는 운모립 등 사립이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기면의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4/)을 띠나 동체외면 일부는 회흑색을 띤다. 기벽은 바닥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다.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현고 6.5㎝, 복원저경 21.6㎝

㉓ 도기 저부편(도면 183-2, 사진 260-⑮)

3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이의 저부로 추정되며 1/4 가량이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 다량의 석영립과 운모립, 기타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한 갈색(7.5Y 5/4), 내면은 탁한 황등색(10YR 6/4)을 띠며 속심은 흑색이다. 동체부에 비해 바닥의 두께가 얇은 편이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잘 남아있다. 현고 7.8㎝, 복원저경 16.4㎝

㉔ 도기 동체부편(도면 183-3, 사진 260-⑪)

22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흑색(N 2/) 경질의 도기 동체부편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내면은 암회색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외면은 격자타날되었는데 횡방향으로 도구흔도 보인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도구정면흔이 잘 남아있다. 현길이 8.6㎝

㉕ 도기 동체부편(도면 183-4, 사진 260-⑧)

22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나 경도는 높지 않으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5/)을 띤다. 내외면으로 물레흔적이 잘 남아있다. 현길이 11.0㎝

㉖ 도기 동체부편(도면 183-5, 사진 260-⑫)

12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나 소성도가 높은 편이며, 태토는 고운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속심 모두 회색(7.5Y4/1)을 띤다. 동체내면에 물레흔이 있다. 현길이 5.2㎝

㉗ 도기 동체부편(도면 183-6, 사진 260-⑩)

9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기외면은 올리브흑색(7.5Y3/1)을 띠고, 내면은 회색, 속심은 암갈색을 띤다. 동체외면에는 조밀하게 가는 침선이 여러줄 돌려져 있고 파상문도 보인다. 현길이 6.4㎝

㉘ 암키와(도면 183-7, 사진 260-⑯)

88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포함된 회청색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물손질 정면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단부에서 일부 횡방향의 정면흔이 관찰된다. 배면에는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확인되고 있으며 점토를 이어붙인 점토합흔도 횡방향에서 관찰된다. 사선으로 빗질한 정면흔이 일부 남아있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절단면은 1~2.2㎝가량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현최대길이 22.5㎝, 현최대폭 13.5㎝, 두께 3.0㎝

㉙ 암키와(도면 183-8, 사진 260-⑰)

64호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포함된 사질점토이고 적갈색의 연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은 무문이고 배면에서는 포목흔과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량의 석립이 배면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선과정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배면일부에서 횡방향의 압흔이 2줄가량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단부에 남아있는 흔적은 윤철흔으로 추정된다. 현최대길이 17.5㎝, 현최대폭 10.6㎝, 두께 2.0㎝

3.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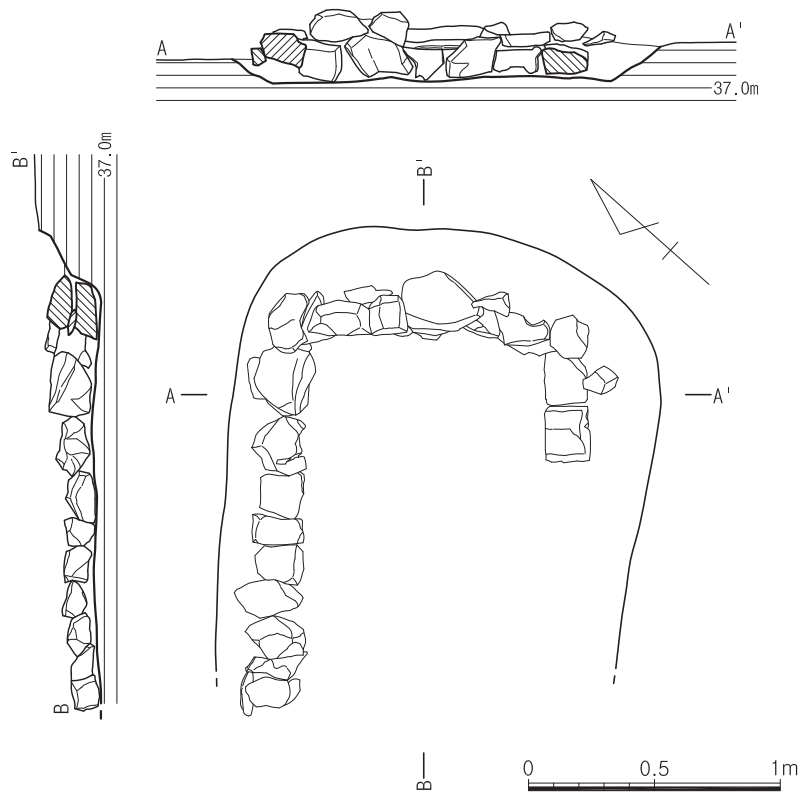
1) 1호 석곽묘

(1) 유구(도면 184, 사진 261)

석곽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 동쪽 5.3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 남쪽 0.4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26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노출되면서 확인되었다. 유구 확인 시 벽석 1~이단과 시상만 잔존한 상태이며, 남단벽 및 동장벽 대부분, 서장벽 일부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48°-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장벽은 사선형, 단벽은 'L'자형으로 1단이 올라온 후 사선형으로 단이 지게 굴광하였다. 묘광은 잔존규모 213×150㎝, 석곽은 잔존규모 144×99㎝이다.

벽석은 할석과 판석을 혼용하였으며 주로 종평적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크기가 작은 할석들은 횡평적을 혼용하였다.



도면 184. 3지점 고려 1호 석곽묘 유구

4. 토광묘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85, 사진 262)

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69호 토광묘와 중복, 서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63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88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층은 'U' 자형을 이루고, 3·4층은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5층 갈색 사질토와 6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8°-W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6×59×31㎝(3.66:1), 목관은 잔존상태로 보아 197×40㎝(4.93:1)로 북벽에 치우쳐 안치하였다. 소주혈 2개가 남단벽에 치우쳐 관선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발치쪽으로 치우쳐 암갈색 사질토에서 출토되었는데, 청자화형접시 1점, 청동완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부장위치와 층위로 보아 관위에 부장한 것이 함몰 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청자화형접시(도면 185-1, 사진 262-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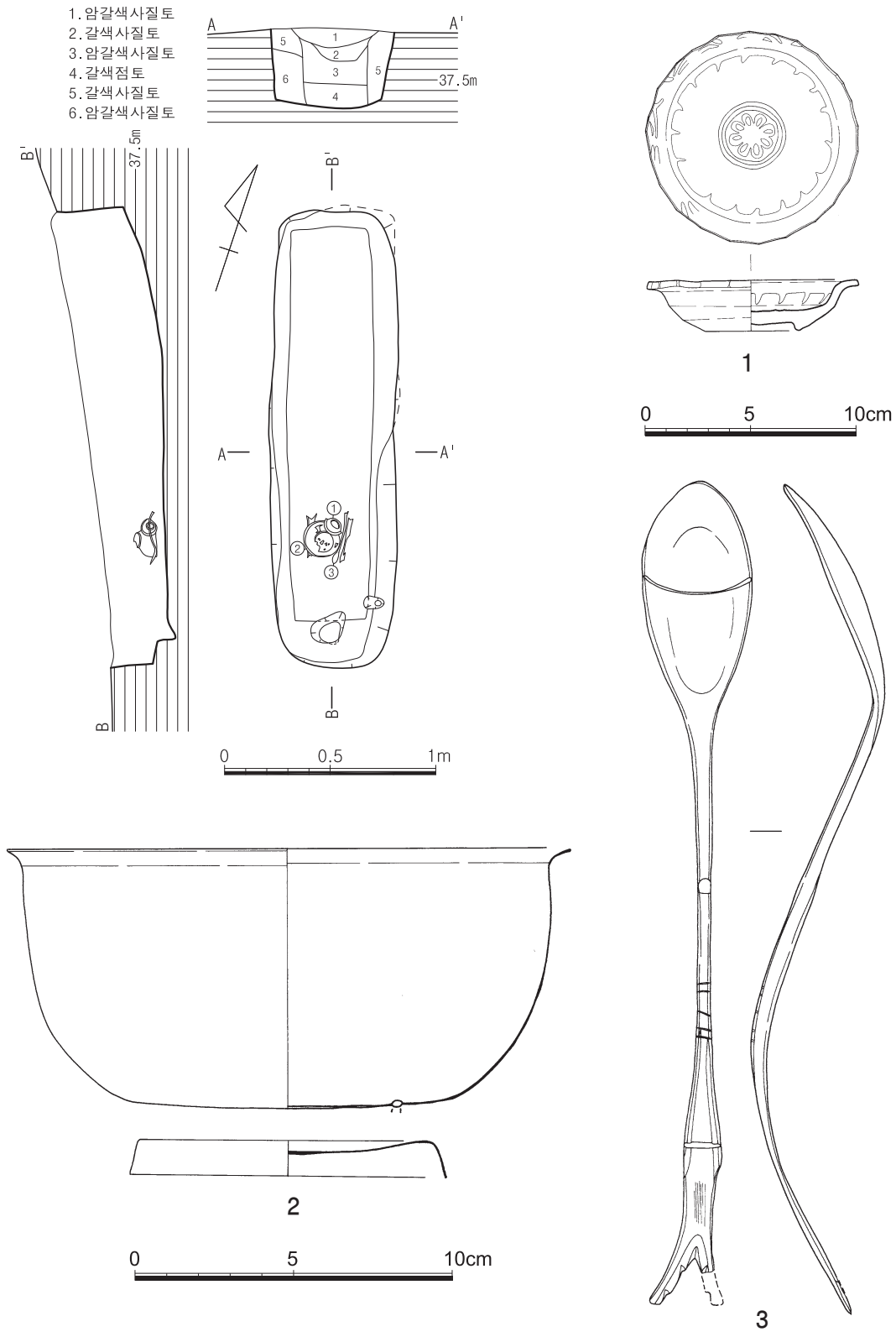
완형이다. 굽은 기벽이 바닥으로 바로 이어지는 안굽형태로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았다. 구연은 외반하여 짧은 전을 이루는데 전의 가장자리와 기벽내면이 화형으로 표현되었다. 전의 윗면에는 초문을 넣었으며 안바닥에는 큼지막한 화문을 양각하였다. 유색은 회청색조로 다소 탁한 편이며 굽안까지 전면에 유약을 입혔는데 군데군데 유약이 뭉쳐있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2.4㎝, 구경 10.0㎝, 저경 4.6㎝

② 청동완(도면 185-2, 사진 262-⑤)

청동대부완으로 완신과 대각이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구연과 신부일부, 대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구연은 짧게 밖으로 꺾인다. 낮은 대각은 단부로 가면서 벌어지는 형태이다. 저면 4곳에 원두정을 박아 완신과 대각을 접합하였다. 표면에 회전깎기흔이 잘 남아있다. 고 9.4㎝, 구경 17.8㎝, 각경 10.0㎝, 무게 170g

③ 청동숟가락(도면 185-3, 사진 262-⑥)

술대 말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우며 상태는 양호하다. 숟가락의 측면 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이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약하게 침선을 넣었고, 이어서 자루의 길이방향으로 'V' 자형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중앙부의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길이 26.0㎝, 술잎길이 7.2㎝, 술잎폭 3.4㎝, 무게 54g



도면 185. 3지점 고려 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2) 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86, 사진 263)

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동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30호 토광묘, 북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0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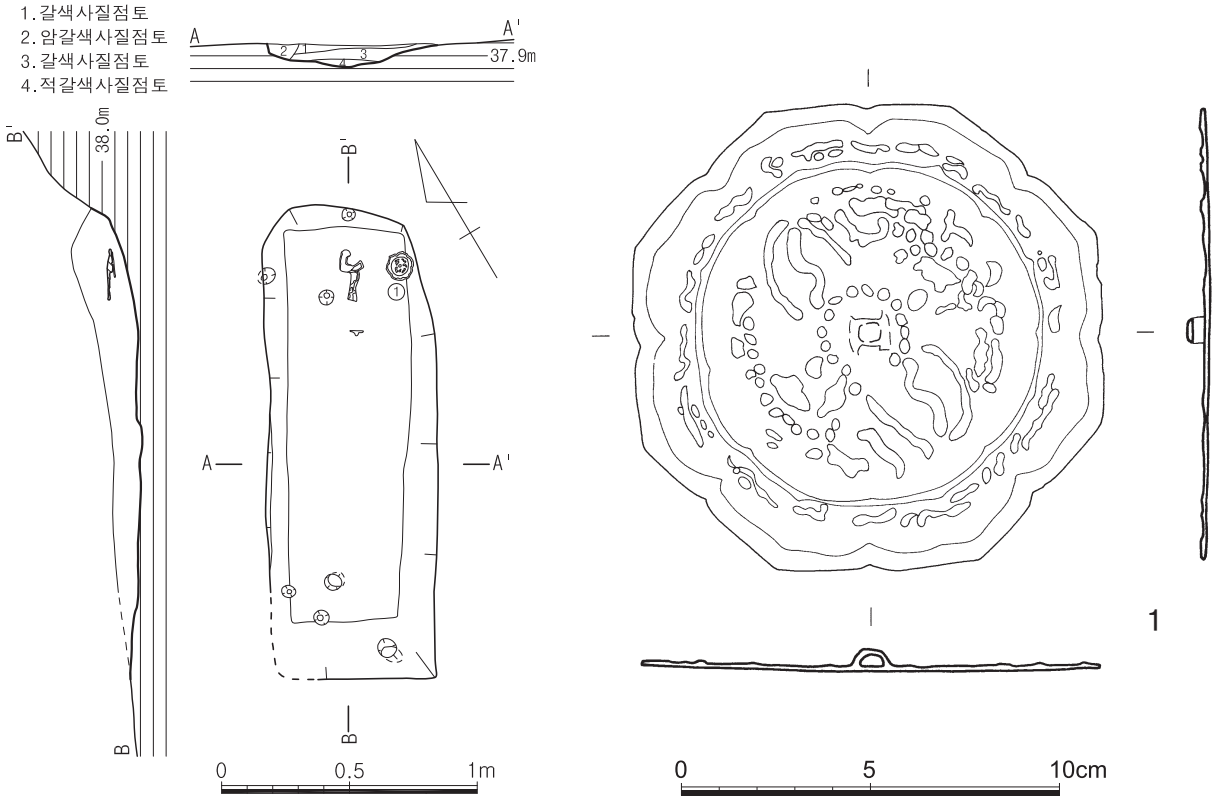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4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오목한 바닥을 메우기 위해 깐 흙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하단부 서남모서리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5×67×7㎝(2.76:1), 목관은 잔존상태로 보아 155×46㎝(3.37:1)로 북벽에 치우쳐 안치하였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머리쪽 동측 관선에 치우쳐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동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경(도면 186-1, 사진 263-④)

완형의 동경이다. 동경의 형태는 꽃잎과 같은 八稜形으로 되어 있으며 경배의 중앙에 1개의 ˇ〃가 부착되어 있다. 鏡ˇ〃와 외구 사이에 문양을 장식하였으나 마모되어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다. 직경 13.1㎝, 무게 97g



도면 186. 3지점 고려 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C. 조선시대 이후

1. 야외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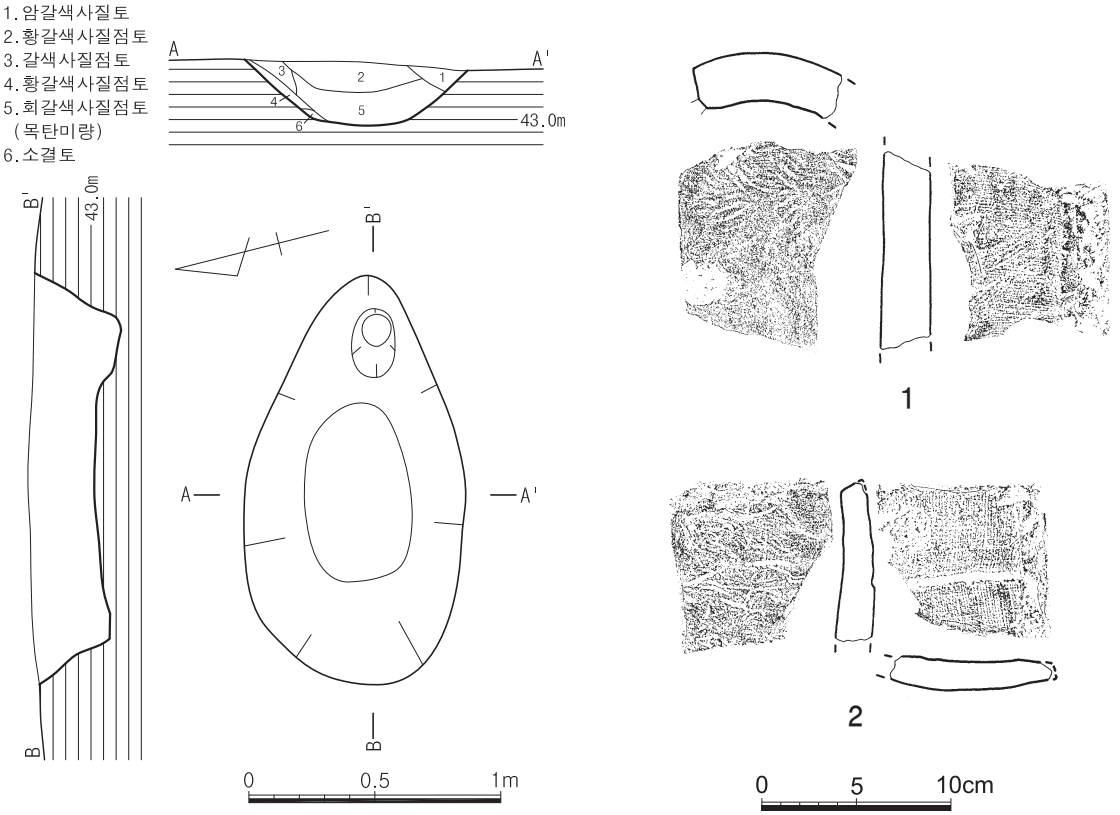
1) 1호 야외노지

(1) 유구(도면 187, 사진 264)

1호 야외노지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평평한 동남사면에 위치하며 남쪽 8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 동쪽 16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2.22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윤곽선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주변에 유구가 없는 상태로 독립된 야외노지로 보인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에 일부 소결토가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76°-W이다. 규모는 166×120×27㎝로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다.

유물은 회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암키와편 1점, 수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87. 3지점 조선 1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수키와(도면 187-1, 사진 264-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 문양은 무문이며 정면흔도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비교적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있으나 정확한 올수는 알 수 없다. 측면에는 와도흔이 내측에서 외측으로 3~8㎜가량으로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10.7㎝, 현최대폭 9.2㎝, 두께 2.5㎝

② 암키와(도면 187-2, 사진 264-④)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회청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등면에는 문양이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으나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문양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면에는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윤철흔으로 추정되는 압인문이 횡방향으로 남아있다. 측면에 와도흔은 약 1㎜가량으로 얇게 그은 후 타격 분할되었다. 현최대길이 8.3㎝, 현최대폭 8.3㎝, 두께 1.6㎝

2) 2호 야외노지

(1) 유구(도면 188, 사진 265)

2호 야외노지는 남쪽 능선 능선상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8m지점에 조선시대 99호 토광묘, 동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8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8m이다.

유구는 표토를 30㎝ 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윤곽선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1층 갈색 사질토(탄재 소량 포함)-7층 암갈색 사질토(소토 포함)-10층 탄재층인 것으로 보아 노지로 사용한 후 소화 시 굴토된 흙과 주변 흙을 모아 덮었으며 이를 3회 정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35°-E이다. 규모는 189×170×32㎝로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사선으로 굴광하였다.

유물은 탄재층에서 도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 저부편(도면 188-1, 사진 265-④)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운모립과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은 흑색(7.5Y 2/1)을 띠고 속심은 암갈색이다. 동체내면과 단면에서 점토접합흔이 확인된다. 현고 6.5㎝, 복원저경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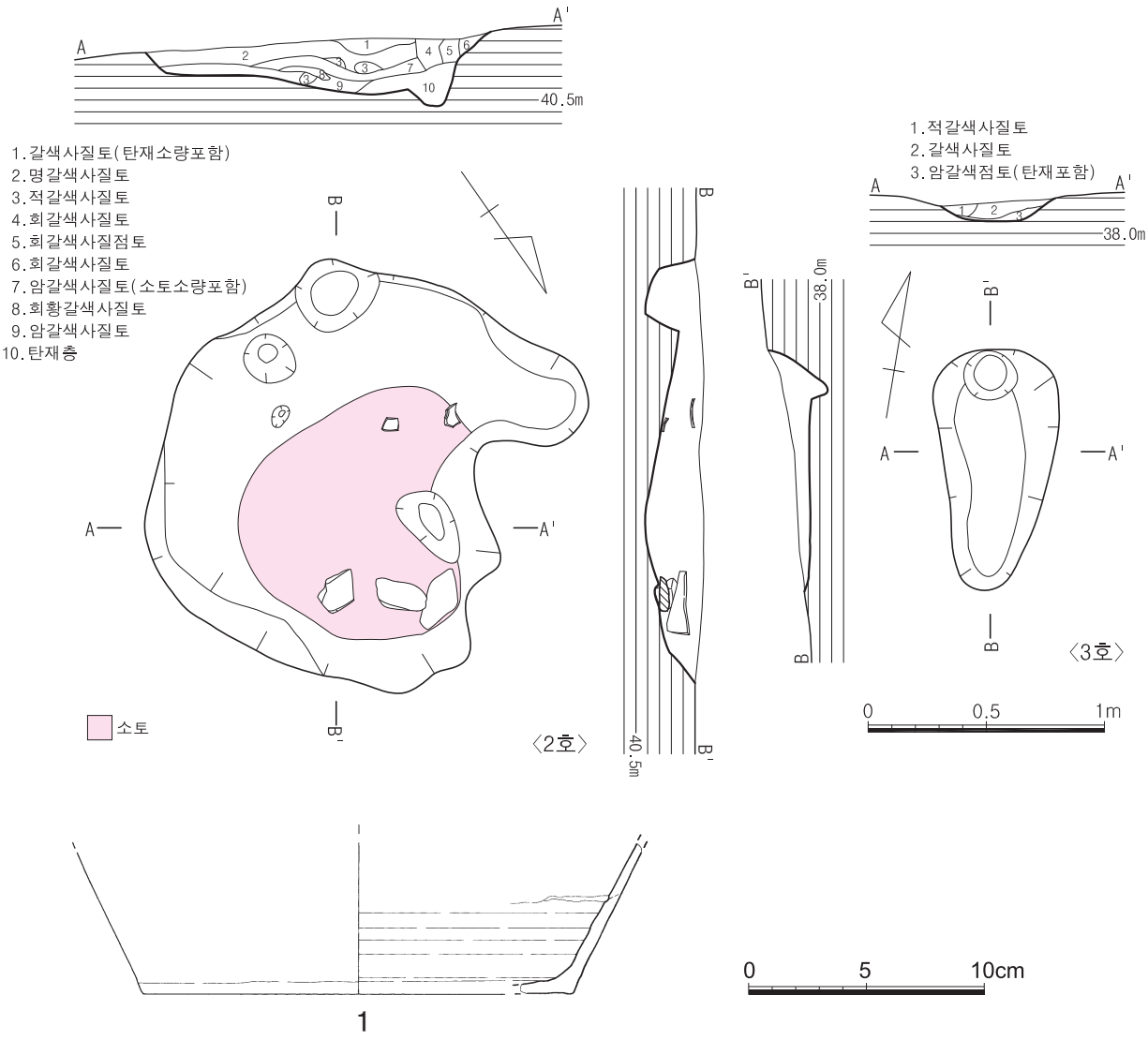
3) 3호 야외노지

(1) 유구(도면 188, 사진 266)

3호 야외노지는 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85호 토광묘, 동남쪽 4m지점에 조선시대 8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22m이다.

유구는 표토를 20㎝정도 제거한 후 적갈색 암반풍화토에서 윤곽선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점토(탄재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9°-W이다. 규모는 105×59×26㎝로 굴착방식은 암반풍화토를 경사가 높은 북벽을 'L'자형에 가깝게 굴광하였다.



도면 188. 3지점 조선 2·3호 야외노지 유구 및 출토유물(1:2호)

2. 토광묘

토광묘는 모두 99기로 대부분 낮은 구릉의 하단부에 밀집 분포하는데 정상부에서 서쪽 능선방향으로는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남쪽 능선방향으로는 중단부까지 산발적으로 분포하다가 하단부에 이르면 밀집되어 있다. 묘향은 대부분 북쪽에 가까운 북동향이나 북서향, 북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토광묘는 크게 목관묘와 직장묘로 구분되며, 목관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목관묘는 다시 묘향의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바닥면을 정지하고 관을 안치한것(A형), 바닥면에 관의 크기만큼 얕게 굴착하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한 것(B형), 이단굴광형으로 관의 높이만큼 단이 지게 굴착한 것(C형)으로 나뉘어진다. 위 3유형 중 A형이 다수를 점한다. 특이할만한 것은 단이 지게 굴착하여 목관의 유동성이 적은 B, C형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는 관 고정용으로 추정되는 구덩이가 A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바닥면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굴착하여 암반풍화토를 섞어 정지하였다. 직장묘는 모두 9기가 확인되었으며 유·소아의 분묘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거의 대부분 목관묘에서만 확인된다. 유물조합은 청동순가락만을 부장하는 것과 청동순가락과 청동합이 세트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수 청동순가락과 분청사기완, 분청사기접시, 백자완 등 자기류와 세트를 이룬다.

유물의 副葬[2]은 관내와 관외에 부장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부장품을 관내에 부장한 것은 대부분 머리측이나 발치측에서 확인되며, 관외에 부장한 것은 목관과 묘광의 장측면 사이의 공간에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요갱을 시설하고 회청색 경질의 단경호를 부장한 46호 토광묘이다.

1) 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89, 사진 267)

1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7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토광묘, 북서쪽 21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19m이다.

층위는 관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으며 7층 회갈색 사질토층은 관 부식으로 인하여 목질과 바닥토가 섞여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9×67×79m(3.12:1), 내광은 165×41×42㎝(4.02:1)이다. 목관은 부식되어 바닥층에 혼재되어 있으며 윤곽선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바닥층에 잔존하는 목질로 보아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2) 2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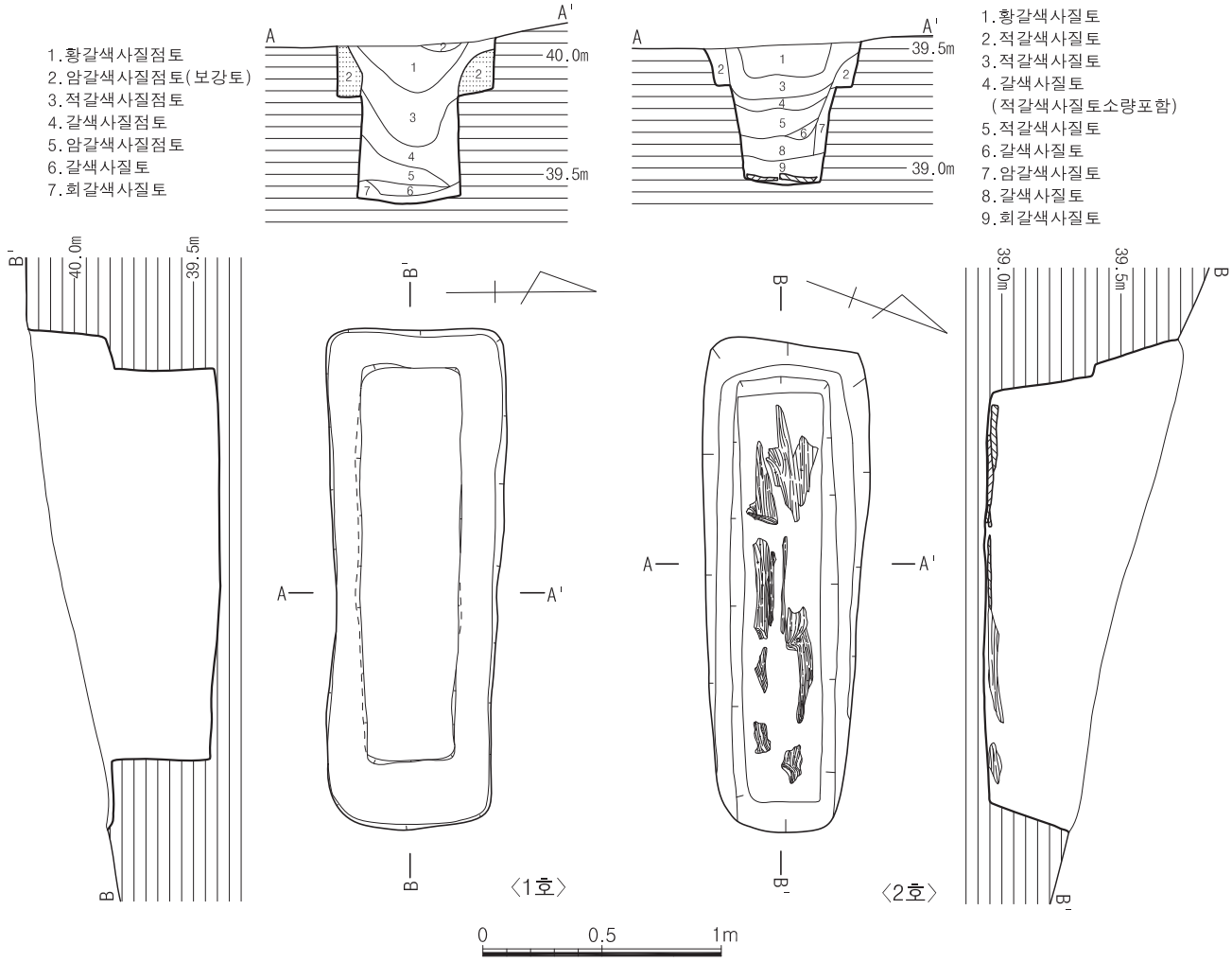
(1) 유구(도면 189, 사진 267)

2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7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북서쪽 16.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74m이다.

층위는 관 함몰로 인하여 상부는 'U'자형을 이루며 하부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퇴적을 보인다. 9층 회갈색 사질토층은 부식된 상태의 관재가 잔존하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 일부, 하부는 이단굴광 어깨선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0°-E로 등고선과

2) 유물의 부장위치는 彼葬子를 기준으로 하였다.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6×65×78m(3.17:1), 내광은 178×45×43㎝(3.96:1), 목관은 178×45㎝로 높이는 알 수 없는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189. 3지점 조선 1·2호 토광묘 유구

3) 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0, 사진 268)

3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동쪽 16.2m지점에 조선시대 2호 토광묘, 21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1.18m이다.

층위는 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토-회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적갈색 사질점토층은 바닥층으로 관재가 부식되어 잔존하고 있다. 퇴적은 북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9×120×34㎝(1.91:1), 목관은 194×50㎝(3.88:1)로 높이는 알 수 없으며 남장벽과 동단벽에 치우쳐 안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허리쪽 북쪽 관선에 치우쳐 상평통보 1점이 회적갈색 사질점토에서 관재 부스러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전(도면 190-1, 사진 268-③)

常平通寶 當五錢으로 외면이 마모되었다. 後面에 平六當五라고 적혀 있다. 상평통보 당오전은 고종 20년(1883년)에 만들어진 동전이다. 직경 3.0㎝, 두께 0.1㎝, 무게 5g

4) 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0, 사진 268)

4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6.5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40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관 함몰로 인하여 1·2·3층이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4·5층은 충전토이며 6층 황갈색 사질점토는 바닥을 다져 6㎝정도 깔았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0×50×28㎝(4.2:1), 목관은 목관흔 잔존상태로 보아 183×38㎝(4.82:1)로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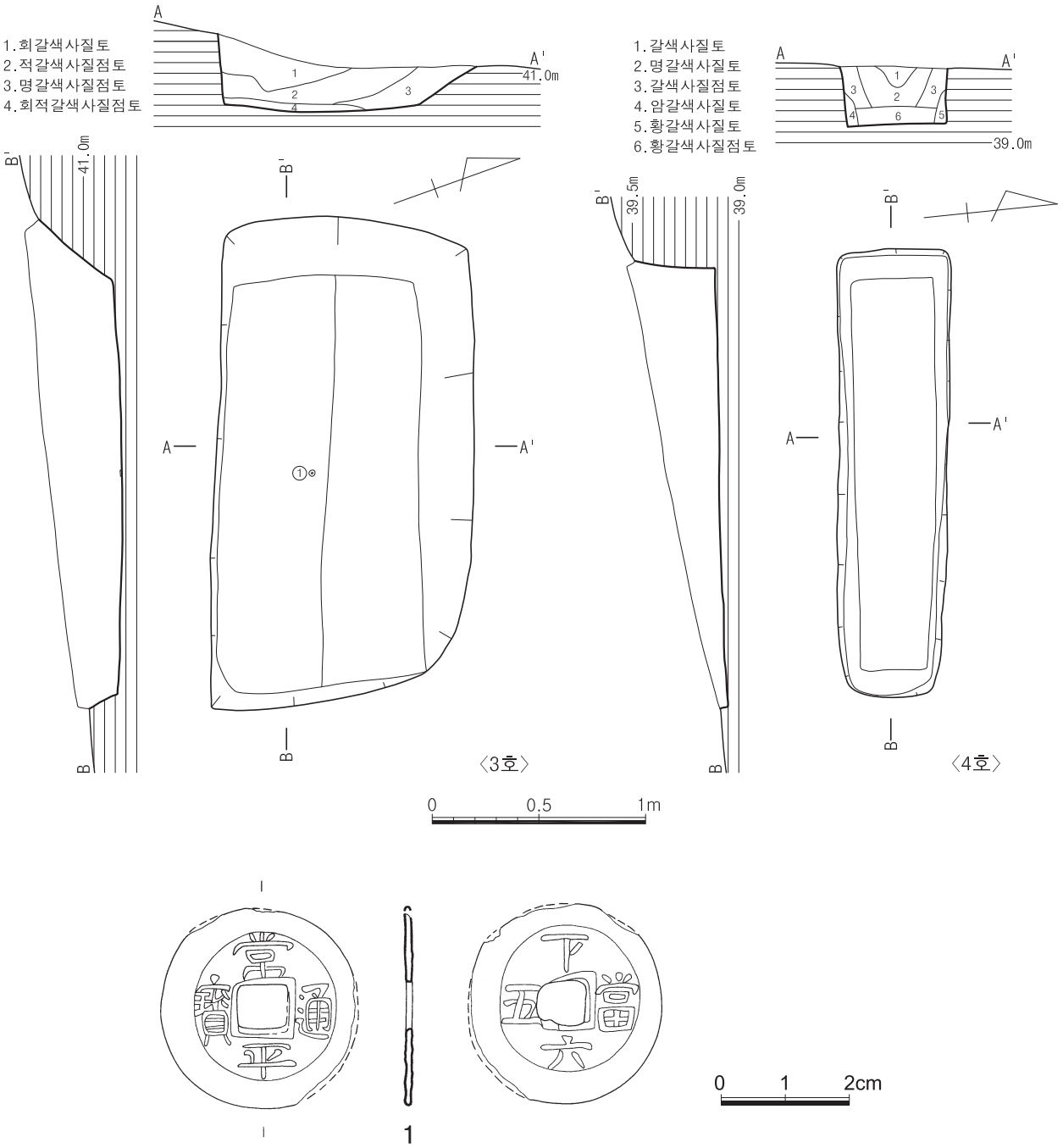
5) 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1, 사진 269)

5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16.5m지점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동북쪽 37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22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1~3층은 관 함몰로 인한 상부토로 'U'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4~8층은 불규칙적으로 함몰되었다. 바닥은 암반풍화토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충전토는 7·9~14층으로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순차적으로 다져서 시설하였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만 일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4×95×47㎝(2.67:1), 목관은 중앙에 위치하며 209×55㎝(3.8:1)로 일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요갱은 중심선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규모 33×32×4㎝로 시설하였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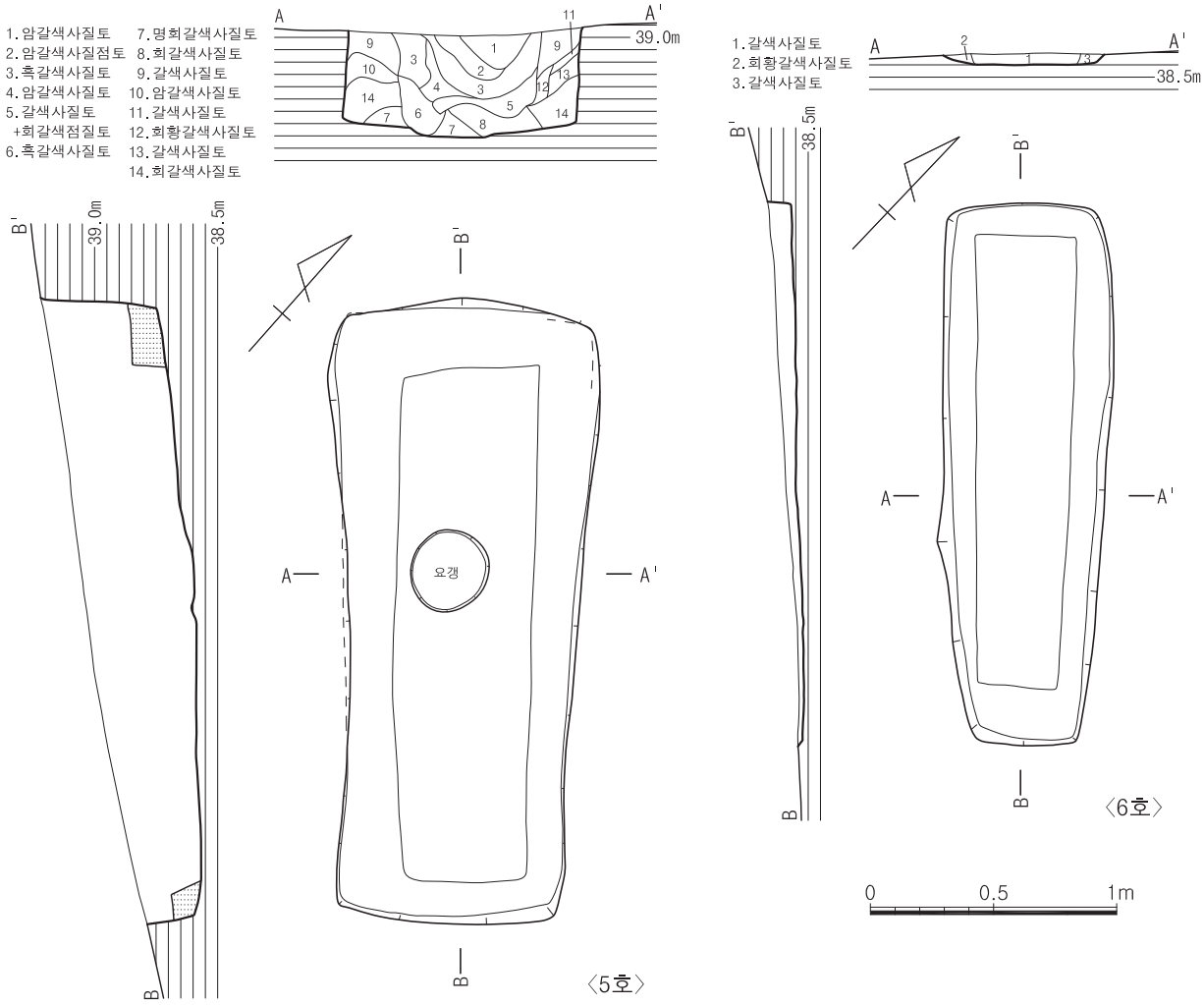


도면 190. 3지점 조선 3·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호)

6) 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1, 사진 269)

6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 서남쪽



도면 191. 3지점 조선 5·6호 토광묘 유구

37m지점에 조선시대 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6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바닥토, 2·3층은 충전토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까지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0×65×10㎝(3.38:1), 목관은 북벽에 약간 치우쳐 있고, 잔존하는 목관흔으로 보아 규모는 183×38㎝(3.8:1)로 토광목관묘이다.

7) 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2, 사진 270)

7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북동쪽 17.5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32m이다.

층위는 내부토 중 1~5층까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며 9층 암갈색 사질토는 바닥토로 관재가 혼재되어 있다. 10층 암갈색 사질토와 11층 명갈색 사질점토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0×104×49㎝(2.4: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208×57㎝(3.65:1)로 토광목관묘이다.

8) 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2, 사진 270)

8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 서남쪽 17.5m지점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64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2층에서 관재가 함께 출토되며 4층 암갈색 사질점토와 5층 적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상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S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8×78×49㎝(2.92:1), 목관은 중앙에서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85×38㎝(4.87: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정이 북벽 주변에서 3점, 남벽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관의 상부와 하부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④ 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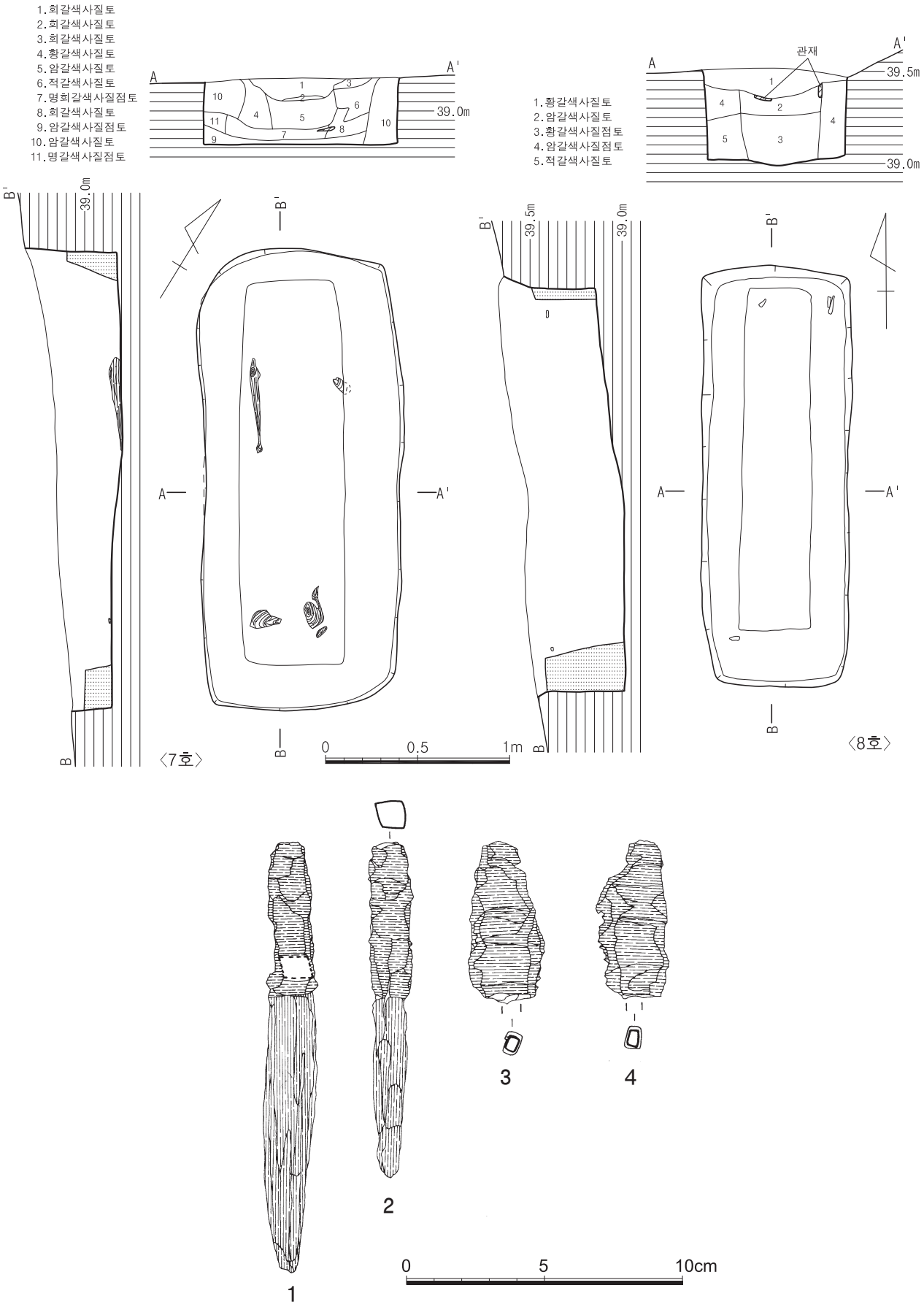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92-1	270-⑦	15.6	1.0	0.8	5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②	192-2	270-⑧	12.2	1.0	1.0	30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③	192-3	270-⑨	(5.9)	0.5	0.6	25	머리부분만 남아있음, 횡방향 목질흔
④	192-4	270-⑩	(5.7)	0.5	0.8	21	머리부분만 남아있음, 횡방향 목질흔

9) 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3, 사진 271)

9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동북쪽 21m지점에 고려시대 주공군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59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6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는 충전토 상면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적갈



도면 192. 3지점 조선 7·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8호)

색 점토층인 갱신세층을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9×100×41㎝(2.59:1), 목관은 중앙에서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으며 규모는 202×59㎝(3.42:1)로 토광목관묘이다.

10) 1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3, 사진 272)

10호 토광묘는 서남쪽 능선 남사면 계곡부 쪽으로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20m지점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서북쪽 18.5m지점에 조선시대 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8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함몰로 인하여 1층은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8층은 충전토이며 4층 회갈색 사질점토는 바닥에 12㎝정도 깔아 관을 놓는 상면을 정리하였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7°-W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0×84×97㎝(2.74:1), 목관은 남장벽에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208×75㎝(2.77:1)로 토광목관묘이다.

내부시설은 장타원형 토갱 3개가 머리-허리-발치에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에 회갈색 사질점토를 깔았다. 머리쪽은 69×40×15㎝, 허리쪽 75×44×6㎝, 발치쪽 40×24×6㎝ 크기로 관을 거치하기 위한 용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11) 1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3, 사진 272)

11호 토광묘는 북쪽 정상부 평평한 서남사면 상부에 위치하며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12호 토광묘, 서남쪽 9m지점에 고려시대 주공군이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3.8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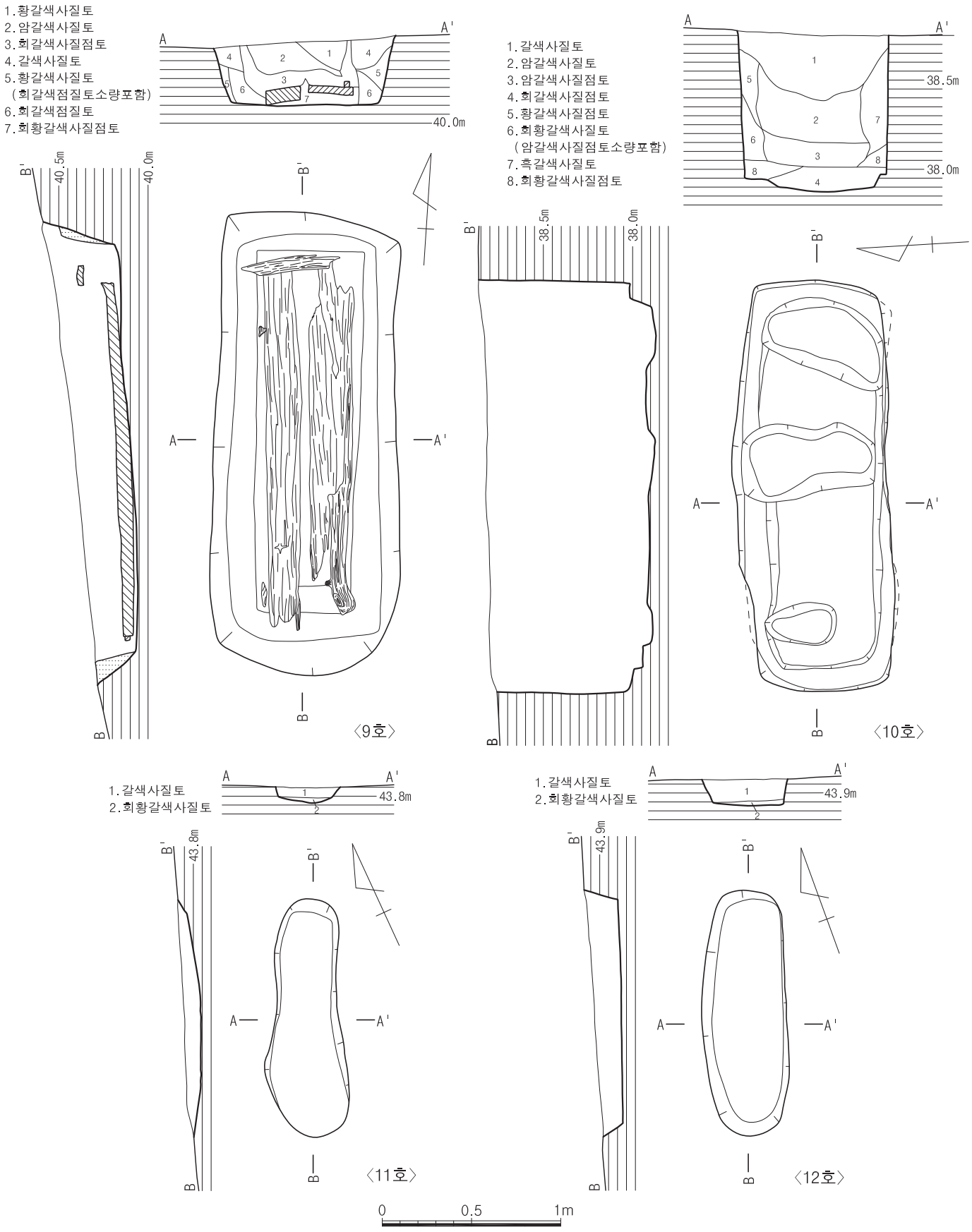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존상태는 평평한 지형으로 삭평에 의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3×36×7㎝(3.69:1)로 토광직장묘이다.

12) 1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3, 사진 273)

12호 토광묘는 북쪽 정상부 평평한 서남사면 상부에 위치하며 서쪽 3m지점에 조선시대 11호 토광묘, 남동쪽 6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3.98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상부에는 'L'자형, 하부에는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8×48×19㎝(2.88: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193. 3지점 조선 9·10·11·12호 토광묘 유구

13) 1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4, 사진 273)

1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30m지점에 조선시대 1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해발고도는 39.19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황갈색 사질토는 관 뒤채움토, 4층 회황갈색 사질토는 정지흔이 있는 바닥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64×19㎝(3.16: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으며 규모는 157×44㎝(3.57: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정이 북벽 관선 주변과 남벽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94-1	273-⑦	6.6	0.6	0.4	10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②	194-2	273-⑧	(5.0)	0.5	0.5	5	선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③	194-3	273-⑨	(6.1)	0.6	0.4	5	신부 일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14) 1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4, 사진 274)

1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m지점에 고려시대 석곽묘, 남동쪽 5.5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 남동쪽 9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6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함몰토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는 충전토가 유실되었으며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20×85×28㎝(2.59: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95×42㎝(4.64:1)로 토광목관묘이다.

15) 1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4, 사진 274)

1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에 잇대어 고려시대 석곽묘, 서북쪽 5.5m지점에 조선시대 14호 토광묘, 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1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09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 명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6×82×21㎝(2.76: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5×39㎝(4.49: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벽 관선 주변에서 관정 3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194-4	274-⑦	(5.0)	0.4	0.4	3	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②	194-5	274-⑧	(4.9)	0.4	0.5	5	말단부 결실
③	194-6	274-⑨	5.5	0.4	0.5	3	완형, 'S'자형으로 구부러짐

16) 1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5, 사진 275)

1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5.5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북쪽 3m지점에 조선시대 1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3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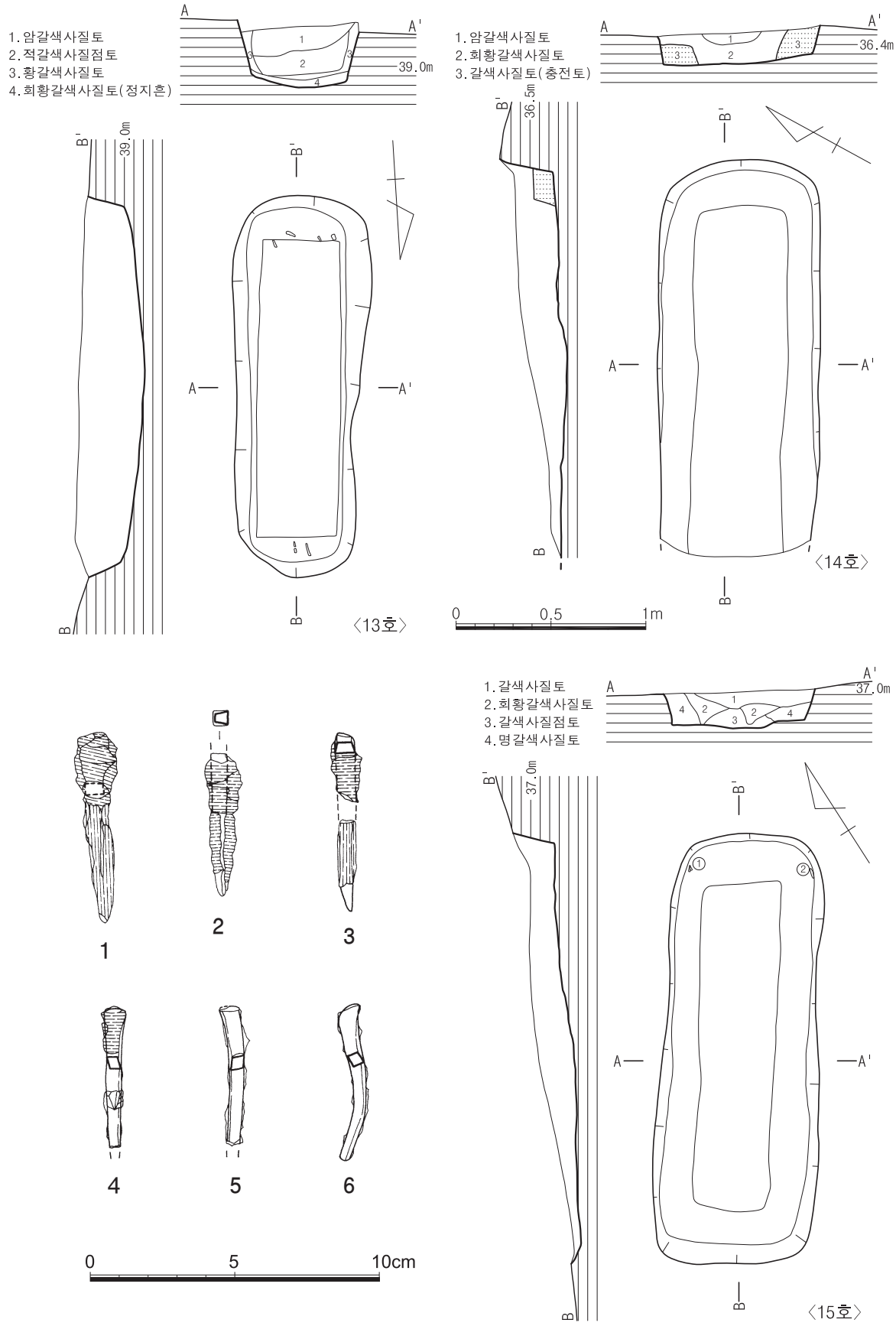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7×54×36㎝(3.83:1)로 토광직장묘이다. 요갱은 남단벽 중앙에 잇대어 위치하며 규모는 18×17×6㎝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장벽 가슴쪽 암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95-1, 사진 275-④)

술잎의 가운데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은 柳葉形으로 두께가 얇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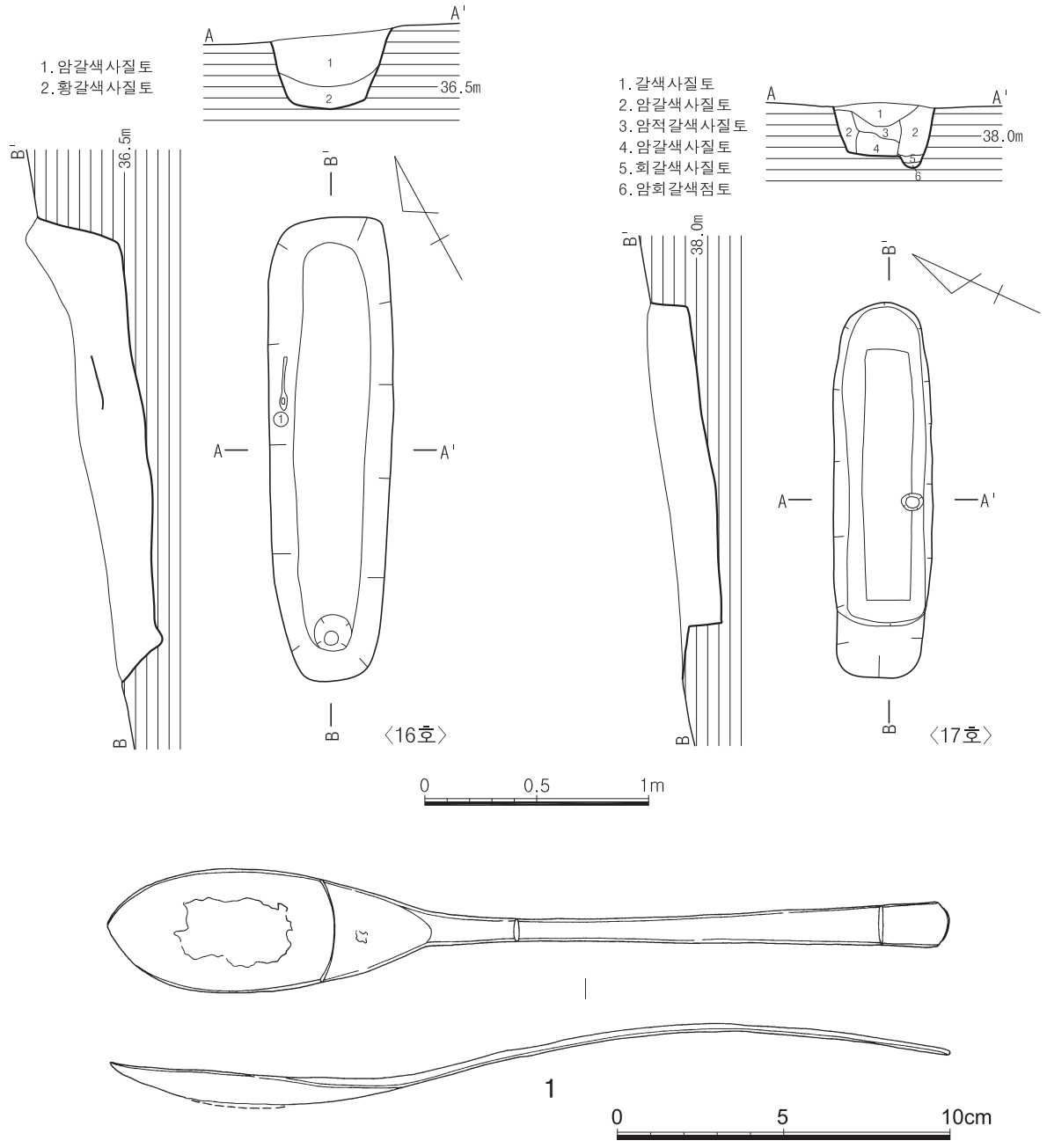
도면 194. 3지점 조선 13·14·1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13호, 4~6:15호)

아진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의 단면형태는 반원형에 가깝고,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25.4㎝, 술잎길이 9.7㎝, 술잎폭 3.7㎝, 무게 22g

17) 1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5, 사진 275)

1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 남서쪽



도면 195. 3지점 조선 16·1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16호)

7.5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7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1층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장벽 관선 아래 홈에서 회갈색 사질토-암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68×45×20㎝(3.73:1), 목관은 112×22㎝(5.09:1)로 토광목관묘이다.

홈은 남장벽 허리 아래쪽 관선에서 규모 지름 10×7㎝로 확인되었는데, 내부토의 색깔이 회갈색인 점으로 보아 목재를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18) 1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6, 사진 276)

1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17호 토광묘, 남서쪽 5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 남동쪽 6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73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을 이루고 있다. 3층 갈색 점토는 충전토이며 바닥은 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를 깔았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2×81×26㎝(2.74:1), 목관은 196×48㎝(4.08:1)로 토광목관묘이다. 바닥은 허리 주변 아래쪽으로 깊이 10㎝ 정도의 넓은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를 메꾸기 위해 6~8층의 사질토를 깔았다.

유물은 발치쪽 북장벽 서측 모서리 암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완 1점과 관정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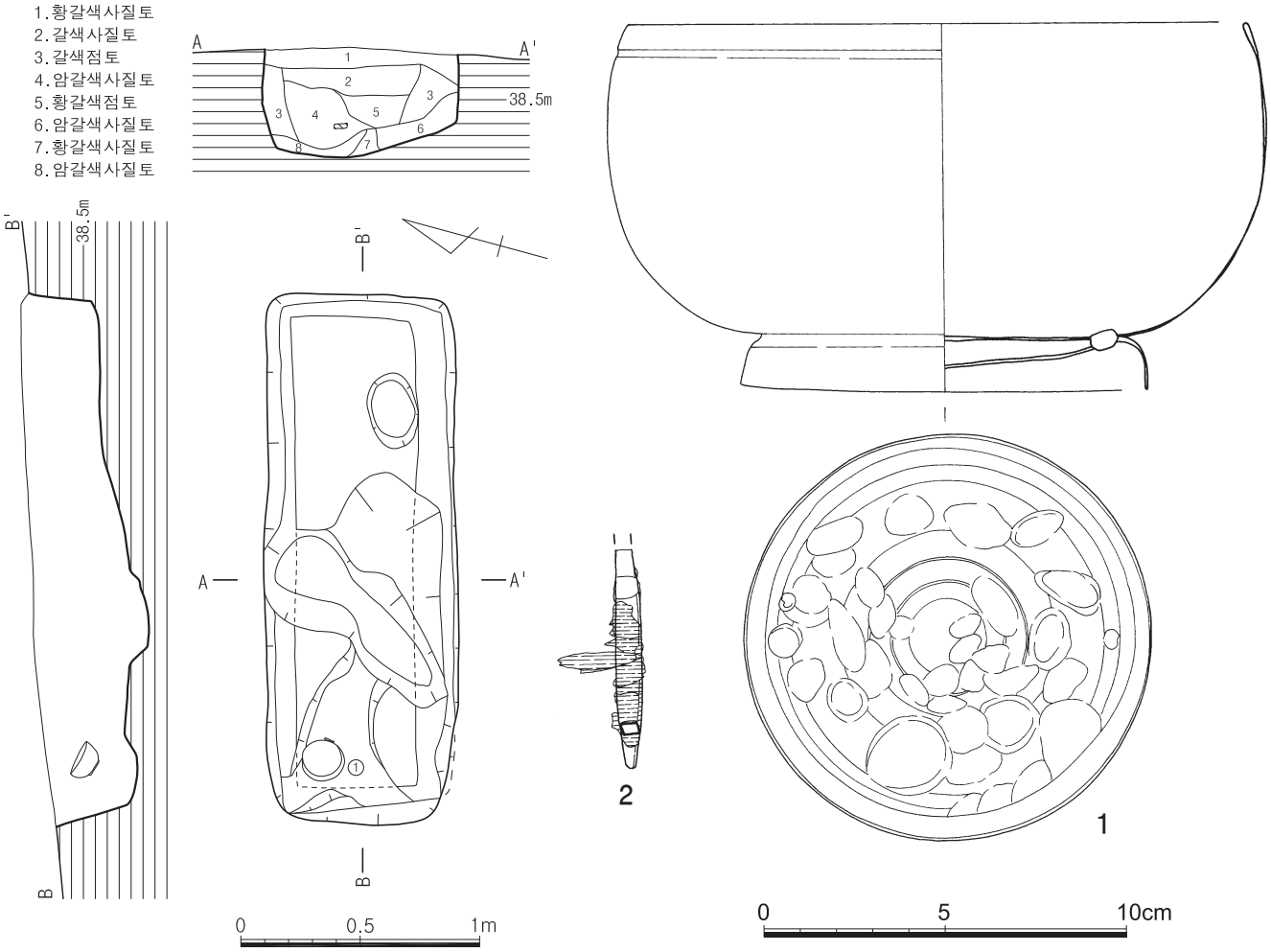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196-1, 사진 276-⑤)

청동대부완으로 완형이다. 일부 부식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는 둥근형태로 신부의 두께는 얇고 구연단은 도톰하게 처리되었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저부에는 낮은 대각이 부착되어 있고, 2곳에 원두정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완신과 대각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시켰다. 대각내면에는 회전깎기한 후 눌러 문지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고 10.3㎝, 구경 17.0㎝, 각경 11.2㎝, 무게 353g

② 관정(도면 196-2, 사진 276-⑥)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횡방향의 목질흔이 있다. 현길이 6.1㎝, 폭 0.4㎝, 두께 0.3㎝, 무게 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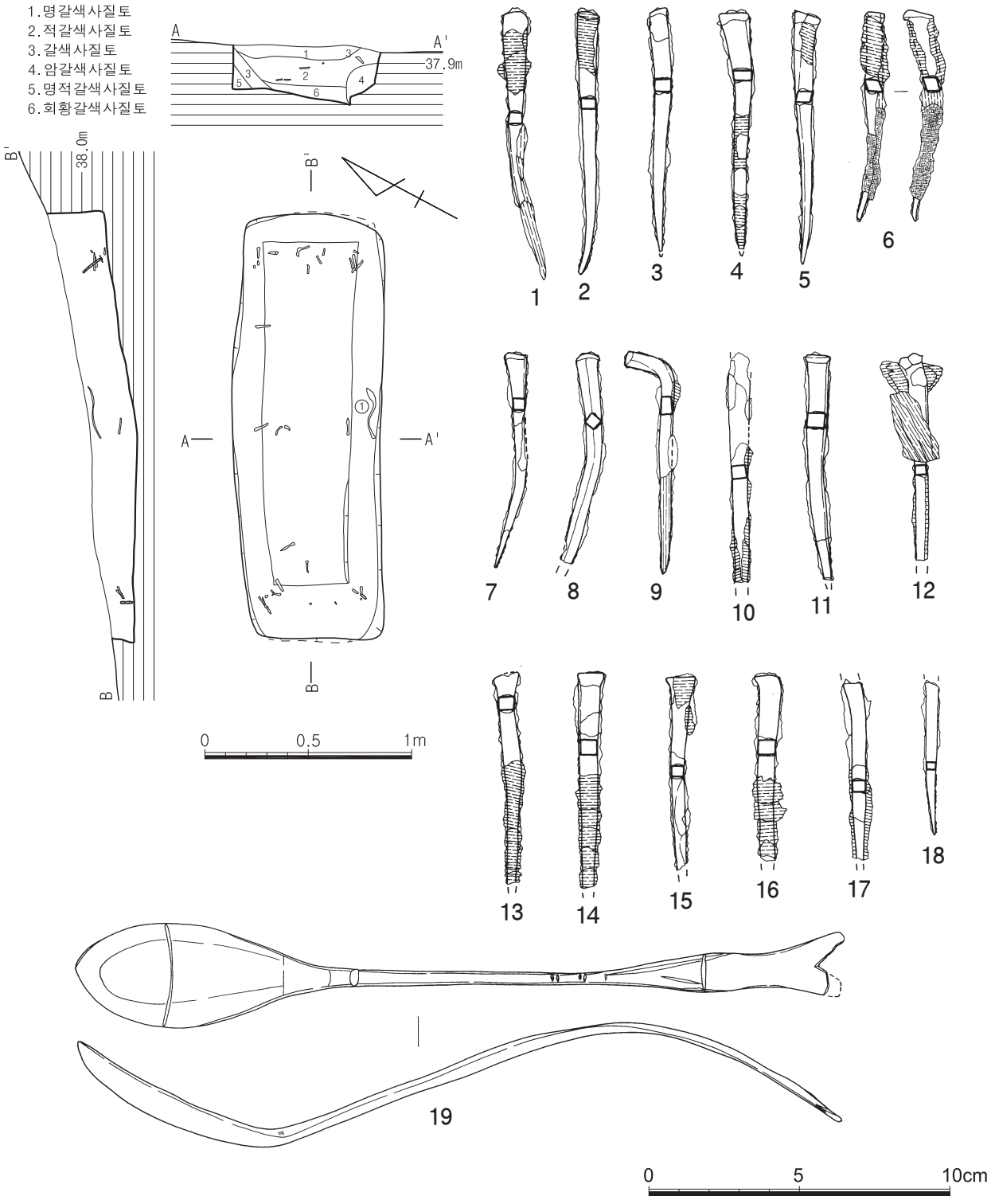
도면 196. 3지점 조선 1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19) 1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7, 사진 277)

1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동북쪽 5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 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17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을 이루고 있다. 3~5층은 사질토로 충전토이며 6층 회황갈색 사질토는 바닥토로 정지하여 깔았다. 잔존상태는 자연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5×71×27㎝(2.89:1), 목관은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66×42㎝(3.95: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197. 3지점 조선 1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은 허리쪽 남장벽과 남측 관선 사이 충전토 상부에서 청동숟가락 1점과 관정이 북벽과 남벽 관선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97-19, 사진 277-⑤)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대의 끝부분 일부가 결실되었다.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2줄씩 등간격으로 얕고 짧은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V' 자형으로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말단부 단면은 세장타원형이다. 길이 25.5㎝, 술잎길이 8.5㎝, 술잎폭 3.5㎝, 무게 43g

②~⑲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197-1	277-⑥	9.1	0.5	0.5	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살짝 휘어짐
③	197-2	277-⑦	8.9	0.5	0.5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말단부가 살짝 휘어짐
④	197-3	277-⑧	(9.2)	0.6	0.5	5	말단부 결실
⑤	197-4	277-⑨	(8.1)	0.6	0.4	4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에 횡방향 목질흔
⑥	197-5	277-⑩	8.5	0.5	0.4	6	완형, 머리부분에 횡방향 목질흔
⑦	197-6	277-⑪	7.1	0.5	0.5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에 포흔이 있음
⑧	197-7	277-⑫	7.2	0.4	0.5	4	완형
⑨	197-8	277-⑬	(7.1)	0.4	0.4	5	말단부 결실
⑩	197-9	277-⑭	7.5	0.4	0.6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선단부가 'ㄱ' 자로 꺾임
⑪	197-10	277-⑮	(7.7)	0.6	0.5	7	선단부·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⑫	197-11	277-⑯	(7.7)	0.6	0.5	8	말단부 결실, 휘어짐
⑬	197-12	277-⑰	(7.0)	0.4	0.4	8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에 횡방향과 사방향의 목질흔
⑭	197-13	277-⑱	(7.1)	0.6	0.5	6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⑮	197-14	277-⑲	(7.3)	0.6	0.5	9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⑯	197-15	277-⑳	(6.6)	0.5	0.4	5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⑰	197-16	277-㉑	(6.4)	0.6	0.5	8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⑱	197-17	277-㉒	(6.1)	0.5	0.4	5	신부만 남음,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⑲	197-18	277-㉓	(5.1)	0.4	0.3	1	머리부분 결실

20) 2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8, 사진 278)

2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서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3m지점에 조선시대 19호 토광묘, 남장벽에 잇대어 조선시대 21호 토광묘, 동쪽 3.5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17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갈색 사질토는 바닥을 정지하여 깔았으며 5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관선 상부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7×61×16㎝(3.72:1), 목관은 동단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5×36㎝(4.86: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 아래 부장공간에 위치하며 황갈색 사질토에서 출토되었다. 분청사기 접시 2점이 나란히 뒤집어진 상태로, 청동숟가락 1점이 남장벽과 서단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관정은 동단벽과 서단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2) 유물

① 분청사기접시(도면 198-1, 사진 278-④)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굽은 안굽이며 기벽은 둥근 곡면으로 올라가 그대로 구연으로 이어진다. 넓고 평평한 안바닥에 각 2줄의 음각선으로 구획한 후 중심에 큼지막한 국화문을 두고 음각선 사이에 연판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벽에는 구연 아래에 음각선을 넣고 그 아래에 초문과 물오리문을 번갈아 시문하였다. 외벽은 동중위에 3조의 음각선을 넣고 상감하였다. 유색은 탁한 녹회색으로 굽안을 제외하고 유약을 입혔는데 구연부분은 시유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굽안쪽은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로 꾹꾹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3.3㎝, 구경 13.3㎝, 저경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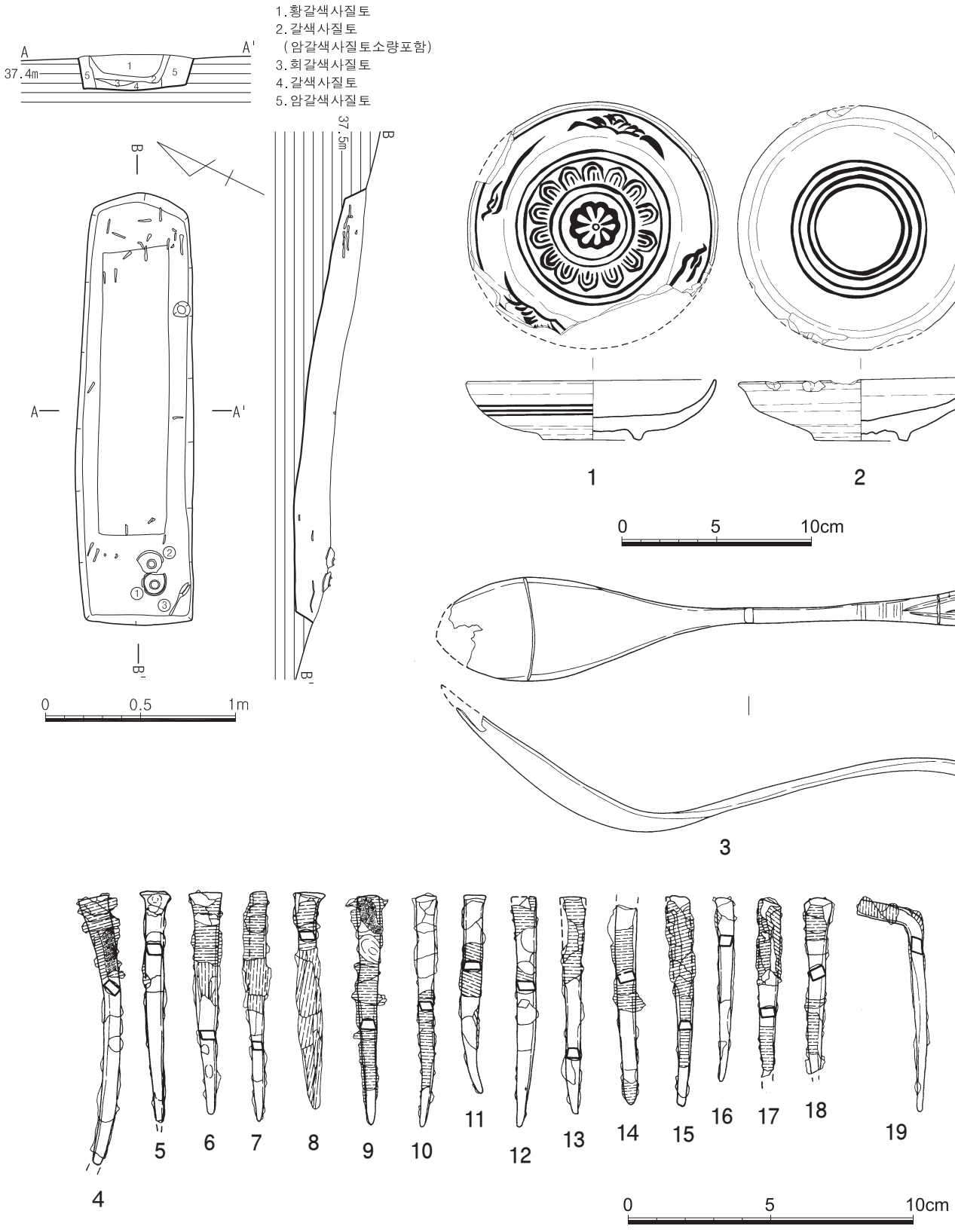
② 분청사기접시(도면 198-2, 사진 278-⑤)

완형이다. 굽은 안굽이며, 기벽은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다가 구연 아래에서 한번 꺾인 후 구연에서 외반한다. 구연의 윗면은 폭이 좁은 전을 이룬다. 안바닥은 넓고 평평하며 안바닥의 중간부분에 4조의 음각선을 돌린 후 백토분장하였다. 굽안쪽에는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로 누른 흔적이 있다. 유색은 회녹색조이나 유층의 산화로 인해 광택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녹갈빛을 띤다. 안바닥에는 받침흔적은 없으나 작은 이물질이 붙어 있으며 접지면에는 3곳에 태토받침 탈락흔이 보인다. 고 3.4㎝, 구경 12.5㎝, 저경 5.0㎝

③ 청동숟가락(도면 198-3, 사진 278-③)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 말단부와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 형태인데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3줄씩 등간격으로 얕고 짧은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3줄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가운부분 단면은 방형이고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에 가깝다. 현길이 18.2㎝, 술잎폭 3.6㎝, 무게 29g

④~⑲ 관정



도면 198. 3지점 조선 2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④	198-4	278-⑥	(9.5)	0.6	0.3	10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전체적으로 휘어짐
⑤	198-5	278-⑦	(8.0)	0.6	0.4	5	말단부 결실, 일부에 횡방향 목질흔
⑥	198-6	278-⑧	7.9	0.5	0.3	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⑦	198-7	278-⑨	8.1	0.3	0.3	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⑧	198-8	278-⑩	7.6	0.5	0.3	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⑨	198-9	278-⑪	8.0	0.6	0.4	6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선단부에 포흔 있음
⑩	198-10	278-⑫	8.2	0.4	0.3	6	완형,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⑪	198-11	278-⑬	7.0	0.6	0.3	5	완형, 신부 일부에 횡방향 목질흔, 말단부가 휘어짐
⑫	198-12	278-⑭	8.1	0.6	0.4	6	선단부 일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⑬	198-13	278-⑮	7.6	0.5	0.3	6	신부 일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⑭	198-14	278-⑯	(7.0)	0.6	0.4	7	선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⑮	198-15	278-⑰	7.4	0.5	0.3	7	선단부 일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⑯	198-16	278-⑱	6.5	0.4	0.4	3	완형
⑰	198-17	278-⑲	(6.3)	0.5	0.3	7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⑱	198-18	278-⑳	(6.2)	0.5	0.4	6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⑲	198-19	278-㉑	7.5	0.4	0.5	6	완형, 선단부가 'ㄱ' 자형으로 구부러짐, 횡방향 목질흔

21) 2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9, 사진 279)

2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조선시대 22호 토광묘와 중복, 북단벽에 잇대어 조선시대 20호 토광묘, 남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64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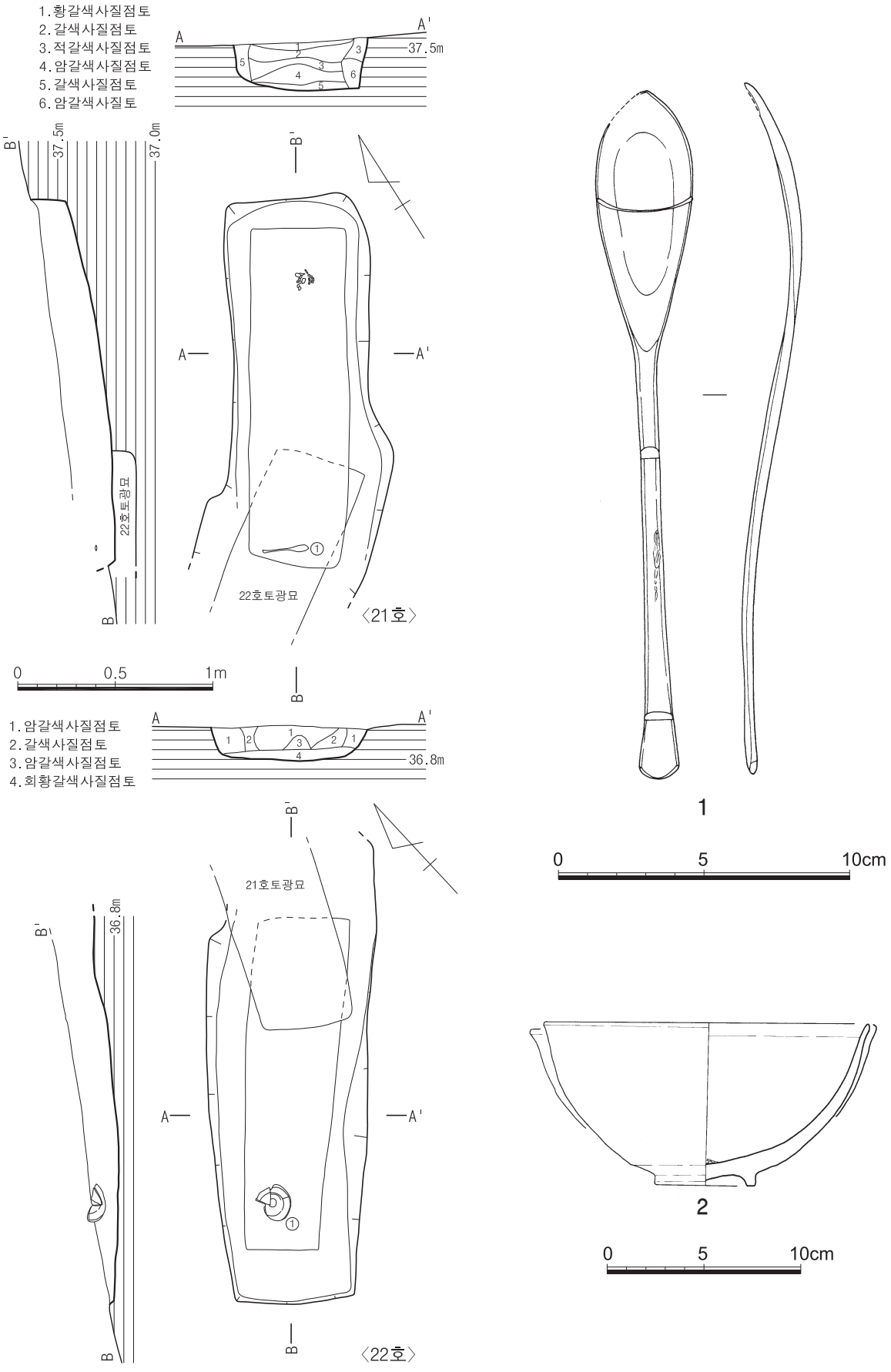
층위는 황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을 이루고 있다. 3·5·6층은 충전층이며 5층 갈색 사질점토층은 정지하여 바닥에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단부는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0×68×18㎝,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3×50㎝(3.46: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발치쪽 남단벽 관선 안쪽 암갈색 사질점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199-1, 사진 279-⑤)

완형의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부분이 조금 부식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며, 두께감이 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넓어지고 조금 얇아진다.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23.7㎝, 술잎길이 8.9㎝, 술잎폭 3.3㎝, 무게 41g



도면 199. 3지점 조선 21·2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1호, 2:22호)

22) 2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199, 사진 280)

2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조선시대 21호 토광묘와 중복,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1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회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은 불규칙적이다. 1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4층 회황갈색 사질점토는 바닥에 정지하여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는 어깨선까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6×80×24㎝(2.95:1), 목관은 북벽과 동벽 모서리쪽으로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0×39㎝(4.36: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발치쪽 남단벽 관선 안쪽 암갈색 사질점토에서 분청사기발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분청사기발(도면 199-2, 사진 280-⑤)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굽은 죽절형식으로 깎았으며 굽안쪽도 나선형으로 돌려깎았는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다. 기벽은 곡사선으로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유조는 회갈색이며 유약을 다소 얇게 입혔는데 외면에는 군데군데 유약이 입혀지지 않아 갈색 태토가 드러나 있다. 안바닥에 받침흔적은 없으며 소성시에 부착된 이물질이 있고 접지면에는 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8.6㎝, 구경 16.8~17.9㎝, 저경 5.3㎝

23) 2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0, 사진 281)

2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동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동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2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5층 암적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는 어깨선 하부까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5×66×28㎝(2.95:1), 내광은 167×38×5㎝이다. 목관은 내광의 크기와 동일한데, 이단굴광선을 그대로 이용하여 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는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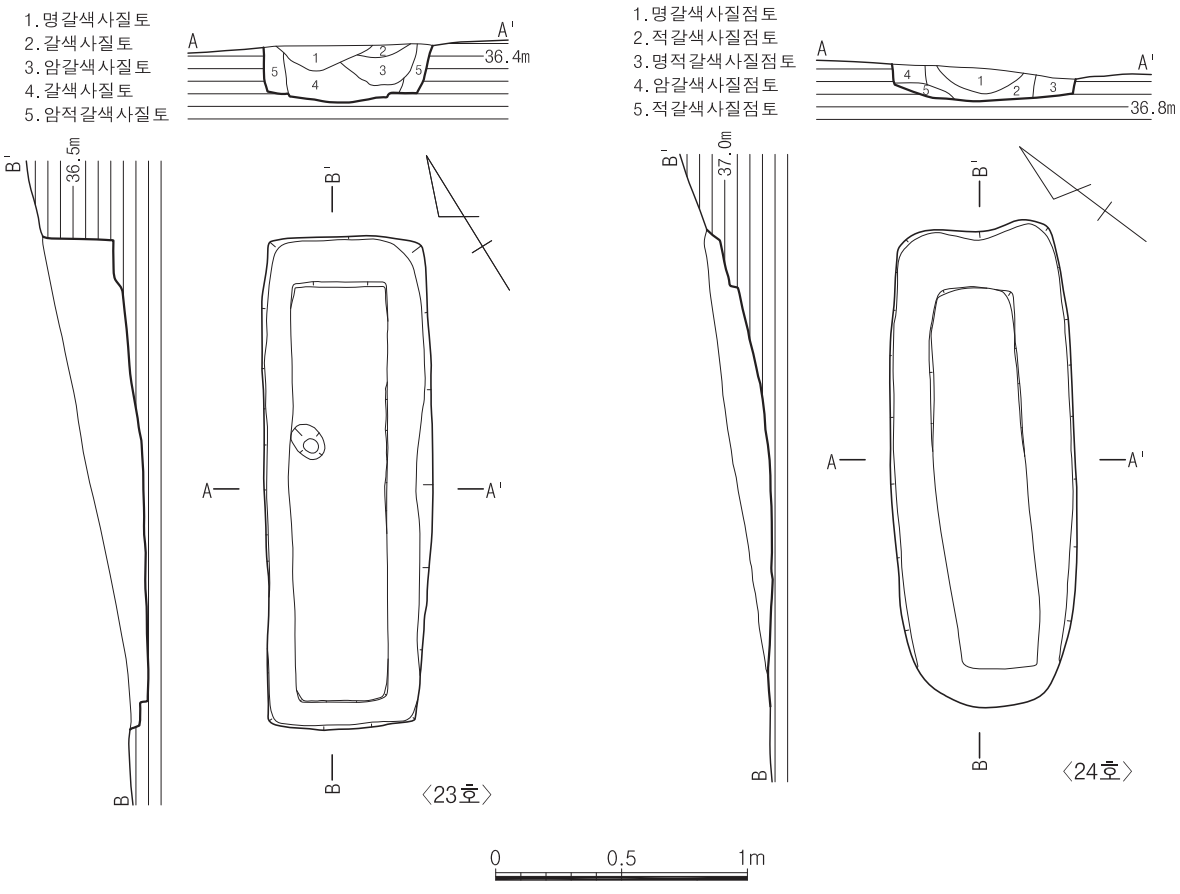
수혈은 중심선에서 서쪽 관선에 잇대어 허리쪽에 위치하며 규모는 17×12×5㎝이다. 용도는 알 수 없다.

24) 2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0, 사진 281)

2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2호 토광묘,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5호 토광묘, 동쪽 0.7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07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3층 명적갈색 사질점토와 4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9×72×6㎝(2.63:1), 내광은 151×35×3㎝(4.31:1)이다. 목관은 내광의 크기와 동일한데, 이단굴광선을 그대로 이용하여 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는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00. 3지점 조선 23·24호 토광묘 유구

25) 2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1, 사진 282)

2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3호 토광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31m이다.

층위는 갈색 점토-적갈색 점토-명갈색 점토-황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 적갈색 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는 어깨선 위쪽이 유실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8×53×12㎝(4.3:1), 내광은 183×44×4㎝(4.16:1)이다. 목관은 내광의 크기와 동일한데, 이단굴광선을 그대로 이용하여 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며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머리쪽 황갈색 점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가로 놓인 채로 출토되었는데, 관 내부에 부장하였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01-1, 사진 282-③)

부식이 심한 편으로 술잎 일부와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다. 현복원길이 16.7㎝, 무게 13g

26) 2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1, 사진 282)

2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24호 토광묘,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1호 토광묘, 동북쪽 2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1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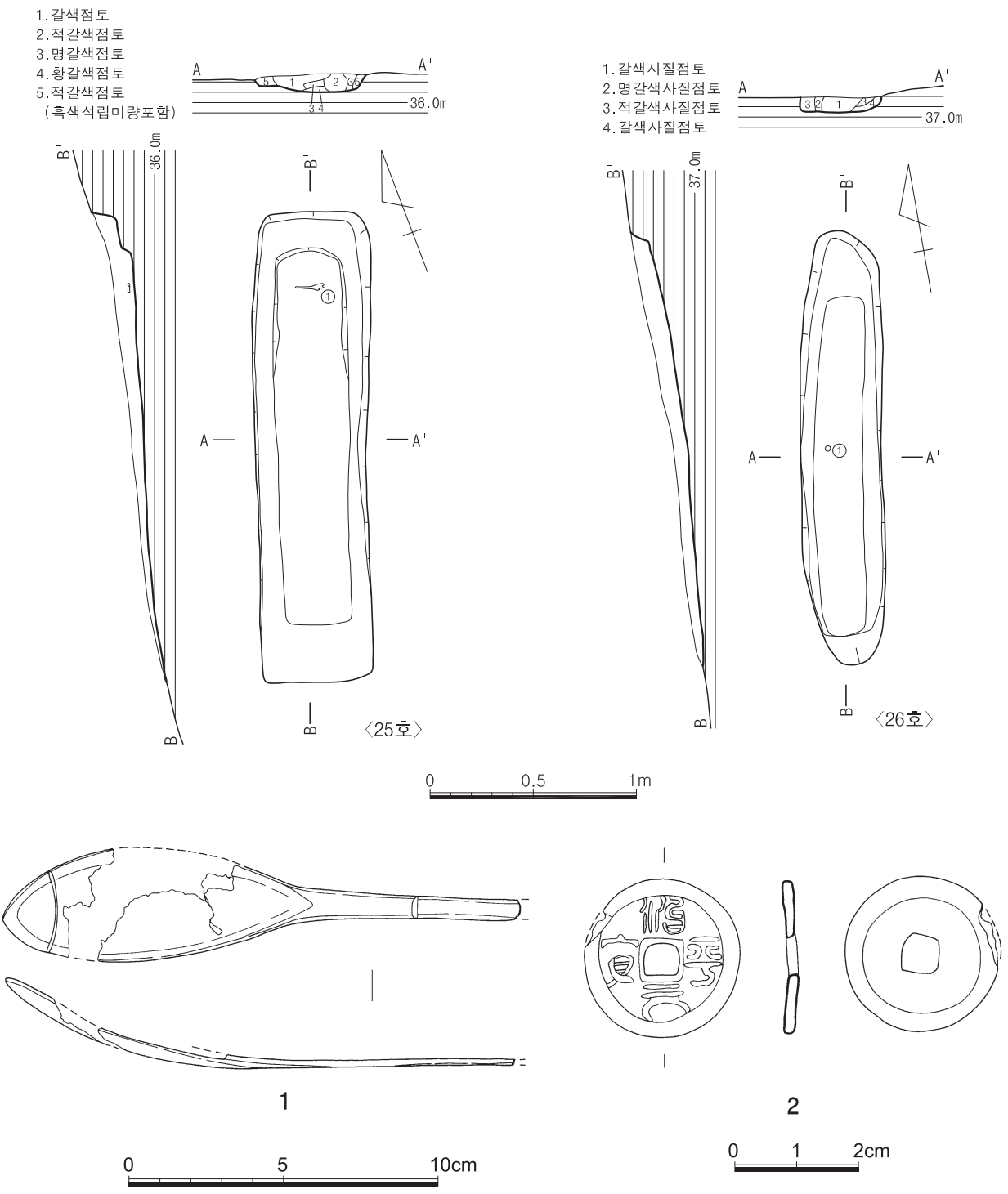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삭평에 의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므로 퇴적상황은 불명확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0×40×8㎝(5.25:1), 목관은 164×24㎝(6.83:1)로 남벽에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허리쪽 서단벽쪽으로 치우쳐 갈색 사질점토에서 동전 1점이 출토되었는데 관 내부에 부장하였다.

(2) 유물

① 동전(도면 201-2, 사진 282-⑧)

외연일부가 결실되었다. 부식으로 인해 판독이 어렵다. 직경 2.5㎝, 두께 0.2㎝, 무게 3g



도면 201. 3지점 조선 25·2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5호, 2: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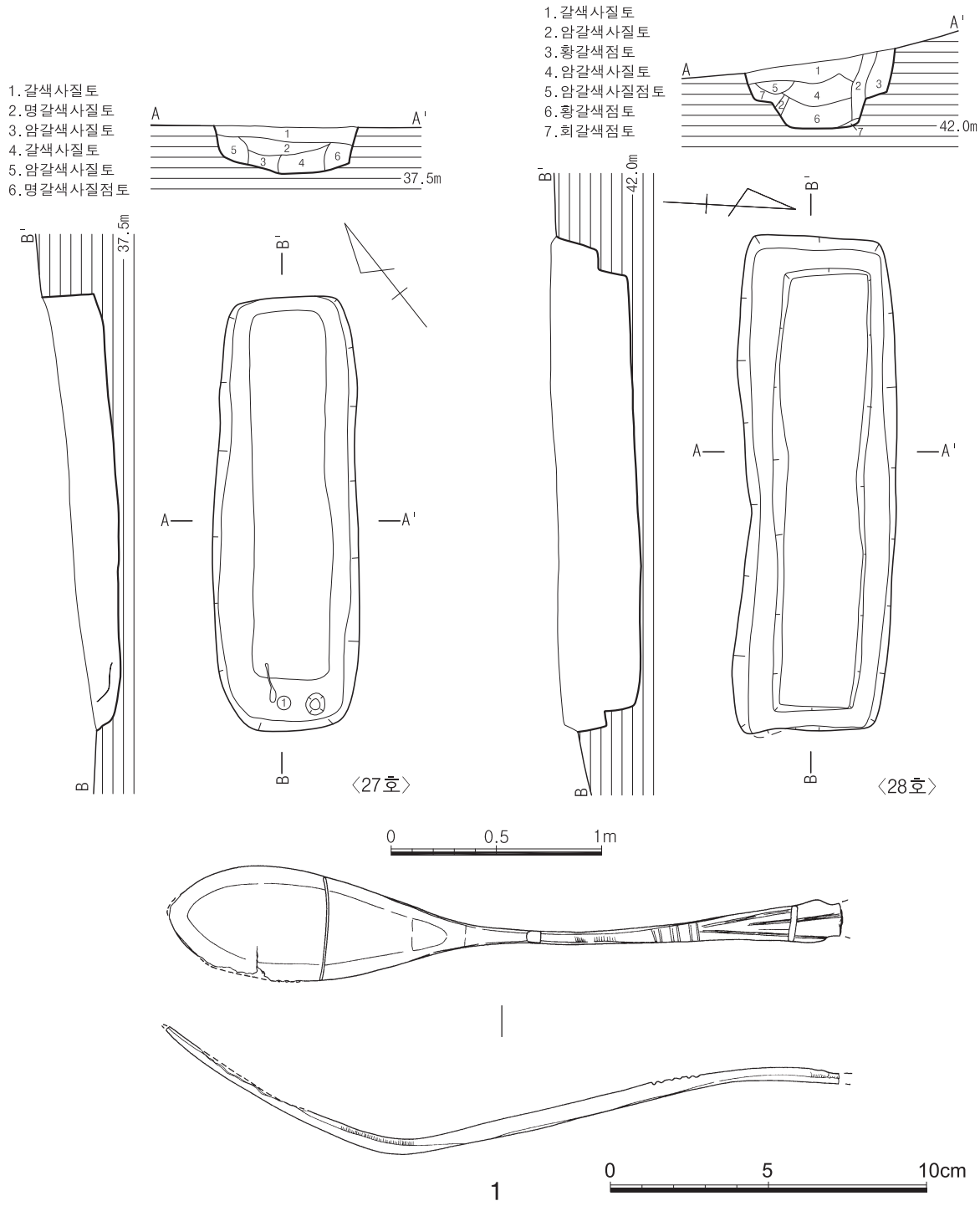
27) 2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2, 사진 283)

2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동쪽 4m지점

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 북쪽 6m지점에 조선시대 1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69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5층 암갈색 사질토와 6층 명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



도면 202. 3지점 조선 27·2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27호)

였으며, 묘광 규모는 206×69×25㎝(2.99:1), 목관은 175×37㎝(4.73:1)로 북벽에 치우쳐 배치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단벽과 관선 사이에 중심선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관 외부에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02-1, 사진 283-⑤)

술잎 말단부와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은 편이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이단으로 벌어지는 형태인데 술대 가운데부분에 등간격으로 2줄씩 얕고 짧은 침선을 넣었으며,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3줄의 침선을 새겨넣었다. 술대 가운데부분의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1.3㎝, 술잎폭 3.6㎝, 무게 34g

28) 2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2, 사진 284)

28호 토광묘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동남사면에 위치하며 북쪽 8m지점에 조선시대 1호 야외노지, 북쪽 3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 북동쪽 15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5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점토가 우세하며 남벽쪽으로 함몰되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7°-E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311×85×96㎝(3.66:1), 내광 규모는 270×50×58㎝(5.4:1)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29) 2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3, 사진 285)

2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은 조선시대 31호 토광묘와 중복, 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27호 토광묘, 서쪽 1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57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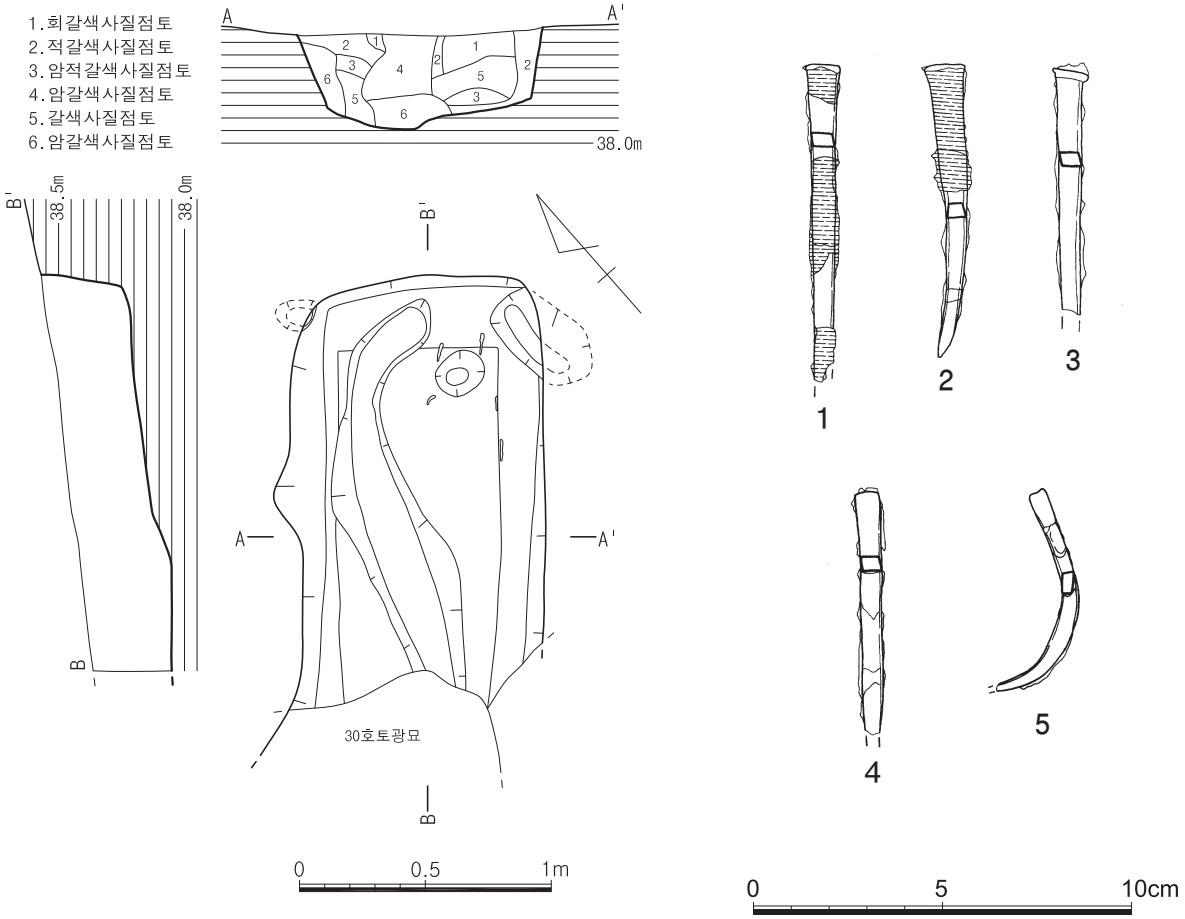
층위는 회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함몰된 양상이다. 2층·6층은 충전토이며 6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함몰시 바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삭평으로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며 하부는 조선시대 30호 토광묘에 의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90×98×33㎝, 목관은 관흔과 관정의 위치로 보아 128×65㎝(1.97: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정 5점이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북단벽 관선 동쪽에 치우쳐 3점, 동장벽 관선 북쪽 모서리쪽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⑤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cm,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03-1	285-⑥	(8.4)	0.6	0.4	10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②	203-2	285-⑦	7.8	0.6	0.4	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③	203-3	285-⑧	(6.6)	0.5	0.4	7	말단부 결실
④	203-4	285-⑨	(6.5)	0.5	0.4	7	말단부 결실
⑤	203-5	285-⑩	(5.3)	0.3	0.6	5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이 구부러짐



도면 203. 3지점 조선 2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30) 3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4, 사진 286)

3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조선시대 29호 토광묘와 중복, 남쪽은 이장묘

로 인해 2/3 유실, 서쪽 1m지점에 고려시대 2호 토광묘, 동쪽 7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38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U' 자형, 2·3층은 사선방향, 5~7층은 수평적으로 퇴적되었다. 8~11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중·하부가 이장묘에 의해 유실되었으며 잔존하는 유구는 상부만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55×88×66㎝, 목관은 관흔과 관정의 위치로 보아 잔존규모 34×38㎝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단벽 관선 주변에서 관정 6점, 북동 모서리 흑갈색 사질토에서 철제 가위 1점, 구슬 3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구슬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직경	두께	구멍직경	무게	
①	204-8	286-④	1.2	0.85	0.4	1	갈색, 원형
②	204-9	286-⑤	1.2	0.95	0.4	1	갈색, 원형
③	204-10	286-⑥	1.4	1.3	0.4	1	갈색, 코일형

④ 철제가위(도면 204-1, 사진 286-⑦)

한쪽 손잡이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鐵棒 2줄을 늘여서 각각 손잡이와 인부를 만들고 경계부에 원두정을 박아 결합하였다. 인부는 길이방향으로 약한 稜을 세워 단면이 'ㅅ' 자 형태를 띤다. 손잡이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구부려 붙였으며 손잡이의 단면은 방형이다. 길이 23.9㎝, 무게 108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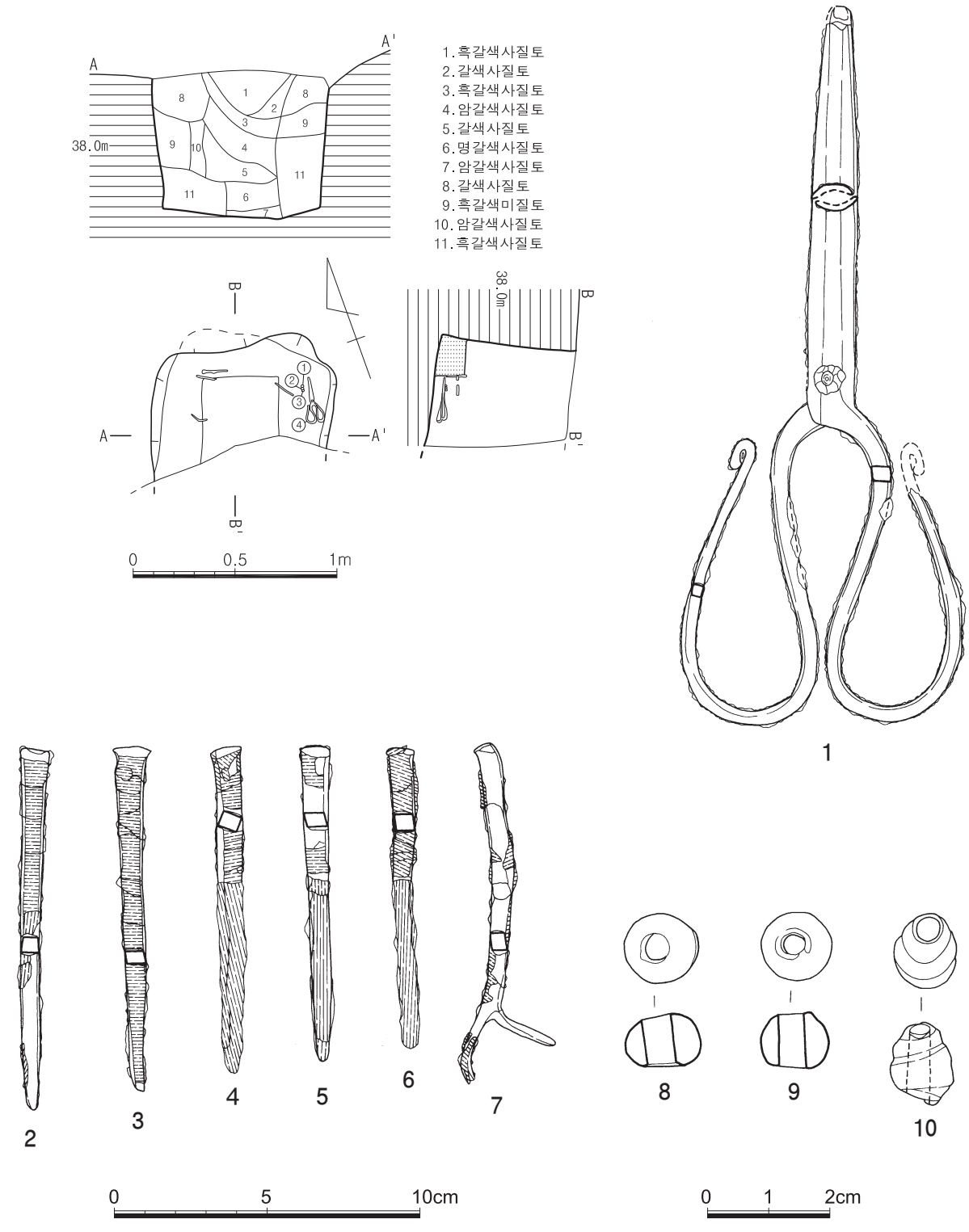
⑤~⑩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⑤	204-2	286-⑧	12.0	0.5	0.5	24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⑥	204-3	286-⑨	11.3	0.6	0.5	22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⑦	204-4	286-⑩	10.7	0.7	0.5	21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⑧	204-5	286-⑪	10.4	0.6	0.5	20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⑨	204-6	286-⑫	10.0	0.6	0.5	1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⑩	204-7	286-⑬	11.1	0.5	0.6	23	완형, 말단부가 'ㅅ' 자형으로 갈라짐,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31) 3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5, 사진 287)

3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이장묘에 의해 북단벽과 동장벽 일부 유실, 서



도면 204. 3지점 조선 3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동남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이장으로 인하여 교란되었다. 3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이장묘로 인하여 북단벽과 동장벽 일부가 유실되었고, 잔존하는 유구는 상부만 일부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0×67×42㎝, 목관은 관흔과 관정의 위치로 보아 잔존규모 193×54㎝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정이 남단벽 관선 주변과, 장벽 관선 주변,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서장벽 발치쪽 관선상에서는 청동완 1점과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완은 관선과 관정의 위치로 보아 관밖에 부장된 것이 토압에 의해 관내로 밀리면서 관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05-1, 사진 28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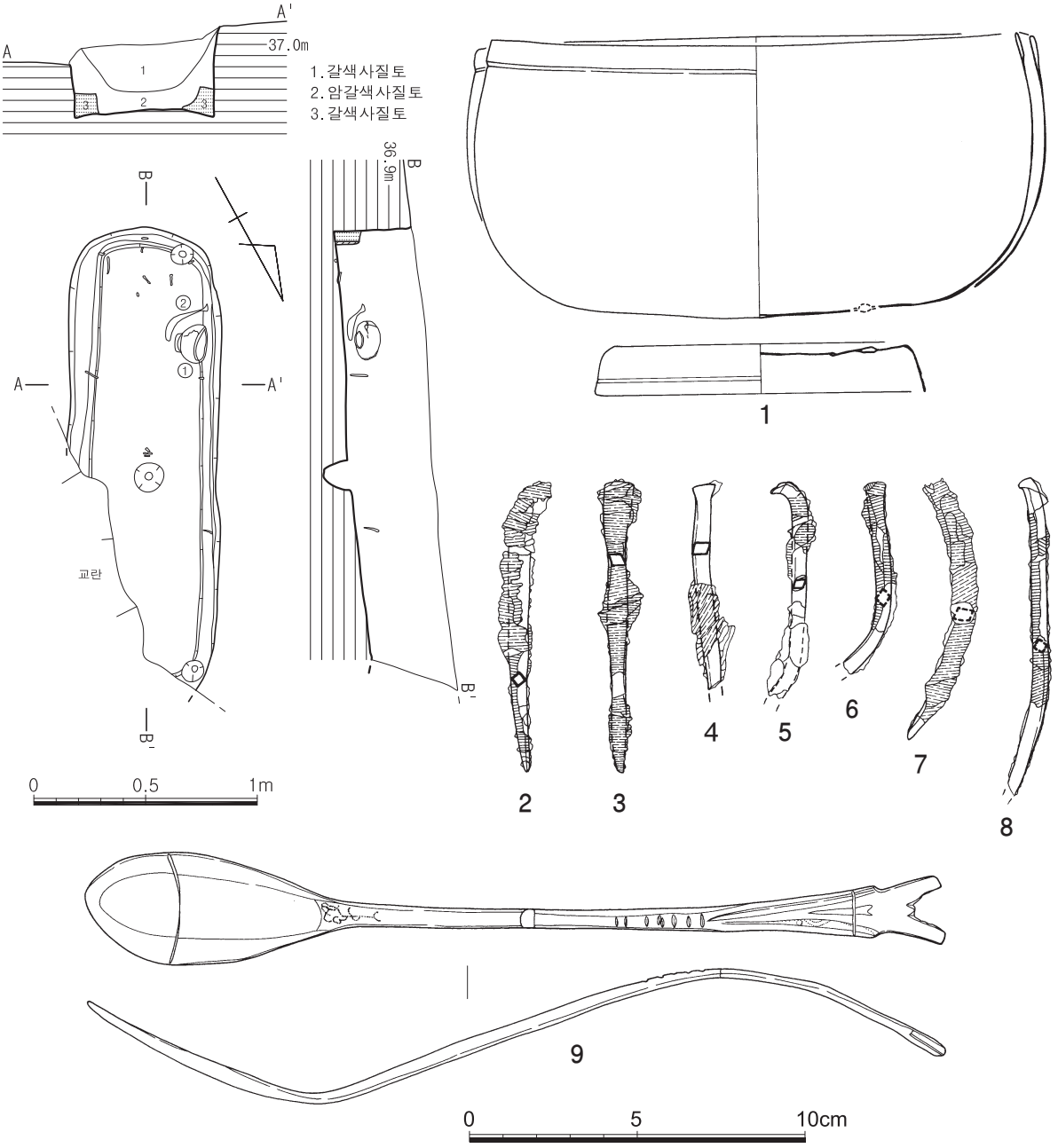
청동대부완으로 완신과 대각이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 대각은 온전하며, 신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둥근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으로 갈수록 약하게 내만한다. 구연부는 도톰하게 처리되었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 자형으로 벌어졌으며 대각단 위에 한줄의 횡침선을 돌렸다. 저면 2군데에 완신과 대각 결합시 박았던 원두정의 흔적이 있다. 내외면으로 회전깎기흔이 남아있다. 고 9.9㎝, 구경 15.6~16.6㎝, 각경 9.8㎝, 무게 188g

② 청동숟가락(도면 205-9, 사진 287-⑫)

완형이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에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이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등간격으로 짧고 얕은 침선을 새겼고,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3줄의 침선을 길게 새겨넣었다. 술잎과 술대의 경계부분과 술대 말단부 침선 일부에 點打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의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말단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25.6㎝, 술잎길이 7.1㎝, 술잎폭 3.3㎝, 무게 42g

③~⑨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05-2	287-⑤	8.8	0.3	0.3	8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선단부가 휘어짐
④	205-3	287-⑥	8.8	0.4	0.4	7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⑤	205-4	287-⑦	(6.2)	0.4	0.3	4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사방향 목질흔
⑥	205-5	287-⑧	(6.5)	0.3	0.3	4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사방향 목질흔, 선단부와 말단부가 휘어짐
⑦	205-6	287-⑨	(5.8)	0.3	0.4	5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이 휘어짐
⑧	205-7	287-⑩	7.9	0.5	0.4	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사방향 목질흔, 전체적으로 휘어짐
⑨	205-8	287-⑪	(9.5)	0.3	0.3	4	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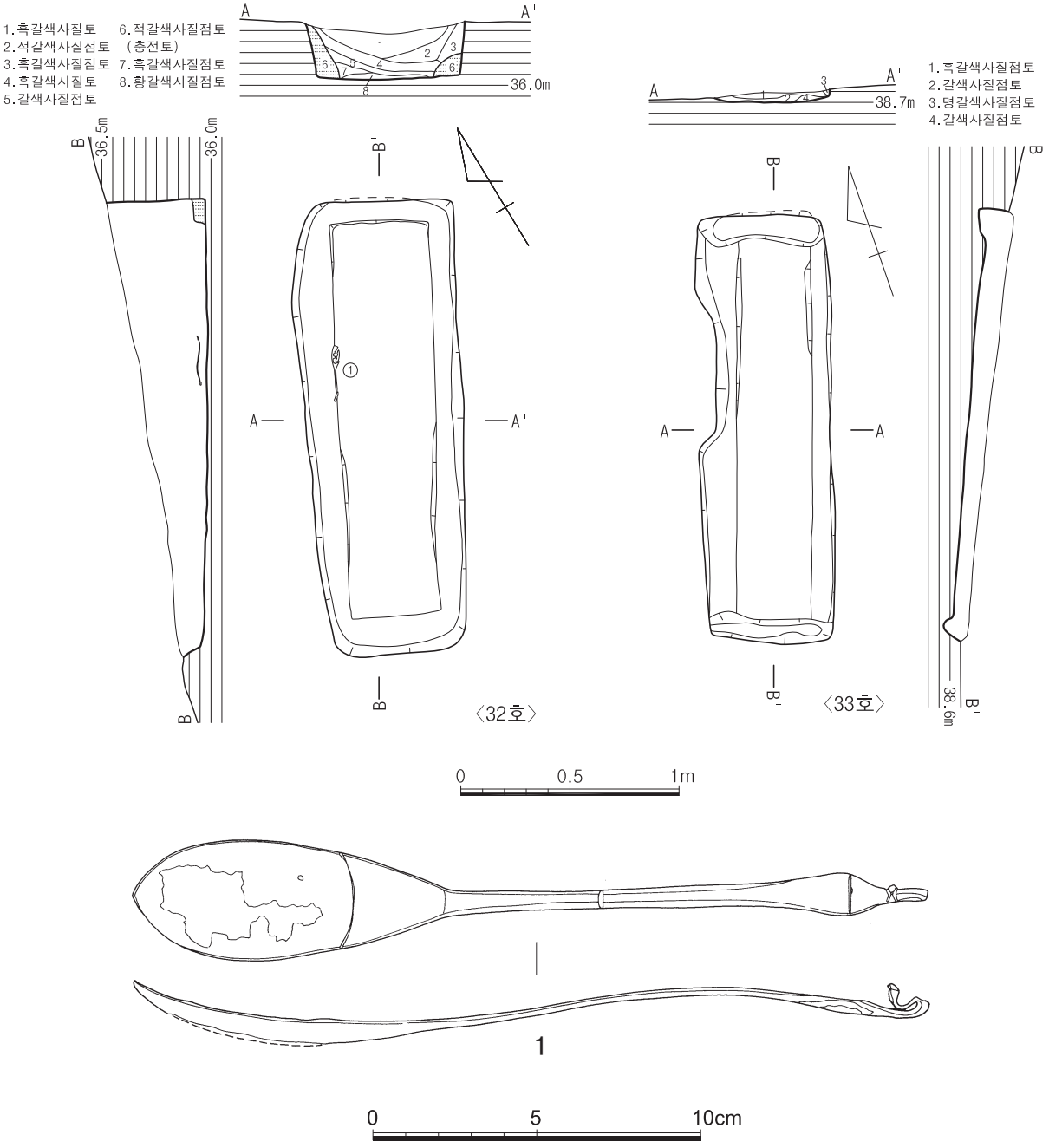
도면 205. 3지점 조선 3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32) 3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6, 사진 288)

3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26호 토광묘, 동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동남쪽 3.5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48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1층은 넓은 'U'자형을 이루며 2~7층은 서에서 동으로 사선방향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6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8층 황갈색 사질점토는 내부에 관 부식토가 혼재하고 있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는 어깨선 중간 이하가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8×73×39㎝(2.85:1), 목관 규모는 182×45㎝(4.04: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06. 3지점 조선 32·3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2호)

유물은 중심선에서 서장벽쪽으로 관선에 잇대어 충전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06-1, 사진 288-③)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 가운데부분이 결실되었다. 자루의 끝부분을 棒狀으로 구부려 'S'자 형태로 감아 작은 봉우리로 장식하였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 말단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24.3㎝, 술잎길이 9.5㎝, 술잎폭 3.8㎝, 무게 18g

33) 3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6, 사진 288)

3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29호 토광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 동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87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토는 동에서 서로 사선방향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전체적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나 1층은 미미하게나마 함몰로 인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경사면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1×52×14㎝(3.87:1), 목관 규모는 174×35㎝(4.97:1)로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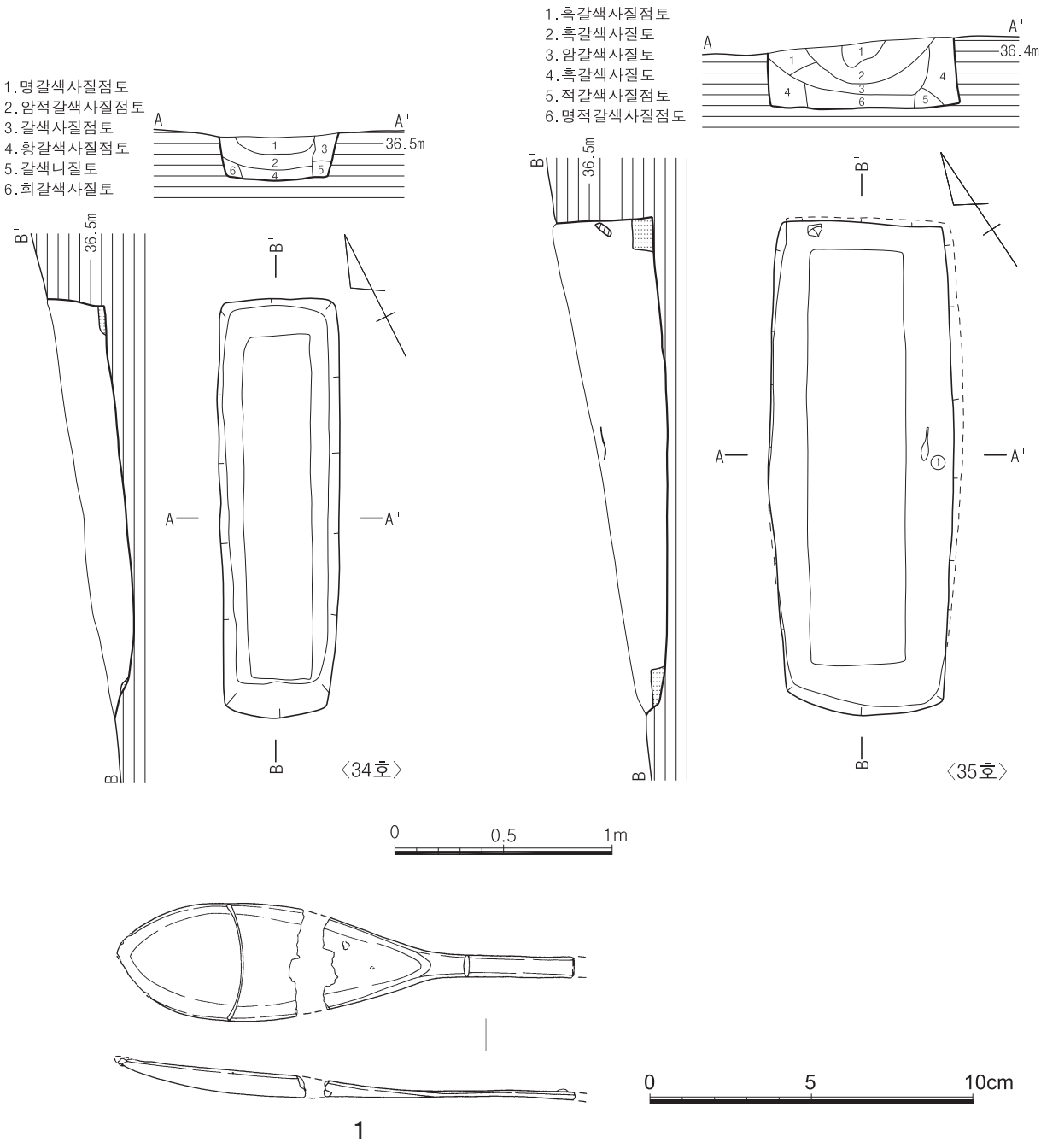
특이한 것은 북단벽과 남단벽에 수혈이 단벽면과 잇대어 상단 규모 56×11×8㎝, 하단 규모 56×13×14㎝로 단벽 전면에 시설되어 있다. 용도는 관선이 물려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을 거치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

34) 3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7, 사진 289)

3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남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35호 토광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암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3·5·6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는 어깨선을 포함한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3×55×27㎝(3.51:1), 목관 규모는 158×32㎝(4.94: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07. 3지점 조선 34·3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5호)

35) 3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7, 사진 289)

3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34호 토광묘,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동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5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명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흑갈색 사질토와 5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는 충전토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7×85×44㎝(2.67:1), 목관 규모는 191×45㎝(4.24: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에서 허리쪽 관선과 동장벽 사이 흑갈색 사질토인 충전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숟가락은 술잎이 발치를 향하고 있으며 술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07-1, 사진 289-⑥)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 가운데부분과 술대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의 단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현복원길이 14.1㎝, 무게 13g

36) 3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8, 사진 290)

3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3.5m지점에 조선시대 32호 토광묘,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0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얕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67×53×32㎝(3.15:1), 목관 규모는 148×30㎝(4.93:1)로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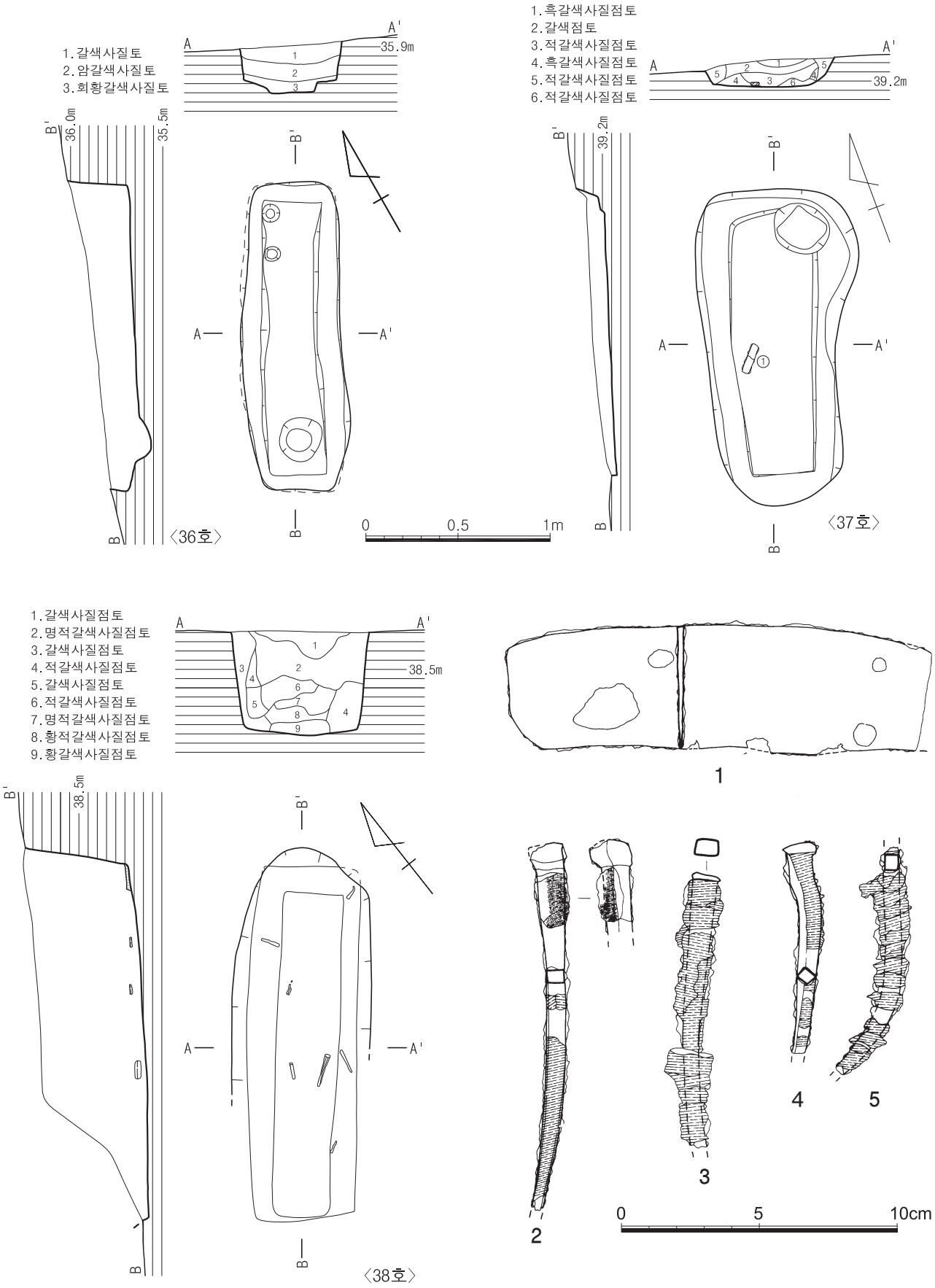
바닥에 소혈 3개가 있는데, 서장벽에서 북쪽 모서리쪽에 규모 9×9㎝가 30㎝ 간격으로 벽선에 잇대어 안쪽에 2개를 시설하였고, 중심선 남쪽 발치에서 규모 29×23㎝의 수혈이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는 알 수 없다.

37) 3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8, 사진 290)

3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3호 토광묘, 남서쪽 4m지점에 조선시대 3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34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갈색 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얕은 함몰로 인하여 상부는 넓은 'U'자형이며 하부는 부분적인 층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는 이단굴광선과 어깨선이 잔존하며 전체적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73×70×5㎝(2.47:1), 내광 규모는 144×46㎝(3.13:1), 목관은 내광의 크기와 동일한



도면 208. 3지점 조선 36·37·38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7호, 2~5:38호)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동북 모서리에 30×26㎝의 수혈이 위치하는데 출토 유물이 없어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중심선 허리쪽에서 서벽쪽으로 관 내부에 해당하며 적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철겸 1점이 관재부식토와 함께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철겸(도면 208-1, 사진 290-⑨)

신부가 남아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15.0㎝, 무게 46g

38) 3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8, 사진 291)

3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 동남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 북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3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79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황적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얕은 함몰로 인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평을 이루며 퇴적되었다. 3~5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인하여 상부는 일부 유실되었으며 중단 이하는 삭평으로 인하여 하부에 이르면 충전토 윤곽선 일부와 어깨선까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03×75×56㎝, 목관 규모는 176×34㎝(5.18: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관정 4점이 관선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고, 인골은 허벅지뼈 몸통부분만 잔존하고 있다.

(2) 유물

①~④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08-2	291-⑤	(13.4)	0.6	0.5	30	선단 일부와 말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선단부에 포흔 있음
②	208-3	291-⑥	(10.1)	0.9	0.7	19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③	208-4	291-⑦	(7.8)	0.6	0.5	11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④	208-5	291-⑧	(8.3)	0.5	0.7	14	신부만 남음, 횡방향의 목질흔, 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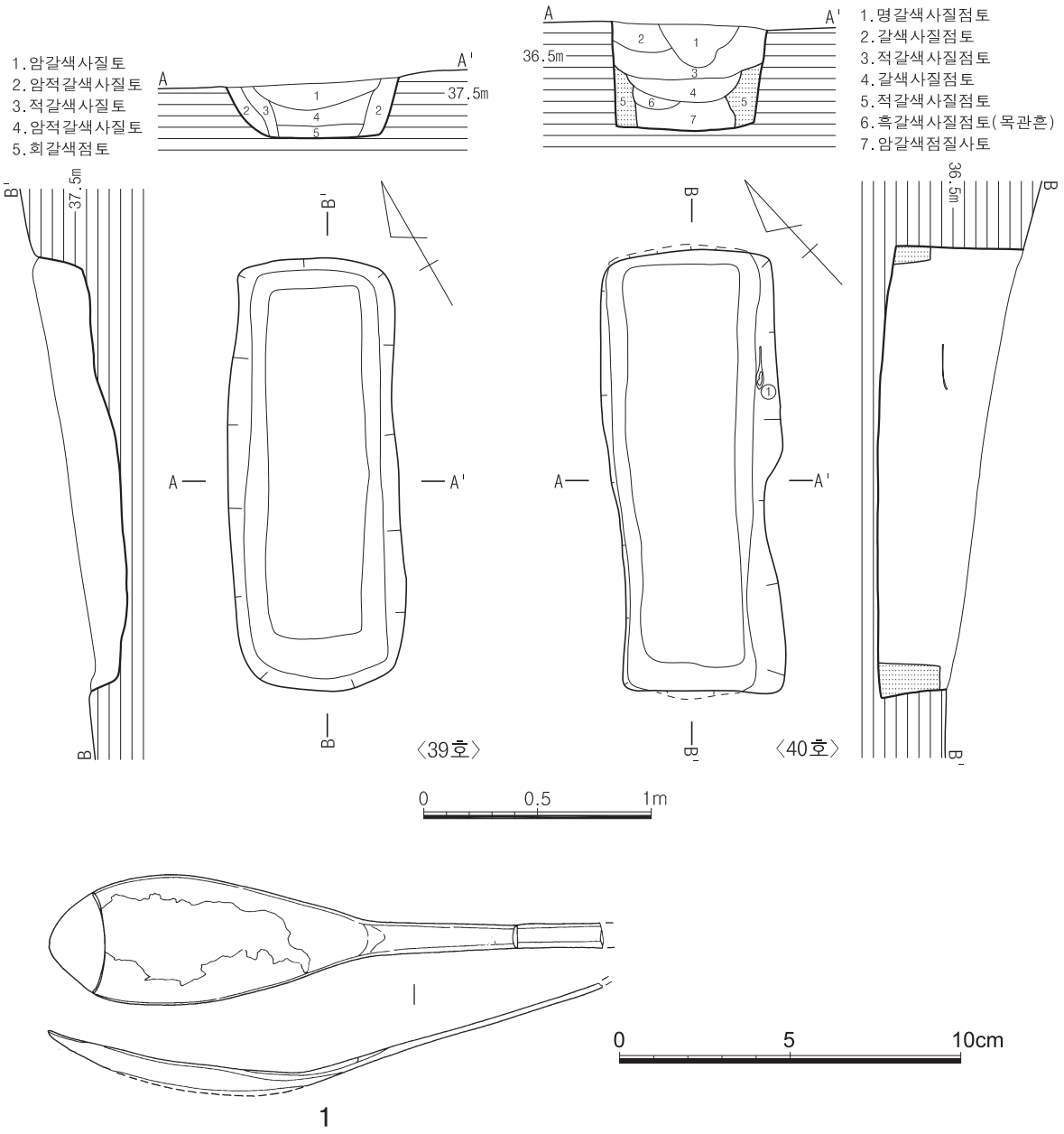
39) 3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9, 사진 292)

3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 동쪽 2m지

점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66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2·3층은 충전토이며 5층 회갈색 점토는 바닥에 수평을 이루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얕은 경사를 이루며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0×75×19㎝(2.53:1), 목관 규모는 154×44㎝(3.5: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09. 3지점 조선 39·4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0호)

40) 4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09, 사진 292)

4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남동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1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6층 흑갈색 사질점토에는 관재와 목관흔이 관찰된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얕은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충전토와 어깨선이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4×68×56㎝(2.85:1), 목관 규모는 176×44㎝(4: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가슴쪽에서 동측 관선과 동벽 사이 충전토 상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술대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09-1, 사진 292-⑨)

술잎의 가운데부분과 술대의 1/2가량이 결실되었다. 부식이 심한 편이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현길이 16.3㎝, 술잎길이 9.3㎝, 술잎폭 3.8㎝, 무게 14g

41) 4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0, 사진 293)

4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동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서남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4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39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1층은 'U'자형, 3층은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4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며, 5층 회황갈색 사질토는 바닥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얕은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중간 이하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70×25㎝(2.83:1), 내광 규모는 164×42㎝(3.9: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허리쪽에서 서측 관선 사이에 미상철제품 1점과 관정은 북측 관선 주변과 남측 관선과 남단벽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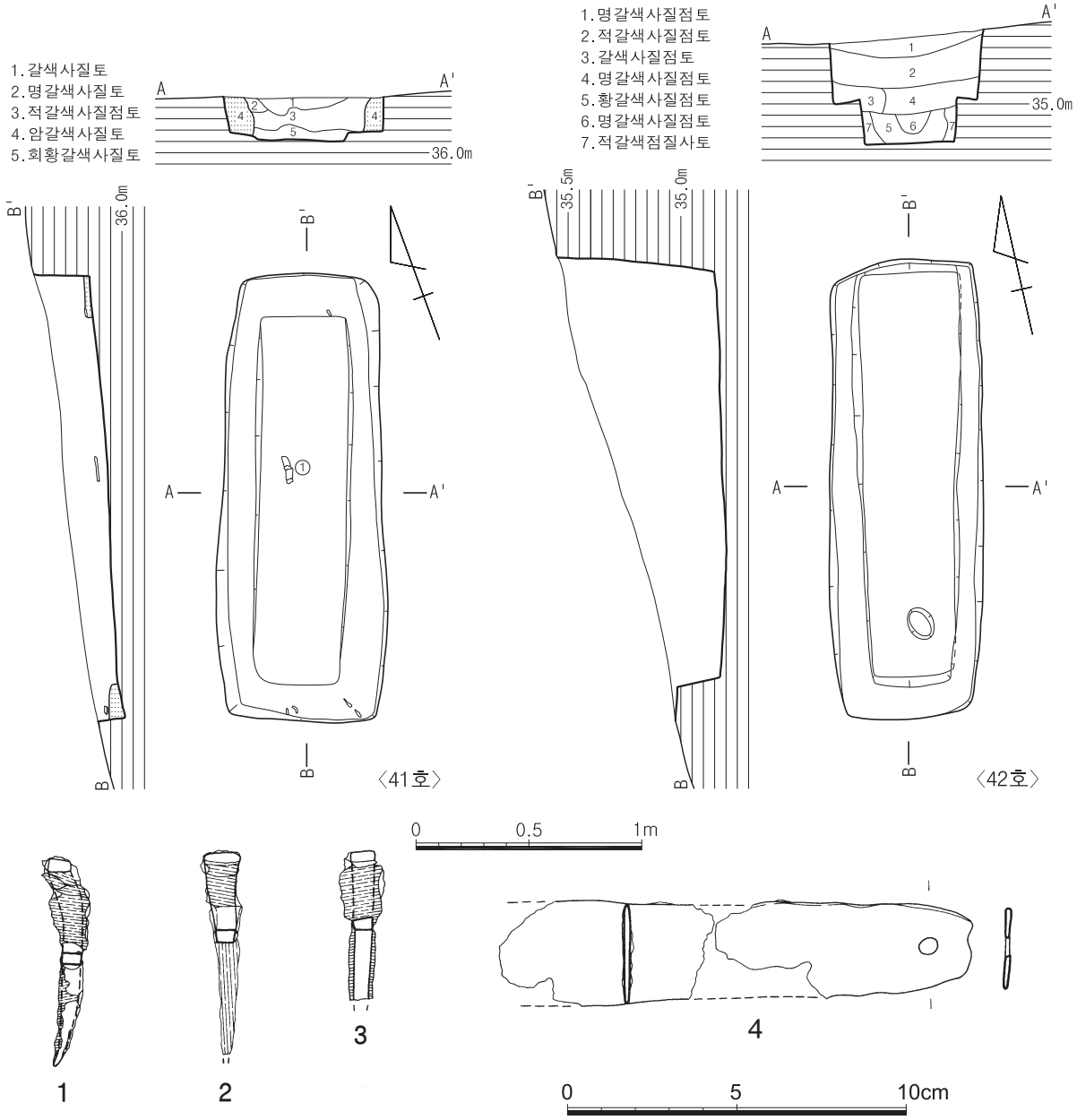
(2) 유물

① 미상철제품(도면 210-4, 사진 293-⑤)

세장방형의 철제품이다. 말단부에 직경 0.5㎝의 구멍이 나 있다. 현길이 14.0㎝, 두께 0.2㎝, 무게 15g

②~④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10-1	293-⑥	6.3	0.6	0.4	7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③	210-2	293-⑦	(6.1)	0.6	0.4	6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④	210-3	293-⑧	(4.5)	0.6	0.4	5	말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도면 210. 3지점 조선 41·4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41호)

42) 4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0, 사진 294)

4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1호 토광묘, 동북쪽 4.5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서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3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5.85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층은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 5~7층은 넓은 'U'자형으로 함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경사면을 따라 하부는 이단굴광선과 어깨선이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68×70㎝(2.97:1), 내광은 북벽에 치우쳐 배치되었으며, 규모는 183×43×25㎝(4.26:1), 목관은 인골이 확인될 뿐 흔적이 없어 크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소혈은 중심선 발치쪽에서 동측 벽선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용도는 알 수 없다. 인골은 머리뼈와 윗팔뼈 일부가 남아있으나 부식이 심하여 형체가 불분명하다.

43) 4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1, 사진 295)

4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남쪽에 조선시대 44호 토광묘와 연하고,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3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97m이다.

층위는 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5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상부만 일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0×78×41㎝(2.82:1), 목관 규모는 186×53㎝(3.51:1)로 토광목관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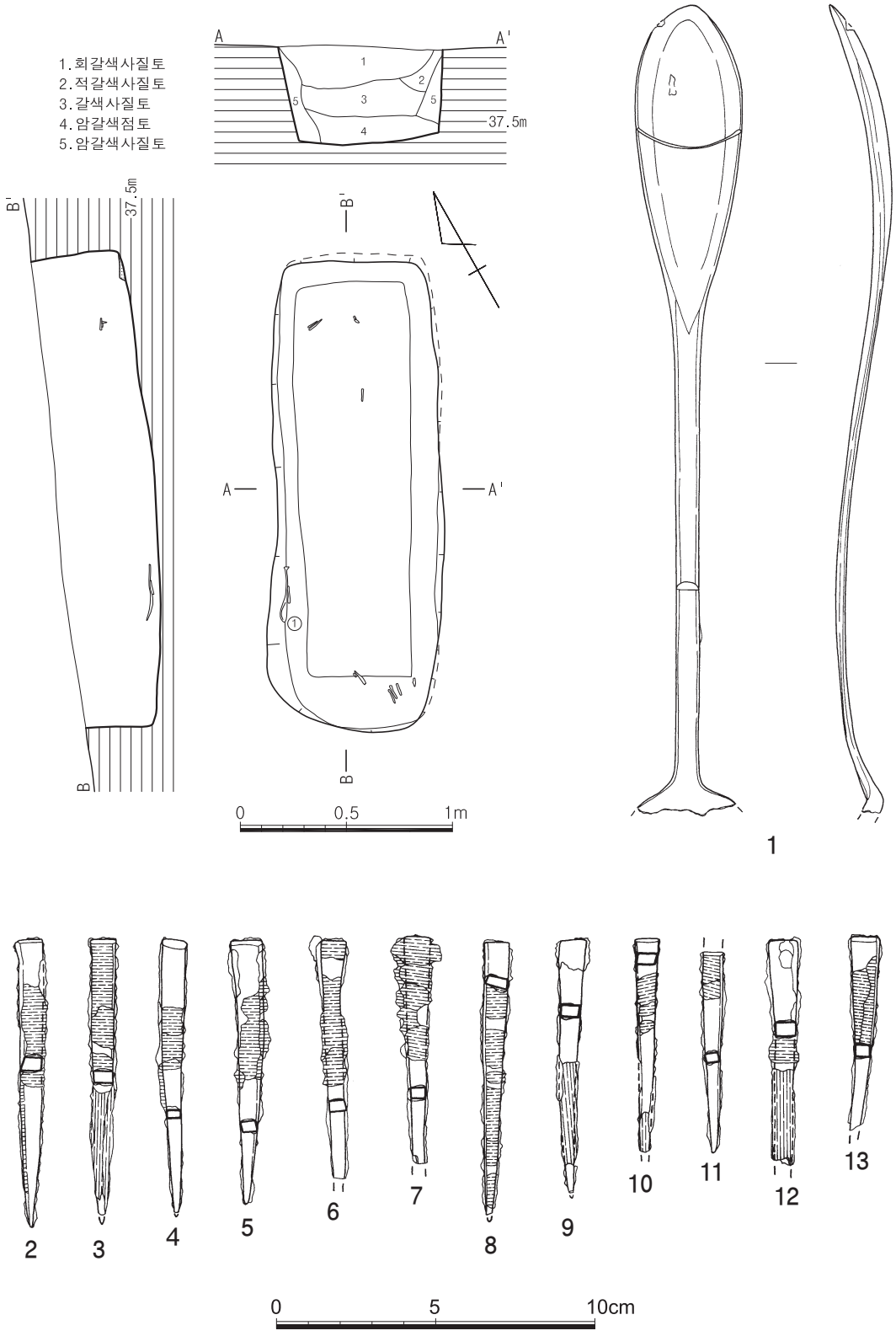
유물은 중심선 발치쪽에서 서측 관선과 서장벽 사이 암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 관정은 함몰로 인해 관 상부가 안쪽으로 밀린 머리쪽과 남측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11-1, 사진 295-⑰)

술잎 일부와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은 柳葉形으로 깊은 편이며, 술대는 일정한 너비로 말단부로 이어지는데 끝부분에 藥匙가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현길이 25.5㎝, 술잎길이 9.9㎝, 술잎폭 3.4㎝, 무게 40g

②~⑬ 관정



도면 211. 3지점 조선 4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11-2	295-⑤	9.2	0.6	0.4	13	완형, 횡방향 목질흔
③	211-3	295-⑥	(8.8)	0.6	0.4	12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④	211-4	295-⑦	(8.7)	0.5	0.3	10	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⑤	211-5	295-⑧	8.5	0.4	0.4	10	완형, 횡방향 목질흔
⑥	211-6	295-⑨	(7.7)	0.5	0.4	10	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⑦	211-7	295-⑩	(7.2)	0.5	0.4	12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⑧	211-8	295-⑪	(8.9)	0.7	0.4	10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⑨	211-9	295-⑫	(8.1)	0.6	0.5	11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⑩	211-10	295-⑬	(6.8)	0.6	0.4	7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⑪	211-11	295-⑭	(6.3)	0.4	0.3	5	선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⑫	211-12	295-⑮	(7.2)	0.6	0.5	11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⑬	211-13	295-⑯	(6.2)	0.5	0.4	9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44) 4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2, 사진 296)

4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와 연하고, 동쪽 1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주거지,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함몰로 인하여 'U'자형, 그 아래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3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충전토와 어깨선 일부가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규모는 212×63×17㎝(2.37:1), 목관 규모는 176×37㎝(4.76:1)로 토광목관묘이다.

소혈은 중심선을 따라 5개, 발치쪽에 2개, 동벽에 잇대어 1개로 총 8개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중심선 중앙에 위치한 규모 16×13×7㎝만 유물이 부장된 요갱임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서 동측 관선쪽으로 치우쳐 요갱이 위치하며 내부에서 미상 철제품 1점, 발치쪽 동측 관선 위에서 청동완 1점, 관선 주변과 내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12-1, 사진 296-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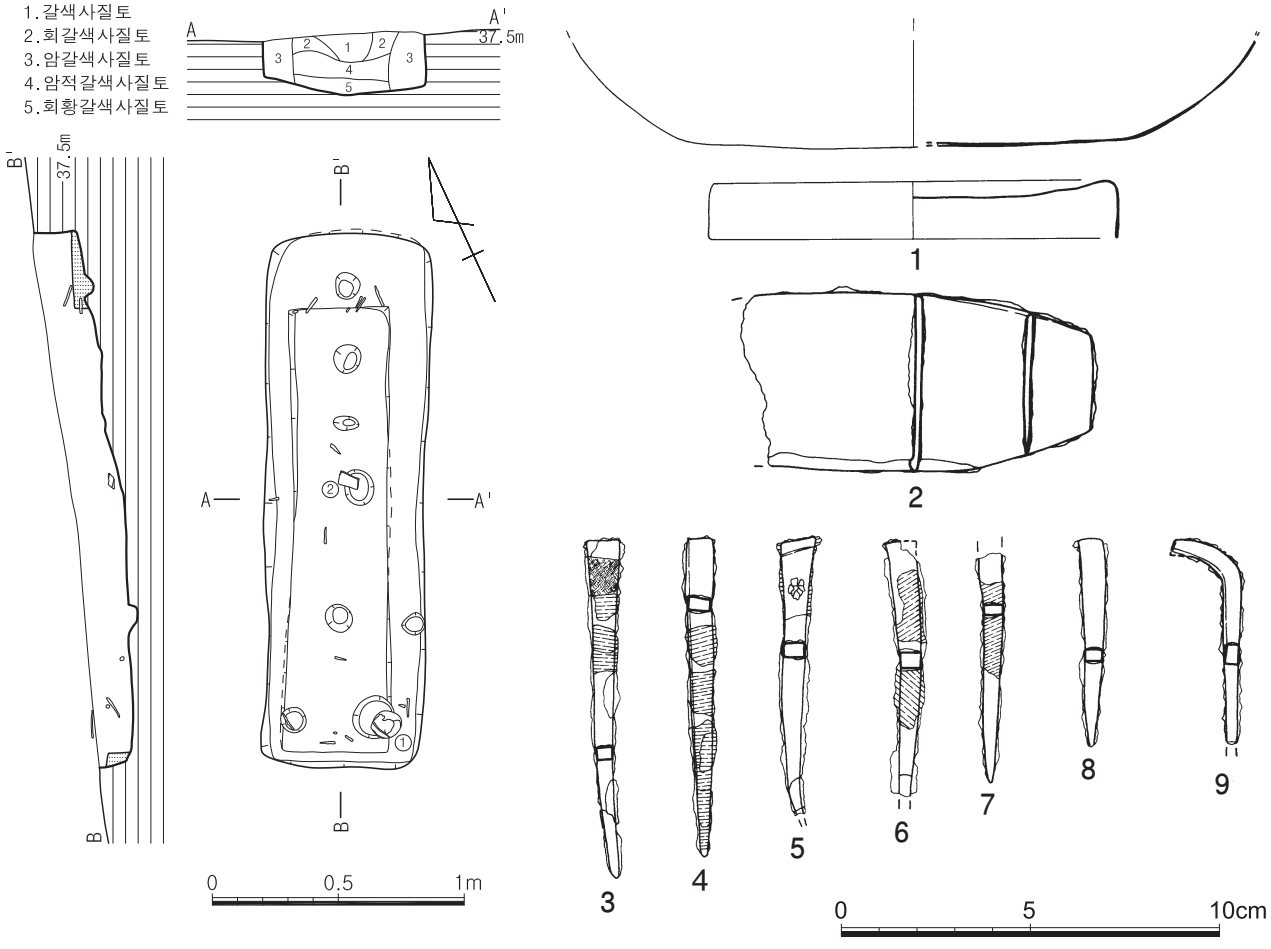
청동대부완으로 완신과 대각이 분리되어 출토되었다. 대각은 온전하나 신부는 저부 일부만이 남아있다. 대각은 직립하듯 내려온다. 저면 4군데에 원두정을 박은 흔적이 있다. 현고 4.3㎝, 각경 10.8㎝, 무게 143g

② 미상철제품(도면 212-2, 사진 296-⑥)

단면 세장방형의 미상철제품으로 일부가 남아있다. 신부는 평행하게 이어지다가 말단부에서 좁아지며 신부의 하단은 두드려 편 후 접었으며, 말단부의 하단은 날이 있다. 현길이 9.2㎝, 폭 4.7㎝, 무게 39g

③~⑨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12-3	296-⑦	9.1	0.5	0.4	1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일부에 포흔 있음
④	212-4	296-⑧	8.5	0.6	0.4	8	완형, 횡방향 목질흔
⑤	212-5	296-⑨	(7.5)	0.5	0.4	9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⑥	212-6	296-⑩	(6.8)	0.5	0.5	8	말단부와 선단부 일부 결실, 사방향 목질흔
⑦	212-7	296-⑪	(6.1)	0.5	0.3	3	선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⑧	212-8	296-⑫	5.6	0.6	0.4	5	완형
⑨	212-9	296-⑬	(5.5)	0.6	0.4	3	말단부 결실, 선단부가 'ㄱ' 자로 휘어짐



도면 212. 3지점 조선 4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45) 4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3, 사진 297)

4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서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0호 토광묘,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53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 2층은 수평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3층 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4층 흑회색 사질점토는 수평을 이루게 바닥에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1×66×52㎝(2.30:1), 목관 규모는 184×42㎝(4.28: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서북 모서리와 관선 사이 갈색 사질점토에서 청동완과 청동숟가락 1점씩, 중심선 머리측에서 북측 관선에 치우쳐 유리구슬 1점,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구슬(도면 213-1, 사진 297-④)

청색의 화형유리구슬이다. 직경 1.7㎝, 두께 1.4㎝, 구멍직경 0.45㎝, 무게 5g

② 청동완(도면 213-2, 사진 297-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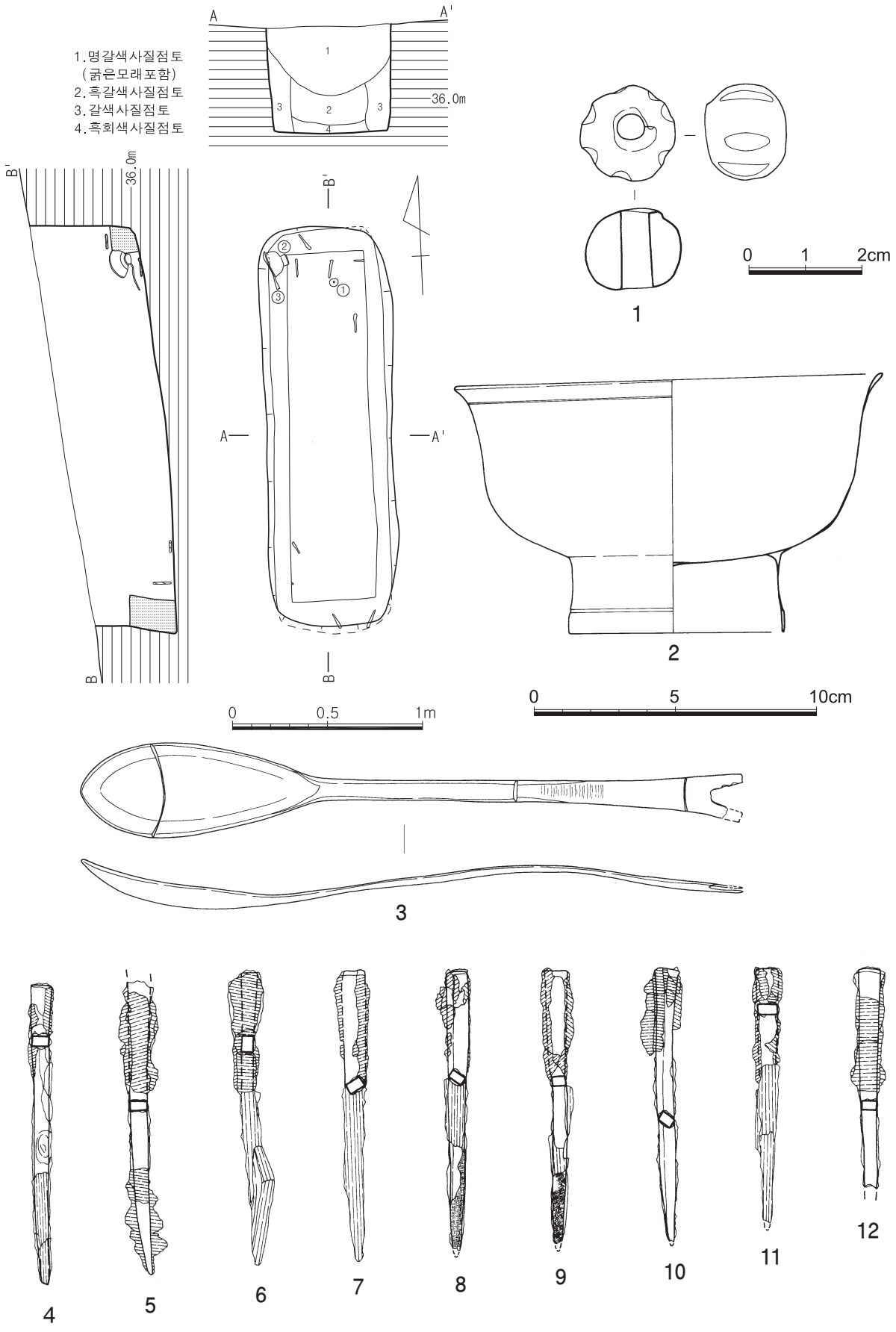
청동대부완으로 신부일부가 결실되었다. 구연과 신부일부가 찌그러져 있다. 신부는 하위가 풍만한 형태로 구연으로 올라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부는 신부에 비해 도톰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단부는 날카롭게 마무리하였으며, 외면의 구연아래에는 횡침선을 넣었다. 대각은 높은 편으로 직립하듯 내려오다가 대각단부에서 도톰해지면서 살짝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횡침선을 넣었다. 고 9.2㎝, 구경 15.0㎝, 각경 7.6㎝, 무게 169g

③ 청동숟가락(도면 213-3, 사진 297-⑤)

술대의 말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술잎은 柳葉形으로 다소 깊이가 있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넓어지고 얇아지는데 끝부분이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前面에 마연흔이 잘 남아있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말단부 단면은 구부러진 세장방형을 하고 있다. 길이 23.5㎝, 술잎길이 8.5㎝, 술잎폭 3.4㎝, 무게 15g

④~⑫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④	213-4	297-⑦	10.8	0.6	0.4	11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⑤	213-5	297-⑧	(10.5)	0.7	0.4	14	선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⑥	216-6	297-⑨	10.5	0.6	0.4	1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⑦	216-7	297-⑩	10.4	0.7	0.4	14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⑧	213-8	297-⑪	(10.1)	0.7	0.4	11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말단부에 포흔 있음



도면 213. 3지점 조선 4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⑨	213-9	297-⑫	(9.8)	0.5	0.4	13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말단부에 포흔 있음
⑩	213-10	297-⑬	(9.9)	0.6	0.4	13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⑪	213-11	297-⑭	(9.2)	0.8	0.4	12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⑫	213-12	297-⑮	(8.0)	0.6	0.4	11	말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46) 4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4, 사진 298)

4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상부에 위치하며 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 동남쪽에 연하여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동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34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5층은 충전토이며 6층 암적갈색 사질토는 요갱을 메꾸고 다져 바닥토로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69×31㎝(2.93:1), 목관 규모는 176×43㎝(4.09: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 규모 40×30×21㎝의 요갱이 있는데, 내부에서 단경호 1점이 세워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관정은 남측 관선 주변, 서측 관선 중앙 주변과 북측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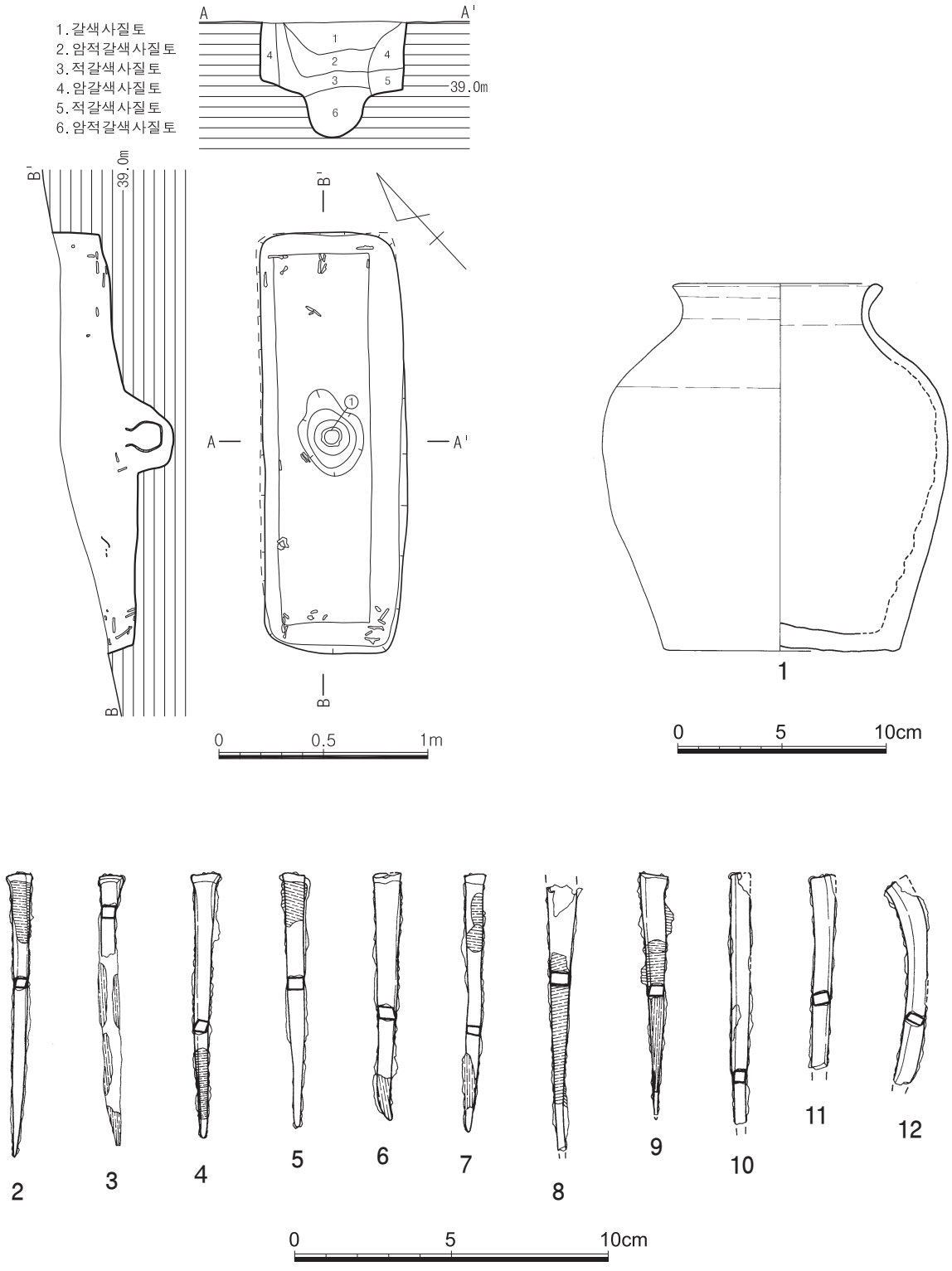
(2) 유물

① 단경호(도면 214-1, 사진 298-④)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경질 단경호이다. 태토에는 소량의 운모립과 백색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내외면의 색조는 암회색(N 3/)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이다. 바닥은 평평하며 동체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고 17.7㎝, 구경 9.5㎝, 저경 11.6㎝

②~⑫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14-2	298-⑤	9.1	0.4	0.4	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③	214-3	298-⑥	8.8	0.5	0.5	6	완형,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④	214-4	298-⑦	8.6	0.4	0.5	6	완형, 뿌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⑤	214-5	298-⑧	8.2	0.5	0.5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⑥	214-6	298-⑨	8.0	0.5	0.4	7	완형,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말단부가 휘어짐
⑦	214-7	298-⑩	8.3	0.5	0.3	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도면 214. 3지점 조선 4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⑧	214-8	298-⑪	(8.5)	0.6	0.4	7	선단부와 말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⑨	214-9	298-⑫	(8.0)	0.5	0.4	6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⑩	214-10	298-⑬	(8.2)	0.4	0.4	7	선단 일부와 말단부 결실
⑪	214-11	298-⑭	(6.3)	0.5	0.5	7	말단부 결실
⑫	214-12	298-⑮	(6.5)	0.5	0.3	7	선단 일부와 말단부 결실

47) 4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5, 사진 299)

4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식재구덩이에 의해 어깨선이 유실되었고, 동쪽은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와 중복, 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8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암갈색 사질토, 5층 적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주변 유구와 식재구덩이 등에 의한 훼손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하단부는 유실되어 관선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1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굴광하였으나 굴광방식은 알 수 없다. 묘광 잔존규모는 240×85×21㎝, 목관 규모는 190×53㎝(3.53: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에서 안쪽에 잇대어 철제 손잡이 1점, 중심선 발치에서 서측 관선에 치우쳐 청동숟가락 술잎부편 1점이 출토되었고, 관정은 북측 관선 안쪽과 주변, 서측 관선 중앙부, 동측 관선 부근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15-1, 사진 299-④)

술잎 말단부만 남아있다. 술잎 끝부분이 뭉툭한 형태이다. 현길이 3.8㎝, 무게 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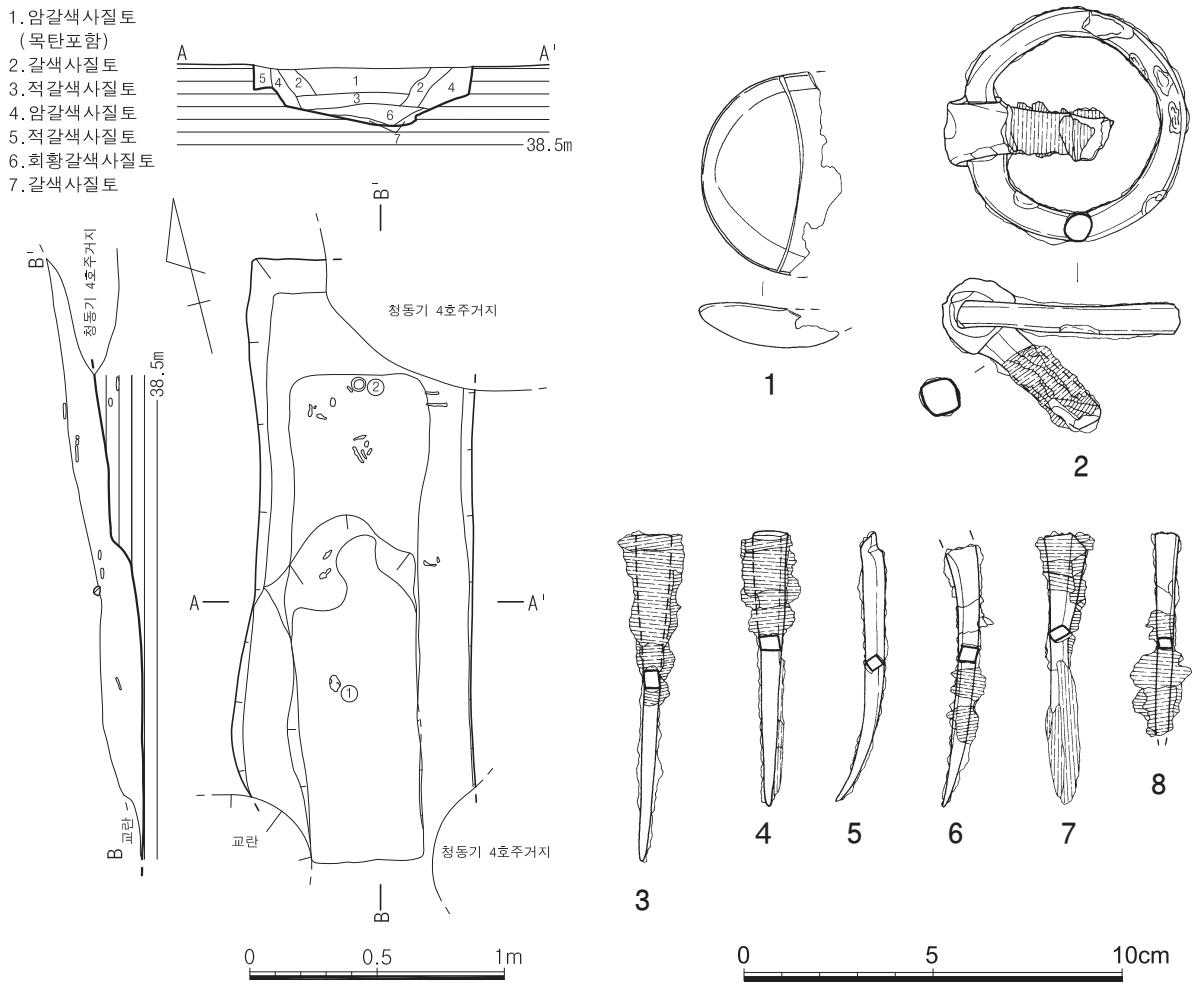
② 철제손잡이(도면 215-2, 사진 299-⑤)

고리와 배목이 고착된 단고리이다. 고리는 지름이 6.0㎝정도이며, 단면은 원형인데 두께가 0.7㎝정도이다. 배목은 단면이 말각방형이며 두께는 0.9㎝이다. 배목에는 목질흔이 남아있다. 전체길이 6.4㎝, 배목길이 5.1㎝, 무게 56g

③~⑧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15-3	299-⑥	8.9	0.4	0.5	11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④	215-4	299-⑦	7.3	0.5	0.4	9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⑤	215-5	299-⑧	7.2	0.4	0.4	4	완형, 말단부가 휘어짐
⑥	215-6	299-⑨	(7.1)	0.5	0.5	5	선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⑦	215-7	299-⑩	7.3	0.5	0.3	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⑧	215-8	299-⑪	(5.4)	0.4	0.3	5	말단부 결실, 횡방향의 목질흔



도면 215. 3지점 조선 4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48) 4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6, 사진 300)

4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동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7호 토광묘, 동쪽 2m

지점에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37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흑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6층 갈색 사질점토는 바닥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충전토와 어깨선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9°-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65×22㎝(3.11:1), 목관 규모는 183×40㎝(4.58: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과 북단벽 사이 양 모서리에서 관정 3점이 출토되었으며, 인골은 머리뼈편이 부식되어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16-1	300-③	11.4	0.6	0.5	13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②	216-2	300-④	(10.4)	0.6	0.6	16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③	216-3	300-⑤	(11.1)	0.5	0.5	13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49) 4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6, 사진 300)

4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은 수혈에 의해 교란되었고, 남쪽 1m지점에 고려시대 1호 주거지,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3호 토광묘, 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0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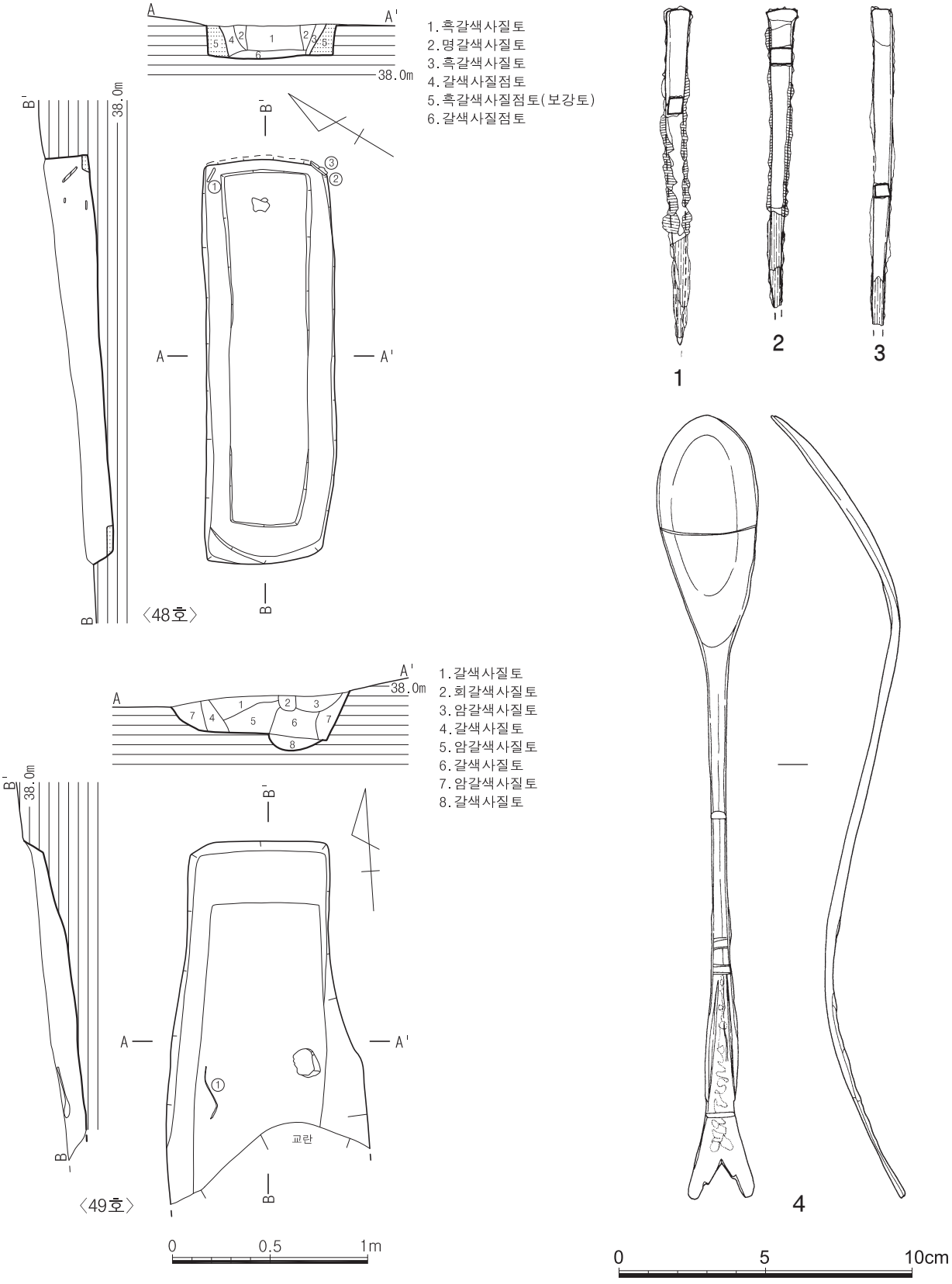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불규칙한 함몰양상을 보인다. 8층 갈색 사질토는 깊이 파인 바닥을 메꾼 것으로 보인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바닥만 남은 상태이며 하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사선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02×91×25㎝, 목관 잔존규모는 171×63㎝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 허리쪽에서 서측 관선에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청동숟가락(도면 216-4, 사진 300-⑧)

완형의 청동제 숟가락으로 일부 부식되었지만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숟가락 측면의 형태는 크게 'S'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에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은 燕



도면 216. 3지점 조선 48·4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48호, 4:49호)

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2줄씩 등간격으로 선을 새겨 구획하고 말단부에는 길이방향으로 2줄의 침선을 새기고 그 사이에 點打로 花草文을 새겼다. 술대의 중앙부 단면은 반원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길이 26.8㎝, 술잎길이 7.9㎝, 술잎폭 3.5㎝, 무게 44g

50) 5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7, 사진 301)

5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1호 주거지 북벽에 잇대어 내부에 중복되어 있고, 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9호 토광묘,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 남쪽 3.5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8m이다.

층위는 주거지 내부를 굴광한 후 내부토와 암반풍화토가 섞인 교란된 양상을 보이는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후대에 조성된 유구들로 인하여 불규칙한 교란으로 중앙부분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1°-E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8×76×27㎝(3.13:1), 목관 규모는 192×48㎝(4: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측 관선에 잇대어 남단벽쪽에 관선을 따라 동쪽으로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17-1, 사진 301-②)

부식으로 술잎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까운 숟가락으로 자루의 길이가 길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다소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데 끝부분이 연미형으로 갈라졌다. 술대 가운데부분의 단면은 반원형이며, 말단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32.7㎝, 술잎길이 9.5㎝, 술잎폭 4.0㎝, 무게 3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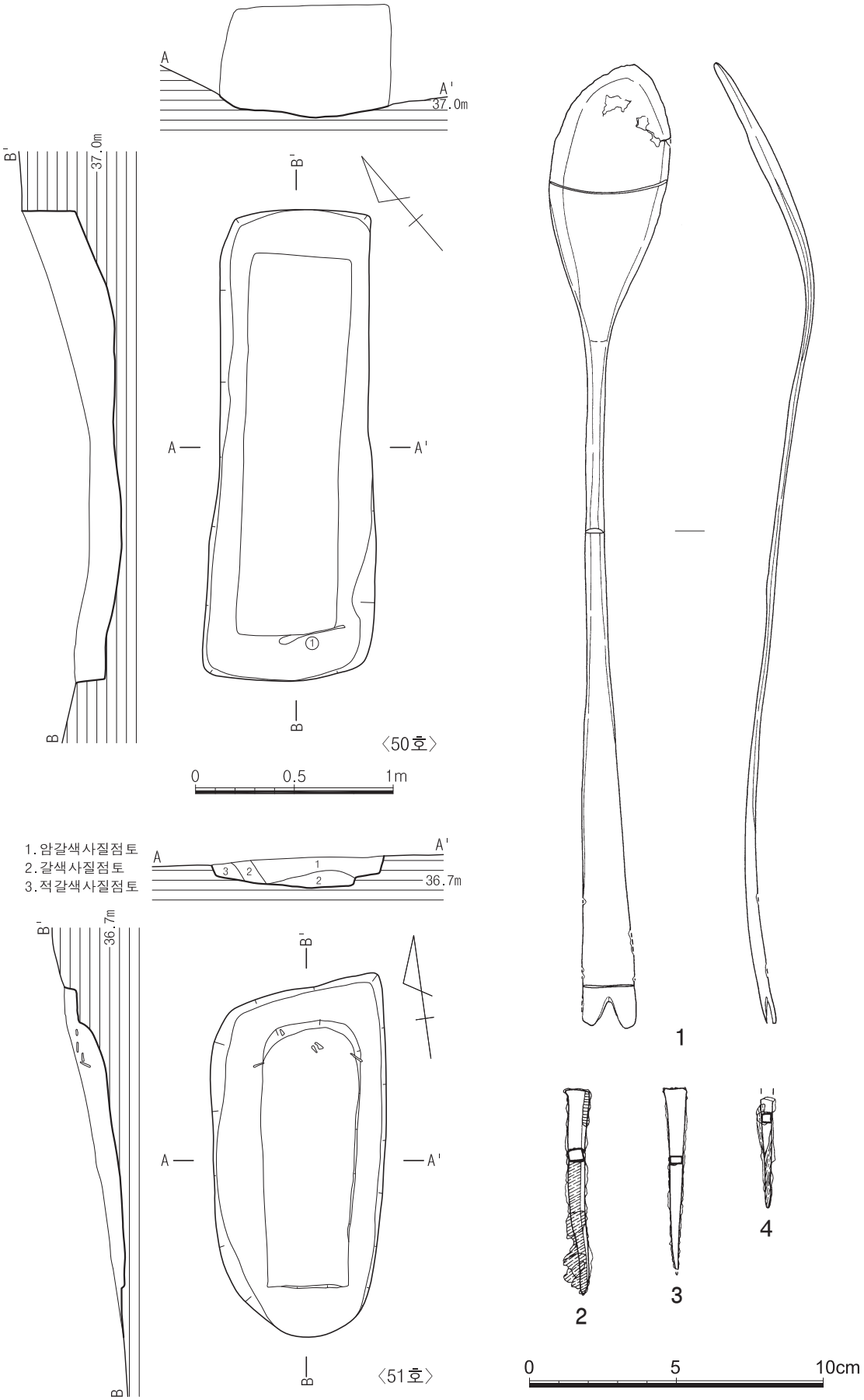
51) 5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7, 사진 301)

5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에 연하여 고려시대 2호 주거지, 동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0호 토광묘,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94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에서 동으로 함몰되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하부는 어깨선이 일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이단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89×86×13㎝, 내광 규모는 134×42×7㎝(3.19: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 주변에서 관정 3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17. 3지점 조선 50·5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50호, 2~4:51호)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 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17-2	301-⑥	7.1	0.5	0.4	4	완형, 횡방향 목질흔, 말단부가 휘어짐
②	217-3	301-⑦	(6.3)	0.4	0.3	3	말단부 결실
③	217-4	301-⑧	(3.8)	0.4	0.4	2	말단부만 남음, 종방향 목질흔

52) 5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8, 사진 302)

5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 북쪽 1.5m 지점에 조선시대 51호 토광묘,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4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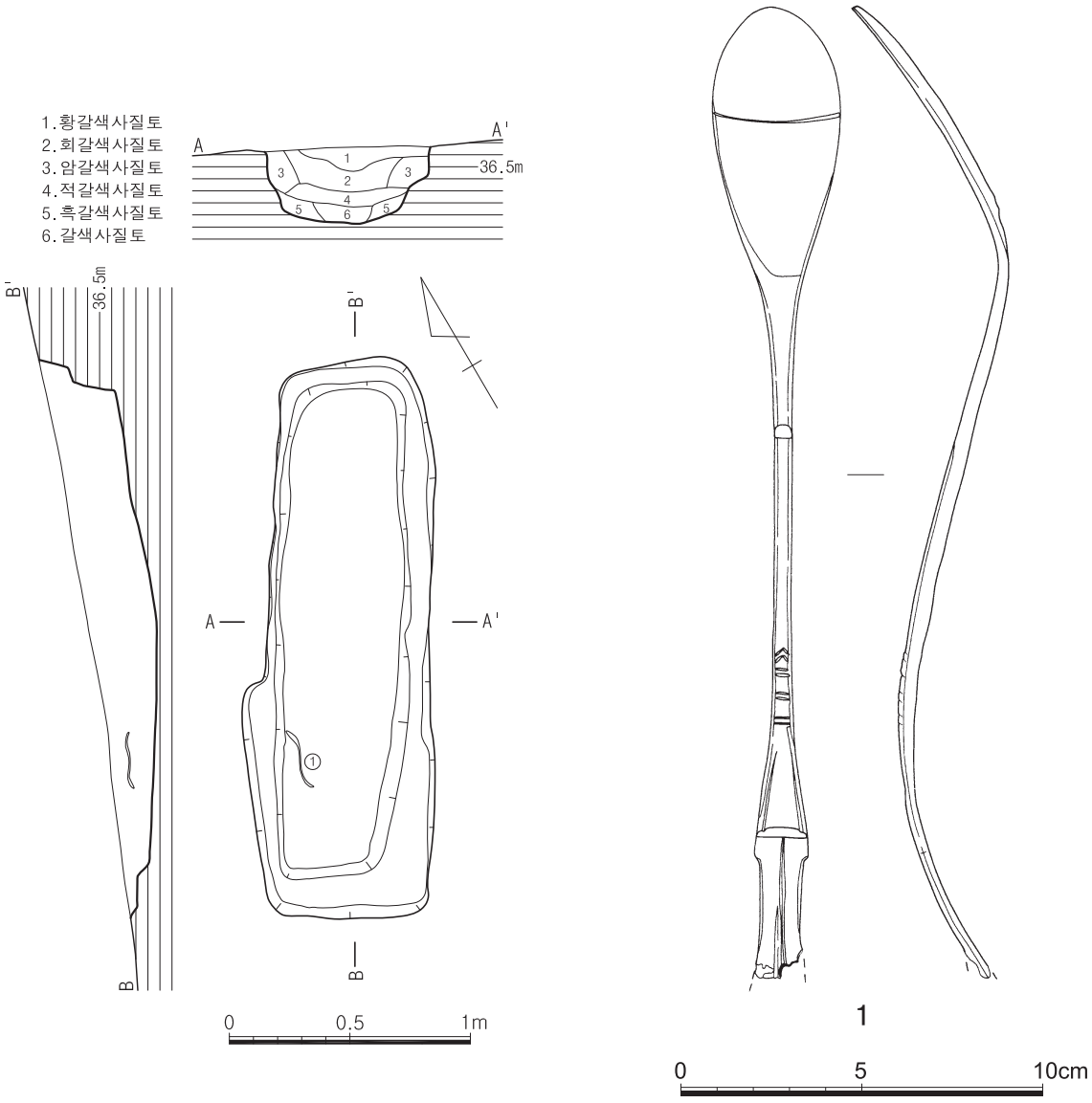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며 이단굴광 내부 바닥은 흑갈색 사질토와 갈색 사질토를 깔았다. 잔존 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의 어깨선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이단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2×66×32㎝(3.52:1), 내광 규모는 205×55×17㎝(3.73: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발치쪽에서 서측 관선에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18-1, 사진 302-⑤)

술대의 말단부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두께감이 있다. 숟가락 측면의 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에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결실되어 알 수는 없으나 끝부분은 燕尾形으로 갈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2줄씩 등간격으로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길이방향으로 'V' 자형으로 침선을 새겼고, 말단부에는 가운데부분에 길이방향으로 침선을 넣었다.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인데, 말단부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현길이 26.9㎝, 술잎길이 7.4㎝, 술잎폭 3.5㎝, 무게 5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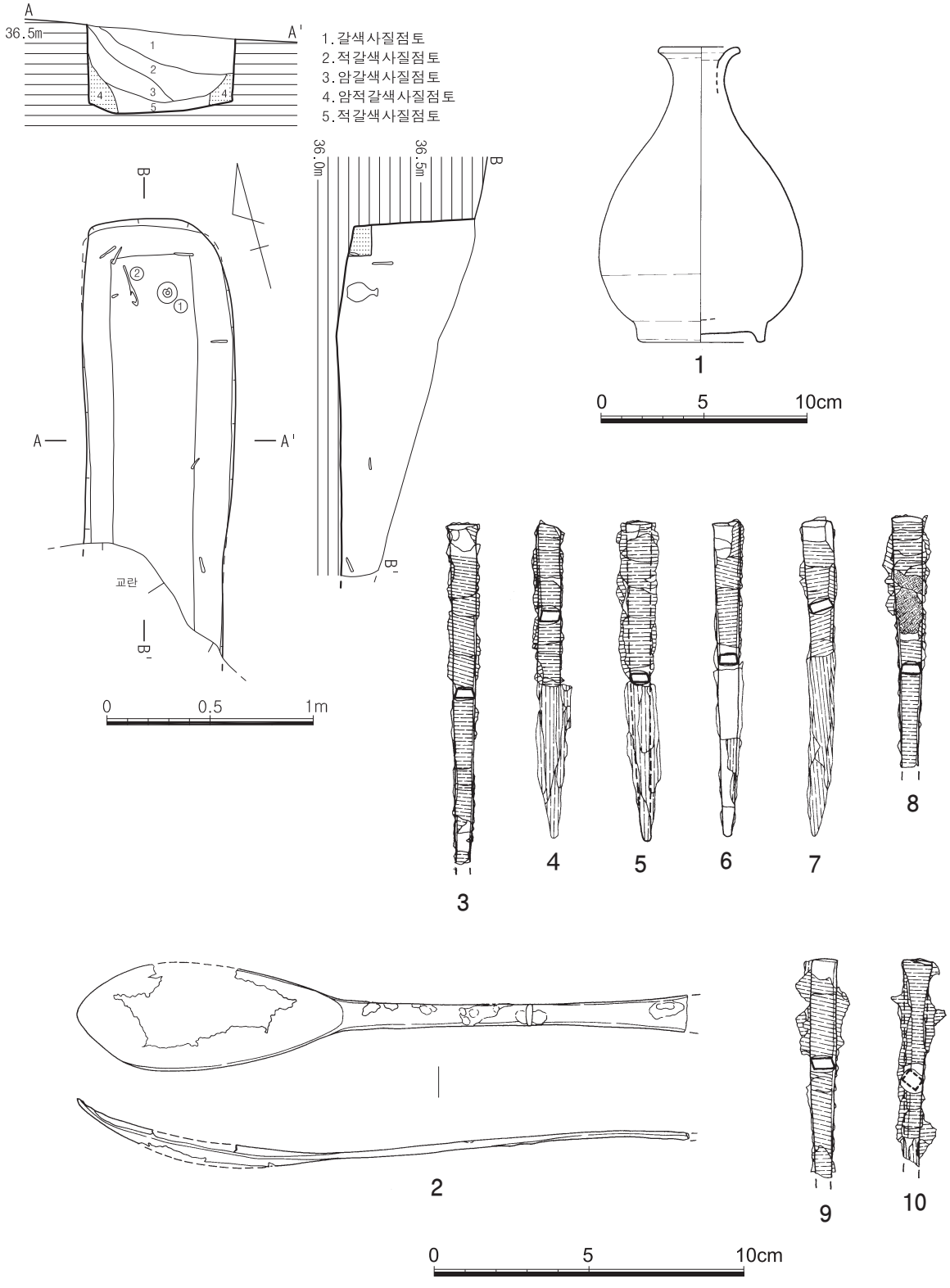
도면 218. 3지점 조선 52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53) 5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19, 사진 303)

5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2호 토광묘, 남동쪽 1.5m 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고려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6m 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에서 동으로 사선을 이루며 함몰되었다. 4층 암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며 5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 사이에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삭평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교란으로 인하여 관선과 어깨선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E로 등고선



도면 219. 3지점 조선 5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7×72×59㎝, 목관 잔존규모는 191×40㎝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에 치우쳐 동측 관선쪽에 백자병 1점, 서측 관선쪽에 청동숟가락 1점이 적갈색 사질점토에서 출토되었고, 북측 관선에서 동측 관선으로 이어지는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병(도면 219-1, 사진 303-④)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직립하는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며 굽안쪽은 평평하게 깎아냈다. 기벽은 'S' 자형으로 동체 아래쪽에 양감이 있어 안정된 형태이며 구연에서 부드럽게 외반한다. 회색조의 유색을 띠는데 굽안쪽까지 그릇전면에 유약을 입혔으며 시유상태가 좋고 광택이 있다. 접지면에 가는모래를 받쳤다. 고 14.5㎝, 구경 3.6㎝, 저경 6.3㎝

② 청동숟가락(도면 219-2, 사진 303-⑤)

부식이 심한 편으로 술잎일부와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인데 말단부가 사용으로 인해 닳은 상태이다. 술대의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다. 현길이 19.8㎝, 술잎길이 8.7㎝, 무게 18g

③~⑩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19-3	303-⑥	(11.1)	0.7	0.3	17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④	219-4	303-⑦	10.3	0.6	0.4	14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⑤	219-5	303-⑧	10.4	0.6	0.3	14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⑥	219-6	303-⑨	10.2	0.7	0.4	13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⑦	219-7	303-⑩	10.4	0.7	0.3	13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⑧	219-8	303-⑪	(8.2)	0.7	0.3	16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일부에 포흔 있음
⑨	219-9	303-⑫	(7.1)	0.6	0.4	12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⑩	219-10	303-⑬	(6.8)	0.5	0.4	10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54) 5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0, 사진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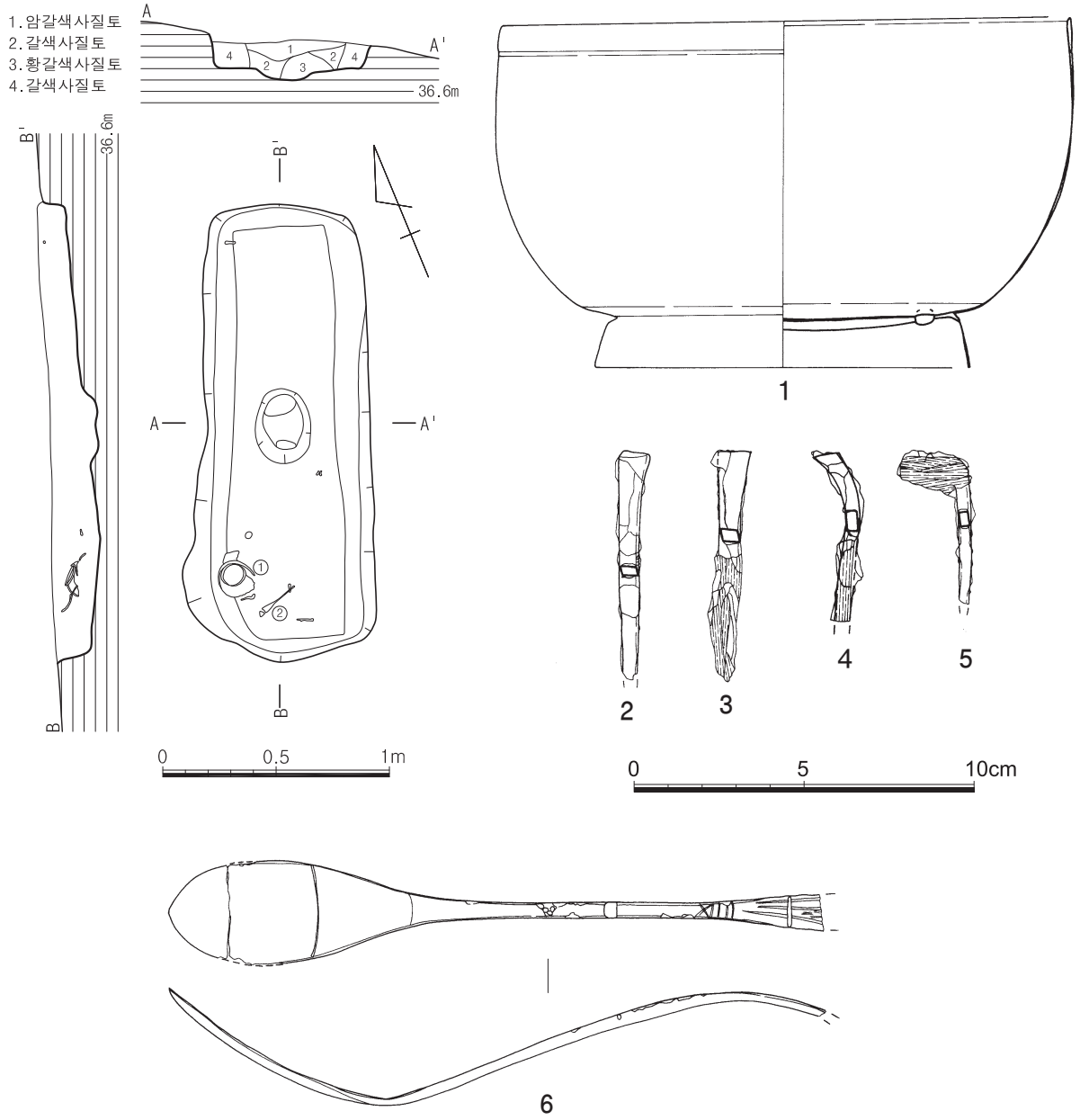
5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6.5m지점에 조선시대 80호 토광묘, 서남쪽 3.5m지점에 조선시대 46호 토광묘, 남쪽 5m지점에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38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함몰로 인하여 넓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관선과 어깨선 일부가 삭평으로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2°-E로 등고선과 직

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3×72×10㎝(2.83:1), 목관 규모는 182×45㎝(4.04:1)로 토광목관묘이다.

요갱은 중앙에 규모 36×24×10㎝로 시설되었으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서측 관선 발치쪽에 소혈 1개가 확인되나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중심선 발치쪽에서 서측 관선에 청동완 1점, 서측 관선에 약간 치우쳐 청동숟가락 1점, 관선과 내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도면 220. 3지점 조선 5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20-1, 사진 304-④)

청동대부완으로 대각부는 온전하나 구연부와 신부가 1/2가량 결실되었다. 일부 부식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신부에 비해 도톰하게 처리되었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자형으로 벌어지며, 저면 4군데에 원두정이 박힌 것으로 보아 완신과 대각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내외면으로 회전깎기흔이 잘 남아 있다. 고 10.3㎝, 구경 16.8㎝, 각경 11.1㎝, 무게 254g

② 청동숟가락(도면 220-6, 사진 304-⑨)

술대의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부분적으로 부식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숟가락의 측면 형태는 크게 'S'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넓고 얇아지는데 술대 중앙부에 2줄씩 침선을 넣어 구획하고, 이어서 길이 방향으로 3줄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중앙부의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19.2㎝, 술잎길이 7.2㎝, 술잎폭 3.0㎝, 무게 27g

③~⑥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20-2	304-⑤	(6.8)	0.5	0.3	6	말단부 결실
④	220-3	304-⑥	6.8	0.5	0.4	7	완형,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⑤	220-4	304-⑦	(5.1)	0.6	0.4	6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선단부가 구부러짐
⑥	220-5	304-⑧	(4.5)	0.3	0.5	5	말단부 결실, 선단부가 'ㄱ'자로 구부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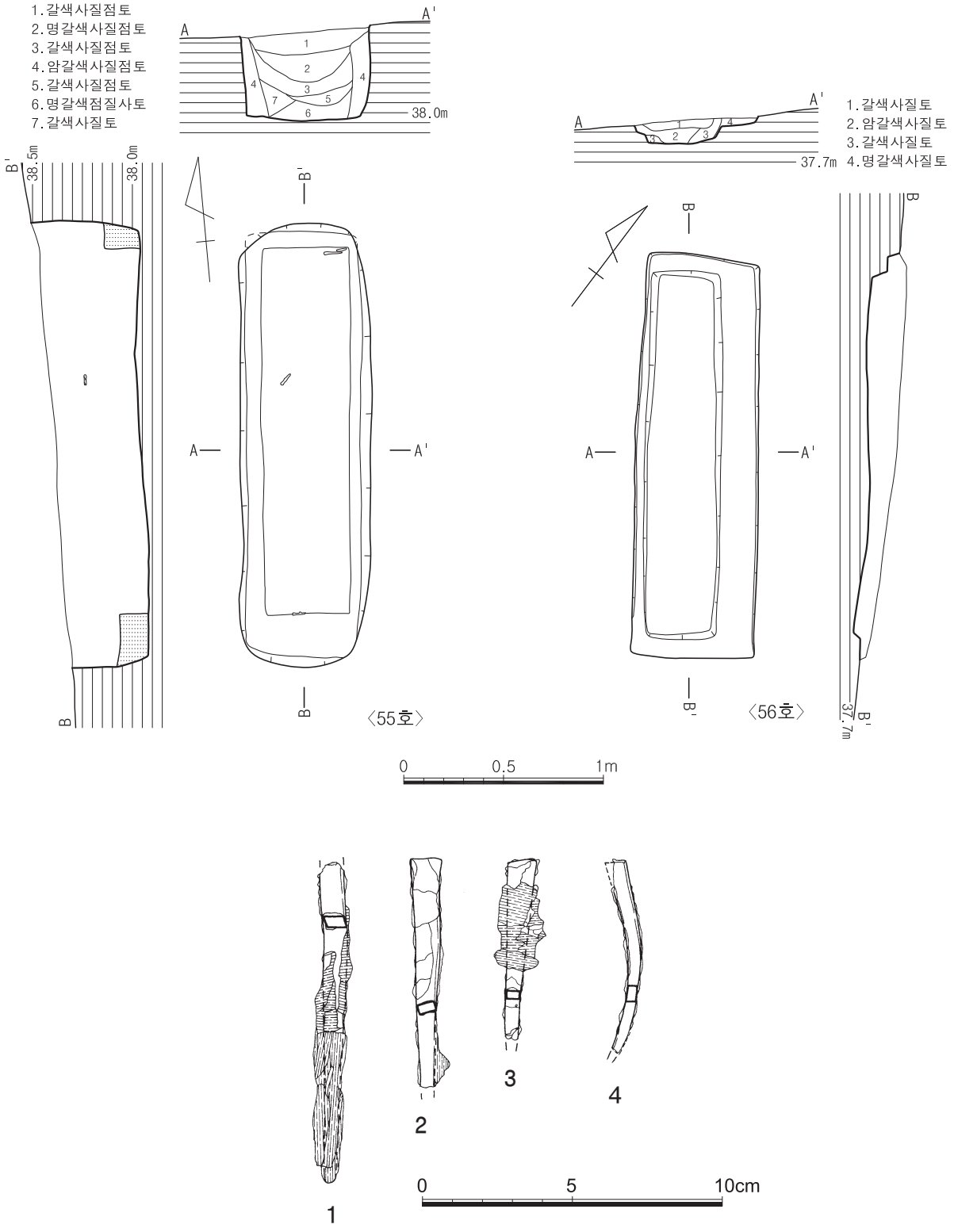
55) 5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1, 사진 305)

5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56호 토광묘, 동남쪽 1.5m 지점에 조선시대 60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4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5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어깨선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3×65×54㎝(3.43:1), 목관은 북단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83×43㎝(4.26: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 안쪽에서 관정 2점, 서측 관선 안쪽에서 관정 1점, 남측 관선상에서 관정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21. 3지점 조선 55·5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4:55호)

(2) 유물

①~④ 관정

유물 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21-1	305-④	(10.8)	0.7	0.4	20	선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②	221-2	305-⑤	(7.7)	0.6	0.4	9	말단부 결실,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③	221-3	305-⑥	(6.0)	0.5	0.3	8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④	221-4	305-⑦	(6.5)	0.4	0.6	6	말단부와 선단부 일부 결실, 휘어짐

56) 5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1, 사진 305)

5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55호 토광묘, 동쪽에 연하여 조선시대 60호 토광묘,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9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어깨선만 남은 상태로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7°-W로 등고선과 사선방향이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이단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3×61×14㎝(3.43:1), 내광 규모는 185×38×㎝(4.87:1), 목관은 서장벽에 치우쳐 배치되었고,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57) 5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2, 사진 306)

5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남서쪽에 연하여 고려시대 2호 주거지와 중복, 북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6호 토광묘,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3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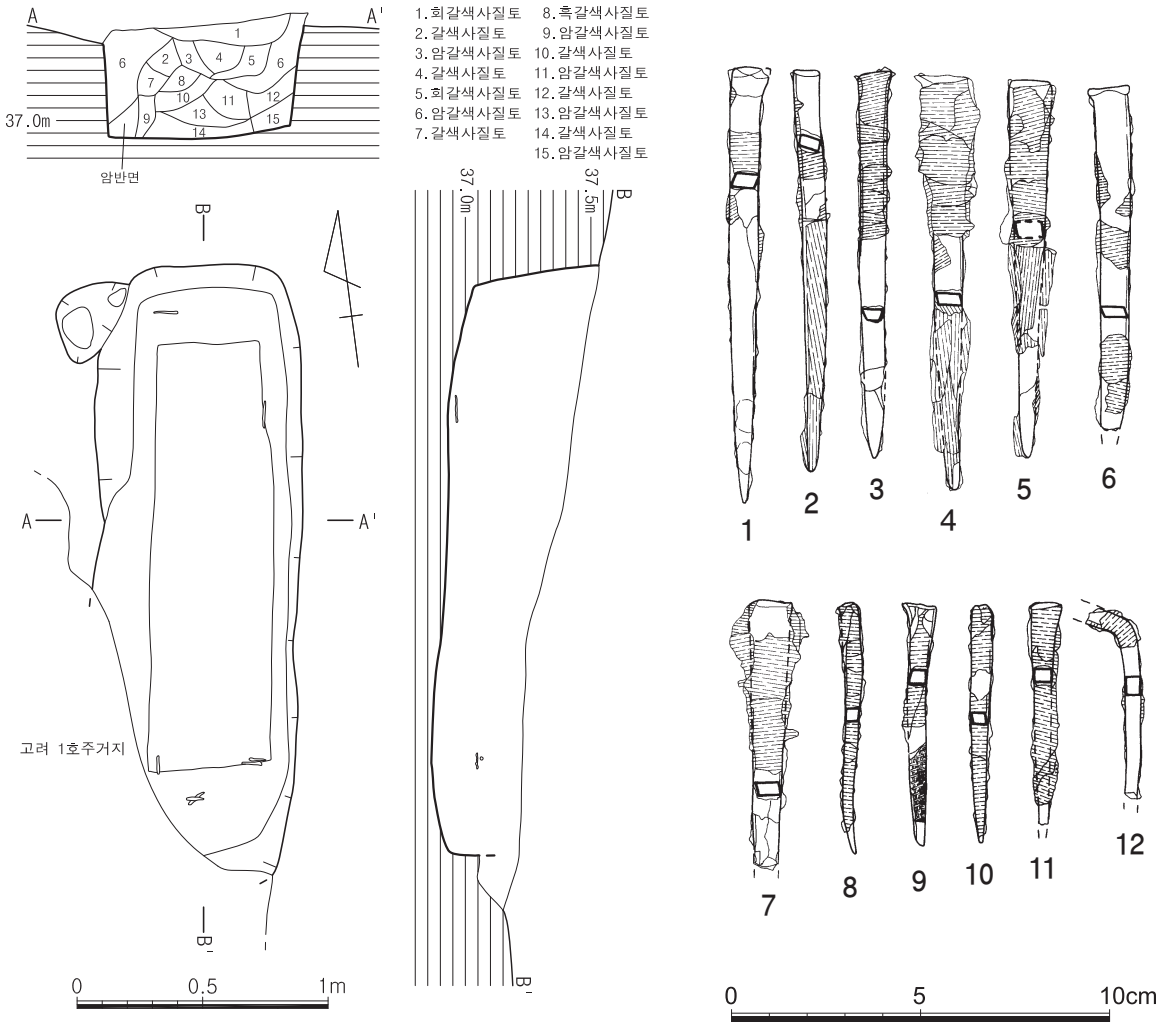
층위는 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잦은 함몰로 인하여 부분적인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6·12·15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남단벽과 서장벽 일부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32×80×50㎝,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69×48㎝(3.52: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과 북단벽 사이, 동측 관선 북쪽과 남측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⑫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22-1	306-③	11.5	0.6	0.4	1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②	222-2	306-④	10.6	0.6	0.4	1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③	222-3	306-⑤	10.4	0.6	0.4	13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④	222-4	306-⑥	11.1	0.6	0.4	2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⑤	222-5	306-⑦	10.1	0.7	0.4	1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⑥	222-6	306-⑧	(9.1)	0.6	0.3	14	말단부 결실, 횡방향 목질흔
⑦	222-7	306-⑨	(7.1)	0.6	0.4	14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⑧	222-8	306-⑩	6.8	0.4	0.4	5	완형, 횡방향의 목질흔, 말단부가 살짝 휘어짐
⑨	222-9	306-⑪	6.4	0.5	0.4	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뿌리부분에 포흔 있음
⑩	222-10	306-⑫	6.3	0.4	0.4	5	완형, 횡방향의 목질흔
⑪	222-11	306-⑬	(5.9)	0.5	0.4	5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⑫	222-12	306-⑭	(5.1)	0.4	0.5	5	신부만 남음, 횡방향의 목질흔, 신부가 구부러짐



도면 222. 3지점 조선 5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58) 5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3, 사진 306)

5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에 조선시대 59호 토광묘와 중복, 북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62호 토광묘, 서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1층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부는 서에서 동으로 퇴적되었으며 서쪽은 얕게 이단굴광하였다. 잔존상태는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58호 토광묘의 조성으로 서장벽 중간 이하와 남단벽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98×104×30㎝, 목관은 북벽에 치우쳐 배치되었고, 잔존규모는 191×72㎝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측 관선 서쪽 모서리와 내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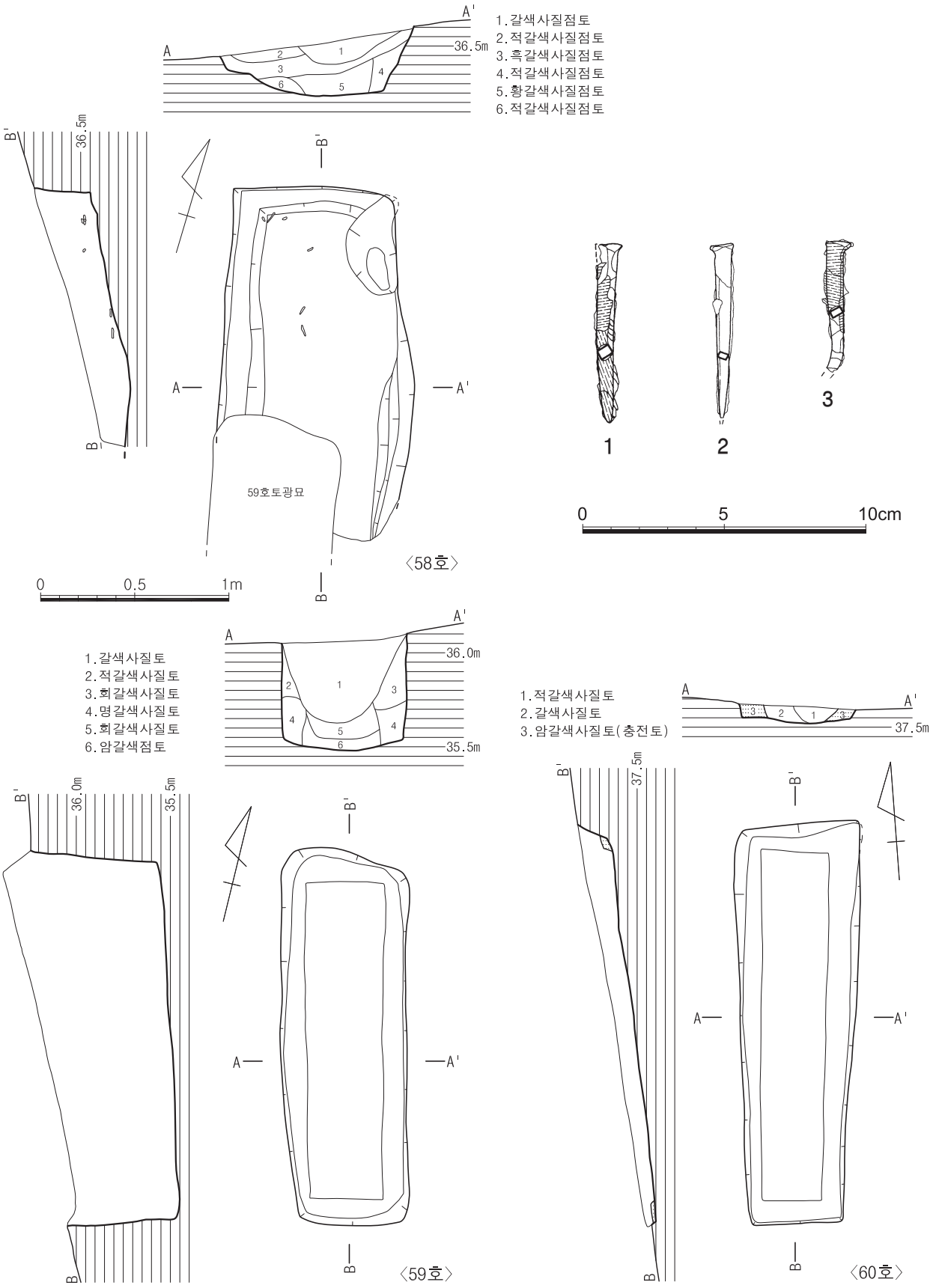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23-1	306-⑰	6.4	0.5	0.3	4	선단 일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사방향 목질흔
②	223-2	306-⑱	(6.2)	0.4	0.2	3	말단부 결실
③	223-3	306-⑲	(4.7)	0.4	0.3	3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말단부가 휘어짐

59) 5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3, 사진 307)

5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와 중복, 북동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62호 토광묘, 서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5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24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U'자형을 이루고 있다. 2~4층은 충전토이며 함몰로 인하여 상부는 안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어깨선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9×67×67㎝(2.97: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69×40㎝(4.23: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23. 3지점 조선 58·59·6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58호)

60) 6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3, 사진 307)

6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 조선시대 63호 토광묘와 장벽이 연접해 있고, 서쪽은 조선시대 56호 토광묘와 남단벽이 연접, 남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6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82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삭평으로 인하여 충전토와 어깨선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3×60×16㎝(3.6: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85×30㎝(6.17:1)로 토광목관묘이다.

61) 6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4, 사진 308)

6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0호 토광묘,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 남동쪽에 조선시대 65·66호 토광묘가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어깨선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4×66×35㎝(3.24:1), 목관은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81×43㎝(4.21: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측 관선과 남서 모서리 사이 암갈색 사질점토에서 청동완 1점, 청동숟가락 1점, 청동젓가락 1쌍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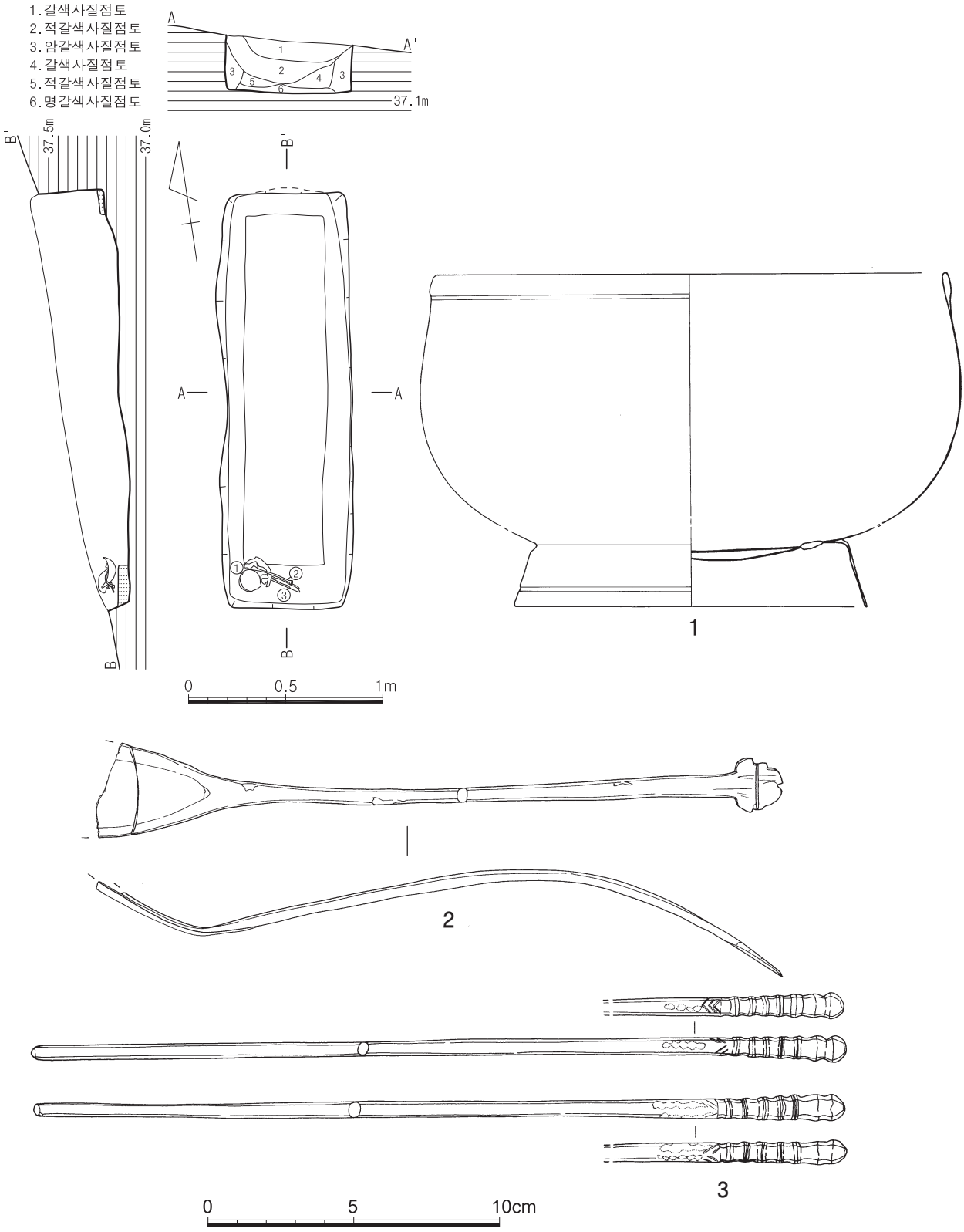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24-1, 사진 308-⑤)

청동대부완으로 대각은 온전히 남아있으나 구연과 신부가 약 1/2가량 남아있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배부른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도톰하게 처리되었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대각은 '八' 자형으로 벌어지며 대각단 위에도 횡침선을 둘렀다. 바닥면 2군데에 원두정이 박혀 있는데 신부와 대각부를 따로 제작하여 결합하였다. 내외면으로 회전깎기흔이 잘 남아있다. 복원고 11.5㎝, 복원구경 17.8㎝, 각경 12.1㎝, 무게 254g

② 청동숟가락(도면 224-2, 사진 308-⑥)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부분이 결실되었다. 두께감이 있으며 숟가락 측면의 형태는 크게 'S' 자형으로 彎



도면 224. 3지점 조선 6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曲한다.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고 얇아지는데 끝부분을 꽃잎모양으로 납작하게 만들었다. 술대의 중앙부 단면은 반원형이고,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3.6㎝, 무게 42g

③ 청동젓가락(도면 224-3, 사진 308-⑦·⑧)

완형이다. 길이나 폭, 평면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손잡이부분은 요철로 모양을 내고 끝부분은 봉오리형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요철면 시작지점 앞에 點打로 문양을 넣고 'V'자형으로 짧은 침선을 3조씩 새겨 넣었다. 단면은 원형이다. 길이 28.0㎝, 무게 53g, 59g

62) 6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5, 사진 309)

6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에 조선시대 65·66호 토광묘와 연접,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58호 토광묘, 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6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3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적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어깨선까지 삭평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71×55×14㎝(3.11:1), 목관은 북벽에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48×40㎝(3.7:1)로 토광목관묘이다.

63) 6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5, 사진 307·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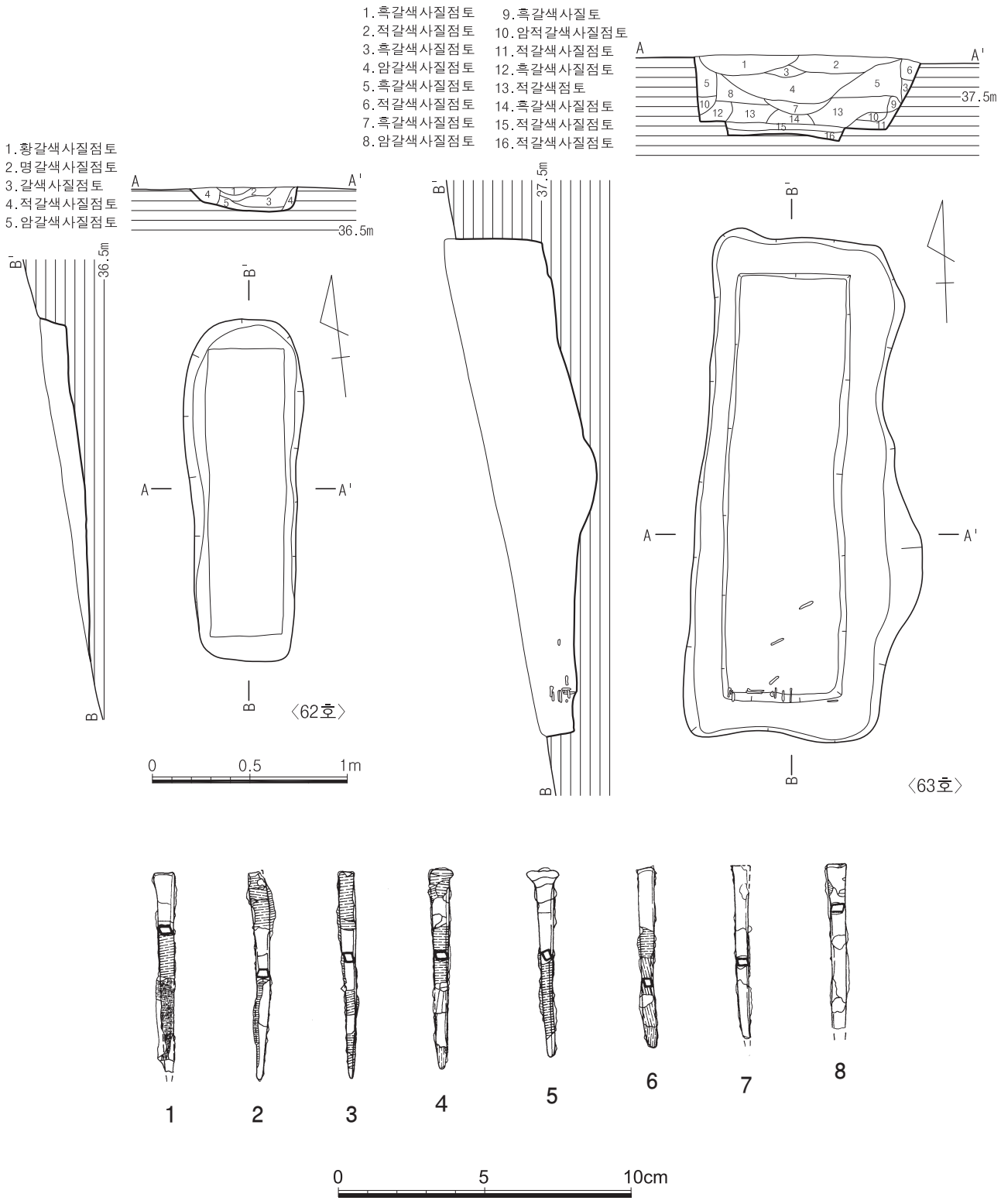
6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조선시대 60호 토광묘와 서장벽이 연접, 동쪽 2.5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94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15·16층은 바닥을 다져서 깔았으며 중앙부 함몰로 인하여 양측면은 불규칙한 토층양상을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어깨선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5×116×44㎝(2.2:1), 내광 규모는 220×62×7㎝, 목관은 서장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내광 규모와 동일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쪽 관선 주변과 발치쪽 내부에서 관정이 출토 되었다.

(2) 유물

①~⑧ 관정



도면 225. 3지점 조선 62·6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8:63호)

유물 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25-1	309-⑥	(6.8)	0.4	0.3	3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뿌리부분 목질흔 위에 포흔이 있음
②	225-2	309-⑦	7.2	0.5	0.3	5	선단 일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③	225-3	309-⑧	7.1	0.3	0.3	4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④	225-4	309-⑨	6.9	0.4	0.3	3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⑤	225-5	309-⑩	6.5	0.3	0.3	3	완형, 횡방향 목질흔
⑥	225-6	309-⑪	6.2	0.3	0.3	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⑦	225-7	309-⑫	(6.0)	0.3	0.3	3	말단부와 선단 일부 결실
⑧	225-8	309-⑬	(5.6)	0.5	0.3	4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일부에 횡방향 목질흔

64) 6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6, 사진 310)

6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조선시대 61호 토광묘, 서남쪽 조선시대 65호 토광묘와 연접,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1층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흑갈색 사질점토는 동벽에만 충전하였으며 서벽은 5층 흑갈색 사질점토가 사선방향으로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 6·7층은 동쪽 바닥의 높이에 맞추어 바닥에 다져서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까지 연결되는데, 하부는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6×72×31㎝(2.86: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1×45㎝(3.8: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에서 서측 관선과 서벽 사이 흑갈색 사질점토에서 청동합 1점과 그 아래에서 청동 숟가락 1점, 북측 관선 주변과 남측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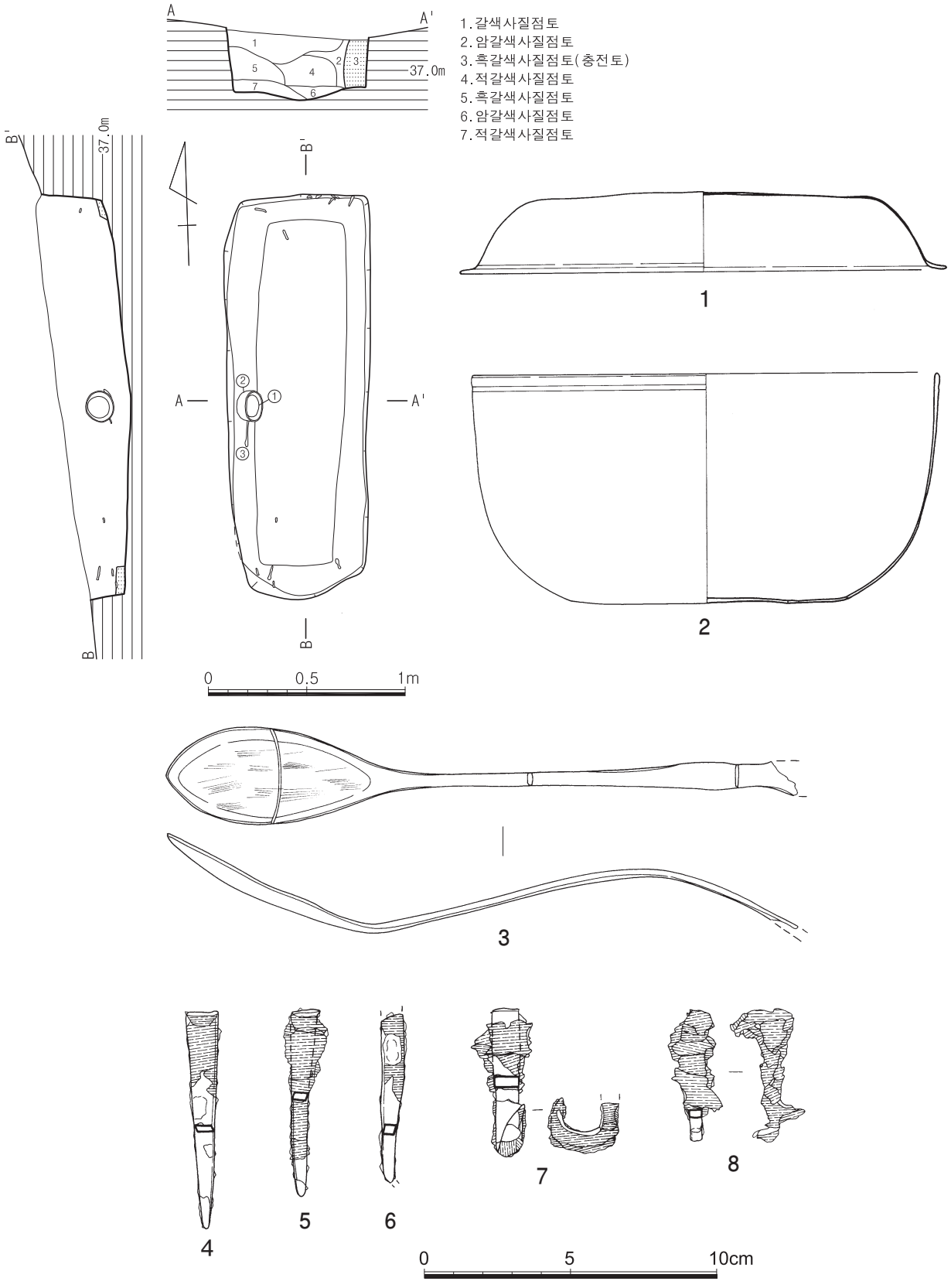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합(도면 226-1·2, 사진 310-⑨·⑩)

완형의 청동합으로 상태가 양호하다. 蓋는 상면이 평평하며 부드럽게 내려와 드림부에서 직각에 가깝게 꺾여 벌어진다. 신부 외면에는 갈틀에 의한 회전깎기흔이 잘 남아있다. 盒身의 바닥은 평평하며 동체부는 곡사선으로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구연부는 직립한다. 蓋의 드림부와 盒身의 구연단부는 도톰하게 처리되었다. 蓋: 고 2.7㎝, 드림경 16.6㎝, 무게 198g, 盒身: 고 7.9㎝, 구경 15.8㎝, 저경 9.2㎝, 무게 337g

② 청동숟가락(도면 226-3, 사진 310-⑪)

술대 말단부가 결실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숟가락의 측면형태는 'S' 자형으로 크게 彎曲한다. 술잎은 柳葉形으로 사용으로 인해 닳아 있으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지는데 말단부에서 한번



도면 226. 3지점 조선 64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벌어진다. 술대의 단면은 중앙부는 장방형, 말단부는 세장방형을 보인다. 현길이 21.6㎝, 술잎길이 7.0㎝, 술잎폭 3.3㎝, 무게 21g

③~⑦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26-4	310-④	7.4	0.6	0.2	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흔
④	226-5	310-⑤	6.4	0.5	0.3	6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⑤	226-6	310-⑥	(5.8)	0.4	0.4	4	신부만 남음, 횡방향 목질흔
⑥	226-7	310-⑦	5.1	0.9	0.4	9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흔, 뿌리부분이 구부러짐
⑦	226-8	310-⑧	4.5	0.4	0.3	6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선단부와 말단부가 꺾여 있음

65) 6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7, 사진 311)

6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조선시대 66호 토광묘와 중복, 서북쪽 조선시대 61호 토광묘와 연접, 서남쪽 조선시대 62호 토광묘와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1m이다.

층위 상부는 66호 토광묘 조성 시 파괴되었으며 하부만 남아있다.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상부는 66호 토광묘 조성 시 훼손되어 동·서 장벽 2/3와 남단벽이 바닥부만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05×79×83㎝, 목관은 북벽에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53×43㎝(3.56: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측 관선과 남단벽 사이 암갈색 사질토에서 분청사기발 1점과 그 아래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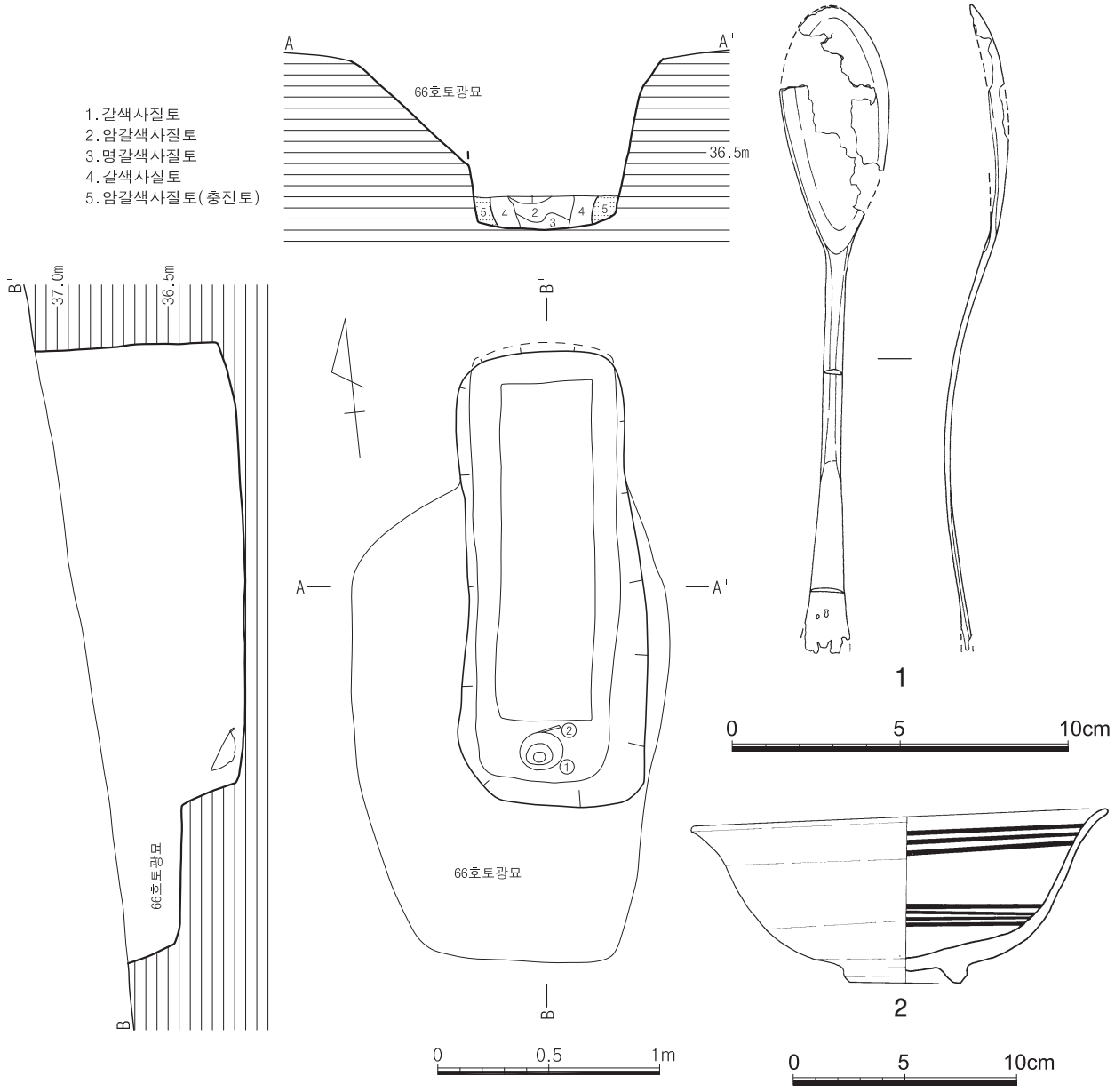
(2) 유물

① 분청사기발(도면 227-2, 사진 311-⑤)

완형이다. 굽은 죽절형식으로 다소 거칠게 깎았고, 기벽은 곡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내면의 구연아래와 안바닥 가장자리에 각 3·4조의 침선을 돌리고 백토분장하였다. 유색은 녹갈색을 띠는데 전체적으로 유약을 얇게 입혔으며 구연과 굽주변 일부에 유약이 뭉쳐있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8.0㎝, 구경 18.7㎝, 저경 5.1㎝

② 청동숟가락(도면 227-1, 사진 311-⑥)

술잎 일부와 술대의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이고,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넓어지고 얇아진다. 술대 단면은 중앙부는 반원형, 말단부는 구부러진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19.3㎝, 무게 9g



도면 227. 3지점 조선 65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66) 6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8, 사진 312)

6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조선시대 65호 토광묘를 훼손하고 중복, 서쪽은 조선시대 62호 토광묘와 연접,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7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불규칙한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65호 토광묘를 훼손하면서 상부는 그 내부토가 일부 남아있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7×118×22㎝, 목관 잔존규모는 205×75㎝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북벽 어깨선에서 백자대접편 1점이 수습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대접(도면 228-1, 사진 312-⑤)

전체기형의 1/2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며, 기벽은 굽에서 곡사선으로 이어져 구연에서 외반한다. 안바닥에는 굽지름보다 큰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회백색을 띠는 태토는 깨끗하며, 담청색의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는데 발색이 고르지 못해 부분적으로 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8.5㎝, 복원구경 17.9㎝, 복원저경 5.7㎝

67) 6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8, 사진 313)

6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조선시대 68호 토광묘와 연접,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65·66호 토광묘, 서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6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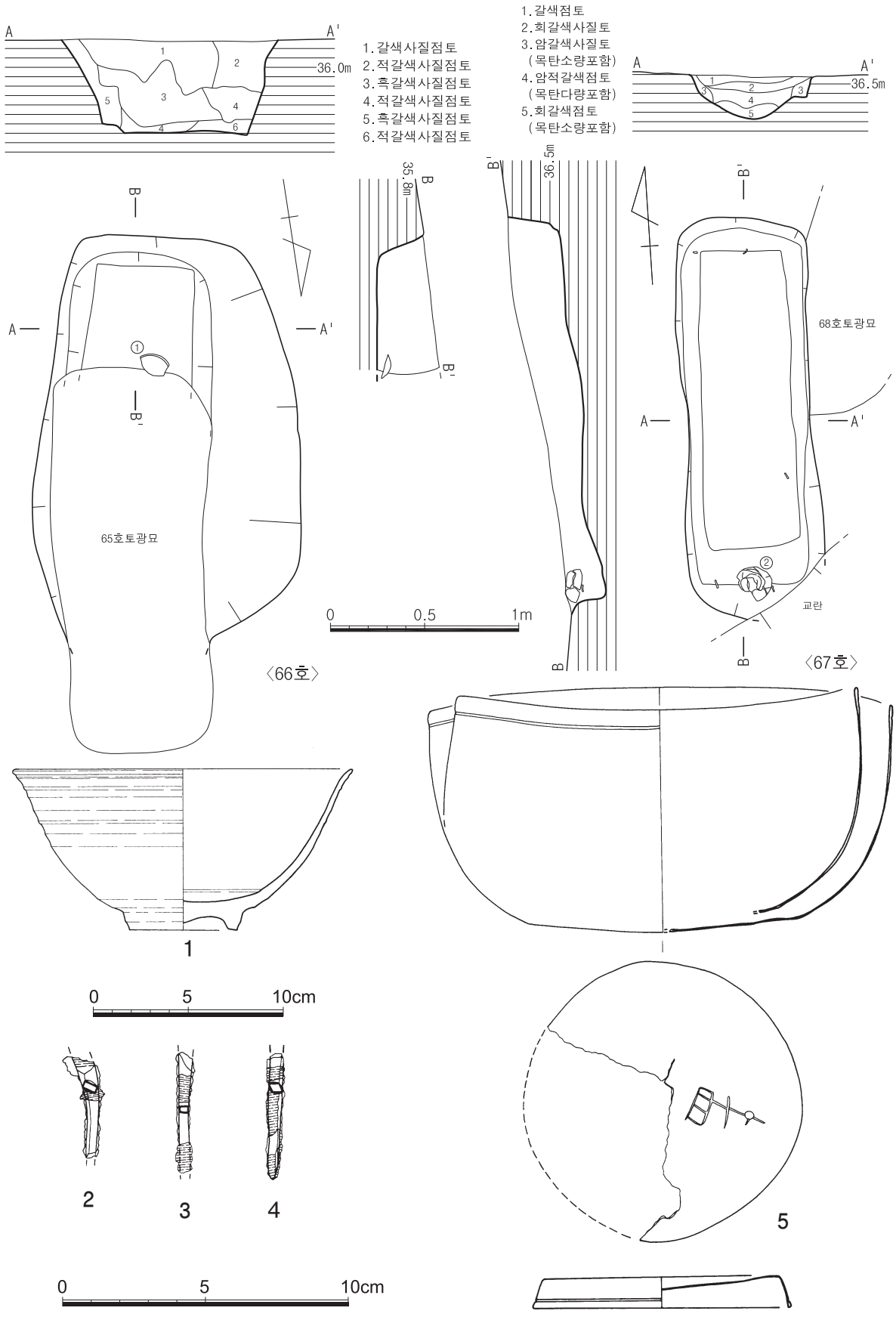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점토-회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점토-회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3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로 남동 모서리 어깨선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3×64×26㎝, 내광 규모는 158×48×4㎝, 목관은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내광과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남측 관선과 남단벽 사이 암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완 1점과 관정이, 북측 관선 주변과 동측관선 남동 모서리쪽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28-5, 사진 313-⑦)

청동대부완으로 완신과 대각이 분리된 채 출토되었다. 구연과 신부는 찌그러진 상태이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배부른 형태이며 동중위에서 구연까지는 살짝 내만한다. 구연부는 도톰하게 처리하고 그 아래를 약간 깊게 깎아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접은 것 같은 형태를 보인다. 바닥외면에는 十四로 추정되는 글자가 세로로 음각되어 있다. 대각은 낮은 편으로 八자상으로 벌어지는데 대각단부를 도톰하게 처리하고 외면에 횡침선을 둘렀다. 저면에 원두정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 2개가 뚫려 있다. 고 9.7㎝, 구경 14.0~16.1㎝, 각경 8.9㎝, 무게 236g



도면 228. 3지점 조선 66·6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66호, 2~5:67호)

②~④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28-2	313-④	(3.6)	0.5	0.3	2	신부만 남음, 횡방향의 목질흔
③	228-3	313-⑤	(4.3)	0.3	0.3	2	신부만 남음, 횡방향의 목질흔
④	228-4	313-⑥	(4.5)	0.4	0.3	2	말단부만 남음, 횡방향의 목질흔

68) 6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9, 사진 314)

6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조선시대 67호 토광묘와 연접,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 서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6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8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명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얕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4·5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충전토와 어깨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6×67×40㎝(3.22: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80×48㎝(3.75: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머리쪽 서측 관선 안쪽에 연하여 청동숟가락 1점, 북측 관선 주변과 남측 관선 주변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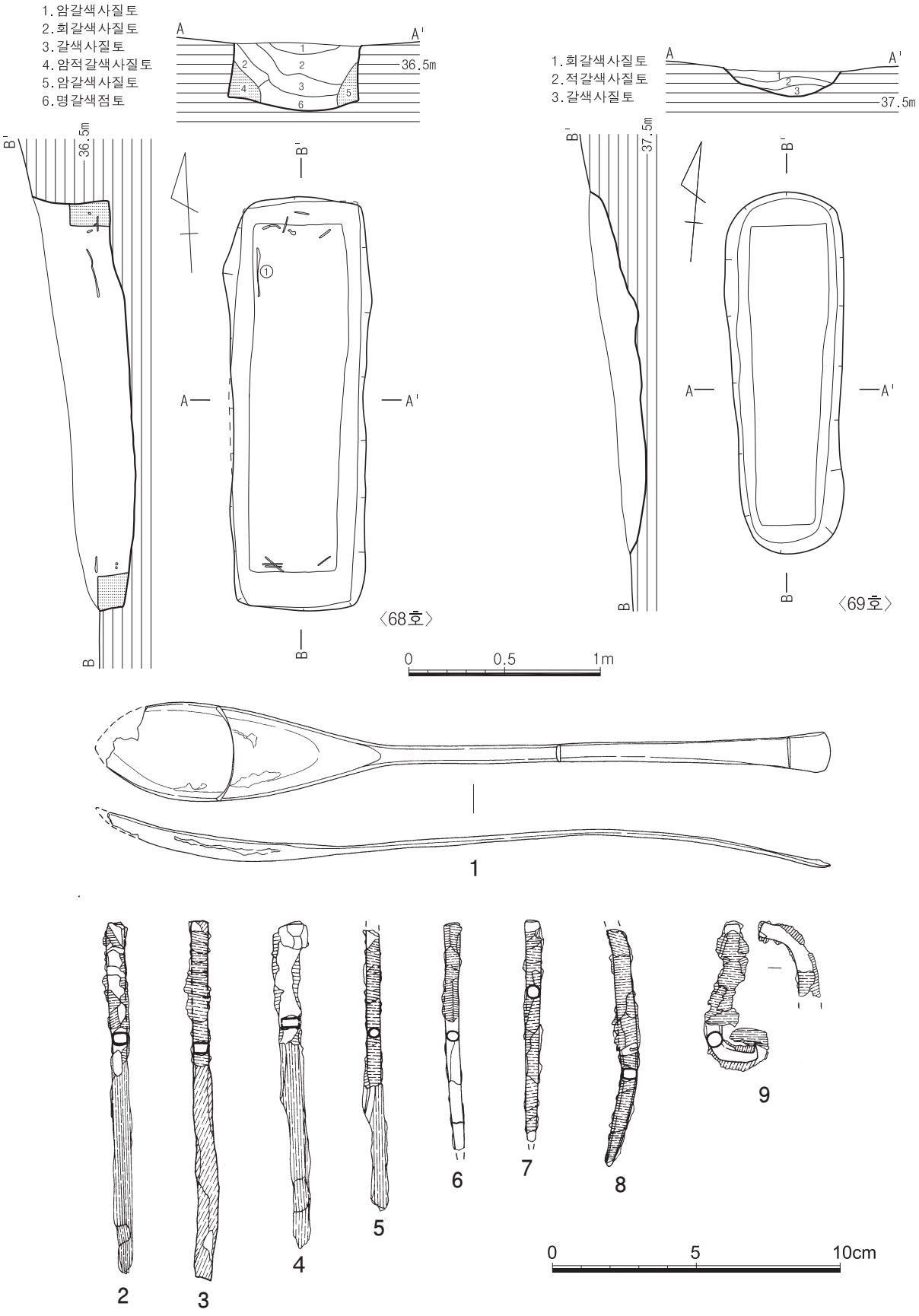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29-1, 사진 314-⑪)

술잎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은 柳葉形이며, 술대는 말단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얇아진다. 술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며, 말단부는 세장타원형이다. 현길이 25.2㎝, 술잎폭 3.4㎝, 무게 22g

②~⑨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29-2	314-③	12.2	0.5	0.4	1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③	229-3	314-④	12.5	0.5	0.4	1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④	229-4	314-⑤	11.4	0.6	0.4	15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선단부가 구부러짐
⑤	229-5	314-⑥	(9.8)	0.4	0.4	9	선단부 결실, 단면 원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⑥	229-6	314-⑦	(8.0)	0.4	0.4	5	말단부 결실, 단면 원형,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⑦	229-7	314-⑧	(7.7)	0.5	0.4	6	말단부 결실, 단면 원형,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⑧	229-8	314-⑨	(8.3)	0.5	0.4	8	선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말단부가 구부러짐
⑨	229-9	314-⑩	5.2	0.6	0.6	9	완형, 단면 원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전체적으로 구부러짐



도면 229. 3지점 조선 68·69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9:68호)

69) 6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29, 사진 314)

6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와 연접, 서쪽 3m지점에 조선시대 63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7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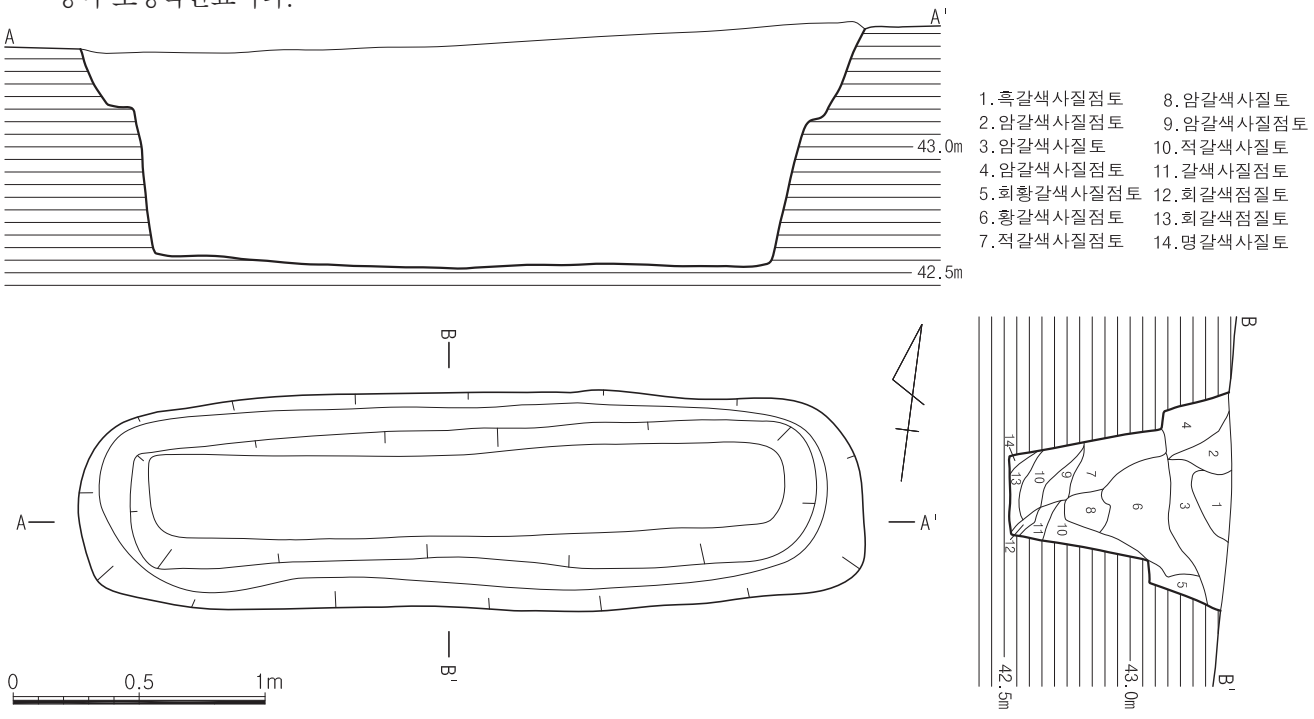
층위는 회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9×61×6㎝(3.1: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152×35㎝(4.34:1)로 토광목관묘이다.

70) 7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0, 사진 315)

70호 토광묘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동남사면에 위치하며 남쪽 5m지점에 조선시대 28호 토광묘, 남서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98호 토광묘, 동쪽 17m지점에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2.36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가 우세하며 얕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정상부에 위치한 관계로 평평하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3°-E로 등고선과 나란하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이단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5×71×33㎝(3.31:1), 내광 규모는 210×45×13㎝(4.67: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내광과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0. 3지점 조선 70호 토광묘 유구

71) 7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1, 사진 316)

7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 북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36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상부는 얕은 'U'자형을 이루고 있고, 하부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10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9×85×48㎝(2.58:1), 목관은 서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4×48㎝(3.63: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중심선 중앙 동측 관선과 동벽 사이 암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 청동완 1점, 북측 관선과 북단벽 사이, 청동완 아래와 중심선 가슴쪽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청동완(도면 231-2, 사진 316-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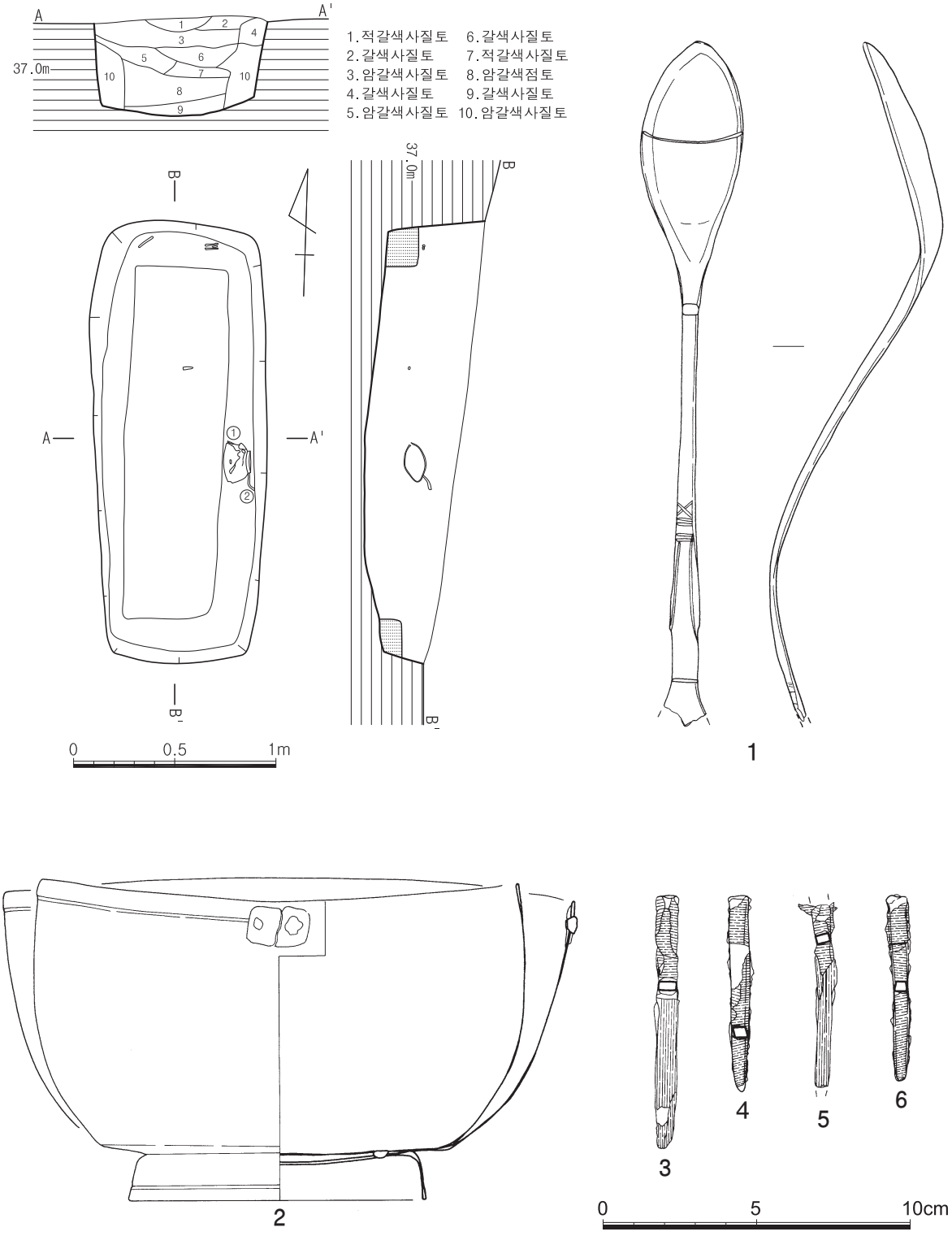
청동대부완으로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는데 찌그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신부는 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는 둥근 형태로 신부의 두께는 얇고 구연단은 도톰하게 처리되었는데 단이 지면서 신부로 이어진다. 구연아래 한 곳에는 내외면으로 장방형의 청동판을 대고 원두정 2개를 박았다. 저부에는 낮은 대각이 부착되어 있는데 대각단 바로 위에 횡침선을 넣었다. 바닥면 4곳에 원두정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완신과 대각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시켰다. 고 10.5㎝, 구경 15.5~18.6㎝, 각경 9.7㎝, 무게 302g

② 청동숟가락(도면 231-1, 사진 316-⑨)

술대의 말단부가 결실되었으며,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숟가락의 측면 형태는 크게 'S'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의 평면형태는 柳葉形으로 깊이가 얕은 편이며, 술대는 말단부에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은 결실되었지만 燕尾形으로 갈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X'자형의 침선과 두줄씩 일자형의 침선을 등간격으로 넣었고, 이어서 자루의 길이방향으로 'V'자형의 침선을 새겼다. 술대의 중앙부의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는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2.3㎝, 술잎길이 7.3㎝, 술잎폭 3.3㎝, 무게 40g

③~⑥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③	231-3	316-⑤	8.3	0.6	0.3	9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④	231-4	316-⑥	6.4	0.5	0.4	6	완형,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⑤	231-5	316-⑦	(6.0)	0.4	0.4	5	신부만 남음,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⑥	231-6	316-⑧	6.1	0.5	0.4	6	완형,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도면 231. 3지점 조선 71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72) 7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2, 사진 317)

7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68호 토광묘, 서남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6m이다.

층위는 암갈색 점토-회황갈색 점토-암갈색 점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3층 갈색 점토는 충전토이고, 5층 적갈색 점토는 홈을 메꾸어 바닥을 정지하였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8×70×17㎝(2.83:1), 목관은 북벽에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71×45㎝(3.8:1)로 토광목관묘이다.

73) 7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2, 사진 317)

7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 동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4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1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암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이루고 있다. 4층 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75×65×21㎝, 목관은 흔적만 확인되며 하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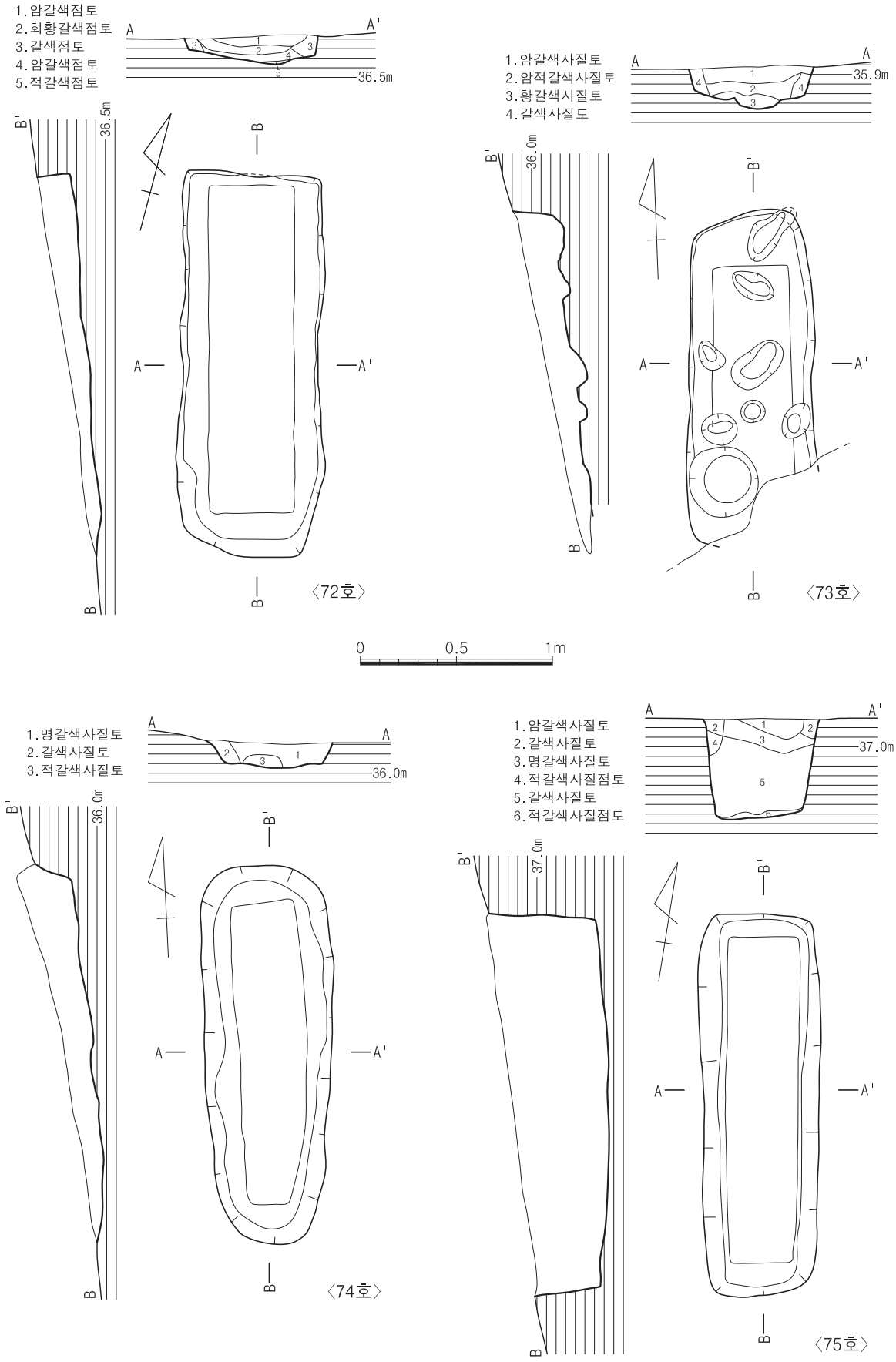
수혈 8개가 내부에 위치하는데, 중심선을 따라 3개, 서측 관선을 따라 3개, 동측 관선에 1개, 북측 관선과 북단벽 동쪽 모서리 부분 사이에 1개가 확인되었다. 용도는 알 수 없다.

74) 7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2, 사진 318)

7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조선시대 76호 토광묘와 연접, 서북쪽 1m지점에 조선시대 72호 토광묘, 서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7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32m이다.

층위는 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토는 불명확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었고, 하부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7×66×19㎝(2.98:1), 목관 규모는 158×30㎝(5.27: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2. 3지점 조선 72·73·74·75호 토광묘 유구

75) 7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2, 사진 318)

7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1호 토광묘, 동남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25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5층 갈색 사질토는 일시에 함몰된 것으로 보이며, 6층은 바닥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었으며 상부 일부만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0×60×56㎝(3.33:1), 목관 규모는 170×38㎝(4.47:1)로 토광목관묘이다.

76) 7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3, 사진 319)

7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은 조선시대 74호 토광묘와 연접, 동북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 동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76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황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삭평되었고,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2×83×23㎝(2.43:1), 내광 규모는 173×47×6㎝(3.68: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중심선 중앙에 규모 53×43×23㎝의 수혈이 위치하는데 용도는 요갱인 것으로 보이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측 관선 남쪽 모서리 바깥에서 청동숟가락 1점, 북측 관선 주변과 동측 관선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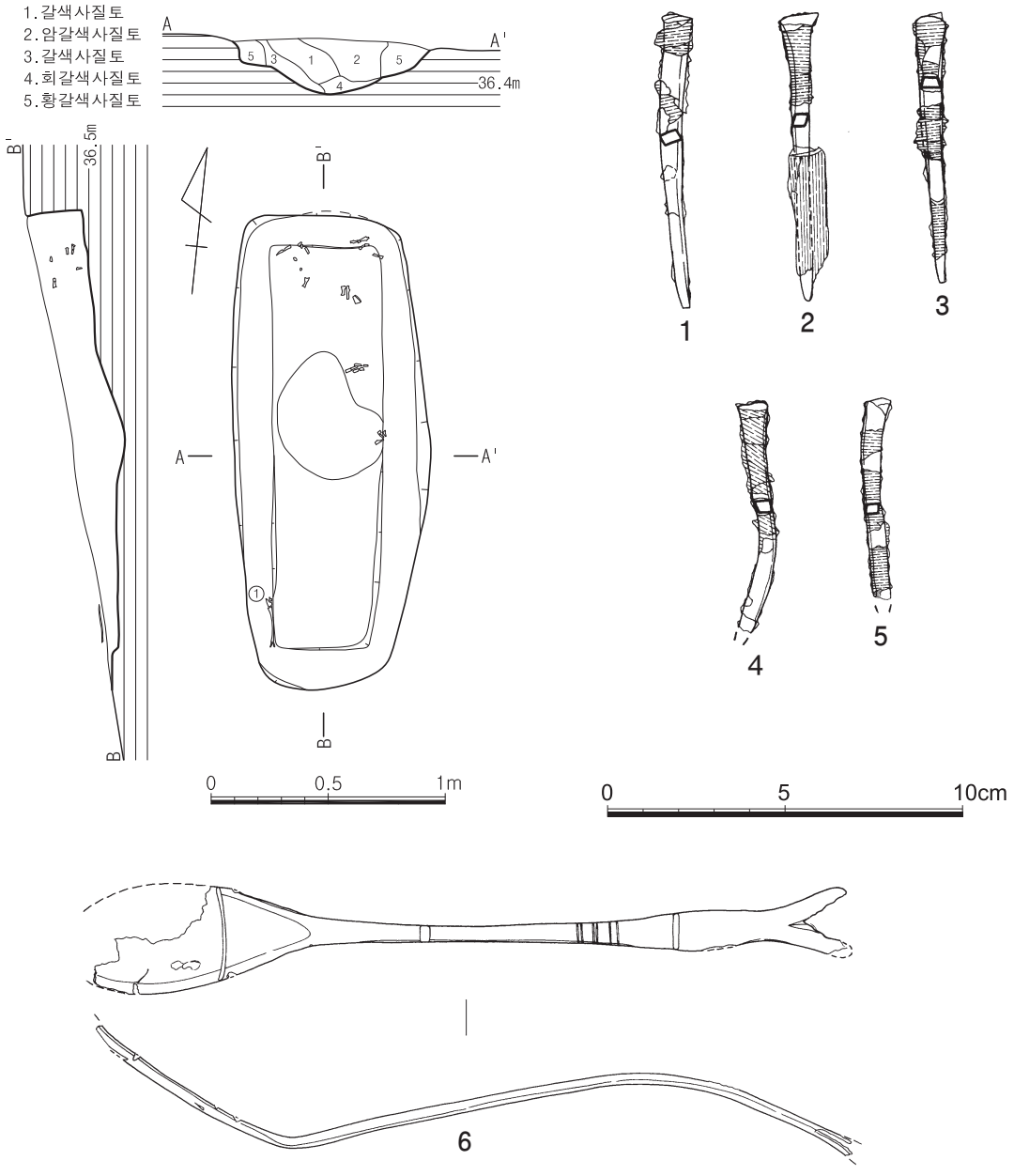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33-6, 사진 319-⑨)

부식이 심한 편으로 술잎이 1/2가량 결실되었다. 숟가락의 측면 형태는 크게 'S'자형으로 彎曲한다. 술잎은 깊이가 얕은 편이며, 술대는 말단부에서 이단으로 넓어지는데 끝부분이 燕尾形으로 갈라졌다. 술대의 가운데부분에는 두줄씩 일자형의 가는 침선을 등간격으로 새겨넣었다. 술대의 가운데부분 단면은 방형이며,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21.2㎝, 무게 24g

②~⑥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33-1	319-④	8.4	0.5	0.3	6	완형, 횡방향의 목질흔
③	233-2	319-⑤	8.1	0.4	0.4	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④	233-3	319-⑥	7.6	0.5	0.3	5	완형,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⑤	233-4	319-⑦	(6.5)	0.4	0.3	5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의 목질흔
⑥	233-5	319-⑧	(5.6)	0.4	0.3	3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도면 233. 3지점 조선 76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77) 7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4, 사진 320)

7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 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 서쪽 4m지점에 고려시대 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4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암갈색 사질점토는 충전토, 6층 회갈색 사질점토는 내광에 바닥을 정지하여 수평을 이루게 깔았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3×73×45㎝(3.05:1), 내광 규모는 176×45×6㎝(3.91: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수혈은 중심선 중앙에서 북측 관선 아래에 40㎝간격을 두고 2개, 동측 관선 주변에 3개가 확인되었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북측 관선과 북단벽 사이 암갈색 사질점토에서 백자대접 1점, 백자접시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백자대접은 서쪽 모서리, 백자접시와 청동숟가락은 동쪽 모서리에 부장되었다. 관정은 남·북 관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접시(도면 234-1, 사진 320-④)

완형이다. 굽은 약한 죽절형식이며 굽안쪽을 돌려깎았는데 가운데가 뾰족하다. 안바닥은 평평하다가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에서 약하게 외반한다. 청백색의 유조를 보이며 굽을 제외하고 유약을 입혔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에 녹반이 보이며 큰 빙렬이 있다. 접지면과 내저면 각 4곳에 태토받침 탈락흔이 남아있다. 고 3.9㎝, 구경 12.8㎝, 저경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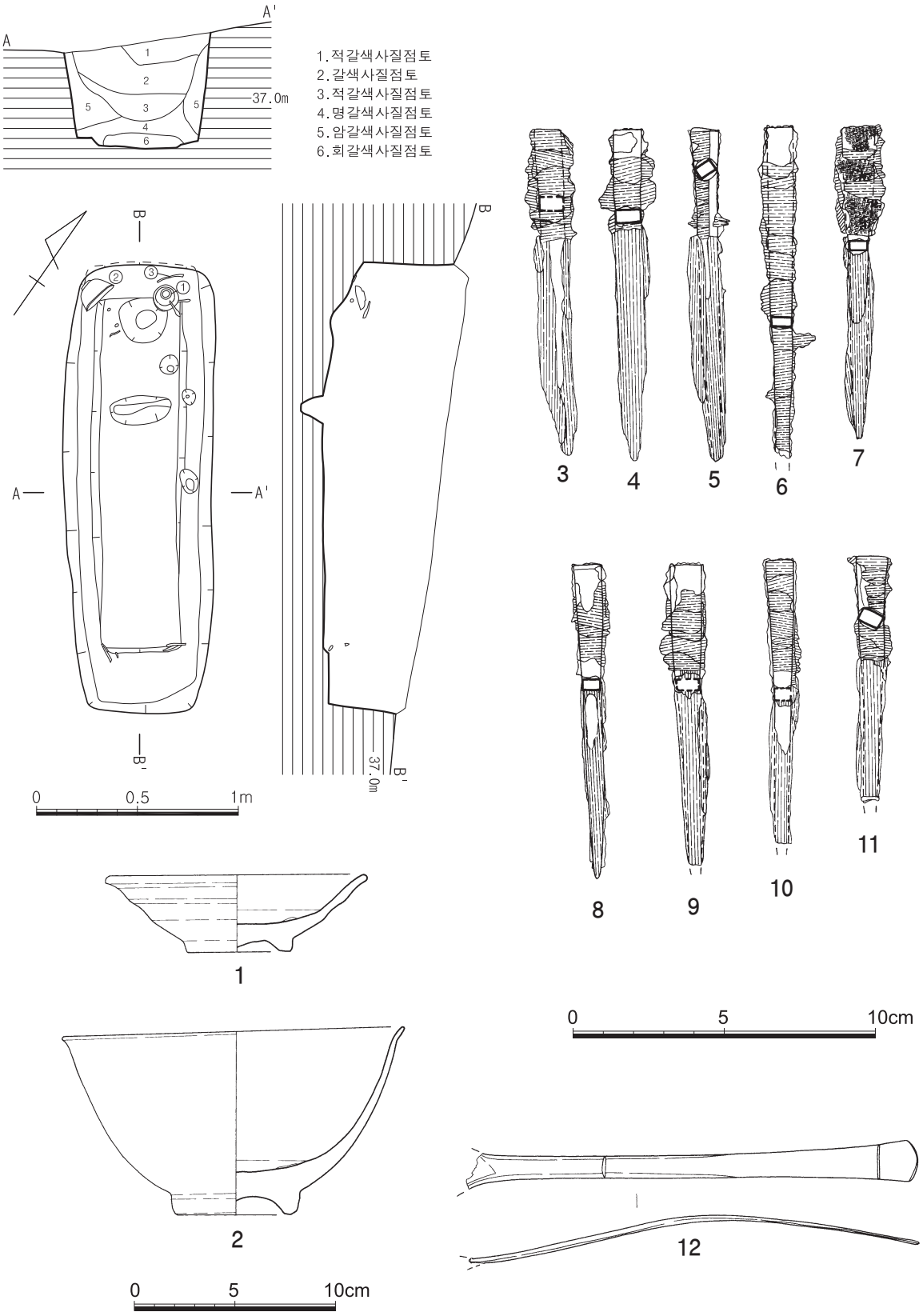
② 백자대접(도면 234-2, 사진 320-⑤)

완형이다. 굽은 죽절굽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며 기벽은 곡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안바닥에는 굽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광택이 있는 옅은 청백색의 유약을 입혔는데 전체적으로 발색은 좋은 편이나 굽주변은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동체 일부에는 포개구이 시 다른자기가 붙었던 흔적이 있다. 접지면에 4곳, 안바닥 5곳에 태토받침 탈락흔이 보인다. 고 9.5㎝, 구경 17.1㎝, 저경 6.1㎝

③ 청동숟가락(도면 234-12, 사진 320-⑮)

술대부분만 남아있는데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술대는 말단부로 가면서 넓어지고 얇아지는데 술대 가운데부분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말단부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14.9㎝, 무게 12g

④~⑫ 관정



도면 234. 3지점 조선 77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④	234-3	320-⑥	10.8	0.4	0.5	18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⑤	234-4	320-⑦	11.1	0.9	0.5	20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⑥	234-5	320-⑧	11.1	0.6	0.5	17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⑦	234-6	320-⑨	(11.1)	0.7	0.4	20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의 목질흔
⑧	234-7	320-⑩	10.4	0.7	0.4	16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머리부분 목질흔 위에 포흔이 있음
⑨	234-8	320-⑪	10.0	0.6	0.4	12	완형,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⑩	237-9	320-⑫	(10.1)	0.7	0.6	19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⑪	234-10	320-⑬	(9.5)	0.5	0.4	15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⑫	234-11	320-⑭	(8.2)	0.8	0.5	15	말단부 결실, 머리부분 횡방향, 뿌리부분 종방향의 목질흔

78) 7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5, 사진 321)

7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북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75호 토광묘, 서남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76호 토광묘, 남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8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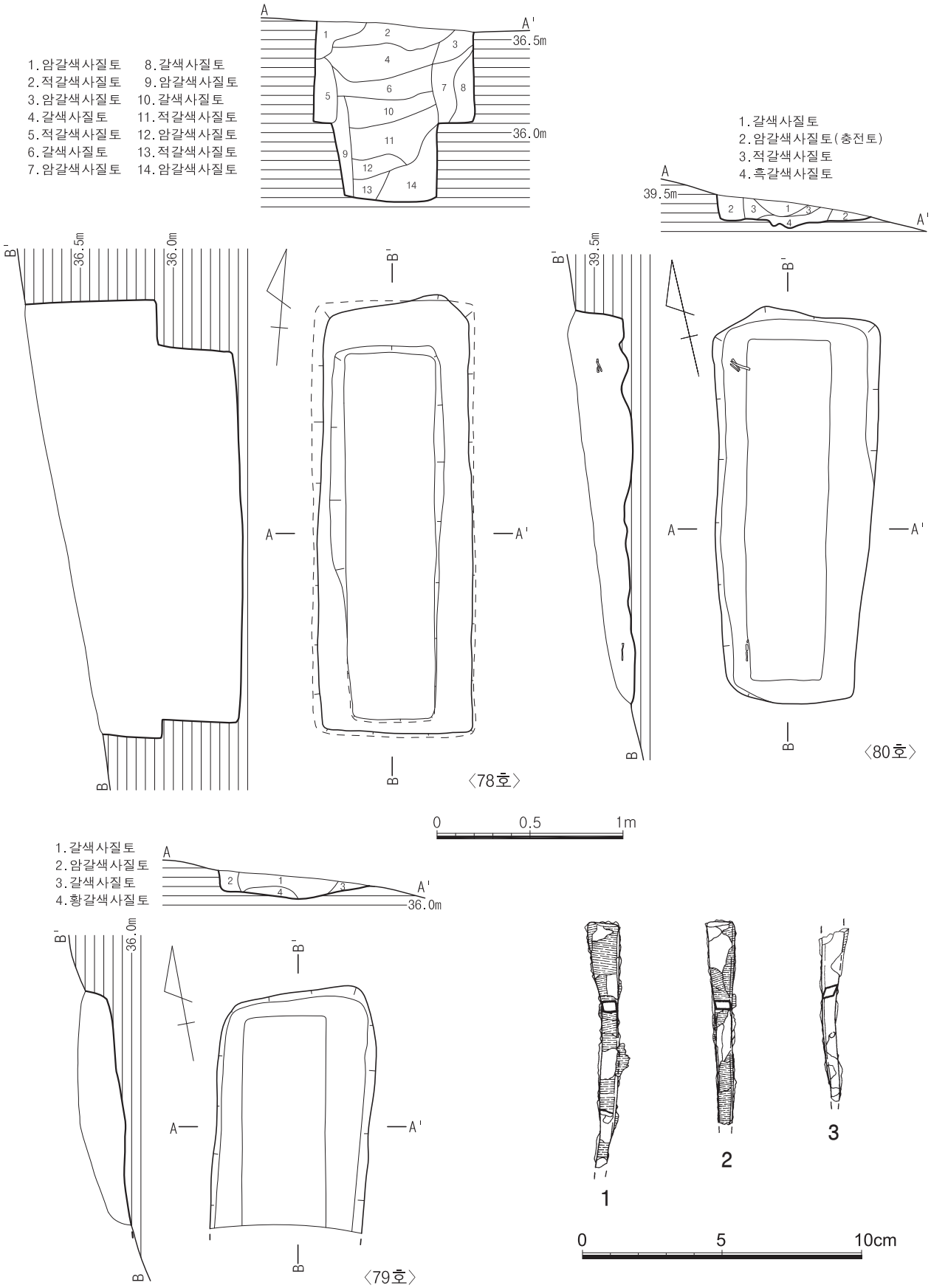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함몰로 인하여 상부는 'U'자형을 이루고, 하부는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1×83×111㎝(2.78:1), 내광 규모는 201×58×39㎝(3.47:1), 목관 규모는 198×49㎝(4:1)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79) 7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5, 사진 321)

7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3m지점에 조선시대 73호 토광묘, 서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4호 토광묘, 북쪽 2m지점에 조선시대 7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6.2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2·3층은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중·하단부는 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1°-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52×83×12㎝(1.8:1), 목관 잔존규모는 139×45㎝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5. 3지점 조선 78·79·80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3:80호)

80) 8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5, 사진 322)

8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7m지점에 조선시대 54호 토광묘, 동남쪽 6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6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흑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암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하단부는 삭평으로 인하여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2×83×25㎝(2.55:1), 목관은 중앙에서 서장벽쪽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으며 규모는 183×45㎝(4.07:1)로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서측 관선 북쪽 모서리와 서측 관선 남쪽 발치에 치우쳐 관정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③ 관정

유물번호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235-1	322-③	(8.9)	0.5	0.4	14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②	235-2	322-④	(7.3)	0.6	0.3	10	말단부 결실,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③	235-3	322-⑤	(6.2)	0.4	0.3	5	신부만 남음

81) 8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6, 사진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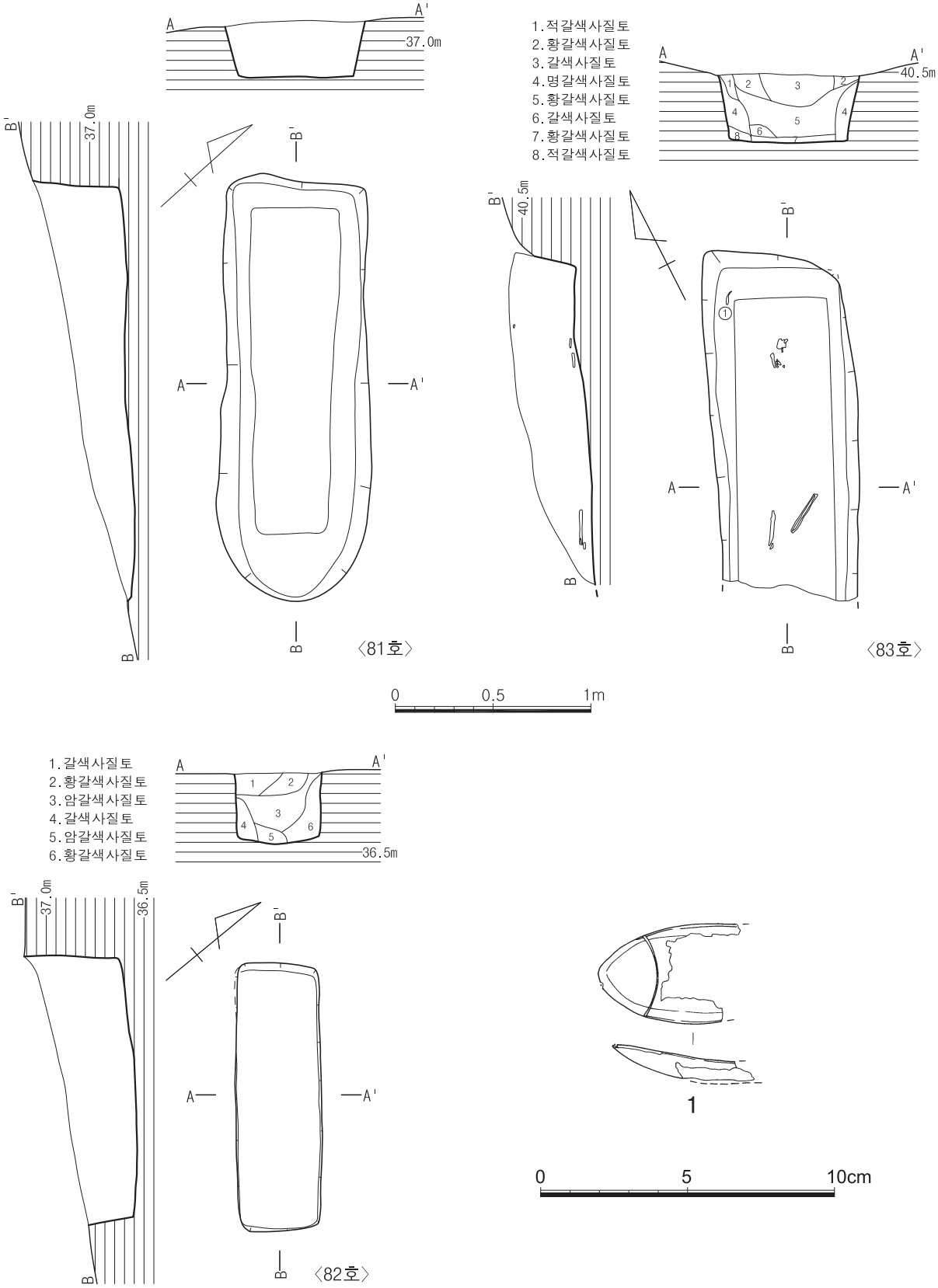
8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82호 토광묘, 서남쪽 19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서북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29m이다.

층위는 녹갈색 사질토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지형에 따른 경사면을 따라 하단부는 삭평으로 인하여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5×72×44㎝(2.99:1), 목관은 중앙에서 북벽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되었고, 규모는 167×40㎝(4.18:1)로 토광목관묘이다.

82) 8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6, 사진 323)

8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동남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0.5m지점에 조선시대 81호 토광묘, 서남쪽



도면 236. 3지점 조선 81·82·83호 토광묘 유구 및 출토유물(1:83호)

19.5m지점에 조선시대 77호 토광묘, 서북쪽 14.5m지점에 조선시대 1호 회곽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1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을 중심으로 상·하부가 동에서 서로 함몰되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1°-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37×45×48㎝(3.04:1)로 토광직장묘이다.

83) 8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6, 사진 323)

8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상단부 능선상에 위치하며 서북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99호 토광묘, 서남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8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55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명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며 7층 황갈색 사질토에는 인골흔이 남아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평평하며 하부는 포크레인에 의해 중간 이하는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183×72×38㎝, 목관은 관선이 명확하지 않으나 충전토의 존재로 보아 토광목관묘이다.

유물은 서측 관선 북쪽 모서리와 서장벽 사이 명갈색 사질토에서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고, 인골은 머리뼈 일부와 허벅지뼈 일부가 잔존한다.

(2) 유물

① 청동숟가락(도면 236-1, 사진 32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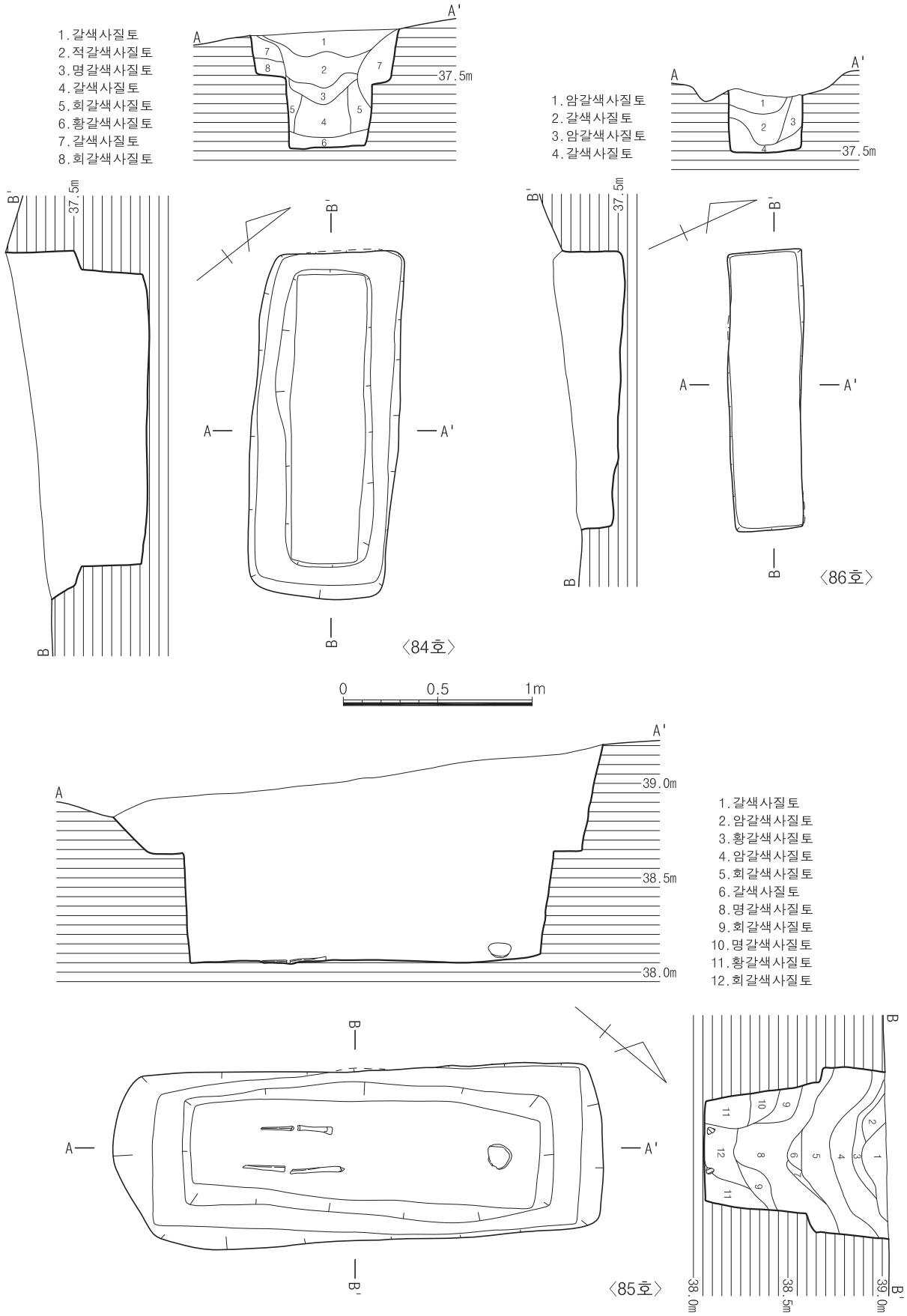
술잎 일부만 남아있다. 현길이 4.8㎝, 무게 2g

84) 8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7, 사진 324)

8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5호 토광묘, 서남쪽 21m지점에 조선시대 82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84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U'자형을 이루고 있다. 7·8층은 함몰되었고, 6층 황갈색 사질토는 바닥에 수평을 이루게 깔아 다짐하였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4×79×72㎝(2.33:1), 내광 규모는 158×46×32㎝(3.43: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7. 3지점 조선84·85·86호 토광묘 유구

85) 8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7, 사진 324)

8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4호 토광묘, 동남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야외노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상부는 'U' 자형을 이루고 있고, 하부는 중앙으로 일시에 함몰된 양상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60×90×111㎝(2.89:1), 내광 규모는 198×70×55㎝(2.83: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인골은 윗머리뼈 일부와 허벅지뼈, 정강이뼈 몸통부분이 잔존하고 있다.

86) 8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7, 사진 325)

8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4호 토광묘, 서북쪽 3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야외노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7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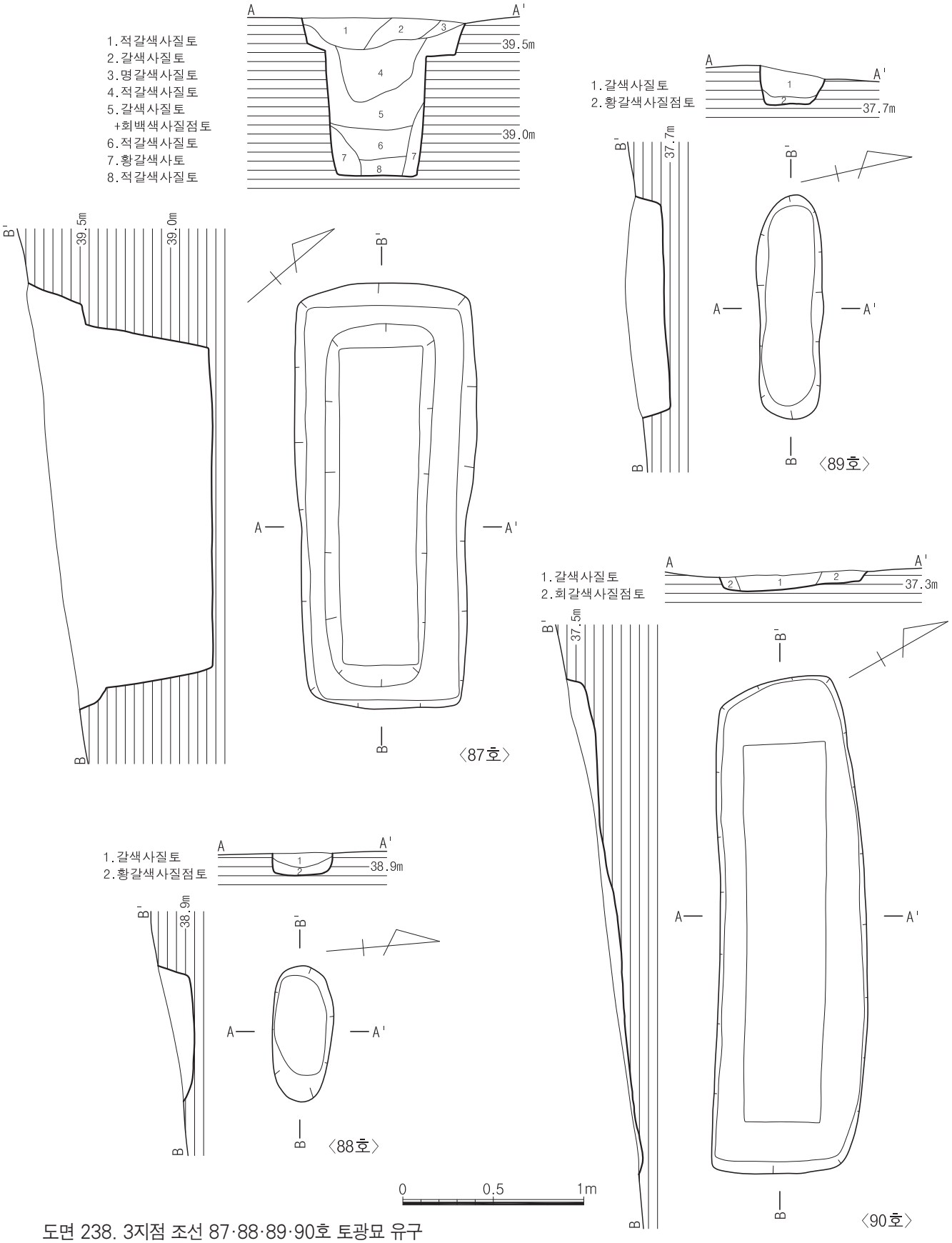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49×40×30㎝(3.73:1)로 토광직장묘이다.

87) 8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8, 사진 325)

87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91호 토광묘, 북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92호 토광묘, 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85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79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토가 우세하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36×91×100㎝(2.51:1), 내광 규모는 188×56×70㎝(3.36: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8. 3지점 조선 87·88·89·90호 토광묘 유구

88) 8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8, 사진 326)

88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북쪽 4m지점에 조선시대 91호 토광묘, 서북쪽 5m지점에 조선시대 87호 토광묘, 동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9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9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5°-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75×33×16㎝(2.27:1)로 토광직장묘이다.

89) 8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8, 사진 326)

8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3m지점에 조선시대 90호 토광묘, 서북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8호 토광묘, 서남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3호 야외노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89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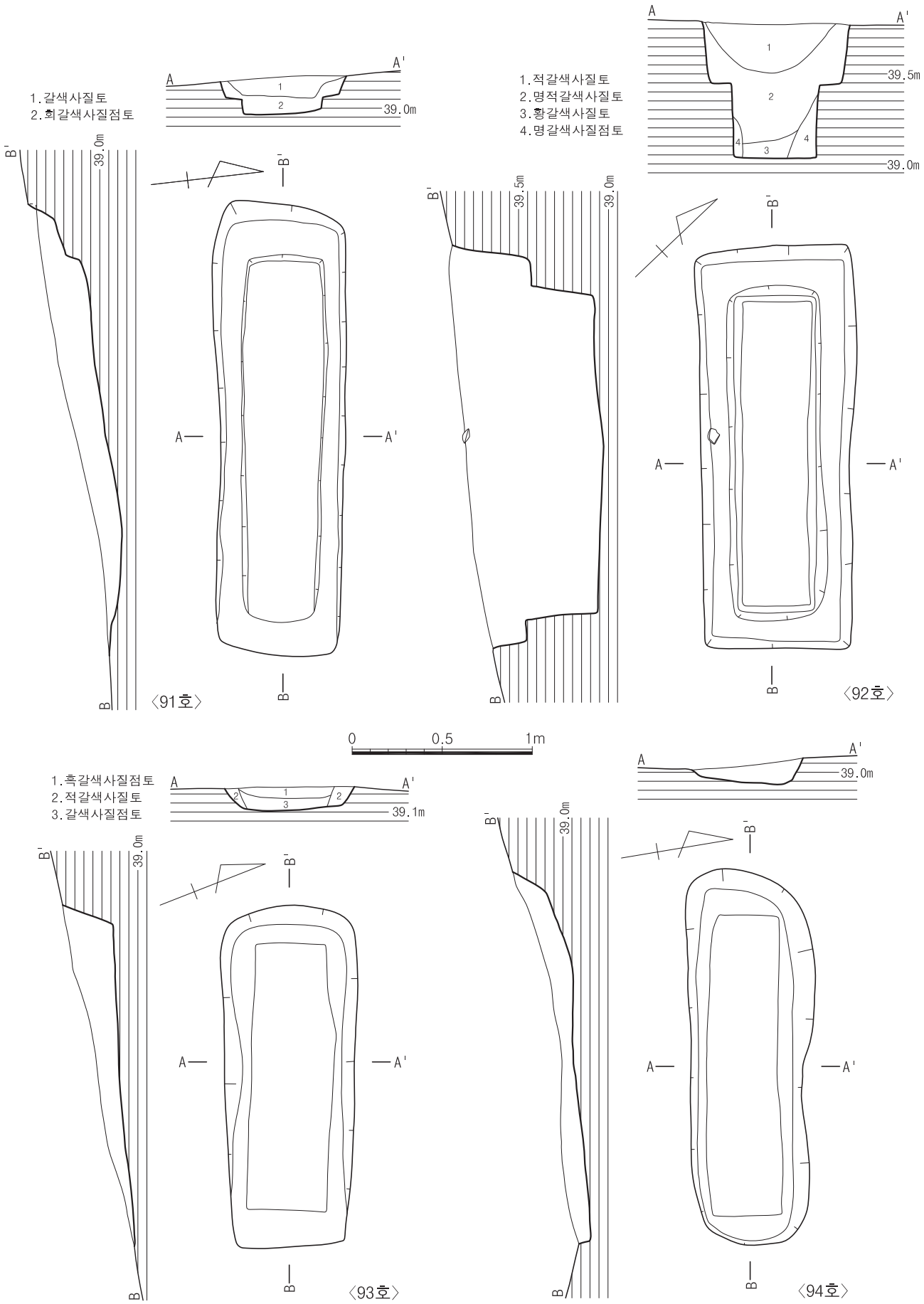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평평하며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7°-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24×36×14㎝(3.44:1)로 토광직장묘이다.

90) 90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8, 사진 327)

90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3m지점에 조선시대 89호 토광묘, 서북쪽 13m지점에 조선시대 88호 토광묘, 서남쪽 17m지점에 조선시대 86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7.55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73×81×8㎝(3.37:1), 목관은 중앙에 배치되었고, 규모는 209×44㎝(4.75:1)로 토광목관묘이다.



도면 239. 3지점 조선 91·92·93·94호 토광묘 유구

91) 91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9, 사진 327)

91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87호 토광묘, 북쪽 2.5m지점에 조선시대 93호 토광묘, 남쪽 4m지점에 조선시대 88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2m이다.

층위는 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3°-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0×70×29㎝(3.57:1), 내광 규모는 204×45×14㎝(4.53:1), 목관은 내광 규모와 동일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92) 92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9, 사진 328)

92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조선시대 93호 토광묘와 연접, 동쪽 5m지점에 조선시대 94호 토광묘, 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9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87m이다.

층위는 적갈색 사질토-명적갈색 사질토-황갈색 사질토-명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6°-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24×82×78㎝(2.49:1), 내광 규모는 186×51×43㎝(3.65:1), 목관 규모는 169×36㎝(4.69:1)로 이단굴광식 토광목관묘이다.

93) 93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9, 사진 328)

93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조선시대 92호 토광묘와 연접, 동쪽 1m지점에 조선시대 94호 토광묘, 남쪽 3m지점에 조선시대 9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42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넓은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2층 적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 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90×72×28㎝(2.64:1), 목관 규모는 158×46㎝(3.43:1)로 토광목관묘이다.

94) 94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39, 사진 329)

94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1m지점에 조선시대 93호 토광묘, 북쪽 12m지점에 조선시대 95호 토광묘, 남동쪽 4m지점에 조선시대 91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28m이다.

층위는 흑갈색 사질토로 단일층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급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사선방향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08×62×18㎝(3.35:1), 목관 규모는 168×40㎝(4.2:1)로 토광목관묘이다.

95) 95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40, 사진 329)

95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쪽 8m지점에 조선시대 96호 토광묘, 남쪽 11m지점에 조선시대 9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9.62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적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4층 적갈색 사질토는 충전토이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부는 어깨선 윤곽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8°-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53×74×13㎝(3.42:1), 목관 규모는 199×39㎝(5.1:1)로 토광목관묘이다.

96) 96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40, 사진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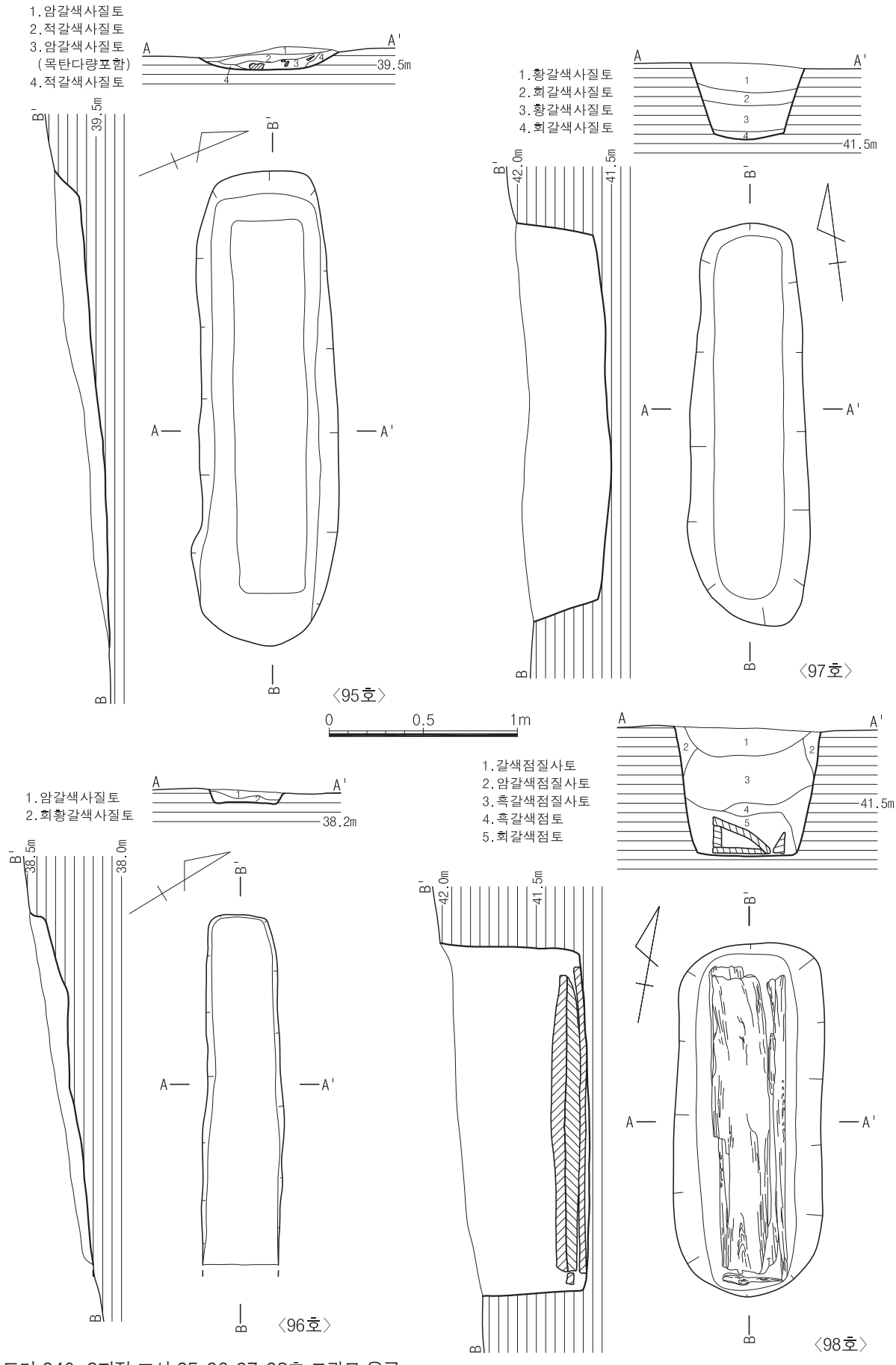
96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서쪽 8m지점에 조선시대 95호 토광묘, 서남쪽 14m지점에 조선시대 94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48m이다.

층위는 암갈색 사질토-회황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위를 보인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단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형태로 보아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9°-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잔존규모는 210×39×7㎝로 토광 직장묘로 보인다.

97) 97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40, 사진 330)

97호 토광묘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남동사면에 위치하며 동쪽 2m지점에 조선시대 98호 토광묘가 자리



도면 240. 3지점 조선 95·96·97·98호 토광묘 유구

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2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회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212×61×41㎝(3.48:1)로 토광목관묘이다.

98) 98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40, 사진 331)

98호 토광묘는 조사지역 북쪽 정상부 남동사면에 위치하며 서쪽 2m지점에 조선시대 97호 토광묘, 동북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70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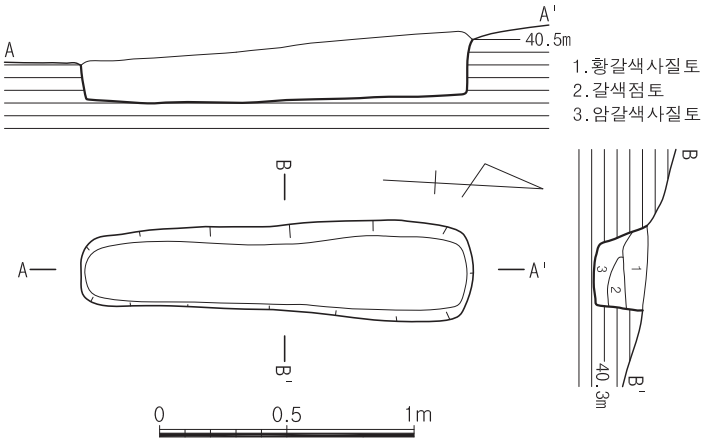
층위는 갈색 점질 사토-암갈색 점질사토-흑갈색 점질사토-흑갈색 점토-회갈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몰로 인하여 'U'자형을 이루고 있다. 5층 회갈색 점토에 관재가 남아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상부 일부만 삭평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88×78×74㎝(2.41:1), 목관 규모는 184×43×17㎝(4.27:1)로 토광목관묘이다.

99) 99호 토광묘

(1) 유구(도면 241, 사진 332)

99호 토광묘는 남쪽 능선 상단부에 위치하며 동북쪽 8m지점에 조선시대 2호 야외노지, 서남쪽 10m지점에 조선시대 83호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40.5m이다.

층위는 황갈색 사질토-갈색 점토-암갈색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으로 안정된 층을 이루고 있다. 잔존상태는 자연지형을 따라 하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중간 이하만 남은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은 암반풍화토를 'L'자형으로 굴광하였으며 묘광 규모는 154×34×21㎝(4.53:1)로 토광직장묘이다.



도면 241. 3지점 조선 99호 토광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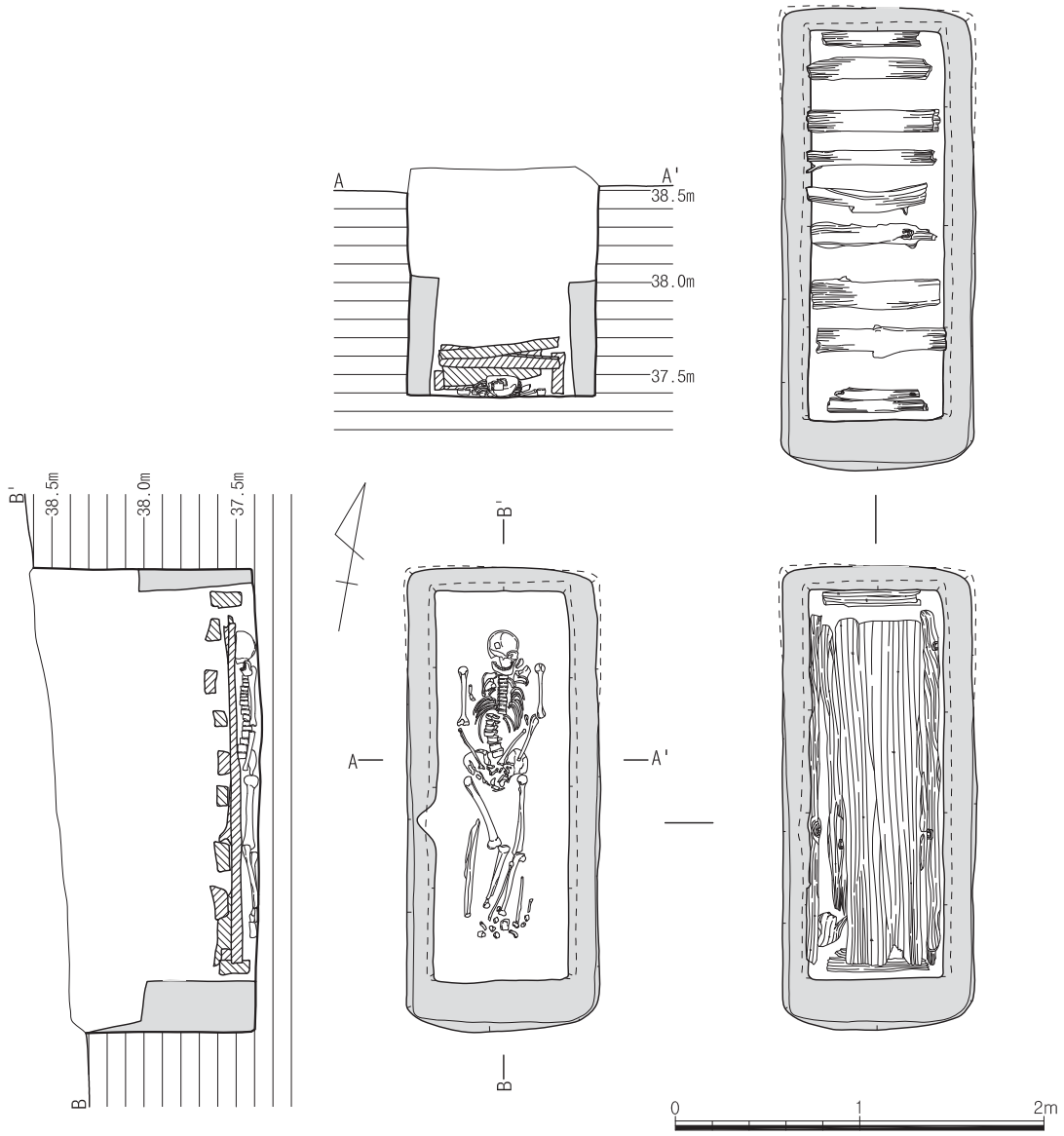
3. 회곽묘

1) 1호 회곽묘

(1) 유구(도면 242, 사진 332)

1호 회곽묘는 남쪽 능선 남동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북서쪽 7m지점에 조선시대 80호 토광묘, 동남쪽 15m지점에 조선시대 81호 토광묘, 서남쪽 14m지점에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38.6m이다.

묘광은 규모 251×104×119㎝(2.41: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어깨선에서 50㎝ 수직으로 내려가 회



도면 242. 3지점 조선 1호 회곽묘 유구

뚜껑을 설치하였다. 내광은 규모 210×71×62㎝(2.96:1)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W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바닥을 제외한 네벽을 바닥까지 60㎝ 하강하여 단벽은 20㎝정도, 장벽은 10~15㎝정도로 회벽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규모 190×45×30㎝(4.22:1)로 안치하였다. 목관 상면에는 9매의 횡대가 남아있다.

인골은 회백색을 띠며 흑색 유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보존상태는 전 부위가 완전히 보존된 양호한 상태이다.

D. 지표수습유물

① 큰밀개(도면 243-13, 사진 333-①)

한 면이 평평한 규암 자갈돌을 이용한 석기이다. 원래의 석재 형태를 잘 활용하여 밀개를 만들었다. 평평한 면을 때림면으로 삼아 잔손질을 하여 둥근 날을 만들었다. 윗면의 능선에는 으스러진 흔적이 남아있는데 모루에 두고 잔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길이 8.0㎝, 너비 8.2㎝, 두께 4.7㎝, 무게 310g

② 무문토기 저부(도면 243-1, 사진 334-⑦)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운모 등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며 기면의 색조는 등색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며,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 외면에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현고 5.6㎝, 저경 10.6㎝

③ 석촉(도면 243-11, 사진 333-②)

암녹회색을 띠는 이암제로 신부 일부가 남아있다. 신부의 단면은 菱形이다. 현길이 3.4㎝, 폭 1.0㎝, 두께 0.5㎝, 무게 2g

④ 석도편(도면 243-12, 사진 333-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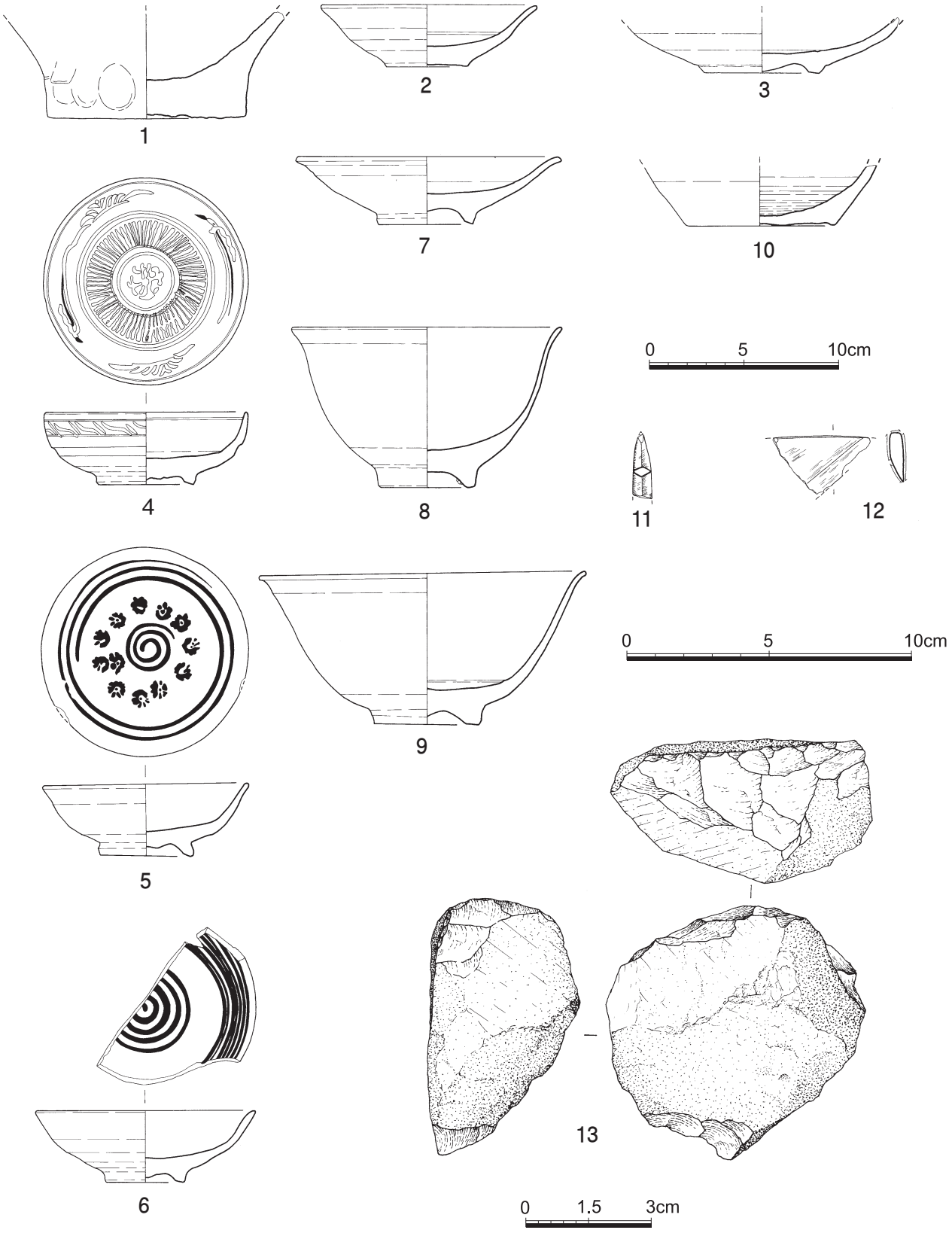
석도의 한쪽 끝부분이 남아있다. 암질은 유문암으로 全面이 마연되었다. 현길이 3.1㎝, 두께 0.7㎝, 무게 14g

⑤ 청자접시(도면 243-2, 사진 333-④)

구연부만 1/3가량 결실되었다. 기벽은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구연으로 이어진다. 굽바닥은 평평하게 깎아냈고, 넓은 안바닥에는 지름 7.5㎝의 원각선을 돌렸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고 치밀한 편이며, 담록색의 투명유가 굽을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나 유약의 융착이 불량하고 산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갈색을 띤다. 고 3.4㎝, 구경 11.5㎝, 저경 4.4㎝

⑥ 고려백자접시 저부(도면 243-3, 사진 333-⑤)

저부가 3/4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쪽을 깊게 깎아냈다. 기벽은 굽에서 넓게 벌어져 곡사선으로 올라가며, 안바닥에는 지름 6.0㎝의 좁은 원각이 돌려져 있다. 회백색의 태토는 정선되고 치밀한 편이며, 유색은 담록색으로 광택은 좋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해 일부에 유약이 뭉쳐있으며 발색도 좋지 못하다. 기외면은 산화로 인해 갈색을 띠며 일부에는 유층이 박락되었다. 기면에 빙렬이 가득하다. 굽접지면과 안쪽



도면 243. 3지점 지표수습유물

으로 내화토가 잔뜩 붙어 있다. 현고 3.0㎝, 저경 6.1㎝

⑦ 분청사기접시(도면 243-4, 사진 334-①)

완형의 분청접시로 기벽은 동중위에서 한번 꺾여 그대로 구연으로 이어진다. 굽은 죽절굽으로 굽안쪽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터짐을 방지하기위해 문질렀다. 넓고 평평한 안바닥에는 중앙에 큰 국화문을 두고 그 주위와 가장자리를 원권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내벽에는 초문과 물오리문양을 4군데에 번갈아 시문하였는데 물오리의 주둥이와 날개부분을 흑상감으로 처리하였고, 구연아래에는 한줄의 원권을 돌리고 백상감하였다. 외벽은 구연아래에 뇌문을 시문하였다. 유색은 녹회색으로 굽안쪽까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는데 시유상태도 양호하고 발색도 좋은 편이나 기면에 잔빙렬이 있다. 안바닥에는 받침을 두지 않았고 접지면에는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3.8㎝, 구경 10.8㎝, 저경 5.1㎝

⑧ 분청사기접시(도면 243-5, 사진 334-②)

완형이다. 기벽은 동체하단에서 한번 꺾여 구연으로 이어진다. 굽은 죽절굽으로 굽안쪽을 깊게 돌려깎아냈다. 안바닥에는 가운데에 회오리문을 두고 그 주위로 국화문을 둘렀으며, 내벽에는 원권문을 두르고 백상감하였는데 백토를 제대로 긁어내지 않아 다소 지저분하다. 유색은 암녹색을 띠는데 광택이 좋은 편으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접지면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3.8㎝, 구경 11.1㎝, 저경 5.1㎝

⑨ 분청사기접시(도면 243-6, 사진 334-③)

전체기형의 1/3가량이 남아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기벽은 곡사선으로 구연까지 이어진다. 안바닥에는 회오리문을 음각하고, 내벽에는 원권문을 둘러 백상감하였다. 태토에는 잡티와 기포가 보이며, 유색은 회색을 띠는데 산화로 인해 광택을 잃었다. 받침흔적은 없다. 고 3.7㎝, 복원구경 11.8㎝, 저경 4.2㎝

⑩ 백자접시(도면 243-7, 사진 334-⑤)

완형이다. 굽은 죽절굽이며,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냈다. 기벽은 굽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안바닥에는 지름 9.8㎝의 원각선이 돌려져 있다. 유색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는데 시유상태도 양호하고 발색도 좋은 편이나 외벽 일부는 용융상태가 다소 불량해 광택이 없고 기포가 보인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3.6㎝, 구경 14.1㎝, 저경 5.2㎝

⑪ 백자대접(도면 243-9, 사진 334-④)

완형이다. 굽은 죽절굽으로 굽안쪽을 둥글게 돌려깎아 가운데가 뾰족하다. 평평한 안바닥에는 굽지름보다 큰 원각이 돌려져 있다. 유색은 연한 회색으로 굽부분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는데 시유상태나 발색이 비교적 고른 편이고 광택도 있다. 안바닥과 접지면에 태토받침탈락흔이 있다. 고 8.0㎝, 구경 17.5㎝, 저경 5.7㎝

⑫ 백자대접(도면 243-8, 사진 334-⑥)

저부는 온전하며 구연과 동체부는 1/4가량이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는데 굽안쪽은 오목하게 깎아냈다. 가늘고 날렵한 기벽에 비해 바닥이 두꺼운 편으로 기벽은 곡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 구연에서 외반한다. 태토는 깨끗하고 치밀한 편인데, 기면은 소성시 산화로 인해 암적갈색을 띤다. 접지면은 흙물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고 안바닥에도 굵은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고 8.6㎝, 복원구경 14.2㎝, 저경 5.2㎝

⑬ 도기 저부(도면 243-10, 사진 334-⑧)

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연질이나 소성상태는 좋은 편으로 태토에는 석영립을 포함한 사립이 소량 섞였으나 정선된 편이다. 기외면은 탁한 황등색(10YR6/4), 내면은 탁한 황색을 띤다. 바닥은 평평하나 바닥과 동체부의 이음새가 매끄럽게 정면되지 못해 가장자리가 약하게 굽을 이루고 있다. 현고 3.2㎝, 저경 8.0㎝

여 백

調査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地區 試 · 發掘調査 報告書-		發行日	2009年 2月 14日
發 刊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硏究院·京畿都市公社		
	住 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 E L	(031) 898-7990	F A X	(031) 898-7991
執筆 · 編輯者	김성태, 이동성, 김진영, 이부성, 이강호, 황원남, 강미숙, 고재용, 김남호, 조지원			
調 査 緣 由	안성 공도 택지개발 사업지구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 · 발굴조사			
調 査 擔 當 者	이동성, 이승원, 이부성, 故이학권, 김진영, 이강호, 이수정, 황원남			
遺 蹟 所 在 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91-1번지 일원			
調 査 面 積	122,804㎡(약 37,148坪)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갱신세층	구석기시대	2개소	격지	
주거지	청동기시대	11기	단도마연토기, 무문토기, 석검, 석촉 등	
	통일신라시대	2기	대부완, 대호 등	
	고려시대	7기	청자, 고려백자 등	
	조선시대	60기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	
수혈	청동기시대	1기	·	
	통일신라시대	3기	·	
	고려시대	2기	·	
	조선시대	2기	·	
	시대미상	2기	·	
굴립주건물지	통일신라시대	6기	·	
주공군	고려시대	1기	청자	
우물	통일신라시대	1기	·	
야외노지	조선시대	10기	·	
소성유구	조선시대	1기	·	
지석묘	청동기시대	1기	·	
석관묘	청동기시대	5기	·	
석곽묘	고려시대	1기	·	
토광묘	초기철기시대	3기	동검, 석촉, 동촉, 철촉,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등	
	고려시대	6기	청자, 동경, 과대금구 등	
	조선시대이후	327기	분청사기, 백자, 청동완 등	
회곽묘	조선시대	11기	·	

여 백

■ 현장조사

- 조　　사 : 이동성, 이승원, 이부성, 故이학권, 김진영, 이강호
- 유구실측 : 이수정, 황원남
- 유구측량 : 한빛토목설계공사
- 행　　정 : 곽대영, 채정민
- 보존처리 : 김웅신, 남성훈, 양석우, 정인경

■ 보 고 서

- 원　　고 : 김성태, 이동성, 김진영, 이부성, 이강호, 황원남, 강미숙, 고재용, 김남호
- 편　　집 : 강미숙, 윤소영
- 유물실측 : 김유진, 박혜정, 문영옥, 이필자, 김영신, 이혜림, 백승실
- 제　　도 : 이현경, 이혜림, 김영신
- 전자도면 : 조지원, 김국환
- 교　　열 : 김성태, 김영화

學術調査報告 第100冊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地區 試·發掘調査 報告書 -

2009年 2月 10日 印刷
2009年 2月 14日 發行
編　輯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硏究院
發　行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硏究院·京畿都市公社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031)898-7990, fax 031)898-7991

印刷處　경인M&B
住　所　水原市 八達區 仁溪洞 1122-11
☏ 031) 231-5520~7, fax 031) 231-5519

(비매품)

여 백

學術調査報告 第100册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安城 孔道 宅地開發 事業地區 試·發掘調査 報告書-